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393)

차 례

# 신 년 사

## 김 일 성

### (1975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승리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희망찬 새해 1975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지난해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킨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대야금기지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입니다.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김책제철소의 대형용광로건설을 완공하였으며 대형련속식소결로와 대형전로를 새로 일떠세웠습니다. 김책제철소의 건설자들과 로동계급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 건설한 대형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첫 쇠물을 뽑아냄으로써 올해의 설명절을 더욱 의의깊게 하였으며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습니다.

야금기지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성진제강소 제3강철직장과 강선제강소 제2강철직장 건설이 완공되여 조업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대형용광로와 대형련속식소결로, 대형전로 그리고 새로운 강철직장들이 완공됨으로써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지난해에 광업부문의 건설자들과 로동계급은 대규모의 무산광산 확장공사와 덕현광산 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서해리광산과 덕성광산을 비롯한 새로운 철광산개발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빨리 늘어나는 쇠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유색금속광산들을 확장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새로운 유색금속광산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유색금속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게 되였습니다.

또한 풍년광산, 영유광산, 대대리광산, 곡산광산, 운산광산, 증산광산, 쌍룡광산을 비롯하여 린회석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린비료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속도전, 전격전을 벌려 많은 탄광들을 개건확장하고 대규모의 새로운 탄광들을 개발하였으며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였습니다.

지난해에 동력기지건설자들은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기백으로 건설을 다그쳐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와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년간조립작업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완수하였습니다.

화학기지건설자들은 화학섬유, 합성수지, 화학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하게 될 대규모의 청년화학종합공장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순천, 청수, 아오지의 비료공장들을 확장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건재기지건설자들과 건재공업부문로동계급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대규모의 순천세멘트공장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2.8세멘트공장과 고무산세멘트공장 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지방건재기지들이 더욱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지난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베아링공장, 소형전자관공장, 소형전동기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기계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대규모의 기계생산기지들이 더욱 보강되였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기계전사들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2,500마력중속엔진과 3,000마력고속엔진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만 4,000톤짜리 짐배, 2,500마력내연기관차, 12만립방메터시대형고압송풍기, 20메터대형선반, 20만크바대형변압기를 비롯한 대형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 경공업기지도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옷공장, 신발공장, 가죽이김공장, 맛내기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이 새로 많이 건설되

였으며 매 도에 현대적곡산공장이 건설되여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군에 옥쌀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자강도 강계시, 희천시, 만포시, 전천군, 성간군에서 1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옥쌀공장을 건설한데 뒤이어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옥쌀공장이 일떠서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인민들에게 질좋은 여러가지 일용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옥쌀, 포도당, 과자, 물엿, 기름을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도시건설과 농촌문화주택건설, 학교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벌려 현대적 살림집과 학교, 문화시설들을 수많이 건설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난해는 온 나라가 사회주의대건설로 들끓고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 싸운 투쟁의 해, 전진의 해, 승리의 해였습니다.

1974년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 건설의 해로 빛나게 기록될것입니다.

지난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공업부문에서 원가를 계획보다 2%나 더 낮추었으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생산을 훨씬 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지난해에 공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였습니다. 성진제강소, 룡성기계공장, 검덕광산, 신창탄광,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난해 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고 6개년계획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영웅적투쟁을 벌려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1974년에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그처럼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700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 앞당겨점령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 많은 나라들이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대풍작을 이룩하여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한것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로동계급과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농촌의 뜨락또르대수를 7만~8만대에 이르게 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지난해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까지 빛나게 완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를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 차례지게 하였습니다. 뜨락또르와 함께 여러가지 련결농기계, 모내는기계, 가을하는기계, 낟알터는기계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발휘하여 례년에 없는 대풍작을 이룩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 우리의 협동농민들과 농촌경리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그리고 모든 농촌지원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앴으며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더욱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1974년에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교육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90%이상 실시되였으며 학교들의 물질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 과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여러가지 중요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나가 예술선전활동을 적극 벌려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지난해에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조국의 영예를 널리 떨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부대의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였으며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켰습니다.

1974년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들은 당의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것입니다.

지난해에 당,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분위기도 또한 좋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는 사업이 널리 진행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가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문화혁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으며 도시와 농촌이 더욱 아름답게 꾸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면서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생활하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온 당,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동지들!

1975년은 우리 당 창건 3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이 되는 이해를 깊은 감회와 커다란 기쁨속에서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이해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이것이 올해의 당의 부름이며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과 온 나라가 드높은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6개년계획의 나머지 주요고지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강철고지, 화학비료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올해에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의 5개 전선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첫째로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수송전선입니다.

사회주의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따라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에 수송능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수송의 긴장성을 결정적으로 풀지 않고서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생산시설들이 제대로 은을 낼수 없고 새로운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으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없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

어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더욱 다그치고 새로 시작한 철도건설을 빨리 끝내며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화물역과 기업소의 구내선들에 상하차시설을 늘이고 짐을 빨리 싣고 부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광석, 석탄을 비롯한 큰 짐들을 집중수송하는 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동차사업소들을 강화하여 가까운 거리 수송을 자동차로 하며 먼거리자동차수송대를 조직하여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상운수와 강하천운수에 힘을 넣으며 우리 나라 배로 대외무역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철도와 자동차, 선박의 련대수송을 강화하며 관수송, 삭도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을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기본건설전선에서는 발전소건설을 앞세워 북창화력발전소 제3계단공사와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건설을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책제철소의 대압연직장, 청년화학종합공장, 순천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그 조업기일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공업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 지금 있는 탄광, 광산들에서 생산을 훨씬 늘이는 한편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적극 개발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유색금속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야금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새로 조업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올해에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와 화학비료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자동차, 뜨락또르와 현대적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3,750톤짜리 고기배와 2만톤짜리, 1만 4,000톤짜리, 5,000톤짜리 무역선박들과 가까운 바다에서 리용할 1,500톤짜리 짐배들을 많이 무어 수송전선과 수산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내부구조를 완비하고 기술혁명에 이바지할 새로운 기계들을 적극 개발하며 기계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을 계속 높이기 위하여 경공업발전에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잘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건설된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부식물가공을 비롯한 식료품가공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는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원료와 자재를 생산에 앞세우는데 있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여 원료와 자재를 생산에 앞세우고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전선에서는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려 올해에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농촌테제에서 내놓은 기술혁명의 과업을 하루빨리 완수하며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여러가지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전선은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전선입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원해어업과 근해어업, 세소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며 물고기가공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물고기와 물고기가공품이 더욱 넉넉히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부문의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지난해에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옳게 총화하고 3대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6개년계획은 기술혁명의 계획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건설의 5개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며 특히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을 가지게 할데 대한 과업을 1~2년안으로 완수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일군들은 교원양성사업을 앞세우고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여 올해안으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나라 주체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열쇠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면서 사상혁명을 계속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혁명적인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전쟁도발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남조선반동들의 파쑈적폭압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새해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올해에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국투쟁이며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올해에 총련조직들과 재일동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련조직들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재일동포들을 총련조직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한층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친우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폭로분쇄하며 조국의 자주

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계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동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제3세계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와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며 신흥세력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대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 ☆

# 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 김 일 성

(자이르공화국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2월 15일)

존경하는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자이르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온 자이르의 귀한 손님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자이르인민혁명운동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자이르 공화국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각하와 부인 그리고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당신들을 통하여 친선적인 자이르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아프리카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이며 자이르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인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께서 이번에 먼길을 떠나 우리 나라에 오신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큰 경사로 됩니다.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사이의 친선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며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사이의 단결과 신흥세력의 단결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 군중대회는 대통령각하 당신에 대한 우리 인민의 높은 존경의 표시로 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의 시위로 됩니다.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는 공동의 립장에 기초하여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자이르인민과 같은 친근한 벗을 가지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오늘 자이르는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의 올바른 령도밑에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새생활창조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는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각하와의 상봉을 통하여 자이르의 쓰라린 과거력사와 현

명승리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보다 커다란 발전전망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자이르가 1960년에 해방을 이룩한 다음에도 5년동안이나 일시적 분렬과 혼란을 겪은것은 다 현대식민주의의 끊임없는 죄악적책동때문이였습니다.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전국의 안정과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자이르인민의 력사에서 힘찬 전진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오늘 자이르정부는 여러가지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개혁들을 실시하여 모든것을 《자이르화》함으로써 민족적특성에 맞게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있습니다.

1973년 11월 자이르정부가 취한 《자이르화》조치에 따라 자이르인민은 자기 나라의 부원에 대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독립을 고수하고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들을 자기 지도자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단결시켜야 합니다.

오늘 자이르인민은 자기의 영용한 지도자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의 《오땅띠씨떼》사상을 가지고있으며 인민혁명운동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립을 지향하여나가는 자이르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자이르공화국은 자기의 독특한 로선과 정책으로 하여 국제적으로도 날로 그 위신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자이르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실현하며 신흥세력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자이르의 현실은 훌륭한 지도자와 당을 가지고있으며 굳게 단결하여 새생활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친선적인 자이르인민이 자기의 존경하는 지도자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하고있으며 앞으로 륭성발전하는 새 자이르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고있습니다.

오늘 자이르땅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변혁과정은 아프리카의 위대한 재생과정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 발전의 기본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실생활을 통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인민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인공적으로 분렬되여있고 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와 3년동안의 전쟁에서 입은 혹심한 상처를 가시면서 새 생활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발전된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더욱 높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기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적파동이 매우 심한 조건에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인민경제전반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공업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였을뿐아니라 농업에서 전례 없는 대풍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 자주로선의 빛나는 승리로서 우리 나라를 고립질식시키려던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이 정치적측면에서뿐아니라 경제적측면에서도 완전히 파산되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조선과 자이르 그리고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에서의 실천적경험은 지난날 압박 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능히 자기 힘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며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대세는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인민의 편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사람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날로 커가는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곧 민족자주력량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이며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민족문제해결에서 결코 매국과 예속의 길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끝까지 애국의 길, 자주의 길로 나감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력사적전환의 과정을 특징짓고있는것은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사이의 끊임없는 격렬한 투쟁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해방투쟁의 세찬 조류에 밀리여 부득이 식민지인민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나 그들의 침략과 략탈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옛지위를 되찾으며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하여 낡은 식민지통치수법에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수법을 배합하여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앞잡이들을 통한 대리전쟁, 파괴전복활동, 경제문화적침투와 같은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세력이 망하고 신흥세력이 장성하는것은 력사의 흐름이며 그 어떠한 힘도 이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확고하게 승리하고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지배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대륙 인민들의 거세찬 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이미 대다수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지금도 련이어 새로운 독립국가들이 탄생하고있습니다.

낡은 식민지소유렬강들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이미 거의다 쫓겨났으며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의 인종주의정권은 안팎으로 거듭되는 타격을 받고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시기 독립을 이룩한 기네—비싸우인민과 독립에 관한 협정을 성취한 모잠비끄, 산토메프린시뻬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독립전야에 있는 앙골라인민의 투쟁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꼬모르, 세이쉘, 베르데갑제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모든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전인류해방위업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위대한 아프리카인민들이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마지막생명선을 끊어버리고 아프리카 전대륙을 완전히 해방할 날은 멀지 않아 오고야말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오늘 아세아에서도 마지막시각을 보내고있습니다.

아세아에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들이 많으며 조선으로부터 중국, 인도지나, 중근동에 이르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이 반제혁명투쟁의 무대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완전히 내쫓고야말것이며 아세아의 장래는 아세아의 주인인 아세아인민들에 의하여 결정되게 될것입니다.

제국주의식민지지배체계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압제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의 정세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할것없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물리치고 그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모든것을 신흥세력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은 제국주의자들의 각개격파전략에 단결의 전략으로 대하고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반제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진보적정당들사이의 련계와 협조를 긴밀히 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지역 나라들가운데는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들의 정당들도 정치적견해가 같지 않을수 있으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데서는 다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성은 사상과 리념이 같지 않은 당들이라 하더라도 능히 서로 단결을 도모할수 있는 기초로 됩니다.

신생독립국가들의 집권당들은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대변하고있으며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생독립국가들과 국가적관계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이 나라들의 집권당들과 당적관계를 가지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국가적관계를 가질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집권당들과도 친선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의 통일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당파들과 모든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며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반제민족해방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다같이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 인종차별을 배격하고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평등과 자주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로 됩니다.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자이르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가 맺어진것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이번 모부투 세세 세꼬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가장 빛나는 기록을 남기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친선적자이르인민과 굳게 손잡고 함께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자이르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모부투 세세 세꼬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자이르공화국 만세!

☆　☆

#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전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력사를 더욱 빛나게 장식할 뜻깊은 1975년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지난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로 더욱 힘있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보람찬 전투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하신 신년사는 우리 조국 청사에 위대한 승리의 해로 길이 빛날 지난해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높은 성과에 대한 자랑찬 총화이며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나머지 주요고지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　　　　　*

지난해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가득찬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킨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따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을 개시하고 이 장엄한 진군속에서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웠으며 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김책제철소의 대형용광로건설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대야금기지, 대동력기지, 대화학공업기지, 건재공업기지, 현대적곡산공장 등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질풍같은 속도로 거연히 일떠세웠으며 여러가지 대형기계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생산에서 대혁신, 대앙양을 이룩하여 주체공업의 위용,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자랑차게 과시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였으며 공업부문에서 생산을 훨씬 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6개년계획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지난해는 농촌경리부문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해였다.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대풍을 마련하여 700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

급과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과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증명하여주었다.

지난해는 또한 우리 인민들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게 하시려고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취하신 력사적조치로 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킨 해로 빛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게 하시였으며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까지 주시는 크나큰 은덕을 베푸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더욱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교육, 과학, 문학예술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대건설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참으로 지난해는 온 나라가 사회주의대건설로 들끓고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싸운 투쟁의 해, 전진의 해,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로 하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우리 나라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1974년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홰불로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는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의 결과이다.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투쟁력사와 불멸할 업적,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이루어지고 빛을 내는것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당과 공화국의 오늘의 권위와 존엄에 대하여서도, 우리 조국의 륭성과 번영에 대하여서도, 우리 인민이 누리는 모든 행복과 영광에 대하여서도 결코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조선이 빛나고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의 대화원을 가꾸시기 위하여 모든 사색과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을 건설의 해로 정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휘황한 전망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공업, 농업 부문의 전국적인 대회, 지역별로 되는 여러가지 모임들을 친히 조직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초부터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여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돋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첫 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설명절의 한때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로동계급과 농민들을 찾으시여 자리를 같이 하시고 나라일을 의논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북방과 동서해안, 벌방지대와 산간지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걸린 문제를 몸소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위한 영웅적위훈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우리 로동계급과 농민들을 끝없이 고무하고 그들이 무비의 힘을 낳게 하였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은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으로 제기하고 그 력사적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고 우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사업과 당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이 비상히 높아졌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위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온 사회가 충성의 대오로 강화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비약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을 《속도전》에로 불러일으켰으며 혁명의 북소리 세차게 울리면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생산과 건설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도록 조직지도하였다. 《속도전》,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로쇠와 침체, 소극과 보수, 기술신비주의가 분쇄되고 패기와 정열,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당중앙은 특히 지난해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전투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70일전투》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70일전투》를 벌릴데 대한 혁명적조치는 6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해인 지난해 계획을 빛나게 총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였다.

당은 지난해계획을 큰 승리로 결속지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70일전투》를 대담하고 령활하게 조직지휘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참으로 지난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들과 위대한 승리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의 빛나는 결실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

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의 자랑찬 과시이다.

*　　　　*

올해 우리앞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위대한 비약을 이룩해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점령해야 할 전투과업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에로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이해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이것이 올해의 당의 부름이며 전투적구호입니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6개년계획의 중요한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할 영광의 해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과업이다.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는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하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선 기본과업인 강철고지, 화학비료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생산수준을 돌파하기 위하여서는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의 5개전선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 구체적정편을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수송전선을 올해에 첫째로 힘을 넣어야 할 전선으로 규정하시였다.

수송전선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의 하나이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지역들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생산직련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더우기 사회주의대건설이 전례없이 빠른속도로 전진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조건에서 수송문제를 푸는것은 절박한 문제로 된다. 수송의 긴장성을 결정적으로 풀어야 이미 건설하여놓은 생산시설들이 제대로 은을 낼수 있고 새로운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송전선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것은 올해 우리앞에 나선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뿐아니라 짐을 빨리 실고부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큰짐을 집중수송하는 방법을 널리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와 자동차, 선박의 련대수송을 강화하며 관수송, 삭도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송의 긴장성을 풀어야 한다.

올해 모든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기본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의 대지우에 로동당시대, 주체시대를 찬연히 빛내이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설물들을 더욱 웅장하게 일떠세워야 하며 공업전선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은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을 비롯하여 야금공업과 화학공업, 기계공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800만톤의 높은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수산전선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고 가공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족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올해 전투목표는 명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휘황찬란하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당창건 30돐까지 앞당기어점령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 올해 전투과업을 당창건 30돐까지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6개년계획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여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는 보람찬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을 통하여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위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힘있게 추진될것이다.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당창건 30돐까지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쳐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시위하는 자랑찬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무한히 동경하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가지오게 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경예로운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이 세가지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여야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해제껼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열쇠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 근로단체조직들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근본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모두

가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6개년계획고지 점령을 위한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들의 심장마다에서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높이 맥박치며 그들이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타게 하는 여기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의지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70일전투》의 돌격전에서 그리하였던것처럼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사소한 리유와 조건타발도 없이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면서 그날 계획은 반드시 그날로 수행하고야마는 주인다운 립장과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6개년계획은 기술혁명의 계획이다.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높은 전진속도를 보장할수 없으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대담하게 통이 크게 기술혁명을 밀고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과의 강한 투쟁을 벌리며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3대기술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는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을 가지게 할데 대한 과업을 1～2년안으로 완수하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올해안으로 완전히 실시하며 우리 나라 주체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적운동이며 투쟁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력사적운동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옳게 총화하고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언제나 위대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당창건 30돐까지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말그대로 《속도전》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질풍같이 내달려 이르는곳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속도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바로세우고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지도사업을 따라세워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패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6개년계획의 높은 봉우리에 빨리 치달아오를수 있다.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이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해당부문의 전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박력있게 내밀어야 하며 행정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주인다운 립장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부문앞에 나선 전투과업을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정확한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수행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며 전투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총화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 일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이 언제나 충성의 정열로 불타게 하고 혁명적기백이 차넘치게 하며 그들을 6개년계획고지점령을 위한 영웅적위훈에로 끊임없이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올해 우리앞에 나선 전투과업은 무겁고도 방대하다.

우리앞에 나선 전투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것이라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가 있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된 불패의 힘이 있는이상 우리는 능히 그것을 훌륭히 수행해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싸워나갈 때 언제나 승리하고야만다는것은 오랜기간의 혁명투쟁행정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확고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지는 만만하며 기세는 충천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전투과업수행을 위한 돌격전에 떨쳐나서는 이 책임적인 시각에 신들메를 든든히 매고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를 세차게 울리며 다시한번 강행군전투를 힘있게 벌려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당의 혁명전사된 영예와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 당이 내세운 전투과업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수행하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림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하자.

# 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일어난 대혁신, 대비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지난해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70일전투》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대비약,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기상,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70일전투》를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 대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차넘치고있으며 《70일전투》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안으로 앞당겨 점령하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릴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자랑찬 성과, 빛나는 총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따라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였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이 전면적으로 발현된 《70일전투》에서는 무엇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70일전투》과제와 년간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산악같이 일떠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기본건설, 공업, 농업, 수송, 수산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대 비약과 전변을 일으켰다. 《70일전투》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김책제철소의 대야금기지, 북창과 서두수의 동력기지, 청년화학종합공장건설을 비롯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시설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사업이 더욱 촉진되였으며 공업생산이 훨씬 늘어나고 대풍이 든 지난해농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특히 채굴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통이 크게 판을 벌려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전격전, 섬멸전을 힘있게 벌려 원료, 연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수송전선에서도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수송수단을 대형화, 중량화, 고속도화하며 집중수송, 전문수송 등 새로운 수송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긴장한 수송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채굴공업, 수송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남에 따라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70일전투》기간 전국적으로 공업생산이 1.7배로 장성하는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류례없이 거창한 규모로, 놀랄만한 속도로 달리온 지난 전투기간 강선제강소, 룡성기계공장, 검덕광산, 신창탄광,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난해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고 6개년계획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생산의 거대한 앙양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공업부문에서 원가를 계획보다 2% 더 낮추었으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생산을 훨씬 늘였다.

총동원, 총진군의 거세찬 열풍을 몰아온 《70일전투》에서는 또한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생산준비를 훌륭히 갖추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지난해과제를 넘쳐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생산준비를 다그쳐왔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새로운 설비들과 선진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굴진과 박토를 앞세워나감으로써 석탄, 광석 생산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을 만가동할수 있는 기술준비를 훌륭히 갖추었으며 원자재를 많이 확보하여놓았다.

《70일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로 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쌓아졌으며 우리 경제의 자립성,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강화되였다.

《70일전투》는 충성의 전투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 당성을 검열하는 투쟁과정이였다.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였던 지난 《70일전투》에서 사람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는 혁명적인 전변이 일어났으며 모두가 다 보수와 소극, 로쇠와 침체를 반대하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심이 높이 발양되였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였다.

지난 전투기간 실천투쟁에서 높이 발양된 우리 근로자들의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빛나는 성과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로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70일전투》에서는 또한 당중앙에서 제시한 위대한 《속도전》에 관한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 그 거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지난해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70일전투》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최단기간안에 질, 량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 돌격전투였다.

이번 전투의 경험은 《속도전》의 본질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그를 힘있게 벌릴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할수 있으며 《속도전》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라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70일전투》의 대승리와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6개년계획을 당

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의 북소리높이 더욱 힘차게 돌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70일전투》의 대승리는 또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그리고 제3세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70일전투》의 승리는 공업이 발전할수록 예비가 점점 적어지며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는 기회주의《리론》의 부당성과 반동성을 전면적으로 폭로분쇄하였으며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증산예비가 많아지며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리론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다시한번 실증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실로 《70일전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하며 사회주의의 영향력과 견인력을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보람찬 투쟁이였다.

## 위대한 령도, 크나큰 배려

《70일전투》에서 이룩된 대승리, 대비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의 결과이다.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앞당겨점령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지난해의 긴장된 계획을 더 큰 승리로 결속지어야 할 결정적시기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70일전투》의 총돌격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대전투를 힘있게 떠밀고나가기 위한 구체적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이 혁명적조치는 지난해계획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게 한 획기적조치였으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에 뛰여오르기 위한 방대한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끼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총돌격전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전투작전을 세웠으며 이 거창한 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을 《70일전투》에로 부른 우리 당중앙의 전투적구호는 삽시에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고동치게 하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의 열풍이 휩쓸게 하였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따라 전국이 대진군, 대혁신으로 밤낮을 이어가며 사회주의건설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일대 혁명적비약의 시기에, 방대한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고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결정적시기에 벌린 《70일전투》의 총돌격전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을 명철하게 포착하시고 제때에 가장 정확한 로선과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여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위대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대중에게 가장 정확한 투쟁구호를 안겨주시고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움직여 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조성된 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주동적으로, 혁명적으로 열어나가시며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시

고 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는 련이어 새로운 높은 고지를 향하여 돌진하도록 이끄시는 수령님과 당의 위대한 령도예술의 산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70일전투》를 하나의 거창한 혁명투쟁으로 보고 직접 당조직들을 힘있게 발동하여 대진투를 승리에로 이끌어나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떠밀고나가기 위하여 당과 국가의 우수한 일군들로 지도력량을 편성하여 중요한 단위들에 파견하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결정적으로 낯을 돌리고 《70일전투》의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폐지)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낯을 돌리고 그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잡고나갈때에만 대중을 힘있게 움직여 모든 사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의 령도력과 전투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모든 경제사업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따라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끊임없이 강화된 결과 《70일전투》행정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의 열도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당중앙은 또한 《70일전투》를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하여 밀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갔다.

당의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70일전투》기간 수천수만의 로동자, 사무원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대전투장에 달려나와 충성의 지원전투를 벌렸으며 많은 물자들이 중심전선의 전투장들에 집중공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중앙은 특히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밀고나가는 기본열쇠가 바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히고 《70일전투》를 대《사상전》으로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11폐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할바없이 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여야 한다. 즉 《사상전》을 적극 벌려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질러 그들의 높은 혁명적자각과 열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바로 여기에 모든 사업의 예비가 있으며 승리의 비결이 있다.

대《사상전》으로 경제건설의 대전투를 밀고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은 바로 력사발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원리를 가장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사상전》은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청춘의 기백과 들끓는 정열을 지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혁명적무기이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사상전》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으며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사대주의, 보신주의 등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이 산산이 날아나게 되였다.

당중앙이 지펴준 대《사상전》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의 사고방식과 일솜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생산예비가 쏟아져나왔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적인 속도가 창조되였다.

《사상전》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모든 부문, 모든 전투단위들에서 더욱 지배적인것으로 되고 일군들속에서 혁명앞에 지닌 당적의무와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현실에 내려가 항일유격대식으로 생산자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사업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중앙은 온갖 선전선동수단들과 형식을 다 동원하여 패기있고 참신한 대경제선동을 통이 크게 전투적으로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새로운 힘과 충천한 기세로 돌격전에로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였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참신한 경제선동이 70일전투장마다에서 힘있게 벌어진결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하부말단까지 철저히 침투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육친적사랑과 크나큰 배려, 당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불태우게 되였다.

참으로 《사상전》을 앞세우면서 강력한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며 전당, 전국, 전민의 지원으로 총돌격전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전투작전은 《70일전투》에서 대비약, 대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가장 현명한 작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은 《70일전투》를 위한 작전을 세워준데 기초하여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진두에서 밀고나갔다.

우리 당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70일전투》에 대한 진행정형을 전반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새로운 방향과 방도를 련이어 제시하여주었으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제때에 세워주었다.

당은 주공방향으로 되는 석탄, 림업, 철도운수부문 련합사회주의경쟁을 무어주고 금속, 광업, 기계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에 만부하를 걸고 련대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부문간, 부문내부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도록 이끌어주었다. 또한 당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동원과 절약을 위한 투쟁이 군중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70일전투》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걸린 고리들이 제때에 쭉쭉 풀려나가게 되였고 생산에서는 계속 기적적인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당중앙에서는 《70일전투》기간 돌격전에 나선 영웅적로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오직 인민의 보다 행복한 래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시는 수령님께서는 《70일전투》의 나날 자강도와 평남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돌격전에 나선 전투원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함께 기뻐하시면

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에서는 《70일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쟁에서 우승한 단위들에 친히 축하문과 뜨거운 사랑이 깃든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모든 전투원들의 건강과 휴식을 념려하시여 살림집들과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친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면서도 언제나 혁명적랑만에 넘쳐 흥겹게 일하였으며 대지를 진감하는 대진군의 발구름소리 높이 충천한 기세로 앞으로만 돌진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는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을 충성의 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킨 힘의 원천이였으며 《70일전투》에서 대승리, 대비약을 이룩하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70일전투》에서의 대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이, 자기 수령에 대한 인화와 같은 충성심을 심장속에 지닌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예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말해준다.

❊ ❊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총돌격, 총진군의 《70일전투》에서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6개년계획을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완수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5개전선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여 총돌격전을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이것이 올해 우리 당의 부름이며 전투적구호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의 《70일전투》에서 떨친 그 용맹, 그 슬기로 달려나가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중앙이 내놓은 《속도전》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남김없이 떨쳐야 하며 주체조선의 의지, 천리마조선의 기백을 더욱 높이 과시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안겨준 《속도전》의 혁명적원칙, 혁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무리나게 해제낌으로써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한다.

올해 대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충실성에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투장마다가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하며 당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임무를 깊이 간직하고 대건설전투의 운전대를 든든히 틀어잡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 대비약과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충성의 강행군전투에서 천리마의 대진군, 《속도전》의 혁명적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은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자.

# 항일유격대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불패의 혁명대오

최 인 덕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과정은 일찌기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신 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안에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가 시작되였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일색화하는 사업이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새 사회를 건설하고 령도하시는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당중앙에서 제시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초소에서 《속도전》의 힘찬 폭풍을 일으키며 충천한 기세로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사람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단결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대단결을 의미하는것이며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를 말하여주는것이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환경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안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 빛나는 모범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언련한 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로 제기하시고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시였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안에 오직 하나의 지도사상이 있어야 당이 건전하게 강화발전될수 있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잘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주요한 원인은**

**공산주의운동대렬이 하나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10~511페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그 초기부터 사상의지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내부가 여러개의 종파로 분렬되여있었다. 종파분자들은 혁명에 대한 그 어떤 정견과 주장도 없이 그저 령도권획득을 위하여 저마다 자파세력을 《정통파》요, 《진짜맑스주의》요 하면서 추악한 파쟁을 일삼아왔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상층부를 차지하고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선혁명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실천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공리공담으로 허송세월하면서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결국 조선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피흘러 싸우는 인민대중의 반일투쟁까지도 분렬에로 밀어넣음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따라서 혁명의 옳은 지도사상과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그 무엇보다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실로 탁월한 혁명의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문제였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인류가 낳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사상의 일색화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먼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 혁명의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상의 일색화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나서야 하며 그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항일유격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가지게 된것은 바로 항일유격대로 하여금 사상의 일색화를 자기의 전투적기치에 뚜렷이 아로새길수 있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당시까지 그 누구도 밝힐수 없었던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여러 천재적로작들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조선혁명의 나아갈 길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혁명의 기치밑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게 되였다.

실로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숭고한 혁명위업을 수행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대오의 일색화를 위한 사상리론적기초를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키워내심으로써 사상의 일색화를 위한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먼저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의 오물로부터 완전히 결별한 생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시였다. 그리고 이들을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가렬한 전투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백절불굴의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키워내는것이 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광복의 위업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할 문제라고 보시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적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고 로동자, 농민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안에서와 유격근거지, 적통치구역 그리고 국내 각지에 공산당조직을 내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에 결속하시고 그들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이룩하며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혁명대오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은 처음부터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그들의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종파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심으로써 혁명대오안에 주체사상과 인연이 없는 잡탕사상이 조금도 배겨낼수 없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보장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혁명대오를 일색화하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수행하게 되였다.

##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빛나는 모범

항일유격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불패의 혁명대오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리를 새롭게 밝혀준 사상이며 사람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류해방의 위대한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내외의 온갖 혁명의 원쑤들로부터 수난많은 조선혁명을 구원한 위대한 사상이며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혁명의 기치이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갈길을 몰라 헤매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혁명대오에 굳게 뭉치게 한것은 바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싸워야 조선이 독립되고 조선혁명이 승리한다는 하나의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혁명의 기치아래에 굳게 결속되였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은 곧 혁명투쟁의 유일한 지도사상이였으며 모든 생활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였다.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항일혁명대오, 그것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상, 자기의 세계관으로 확고히 접수한 혁명가들의 대오였으며 주체사상의 실현을 자기들의 가장 숭고한 임무로 삼고 싸워온 혁명대오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주체사상이 온 대오를 유일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선혁명의 밝은 전도

를 확고히 내다보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반드시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싸울수 있었다. 또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무기도, 식량도, 군복도 다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가지고 적과 싸울수 있었다.

이처럼 항일유격대는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받들고 나아감으로써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는 항일무장대오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선구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혁명대오였다.

수령님을 중심으로 반석같이 다져진 항일유격대의 통일단결, 이것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가장 공고한것이였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였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항일유격대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보장하지 못하였더라면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15년동안이나 계속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410페지)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진정 불패의것으로 되자면 정치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고상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적규대로 굳게 결합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되여야만 혁명투쟁의 간고한 길에서도 생사고락을 같이 할수 있으며 혁명의 수령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옹호보위해나갈수 있다.

항일유격대는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속되였기에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도 한두해도 아닌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적뉴대속에서 살며 싸웠다.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이룩된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바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돌려주신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혁명전사들에 대한 깊고 뜨거운 사랑이 놓여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의 한길에서 싸우는 대원들을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그들을 굳게 믿어주시였으며 대원들에게 불보다 더 뜨거운 육친의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쉰개의 가루봉지에 대한 이야기며 이름없는 한대원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돌려주신 어버이사랑을 놓고도 우리는 혁명전사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고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는가를 가슴깊이 느낄수 있다.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서 활동하는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여 그토록 걱정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리라고 믿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잇닿아있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사령부의 행처를 잃고 그처럼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끝내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길수 있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 이처럼 한없이 고매하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대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보살펴주시였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사랑을 언제나 심장속 깊이 간직하고있었으며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 때마다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아무리 곤난이 중첩되고 설사 혁명의 전도가 아득한것처럼 보이더라도 한없이 자애롭고 영명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으며 죽어도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싸우다 죽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실로 항일혁명선렬

들은 가렬한 전투장에서, 원쑤들의 단두대에서 최후를 마치는 순간에도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싸우다죽는 그 크나큰 영예와 행복을 가슴에 안고 한결같이 수령님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눈을 감았다. 일편단심 수령님을 충성으로 우러러 받들고 수령님을 따르는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절개는 바로 이러하였다. 이것은 진정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사상감정이였으며 이에 기초하고있기에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필승불패의것이였다.

바로 항일유격대가 이처럼 오직 수령님 한분을 믿고 수령님만을 따르는 충성의 대오였기에 불길 만리, 눈보라 수십만리를 헤치며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행로를 자랑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항일유격대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충성의 혁명대오였다.

항일유격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였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혁명의 첫 무장력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오직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임무란 있을수 없었으며 철두철미 충성의 한길을 걸어왔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항일유격대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혁명대오로서의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할수 있었으며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지하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많은 동지들이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여주었습니다. 동지들은 나의 건강을 념려하여 자기들은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나에게는 좁쌀을 구해주느라고 무진 애를 썼으며 온갖 성의를 다하여 나를 보살펴주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가운데는 적들로부터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동지들도 많습니다.》**(우와 같은 책, 4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라면 어렵고 쉬운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심장으로 받아들이였다. 사실상 당시 조건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혁명임무 하나하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투쟁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임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영광으로, 더욱 두터운 신임으로 생각하면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투쟁의 길에서 자기들의 삶의 보람, 투쟁의 보람을 느끼였다. 하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명령, 지시 관철이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라도 어김없이 수행해내고야말았다.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 혁명임무를 앞에 놓고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되며 또 죽는다고 해서 명령을 관철못한 혁명전사가 자기 임무를 다할수 없다. 때문에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조차도 없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지닌 항일혁명전사들의 기본태도와 립장이였으며 투쟁의 구호였다. 이 투쟁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수많은 항일혁명선렬들은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영예를 고이 간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들의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내세우고 전투에서는 물론 행군을 하거나 숙영을 할 때에도 언제나 맨먼저 어버이수령님의 신변의 안전부터 생각하였으며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서 활동할 때에도 오직 수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바쳐 투쟁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현상과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현상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 하더라도 제때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철저히 극복하였다.

1939년 《고난의 행군》시기에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변절자가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헐뜯으려고 책동할 때 일신상에 가해지는 온갖 악형과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견결히 투쟁하심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높으신 권위를 끝까지 고수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한것, 이것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풍모이며 항일혁명대오가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속되였으며 주체사상이 온 대오를 유일적으로,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필승불패의 혁명대오였다는것을 뚜렷이 말하여주는것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대오안에서 사상의 일색화의 빛나는 모범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이루어진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이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만드는것이라고 가르치였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고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수령님께 충성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현상이라도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며 이를 수행하는 전투마당에서 바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발휘되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시대, 혁명의 시대에 태여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혁명의 길에 떨쳐나서 몸바쳐 싸우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 더 큰 긍지는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본받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폭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 전당을 간부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의 필수적요구

현 명 준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혁명적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으며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실현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한층 더 심화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굳게 다져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모든 전선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열과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세월을 주름잡아 힘차게 달려나가면서 날에날마다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인민의 거창한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당대렬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혁명적조치로서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방침은 모든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움으로써 우리의 충성의 혁명대오, 주체의 전투대오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며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전투적무기이다.

이 방침에는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꽃피워나가며 그들을 인류의 휘황한 미래인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가 깃들어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당의 간부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대렬을 충성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혁명적방침

전당을 간부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중요한 전투적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키**

워야 합니다. 우리는 당안에서 모든 간부들을 한급 높은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당원들을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전당의 간부화, 정예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원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주체의 전투부대로 확고히 꾸려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 이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자연, 인간을 개조하여 인류의 찬란한 미래인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새로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온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리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이것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요구하며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높은 창조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닌 무기인 우리 당을 강화하며 당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 조직교양자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만들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회를 개조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이룩하자면 먼저 사회의 선진분자, 군중의 교양자인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꾸려야 하며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의 구성성원인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야 대중을 각성시키고 이끌어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자 한사람이 수백, 수천명의 군중을 각성시켜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생사를 판가리하는 항일의 혈전에로 불러일으켰던것처럼 대중속에서 자기의 조직교양자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면 우리의 전반적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빨리 다그칠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당을 간부화한다는것은 당안에서 모든 간부들을 한급 높은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당원들을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의 간부화는 본질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전당의 간부화는 우리 당을 결코 군중우에 군림하는 당으로 만들자는것이 아니라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군중과 같이 호흡하며 군중을 이끌어 혁명하는 참으로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당원들을 간부의 직위에 올려놓기 위한것이 아니라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선봉대로 만들자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류의 휘황한 미래인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대중을 령도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나가는 가장 숭고한 사명을 지닌 정치조직이다. 당원들은 바로 로동계급의 당의 이 숭고한 리념과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당에 들어오며 자기의 모든것,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투사들이며 군중의 선봉대들이다.

당중앙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우리 당원들이 당에 들어온것은 행세나 하고 세도를 쓰기 위하여 들어온것이 아니라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혁명에 더 충실히 이바지하기 위하여 들어온것이다. 당원이란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군중의

앞장에 서며 남보다 먼저 사선을 헤쳐나가는 혁명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방침은 바로 모든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대중의 능숙한 교양자, 조직자로 되게 하며 대중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방침의 혁명적본질을 명백히 밝혀주심과 함께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질과 자질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간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사람, 당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높은 사상적각오가 되여있으며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혁명과업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와 같은 책, 3페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특질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정수분자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특질을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문제를 명철하게 천명하여주시였으며 우리 당대렬을 주체의 맑고 깨끗한 피가 고동치는 주체형의 혁명적대오로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방침은 전당에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순결하게 차넘치게 하는 당의 유일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혈맥속에 거침없이 흘러줌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더 잘, 더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수령님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이 방침이 힘있게 관철될 때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불패의 위력을 가진, 언제나 청춘의 기백과 활기가 약동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당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도,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간부들의 수준을 한급 높이 끌어올리며 모든 당원들을 간부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은 간부대렬을 강화하는데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전당을 간부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새로 제기되는 간부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며 간부대렬의 신진대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힘있게 관철하는것은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실현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그 어떤 어려운 시련도 이겨내고 제기되는 어떠한 복잡한 혁명임무도 제때에 능숙하게 감당수행할수 있도록 훌륭히 준비시키는것은 당면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는 물론 원쑤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우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실로 전당의 간부화를 실현할데 대한 수령님의 새로운 방침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에 맞게 우리 당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당의 전투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 전당의 간부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

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전당의 간부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전투적과업이다.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수령님의 열렬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몸에 티없이 순결한 주체형의 피가 흐르며 정치적자각이 높고 능력이 있으며 당의 정책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간부의 표징을 가진 사람입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당의 질적공고화는 정치사상적공고화이며 그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지닌 혁명전사로 키울 때 확고히 담보된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혁명의 정수분자는 주체형의 피가 차넘치는 공산주의혁명가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한 사람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첫째가는 혁명적의무이며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할,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인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될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가장 고귀하고 기본적인 품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우리 당의 간부로도, 당원으로도 될수 없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 바로 이런 사람만이 우리 당의 간부로, 혁명의 정수분자로 될수 있는것이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그이의 교시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청신을 지니고 살며 일하도록 그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을 깊이있게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 당대렬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꾸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적단련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학습과 당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집체교양과 개별교양을 옳게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당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당중앙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전당을 간부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기술

문화수준과 실무적자질을 높여야 한다.

당원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투쟁하는 선봉투사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하자면 그들이 군중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치적 열성과 함께 높은 실무적자질을 소유하여야 충실한 일군이 될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훌륭히 전개하여나갈수 있다. 대중을 교양하고 능숙하게 이끌수 있는 실무적자질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잘 수행할수 없고 대중의 모범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과 함께 그들의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군중의 선봉대로서 그들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갈수 있는 지식과 리론을 가지며 자신의 조직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당원은 단순히 남보다 일을 모범적으로 하는데만 만족할수 없다. 당원이라면 모든 일을 모범적으로 할뿐아니라 군중을 당정책집행에 조직동원할줄 알아야 한다.

전당을 간부화하고 당을 질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입니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여야 우리 당 대렬이 튼튼할수 있으며 간부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이 잘 되여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간부가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페지)

간부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의 핵심력량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 집행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에 사업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그것을 조직집행하는 지휘성원인 간부들에게 달려있다. 당의 공고성, 질적수준도 중요하게는 그 골간인 간부대렬의 질적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모든 간부들이 다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그렇지 못하면 성과를 바라기 어렵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간부대렬을 준비된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래야 당을 강화하는 사업도, 모든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한계단 높여 전당의 간부화를 실현하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간부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꾸린다는것은 곧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사람들로 꾸린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당 간부들의 첫째가는 표징이다. 이것이 없이는 혁명의 정수분자로 될수 없고 당의 간부로 될수 없다.

이와 함께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그들속에서 관료화를 반대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립장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간부들의 관료화는 집권당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문제이다. 간부는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충복이다. 틀을 차리고 행세를 하고 세도를 쓰며 아래일군들과 군중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내리누르며 특혜나 받기 좋아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낡은 착취사회의 관료배들의 사고방식이며 행동이다.

모든 간부들은 지난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였던것처럼 언제나 대중과 한몸이 되여 대중속에서 살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대중의 친근한 교양자로, 능숙한 조직자로 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은 전사들과 한가마의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였으며 전투를 비롯한 모든 어려운 일들에서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섰다.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그대로 몸땅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준비할수 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 전당의 간부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고 깊이있게 진개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조직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당원들에 대한 당조직생활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힘을 돌리고있으며 오늘 당원들의 당생활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모든 당원들은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당조직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더욱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당생활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해서만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조직생활은 당원에게 있어서 조직성이 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게 하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당조직생활을 소홀히 하고 당적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머리에 녹이 쓸고 각종 병균의 침습을 받아 병이 생기게 되며 나중에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될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언제나 당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당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누구나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통제방법이다.

모든 당원들은 누구나 한두끼의 끼니는 건늘수 있어도 당생활은 한시도 중단할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혁명적인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방침을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충성의 대오로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나가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과 당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의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힘있게 관철하여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나가야 한다.

# 당이 근로단체를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대중지도의 근본원칙

김 윤 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에서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벅찬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력사적진군을 더욱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지도적지침이다.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비당원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본래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전통적인 대중지도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를 심오히 분석통찰하시고 대중지도의 이 근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당사업과 근로단체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군중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 수행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야 한다.

## 1

당이 근로단체를 통하여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혁명력량편성의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2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이 혼자서는 절대로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은 오직 많은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건설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며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책임지며 그 주인이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새 력사를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운동에 참가하여 스스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지 못한 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큰 역할을 할수 없으며 새력사의 진정한 창조자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의식화되고 조직화될 때에만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대한 힘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대렬

을 강화하는 한편 언제나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혁명화하여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워야 한다.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문제는 특히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총적임무로, 항구적인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장엄한 력사적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나아가는 력사적 위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수행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인것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이며 바로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킬 때만이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사업도 성과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결국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반석같이 꾸리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다. 온 사회에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만이 전일적으로 순결하게 차넘치게 하기 위한 이 숭고한 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운다는것은 군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들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많이 보다 튼튼히 묶어세울수록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들의 대렬은 그만큼 늘어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더욱 힘있게 촉진될것이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문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동원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내외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완수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이와 같이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이에로 비약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있다.

##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지도에서 당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이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대중지도방법입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당이 근로단체를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향도력인 당과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의 호상관계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과 근로단체는 복숭아의 씨와 살과의 관계와 같은 호상관계에 놓여있다. 복숭아가 잘 크고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있게 여무는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해야 당의 두리에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당을 힘있

는전투적조직으로 만들수 있다. 만일 당이 광범한 군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지 못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마치 머리만 있고 살이 없는 사람과 같이 힘있는 당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

당과 근로단체의 이러한 호상관계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의 당의 령도적지위 그리고 근로단체들의 위치와 역할과 관련된다.

당은 로동계급의 모든 조직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로서 당에는 오직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인 사람들, 혁명의 정수분자들만이 들어올수 있다.

그러므로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자면 당의 전투력과 선봉적역할을 높이는 한편 당밖에 있는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고있는 근로단체와 같은 위력한 대중조직을 가져야 한다. 근로단체들이 발동되여 비당원군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일떠세워야만 당은 인민대중을 자기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근로단체조직들을 내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은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입니다. 비당원군중을 혁명화하여 당의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근로단체들의 본신임무이며 첫째가는 혁명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중과의 사업은 근로단체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의 본신임무이며 책임적인 과업이다.

만일 근로단체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다면 근로단체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것으로 되며 군중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이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자면 응당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잘 지도하고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당이 군중과의 사업을 직접 도맡아한다면 당의 령도적기능이 약화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될뿐아니라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은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게 된다.

당이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이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군중교양사업의 특성과 관련된다.

군중과의 사업이란 본질에 있어서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광범한 군중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군중과의 사업은 결국 군중을 교양개조하고 의식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이며 이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은 사회제도를 개조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1페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수천년동안 내려오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변시키는 심각하고도 어려운 사업이다. 사람들의 개변정도는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와는 달리 잘 나타나지도 않으며 눈으로 볼수도 없는것이다.

특히 각이한 준비정도와 특성을 가진 각계각층의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틀에 박힌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풀어나갈수 없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군중을 성과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각이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조적이며 생동한 사상사업을 꾸준하고 참을성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그들을 계층별로 조직에 망라하여 일상적으로 단련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당이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와 같은 군중조직에 적극 의거하여야 한다.

당밖에 있는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은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과 같은 근로단체들에 빠짐없이 망라되여 체계적인 조직생활을 하고있으며 일상적인 사상교양을 받고있다. 사상교양단체인 근로단체들은 동맹원들을 교양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삼고있으며 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중교양사업을 조직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도 생동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러므로 당이 각계각층 군중을 더 잘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자면 사상교양단체인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당이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향도력인 당과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의 호상관계로 보나 군중교양사업의 특성으로 보나 모든 당조직들이 대중지도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본래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타도제국주의동맹,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몸소 조직하시여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화하시여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빛나게 관철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조국광복회를 비롯하여 로동자협회, 농민협회, 공청, 부녀회 등 혁명적인 대중조직들을 내오시고 그 역할을 높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아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지하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조건에서 당조직들은 비밀리에 사업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게 하고 모든 군중사업을 다 대중조직들을 통하여 진행하시였으며 이 행정에 대중조직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대중지도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이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에도 일관하게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할데 대한 혁명적인 원칙을 밝히심으로써 당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 혁명적인 원칙을 밝혀주심으로써 근로단체들이 자립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높여 당을 더욱 믿음직하게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 잘 관철해나갈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은 각계각층 군중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움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다.

##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이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할데 대한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당적지도의 과업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일군들이 행정경제깜빠니야에만 매여달리지 않고 자기의 본신사업에 전심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하며 근로단체들이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조직들이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등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본신사업에 전심하도록 지도하는것이다.

근로단체들의 본신사업은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그들을 적극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근로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동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한층 심화시켜 전동맹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전동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동맹원들을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단체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과업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모든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동맹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등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정력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교양과 함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동맹원들을 혁명화하며 전동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다그쳐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조직생활체계는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으며 동맹원들의 혁명화를 다그쳐나가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수단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근로단체들이 새로운 조직생활체계에 적극 의거하여 동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조직사상사업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마다에서 《속도전》의 불길,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도록 지도함으로써 동맹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한 총돌격전의 앞장에 서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본신사업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 자립적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근로단체들을 군중과의 사업에 적극 내세우며 근로단체들에 일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 수행 방향과 방**

도를 똑똑히 가르쳐주며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근로단체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 자립성을 높여주는것은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적요구이다. 자립성은 근로단체들의 책임성과 능동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근로단체들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근로단체들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이 근로단체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군중과의 사업에서 근로단체들을 적극 내세우고 일을 대담하게 맡길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단체의 자립성을 높일수 있다.

당위원회들은 당일군들에게 당과 근로단체의 호상관계를 똑똑히 알려주고 근로단체사업이 곧 우리 당의 사업이며 근로단체를 강화하는것이 우리 당을 강화하는 길이라는것을 똑바로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당일군들속에서 근로단체를 홀시하거나 그들의 사업을 가로맡아하는것과 같은 일부 그릇된 관점과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을 적극 내세우고 일을 대담하게 맡기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에 사업방향과 제기된 과업의 수행방도를 제시해주는것은 당조직들의 향도적기능에서 첫째가는 요구이다.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에 사업방향을 옳게 주어야 외곽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그들의 조직된 력량을 당의 유일한 목적실현에로 집중시킬수 있다.

당조직들은 매 시기 제기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방향과 방도를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똑똑히 주며 근로단체들이 당에서 준 사업방향에 따라 자기 사업을 자립적으로 활기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사업을 제때에 검열총화하는것은 근로단체들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의 활동을 놓장악지도하여야만 그들이 당의 의도대로 옳게 움직일수 있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매 시기 제기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옳바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에서의 사상교양사업정형, 조직생활정형, 위원회운영정형,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등을 놓장악하고 근로단체들이 자기 활동을 옳게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각급 당위원회들은 근로단체들로부터 사업보고를 정상적으로 받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 근로단체들의 활동에서 나타난 편향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고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주며 일군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간부대렬을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모든 근로단체일군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좋은 사람들로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그들을 잘 교양하여 사업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간부들을 통하여 일반맹원들가운데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핵심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개조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새롭게 발전시키신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은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수행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을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김 성 태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세찬 불길로, 천리마대진군의 열풍으로 휩싸여있다.

새해 첫아침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퍼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끓어넘치는 감격과 흥분 속에서 접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또다시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은 불패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사회발전을 떠미는 위대한 추진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속도전》방침의 본질과 역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승리를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속도전》은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가장 위력한 전투적무기

《속도전》은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당중앙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합법칙적요구를 명철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속도전》의 위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인민은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왔으며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멀리 전진하였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전개되는 행정에서 우리 나라는 1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짐에 따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강화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줄어들었으며 그 기초우에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공고화되였다.

천리마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 정치도덕적 풍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 숭고한 혁명가적품성이 꽃피게 되였으며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전투적으로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혁명적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운동을 전개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경제관계와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풍모가 크게 달라진 결과 공산주의의 밝은 래일을 향하여 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객관적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였다.

한편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무거운 임무는 달리는 천리마에 새롭게 박차를 가하여 우리의 진군속도를 더욱더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대건설위업의 실현을 힘차게 다그쳐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공업강국에로 올려세우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악당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물리치면서 이 벅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거창한 과업, 어렵고도 방대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자면 일찌기 없었던 높은 속도,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새로운 기적적인 속도로 내달려야 류례없이 웅대한 대건설의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로 치달아올라갈수 있으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빛나게 이룩할수 있다. 또한 온 세상에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세계사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는것은 우리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력사적과제로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천리마운동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이 요구는 당중앙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당중앙에서는 우선 문학예술부문에서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속도전》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당중앙은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속도전》의 이 모범을 경제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일반화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당중앙이 내놓은 《속도전》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현실적조건, 사회주의제도가 강화발전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력사적조건에서 천리마운동을 빛나게 구현한것이며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를 몽땅 이어받은 새형의 전투형식으로서 천리마운동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고 그 불패의 생활력을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전투적무기이다.

《속도전》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대건설의 구체적조건에서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한것이다. 《속도전》과 천리마운동은 혁명적본질과 사상리론적기초에서 그리고 그 기본요구에 있어서 같은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속도전》은 오늘의 조건에서의 천리마운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를 오늘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여있다. 이 로선**

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

우리는 천리마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심화발전시킬것이며 그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더 다그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페지)

천리마운동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공산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리상의 발현이며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 영웅조선의 혁명적기개의 표현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의 목적과 요구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

《속도전》이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그 불패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더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것은 그것이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부리나케 해제껴나가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새형의 전투형식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전개원칙이며 참된 일본새이기때문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제시된 《속도전》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로운 높은 언덕에 하루빨리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01페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높은 정치적열의,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우리 근로자들의 심장속깊이에서 솟구쳐오르는 불같은 충성심, 이것이 새로운 기적을 낳게 하는 근본요인이며 사회주의대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은 《사상전》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이에 조직지도사업을 적극 안받침하여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집중공세와 섬멸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속도전》방침은 또한 천리마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집단주의정신을 고도로 발양시킬수 있게하는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로동계급의 본질적인 특징의 하나인 집단주의는 새로운 큰 힘을 낳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이다. 모든 사람, 모든 고리들이 밀접히 협력하고 유기적인 련계속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게 될 때 개별적사람들의 힘을 산수적으로 합친것에 비할바 없는 큰 힘이 생겨난다.

지도일군들도, 생산자들도, 과학자, 기술자들도 또한 생산부문도, 비생산부문도 그리고 공장안의 직장들과 작업반들모두가 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휘하고 련대적혁신을 일으킨다면 물자도, 기술도, 로력예비도 쏟아져나오며 《속도전》의 기본요구인 속도도, 질도 다 같이 높일수 있다.

《속도전》의 방침은 사람과 집단의 힘을 집중시키는 천리마운동의 요구도 최대한으로 심화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있다.

사회의 그 어느 부문에서나 그리고

그 어떤 일에서나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을 자주 중단시키며 힘을 분산시킬 때에는 사람들의 정력과 집단의 힘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전투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오직 사람들의 정력과 온 집단의 힘을 집중시킬 때만이, 그들의 탐구적사색과 창조적활동을 심화발전시킬 때만이 사업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바로 《속도전》에서는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일을 중단시키지 않을뿐아니라 일단 시작한 사업을 짧은 시간안에 끝장을 보게 하기때문에 높은 정력과 힘을 집중적으로 발휘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의 창조적지혜와 집단의 힘을 고도로 발휘시키는 《속도전》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천리마운동의 온갖 특징과 요소들을 그대로 받아안고 활짝 개화발전시키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우리 당에 의한 위대한 《속도전》방침의 제시는 천리마운동을 더욱 패기있게 벌리고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데 있어서 리론실천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속도전》방침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새로운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과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난해 우리 인민은 천리마의 대진군, 《속도전》의 혁명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왔으며 특히 지난해계획수행을 승리적으로 마감짓기 위한 《70일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움으로써 사람들의 상상을 뛰여넘는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위대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에 의하여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남으로써 천리마운동의 요구가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속도도, 질도 다같이 높이는 기적이 창조되고 속도와 질이 언제나 대치된다는 낡은 관점, 낡은 견해가 산산이 깨여져나가고있다.

또한 《속도전》의 혁명적폭풍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개조사업이 훌륭히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속도전》의 치렬한 전투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의 잡귀신들이 날아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신념으로 더욱 확고히 전환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되고있다.

《속도전》의 홰불,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행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점령이 앞당겨지고있으며 공산주의의 루각이 뚜렷한 자태를 나타내면서 거연히 솟아오르고있다.

위대한 《속도전》방침의 제시가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과학적공산주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히 한데 있다.

무엇보다도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 력사상 처음으로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운명이 크게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하여 당중앙에서는 《속도전》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그 해명을 기다리던 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리론,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다.

《속도전》이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라는 사상이 밝혀진 결과 사회주의건설을 심각한 전투과정으로 보고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혁

명적인 관점이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전략전술을 짜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이 튼튼히 의거할수 있는 확고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또한 《속도전》이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 새형의 전투형식이라는 혁명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로선이며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끊임없이 개화발전된다는것이 더욱 명확히 밝혀졌다.

참으로 당중앙에 의한 《속도전》의 위대한 혁명리론의 제시는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을 발전풍부히 하는데 탁월한 기여로 된다.

##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이 내놓은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그것은 《속도전》의 위대한 방침, 이 혁명적인 전투형식을 억세게 틀어쥐고 그 불패의 위력을 더욱 높이 나타내도록 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서 보다 큰 비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에로 돌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일군들이 《속도전》의 일본새를 깊이 체득하지 못하고 일을 철저히 《속도전》의 방법대로 벌리지 못한다면 빨리 달려나갈수 없으며 대건설전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속도전》은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전개원칙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것이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것이다.

《속도전》을 벌리지 않고 늘크데하며 일을 질질 끄는것은 참된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며 결국은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것이다.

우리는 《속도전》의 관철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속도전》의 폭풍을 일으켜야 하며 그 불길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웅적위훈으로써 대건설전투의 나날들을 빛나게 수놓아가야 한다.

《속도전》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와 같은 책, 464페지)

《사상전》, 이것은 《속도전》의 불길을 높이기 위한 첫째가는 조건이다. 사람들의 사상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기술문제도, 지도문제도, 새로운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수 없다. 오직 사람들속에서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들이 철저히 극복되여야만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일군들이 사업을 옳게 조직지휘할수 있으며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갈수 있다.

《사상전》의 불길을 높여 사람들의 사상을 푸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차

게 진행하여 그들을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속도전》의 세찬 불바람을 일으킬수 있으며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부리나케 훌륭히 해나가도록 하자면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그들속에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속도전》은 혁신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뿌리빼기 위한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통하여서만 힘있게 전개될수 있다.

개인주의와 기관본위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보수와 소극성, 로쇠와 침체 등은 일을 비상히 빨리 해제끼면서도 실속있게 밀고나가야만 하는 《속도전》과는 추호도 량립할수 없다.

《속도전》의 전개를 저애하는 이 온갖 낡고 뒤떨어진 사상요소들을 하루빨리 뿌리빼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만 《속도전》의 전투적기풍을 온 사회에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속도전》방침을 실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끊임없이 이룩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속도전》의 위력은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선진기술이 옳게 결합될 때에 고도로 발휘될수 있다.

오늘 기술혁명분야에서 풀어야 할 초미의 문제는 설비를 현대화, 고속도화하며 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는것이다.

기술혁명령역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을 해결하고 천리마의 진군속도를 계속 다그치려면 수령님의 두터운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명수행에 더 큰 힘을 넣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속도전》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서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고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이다. 온 사회가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한사람과 같이 움직여나가는 우리 사회에서 옳은 조직지도사업이 없이는 천리마운동의 전개도, 《속도전》의 진행도 바랄수 없다.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고리들의 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서 전투조직지도를 잘하는것이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조직지도사업을 잘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빈틈없이 맞물려주어야만 전투조직을 잘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여 전진속도를 끊임없이 다그쳐나갈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속도전》의 불길을 높이고 천리마대고조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생산을 혁신하는 사업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다같이 잘하여야 하며 《속도전》의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천리마운동의 위력을 더욱 꽃피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불길, 《속도전》의 봉화가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투쟁은 인류의 미래인 공산주의의 밝은 아침을 앞당겨오게 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모두다 당중앙이 제시한 위대한 《속도전》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려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힘차게 이룩해나가자.

#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을 위한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

김　　건　　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하신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구체적실정과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앞당기는 기본열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의 혁명적본질과 그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기본로선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그를 보다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진 첫시기부터 조성된 내외의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을 위한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둘째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셋째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습니다.》**(《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 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로선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문

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튼튼히 다지는것은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우리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고 또한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려야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는 원동력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과 함께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조선혁명의 원동력인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체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남조선혁명앞에 제기된 이 절박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혁명투쟁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도와주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민족적의무로 여기고있으며 일관하게 그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 인민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조건에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러므로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세계반동의 원흉들과 싸워이길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4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무엇보다도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그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혁명투쟁의 본질적요구에 부합되는 혁명적방침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주인은 우리 인민자신이며 그 승리를 추동하는 결정적힘도 바로 우리 인민자신이다. 조국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에 의하여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으며 오직 공화국북반부와 남반부의 혁명력량으로 구성되는 우리 인민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적력량이 강해야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이는 어렵고 복잡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갈수 있으며 국제적인 지원도 더욱 효과있게 받을수 있다.

조국통일의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

할데 대한 방침에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기어코 성취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이 담겨져있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해결해나가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을뿐아니라 혁명투쟁의 본질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과학적인 방침이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애국과 매국간의 치렬한 투쟁이며 진보와 반동간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이다. 따라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함이 없이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없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주체적혁명력량을 기본으로 하고 국제혁명력량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장성시키게 함으로써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탁월한 방침이다.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고리이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함으로써 세계혁명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며 그들의 혁명투쟁은 국제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도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한 고리이다. 더우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을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는것만큼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직접 흘러나온것이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와 세계적범위에서 모든 반동세력들을 더욱더 고립약화시키고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거의 30년동안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경험으로 보나 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다른 나라들의 투쟁경험으로 보아도 가장 과학적인 방침이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는 세가지 혁명력량을 다같이 성숙시켜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조성된 유리한 혁명정세도 놓쳐버리고 혁명투쟁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렬된 나라들에서는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이 이미 승리한 지역에서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아직 적들의 강점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전국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공화국북반부혁명력량이 비상히 강화된데서 나타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북반부에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커다란 힘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00페지)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일관한 방침에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꾸려놓았다.

오늘 북반부에서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을 중심으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명령지시라면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님을 중심으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됨으로써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세가 도래하고 조국통일의 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나라의 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앞당겨나갈수 있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된 결과 혁명기지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위력한 물질적담보가 마련되였다. 북반부에 마련된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휩쓴 경제적파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북반부의 경제적위력은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는 물질적담보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밑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위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조국의 방위력은 금성철벽으로 다져졌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어느때나 단매에 처부실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우리의 혁명기지는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력량으로,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북반부에 마련된 혁명기지의 영향하에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되고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남조선혁명력량이 또한 급속히 자라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은 혁명투쟁과정에 일시적인 실패도 여러번 하였고 간고한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남조선인민들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으며 더욱 단련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가혹한 조건에서도 투쟁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하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8페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폭압속에서도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왔다.

그들은 전후시기에만 하여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혁명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리승만괴뢰정권을 무너뜨린 4.19봉기와 그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그리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부대인 통일혁명당을 결성하였다. 통일혁명당의 결성, 이것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강화해나갈수 있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반공》의 간판밑에 인민들을 총칼로 억누르고 탄압하는 조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10월유신》을 조작하고 《비상계엄령》, 《긴급조치》, 《갑호경계령》 등 온갖 폭압조치를 련발하면서 동서고금에 없는 횡포무도한 폭압만행을 감행하는 조건에서도 굴함없이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1973년 10월과 지난해 4월의 반《정부》, 반파쑈민주화투쟁, 요즘 또다시 일떠선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적극적이고도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되고있으며 남조선혁명력량은 어떤 간악한 원쑤라도 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급속히 자라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와 남반부의 주체적인 혁명력량과 함께 국제혁명력량도 날로 강화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한결같이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으며 특히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온갖 예속과 압박을 허용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오늘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은 현시대, 주체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과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특히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매우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주고있다.

1973년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서 우리의 조국통일5대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채택한것, 유엔 제28차총회에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지지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 결의를 채택한것, 또고공화국에서 남조선괴뢰대사관을 쫓아낸것 등 모든 사실들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국제혁명력량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권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나라도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몇개의 반동적인 나라를 내놓고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있으며 지어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를 반대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나라들도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고 우리 나라와 친선관계를 가지려 하고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폭로분쇄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계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동정을 받았다.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벗들의 지지성원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국내외적으로 더욱 곤궁에 몰아넣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더욱더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고있다.

* *

우리 당과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동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나 미일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반동들은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

지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을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거머쥐고 그것을 제놈들의 영원한 군사기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2년에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서약하였으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그 서약을 짓밟아버리고 한편으로는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적극 추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인 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면서 더욱더 매국배족의 길로, 반동의 길로 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우리 조국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엄중한 시기에 처하여있다.

그러나 미일반동들과 남조선반동들이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제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열망하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그들의 투쟁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일관한 방침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혁명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기어코 성취하고야말것이다.

# 주체사상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초

리 석 춘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기치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이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대외정책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실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의 수천년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인민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누리에 떨치며 떳떳한 자주독립국가의 기치밑에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새로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전반적국제정세와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친적은 일찌기 없었다.

세계지도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조선이 오늘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며 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진출하게 된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제관계분야에서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초,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및 방법을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는 위대한 혁명적학설이며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집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주로 자기 나라 인민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커다란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대외정책도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을 작성하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진행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9페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원칙적방향은 물론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방침들도 그 기저에는 주체사상이 놓여있다.

주체사상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초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본질적요구인 자주적립장을 대외관계분야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모든 대외활동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킬수 있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국제주의적의무라고 인정하

고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다.

대외활동을 자주의 원칙에서 혁명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전제로 된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외정책분야에서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정치,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주체사상의 기본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독자성과 자주성을 고수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대외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만약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주성을 잃고 대외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일련의 국제문제들에서 일관성과 원칙성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결국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망쳐버리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진실로 자기 나라의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응당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원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립장을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시대의 국제혁명운동은 매개 나라 당과 로동계급이 대내정책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관계분야에서도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대에는 서로 다른 사회력사적조건에 놓인 지구상의 수억만 피착취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이 혁명투쟁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혁명운동의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되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졌다.

우리 시대는 선행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고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으로는 풀수 없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운동이 주로 구라파의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던 산업자본주의시기나 한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수행되던 지난시기에는 많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아직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할만한 독자적혁명력량으로 자라지 못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운동은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대다수나라에서 모든 혁명투쟁의 전위적부대로 되였다. 매개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할만한 로동계급의 당이 무어졌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각이한 발전단계의 혁명투쟁이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매개 나라 당들은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대외정책을 작성하여야 하며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문제를 어

디까지나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어떤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편향을 범하지 않고 자기 당의 립장을 고수하고 관철하여나갈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우리 당은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과 함께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국제관계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태도,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태도에서도 시종일관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은 국제혁명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되 어디까지나 이런 투쟁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벌리여왔다.

로동계급의 당은 또한 주체사상을 대외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계급적형제들과 전투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고 자주성을 견지하고있기때문에 대외정책에서 가장 철저하게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구현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우리 나라 대외정책의 기저에 놓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27페지)

세계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오랜 투쟁력사를 가진 당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당도 있다. 그러나 모든 당은 완전히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그러한 기초우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

공산당, 로동당들은 모두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련대성에 의하여 국제혁명대오의 동등하고 독자적인 민족부대로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자기 나라 인민들앞에 책임질뿐아니라 세계혁명에 대하여 세계인민앞에 책임진다.

매개 당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환경과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고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적지위를 요구할수 없으며 형제당들사이의 관계에서는 상급과 하급의 관계가 있을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형제나라들이 평등한 립장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발휘하여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형제당, 형제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된다. 모든 당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서로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자주성의 존중, 이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초이다.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독자성을 잃고 다른 당, 다른 나라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것은 형제당, 형제나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아니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며 따라서 국제혁명력량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것이다.

자주성이 강한 공산주의혁명투사들만이 철저한 국제주의전사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언제나 자주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제당, 형제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끝없이 충실하는 산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 통일단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는 조건에서는 모든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우선 자주성을 호상 존중하는 원칙에서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투쟁하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우리 당 대외정책의 철저한 반제적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은 자주성을 구현한 원칙적인 반제반미투쟁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확고한 결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85폐지)

모든 혁명투쟁은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인민들의 모든 혁명투쟁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세계평화를 지킬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리를 야수적으로 짓밟는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인민들은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 진실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이고 자기의 실천활동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할줄 알아야 제국주의를 끝없이 미워하고 숭미사대주의사상과 공미굴종사상, 대미의존사상을 반대하여 가장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성을 잃고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추구한다면 언제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더구나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담보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노예적굴종이 가져다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의 유린자들을 반대하고 참다운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억압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전취할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자주성과 자유와 해방의 불멸의 기치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반제투쟁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탁월한 전략, 반제반미공동행동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 등 반제반미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근본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에 따라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반제반미투쟁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사소한 경향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언제나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왔으며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시종일관 견결히 지지하여왔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 대외정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인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완전히 자주적인 정책으로 될수 있었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련대성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적인 정책으로 될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반제해방위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철저한 반제적인 정책으로 될수 있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대외정책은 혁명적대외정책의 본보기이다.

우리 당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화공존의 5개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 대외정책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숭고한 념원을 반영하고있으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가장 건전하고 공고한 기초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대외정책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제혁명앞에 지닌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대외정책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날을 따라 더욱더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세계인민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인 주체사상에 공감을 표시하고있으며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의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81페지)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대내외정책에 빛나게 구현해나가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바치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며 국제무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신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칭송하면서 주체사상을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 《인류력사에 새시대를 열어놓은 불멸의 해불》이라고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 등 모든 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애독회》 등 여러가지 학술연구소조들이 수많이 무어져 운영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출판보급하고있으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적사업작풍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의 여러 나라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정치가들과 사회활동가들, 청년일군들과 녀성활동가들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만나뵙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물밀듯이 찾아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대외정책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해졌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의 90여개 나라들과 각종 공식적관계를 맺고있으며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경제, 문화적 련계를 가지고 그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승인하고 우리 나라와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희망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때까지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남조선괴뢰들과만 관계를 가지고있던 많은 나라들이 박정희괴뢰도당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주동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길로 나오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회의들에서도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대외정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폭로분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혁명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제3세계청년대회,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지지하여 《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였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다수나라 대표들이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배격하였으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인민에게 맡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모든 사실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대외정책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우리를 지지하는 더 많은 친우들을 가지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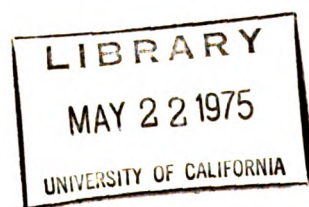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 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제3세계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와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며 신흥세력의 단결을 강화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근 로 자 제1호(루계 39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5년 1월 1일 발행 • 1975년 1월 5일
ㄱ—44031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2 호(394)


차 례

#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 김 일 성

###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5년 1월 15일)

동지들!

1975년 정월초에 열린 이번 농업대회는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입니다.

나는 이번 농업대회에서 우리 나라 력사에 류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한 1974년의 농촌경리부문사업을 총화하고 새 과업을 토의하는 사업에 여러 동무들이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새로운 결의를 다진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973년과 1974년 두해동안에 농촌경리부문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사상적면에서나 문화기술적면에서나 농업생산면에서나 농촌경리의 모든 방면에서 앞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으며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이 2%나 3%만 장성하여도 큰 성과라고 하는데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생산이 30%이상 장성하였으며 일부 개별적협동농장들과 군, 도들에서는 2~3배 장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에서의 이러한 높은 장성속도는 아직 세계력사에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농업생산에서의 이러한 높은 장성속도는 오직 천리마조선에서만 있을수 있으며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만이 이룩할수 있는것입니다.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농업전선을 지원한 로동계급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아주 정확하며 그것을 철저히 실현한다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물론 전반적사 의건설에서 위대한 모범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또한 전 인민이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투쟁한다면 어떠한 리한 기후조건도 이겨낼수 있으며 매우 빨리 전진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승리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여러가지 승리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지난날 농촌경리 문에서 일부 나타났던 결함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고칠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토를 튼튼히 닦아놓은것입니다.

지난 몇해동안 농촌경리부문의 일부 일군들이 자만에 사로잡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농업생산이 오늘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지어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과정에 일부 과오와 결함을 나타낼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타난 과오와 결함을 제때에 알고 그것을 빨리 고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과오와 결함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것을 알고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수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과오와 결함을 모르면 그것을 고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1973년부터 농업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면서 농촌경리부문에서 일부 나타난 결함을 하나하나 찾아냈고 그것을 고칠 방도도 똑똑히 세웠으며 이미 농촌경리부문사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곡 700만톤고지를 점령한것보다 더 귀중한 재부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빨리 전진할수 있고 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떨쳐나서 지난날 농촌경리부문에서 일부 나타났던 결함을 제때에 고치고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를 오늘처럼 높은 발전수준에 올려세운데 대하여 농업전선에서 일하는 모든 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는 전체 로동계급과 기술자, 사무원, 청년학생들 그리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 짬을 내여 농촌을 적극 도와준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각급 당조직들과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은 최근에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조직이 강화되여야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를 당을 적극 옹호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꾸렸습니다.

당중앙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정무원, 농업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경제 기관들과 농업지도기관들도 당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일군들로 꾸렸습니다.

모든 문제는 간부가 결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조직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기관들을 강화하는데서 먼저 간부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사람들로 꾸리도록 하였습니다.

당이 취한 이와 같은 조치의 정당성은 지난 두해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당조직들이 오늘과 같이 당정책집행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될수 없었을것이며 국가, 경제 기관들에 대한 통제적기능도 강화할수 없었을것입니다.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은 다음부터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경제부서들도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였습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세포조직생활을 비롯한 당조직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엄격한 조직규률이 섰으며 학습을 생활화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고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할데 대한 당의 구호도 실속있게 집행되고있습니다.

당의 농업정책도 더잘 관철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만은 대풍이 든 이 성과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과는 당의 로선이 정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당정책이 있어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빈 종이쪼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강한 조직이 있다고 하여도 당의 로선이 정확하지 못하면 좌왕우왕하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 대풍이 든것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이 정당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령도가 정확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우리 당의 로선이야말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앞길을 똑똑히 밝혀주는 가장 옳은 로선이며 우리 당의 로선을 관철해나갈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 길에서 조금도 물러선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당 제5차대회에서 농업을 공업화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문화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과 1974년 두해동안에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의 수리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웠습니다. 대규모의 만풍호를 비롯하여 연탄저수지, 평원저수지들을 새로 건설하고 이르는곳마다에 큰 양수장들을 건설하였으며 밭관개공사를 힘있게 벌려 도시주변 남새밭들의 관수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반년 좀 남짓한 매우 짧은 기간에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대적인 대규모뜨락또르공장으로 개건확장하여 그 생산능력을 10배나 늘였으며 9.25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한 소형뜨

략또르생산기지도 튼튼히 꾸렸습니다. 우리는 2~3년안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를 7~8대, 가까운 앞날에 10~12대씩 차례지게 할수 있는 뜨락또르생산기지를 꾸려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다이야공장과 다이야재생공장들, 뜨락또르부속품공장과 련결농기계공장들도 많이 꾸렸으며 여러가지 농기계생산에 쓰이는 소형엔진생산기지도 꾸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았습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해동안에 평안남도의 증산광산, 대대리광산, 영유광산, 평안북도의 운산광산, 풍년광산, 함경남도의 동암광산 그리고 함경북도의 쌍룡광산과 황해북도의 곡산광산을 비롯한 린회석광산들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자체로 린비료를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미량원소비료생산기지도 많이 꾸려놓았습니다.

순천, 청수, 아오지의 비료공장들을 비롯한 질소비료생산기지들을 확장하였으며 서부지구에 대규모의 새로운 질소비료공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질소비료는 우리 나라에서 쓰고 남을것이며 린비료와 미량원소비료도 자급자족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카리비료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데 이 문제도 잘 투쟁하면 가까운 앞날에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농촌에서 기계화와 화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농업과학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강냉이 1대잡종생산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벼우량품종을 만들어내는데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과학자들은 잘 넘어지지 않고 빨리 익으며 수확이 매우 높은 벼종자들을 연구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록색혁명》의 커다란 성과라고 하는 벼종자들에 비해볼 때 우리 농업과학자들의 연구성과는 세계에 자랑할만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농업과학자들은 남새종자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전국농업대회의 이름으로 농업과학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농민들이 낡은 경험주의에서 벗어나 주체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된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지난날에는 농업부문에서 다른 나라의 농사경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일제때의 낡은 영농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농업생산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적지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철저히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게 농사를 짓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간지대농사에서나 벌방지대

농사에서나, 벼농사에서나 강냉이농사에서나 남새농사에서나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이 경험주의, 보수주의를 없애고 새로운 과학적인 영농방법, 주체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된것은 농업부문에서의 대혁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였으며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여가고있습니다. 협동농장원들은 협동농장의 모든 일에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참가하고있으며 생활을 검절하게 꾸려나가고있습니다.

농민들속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그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농민들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을 배치하고 토양조건에 맞게 시비체계를 과학적으로 세울줄 알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을 다룰줄 알게 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농촌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할 때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와 힘을 합쳐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배우고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투쟁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군지도일군들의 관료주의적이며 주관주의적인 사업작풍도 많이 극복되였습니다. 농촌에 3대혁명소조가 나가기전에는 군지도일군들이 마음대로 뜨락또르를 농사일이 아닌 다른데 돌려썼으며 한창 바쁜 농사철에 농장관리일군들을 불러다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군지도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경험주의와 같은 낡은 사업작풍이 없어지고 농촌사업에 대한 군의 지도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변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이며 이것은 농촌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우리 당의 조치가 매우 정당하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를 파견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온데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당의 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청년인테리들로 무어진 3대혁명소조는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촌에 나가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수주의, 소극성과 같은 오가잡탕의 잡귀신들을 쓸어버렸습니다. 3대혁명소조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

명과 문화혁명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기간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농촌에서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수 없으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농촌테제의 과업을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을 계속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키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당면한 과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농촌경리부문에서 올해에 800만톤의·알곡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업은 능히 실행할수 있는 과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알곡 800만톤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두해동안의 귀중한 투쟁경험이 있으며 투쟁을 통하여 마련하여놓은 튼튼한 정치사상적토대와 물질기술적토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농업생산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는·정치사상적로대를 확고히 마련하여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군들속에서 안일해이한 현상이 없어지고 초급간부들과 모든 지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였습니다.

최근 당중앙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이 내놓은 이 구호가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돌격할 때에는 언제나 대원들의 앞장에 섰으며 퇴각할 때에는 맨뒤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일군들이 당중앙이 내놓은 구호에 따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입니다.

우리 일군들속에는 또한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서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당에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면 그것을 무조건 받아물고 집행하는 기풍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년간에 일군들속에서 당정책을 걸써 대하거나 홍정하려 하는 옳지 못한 경향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린 결과 이런 현상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당중앙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아래로 쭉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중앙과 전체 당원들이 굳게 뭉치있으며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긴밀히 단결되여있

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만을 알고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며 당의 사상으로 한결같이 숨쉬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안에는 이 사람이 아래에 내려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아래에 내려가 저 소리하는것과 같은 현상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 설사 누가 아래에 내려가 당정책과 어긋나는 말을 하더라도 아래에서 그것을 받아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당정책에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인차 당중앙에 보고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합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지난 두해동안에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학습을 강화하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킨 결과에 얻어진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곡 800만톤고지가 아니라 1,000만톤고지도 능히 점령할수 있는 결정적담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니 지난 시기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던 당세도,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비롯한 잡귀신들도 다 없어지게 되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채 무장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세도, 관료주의, 주관주의 같은 잡귀신들이 적지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잡귀신들이 장난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모든 사물을 언제나 밝은 눈으로 살피기때문에 일군들이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쓰고 주관주의를 부리도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상투쟁을 강화하여나간다면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잡귀신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농업생산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농촌지도일군들과 농민들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방법을 알고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민들은 강냉이를 배게 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당에서는 강냉이를 평당 18포기씩 심을것을 요구하였는데 일부 지도일군들과 농민들은 강냉이를 수수처럼 그렇게 배게 심었다가 농사를 망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선뜻 받아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진과학기술을 모르고 보수주의에 사로잡혀있기때문이였습니다.

물론 비료를 많이 주지 못하고 《황색마치종》과 같이 키가 큰 재래종강냉이를 심는 경우에는 배게 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새 강냉이품종이 연구되

여 종자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린비료를 비롯한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가 많이 생산되는 조건에서는 강냉이를 배게 심어야 합니다. 지난해 농사결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강냉이를 평당 18포기씩 심을데 대한 당의 지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잘 집행하지 않던 농촌지도일군들과 농민들도 지난해에 농사를 지어보고서 올해에는 강냉이를 평당 20포기이상씩 심겠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비료치는 방법도 잘 알고있습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협동농장 관리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여러가지 비료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청년인테리들이 농촌에 나가 농민들에게 농업과학기술지식을 널리 가르쳐준 결과 그들이 이제는 누구나 다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비료치는 방법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작물배치도 잘할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난해농사를 통하여 농촌지도일군들과 농민들은 과학기술지식수준을 훨씬 높이게 되였으며 과학기술적으로 농사짓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뿐아니라 협동농장들에 선진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기술인재들이 새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인차 농업대학을 내오고 농업부문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 우리 나라에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기술자들이 수만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지난날 농업대학졸업생들을 잘 배치하지 못하여 농업기술자들이 다른 부문에서 많이 일하였는데 최근에 그들을 다 농업부문에 돌렸기때문에 협동농장들에 농업기술자들의 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 도에 농업대학과 농업과학원 분원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농업부문과학자들은 우리 나라 자연기후조건에 맞고 수확이 높은 새 품종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는 물질적토대도 튼튼히 다련하여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사상적토대와 과학기술적, 물질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올해에 우리가 잘 투쟁하면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능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올해에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강냉이 400억포기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강냉이농사에서 아직 예비가 많습니다. 강냉이를 400억포기 심으면 한포기에서 100그람씩 나는것으로 보아도 400만톤의 강냉이를 생산할수 있으며 한포기에서 120그람씩 나는것으로 보면 480만톤의 강냉이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벼는 지난해에 생산한것으로 보아 올해에 360만~370만톤을 문제없이 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냉이 480만톤을 생산하면 밀, 콩, 감자를 비롯한 잡곡을 내놓고 강냉이와 벼만 하여도 850만톤이 됩니다.

올해 국가계획에 예견된 강냉이밭면적이 68만정보인데 그 가운데서 해발 400메터아래에 있는 밭이 60만정보이고 해발 400메터 넘는곳에 있는 밭이 8만정보입

니다. 해발 400메터아래에 있는 60만정보의 밭에서는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으므로 거기에서만도 강냉이를 400만톤 낼수 있습니다.

올해 강냉이농사에서 특히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큰 힘을 넣으며 고산지대농업에서도 예비를 더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강냉이수확을 높이기 위하여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새로운 1대잡종을 심으며 전군중적운동으로 분토를 생산하여 강냉이 한포기에 200그람씩 줄데 대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에 강냉이를 400만~500만톤은 문제없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북극지방의 얼음산면적이 그전보다 12%나 넓어졌다고 합니다. 얼음산이 커졌기때문에 한랭전선이 우리 나라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지금 북쪽으로부터 한랭전선이 강하게 내리밀고 열대지방의 덥고 습한 바람이 올라오지 못하여 올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고 찬바람이 계속 불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겨울날씨에서 특징적인 삼한사온현상도 변하였습니다.

농사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강냉이영양단지와 벼랭상모를 100% 하여야 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고 올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랭습지를 적극 개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세우면 아무리 기후변동이 심하고 날씨가 차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잘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미량원소비료와 질소, 린, 카리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제때에 농촌에 보내주는것입니다. 올해에 논 정보당 화학비료를 15만톤군에는 질소비료 700키로그람, 린비료 700키로그람씩 공급하며 10만톤군에는 질소비료 650키로그람, 린비료 650키로그람씩 공급하며 8만톤군에는 질소비료 600키로그람, 린비료 600키로그람씩 공급하며 그 나머지 군들에는 질소비료와 린비료를 각각 500키로그람씩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강냉이밭에는 평지대에나 중간지대에나 다같이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광업위원회와 화학공업부에서는 비료를 이 기준에서 공급할수 있도록 비료생산을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과학부문일군들과 농업대학일군들 그리고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강연사업과 실물교육사업을 널리 벌리며 현실에 나가 실천행동으로 농민들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학자들은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낼수 있는 새로운 올종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가물과의 투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올해에 날씨가 몹시 가물것이 예견됩니다. 지금부터 강우기를 많이 만들며 밭에 물도랑을 내고 물웅뎅이를 많이 파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가물때 물웅뎅이의 물을 강우기로 밭에 뿌려 가물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가물었기때문에 지금 저수지들에 물이 많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울과 물도랑에 흐르는 물을 다 잡아 저수지를 채우는 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부식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부식토

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을수 있고 알곡수확을 높일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이 대회가 끝난 다음 돌아가면 인차 부식토생산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릅밥과 잡관목이 많은곳에 부식토공장들을 건설하며 이번에 방식상학에서 보여준대로 협동농장들에서 벼짚, 강냉짚 같은것을 섞여 부식토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려야 합니다.

니탄이 많이 나는 백암지구에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여 니탄으로 영양단지만드는 공장을 하나 크게 건설하며 그밖에 니탄이 많이 나는 다른 지역들에도 이런 공장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논밭들을 잘 정리하면 10만정보의 새땅을 얻어내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 강냉이실수확고가 예상수확고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그것은 밭에 최뚝이 많고 돌이 많아서 강냉이 평당 포기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냉이포기수를 늘일수 있도록 필요없는 최뚝을 없애고 밭에서 돌을 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밭가운데 있는 웅뎅이를 메우고 높은데를 깎아내려 밭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논두렁도 없애고 논배미를 크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랭습지를 개량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합니다.

뜨락또르공장들에서는 해마다 뜨락또르를 경지면적 100정보당 1대씩 더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뜨락또르와 자동차 부속품을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 가을하는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와 련결농기계들을 잘 정비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다 기계화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강냉이영양단지를 옮겨심는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며 모내는 일은 다 기계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를 창안제작하여 기계로 김도 매고 덧비료도 주고 농약도 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전례없는 대풍작을 거두었는데 운수수단이 딸리기때문에 밭에서 곡식을 미처 꺼들이지 못하여 숱한 낟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운수수단문제를 푸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뜨락또르련결차를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 매 뜨락또르에 련결차가 한두대씩 차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청년들이 달구지를 쓰려고 하지 않는데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아직 모자라는 조건에서 달구지도 만들어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매 군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속하는 농촌자동차수송대를 조직하고있는데 이 농촌자동차수송대는 전적으로 비료수송, 알

곡수송, 농촌상품수송을 말아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무원에서는 매달 생산되는 자동차가운데서 《승리58》형 자동차를 500대씩 농촌에 보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 이동식탈곡기도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낟알을 밭에서 꺼들이고 탈곡하는 과정에 잃어버리는것이 몇십만톤씩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곡식을 제때에 꺼들이고 낟알털기를 제대로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좋기는 이동식탈곡기를 많이 만들어주어 밭에서 직접 낟알을 털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래야 낟알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일수 있습니다.

농촌에 가마니짜는기계, 새끼꼬는기계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제대로 다 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을한 다음에 뒤수습을 잘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경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농경지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경지를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합니다. 이미 나간 국토관리법을 검토해보고 부족점이 있으면 보충하여 농경지를 보호하는 법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호전분자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적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계속 강화하고있으며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시각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전쟁준비를 하는데서 농업근로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식량예비를 넉넉히 마련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승리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식량예비를 넉넉히 마련하여놓은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국가에 바친 알곡으로 식량예비를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국가의 식량예비는 수십만톤에 달하였으며 일부 알곡은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식량예비가 많았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수 있었으며 원쑤와 싸워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식량예비를 넉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농업근로자들이 농사를 잘 지었기때문에 국가에서 수십만톤의 식량예비를 저축하여놓았습니다. 올해에 또다시 농사를 잘 지어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면 우리는 100만톤이상의 알곡을 더 저축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수백만톤의 식량예비만 마련하여놓으면 우리 나라는 큰 부자로 되며 어떠한 원쑤와도 싸워 승리할수 있습니다.

모든 농업부문일군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알곡생산을 늘임으로써 더 많은 식량예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식량예비를 넉넉히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알곡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알곡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 알곡을 랑비하는 온갖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한그람의 쌀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연유를 절약하여 연유예비를 넉넉히 마련하는것은 전쟁준비를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유를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기관의 연유공급계통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그것을 질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동농장들에서 뜨락또르를 발동을 건대로 세워두거나 뜨락또르에 적은 짐을 싣고다니면서 연유를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쟁준비를 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전시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농촌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양수기같은것을 돌릴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스발동기나 중유발동기같은것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비료같은것을 자체로 생산하여 쓸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전에 화학공업부 책임일군들에게도 말하였지만 지방들에 1,000톤짜리, 2,000톤짜리, 5,000톤짜리 소형비료공장을 대대적으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공장은 합성탑을 높이 세우지 않아도 되므로 얼마든지 지방들에 많이 꾸릴수 있습니다. 암모니아수를 고체화하기 위한 공정을 꾸리기 어려우면 암모니아수를 그대로 리용하여도 일없습니다. 강냉이농사를 하는데는 암모니아수가 좋습니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도 뚜렷이 밝혀져있고 또 이번 대회과정에도 많이 말하였고 지난해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이야기하였기때문에 오늘은 더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각급 당조직들과 농업부문지도기관들 그리고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이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촌테제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과업들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을 바랍니다.

☆ ☆

#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1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된 전국농업대회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에서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최근년간 농업전선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귀중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시고 올해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더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지난해 농업전선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올해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할 명백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농촌테제의 력사적과업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알곡 800만톤고지점령을 위한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는것은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농업전사로 살며 일하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최근년간 우리 나라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1973년과 1974년 두해동안에 농촌경리부문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사상적면에서나 문화기술적면에서나 농업생산면에서나 농촌경리의 모든 방면에서 앞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으며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위대한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은 1973년에 뒤이어 지난해에 또다시 농업생산에서 류례없는 대풍을 이룩하였으며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에 700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해를 만풍년의 해로 뜻깊게 장식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알곡뿐아니라 남새와 공예작물, 축산과 과수, 잠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생산적앙양이 일어나 나라의 쌀뒤주가 풍만하게 넘쳐나고 풍년노래소리 온 강산에 울려퍼지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이 2~3%만 늘어나도 큰 성과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두해에 걸쳐 해마다 알곡생산이 30%이상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농장원들의 호당 분배몫이 늘어나

생활이 더욱 유족하게 되였고 어버이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농촌 뻐스화, 수도화, 텔레비죤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우리 농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날을 따라 빨리 줄어들고있다.

로동계급과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주체농법이 빛나게 관철되여 농업생산이 새로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그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최근년간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한 승리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농촌사업을 새롭게 추켜세울수 있는 옳은 대책과 방도를 똑똑히 세웠으며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은것이다. 이것은 알곡 700만톤고지를 점령한것보다 더 귀중한 재부이며 농촌테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힘있는 밑천으로 된다.

지난해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의 결실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전반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농촌경리부문의 전반사업을 틀어쥐시고 농업전선의 진두에 서시여 농촌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신 수령님께서는 최근년간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구체적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일련의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당과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사람들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취하신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우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커다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농촌경리부문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으며 농업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당중앙이 가르친대로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농민들속에 들어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해설침투하며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에서 온갖 낡은 사상의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 농촌에 파견하심으로써 농촌의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3대혁명소조원들은 수령님의 친위대, 근위대의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농촌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쓸어버리며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비약이 일어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1974년을 우리나라 농업발전에서 커다란 승리와 비약의 해로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지난해 정초에 전국농업대회를 마련하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가져오기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시였으며 쉬임없는 현지지도로 지난해를 빛나게 수놓아가시면서 농민들을 위대한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면서 남쪽의 벌방지대로부터 멀리 북변의 고산지대, 동해안과 서해안의 이름없는 농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수천수만리의 비탈진 언덕길과 비바람 사나운 진창길을 이어가시면서 잠도 휴식도 미루시고 농촌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으며 농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그 어느 논벌과 강냉이밭, 언덕진 남새밭에도 수령님의 거룩한 발길이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그 어느 농장의 뜨락또르와 자동차에도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지 않은것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몸소 창시하신 과학적인 영농방법, 주체농법을 농민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및 기상기후적 조건에서 언제나 만풍년을 안아올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과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기울이신 심려는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으며 이른새벽 조반도 드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풋강냉이 한이삭으로 점심을 에우시면서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빛나는 자욱은 천만대를 두고도 다 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는 지난해와 같이 그처럼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농업생산력사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지난해 농업전선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또하나의 힘있는 시위로 되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을 전률케 한 무서운 폭탄으로 된다.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됨으로써 우리의 농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보다 풍족해지고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더 불패의 요새로 강화되게 되였다.

사회주의농업전선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는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여주고 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우리 조국의 대지우에서 맺어진 만풍년의 결실을 놓고 신화와 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고있으며 《조선은 세계풍년경기에서 단연 제1위를 하였다.》, 《조선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기적은 오직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을 끝없이 부러워하고있다.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는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해주었으며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

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갈 때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물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모범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어 올해에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여야할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 있다.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로운 전투과업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드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충성의 선물로 된다.

농업전선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영예로운 과업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서 올해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알곡 800만톤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두해동안의 귀중한 투쟁경험이 있으며 투쟁을 통하여 마련하여놓은 튼튼한 정치사상적토대와 물질기술적토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농업생산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가 있으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가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우리앞에 점령하지 못할 요새,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농촌테제와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갈 때 능히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며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 정치사상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와 농촌경리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이며 농업생산실천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높은 인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나가는것은 농업전선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농업생산력사에 류례없는 대풍을 이룩한 지난 두해의 경험은 농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위대한 농촌테제와 농촌경리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

파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하여 모두가 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농촌테제와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의 심오한 사상과 내용, 그 관철방도를 깊이 연구체득하며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사상전》의 불길을 더욱 높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 한편 요령주의, 형식주의, 지방주의, 경험주의와 건성건성 일하거나 태공하는 현상 등 우리의 천리마대진군에 제동기를 거는 온갖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속도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올해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적으로 강냉이 400억포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알곡생산의 거대한 예비는 강냉이농사에 있다. 우리는 올해에 강냉이밭면적을 더 늘이고 평당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여 전국적으로 강냉이 400억포기를 기어이 심어야 한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새로운 1대잡종을 심으며 전군중적운동으로 분토를 생산하여 강냉이 한포기에 200그람씩 줄데 대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강냉이농사에서 다시한번 대비약, 대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기후변동과 관련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극복하는것은 올해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기 위하여서는 강냉이영양단지와 벼랭상모를 100%하여야 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올종자를 심으며 랭습지를 적극 개량하여야 한다.

특히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고 소출을 높일수 있는 질좋은 부식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툭밥, 잡관목이 많은곳에 부식토공장을 건설하며 협동농장들에서는 벼짚, 강냉이짚을 썩여 부식토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니탄이 많이 나는 지역에 니탄으로 영양단지를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여 다른 지역에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물과의 투쟁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토지정리사업을 잘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강우기를 잘 리용하며 밭에 물도랑을 내고 물웅뎅이를 많이 파며 개울과 도랑에 흐르는 물을 다 잡아 저수지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밭최뚝을 없애고 밭에서 돌을 주어내며 밭가운데 있는 웅뎅이를 메우고 높은데는 깎아내려 밭을 평평하게 만들며 논두렁을 없애고 논배미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랭습지를 적극 개량하여 랭해를 미리 막으며 농경지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올해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생산을 적극 기계화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 련결농기계를 잘 정비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다 기계화하여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기계

로 김도 매고 덧비료도 주며 농약도 뿌리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더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며 기술지식보급사업을 널리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수령님의 주체농법, 새로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농촌경리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협동농장에 대한 농업지도기관들의 기업적지도를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농업지도기관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화, 조직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주체적인 과학농법에 기초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부문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며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사업이 답보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 경제선동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리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의 앞장에 서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농촌테제가 밝혀준 광휘로운 빛발아래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다그쳐 올해에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한다.

농촌경리부문 당조직들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 나간 3대혁명소조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온갖 침체하고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농촌에 대한 전당적, 전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에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화학비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은 농업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본생산과제를 앞당겨수행할뿐아니라 계획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뜨락또르, 자동차,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그 부속품들, 화학비료를 더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어야 한다.

오늘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을 더많이 생산하는 한편 온갖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한그람의 쌀, 한방울의 연유라도 더 절약하여 식량과 연유의 예비를 넉넉히 마련하며 전시조건에서도 생산을 보장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올해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모두다 위대한 농촌테제와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연설을 철저히 관철하여 800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림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하자.

# 우리 당사업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기간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련된 전투부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다.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섰으며 당사업전반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에 의하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철통같이 다져졌으며 모든 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마사지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당의 령도적역할과 그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짐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과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으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는 위대한 변혁,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몰라보게 달라지가는 오늘의 기창한 현실,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실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력과 창조적정열에 차넘치고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세련된 전투적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력사적변혁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를 받으며 살며 싸워나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있으며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취하신 획기적인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우리 당은 더욱 참신하고 혈기왕성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조직이 강화되여야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를 당을 적극 옹호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꾸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투쟁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들로 당중앙위원회가 꾸려짐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다.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에 의하여 우리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중앙위원회의 부서들과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일군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지체없이 아래로 쭉쭉 내리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있다.

실로 수령님께서 취하신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사변으로,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으며 이 력사적위업을 진두에서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개시하였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하는 전력사적행정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강령이며 우리 당사업의 총적임무이다.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함으로써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의 휘황한 전모와 거기에로 가는 앞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으며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는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주었다.

당중앙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고 당의 유일사상화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고있다.

이 방침은 모든 당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정수분자로, 우리 당을 주체형의 강력한 전투부대로 만듦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당의 총적임무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비상히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우리 당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과 전당의 간부화방침이 빛나게 관철될 때 우리 당은 사회의 심장으로서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영양소를 더욱 세차게 뿜어줄수 있고 사회와 사람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중앙이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한 온 사회의 일색화위업을 당의 항구적강령으로, 총적임무로 새롭게 밝히고 그에 맞게 당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강화하여나감으로써 당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당사업에서의 새로운 전환,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깊이있게 진행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움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9페지)

우리 당중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의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 현실적요구에 상응하게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심화시킬데 대한 원칙적요구를 제시하고 그것을 힘있게 관철하여나감으로써 이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리였다.

그리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고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이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깊이있게 그리고 진공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당조직생활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는 기풍이 튼튼히 선것을 비롯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의 참다운 정수분자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무조건성, 절대성의 정신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는것, 이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사상정신적풍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 자기의 생을 깡그리 바치며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자기의 최대의 혁명적의무로, 가장 큰 행복으로, 영예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티없이 맑고 순결한 충성심을 지니고 살고 싸워나가는데서 자기의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고있으며 그것을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삼고있다.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의 심장마다가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바로 이것이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인 풍모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더욱 위대하며 우리 사회는 불패의 위력을 나타내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짐에 따라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더욱 철옹성같이 다져졌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였고 온 사회가 하나의 산유기체와도 같이 굳게 결속되였다.

당의 군중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나가고 있으며 그들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 자기들의 찬란한 앞날이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활기에 넘쳐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

체인민의 통일단결이 철통같이 다지짐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며 전진하는 당으로서 영광스러운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잡사상도 모르는 가장 순결한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단결된 위대한 당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과 같은 력사적위업을 선두에서 힘있게 실현하여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혁명적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전당, 전국, 전군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가 더욱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철저히 실현됨으로써 수령님과 당중앙의 명령과 지시가 거침없이 아래에 쭉쭉 내려가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튼튼히 서게 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이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오직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만을 알고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며 모든것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재보고 그와 어긋날 때에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높은 혁명적원칙성과 기풍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또한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과 사업환경에 맞게 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2페지)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그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빨리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당사업, 당활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 더욱 힘있게 복무하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당사업체계가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을 지도통제하며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체계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당사업에서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실속있게 도와주는 체계가 확고히 선 결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때에 하부말단까지 빨리 침투되게 되였으며 그것이 더 훌륭히 관철되여나가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들속에서 혁명적자각과 창조적열의가 높아짐으로써 사람들의 일솜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업방법이 낡은 형식주의의 틀과 재래식방법에서 벗어나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으로 전환되였다.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마스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으로 전환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의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이다.

낡은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태여나고 세련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이 확고히 서게 됨에 따라 당사업에서 격식과 틀이 전면적으로 마사지고 당사업이 산 사람과의 참신한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되였다.

우리 일군들은 당중앙이 내놓은 《생

사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받들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이 더욱 실속있게 벌어지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모든 일을 패기있게 해제끼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높아졌다.

일군들속에서 당세도, 관료주의가 없어지고 소탈하고 겸손한 품성이 높이 발양되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풍이 더욱 발휘되고있다.

이처럼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힘있게 움직이는 참신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작풍,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창조적열정, 청춘의 기백이 전당과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으며 우리 당은 계속 전진, 계속 투쟁하는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경제문화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한데 대하여》, 19페지)

사회주의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의 성과는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당적지도가 옳게 보장되여야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경제문화건설을 잘해나갈수 있다.

당중앙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문화건설에 낯을 돌리고 당적지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데 대한 혁명적방침과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중앙이 밝혀준 혁명적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의 환경에서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경제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요구는 당이 발동을 잘 걸어 '행정경제기관이라는 기계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게 하는것이다.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경제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진 결과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그이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원칙과 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힘있게 관철되고있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변혁과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경제건설의 높은 성과의 비결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있는만큼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모든 분야에서 《사상전》의 불길을 일으키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사상전》이 불길이 세차게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산산이 날아나고 인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이 담벽을 밀고나가라고 해도 서슴없이 밀고나가는 높은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들에서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경제선동이 또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제선동은 군중을 당정책집행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대중정치사업방법이다.

지난 《70일전투》에서처럼 집중적인 선동공세, 경제선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당의 목소리가 나라의 건설장마다에 세차게 울려퍼지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충성의 열정이 끓어번지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집단적혁신과 영웅적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탁월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 당사업에서는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인민은 하나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요구하는대로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능숙하게 개조해나가며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선두에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우리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의 거창한 현실, 사람들을 그처럼 격동시키는 창조적변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백으로,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전개력으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고있으며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정책과 방침들이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힘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참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혁명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는것이다.

실로 당중앙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지도밑에 우리 당은 청춘의 기백과 활기에 넘쳐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기운차게 떠밀고있으며 주체형의 당으로 그 찬연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리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당우에 청춘의 활기와 창조적정열이 차넘치게 하고 끊임없는 변혁과 기적을 마련하여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를 받으며 혁명하는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소리높이 자랑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천만대를 두고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당중앙에 최대의 영광을 보내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끝까지 싸워나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끝없이 충성다하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모두다 당중앙이 제시한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예를 안고 올해 10월 10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고지마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림으로써 우리 당 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자.

#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공산주의강령

전 순 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철저히 준비되고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되여나감으로써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가 성과있게 점령되여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위업이 힘차게 앞당겨지고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남김없이 확증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숭고한 사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위대한 공산주의강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은 우리 혁명 발전의 주객관적조건과 공산주의건설의 전망적요구를 심오히 분석통찰한데 기초하여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를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놓았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강령이며 우리 당사업의 총적임무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으로 되는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 온 사회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건설하려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물론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으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아니라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해명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

상은 또한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편향없이 곧바로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전략전술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그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과정은 일찌기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안에서의 사상의 일색화가 시작되였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수령님의 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일색화하는 사업이 개시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우리의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이 시작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놓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상의 일색화과정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였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사회발전의 모든 주객관적조건과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방침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을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위대한 사상, 혁명과 건설의 옳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사상의 일색화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여야 하며 또한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하나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과 같은 위대한 력사적위업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사상의 일색화를 당의 구호로 제기하고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으며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할수 있는 전제인 사회경제적조건, 물질적조건이 완전히 성숙되여있으며 또한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주객관적조건과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당의 항구적강령으로 제시하였다.

당중앙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내놓으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과업들도 휘황히 밝혀주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려면 그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의 사상체

**계를 확고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9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철통같은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도,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개조하는 사업도 다 성과적으로 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삼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것을 다바치는 끝없는 충실성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오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며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고 혁명대렬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하도록 하며 모든 사람들이 전쟁관점을 바로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들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은 간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교양하는것이다. 간부들부터 먼저 혁명화하고 그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여야만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혁명화할수 있고 지도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성과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숭고한 위업을 실현하자면 사람들을 주체형의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는것이다.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조직지도사업을 이에 안받침하여야 한다.

《속도전》은 《사상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며 특히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증명된 경제선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담보는 우리 당을 더욱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하며 당사업,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는것이다.

우리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도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선전선동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힘차게 벌려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가 하부말단에까지 철저히 침투되도록 하며 모든 일군들속에서 로쇠현상을 극복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며 특히 당사업전반에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하는것이다.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발전시키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영원히 빛날 위대한 전투적구호로 된다. 이 구호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밑에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강령이며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인류발전력사는 아직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근로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킨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다.

당중앙에 의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위대한 강령이 제시된것은 참으로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에서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의 새시대를 알리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가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이며 가장 위대한 강령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인류사회의 최고단계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확신성있게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날에 대한 전망이 휘황찬란하고 투쟁목표가 뚜렷하여야 인민들이 그것을 하루빨리 앞당겨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24페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목표와 그 진군로를 뚜렷이 밝혀준 휘황한 등대이며 완성된 과학적설계도이다. 이 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면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공산주의에로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적구상을 실생활에서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은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리론을 발전시키는데서 실로 탁월한 기여로 되는 불멸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진정한 강령을 처음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준데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당의 강령을 일반적으로 공산주의건설로만 인식하여왔다. 그러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의 강령은 바로 사상의 일색화에 의한 공산

주의건설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명백하게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가 제시됨으로써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고 공산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또한 새롭게 밝혀졌다.

공산주의자의 징표를 밝히는것은 두 요새를 점령하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에 의하여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징표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것이 철저히 해명되였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을 밝히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에 의하여 《속도전》방침이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새롭게 정식화되였으며 하나의 정연한 과학적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발전완성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속도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과의 호상관계도 명확히 밝혀졌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의 본질적내용과 성격을 더욱 명백하게 하였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에 의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것이 사람과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개조하는 투쟁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한것으로서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또한 그것이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성격과 사명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준데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이 더욱 뚜렷하게 되였다.

참으로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는 로동계급의 당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강령이며 전투적기치이다.

## 불패의 생활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진군이 힘차게 진행되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우리는 벌써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인류의 앞장에서 공산주의의 새봄을 새롭게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철저히 준비되여가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몸에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의 정수분자로 빨리 자라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립장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유일한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하고있다. 특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고결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억세게 투쟁하며 생활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온 사회에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이 꽉 들어차게 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통일과 단결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합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세워졌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특히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일본새로부터 경제와 문화, 생활양식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지금 근로대중속에서는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높아짐으로써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는 주인다운 태도가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으며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해내려는 혁명적기풍이 고도로 발휘되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대중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의 찬란한 승리를 향하여 다같이 힘차게 달려나아가려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풍모인 높은 사상성과 강한 혁명적조직성이 더욱 빨리 자라나고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사회가 대단결되여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힘차게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참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이다.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적강령에 따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는 행정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남으로써 나라의 위력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히 강화된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이 개시되였다. 온 나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면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으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속에서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제가 훨씬 앞당겨수행되고있고 휘황한 10대경제건설목표점령을 위한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고있으며 나라의 생산력이 류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지난해 우리 나라 공업부문에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일미서고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최신기술로 개건확장되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공업부문앞에 내세운 강령적

과업을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 공업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공업생산은 더욱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다. 특히 지난해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700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였다. 6개년계획의 고지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고지의 하나인 알곡고지가 선참으로 점령된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빛나는 승리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사회주의적문화가 찬란히 꽃피고있으며 나라의 군사적위력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특히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나라로 강화발전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로부터 《천리마조선》,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칭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리나아가고 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거둔 빛나는 성과는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인 당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그 령도적역할이 높아진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을 통하여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 새로운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 사업에서는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 혈기왕성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하였다. 또한 당사업에서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가 확립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일반화되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강화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가 인차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또 아래의 생각이 인차 수령님과 당중앙에 반영될수 있게 되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적강령에 따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행정에서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는 류례없는 번영기에 처하여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빨리 전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와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서 끝없는 행복과 삶의 기쁨을 누리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행정, 오늘의 우리 사회의 찬란한 현실은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때 공산주의건설을 올바른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생동한 현실로써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가는것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

동 근 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와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는 천리마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있다.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온 나라가 사회주의대건설로 들끓고있으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보다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창작태도와 창작기풍을 발양하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하여 최근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보다 힘있게 이바지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우리 문학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창작에서 작가의 개성을 살리며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을 옳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 작가들의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을 강화하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힐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답을 주었다.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전과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이다.

* *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작가들이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이라는것을 밝히였다.

우리 당은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100가지 작품이 다 내용이 다르고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쳤다.

당의 이 가르침은 문학예술창작에서 개성을 살리고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이며 또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거함으로써만 창작에서 개성을 살리는 문제도 확고히 담보된다는것을 심오히 밝혀준다.

문학예술작품은 한가지 형타에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정신적창조물이다. 따라서 작가, 예술인들의 독창적발견이 없는 작품은 문학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생명인 생활반영의 진실성도 비반복적인 예술적형상에 의하여 보장되며 모든 훌륭한 작품은 다 비반복성과 독창성으로 특징적이다. 새로운것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비반복적이고 독창적인 발견을 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은 인류문화의 보물고에도 기여하게 되며 작품의 거대한 생명력도 보장하게 된다.

인류문학예술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은 작

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창작에서 개성을 충분히 살릴것을 절실하게 요구할뿐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창작적개성을 발양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높이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개성의 충분한 발양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혁명적발전속에서 묘사할것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주요묘사대상으로서의 우리 시대의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은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생활환경과 조건도 각이하다. 이것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비반복성과 다양성을 조건짓고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바탕으로 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바로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혁명적발전속에서 묘사할것을 요구하는만큼 현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작품의 형상자체도 구체적이고 비반복적이여야 한다. 이러한 예술적일반화의 원칙을 옳게 적용하면 할수록 작품의 독창성과 비반복성은 그만큼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되게 된다.

부르죠아어용문예《리론가》들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헐뜯기 위하여 그것이 마치 작가, 예술인들의 개성을 억제하는듯이 떠벌이는것은 저들의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책동을 가리워보리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거하여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개성적인 문체와 표현수단들을 통하여 심오히 파고들 때 작품은 비로소 현실반영의 생동성과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창작에서의 작가, 예술인들의 개성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삼고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철저히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수령님과 당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창작적개성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특히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독창적인 탐구와 창조적사색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남의 풍에 춤추는 그릇된 태도를 배격하고 형상의 개성적특성과 비반복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개성을 살리고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려면 도식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도식주의는 창작에서 금물이다.

도식주의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개성을 억제하고 작품을 그 어떤 틀에 맞추어 창작하려는 교조주의적태도의 표현으로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배치된다.

도식주의는 창조적탐구를 방해하고 안일한 창작태도를 조장시키며 형상의 류형성과 추상성을 초래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사대주의에 빠져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아무리 잘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될수 없으며 하나의 처방과 틀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은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작품창작은 문자그대로 창조적인 사

업인만큼 작가, 예술인들은 그 어떤 틀에 매여달려도 안되며 또 그들에게 그 어떤 틀을 강요하여서도 안된다.

주제가 명확히 선다음 그것을 형상하고 어휘를 선택하는데서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지혜와 재능이 최대한으로 발양될 때에라야만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을 형타에 찍어내는 상품과 같이 만들려는 도식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창작가적인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새롭고 독창적인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될수 있는대로 착상도 기발하게 하고 표현수단과 어휘도 생신한것으로 골라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독자들의 대상에 맞게 작품을 쓰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맞는 작품이 요구되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에 맞는 작품이 요구된다. 아동문학작품을 어른들을 위한 문학작품의 축소판과 같이 만들어놓는다면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아동문학은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대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넣어주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는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하며 그들의 정서에 맞게 창작되여야 한다.

당이 밝힌바와 같이 아동문학일수록 아이들의 세계를 파고드는 더 깊은 탐구가 있어야 하며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찾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문학예술창작에서 개성을 살리고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은 결코 작품창작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창작에서 개인의 그릇된 주관을 허용해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성적 특성을 살리는것과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개성적특성을 살리라는것은 작가의 개인적취미를 고취하자거나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자는것도 아니다.

당은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철저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당의 이 고전적정식화는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 대한 로동계급과 그 당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원칙을 뚜렷이 밝혀준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당의 수중에 장악된 사상적무기인것만큼 모든 창작사업은 어디까지나 당의 지도밑에서, 당사상사업의 방향과 요구에 맞게 진행되여야 한다. 당의 방침과 요구에 맞지 않는 작품은 당과 혁명에 도움을 줄수 없으며 아무런 쓸모도 없다.

개인의 그릇된 주관을 고집하는것도 공산주의적인 창작원칙에 어긋난다.

집단주의를 사회생활의 기초로 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훌륭히 창작하여 당사상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공통된 지향을 지니고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창작에서 공산주의적인 집체성의 원칙이 훌륭히 관철되고 개인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이룩하기 어려운 거대한 창조적성과를 확고히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성을 살린다고 하여 집체성을 무시하거나 집체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개인의 창발성을 약화시켜도 안된다. 오직 집체성과 개인의 높은 책임성, 창발성이 옳게 결합되고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높이는 기초우에서 집체성을 옳게 보장함으로써만 좋은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다.

우리 당에 의한 창작에서의 개성을 살릴데 대한 심오한 해명은 모든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더욱더 다채롭고 풍만하게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또한 작품의 구성에서 부정선을 옳게 설정하고 해결하는것이라는것을 밝히였다.

당은 창작에서 부정선을 옳게 설정하여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그려내야 한다고 하면서 작가들이 헐하게 작품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계급투쟁, 혁명투쟁 속에 뛰여들어 혁명하며 투쟁하는 현실세계를 옳게 그리는것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을 더욱 전투적이고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문학예술은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의 주되는 묘사대상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근로자들의 투쟁과 생활이며 인류의 리상이 꽃피고있는 사회주의적현실이다.

착취와 압박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지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고 착한것에로 지향하며 온 사회에는 혁명적인것이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긍정적인것을 기본으로 삼고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실례, 훌륭하고 아름다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 부정적현상을 비판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가 작품에 부정선을 넣는것은 부정을 조장하고 허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반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요소를 과장하는것은 사회주의현실을 외곡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뿐아니라 그것을 미화분식하는것도 근로자들의 혁명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사상교양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은 생활의 법칙이며 이러한 생활의 법칙을 옳게 반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긍정적인것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것이 있고 적극적인것은 반드시 소극적인것을 동반하는것이 현실이며 투쟁을 통해서 긍정적인것이 승리하고 부정적인것이 극복되여가는것이 생활의 법칙입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28폐지)

당사상전선의 초병들인 작가, 예술인들은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외면하여서는 안되며 전형을 그린다고 하면서 생활에 남아있는 결함이나 부정을 감추는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사상혁명의 요구에도 어긋난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상혁명의 요구에 맞게 낡고 부정적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잘 보여줄 때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수중에 장악된 전투적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 부정선은 적대계급들간의 불상용적갈등관계와는 달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부정적인것을 극복할수 있는것으로 설정되고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작에서 부정선을

올케 설정할데 대한 사상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생활과 투쟁을 진당하게 반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의 사상미학적 준비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밝히였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자기가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문학예술창작에서의 성과여부는 그 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정치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얼마나 튼튼히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 당은 작가들의 현실침투와 현실체험을 강화하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힐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이 근본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현실침투를 강화하고 생활체험을 풍부히 쌓는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의 전진운동을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2페지)

당중앙은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심오한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그들과 같이 비찬 투쟁을 체험하면서 주체시대의 개화만발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여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현실은 문학예술의 생활적기초인만큼 현실을 떠난 문학예술이란 있을수 없다. 현실속에서만 좋은 종자를 골라잡을수 있고 풍부한 생활체험에 토대함으로써만 그것을 훌륭히 가공할수 있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하는 우리의 현실은 혁명발전에 문학예술을 확고히 따라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당이 밝힌바와 같이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작가가 생활에서 뒤떨어지면 현실이 요구하며 인민의 지향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으며 결국 시대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현실체험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이다. 자주적인간과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진실한 묘사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체험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자주적인간과 그들의 생활은 결코 작가, 예술인들의 머리속이나 창작실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현실속에 있는것이다.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수업을 하여야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다.

물론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실에서 작품을 쓸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작생활의 어느 한부분이지 창작생활의 기본으로 될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관철되는 현실속에 뛰여들어가 여러가지 생활체험을 축적해가면서 현실속에서 사색하고 글을 써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

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그가 어디에 가든 언제나 창작가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폭넓게 체험하여야 한다.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면서 생활을 체험하여야 하며 직장에 나가서 여러가지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면서도 생활체험을 쌓아야 한다. 또한 통근길에서도 근로자들의 들끓는 생활분위기를 느낄수 있으며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의 웃음어린 얼굴에서도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볼수 있다. 가정생활을 통하여서도 어린이교양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동한 체험을 쌓을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어느때, 어디서나 항상 약동하는 현실과 같이 호흡하고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체험하면서 창작적열정과 패기에 넘쳐 《속도전》을 전개할 때 비로소 작품의 질도 창작의 속도도 보장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조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또한 현실체험을 강화하여야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똑똑히 알게 되고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한 근로자들의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혁명적인 생활태도와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게 되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갈수 있다.

실로 우리 당이 밝힌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미학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발전하는 현실을 제때에 진실하게 반영하여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당이 밝힌 작가들의 사상미학적준비를 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히는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히는 문제는 창작에서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것으로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정적조건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예술 일군들이 자기의 정치 사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14페지)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창작을 담당한 문화전선의 투사들이며 인간정신의 기사들이다.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수준이 높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넓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 그려지는 생활은 언제나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미학적관점에 비추어 선택되고 평가된 생활이다.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사상수준이 높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넓으면 넓을수록 모든것을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선택된 종자를 훌륭히 꽃피워나갈수 있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작가들이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의 정책적요구들을 민감하게 받아물수 없으며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맞는 작품들을 쓸수 없다.

아무리 생활체험을 많이 쌓고 기교가 높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옳게 분석하고 평가할만한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창작에서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히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미학적준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은 작가들의 정치적안목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창작의 기초

이며 창작전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이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현실속에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합법칙적이며 전형적인것인지 정확히 판단할수 없으며 또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는 사변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어떻게 일어나며 그것이 어떠한 사회력사적의의를 가지는가를 똑바로 알수 없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작가, 예술인들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본질적인것을 찾아낼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사회주의건설을 앞당기는 인민대중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옳게 파악할수 있다. 그리하여 형상창조에서 당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작품의 대를 똑바로 세워 높은 사상교양적기능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것은 당사상전선을 지켜선 작가, 예술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첫째가는 생활의 신조로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을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사상적, 미학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어떠한 창작과제도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형상하여낼수 있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였다.

문학예술부문 지도기관들은 당이 세워준 새로운 창작체계와 지도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할 때라야만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 *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무기이다.

이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을 더욱 철저하게, 더욱 전면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서 새로운 탁월한 기여로 된다.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위대한 방침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헐뜯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부르죠아문예리론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혁명적원칙을 훼손시키는 기회주의에 결정적타격을 준다.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적작품창작의 강령적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욱더 확신성있게 창작할수 있게 되였다.

당의 새로운 방침을 빛나게 관철할 때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작가, 예술인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 주체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갈수 있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당이 내놓은 문예방침관철에 힘차게 떨쳐나서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

리 용 무

오늘 우리 인민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점령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영웅적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인민군창건 스물일곱돐을 가장 의의깊게 맞이한다.

이날을 맞이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뜨거운 감사를 올리고있으며 그이께 끝까지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억센 뿌리에서 자라난 인민군대는 오늘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무력도 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은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무적의 전투대오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자위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자위로선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방위력강화의 위대한 군건설강령이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앞에는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굳건히 다져야 할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선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사력강화의 총적방향과 방침을 규정해주는 군사로선을 어떤 원칙에서 어떤 내용으로 규정하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군사사상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 혁명전쟁과 현대전쟁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자위적군사로선을 창시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4페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주체성의 원칙, 혁명적인 자위의 원칙에 기초한것이며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자위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자위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시여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자위적군사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방에서 자위는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군사분야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이며 근본립장이다. 나라의 방위를 남에게 의존해가지고서는 도대체 나라의 정치적독립도

경제적자립도 군사적으로 담보할수 없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근본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군건설원칙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각성되고 의식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마지막명줄이 끊어져가고 사회주의가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는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특징은 그에 맞는 군사사상, 군사로선을 제시할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자위사상과 그에 기초한 자위로선은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군사사상이며 군건설방침이다.

우리 당의 자위로선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특성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강화에서 사람,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보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람을 어떤 지위에 놓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기본척도로 된다.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결정적요인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이다.

사람과 무장으로 이루어지는 무장력에서 기본은 사람이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에서 그리고 군사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

이 모든것은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한 군사로선을 어떤 원칙에서 무엇에 기초하여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으로 된다.

사람,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보고 그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결핵무기를 《하느님》처럼 신봉하면서 무기의 역할은 절대화하고 사람의 역할은 과소평가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적 및 수정주의적 군사리론과 구별되는 우리 당 자위로선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우리 당의 자위로선은 나라의 방위력 문제를 자체의 힘,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군건설방침이다.

자위적군사력은 말그대로 자기가 자신을 보위하기 위한 군사적힘이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물론하고 나라의 방위력은 자기에 사활적리해관계를 가지는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할 때에만 가장 위력하고 믿음직한것으로 될수 있다.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대중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동원되기만 하면 놀라운 힘을 내며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두차례의 혁명전쟁의 승리와 수많은 세계혁명전쟁력사가 잘 증명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자위로선은 온 세계가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제3세계나라들 심지어 제2세계의 자본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누구도 남에게 얽매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또 자기를 예속시키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속과 압박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려는 인민대중의 강렬한 지향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다.

나라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은 그

것을 지킬수 있는 자위적군사력에 의해서만 믿음직하게 담보된다.

온갖 계급적압박과 신구식민주의예속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룩하는것은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승리이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획기적사변이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는것으로써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자주권이 완전히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민족적독립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첫걸음에 불과하다. 모든 민족국가는 독립을 이룩한 다음에 자신을 보위할수 있는 자체의 믿음직한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해방투쟁의 세찬 조류에 밀리여 부득이 식민지인민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나 놈들의 침략과 략탈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옛지위를 되찾으며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하여 낡은 식민지통치수법에 교활한 신식민주의수법을 배합하여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앞잡이들을 통한 대리전쟁, 파괴전복활동, 경제문화적침투와 같은 온갖 책동을 다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어떤 주권국가를 물론하고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 민족과 주권을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자주성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을 면할수 없으며 이러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제3세계의 일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음모책동에 의하여 비싼 대가를 치른 국가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하루밤사이에 롱락당하는 사실이 이것을 잘 증명하여준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자체의 믿음직한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 인민이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륭성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것을 무력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자위로선은 우리 시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도 부합되는 군건설방침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주체적혁명력량에 의하여 진행되며 세계혁명의 승리는 개별적나라들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하고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은 매개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매개 나라에서 자위력을 강화할 때 미제의 흉악한 세계전략을 짓부실수 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밑에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상태를 일시 완화시킴으로써 숨돌릴 틈을 얻으려 하는 한편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각개격파전략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할것없이 혁명하는 모든 나라들이 자체의 혁명진지를 군사적으로 강화하며 단결하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미제의 각개격파전략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설수 있으며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고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당의 자위로선은 현대전쟁의 요구에 맞는 군건설방침이다.

현대전은 한마디로 말하여 립체전이다.

적들의 강요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현대적무기를 갖춘 적아간의 전투행동이 땅과 바다, 하늘에서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고 방대한 인원과 현대적무기 그리고 최신 과학과 기술이 동원되는 현대전의 이러한 특성은 철저히 자체의 군사력을 튼튼히 마련할것을 요구한다. 남의 힘에 의거하여가지고서는 현대전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며 전선과 후방에서 요구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충분히 마련할 때에만 현대전의 온갖 시련을 훌륭히 이겨내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의 자위로선은 전쟁승리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 다시말하여 사람과 무기, 진지 등을 다같이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담보한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자위로선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독창적인 군건설방침이며 그것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놈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나라의 안전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우리 시대의 위대한 군사강령이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위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의 방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38페지)

오늘 자위적국방력의 핵심인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특히는 혁명정세발전의 추이에 맞게 자위로선관철을 위한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시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안도의 밀림에서 첫 무장대오를 무으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시종일관 튼튼히 틀어쥐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방향과 내용, 그 수행방도 등을 세세히 가르쳐주시고 필요한 물질적수단들과 온갖 조건들을 우선 보장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배려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주체의 혈통만이 순결하게 맥박치는 불패의 대오로,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의 인민군대오는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자라난 불패의 대오로 강화되였다. 인민군대가 창건될 때에는 준엄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다면 오늘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혁명적골간이 수만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무력건설에서 거둔 가장 큰 승리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매우 귀중한 밑천이다.

모든 군인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

은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위해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불같은 열정으로 들끓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단결되여있으며 온 대오안에는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인민군대안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군인들속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혁명군대, 당의 군대라는 자각이 또한 비상히 높아졌다.

인민군장병들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공산주의위업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세계사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혁명적각오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또한 우리 군인들 모두가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있으며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굳건히 지키려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다.

이와 함께 우리 매개 군인들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군대의 군인답게 모두가 용감성, 조직성, 규률성, 혁명성을 비롯한 고상한 공산주의적전투도덕적품성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다. 인민군 군인들의 사상령역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들과 성과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귀중한 밑천이다.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튼튼히 무장한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우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전투행동지대에서 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멸할수 있는 주체적인 전법을 창시하시고 당의 전략사상의 요구에 맞게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모든 군인들이 그것을 익히도록 하는 사업을 몸소 진두에서 조직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연고지를 비롯하여 부대, 구분대들을 찾으시여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으며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인민군대가 요구하는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깊은 배려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준비는 한층더 강화되였다.

우선 인민군대의 무장장비가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더욱 현대화되였다.

또한 모든 지휘성원들이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전법을 깊이 체득하였으며 그것을 어떤 복잡한 전투정황속에서도 능숙히 실현할수 있는 지휘능력과 령군술을 소유하였다. 모든 군인들이 각종 무기 및 전투기재에 정통하고 자기앞에 맡겨진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더욱 단련되였다. 그들은 현대전의 온갖 시련을 이겨낼수 있는 육체적준비도 튼튼히 갖추었다.

군사력의 핵심인 인민군대가 더욱 강성강화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방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이와 같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자위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금성철벽의 방위체계가 확립되고 우리의 온 강토는 말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만일 적들이 분별없이 날뛴다면 놈들은 우리의 강력한 자위력앞에서 한놈도 살아남지 못할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은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유지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우리 나라에서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참을성있는 노력과 함께 우리에게 강력한 국방력이 있기때문이다.

적들은 우리의 강력한 방위력앞에서 떨고있으며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있다. 분별없이 날뛰는 원쑤놈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오직 시체와 죽음뿐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 마련된 철벽의 방위력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자위사상과 자위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의 위력한 시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위사상은 오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용감히 일어선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는 힘있는 무기로,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하기에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자위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반제혁명전쟁에서와 자위적인 혁명무력건설과 국방사업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군사전략가》로, 《현대제국주의를 타승한 강철의 령장》으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우러러 칭송하며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김일성주석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인민군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 3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의 자위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쳐부시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호전분자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적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계속 강화하고있으며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시각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도록 자위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쟁준비를 간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자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국방력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적들의 그 어떤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자위로선을 관철하여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온몸에 순결한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군인들은 안일해이성을 반대하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우리 당의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군대내에서 상하간, 동지호상간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고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군사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언제나 원쑤들의 도발책동에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일단 유사시에 인민군대와 한 전호속에서 생사를 같이 할 혁명전우들이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은 혁명군대인 우리 인민군대의 우월성이며 전쟁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는 인민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모든 군인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지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정력적으로 벌려 백전백승하는 주체전법을 더욱 깊이 체득하며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보다 정통하여야 한다.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인민군대의 전반적인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 질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지휘성원들은 어떤 복잡한 전투정황속에서도 자립적으로 부대의 지휘를 실현할수 있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전법에 정통하고 높은 지휘기능과 령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모든 군인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며 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방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담보의 하나이다. 전군이 달라붙어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더 잘 도와줌으로써 민간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전선과 후방의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인민군 군인들은 무기와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근로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필요한 물자예비를 충분히 마련하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군무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함으로써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강화하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천재적인 군사사상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계승한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

리 수 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서군과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신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지나갔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당의 대중지도에 관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완성하는데서 실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빛나게 계승하고 구현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오늘과 같은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실천은 청산리방법이 가지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와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빛나게 관철하여온 보람찬 로정을 감회깊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더없는 행복과 긍지에 충만되여있다.

* *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대중령도방법의 위력한 무기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방법을 옳게 밝히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패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리론이 있어도 옳은 령도방법이 없다면 혁명위업의 승리와 성과를 바랄수 없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고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진 우리 시대에 와서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령도방법을 가지는것은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특히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보다 더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사회주의의 조건에서 대중령도방법문제를 옳게 밝히는것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선행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서는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밝혀지지 못한 분야로 남아있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혁명적령도방법문제는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리론과 방법을 내놓으심으로써 비로소 해결되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방법은 그이의 혁명적령도방법이 실천에 빛나게 구현된 생동한 모범이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킨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8페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그이께서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대중지도에 관한 사상과 방법을 집대성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이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낳은 력사적원천으로, 확고한 밑천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이 전통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키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이다.

그것은 청산리방법이 그 본질과 요구들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일치하며 다같이 하나의 사상리론적기초로부터 출발하고있기때문이다.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에서처럼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모든 일군들이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 사업의 철칙으로 알며 군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을 해설설복하여 그들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이러한 혁명적본질은 다같이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사상리론적기초를 두고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치는 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것은 인민대중이다. 자연을 개조하여 사회적생산을 높이는 일도, 혁명투쟁을 벌려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는것도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하는 일이며 그들이 어떻게 자각하고 동원되는가에 따라 그 성과여부가 규정된다.

청산리방법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푸는데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과 련계를 밀접히 할 때에만 로동계급의 당은 공고한 토대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대중에게 의거하며 그들을 발동시킬 때에만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세워진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청산리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이로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관점에서 풀어나가며 대중속에서 사상전을 벌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진공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게 한다.

이처럼 청산리방법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다같이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그 사상리론적기초를 두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그 기본요구에 있어서도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서로 일치한다.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며 가르쳐주는

것은 청산리방법의 본질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청산리지도에서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직접 내려가서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지도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83페지)

인민대중을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도록 교양하고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아래일군들이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며 가르쳐주어야 당의 의도를 대중속에 제때에 실속있게 침투시키고 상하가 합심하여 수령님의 교시의 정확한 관철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준비된 일군들이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어야 아래일군들의 사업능력과 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더한층 높여줄수 있으며 우의 일군자신도 들끓는 현실과 대중의 지혜와 경험에서 배워 자기 사업을 더 잘 해나갈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며 아래일군들을 실제로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지도방법이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이다.

청산리방법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에서와 같이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에서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건설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진정한 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대중자신의 의식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다. 혁명과 건설을 더 빨리, 더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적극성과 창조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적사상의식을 높일 때에만 비로소 발양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속에서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로 하여금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신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접수하고 주인된 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스스로 찾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게 한다.

청산리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사업을 틀이 없이 실속있게 벌려나가는 전투적이며 창조적인 사업방법이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며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사람들은 사상적각오와 준비정도,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르며 혁명초소, 혁명임무와 그것을 수행하는 조건과 환경도 서로 다를뿐아니라 부단히 변화한다. 혁명은 쉬없이 전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과업을 제기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과의 사업은 격식과 틀이 없이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림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환경에 맞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전개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있고 그들의 자각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청산리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격식과 틀이 없이 실속있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기동적으로 참신하게 사람과의 사업을 벌려나가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사업을 통이 크게, 판을 크게 벌린데 대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도 구현하고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게 한다. 이렇게 하여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끊임없는 기적과 비약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이러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알을 오물조물하면서 힘있게 내밀지 못하는 수공업적이며 소극적인 사업방법과는 달리 일을 크게 포치하고 폭넓게 벌리며 대담하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청산리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근본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이 투쟁의 앞장에 서서 솔선 모범을 보일 때 대중은 깊이 감화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한다.

청산리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틀을 차리고 앉아서 호령과 명령으로 대중을 강압적으로 움직이려 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투신하지 않고 남만 시켜먹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모든것은 청산리방법이 본질에 있어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계승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에 억센 뿌리를 내리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된것으로 하여 오늘 그처럼 거대한 힘과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고있는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오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조직령도하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특히 이것은 우리 당사업에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해방직후 당안에 들어앉았던 사대주의자들은 혁명적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전당에 퍼뜨려놓았다.

사대주의자들이 퍼뜨려놓은 낡은 사업방법은 우리 당 사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였으며 그 후과는 전후시기에 더욱 엄중하게 나타났다.

수령님께서는 당 제3차대회를 계기로 당안에 퍼진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뿌리빼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였으며 강서군과 청산리 당단체에 대한 지도사업을 통하여 그 방도를 찾으시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은 오늘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전면에 제기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당안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올바른 지도밑에 청산리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 당사업은 온갖 낡은 재래식방법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참신하고 생기발랄하며 패기에 넘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전환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의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으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8페지)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사업에서는 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이와 같은 사업체계가 섬으로 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아래에 재빨리 들어가고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되지 되였으며 상하가 더욱 단결되고 기맥이 상통하게 되였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된 결과 당사업방법과 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도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우리 당 사업방법은 고정격식화된 틀에 매달려 걸치레나 하던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때와 장소를 가림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기동적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였다.

그리고 또한 일을 오물쪼물하면서 힘있게 내밀지 못하는 수공업적이며 소극적인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일을 크게 포치하고 폭넓게, 대담하게 벌려나가는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사업이 오늘 모든 일을 늦잡지 않고 제때에 포치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부리나케 다그치며 사업의 선후차를 가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포화를 들이대여 그것을 해제낀 다음 새로운 문제에 불을 걸고 섬멸전을 벌리는것과 같은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방법으로 전개되고있는것도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이다.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당세도와 관료주의, 주관주의와 같은 잡귀신들이 없어지고 당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며 겸손하고 소박하며 례절있게 행동하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또한 요령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게 되였다.

우리의 일군들은 오늘 당중앙이 내놓은 구호에 따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방법에서도 전환이 이룩되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없애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옳바로 사업해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하며 당정책집행정형을 늘 김열하고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당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고있다.

오늘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대고조, 대비약의 자랑찬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개선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였다.

우리 당사업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당정책에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인차 당중앙에 보고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는것, 이것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 자기의 청춘도·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대의 혁명임무로, 가장 큰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티없이 맑고 순결한 충성심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는데서 자기의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고있으며 그것을 확고부동한 생활의 신조로 삼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풍모는 그것이 불멸의 주체사상과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당사업에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결되였으며 우리 당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불패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도 높은 찬양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외국의 수많은 벗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다 해당될수 있는 산모범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고있다.

외국의 한 벗은 《주석님의 위대한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위력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산교과서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특히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투쟁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거대한 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위대한 청산리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빛나게 점령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며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의 틀을 완전히 뿌리빼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안에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이 더욱 나래치게 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적사업방법이 구현된 청산리방법을 위력한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양양하며 휘황찬란하다.

#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자

김 락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1월에 있은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에서 지난해에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시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3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농업전선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올해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농촌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생산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방침의 본질과 실현방도, 그 거대한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농민들이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넉넉하고 문명하게 사는 행복한 농촌, 계급이 없는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 위대한 사상, 독창적인 방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혁명적원칙과 과학적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처음으로 내놓으시였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한다는것은 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생산이 비록 생물학적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온 과정이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에 의하여 실현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4페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공산주의건설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지 못한다면 결코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농업생산과정에 남아있는 어렵고 힘든 일을 없애고 농업생산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업의 물질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그 어떠한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생산을 진행할수 있도록 농업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이것은 오직 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나갈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농업생산에 기계기술을 적용하여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그치는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착취사회가 농촌에 뿌리깊이 남기놓은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하시였다.

여기에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가 확고히 구현되여있으며 농민들에게 로동계급과 같은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활을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주며 농업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어가시려는 수령님의 철저한 공산주의적립장, 농민들에 대한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있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은 또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절박한 과업이다.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농업생산과정이 비록 생물학적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온 과정이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게 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다.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자면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하며 농촌을 문명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은 공업에 비한 농업의 물질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농촌에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뿐만아니라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며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된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할때 우리는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뿐아니라 농민들의 사상개조를 촉진하고 그들의 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게 하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는 농촌기술혁명의 목표이다.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다그쳐나가야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수 있으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해야 농촌기술혁명이 완수된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신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기술혁명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농업생산의 특성에 맞게 그를 공업화, 현대화하

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계화, 전기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농촌경리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농업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다. 또한 수리화, 화학화 방침을 관철하여야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고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을 극복하며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고 영농기술을 개선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술수단들로 튼튼히 장비할뿐아니라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농업생산에 리용되는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의 리용률과 그 효과성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촌경리의 집약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온 나라가 떨쳐나서 농촌을 지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농촌지원에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여 농촌기술혁명의 목적을 가장 빨리,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여준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농민과 농업에 대한 진정한 혁명적립장과 태도, 혁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가장 충실한 립장을 반영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과 독창적인 방침들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지난날 갖은 압박과 착취, 고역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빠른 길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농업생산을 급속히 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전반적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날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농촌과는 정반대로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극악무도한 파쑈교형리들의 무리인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략탈책동으로 말미암아 농업생산이 여지없이 파탄되고있다. 곡창으로 이름높던 남조선은 해마다 300만톤이상의 알곡을 수입하는 만성적인 기근지대, 절량지대로 되였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독창적인 방침은 온갖 착취와 압박, 고역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승리에 대한 신심과 투지를 안겨주며 그들을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하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준 빛나는 모범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기술혁명의 본질과 내용,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위한 기본방도,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농촌지원이 노는 역할을 비롯한 리론적명제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과학적공산주의리론에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이다.

이 리론적명제들은 농촌기술혁명을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로 보거나 농업을 홀시하고 농촌을 돕지 않으며 농업에 투자하지 않는 현상을 비롯한 농촌경리발전에 관한 온갖 그릇된 견해들을 배격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에 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반양하게 하며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제3세계인민들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되고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은 농업을 전면적으로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세계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공산주의에로 앞장서 달리나갈수 있게 되였다.

## 빛나는 결실, 새로운 투쟁과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오늘 우리 나라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여 찬란한 열매를 맺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 있었고 공업이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이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성하고 이제는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있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5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기간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오늘은 농업을 전면적으로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완성한것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수리화를 앞세울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이미 마련된 관개시설들이 효과적으로 리용되고 새로운 대규모의 관개시설들이 일떠서 논관개는 이미 완전히 끝났으며 발관개도 많이 실시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관개수로의 총연장길이는 무려 3만 7천 6백여키로메터나 된다.

지난기간 고이는물빼기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1,100여개의 배수양수장들과 1,460여키로메터의 배수로가 건설됨으로써 우리 나라 중요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피해를 완전히 없앨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에서 강하천정리사업과 해안방조제공사, 식수조림사업이 널리 진행됨으로써 논밭과 농작물을 자연의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하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가물이 드나 큰물이 져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경리를 기계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시, 군들에 꾸려진 농촌기술혁명의 거점인 농기계작업소가 더욱 강화되고 여러곳에 현대적인 뜨락또르부속품공장, 련결농기계공장, 농기구공장들이 새로 일떠섰다.

특히 전국가적힘을 기울여 현대적인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뜨락또르공장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함으로써 2~3년안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를 7~8대, 가까운 앞날에 10~12대씩 차례지게 할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뜨락또르생산기지를 갖추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농촌의 뜨락또르를 7만~8만대(15마력환산으로)에 이르게 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지난해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인 7월 27일 현재로 빛나게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는 벌방지대에서는 4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에서는 3대에 이르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농촌에 많은 자동차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대수는 1963년에 비하여 지난해에 4.6배로 장성하였으며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창안제작되

여 농촌에 보급됨으로써 많은 농사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논밭갈이, 낟알털기, 제분, 정미작업, 사료분쇄 및 절단 작업은 이미 100%기계화하였으며 수송작업은 거의 다 기계로 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 농사일에서 제일 힘든 일의 하나인 모내는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많은 협동농장들의 작업반들에서는 농사일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 농장원 한사람이 밭은 10정보, 15정보까지 다루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기화방침도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리들과 농가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농촌에서 전기는 농민들의 가정생활에서뿐아니라 기계동력과 열원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서 한해동안에 쓰는 전력소비량은 16억키로와트시에 이르고있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화학화방침이 관철된 결과 이미 있던 질소비료생산기지가 확장되고 서부지구에 새로운 질소비료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자체의 린비료, 미량원소비료 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당 화학비료 시비량을 500키로그람에 이르게 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이 이미 실현되였으며 1톤이상수준으로 올릴데 대한 목표도 올해에 달성하게 된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과학연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강냉이 1대잡종생산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벼우량품종을 만들어내는데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또한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마련하여놓았다.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계통적으로 늘어났다. 1963년부터 1974년에 이르는 지난 10여년간 알곡생산은 200% 장성하였으며 1973년부터는 매해 30%이상씩 늘어났다. 알곡과 함께 과일, 남새, 누에고치, 고기생산을 비롯한 모든 농업부문들이 빨리 발전하였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자랑찬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거기에 기초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열도의 충성심을 발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높은 당성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 이것은 농업생산실천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하여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적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모두가 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며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를 불사르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완전

히 실현된 조건에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위하여서는 농촌경리를 고도로 기계화, 화학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촌경리를 고도로 기계화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더잘,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뜨락또르공장들에서 해마다 뜨락또르를 경지면적 100정보당 한대씩 더 생산하여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뜨락또르생산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이 영예로운 과업을 앞당겨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 가을하는기계, 이동식탈곡기 등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야 한다.

자동차생산을 늘이는것은 농촌에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자동차생산을 다그쳐 가까운 몇해사이에 경지 100정보당 1대에 이르게 할데 대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매개 도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여러가지 련결농기계공장, 부속품공장,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며 농기계작업소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와 련결농기계들을 잘 정비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모내는일을 비롯하여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다 기계화하여야 한다. 올해에 전국적으로 400억포기의 강냉이를 심어야 하는데 강냉이영양단지 옮겨심는작업을 적극 기계화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를 만들어 기계로 김을 매고 덧비료도 주며 농약을 뿌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토지정리사업을 적극 벌려 불필요한 논두렁과 밭뙈기를 없애고 논과 밭을 규모있게 만듦으로써 10만정보이상의 땅을 얻어내며 뜨락또르가 마음대로 일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함께 화학화를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화학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악한 투쟁을 벌려 농촌경리부문에 더많은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생산보장하며 효능이 높은 농약을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는것이 중요하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는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며 일은 헐하고 흥겹게 하면서도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루며 농촌경리부문에서도 공업부문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업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는것이다.

우리는 농업과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육종 및 채종 체계를 철저히 세워 논벼와 강냉이, 콩을 비롯한 중요작물의 품종을 더 좋은것으로 만들며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문화혁명을 다그쳐 농업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며 더많은 농업기술일군들을 키우는것이 중요하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군경영위원회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관, 기업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며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자재와 비료, 농약을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제때에 공급하며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 올해에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자.

#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철저히 저지되여야 한다

정 신 영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동의 원흉으로 등장하였으며 해외팽창과 군사적모험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의 첫째가는 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제놈들의 상품시장으로,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밑에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의 《내선일체》와 《동조동근》론의 현대판인 《일한공동운명체》론과 《일한안전일체》론까지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완전히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의 검은 마수를 꺾어버려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 위험한 단계에 이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0폐지)

오늘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급속히 굴러떨어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발광적으로 날뛰고있는 남조선재침책동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전략의 직접적산물이다. 최근년간 아세아의 도처에서 쫓겨나고있는 미제는 이 지역에서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아래동맹자인 일본의 경제군사적잠재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공공연히 괴뢰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경제 및 군사《원조》를 더 많이 줄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일본자위대가 일본경외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가 있을것》이라고 떠벌이면서 놈들을 해외팽창에로 부추기고있다.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습관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제놈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교활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복무하는 대가로 저들의 아세아침략을 실현하며 옛식민지세력권을 되찾으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은 독점자본의 팽창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의 비호밑에 이미 팽창할대로 팽창되였으며 다시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일본독점재벌은 자본과 생산이 고도로 집중되고 집적된 기초우에서 경제의 군국화를 다그치고 있으며 정치생활을 틀어쥐고 파쑈화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일본의 상비무력인 이른바 《자위대》

도 2차대전전의 《황군》을 릉가하는 화력과 기동력을 갖추었으며 《방위》체계로부터 공격체계로 넘어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침략사상과 복수주의사상을 고취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국내에서 독점자본이 팽창하고 군국주의가 득세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특히 일본독점재벌들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날카로운 모순과 도달된 생산능력에 비한 국내원료의 극심한 부족 등 고질적인 약점으로 더욱더 해외침략에 날뛰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에 사로잡혀 침략과 복수의 칼을 갈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선 남조선을 침략대상으로 삼고 침략의 마수를 급속히 뻗쳤다.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본격화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으며 그것은 오늘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벌써 미제와 함께 남조선괴뢰정권의 명맥을 틀어쥐고 모든 대내외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놈들은 서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을 일상적으로 조종하고있으며 《한일정기각료회의》, 《한일국회의원간담회》, 《한일협력위원회》와 같은 각종 결탁기구를 리용하여 중요 대내외정책에 방향을 주고 그 집행을 통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남조선 《중앙정보부》내의 앞잡이들과 저들이 직접 파견한 특무기관성원들을 통하여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의 움직임을 장악하고 남조선괴뢰들의 정책집행에 간섭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재침에서 현대제국주의의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신식민주의수법에 의거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커다란 정치적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어 외세와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과 사회정치세력을 탄압말살하는 음모에 직접 가담하고있다.

1973년 8월 남조선《중앙정보부》특무들에 의한 김대중랍치사건에 일본당국이 한몫끼여들었고 지난해 박정희《저격사건》과 일련의 이른바 《간첩단사건》의 《배후인물》들에 대한 《수사》놀음을 적극 벌렸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인 파쑈적탄압소동을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는 모든 사실들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북조선과 접촉하려면 북에 대결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느니, 일미공동성명의 《한국조항은 변함이 없다.》느니 하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을 통일이 아니라 분렬에로 부추기고있으며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조선의 영구분렬을 획책하고있다.

이리하여 놈들은 남조선만이라도 먼저 완전히 때먹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한것처럼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다른 나라들을 침략함에 있어서 상품과 자본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경제적으로 예속화하고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나아가서 저들의 경제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침략무력까지도 들여보내는 방법을 쓰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28폐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뒤받김나기 위한 경제적침투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경제분야에 대한 침투가 남조선재침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면서 남조선경제명맥을 틀어쥐기 위하여 온갖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을 다 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청구권자금》지불과 일련의 차관제공을 계기로 막대한 자본을 들이밀어 남조선경제를 예속시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자본투하의 중심을 50년대의 《잉여상품원조》로부터 60년대에는 차관중심으로, 70년대에 와서는 직접투자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차관도 재정차관으로부터 리자률이 높고 상환기간이 짧으며 복잡한 부대조건이 붙은 상업차관으로 전환하고있다.

특히 놈들은 경제침략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식민지적지배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직접투자를 급속히 확대하고있는바 1973년만 하여도 일본은 남조선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의 94%를 차지하였다.

놈들은 산업기술도 완전히 제놈들이 틀어쥐고 일본의 기술적《지원》이 없이는 남조선경제가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게 만들고 남조선산업을 완전히 일본산업의 부속물로, 전형적인 기형화산업으로 되게 하고있다.

놈들은 차관을 주거나 《합작투자》를 할 때는 일본기술문건에 의거하게끔 조건을 붙이고있으며 일본기술을 도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중요부문의 공정들은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일본경제에 반드시 예속되도록 하고있다.

더우기 침략적이며 략탈적인것은 이러한 기술제공을 통하여 남조선경제전반을 틀어쥐고 좌지우지 지휘하고있으며 고률의 기술도입리용료까지 받아먹고있는것이다.

특히 일본독점재벌들은 남조선주요재벌들을 철저히 예속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직접 통제하고있으며 남조선관료배들을 매수함으로써 괴뢰정부의 대내외정책까지 마음대로 조종지휘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공해산업, 로후시설, 뒤떨어진 산업의 처리장으로 만들고있으며 이른바 《자유수출지역》이라는 이름밑에 식민지적조계지까지 차지하고있다.

이와 같이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급속히 강화하여 남조선의 재정류통부문을 장악하였을뿐아니라 일련의 경제《개발권》을 장악하였으며 공업과 농업, 수산업은 물론 도로, 철도, 항만 건설 등 《제3차산업》까지 틀어쥠으로써 남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적지배하에 더욱 깊이 몰아넣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59~1974년 6월말현재까지 《청구권자금》이요, 차관이요, 직접투자요 하는 명목으로 남조선괴뢰정부의 년간예산총액과 맞먹는 17억 3천 400만딸라의 자본을 들이밀었으며 특히 직접투자부문에서는 1974년 6월말현재 4억 6천 700만딸라로서 이미 미국을 물리치고 제1위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탐욕적인 일본독점자본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자본투하지로, 값싼 원료와 로동력의 공급지로 급속히 전락되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일본의 재정차관이 중단되고 상업차관이 영향을 받아 교역량이 20%만 감소되면 완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하강선을 걷게 된다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이 이미 경제적침투의 단계를 벗어나 독점적식민지지배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 어느 나라도 남조선에서 일본의 지위와 맞설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침략과 함께 군사적침투도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지금 《미일한3각군사동맹》관계를 일층 강화하여 남조선괴뢰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 한편 미제로부터 더 많은 군사작전권과 《방위부담》의 몫

을 넘겨받아 제놈들이 또다시 아세아의 《맹주》로서 활동해보려 책동하고있다.

이로부터 놈들은 이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짜놓은데 기초하여 방위체계에서 공격체계에로 이행하는 한편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간의 반항공조기경보체계, 군사정보교환체계, 군수품보급체계, 군사통신망체계 등 통일적인 군사활동체계를 세워놓고 공동군사훈련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놈들은 아세아방위는 일본이 《주역을 담당》하고 미국은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에서 제4차, 제5차 《방위계획》을 세우고 《자위대》의 무력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호쯔크해로부터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을 거쳐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남북간과 그 반경에 따르는 동서간의 구간을 제놈들의《작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제해, 제공권을 확보하는데 맞게 작전체계와 무력구조를 뜯어고치고 장비의 현대화와 국산화를 다그치고있다.

또한 놈들은 남조선괴뢰군의 비행사, 정비원들을 비롯한 군사인원들을 직접 일본기지에서 훈련시키고 남조선비행기들을 일본기지에서 수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방위와 괴뢰군에 대한 군사지휘권까지 운운하고있는바 일본이 남조선의 공해량면의 《방위》임무를 맡으며 미군과 교체하여 괴뢰군에 대한 지휘를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군수산업까지 틀어쥐고 병기기술을 독점하려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의 군수산업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일본기술에 의한 특수강생산공정과 경무기제조공장건설을 다그치고있으며 남조선군수산업의 《기둥》인 포항종합제철소를 일본의 군수산업계렬하에 끌어넣고 병기생산기술을 제공하는것으로써 남조선무기생산을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지어 놈들은 핵무기생산을 위하여 카나다와 합작하여 남조선에 2억딸라의 일본 자본과 설비로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위험한 전쟁의 온상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무모한 군사적모험정책에 매달리고있다는 확고한 증거로 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포드놈의 일본, 남조선 행각은 《미일한군사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간의 군사적결탁을 한층 심화시켰다.

남조선인민들과 미국의 광범한 사회계를 포함한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두목이며 전쟁광인 포드놈은 화약냄새 풍기는 호전적인 본성과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적야망을 남김없이 드러내놓으면서 남조선에 대한 침략행각을 벌려놓았다.

남조선에 기여든 이놈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킬 《아무런 계획도 없다.》느니, 미군이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고도의 전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할것이라느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원조》를 줄것이라느니, 《한국군현대화계획》을 추진시키고 군수산업을 《지원》하겠다느니 하고 떠벌이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돌아갔다.

이에 앞서 포드놈은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군국주의의 두목들과 《미일한군사동맹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조선에서 유사시 《재일미군기지의 무조건 자유사용》문제와 일본《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문제, 《한국군현대화계획》에 일본이 적극 합류할데 대한 구체적문제들을 모의하였다 한다.

이것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에 대한 용허할수 없는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모든 사실은 《미일한3각군사동맹》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놈들이 새 전쟁 도발책동에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을 날로 강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상문화적침투를 더욱 다그치고있다.

놈들은 《친선》과 《협조》와 《교류》를 표방하면서 사상적침략의 척후병들을 수많이 들이밀어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감정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친일사상과 일본숭배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급속히 전락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19세기말 20세기초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하던 시기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은 파산을 면할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찾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민족의 영예와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05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들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도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구현인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는 부강하고 강유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그 어떠한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어느때나 단매에 쳐부실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남조선인민들도 박정희괴뢰도당을 길잡이로 하여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용납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대일예속 청산하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대일예속화정책을 그만두고 민족자주권을 확립하라》고 웨치면서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또다시 강요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마수를 꺾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투쟁으로서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일본인민들도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단호히 일떠섰다. 일본인민들은 《국제반전의 날》인 10월 21일에만 하여도 일본전국 450여개소에서 230여만명이 집회와 시위를 벌리고 《미국의 핵반입 규탄》, 《미일한군사동맹 재편성강화를 위한 포드의 일본방문 반대》, 《대조선정책의 근본적전환》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동남아세아의 기타 나라 인민들도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일떠서고있다. 동남아세아인민들은 지난해 다나까의 이 지역 나라 방문을 계기로 《일본제국주의는 물러가라》, 《제국주의경제원흉, 경제동물 다나까는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일본상품을 배척하고 일본대사관과 일본상사들을 소각파괴하는 등 강력한 반일시위를 벌리였다.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아세아에서 더는 주인행세를 할수 없으며 아세아인민들을 정복할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과 아세아에서 민족적자주권

을 짓밟으며 주인행세를 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래동안 제국주의에 의하여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당한 아세아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매장하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났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철저히 저지되여야 한다.

현시대는 주체의 시대, 자주의 시대이다.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필연적인 력사의 흐름이다. 오늘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짓밟고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며 다른 민족을 예속시키려고 침략의 마수를 뻗치는것은 자주성을 모독하는 시대역행의 범죄행위로서 도저히 허용될수 없으며 파산을 면할수 없다.

요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더불어 이른바 《남북조선동시승인》설을 운운하고있으나 그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다.

미제에 적극 추종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이 퍼뜨리고있는 쏘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4개국에 의한 《남북조선동시승인》설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간교하고 음흉한 정치적모략극으로서 그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며 도전이다.

원래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는 애국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철저히 매국적이고 예속적인 남조선의 괴뢰정권은 량립될수 없으며 그것을 대비하려는것부터가 가소로운 일이다.

조선인민은 그 누구도 나라와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놈들의 그 어떠한 형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도 결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걷어치우고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일본인민의 리익과 안전에 부합되며 일본당국자들에게도 유익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추종하면서 남조선에 기여들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할뿐이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변화된 현실을 외면하면서 미제를 등에 업고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을 반대하여 분별없이 날뛴다면 놈들은 제2차세계대전때보다 몇십배 더큰 타격을 받을것이며 자신이 지른 침략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버리고말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분렬책동을 짓부셔버릴것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제 2 호(루계 394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5년 2월 1일 발행 • 1975년 2월 5일
ㄱ—551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395)


## 차 례

#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김 일 성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동지들!

전국공업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지도 2년이 되였습니다.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는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정형을 총화하고 새로운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공업열성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회의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 나간 3대혁명소조들은 지난 2년동안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들과 각급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 나라의 천리마운동을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70일전투》에서 매우 높은 속도를 창조하였으며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토론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나는 동무들의 토론을 듣고 매우 감동되였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 나라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이 자리에 참가한 공업열성자들 그리고 3대혁명소조원들과 각급 당조직의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 1. 3대혁명의 력사적필연성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매우 정당합니다.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는다고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저절로 건설되는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경제건설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하여서만 건설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이런 나라들이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산업혁명을 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경제기술적으로 매우 뒤떨어져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벌써 몇백년전에 산업혁명을 하고 현대적공업을 건설하였습니다. 영국같은 나라는 산업혁명을 한지 200년이 넘으며 일본도 자본주의혁명을 한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의 원료원천지로서, 상품시장으로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당하여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도 공업의 기초가 없으며 경제적토대가 매우 빈약한것입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도 공업의 기초가 없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는 연필이나 성냥 같은것도 자체로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일제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흑연과 나무를 자기 나라에 가져다 연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도로 우리 나라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일제놈들의 이러한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경제가 발전할수 없었습니다. 해방후 우리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연필문제를 토의하고 연필을 생산하는것으로부터 새 조국의 경제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방직공업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제때 조그마한 방직공장이 몇개 있었는데 방추는 모두 1만 5,000추밖에 안되였습니다. 일제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민족공업의 발전을 가로막았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수공업마저 마사버렸습니다.

지난날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다가 해방을 이룩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해방직후 우리 나라가 처하였던것과 같은 형편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무런 경제적기초도 없는 빈터에서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뒤떨어진 나라들이 자본주의나라들을 경제기술적으로 따라앞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매우 발전된 사회입니다. 산업혁명을 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경제토대를 마련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져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일반지식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이룩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문맹자가 주민의 80~90

%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거의 전부가 문맹자라는것을 의미합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도 문맹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뒤떨어진 나라에는 또한 민족기술간부가 없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기술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십명밖에 안되였습니다. 그것마저 우리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일본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였습니다. 일제때 우리 나라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변호사, 의사, 교원, 대서사를 하는 사람이 좀 있었을뿐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같은것은 해방후 새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해방직후 민족기술간부가 없었기때문에 대학을 하나 건설하는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이 낮고 민족기술간부가 없으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뒤떨어진 나라에서 문화적락후성을 없앤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사상적으로도 뒤떨어져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는 로동계급이 많습니다. 로동계급은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력이 강하며 계급적각오와 혁명정신이 높습니다.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있던 나라들에는 로동계급이 적으며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있던 나라들 가운데는 농민이 주민의 80~90%를 차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은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과 착취에 대한 증오심은 있지만 로동계급의 령도를 받지 못하면 계급적원쑤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못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정신도 약합니다.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은 산산히 흩어져 개별적으로 생활하기때문에 집단주의정신도 부족하고 조직성도 약합니다.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은 혁명정신이 높지 못한 반면에 개인리기주의, 미신 같은 낡은 사상을 많이 가지고있습니다.

농민들과 수공업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고상한 공산주의사상과 높은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려면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산업혁명을 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기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혁명을 수행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은 또한 세계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국내적으로는 착취계급이 없어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은 의연히 계속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주, 자본가 제도가 없어졌지만 우리 나라 주변에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나라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남쪽 절반땅에는 지주, 자본가들의 제도가 그냥 남아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둥지를 틀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파괴책동이 더욱 심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제도를 복구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여러 방면으로 저애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자본주의사상을 침투시키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우리 나라 기간공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켜야 하며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걸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힘있게 투쟁하여왔습니다. 물론 우리 당이 해방직후부터 3대혁명의 구호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경제, 문화 분야에서 온갖 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인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의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동원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3대혁명의 기치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이나 앞당겨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7개년계획을 3년동안 연장하여 수행하였지만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10년동안에 공업생산을 매해 평균 12.8%씩 장성시켰습니다.

우리 인민이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기간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고 웰남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인 큰 힘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방위력도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증명되었습니다.

## 2. 3대혁명소조운동의 발단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우리 당이 3대혁명소조를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한 다음부터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것은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다 당조직이 있는것만큼 당조직들을 통하여 3대혁명을 밀고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업을 아래 당조직들에만 맡기지 않고 당중앙에서 직접 3대혁명소조를 파견함으로써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이 힘을 합쳐 3대혁명을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중요한 목적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히 발전시켜나가려는데 있습니다.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오랜 간부들은 다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그들은 해방후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받들고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투쟁에서도 앞장에 섰습니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전선과 후방에서 공화국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으며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의 간부들은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도 적극 참가하여 영웅적위훈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농업협동화를 비롯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수되고 전후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 그리고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수리화를 비롯한 농촌기술혁명의 어려운 과업들이 훌륭히 수행되였습니다.

우리의 간부들이 이와 같이 지난 시기 많은 일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해방후 30년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며 그들의 수준도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들이 현실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요학습, 수요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체계도 세우고 매해 한달씩 정규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체계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그들이 가지고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으며 당이 요구하는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오랜 간부들을 다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떼여버릴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일부 오랜 간부들속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한자리하였으니 이제는 놀고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해이한 현상이 나타나는것은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간부들을 떼여버릴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어 그들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한것처럼 앞으로도 일을 잘하여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당중앙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들을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였습니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들을 조직하여 내보낼 때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목적과 그들이 나가서 할 사업에 대하여 똑똑히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원들에

계 동무들은 나가서 간부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동무들의 투쟁대상은 간부들이 가지고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지 결코 간부들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간부들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타협없이 투쟁하되 그들을 존경하고 받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간부들이 수준이 낮은데다가 실무에 빠져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으니 동무들이 나가서 간부들에게 현대과학기술을 배워주며 실천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을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것입니다. 우리는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큰 규모의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함으로써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우가 아래를 더잘 도와줄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날에는 당중앙위원회에서나 정무원에서 공장, 기업소들에 지도원을 한두사람씩 내려보내는 방법으로 지도사업을 하였습니다. 지도원들은 공장, 기업소에 내려가 사업전반을 깊이 료해하는것이 아니라 결함보따리만 싸가지고 올라오군하였습니다. 지도원들이 싸가지고 올라온 결함보따리를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었으며 아래실정을 똑바로 알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마는 어떤 문제든지 한쪽면만 볼것이 아니라 앞면도 보고 뒤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여러 면을 다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물현상에는 반드시 긍정적측면도 있고 부정적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정확히 알려면 긍정과 부정을 징반비례적으로 옳게 결부시켜보아야 합니다.

중앙에서 공장, 기업소들에 지도원이 한두사람 내려가서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깊이 료해할수 없으며 공장, 기업소들에 큰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비서국회의에서 여러차례 토론하고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는 3대혁명소조를 20~30명씩, 큰 공장, 기업소에 나가는 3대혁명소조는 한 50명씩 되게 조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공장에 내려가면 매 직장, 작업반에까지 들어가 생산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의 본질을 똑똑히 찾아낼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창발성을 내여 일을 잘하도록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것은 지난 시기 지도원을 한두사람 내려보내여 허물이나 들추어내던 사업방법과는 비교할수 없이 우월한 사업방법입니다. 지난 시기의 지도사업방법을 수공업적인 사업방법이라고 한다면 3대혁명소조를 통한 오늘의 지도사업방법은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3. 3대혁명에서 이룩한 성과

우리 당의 령도밑에 최근년간 3대혁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며칠전에 3대혁명전시관을 돌아보고 또 이번 회의에서 훌륭한 토론들을 듣고 더욱 절실히 느끼였습니다.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3대혁명소조들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당, 국가 기관들을 강

화하는데서와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3대혁명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수 없으므로 부문별로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3대혁명소조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나가 3대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 힘있게 투쟁한 결과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그러면 사상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들은 어떤것이겠습니까?

첫째로, 3대혁명소조들은 우리 당의 기층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대로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당정책학습을 잘하며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 기풍이 섰습니다. 다시말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다 산 조직으로 되였으며 근로단체조직들도 다 산 조직으로 되였습니다. 그전에는 졸고있었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던 조직들이 3대혁명소조가 내려간 다음부터는 다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정책학습에서라든지,당조직규률을 지키는면에서라든지 당조직생활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대혁명소조들이 내려간 다음 간부들과 당원들이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더 잘하게 된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수 없는 귀중한 성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일군들과 관리일군들, 행정일군들 속에는 당이 내놓은 구호대로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서가고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은 언제나 대원들의 앞장에서서 곤난을 뚫고나갔습니다. 그들은 행군하다가 숙영지에 도착하면 먼저 톱을 들고 나서서 풀을 치고 우등불을 피울 나무를 베였으며 먹을것이 생기면 자기는 굶으면서도 대원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였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서로 굳게 뭉쳐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일제와 싸워이길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기층조직들과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서 지배인, 직장장, 관리위원장,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지휘원들이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는 이신작칙의 기풍이 선것은 사상혁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3대혁명소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라고 뒤떨어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열성분자일수는 없습니다. 사회에는 선진분자도 있고 뒤떨어진 사람도 있기마련입니다.

3대혁명소조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뒤떨어진 청년들을 많이 개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농촌에 나갔을 때 거기에 나가있는 3대혁명소조원이 뒤떨어진 청년들을 교양개조한데 대하여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 농촌마을에 군대에 나갈 생각만 하고 이러저러한 타발만 하면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3대혁명소조가 그들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여 그들을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3대혁명소조는 뒤떨어진 청년들만 개조한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개조되는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걷불에 맞아서 혁명화가 더 잘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작풍도 많이 고쳐졌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은 발전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에서 적극성을 내지 않는 복잡한 계층의 청년들을 개조하는데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뒤떨어진 청년들과 복잡한 계층의 청년들을 개조하여 그들이 다 열성을 내여 일하도록 한것은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셋째로, 3대혁명소조들은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국가재산을 애호하도록 하는데서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국가재산을 애호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생산하는것은 다 인민의 재산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모두다 인민의 재산을 자기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해전에 어느 농촌에 가서 농장원들과 담화한 일이 있는데 그때 한 늙은이는 국가에서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좋은 농기계와 귀중한 물자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할줄 모르고 되는대로 굴려 마사버리는것이 몹시 가슴아프다고 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가 나간 다음부터는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되는대로 다루는 현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넷째로, 3대혁명소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수정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모든 일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서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이태동안 사상전을 벌렸다고 하여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수정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주의 사상잔재가 다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사상전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농사에 비유하여말하면 이제 겨우 애벌김을 맨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애벌김을 매여 겉으로 보기에는 미끈하지만 아직 낡은 사상 잔재의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상전을 계속 힘있게 벌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되살아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3대혁명소조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 낡은 사상잔재들이 많이 없어진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였습니다. 지난해 《70일전투》에서 거둔 위대한 성과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어제 어느 동무가 토론에서 한 로동자가 자신이 주인답게 일한것은 물론, 가정교양을 잘하여 온 가족이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계획과제를 넘쳐수행한 감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실례는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주인다운 태도가 높아졌으며 항일투사들처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옹호하고 당과 혁명에 충성다하려는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우리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하며 조선혁명의 밝은 앞날을 더욱 뚜렷이 내다볼수 있게 합

니다.

다섯째로, 3대혁명소조들은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렸습니다.

3대혁명소조가 나가기전에는 법을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속에서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례를 들어 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는 자재를 람용하고 계획외공사를 하고 로력을 되는대로 류용하는 현상도 있었으며 당결정과 징무원결정을 어기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대혁명소조들이 내려가서 투쟁한 결과 이런 현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난날에는 일군들이 아래에 관료주의적으로 내리먹일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군들의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아래까지 잘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관료주의자들이 《통행증》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3대혁명소조활동이 약한데는 관료주의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농업대회에서 비판된 문제이지만 함경북도의 지도일군들이 농사철에 농사일을 제쳐놓고 초가집이엉을 기와로 바꾸어잇는 운동을 벌리라고 내리먹였을 때 그것을 받아물지 않은 군들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문 군들도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활동을 강화하여 아직도 일부 일군들이 가지고있는 관료주의《통행증》을 마저 빼앗아야 하겠습니다.

지도일군들이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버리고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하게 된것은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에 일어난 또하나의 커다란 전변입니다. 최근에 당중앙이 내놓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는 매우 좋은 구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간부들은 당이 내놓은 구호에 따라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같이 호흡하면서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이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혁명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나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도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사상혁명에서 이룩된 또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청년인테리들자신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된것입니다.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몇만명의 청년인테리들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혁명적인테리로 자라난것은 천냥이나 만냥의 금을 주고도 얻을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청년인테리들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견결성, 집단주의정신을 배웠으며 로동계급의 무진장한 창발성과 힘의 원천을 알게 되였습니다. 청년인테리들은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으며 로동계급과 로간부들, 청년인테리들이 합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매우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나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금처럼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잘해나간다면 앞으로 훌륭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에는 현대과학지식을 가지고있는 과학자들과 청년인테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실지 생산투쟁을 하고있는 로동자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로간부들과 합심하여 많은 창의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먼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습니다.

우리는 당 제5차대회에서 채취공업부문부터 먼저 기술혁명을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석탄공업, 광업, 림업과 같은 채취공업부문의 로동이 다른 부문보다 더 힘들기때문입니다.

당 제5차대회가 있은 다음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며 운반작업을 다양화할것을 결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각급 당조직들에 호소하였습니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 3대혁명소조원들과 로동계급이 합심하여 적극 투쟁한 결과 채취공업부문의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락원기계공장에서는 회전타격식착정기를 만들어 천공속도를 5배나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로천채굴장들에 받아들이면 박토작업의 능률을 약 2배로 높일수 있습니다.

천천착암기공장에서는 새로운 고속착암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쓰고있는 착암기보다 무게가 40%나 가벼우면서도 천공속도는 1.6배나 높습니다. 신의주광산기계공장에서 새로 만든 회전타격식착암기의 분당 천공속도는 100~120센치메터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면 교대당 락광량을 지금보다 8~10배나 늘일수 있습니다.

검덕광산과 룡원광산에서는 분당 천공속도가 100~120센치메터이고 마구리당 월굴진속도를 150메터까지 보장할수 있는 자행식유압착암대차를 만들었습니다.

차련관광산기계공장에서는 지금 쓰고있는것보다 2.5~3배의 적재능력을 가진 성능이 높은 적재기도 새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원통식채탄기와 사슬콘베아같은 채탄기계설비에 유압식종합기계동발을 받아들여 채탄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유압식종합기계동발을 받아들이면 채탄장로력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도 채탄공한사람당 하루생산량을 3.7배로 높일수 있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3대혁명소조들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탄부들과 광부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야금공업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였습니다.

당중앙이 용해공들을 고열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직접 틀어쥐고 밀고나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제철소, 제강소들에서는 사별장, 립철회전로, 환원단광로, 용광로, 평로, 전기로들의 산업텔레비존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로동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었습니다.

제련소들에서는 용광로를 밀폐식으로 개조하여 유해로동을 없애고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용광로면적당 하루생산량을 훨씬 늘였으며 제련실수률을 95%까지 높였습니다. 또한 연의 용해, 주조, 동대끼우기 작업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한사람당 생산액을 2.5배로 높였습니다.

세멘트공장들에서도 생산공정을 원격조종에 의하여 움직임으로써 고열과 먼지로 인한 유해로동을 없애고있습니다.

지난 몇해동안에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의 생산공정을 자동화하였을뿐아니라

자동화 기구 및 요소 생산기지도 튼튼히 꾸려놓았습니다.

청년전기공장, 천리길전기공장, 비류강전기공장을 비롯한 70여개의 전자기구요소공장이 꾸려져 수백종의 자동화요소들을 자체로 만들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의 자동화, 원격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기초를 쌓아놓은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특히 당의 요구에 맞게 기계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25톤짜리 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지금 100톤짜리 자동차도 만들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300마력불도젤, 10립방메터대형굴착기, 시간당 50톤의 광석을 처리할수 있는 대형마광기, 450톤산적화물하차기, 10톤문형기중기, 15메터대형선반, 20메터대형선반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안전기공장에서는 10만크바변압기와 20만크바대형변압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매우 기쁘고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우리모두 20만크바대형변압기를 생산한 대안전기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을 축하하여 박수를 칩시다.

우리의 로동계급이 대형규소반도체정류기를 자체로 만들어낸것도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모두 축하를 드립시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지금 1만 5,000톤짜리와 2만톤짜리 큰 배를 만들고있으며 1,500마력고속엔진과 2,500마력중속엔진, 3,000마력고속엔진도 만들고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응당 축하를 보내야 할것입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였습니다.

지난해에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암모니아합성탑을 개조하여 합성탑의 능력을 1.5배로 높였으며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에서는 회전질화로의 구조를 개조하고 새로운 기술공정을 받아들여 대당 능력을 2배로 높였습니다.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는 수공업적으로 하던 판프침지공정을 개건하여 침지기대당 하루생산능력을 8배이상으로 높이고 교대당 운전로력을 4분의 1로 줄였으며 알카리섬유소의 로성공정을 련속공정으로 개조하여 알카리섬유소생산능력을 2.5배나 높였습니다. 또한 수공업적인 판식압려과기를 완전밀폐충전식려과기로 개조하여 려과능력을 10배나 높였습니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유해로운 공정들을 다 현대화하여 유해로동을 없앴습니다. 나는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공장 로동계급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비날론생산능력을 5만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비날론의 질도 훨씬 높였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였습니다.

수풍발전소에서는 수차를 개조하여 효률을 높이고 발전기 랭각조건과 절연성을 개선하여 발전능력을 10만키로와트나 더 높였습니다. 독로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장진강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 이러한 기술혁신을 받아들이면 20여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을 더 얻을수 있습니다.

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선진적인 액상재처리방법을 받아들여 연소효률을 2~3% 높이고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한해에 평양화력발전소에서만 2만톤의 중유와 1만 5,000톤의 석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건설건재공업부문에서는 종전보다 능률이 10배나 높은 스크류식련속콩크리트혼합기를 만들어냈으며 련속식다공판성형기를 만들어 부재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멘트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림업부문에서도 능률높은 길닦는기계와 유압식통나무상차기를 창안도입하였는데 새로운 길닦는기계는 길닦이작업에서 로동생산능률을 50~70배로 높일수 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정방기가락회전수를 분당 1만 2,000~1만 5,000회전으로 높여 약 10만추의 방적능력을 더 얻어내였습니다. 또한 직기를 고속도화하여 천을 더 많이 짤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방직공장들에서 북없는 직기를 받아들이고있는데 이것을 널리 일반화하면 지금 있는 직기를 가지고도 1억메터이상의 천을 더 짤수 있습니다. 북없는 직기를 도입한것은 방직공업에서 커다란 혁신입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도 기술혁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70일전투》기간에 온 나라가 달라붙어 항들에 항만기중기를 많이 만들어놓고 창고와 야외적재장들을 건설하여 항들의 화물통과능력과 화물보관능력을 각각 2배로 높였습니다.

지난해에 기관차의 견인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 하루 6만톤, 한해동안에 2,000만톤의 화물을 더 끌수 있는 예비를 찾아내였습니다.

철도역들에서 진동식하차기와 자동부림화차를 받아들여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화차회귀일수를 3주야로부터 2주야로 줄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과학자들과 청년인테리들은 당과 인민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벌린 대담한 기술혁신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전도는 더욱 밝아졌으며 일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기술신비주의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숭배사상이 산산이 깨여졌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난 기간 당에서 준 과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고비도 많이 겪고 긴장한 투쟁도 벌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와 인민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당의 신임에 보답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모든 과학자들과 청년인테리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뿐아니라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놀았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는 사업과 함께 선진과학과 문화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높은 문화기술을 가진 적극분자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구내와 주변을 공원과 같이 만들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기계설비들을 잘 보수정비하고 알뜰하게 거두며 공장건물과 생산시설들을 문화성있게 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지난날과는 비할바없이 깨끗하고 보기좋게 꾸려졌습니다.

문화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11년제의무교육을 올해안으로 완전히 실시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놓은것입니다. 이르는곳마다에 탁아소, 유치원들을 잘 꾸려놓음으로써 녀성들이 마음놓고 직장에 나가 일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놓은것도 큰 성과입니다.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이 더욱 개선되였으며 특히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는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이 크게 발전되였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3대혁명방침이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전체 로동계급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적극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나는 3대혁명소조들과 로동계급이 이룩한 투쟁성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3대혁명을 승리적으로 진행한 결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한층 공고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는 경제적기초도 더 튼튼히 마련되였습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우리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속도전을 계속 힘있게 벌릴수 있는 사상적 및 물질적 기초가 닦아졌습니다.

지난해에 당중앙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70일전투》를 벌린 결과 사회주의대건설에서는 참으로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70일전투》기간에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여 전투이전에 비하여 생산이 평균 1.7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공업생산은 1973년에 비하여 17.2% 늘어났으며 1970년에 비해서는 거의 1.9배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을 해마다 평균 14%의 속도로 장성시킬것을 예견한 당 제5차대회의 목표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지난해 11월 한달동안의 공업총생산액은 그 전해 11월에 비하여 148%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12월 한달동안의 공업총생산액은 그 전해 12월에 비하여 152%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업발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고의 기록입니다. 지난해 《70일전투》기간의 공업생산수준은 6개년계획에 예견된 1976년의 생산수준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70일전투속도》를 견지하고 《70일전투》기간의 생산수준을 유지한다면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완수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강력한 경제토대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경제를 굽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마치도 우리 나라 경제가 세계자본주의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있는듯이 헛소문을 퍼뜨리고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렬한 책동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경제입니다. 우리는 공업원료의 70%이상을 국내원료에 의거하고있으며 나머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해결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자본주의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원료때문에 생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이 있을수 없습니다.

생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것은 자본주의경제의 고유한 본능입니다. 자본주의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고 리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기때문에 리윤이 많이 날 때에는 생산이 올라가고 리윤이 적거나 생산의 무정부성이 심해져 상품이 체화될 때에는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경제는 생산이 오르내리며 몇해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법칙적현상이며 자본주의경제의 본질적결함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경제의 이러한 본질적결함을 잘 알기때문에 절대로 공업원료를 자본주의시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할 때부터 공업원료를 기본적으로 국내원료로 보장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국내원료에 확고히 의거하고있으며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전진할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 세계적으로 물건값이 높이 뛰여오를 때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위력이 얼마나 크며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얼마나 현명하고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또한 공업부문구조가 완비되여있고 다방면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들과 경공업부문들을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공업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습니다.

우리의 기계공업은 뜨락또르, 자동차, 굴착기, 불도젤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는 기계와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지 않는 설비들만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있습니다.

우리는 천을 비롯한 경공업제품들도 자체의 생산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5만톤능력의 2.8비날론공장과 3만톤능력의 청진화학섬유공장을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능력을 2만톤으로 늘이고있습니다. 지금 건설하고있는 청년화학종합공장에서는 앞으로 1만톤의 화학섬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목화는 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기때문에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좀 사오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공업발전력사가 짧고 기술수준이 높지 못하여 아직 경공업제품의 질은 그리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제품의 질도 높아질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개년계획기간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지 않을수 없었던 조건에서 경공업건설에는 큰 힘을 넣을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지만 전군현대화와 전민무장화에 필요한 무기를 자체로 만드는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또한 인민소비품이 좀 모자라는것은 참을수 있지만 총과 대포를 만들지 않으면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경제건설에서 좀 지장을 받으면서도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경공업건설에서 7개년계획기간에 제대로 하지 못한것을 봉창하기 위하여 6개년계획의 첫해부터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몇해

사이에 메리야스공장, 양말공장, 신발공장, 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꾸렸으며 경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방직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경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올해 2월말에 6개년계획의 직물고지를 점령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한지 이미 오래며 특히 최근 몇해에 대풍작을 이룩하여 많은 식량예비를 마련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강재와 세멘트를 자체로 많이 생산하기때문에 집도 많이 짓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강력한 민족경제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고있으며 어떠한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쳐부실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어느모로 보나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을 딸라로 환산하면 1,000딸라가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경제건설을 더 잘하여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지난 《70일전투》기간에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9,844원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6개년계획에 예견한 수준을 돌파한것으로 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앞으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1만원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토대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의 이 투쟁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보람차고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의 우월한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앞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4.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몇가지 과업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3대혁명과업에 대하여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였기때문에 오늘은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서만 강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는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은 곧 조직생활이며 정치생활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을 하여야 정치적생

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고 사로청원은 사로청조직생활을 잘하고 직맹원은 직맹조직생활을 잘하고 농근맹원은 농근맹조직생활을 잘하고 녀맹원은 녀맹조직생활을 잘하고 당원은 당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집단주의적생활을 하여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때에 고칠수 있고 사상을 단련할수 있으며 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조직생활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특히 조직생활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형성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이나 많이 읽으면 혁명적세계관이 서는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것이 아닙니다.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혁명가로 단련되는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조직들은 다 혁명적인 조직들입니다. 우리의 조직들은 그 어떤 유흥조직도 아니고 지난날의 계나 의형제와 같은 집단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들은 다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집단이며 정치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면 혁명적세계관이 서게 되고 혁명화가 촉진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려면 조직이 산 조직으로 되여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제때에 회의도 하며 조직성원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 실행정형을 총화하며 잘못된것은 고치주고 잘한것은 잘하였다고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혁명과업을 주어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고 혁명투쟁의 열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혁명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혁명임무는 조직에서 분공합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조직에서 주는 혁명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구호의 하나는 학습입니다. 꾸준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우지 않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발전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부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내놓고 유격대원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였으며 오늘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놓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며 혁명투쟁방법도 시기에 따라 변합니다. 당은 혁명이 심화발전되고 정세가 변하는데 따라 거기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내놓습니다. 다시말하여 당은 매 시기 혁명의 과업은 무엇이고 어디에 투쟁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면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것과 같은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르고서

는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꾸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학습에서 기본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에서 내려보내는 학습제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은 토요학습과 강연회, 한달강습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성실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로동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면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며 다같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기때문에 지금보다 일을 헐하게 하면서 물질적부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혁명을 하는 목적도 바로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먹는 문제는 사실상 공산주의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쌀을 한키로그람에 8전씩 받고 공급하므로 그들이 하루만 나가 벌어도 한달 먹을수 있는 쌀을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속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며 로동규률을 지키지 않는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하며 로동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누구나 다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며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지 않고 480분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않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열매이며 전체 인민을 위한 귀중한 재부입니다. 한오리의 실, 한대의 기계설비도 다 근로자들이 땀흘려 만든것이며 그것은 다 인민을 위한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의것과 같이 소중히 거두지 않고 되는대로 거두거나 랑비한다면 아무리 많이 건설하고 생산하여도 그것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하여가지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도 없고 나라의 재부를 늘일수도 없으며 전체 인민들이 다 잘살게 할수도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회의 부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자기도 잘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부르고는 있지만 이 구호에 담겨져있는 참뜻을 잘 알지 못하고있는데 이 구호의 공산주의적본질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입니다.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낡은 사상 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정권기관들은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과 법적통제를 옳게 결합하여야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법이 필요없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지 못한 조건에서 법적통제를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법적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적요구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구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혁명적인 헌법입니다. 당,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을 비롯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통달하고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법규범들과 규정들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군대에는 내무규정과 위수규정, 전투규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규정을 가지고 군인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며 군대의 규률과 질서를 보장합니다.

사회에도 여러가지 법규범과 규정이 있어야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일수 있으며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법규범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히 여기고 그 요구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채취공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방대한 규모로 빨리 발전하는 가공공업에 채취공업이 앞서지 못하고있습니다. 가공공장들에 적어도 석달분의 원료예비가 마련되여있어야 채취공업이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섰다고 말할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채취공업을 앞세워 원료를 원만히 대주어야 가공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도 철저히 세울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쇠돌을 비롯한 광석들과 석탄, 석회석, 목재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채취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3대혁명소조들과 당, 정권기관 일군들

은 채취공업부문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부문일군들은 자체의 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기술혁명수행에서 얻은 성과들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는것과 함께 운반에서 삭도화, 콘베아화, 관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생산한 원료와 연료들을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화물역들에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수송의 긴장성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오늘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철도전기화를 계속 밀고나가야 합니다. 철도전기화를 빨리 다그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철도운수부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철도를 전기화하려면 동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동광산들에서는 동을 한사람이 매일 계획밖에 1키로그람이상씩 더 캐기 위한 운동을 벌려 철도전기화에 필요한 동을 원만히 대주어야 하겠습니다. 동광산들에서 년말까지 동을 한사람이 매일 1키로그람씩만 더 캐여 보내준다면 수천키로메터의 철도를 더 전기화할수 있으며 전기기관차도 더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철도를 전기화하는데 따라 60톤짜리 중량화차를 많이 생산하고 레루를 중량레루로 바꾸며 철다리들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60톤짜리 중량화차를 많이 만들수 있도록 강판을 먼저 차량공장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또한 집중수송체계를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화물역을 비롯한 철도화물역들을 잘 꾸리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를 적극 발전시켜 자동차로 가까운 거리수송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운수부문앞에는 해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만 무역을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신생독립국가들과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새로운 경제부문들이 새로 생겨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시장에만 의거하여서는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시장에 계속 의거하면서 자본주의시장에도 적극 나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사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나라들뿐아니라 자본주의나라들, 신생독립국가들과의 무역을 하려면 해상운수를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해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내야 합니다.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면 철도운수의 긴장성도 풀수 있습니다. 큰 짐배들이 많으면 지금 철도를 통하여 중국이나 쏘련에서 들여오는 짐을 배로 실어나를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동해안에서도 많은 짐을 배로 실어나를수 있

올것입니다.

전당, 전국, 전체 인민이 도와주어 큰 배들을 많이 무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에 조선소들이 많은데 지금 있는 조선소들에서 큰 배들을 계렬생산할수 있도록 잘 꾸리기만 하여도 배를 많이 무어낼수 있습니다. 올해에 김책제철소 열간압연직장 건설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좋은 강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뭇는데 필요한 강판을 보장하는것은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선박공업부문을 적극 도와주어 조선소들의 생산능력을 빨리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박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 해마다 적어도 2만톤짜리, 1만 5,000톤짜리, 5,000톤짜리, 3,000톤짜리 짐배를 30척이상씩 무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가 큰 배를 100척이상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항건설을 잘하여야 합니다.

항건설에서는 지금 있는 항들에 대한 보수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동서해안에 청진항과 남포항을 비롯하여 큰 짐배들이 머물수 있는 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항들을 현대화한다면 새로 항들을 건설하지 않고도 항들의 통과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대동강연안에 새로 항들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동강연안에는 1만톤짜리 큰 배들이 들어와 설만한곳이 많으므로 거기에 항들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해안에 방파제를 쌓고 항을 건설하려면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대동강연안에 항을 건설하는것은 간단합니다. 배가 들어와 설만한곳에 부두를 건설하고 적재장을 만들며 창고를 짓고 짐을 실고부릴 기중기나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있는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를 동원리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공장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도록 하는것입니다.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려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에 예견된 협동생산품을 먼저 생산하여 제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켜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으로써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다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와 잠재력이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재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제품을 가볍고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품의 질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면서도 자재가 적게 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공장에 필요없는 자재들은 사장시켜두지 말고 필요한 부문에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가공속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자기 공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다 생산하고 더 가공할것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서 주문품을 받아서라도 기계설비들을 세워두지 말고 만가동시켜야 합니다.

기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가공속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생산장성의 많은 예비가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국가계획은 곧 국가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계획은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들과 직장, 작업반들에서 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대외무역을 잘하여야 우리 나라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더욱 높일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좋게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을 잘하여야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외무역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수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원래 상품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팔기 위하여 만드는 물건이므로 질이 높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하여 국내에서 쓰는 제품도 알뜰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야 하지만 수출품은 더욱 질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품을 만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제품을 보다 질적으로 만들고 포장도 알뜰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만든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신용을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을 잘하기 위하여 신용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역사업에서 신용제1주의를 내세워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외무역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수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수출계획을 월초에 앞당겨수행하는 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외무역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정무원 무역부에서 용선한 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오늘 전반적인 국제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 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심각하여짐에 따라 인민들의 혁명적기세가 높아가고있으며 제3세계나라들의 반제투쟁열의도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전반적국제정세는 멀지 않은 앞날에 혁명적대사변이 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북반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싸우는 나라들과의 반제전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든지,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모두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리용하여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나는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모두다 힘차게 투쟁할것을 호소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혁명의 기치밑에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지도사업정형을 토의하였으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의 구호를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 그리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매우 현명하였다는것이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전원회의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획기적리정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교시와 당중앙위원회 구호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에 휩싸여있으며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싸워나갈 충성의 일념에 불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 *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휘황한 홰불이며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세가지 혁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5폐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는다고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저절로 건설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경제건설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하여서만 건설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착취사회의 유물인 도시와 농촌사

이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할수 있으며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시여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이 힘을 합쳐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이 발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중요한 목적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히 발전시켜나가려는데 있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발기하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짓부시고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적운동이며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력사적운동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3대혁명로선과 그 관철을 위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독창적으로 발기하시고 친히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과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들을 무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중요한 목적과 나가서 할 사업에 대하여 똑똑히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 및 국가적인 중요회의들에서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정형을 총화해주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3대혁명소조원들을 찾으시여 사업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끝없이 고무해주시였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로선의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으며 수령님의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세우고 속도전,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당, 국가, 경제 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9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짐으로써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당의 기층조직들이 더욱 강화되고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이 강화되였으며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

계 되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분위기도 또한 좋다. 지금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그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는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힘있게 맥박치고있으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은 당중앙이 내놓은 구호에 따라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당중앙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아래로쭉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당과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의 표시이며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온갖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났다. 특히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들고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70일전투》에 산악같이 일떠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경이적인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하였다.

속도전, 사상전의 불길속에서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진행되였으며 전반적인 기술장비가 더욱 개선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농촌테제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농촌에 대한 주체공업의 강력한 지원이 벌어져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전례없는 대풍이 이룩되였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으며 도시와 농촌이 더욱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는것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잘 진행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오늘 혁명정세는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일찌기 없었던 정치경제적위기에 휩싸여있다. 폭발적인 위기를 배태한 경제적침체와 파동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자들은 위기를 모면할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일상전의 돈주머니에 매여달려 여명을 부지하는 이중주구 박정희괴뢰도당도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놈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멸망에 직면한 제놈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다. 전반적국제정세는 멀지 않은 앞날에 혁명적대사변이 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를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투쟁의 보루로, 고무적기치로 되게 하여야 하며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3페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위력한 무기이며 사회의 심장이다.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만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혁명의 기본무기이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고 언제 어데서나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조직생활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이며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높이고 혁명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규약상 요구대로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혁명가로 단련하며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세포, 모든 조직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게 하며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며 전진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구호의 하나는 학습이다.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성실히 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당성을 부단히 탐련하여야 한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당적규률을 세워야 하며 당조직들이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이 항상 사람과의 사업 즉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사업에서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모든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따라서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업을 명실공히 산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행정식방법을 철저히 없애는것이다. 당조직들은 행정식방법, 행정대행을 철저히 극복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 대한 감독, 당정책의 해설선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한 즉시적인 의견제기,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자기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대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군중로선이다. 당은 군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당자체도 강화할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은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등 근로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그 자립성을 높여 근로단체조직들로 하여금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능동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4폐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정권기관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하며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되며 혁명이 심화발전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화되여야 한다. 계급투쟁이 있는 한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있는것이고 계급투쟁을 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상투쟁 하나만으로는 계급투쟁을 강화할수 없다. 사상투쟁과 함께 법적투쟁,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와 숭고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

력한 무기로서의 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그의 지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정권기관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높이며 특히 국가 및 사회 생활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과도적사회이다. 우리가 아직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지 못한 조건에서 법적통제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수백수천년동안 내려온 낡은 요소들과 사상잔재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정권기관의 법적투쟁, 통제적기능이 강화되여야 한다.

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법적투쟁, 법적규률을 강화하자면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제반 법규정들이 있어야 한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 독창적인 주체의 헌법은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혁명적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헌법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을 다시 만들고 그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추호도 어길수 없는 나라의 지령이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히 하고 그 요구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정권기관을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사람들, 당성이 높은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속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을 없애고 인민적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세우며 정권기관이 언제나 정확한 직능을 가지고 일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미제와 그 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제때에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366페지)

국방에서 자위를 보장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오늘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호전광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떠돌고있다. 우리는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쟁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강의한 혁명정신,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 무쇠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 강철같은 규률을 가진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5대방침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이 5대방침은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님과 당중앙에 한목숨바쳐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무력으로, 어떠한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원쑤들을 능히 타승할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무적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위대한 강령적지침이다.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조국과 인민

의 안전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강의한 혁명성,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 조선사람들의 체질,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투지휘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완성하며 부대, 구분대들에서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벌림으로써 모든 군인들이 령활무쌍하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 최신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며 육체적으로 무쇠와 같은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군대의 군인답게 군사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강한 규률성을 가진 강철의 대오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방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은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어떠한 원쑤들도 함부로 쳐들어올수 없고 적을 치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

우리는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있을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사소한 안일성, 해이성, 권태증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모든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후비대, 예비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은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원쑤들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본때있게 싸워 결판을 내고야 말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70일전투속도》를 이룩한 그 기백으로 새로운 더 높은 충성의 속도를 창조하며 총돌격전을 벌릴데 대하여 다시금 교시하시면서 그 명확한 방향과 방도, 공격목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의 5개전선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을 벌려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1페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빛나게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혁명투쟁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대업을 앞당기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10월 10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함으로써 당창건 30돐을 영광스러운 혁명적명절로 장식하여야 할 보람찬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바로 이것이 올해 우리 당의 부름이며 전투적구호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70일전투》에서 떨친 그 충성, 그 열정, 그 기백으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며 이미 건설하여놓은 생산설비들이 은을 내게 하고 그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대비약, 대기적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업전선은 6개년계획수행에서 주공전선이다.

공업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부문에서 총돌격전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한다.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만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 균형경제이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이 없이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을

지킬수 없다. 우리는 채취공업에 계속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가공공업과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반적공업전선에서 대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광산과 탄광들에서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삭도화, 콘베아화, 관화할데 대한 3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갱건설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러가지 광물과 석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나래를 활짝 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다. 수송부문에 대한 전당적, 전인민적 지원을 강화하여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치며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중량화,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상하차작업에서 기계화를 도입하여 화차의 회귀일수를 최대한 줄이며 자동차수송과 해상수송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기종간균형을 맞추고 기계설비들의 가동률과 가공속도를 최대한 높이며 기술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더많이, 더좋게 만들고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형설비들과 채취공업설비, 대상설비 생산을 다그쳐야 하며 기본건설전선에서는 기본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넉넉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공업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이미 건설하여놓은 경공업공장들 특히 곡산공장들이 더욱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기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대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업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모든 단위에서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과 협동농장 관리일군들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투쟁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투쟁의 앞장에서 기수가 되고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수행에서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며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고 도와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때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사나운 풍파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훨씬 앞당겨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 보루로 전변되고 혁명은 반혁명을 압도하면서 승승장구해나갈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다그치며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10월 10일전으로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올리는 충성의 선물을 안고 영광스러운 당창건 30돌의 대축전광장으로 달려나가자.

# 항일유격대의 정치선동

## 조 근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우리 당 정치선동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중앙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리고있는 오늘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정치선동사업의 전통을 빛나게 구현하여 선동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투적으로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선동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받아안은 당조직들과 사상부문일군들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사업을 생동하고 패기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터는 사상교양의 마당으로 되고있으며 근로자들속에서는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당은 웅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넘쳐완수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기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다그치기 위한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더욱 전투적으로 벌릴것을 호소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사상부문일군들은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들고 들끓는 생산현장과 포전에 나가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불이댐으로써 대중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키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군중정치선동사업의 빛나는 모범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정치선동이 차지하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정치선동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대중을 쟁취해야 한다.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다. 대중을 떠나서 혁명을 하겠다고 떠드는자들은 다 가짜혁명가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대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중선전선동사업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로동계급의 거창한 혁명투쟁은 광범한 대중이 의식적으로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발동되여야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군중속에서 정치선동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혁명투쟁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투쟁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며 바로 여기에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항일무장투쟁은 그자체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정치선동사업을 요구하였다.

대중이 진심으로 깨닫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군중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이 적들의 4면포위속에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워야했던 항일무장투쟁의 조건에서 그들을 간악한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게 할수도, 겹겹이 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게 할수도 없었다. 오직 일제에 대한 섬멸전과 병행하여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만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

쟁에서 정치선동사업이 차지하는 거대한 역할과 그 필수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정치선동의 본질과 그 원칙적 요구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동사업은 군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발동시키는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05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선동이란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투적인 호소의 방법으로 대중의 기세를 돋구고 직접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정치선동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이 들끓게 하여 그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빛나는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치선동에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을 철저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힘을 천백배로 높이게 하며 자기 힘으로 겹쌓인 난관과 애로를 뚫고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다 개조해나가게 한다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선동사업의 이러한 본질적내용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원칙적요구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정치선동에서 중요한것은 언제나 대상의 실정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벌리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이 대중의 심장을 파악하자면 어떻게 되여야 할것인가? 우선 선전일군들자신이 선전대상의 실정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대상에 대한 료해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선전선동사업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게 되며 또 그러한 선전선동사업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것이다.

사상사업은 다양한 대상을 가지고 진행되는 창조적사업이며 여러가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밑에서 진행되게 된다.

특히 선동사업은 선전사업과는 달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대중속에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리해시키는것보다 전투적인 호소의 방법으로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 제때에 떨쳐나서게 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선동은 대중이 더 잘 발동되게 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선동사업은 각이한 대상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대목에 필요한것을 가지고 제때에 하여야 하며 사람들이 락심하거나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는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부채질을 해서 용기를 내도록 하고 돌격전을 앞둔 전사들에게는 돌격전을 하게 해야 선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동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틀과 격식을 차리지 말고 대중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정치사업을 한다고 하여 누가 가르쳐준 말이나 적어들고 다니면서 류창하게 내리읽는 《연설쟁이》가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선전하고 선동하는것은 우리자신의 《박식》을 자랑하거나 뽐내자는것이 아니라 대중속에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주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게 하자는것이기때문에 마땅히 대중이 알아들을수 있게 정치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선동이 대중의 심장을 파악하자면 간단명료할뿐만아니라 틀을 차리지 말고 대중이 잘 알아들을수 있는 말과 글로 하여야 하며 언제나 선동의 목적이 명백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혁명대렬내에 끼여들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대중이야 알아듣건 말건 《유식》을 뽐내기 위하여 외래어를 가지고 《프로레타리아트

의 헤게모니》요, 《프로레타리아독재》요 하면서 《연설》하고 돌아다녔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중을 감동시킬수 없었을뿐아니라 우선 리해시킬수도 없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그릇된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선전선동사업에서는 언제나 군중이 쉽게 알아들을수 있고 감동될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벌릴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정치선동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여러가지 형식들을 옳게 배합하고 중심고리에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선동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치선동에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으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선동사업에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시고 그들을 성스러운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선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 유격투쟁을 할 때에 보따리를 차고 부대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같이 행군하다가 빨찌산들이 쉬는 짬에 그들속에 끼여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여 선전도 하고 사람들을 교양도 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0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나 대원들과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전략전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서는 그 관철을 위한 대중령도에서 언제나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시고 정치선동으로 대중을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대원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훌륭한 군사정치활동가로 믿음직하게 키워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육친적사랑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체득함으로써 모두가 다 인민대중의 조직자,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할수 있었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누구나 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중속에 침투시키는 훌륭한 선전선동자였으며 그 철저한 집행자였다. 그들은 누구나 다 선동원이였으며 대중의 조직자이고 교양자였다. 따라서 항일유격대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정치선동이 활기있게 벌어지고 사람들은 감격과 흥분, 들끓는 열정과 혁명적투지로 차고넘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정치선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것은 대중속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높이 불러일으키여 그것이 항일무장투쟁의 실천활동에서 빛나게 구현되게 하는것이였다.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 수령님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려는 높은 정치적자각,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였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첫자리에 놓고 정치선동을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몸바쳐싸우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이며 그것이 곧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대중속에 널리 선전선동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정치선동은 유격대오와 유격근거지, 적통치구역의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

으로 활발히 벌어졌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틀과 특별한 격식이 없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를 해설하고 그들에게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자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유격대원들은 인민대중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말을 써가면서 그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들을 실례로 들어가면서 담화도 하고 강연도 하며 노래도 보급하는 등 실속있고 생동한 정치선동을 벌리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정치선동에서 형식주의적인 틀과 내용없는 걸치레는 절대금물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필요하다면 그 어떤 환경에서나 정치선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조건이 없어서 정치사업을 못한다는 리유가 있을수 없었다. 가렬한 전투후 잠간 쉬는 짬시간이라도 예술선동이 필요하다면 나무를 찍어다 간단히 무대를 만들고 연극도 하고 재담도 하였으며 피리나 하모니카를 가지고도 혁명적인 노래를 연주하여 대중을 들끓게 하였으며 격문과 삐라가 필요하다면 자체로 등사기를 만들어서 찍어냄으로써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떻게 하면 군중에게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더잘, 더빨리 가르쳐주며 혁명투쟁에 더많은 군중을 조직동원시키겠는가를 언제나 생각하였으며 그러기에 가장 전투적이고 생동한 선동형식과 방법을 찾아냈다.

실로 항일유격대의 정치선동은 사람들을 일편단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백절불굴의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이 수많은 사선을 넘고넘으면서 불사신처럼 싸워이기게 한 무궁무진한 힘과 투지를 낳게 하였다.

1937년 조선인민혁명군의 력사적인 조국진출과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인 동시에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항일유격대식선동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1937년 3월 서강회의에서 조국진출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국내진출을 위한 군사활동을 벌리시는 한편 국내진공작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집중적이며 전투적인 선동활동을 맹렬히 조직하시였다.

이 시기 유격대오안에서는 수령님의 조국진군에 대한 원대한 구상과 조국진군의 목적과 의의를 해설하는 정치선동이 행군대오에서도 휴식의 짬시간과 숙영지 우등불가에서도 활발히 벌어졌다. 또한 혁명적예술활동과 오락회들이 대원들을 투쟁에로 불렀으며 충천한 기세를 더 한층 높여주었다.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대원들에 대한 개별적교양사업도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투적으로 벌어진 선전선동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로 대원들의 기세와 열의를 높여주었으며 그것이 곧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게 하였다.

부대가 력사적인 조국땅 곤장덕에 오르자 보천보전투를 앞두고 선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여 구두선동과 직관공작, 각종 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앞으로 있을 전투의 숭고한 목적과 거대한 의의, 매개 전투원들의 구체적임무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이러한 정치선동은 매개 전투원들의 심장마다에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수령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전투를 한다는 끝없는 영예감을 깊이 간직하게 하였으며 제기된 전투임무수행에서 자기의 모든것,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라도 바칠 충성의 결의로 모두의 가슴을 끓어번지게 하였다.

일단 전투가 개시되였을 때 선동은 돌격의 나팔소리와 같이, 결전의 북소리와 같이 전투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심장을 격동시켜 대원들로 하여금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 백절불굴의 투지를 발휘하여 맡겨진 전투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도록 고무추동하는 강유력한 무기로 되였다.

혁명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보천보의 밤거리에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체 반일애국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원쑤를 반대해 싸울것을 호소하시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수령님의 연설은 눌리우고 짓밟힌 조국땅에 혁명의 서광을 비쳐주었으며 조선인민은 이 혁명의 서광속에서 밝은 앞날을 내다보았으며 조국광복의 신심과 투쟁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해방된 보천보의 거리와 골목골목들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군중속에 다양한 정치선동을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승리와 정치선동에 감동된 인민들은 유격대를 지원하여 식량과 피복을 비롯한 수많은 원호물자를 보내여왔으며 유격대에 입대할것을 열망하였다. 이것은 선동의 거대한 힘이기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보천보전투와 구시산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서강회의방침대로 지양개에서 국내진공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축하하는 군민련환대회를 벌리였다.

여기에는 무산지구에 진출했던 부대들도 도착하였고 림강부근에서 활동하던 부대도 돌아왔다. 련환대회는 모든 정치수단과 선동력량이 총동원되여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들끓는 전투적분위기에서 진행되였다.

참으로 군민련환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강회의에서 제시하신 력사적인 국내진공작전에 대한 군사활동의 총화일뿐아니라 전투승리를 확고히 보장한 항일유격대식정치선동의 빛나는 총화였다.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시기 정치선동은 긴장된 환경일수록 그에 맞게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안받침하면서 모든 정치력량을 동원하고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격적으로 들이댐으로써 즉시적인 효과를 내게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정치선동은 순시도 중단되지 않았으며 모든 혁명과업은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렇듯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모든 혁명과업수행에서 전투적이며 전격적인 정치선동으로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였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일당백의 장수힘을 냈으며 매번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선동, 이것은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풍부화된것임으로 하여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생동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담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끊임없이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집중적으로 들이대여 일터마다 당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충성의 열정이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기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기본담보는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하는데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중앙에서 가르쳐준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틀과 격식이 없이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군중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투쟁의 나팔수가 되고 기수가 되여야 한다.

당면해서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정치선동의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생동하고 패기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계속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온 나라가 혁명의 불도가니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근본문제

김 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영광에 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고 완성하는 진위답게 영원한 충성의 대오로, 불패의 전투부대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였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당의 대중적지반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이 매우 높아졌다.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기적을 창조하고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더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이 력사적시기에 당중앙은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당중앙이 내놓은 이 방침은 오늘 우리 당건설의 근본문제로서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강령적지침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더욱 풍부화하고 심화발전시킨 위대한 사상이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필승불패의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　　　　*

전당을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은 우리 당건설의 근본문제이며 당사업, 당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당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의 유일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당건설의 근본문제이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 오늘 우리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의 통일체로 만드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완성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꾸리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원래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리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혁명적당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류가 이룩한 모든 선진사상과 선행시기 모든 혁명투쟁의 경험을 분석총화하고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창시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로써 당을 조직한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상을 같이하는 계급의 핵심분자들을 묶어세워 당을 창건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로동계급의 선각자들, 선진분자들로 꾸리는것은 당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이 기본원칙을 가장 높은 단계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 모든 당원들을 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움으로써 우리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리는 문제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전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란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고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풍모와 높은 자질을 가지고있는 공산주의자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전하게 체현한 최고형의 공산주의자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바로 모든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수준을 이러한 높이에 끌어올림으로써 당대렬을 완전무결한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만들게 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또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나가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당의 전투력의 원천이다.

우리 당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반드시 자기 대렬을 정수분자의 집단으로 꾸릴뿐아니라 당안에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그 어떠한 사상조류의 존재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 당이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 완성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신념과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의 사상대로만 사고하고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고히 지배하게 한다. 그리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차고넘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 당을 어떠한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며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전당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그 질적구성에 있어서나 당대렬을 사상의지적으로 강화하는데서나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사업이며 우리 당건설, 당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이 방침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당건설, 당활동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당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근로인민의 선봉대로서 조선민족의 해방과 근로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적인 사상과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69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전투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당과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발전법칙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전당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데 기초하여 혁명투쟁에 관한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제시한다.

수령에 의하여 제시된 사상과 리론은 당건설의 총적방향과 당활동의 근본원칙, 당의 투쟁목적과 임무, 혁명의 전략전술을 규정한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모든 활동을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할수 있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각이한 투쟁조건에 맞게 옳바른 투쟁형태와 방법을 적용하여 대중을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모든 혁명단계의 리론과 전략전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히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독창적으로 창조하시였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체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며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사상이다.

특히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에는 우리 당건설의 본질적요구와 그 합법칙성,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방향과 여기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있다.

따라서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리론, 전략전술적원칙과 집행방도를 옳게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행동통일을 강화할수 있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다.

또한 전당을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력한 대중령도방법을 전당에 확립함으로써 우리 당을 언제나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당으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 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38폐지)

당의 대중지도방법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적령도방법을 독창적으로 창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 공산주의적투쟁정신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대중령도방법의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이 이 혁명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 때에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나갈수 있다.

전당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안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소극적이며 보수적인것을 불사르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전투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켜야 할 뚜렷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완전무결하게 완성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실로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위대한 혁명적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 *

당중앙이 제시한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방침이다.

전당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는 실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당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

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왕성한 투지와 전투적패기, 충성의 열정을 안고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전당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완성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은 또한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온 사회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보람찬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위대한 정치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이 위업은 사회의 심장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인 우리 당을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 때에만 성과있게 실현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 때 우리 당을 통하여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온 사회에 더욱 힘있게 뿜어주어 사회와 사람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이렇듯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는 문제는 혁명의 무기, 창조의 무기인 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달려있는것이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목표와 방향, 그 로정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 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는데 거대한 의의가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자기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 당을 창건하며 당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물론 당활동의 모든 고리들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관되도록 하는것과 함께 수령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천적경험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로정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실로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건설방침으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선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전투적과업이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대비약, 대기적이 창조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되게 하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사업,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당면하게는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대회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와 공업열성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점령하며 올해에 알곡 800만톤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하여 총진군, 총돌격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70일전투속도》를 이룩한 그 충성, 그 열정, 그 기백으로 새로운 더 높은 충성의 속도를 창조하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빛나게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 당사업은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 수 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주신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들에서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행정식방법과 행정대행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사업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이 벌어지고있는 벅찬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설복하고 교양하며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본래 우리 당이 자기 사업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근본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를 심오히 분석통찰하시고 당사업의 이 근본방법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다시금 밝혀주심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우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사업에서 행정식방법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명심하고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행정경제사업도 언제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당이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가는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당사업을 반드시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당사업은 오직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5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을 이룬다.

당사업의 전행정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떠나서는 당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당의 전투적기능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야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처럼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사업, 당활동의 총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고리로 된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가야 한다.

당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를 받고 결정서를 내려보내는것과 같은 행정식방법은 원래 우리 당의 사업방법이 아니며 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행정식사업방법은 해방직후 당의 지도적지위에 앉아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부식된것이다. 한때 당내부사업을 맡고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당내부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혁명적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식사업방법을 퍼뜨려놓았다. 이자들이 퍼뜨린 낡은 행정식사업방법은 지난시기 우리 당 사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주었으며 아직도 일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사업에서는 행정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지 못하고있다.

만일 당사업을 명령하고 지시문을 내려보내고 독촉이나 하는것과 같은 행정적방법으로 한다면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며 누가 진실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당중앙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사람들의 사상동태도 옳게 파악할수 없다. 또한 당일군들이 당사업을 행정식방법으로 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인식시킬수 없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할수 없다.

결국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식방법으로 하면 당내부사업도 짜고들수 없으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원만히 보장할수 없게 된다.

당은 오늘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하루빨리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고 당사업을 철저하게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전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사업은 오직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당사업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한다는것은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선전도 하고 선동도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발동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린다는것을 말한다.

지난해 《70일전투》를 진행하는 전행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현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상상을 초월하는 대기적들, 이것은 다름아닌 사상전이 낳은 귀중한 열매이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이 당이 제시한 사상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잡귀신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 때 사람들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놀라운 대비약이 일어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당사업이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 당의 본성과 사명, 당적령도의 특성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맑스-레닌주의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령도하는 혁명의 참모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3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적조직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혁명의 참

모부이다. 그런것만큼 당의 사명은 당을 이루고있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교양하여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교양하고 결속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이 곧 정치이며 이것을 잘하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따라서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을 떠나서는 당이 정치기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정치적방법, 사람들의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써만 모든 사람들을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갈수 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성과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또한 사회의 모든 조직들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으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안에서 다른 모든 조직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그런것만큼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자면 당사업을 행정화하거나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해야 한다.

당사업이 정치적방법으로 되여야 하는것은 또한 사람과의 사업이 그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좌우된다.

비록 건전한 체력을 가지고있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있다 하더라도 수령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정치적각오를 가지고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혁명과 건설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쓸모가 없다.

당사업은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되며 이것을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삼고있다.

당사업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행정식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일깨워주는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당사업의 기본방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 잘, 더 빨리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적무기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당원들과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당원들이 일하는데 가서 일도 같이 하고 당원들이 놀 때에는 같이 놀기도 하며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회의하는데도 자주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실정을 잘 알고 당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45페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것, 이것은 우리 당 사업방법의 변함없는 원칙이다.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호흡하여야 아래단위의 실

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옳은 해결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고있으며 걸린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중도반단됨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되도록 도와주고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사상동태를 깊이 료해하고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에 기초하여 그들을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일군들이 사업에서 사령관이 되지 말고 정치위원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일군들이 사령관이 아니라 정치위원으로 된다는것은 비유해말하면 군대에서 대렬구령을 부르는 군사지휘관이 아니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며 목표에 다닫으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사업을 조직해주는 정치지휘관으로 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을 움직이는 지휘관으로 된다는것이다.

당일군들이 정치위원이 되여 사람들의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을 움직여나갈때 당사업은 산 사람과의 참신한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다.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또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군중속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제때에 신속히 침투시키고 군중과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짜고들며 속도전을 벌려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말로만 접수하고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을 적극 벌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틀이 없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람들은 사상적각오와 준비정도,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르며 혁명초소와 혁명임무도 서로 다르다. 뿐만아니라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조건과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격식과 틀이 없이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림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전개되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고정격식화된 틀에 매달려 일률적으로 하던 낡은 사업방법을 뿌리빼고 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특성, 사업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참신하게 벌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의 작풍을 개선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이 까다롭고 건방지면 사람들이 잘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작풍을 가지고서는 당사업을 잘할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는것을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여기고 옳은 작풍을 가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4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일군들의 작풍문제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아량있게 대해주며 그들이 제

기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모든 사람들이 당을 진정으로 믿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며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게 된다.

당일군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어머니다운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가 아들딸들을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이 모르는것이 있으면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잘못된것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고칠 때까지 타일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오늘의 생활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보아주며 당적원칙과 어긋나는 온갖 현상들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한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이신작칙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신작칙이란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말이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은 언제나 힘든 일에서 대원들의 앞장에 섰으며 자기의 모범으로써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이것은 대원들로 하여금 매일과 같이 계속되는 힘겨운 전투와 행군으로 지치고 배도 고팠지만 모두가 자각적으로 규률을 지키고 언제나 용감하게 싸울수 있게 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하는 과정은 모든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대오의 기수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의 당일군들은 《70일전투》의 영광의 나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들끓는 전투장에 들어가 착암기도 잡고 선반도 돌리며 가장 어려운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면서 군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야 하며 바로 이렇게 하는것으로써 격전에로 부르는 돌격나팔을 불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가 가져오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일군자신들의 정치사상적각오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꽃피우며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려는 당일군들의 비상히 높은 정치사상적각오는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고리이다.

지난해 《7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비상히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웅변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일편단심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마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전투로 전국이 들끓고있으며 《70일전투속도》로 달리는 속도전의 폭풍이 일터마다에 휘몰아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당일군들이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자기의 조직적수완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 중요한 시각이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당사업을 철저히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산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충성의 분위기로 더욱 들끓게 하며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것이다.

# 수송전선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투쟁전선

오 현 주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로 충성의 강행군전투를 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혁신을 일으키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의 하나는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에 무엇보다 수송전선에 선차적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와 공업열성자회의에서 다시금 교통운수부문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전투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수송의 긴장성을 결정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교통운수는 나라의 전반적지역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하나의 통일적인 유기체로 련결시킴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채취공업, 연료동력공업과 함께 교통운수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켜야 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발전을 급속히 촉진하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을수 있다.

운수를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축적과 소비를 정확히 진행하여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부단히 실현하여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에서 인민생활을 골고루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철도운수를 비롯한 운수를 확고히 앞세우는것, 이것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견지에서 보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과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나 우리가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는 교통운수의 거대한 역할과 그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교통운수를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 규정하시고 그를 다른 모든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한 올해 총돌격전에서는 수송전선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에 전당, 전

국, 전민이 수송전선에 칫째가는 힘을 넣도록 하신것은 무엇보다 교통운수를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신 령활하고도 정확한 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열성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수송의 긴장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찌기 없었던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경제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당중앙이 직접 조직지도한 지난 《70일전투》기간에 생산은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2~3배의 속도로 기적적으로 장성하였으며 올해에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속 《70일전투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면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는 전례없이 방대하게 늘어나고있으며 이에 따라 수송의 긴장성이 조성되고있다.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송전선에 칫째가는 힘을 넣어 이 부문을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야 한다.

수송전선에 칫째가는 힘을 넣어 이 부문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쇠돌, 석탄, 세멘트, 통나무를 비롯한 원료, 자재들과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더많이 실어다주어야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새로 조업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모든 생산시설들이 제대로 은을 내게 할수 있으며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촉진시켜나갈수 있다. 수송의 긴장성을 결정적으로 풀어야 올해에 계속 화력을 집중해야할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산전선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올해의 방대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할수 있다.

올해 수송전선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수송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또한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게끔 예견성있게 수송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운수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수송능력을 지금보다 몇배로 높여야 한다.

인민경제 개별적 부문, 단위들에서 이미 지난해에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계속 높은 속도로 전진하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올해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수송능력을 지금보다 몇배 높이는 문제는 당면하게 교통운수부문에서 풀어야 할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수송전선에 칫째가는 힘을 넣을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운수수단들의 현대화, 중량화, 대형화, 고속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교통운수를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울 때 우리는 전반적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부문들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할수 있도록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뿐아니라 수송능력을 전망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실로 올해 수송전선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하며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명확한 방도를 밝혀준 혁명적인 방침이다. 또한 이 방침은 전반적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교통운수를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급속히 올려세우기 위한 현명한 방침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주공방향을 정확히 포착하시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시여 전반적고리들을 풀어나가시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방법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올해 수송전선에 첫째가는 힘을 넣을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송전선을 힘껏 도우며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70일전투》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수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우리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에 수송전선에 첫째가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풀어나가기 위한 명확한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송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긴장한 수송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수송전선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열쇠입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6페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두가 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여나가는 여기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수송전선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수송전선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교통운수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 교통운수정책 관철에 떨쳐나설 때 우리앞에 점령하지 못할 요새,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교통운수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송혁명을 일으키는데 장애로 되는 낡은 사상잔재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철저히 극복하며 모두가 다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수송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철도운수에서 수송능력을 더욱 높이고 수송조직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열성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철도전기화를 계속 밀고나가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철도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짧은 시일안에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수송의 긴장성을 빨리 풀기 위한 첫째가는 과업이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철도전기화를 힘있게 다그쳐 평양—사리원사이는 4월 15일전으로, 희천—고인사이는 9월 9일전으로, 평양—덕천사이는 올해안으로 전기화를 끝내며 철도지선들과 인입선들의 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또한 레루를 중량레루로 바꾸고 철교들을 보강하며 전력부하가 많이 걸리고있는곳에 변전소들을 더 건설함으로써 철도전기화의 은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전기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구장—팔원사이를 비롯하여 새로 시작한 철도건설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철도의 기본운수수단의 하나인 차량생산을 부쩍 늘이고 그 리용률을 높이는것은 급속히 늘어나는 철도화물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전반적인 수송의 긴장성을 빨리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차량생산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철도운수수단들을 현대화, 중량화, 대형화, 고속도화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차량생산전투를 벌려 전기기관차와 2,500마력내연기관차, 차갈이용내연기관차, 60톤짜리 중량화차, 전동차, 객차들을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수리전투를 전격적으로 벌려 더 많은 차량들이 제때에 수리되여 빨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기술역과 화물역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철도운수를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화물역과 기업소들의 구내선을 늘이며 진동식하차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상하차기계설비들을 널리 받아들여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은 또한 다른 부, 위원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전문화물장건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선진적인 철도수송방법을 널리 받아들일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집중수송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수송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은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찾아내여 순환 및 전문집결렬차를 더많이 조직함으로써 석탄, 쇠돌을 비롯한 큰 짐들을 더많이 집중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철도의 부담을 덜고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자동차운수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까운거리수송과 먼거리수송 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우고 그에 맞게 자동차사업소와 먼거리자동차운수대를 잘 꾸려야 한다.

자동차에 의한 화물수송량을 늘이기 위해서는 또한 자동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여러가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하며 련결차와 대형적재함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자동차운수의 대형화, 중량화를 적극 실현하며 자동하차장치와 각종 상차기계설비들을 널리 받아들여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강화하여 더 많은 부속품을 만들어내고 자동차들을 제때에 수리하여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

다.

자동차운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다른 하나는 농촌빠스화를 완성하는것이다.

자동차운수부문일군들은 농촌빠스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하루빨리 모든 농촌리들에 빠스가 다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와 자동차운수대가 늘어나는 실정에 맞게 자동차 운전사와 수리공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열성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운수부문앞에는 해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해상운수를 빨리 발전시켜 대외무역을 잘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더욱 높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철도운수의 긴장성을 푸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내고 부선, 끌림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수송능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또한 배관리를 잘하여 배의 1척1주야항행거리를 늘이며 배의 실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적인 항 및 강안부두건설을 적극 내밀면서 상하선설비와 창고저장시설들을 잘 갖추고 항운영사업을 개선하여 배의 부두통과능력을 높이고 한척의 배도 체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와 자동차, 선박의 련대수송을 강화하는것은 적은 운수수단을 가지고 더 많은 짐을 더 빨리 실어나르기 위한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며 철도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교통운수부문과 짐임자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련대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수송대상과 수송량, 수송능력에 맞게 련대수송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관수송은 다른 운수수단에 비하여 건설비와 경영비가 적게 들고 건설기간이 짧을뿐아니라 계절과 지형조건의 제한을 적게 받기때문에 화물수송에 매우 유리하다.

교통운수부문과 광업, 석탄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3화수송 특히 삭도화를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송의 긴장성을 빨리 풀도록 하여야 한다.

집합에 의한 수송을 강화하는것은 화차의 리용률을 높이고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해당 부문들에서는 집합으로 수송할 화물대상을 옳게 선정하고 그에 맞게 집함을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집함을 싣고부리는 기계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수송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는 수송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는 군대와 같은 명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오늘의 실정에 맞게 규정들을 잘 만들고 모든 일을 엄격히 규정과 규칙의 요구대로 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렬차, 자동차, 배의 정시운행을 보장하는 강한 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세워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은 또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 수송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려세우며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에 의한 수송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

장사업을 개선하여 수송분야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송의 문화성, 봉사성을 높여 려행하는 손님들에게 더 잘 복무하며 국가재산과 길손들의 짐을 소중히 다루고 제때에 책임적으로 실어다주어야 한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수송전선을 돕는 사업을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며 수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집중화물역과 항 건설을 비롯하여 자기들이 맡은 사업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동광산들에서는 한 사람이 매일 계획밖에 동을 1키로그람씩 더 캐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철도전기화에 필요한 동을 원만히 대주어야 하며 금속공업부문에서는 60톤짜리 중량화차를 많이 만들수 있도록 강판을 먼저 차량공장에 보내주어야 한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해마다 적어도 2만톤짜리, 1만 5,000톤짜리, 5,000톤짜리, 3,000톤짜리 짐배를 30척이상 무어내여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가 큰 배를 100척이상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의 전용선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워 미하차를 없애며 화차를 소중히 다루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선 이 모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교통운수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 운수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특히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경제선동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 수송전사들의 심장이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의 앞장에 서며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올해는 수송의 해이다.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폭탄과 기총탄이 우박치는 불비속을 뚫고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그 정신, 그 투지로 충성의 기적소리, 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 더 많은 짐을 실어보내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송전선에 첫째가는 힘을 넣을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10월 10일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우리 당 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하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자

강 정 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와 공업연성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치달아오르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까지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안고 《70일전투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억센 투쟁에 의하여 수송전선,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산전선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일찌기 그 전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는 비약적인 높은 속도로 빨리 발전하고있다.

류례없는 거창한 규모로, 비상히 빨리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하며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성과적으로 마련해나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료와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은 공업에서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이 앞서나가야 다른 모든 공업부문들도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0페지)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을 발전시켜 원료, 연료 생산을 앞세우는것은 공업에서 하나의 법칙이며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현대과학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도록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채취공업을 발전시켜야 무엇보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는 결국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채취공업을 앞세워 원료, 연료 생산을 늘여야 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열 및 동력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유지할수 있다.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 쇠돌과 동, 중석, 니켈을 비롯한 유색금속, 희유금속, 비금속광물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 때 기술혁명과업수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 기계류[illegible]과 화학제품의 생산을 결

정적으로 앞세울수 있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경제의 자립성,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채취공업을 발전시켜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국내자원으로 최대한으로 충족시켜나갈 때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경제를 안정된 기초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다.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특히 당면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연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방대한 규모로 빨리 발전하는 가공공업에 채취공업이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들에 적어도 석달분의 원료예비가 마련되여있어야 채취공업이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섰다고 말할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채취공업을 앞세워 원료를 원만히 대주어야 가공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도 철저히 세울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균형경제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가공공업에 채취공업을 따라세워 가공공업과 채취공업사이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생산이 몇배, 몇십배로 급속히 장성하는 오늘 원료, 연료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는 비할바없이 증대되고있다.

채취공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가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쇠돌, 석탄, 유색금속광물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각종 철강재와 유색금속, 전력과 세멘트, 카바이드와 비료 생산에서 대혁신이 일어날수 있으며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서로 맞물린 고리들을 쭉쭉 풀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올해 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총진군, 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으며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생산을 부쩍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여기에 힘을 넣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것과 함께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투쟁을 다 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를 비롯한 여러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면 채취공업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짧은 기간에 지금보다 생산을 몇배로 늘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혁명적앙양을 일으킬 때 우리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6개년 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채취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채취공업을 다른 모든 공업부문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이 방침은 채취공업발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으로서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기지를 꾸리며 그것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석탄생산을 집중화할데 대한 방침, 이미 있는 탄광,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대규모탄광들과 함께 중소규모탄광들을 널리 개발할데 대한 방침, 굴진을 채탄, 채광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채취공업부문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독창적인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방침들은 채취공업의 기술경제적특성과 채취공업발전의 필수적인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방침으로서 채취공업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방침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우리 나라 공업건설에 구현한것으로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방침이다. 이 방침들은 채취공업을 다른 모든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 경제의 자립성,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채취공업발전방침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 채취공업은 짧은 기간에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퇴치하고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원료, 연료 기지로 전변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채취공업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들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원료, 연료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천리마진군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 지질탐사사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89페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발전을 위하여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이다.

채취공업의 제1차적공정은 지질탐사이다. 지질탐사를 선행함이 없이는 채취공업과 공업전반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이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지 않고

는 대자연을 정복하며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채취공업의 터전을 민음직하게 마련할수 없다.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광산, 탄광들의 심부와 주변에 대한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강화하는것이다.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강화하여 채굴설계를 과학적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제반 기술적자료들을 정확히 제공하며 모든 광산, 탄광들이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여러가지 광물과 석탄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탐사와 함께 전망탐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전망탐사는 광산, 탄광들의 전망을 열어주고 새로운 광산, 탄광들을 창설하여 채취공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탐사부문에서는 아직 적게 알려졌거나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의 탐사에 계속 힘을 넣으며 흑색금속공업, 유색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와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절실히 필요한 철, 유색금속, 희유금속, 비금속광물과 연료자원들을 더 많이 찾아냄으로써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질탐사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탐사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 경량화하며 탐사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는 한편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굴진과 박토를 생산에 결정적으로 앞세울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굴진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발전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탄광이나 광산에서 굴진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43페지)

광산, 탄광들에서 굴진과 박토를 앞세운다는것은 채탄장과 채광장을 미리 여유있게 준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굴진과 박토를 앞세워야 여러가지 광석과 석탄 생산을 전망적으로 조직하고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그래야 선진적인 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할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다.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당면한 생산일면에만 치우치고 굴진을 차요시하는 낡은 사상관점을 버리고 굴진과 채탄, 굴진과 채광간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투하비례를 5대5로 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충분한 탐사와 구체적인 설계, 집체적협의에 기초하여 굴뚫기방향을 바로 정하고 굴뚫기공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모든 광산, 탄광들에서 기본굴진을 3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이상 앞세워 채탄장과 채광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망이 좋고 유리한곳에 로력과 자재, 설비를 집중하며 생산조직에서 분산성을 없애고 조직사업을 중점적으로 기동성있게 보장함으로써 굴진과 박토를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부문일군들은 자체의 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기술혁명수행에서 얻은 성과들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는것은 현시기 채취공업부문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바로 여기에 채취공업에서 대혁신하여 늘어나는 원료, 연료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

보가 있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다량채굴,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켜 전반적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그래야 광부들과 탄부들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에서 하루빨리 해방시키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속히 실현할수 있다.

채취공업에서의 기술혁명, 설비혁명은 이부문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고방식과 사업태도, 일본새를 극복하고 채취공업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워 생산에서 대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혁명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보수주의, 소극성, 경험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들을 극복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체의 기계생산기지와 공무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려 새로운 설비들을 많이 만들며 부속품생산을 앞세워 제때에 수리함으로써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선광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여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지금 있는 광산, 탄광 기계공장들을 정비보강하여 능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전문 탄광, 광산 설비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고속도착암기와 대형착징기, 대형적재기와 대형압축기, 대형마광기 등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기술혁명수행에서 얻은 성과들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는것과 함께 운반에서 삭도화, 콘베아화, 관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한 원료와 연료들은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화물역들에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채취공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채취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기술지도, 생산지도를 강화하며 모두가 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도록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경영국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의 경제기관들과 탄광, 광산들에서는 생산지도, 기술지도를 갱막장에 접근시키며 자재를 갱단위로 채굴막장에까지 날라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실속있게 움직이는것이 중요하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광산, 탄광들에서 생산을 늘이고 1인당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모든 광산, 탄광들에서는 로력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작업공정을 합리적으로 고치며 간접로력과 보조로력을 극력 줄임으로써 직접부문로력, 그중에서도 직접공대렬을 계속 늘여야 한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채취공업부문 지도일군들은 탄부들과 광부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며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그들에게 제때에 더잘 미치도록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로동자들의 주택, 합숙, 문화후생시설들과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채취공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

화하는것은 이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채취공업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을 비롯하여 이 부문의 사업을 적극 도와야 한다. 금속공업, 건재공업, 림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는 강재와 갱목, 세멘트, 전선, 시약 등 여러가지 자재들을 광산, 탄광들에 매달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대주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형자동차, 대형불도젤, 굴착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적재기, 광차 등 채굴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채취공업부문앞에 나선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옹호관철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고귀한 품성이며 바로 여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있다. 그러므로 채취공업부문의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을 이악하게, 깐지게, 알뜰하게 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탄광, 광산들에 차넘치게 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한 옳은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갱안에 들어가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고 걸린 고리들을 지체없이 풀어주며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광석과 석탄을 캐기 위한 투쟁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갱막장에 직접 들어가 생산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앞장에서서 뚫고나가는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사업태도,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며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오늘 채취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실로 영예롭고 보람차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가 있고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광부들과 탄부들의 대부대가 있으며 현대적인 주체공업의 위력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앞에는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완수하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자.

# 4.19의 투쟁정신은 살아있다

윤 룡 억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려 리승만괴뢰도당을 꺼꾸러뜨린 영웅적4.19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이 된다.

4.19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력사를 빛나게 장식하고 남조선혁명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기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류례없는 파쑈적폭압밑에서도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할수 있는 주체적력량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여가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야 말 굳은 결의와 신념에 가득차있다.

그들은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장애를 물리치면서 온갖 형태의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악당의 군사파쑈테로통치를 수습할수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있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나가고있다.

* *

영웅적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전역에서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수백만명의 인민대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전이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커다란 타격을 주고 원쑤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던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자랑찬 애국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짓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82폐지)

남조선인민들은 영웅적투쟁을 벌려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매국도당을 꺼꾸러뜨림으로써 혁명투쟁에서 첫 승리를 이룩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한 리승만괴뢰정권의 파멸은 무엇보다먼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일대 붕괴를 의미하는것이였으며 원쑤들의 모든 반인민적책동과 악명높은 《북진》소동의 파산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진렬장》이니, 《자유세계의 표본》이니 하면서 입버릇처럼 떠벌이던 남조선에서 대중적항쟁에 의하여 제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하수인인 리승만괴뢰도당이 꺼꾸러진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4월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지반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였으며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 심각화되고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게 되였다.

4월인민봉기는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파쑈테로통치로 하여 암흑천지로 된 남조선전역에 정의의 홰불을 높이 추켜올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다.

4월인민봉기는 제놈들의 충실한 주구 리승만도당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을 강화한다면 남조선땅에서 식민지통치질서를 능히 유지할수 있으리라고 망상한 미제국주의자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제놈들의 침략군관할하에 있는 괴뢰군사단까지 인민탄압에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은 용감하게 일떠섰으며 드디여 원쑤들의 아성을 짓부셔버리고야말았다.

영웅적4월인민봉기는 어떠한 총칼의 위협으로나 기만술책으로도 인민들을 오래동안 노예로 얽매여둘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인민들이 단결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설 때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쳐부실수 있으며 인민들은 오직 자기들의 대중적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4월봉기를 통하여 만고역적 리승만괴뢰도당을 뒤집어엎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4월봉기는 혁명적당이 없었고 뚜렷한 투쟁강령이 없었음으로 하여 투쟁력량을 의식화, 조직화할수 없었으며 투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을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에로 이끌어나갈수 없었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없었고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널리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투쟁은 반제, 반봉건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앞잡이들에게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결정적반격을 조직하지 못하였고 새 정치, 새 생활의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4월봉기에서 비록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투쟁정신은 죽지 않았다.

항쟁의 거리를 붉게 물들였던 4.19용사들의 붉은 피는 오늘도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맥박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정신은 남조선인민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4월봉기가 있은 뒤에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대중의 투쟁기세는 더욱 높아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4.19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리롭게 전변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482페지)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파쑈폭압속에서도 반미구국투쟁을 굴함없이 벌려왔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자연발생적인 투쟁으로부터 점차 조직적인 투쟁에로, 개별적인 계급계층들의 투쟁으로부터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대중투쟁에로 심화발전하였으며 완강성과 지구성을 띠고 목적지향성있게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6.3투쟁과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한 8월투쟁, 6.8부정《선거》 반대투쟁,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인 《3선개헌》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 자기들의 투쟁대오를 더욱 단련하고 세련시켰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무시무시한 《비상사태》우에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조작하고 포악한 《긴급조치》를 련발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더욱 강화하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조선에서 대중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적극화되였다.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은 남조선전역을 포괄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을 뭇고 《박정희를 타도하라》, 《파렴치한 유신헌법을 페지하라》 등의 전투적구호밑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억세게

벌린데 뒤이어 최근시기에 이르러 또다시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청년학생들의 투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문화인, 법조인 등 광범한 계급계층들과 재야정치세력들, 멀리 해외에 살고있는 교포들까지 망라하는 대중적인 공동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투쟁대렬이 재정비되고 대중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날과 더불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투쟁에는 남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자들이 적극 합류하고있다. 지난해 9월 7,500여명의 울산조선소 로동자들이 《로조결성의 자유를 달라》, 《정보폭압정치 끝장내자》 등의 강력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제히 대중적폭동에 궐기한데 뒤이어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2만여명의 로동자들이 미제침략군의 민족적 박해와 멸시를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섬으로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더욱더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올해에도 정초부터 《유신헌법》을 개정할것을 요구하는 100만명서명운동을 다시 벌리면서 《유신》독재체제의 즉시철폐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특히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유신》독재체제를 무한정 연장하기 위하여 꾸며낸 기만적인 《국민투표》놀음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유신》독재체제하에서 더는 살기를 원치 않는 남조선인민들은 처음부터 《국민투표》놀음을 전면적으로 반대하였으며 《투표》당일에도 이에 항거하여 견결히 싸웠다.

상시적인 《비상사태》우에 《갑호비상경계령》까지 내리고 폭압력량을 총동원한 무시무시한 환경속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은 강제로 내모는 《투표장》에 끌려나가기를 단연 거부하였으며 《국민투표》놀음을 반대하는 단식, 구국기도회, 서명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으며 청년학생들은 《투표장》으로가 아니라 《4.19기념탑》앞으로 달려갔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3.15부정선거원흉징계를 상기하자》, 《국민투표거부하여 민주시민 권리 찾자》 등의 삐라를 뿌렸으며 《투표함》을 까부시고 《투표소》를 불사르는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은 폭압과 협잡으로 날조해낸 《국민투표》를 무효로 선포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타도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계속 격렬히 투쟁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4.19의 투쟁정신이 살아있으며 어떠한 시련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압제자들을 쓸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며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는 남조선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로 된다.

* *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세차게 벌리고 있는 혁명투쟁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날로 우심해가는 반인민적책동이 가져온 필연적산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요구한다고 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계인사들까지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살기어린 감옥으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가혹한 착취와 압박, 모진 천대와 멸시를 다 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고있는 군사파쑈독재는 그 흉포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히틀러와 도죠, 리승만의 파쑈독재를 훨씬 릉가하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야만통치이다.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의 폭압망으로 뒤덮고있는 철막밑에서 인민들은 표현의 자유는 고사하고 침묵의 자유조차 없으며 초보적인 사회정치활동은 말할것도 없고 생존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눌리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분렬을 로골적으로 꾀하면서 밖으로는 외세의존과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 안으로는 이른바 《10월유신》의 간판밑에 파쑈적칼부림으로 남조선천지를 살벌한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고 나아가서 전조선을 정복하려는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더욱더 참기어려운 진통을 강요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놈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혁명적으로 짓부셔버리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디욱 높아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 이것은 오늘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중소기업가, 종교인지어 야당인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지향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원쑤들의 전대미문의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새제도, 새정치, 새생활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쳤으며 온 사회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 남녀로소 할것없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혁명의 강력한 성새—공화국북반부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밑에서 굶주리며 헐벗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은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에서 광명의 앞길을 찾고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제반요인들에 의하여 미제식민지통치와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고조에 달하였으며 그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것은 남조선자체내에서 그만큼 주체적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이 가지고있던 약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정확히 옹호관철할 혁명적당을 가지지 못했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운동을 결정적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위력한 혁명적당, 통일혁명당을 가지게 되였다.

남조선혁명의 통일적인 참모부로서의 통일혁명당은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풍부한 투쟁경험

을 쌓았으며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속에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통일혁명당을 무한히 신뢰하고있으며 그의 영향아래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여가고있다.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정연한 조직체계와 당기관지 《혁명전선》,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을 비롯한 강력한 선전선동수단들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배우려는 지향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유일한 사상적량식으로, 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있다. 그들은 원쑤들의 삼엄한 파쑈폭압속에서도 《김일성주의연구회》, 《위대한 주체사상연구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명칭을 단 조직을 뭇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학습하는것을 생활화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침투됨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살아도 수령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님을 위해 한목숨바치려는 확고한 혁명적각오와 정치적신념을 가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떠한 발악으로써도 남조선인민들의 거족적인 혁명의 불길을 막을수 없으며 이미 기울여진 남조선괴뢰정권을 취세울수는 없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뿐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의 모든 선량한 인민들로부터도 《전쟁광신자》로, 《민주주의의 교형리》로, 《민족분렬주의자》로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만고역적 리승만의 전철을 밟으며 매국배족행위를 업으로 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조국과 민족 앞에 저지른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로 하여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할수 없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배후조종하며 적극 부추기고있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정세의 추이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현시대는 주체의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제멋대로 날뛰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만일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남조선에 눌러붙어 인민들로부터 버림받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계속 분렬과 전쟁 책동에로 부추기는 길로 나간다면 놈들은 다같이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못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올해에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7페지)

현시기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남조선혁명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된다.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횡포한 군사파쑈독재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민주주의운동의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물론하고 반제반파쑈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은 힘을 단합하여 대중적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유신헌법》을 비롯한 온갖 파쑈적악법들을 불살라버리며 《중앙정보부》와

모든 파쑈폭압기구들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이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처부실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영웅적4월봉기를 일으켜 미제의 개노릇을 하던 리승만역도를 꺼꾸러뜨린 고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이 하나로 뭉쳐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정권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각계각층 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련합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쑈투쟁은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계속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이 있는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이룩될수 없다.

우리 인민은 30년이 지나도록 아직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민족분렬의 비극적상태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다.

우리 인민은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관철함으로써만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실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은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망라하는 대민족회의를 열기 위하여,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놈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반공》소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국투쟁이며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그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깊은 관심과 지지성원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투쟁을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억세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꺼꾸러뜨리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멀지 않아 통일된 강토우에서 끝없는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것이다.

근 로 자 제3호 (루계 39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5년 3월 3일　발행•1975년 3월 8일

ㄱ—5538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4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396)


## 차 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 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온 나라가 충성의 정열로 들끓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이 힘있게 추진되여 이땅우에 새로운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세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서깊은 만경대의 자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신 영광의 4월 15일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크나큰 경사의 날이다.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경사인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절절히 축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그것은 력사의 새시대를 알리는 찬란한 해돋이였다.

수령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탄생하심으로써 망국의 비운으로 빛을 잃었던 이땅우에 력사의 새 아침이 밝아왔으며 짓밟히고 억눌렸던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광명한 미래를 약속하는 찬란한 서광이 비치게 되였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태여나시여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압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신 수령님께서는 기울어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여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과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인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광복의 세기적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국을 부러워하게 삼천리강토우에 공산주의락원을 반드시 건설하여야 합니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18~19페지)

인민을 위하여 탄생하시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께서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며 이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가꾸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위대한 변혁과 창조,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영웅서사시로 수놓아져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피바다에 잠겨있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건져내고 헐벗고 굶주리던 인민들에게 새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조선혁명의 앞길은 처음부터 복잡하였으며 간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홰불로 혁명의 대로를 환히 밝히시면서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

끌어나가시였으며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놓기 위한 터전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 불길 만리, 눈보라 수십만리를 헤치시면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며 광명한 공산주의미래를 안아오시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우리 혁명이 억년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뿌리가 마련되였고 그 빛나는 승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압제와 치욕의 력사는 영원히 끝장났으며 광명한 미래에로 비약하는 새 조선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해방된 조국땅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였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비등되였으나 인민들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탁월한 령도예술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맞받아나가시면서 우리 인민을 새사회, 새 생활 창조를 위한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나날 풍찬로숙하시면서 쌓이고 쌓인 로고도 푸실사이 없이 그처럼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고 민주개혁의 거창한 사업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하심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불패의 혁명기지로 튼튼히 꾸려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강철의 의지와 현명한 령도,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굳건한 혁명기지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무력침공을 힘있게 물리치고 전후 벽돌 한장 없는 폐허우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거연히 일떠서 사회주의건설의 생소한 길로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기존리론이나 기성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면서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지름길을 따라 우리 인민은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내달려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 걸려서야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적인 락후속에서 무지와 몽매만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힘있는 자립적 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졌던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시대에 살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있으며 전당, 전국, 전군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결같이 움직이는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대가정으로 통일단결되여있다. 당조직들과 국가경제기관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며 행동

하고있다.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중앙이 생각하는 모든것이 아래에 쭉쭉 내려가 그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 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는 언제나 충성의 정열로 들끓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철의 대오, 충성의 대오로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적 풍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우리 나라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설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상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으며 도시를 닮아가는 농촌들에서는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보람찬 새시대를 맞이하여 해마다 만풍년의 노래로 흥성거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신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쌀값과 약값을 모르고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과학과 문화의 전당들에서는 조선의 슬기와 주체예술이 활짝 꽃피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자연,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지금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에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해빛은 분계선너머 남녘땅과 해외동포들이 살고있는 이국땅에도 그리고 멀리 대륙과 대양을 건너 온 누리에 찬란히 비쳐 자랑찬 열매를 맺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면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온갖 시련을 뚫고 끊임없이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가고있으며 재일동포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원쑤들의 온갖 박해와 탄압을 박차고 조선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떳떳이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그처럼 크나큰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력사적지위를 높이 끌어올리시고 세계정치에 그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시고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수령님께서 진두에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선봉에서 실현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되였고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우러러보는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가장 존엄있고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조국이 지니고있는 권위와 영예,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

력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그것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탑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며 수령님께서 지니신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다.

한평생을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치여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전반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잠시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온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이어가고계신다.

수령님의 지칠줄 모르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과 위대한 사랑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은 비약의 나래를 돋혀 끊임없이 새 기적을 창조하면서 세월을 주름잡아 달리나아가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영예와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와 영광의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멀리 전진하여왔다. 이 길우에서 우리 인민은 사나운 폭풍과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전면적 승리를 위한 터전을 튼튼히 다져놓았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더욱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이 놓여있다.

우리는 남녘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해야 하며 삼천리금수강산에 공산주의지상락원을 일떠세움으로써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시대, 로동당시대에 태여나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나가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영예가 있다.

오늘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이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을 힘차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강철같은 혁명적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휘황한 전망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는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적강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 빨리 실현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키워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된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본분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라는 충성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여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수령님을 위해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높은 충성의 열도를 지니고 사업하며 생활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훌륭히 관철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사람만이 참말로 수령님께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책임성을 가지고 아득바득 노력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성과로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장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용약 떨쳐나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으로 충성의 나날을 꽃피워나감으로써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완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와 무한한 헌신성을 가지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집행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드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겨나가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만천하에 과시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과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불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강철의 의지로 살며 싸워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지금 온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당,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전투로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다.

우리는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70일전투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10월 10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당창건 30돐을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이 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지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정열로 불타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에 영원히 충성다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만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확고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지금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끝없이 륭성번영할 우리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일편단심 충성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우리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대를 이어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해나감으로써 이땅우에 무궁토록 번영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더욱 훌륭히 건설하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욱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10월의 대축전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충성의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세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으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에게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에서 살며 일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조국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에 살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대한 비약이 창조되고 있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으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여 우리 나라는 주체조선, 천리마의 나라로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일하는 영예와 자랑,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정열로 하여 우리 사회는 언제나 명랑하고 화기에 넘치있으며 우리 인민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끝없이 약동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에서 무궁토록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

인류력사가 시작되여 수천년이 지나갔다.

오랜세월 인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념원하여왔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그것은 도대체 실현할수 없는 한갖 공상에 불과한것이였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과 인민대중은 사회경제적처지, 목적과 리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것으로 하여 서로 대립되여있으며 온 사회는 풀수 없는 모순과 갈등으로 얽혀져있다.

오래동안 사람들이 그처럼 그려오던 사회, 전체 인민이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단결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주체조선에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체 인민이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단결되여 힘차게 나아가는것

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9페지)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분위기도 좋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충성의 대오로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온 나라가 충성의 정열로 들끓고있는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자랑찬 모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를 관통하고있는 가장 고귀한 사상감정은 오직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이며 우리 나라에서 꽃펴나고있는 모든 아름답고 훌륭한것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인민의 이 뜨거운 충성심과 련결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오늘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감정으로 되고 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영원히 드놀지 않는 확고한 의지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수령님께 몸과 마음 다 바쳐 충성다하는 혁명가적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가고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집행해내고야마는것이다.

한생을 마치는 마지막순간에도 자신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스스로 총화하며 자기가 다하지 못한 혁명임무를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완수해내려는 억센 의지는 우리 인민의 심장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얼마나 뜨겁게 고동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자나깨나 오로지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드는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마는것이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고귀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맞이한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려지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은 량심으로, 억만년가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던 탓으로 하여 민족적수

난과 망국노의 설음을 면할수 없었으며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인민은 조국땅우에 무겁게 드리운 암운을 가셔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구원해줄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이땅우에 민족재생과 혁명승리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혁명은 비로소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 시대의 가장 포악한 미일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지난날 망국의 비운속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자랑하고있으며 남에게 눌리우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나라의 권위와 영예, 우리 인민의 행복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험난한 가시덤불과 사나운 폭풍을 헤치면서 걸어온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우리 인민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이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이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형의 맑은 피로 차넘침으로써 온 나라는 그처럼 충성의 정열로 들끓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는 그처럼 빛나고있는것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서로 련결됨에 따라 우리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단결되여있는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조직의 통일과 단결은 조직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상으로 무장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혁명조직의 통일과 단결은 혁명조직 성원들사이의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08페지)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하나의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결합된 혁명가들의 단결이라야 참말로 힘있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착취사회에서는 혁명적동지애란 생각할수 없으며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람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말할수 없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착취사회에서

는 서로 반목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사람들사이의 혁명적동지애와 사상의지적단결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하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대중속에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가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혁명적동지애와 사상의지적통일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맺어진것으로 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면서 다같이 전진해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꽃펴나고있다. 그들은 자기를 생각하기전에 먼저 혁명동지들과 집단을 생각하며 혁명동지들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나어린 한 생명을 위하여 온 나라가 동원되고 혁명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자기의 뼈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사람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실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긴밀히 협조하는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이 온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오랜기간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던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가 가셔지고 사람들사이에는 가장 고상한 인간관계, 혁명적동지애의 긴밀한 뉴대로 련결되여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정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전우로 굳게 단결하여 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오직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로 련결됨으로써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결코 그 어떤 실무적인 단합이 아니며 그것은 철두철미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의 무궁무진한 위력과 위대한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전체 인민이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전당, 전국, 전군이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대오, 충성의 대오로 결속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자랑찬 모습이다.

전당과 온 사회가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숨쉬고 행동함으로써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중앙에서 생각하는것이 지체없이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대오안에서 온갖 잡귀신들이 깨끗

이 사라지고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이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이에서 끊임없이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길을 따라 비상한 속도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해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며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6페지)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아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개시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이 지닌 숭고한 혁명적기개이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인민들에게 끝없는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에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 온갖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곧 자신의 사활적인 위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반세기에 걸친 혁명적로정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해온 자랑찬 행로였다.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영광의 한길로 나아갈 때에만 혁명의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것을 심장속 깊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금도 동요하거나 굴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 용감히 뚫고나아갔으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경험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을 짓부시면서 계속 전진하였으며 세월을 주름잡아 질풍같이 달려왔다.

우리 인민은 두 단계의 사회혁명도 최단기간에 빛나게 수행하고 자본주의나라들이 한세기 또는 몇세기에 걸려서 한 공업화의 과업도 10여년이란 매우 짧은 기간에 천리마의 속도로 번개같이 해제끼고 오늘의 높이에로 뛰여올랐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걸으면서 달리고 또 달려왔다.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종래의 기준, 종래의 기록, 종래의 속도를 훨씬 뛰여넘는 새 기준, 새 기록, 새 속도를 련이어 창조하고 달리는 천리마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속도전의 거세찬 불길,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비날론속도》, 《평양속도》에 비할바없이 높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이 땅우에 날아오른 전설적인 천리마에 더 억센 나래, 대비약의 나래를 돋히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뛰여오르게 하였다.

천리마대진군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70일전투속도》, 이것은 억만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의 발현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한결같은 지향의 반영이다.

속도전의 폭풍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대기적과 대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적 파동과 위기의 영향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해나가고있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공업생산은 전해에 비하여 17.2% 장성하였으며 《70일전투》기간의 공업생산수준은 6개년계획에 예견된 1976년의 생산수준을 돌파하였다. 농업생산에서는 지난해에 700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알곡생산은 1973년에 비하여 30%이상이나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이 2~3%만 늘어나도 큰 성과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한해도 아니고 두해에 걸쳐 해마다 알곡생산이 30%이상씩 늘어난것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성과이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눈부신 발전에 대하여 《신비로운 장성속도》, 《신화적인 기적》이라고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어제가 옛날로 되고 래일의 리상이 오늘의 현실로 되게 하는 비상히 빠른 전진속도로 돌진해나가는 천리마의 조선, 속도전의 조선으로,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서나아가는 《20세기의 기적》의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이렇듯 전체 인민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길을 따라 계속 높은 속도로 질풍같이 달려 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빛나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인민을 주체형의 혁명적인민으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는데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페지)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심려, 정력적인 활동은 오직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시기 위한데 돌려지고있다.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여 혁명의 려명을 안아오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 이는 수령님께서 소박하고 평범한 우리 인민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시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를 마련하여오신 영광에 찬 투쟁의 로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잃고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나가는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몸소 손잡아 이끌어주심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가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보람찬 투쟁의 길로 떳떳이 걸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대오에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어가시기 위하여 우리 인민을 넓은 한품에 안으시고 일깨워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데 대한 현명한 로선과 방침들을 내놓으시여 짧은 기간에 인간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방침, 인간개조사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등 탁월한 사상과 리론들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여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온갖 낡은 사상과 도덕, 힘든 로동과 뒤떨어진 문화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강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고 력사와 문명 밖에서 살아오던 우리 인민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주체형의 혁명적인민으로,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당은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는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잡사상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그들을 무균상태의 혁명가,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힘있게 맥박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리하여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꽉 차넘치게 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체 인민이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철석같이 단결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는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자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 수령과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유일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랜 력사적기간을 통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굳어진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새로운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으로 단결시키는 사업으로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함으로써만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대풍모가 이룩된것은 바로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나라의 풍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천적모범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혁명적대풍모는 또한 싸우는 남조선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며 그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에서 자기들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고있다.

우리 나라에 이루어진 혁명적대풍모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빛발아래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철석같이 뭉쳐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철의 흐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오늘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빛내이면서 세월을 주름잡아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대진군속에서 우리 나라의 모습은 더욱 웅장해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시대의 선봉에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예와 자랑은 끝이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조국에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아로새기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전면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함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중앙이 제시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라는 충성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기적과 비약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며 이 땅우에 수령님의 높은 뜻과 위대한 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대를 이어 충성다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며 우리 조국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로선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불멸의 기치

연 형 묵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서른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총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폭풍이 거세차게 일어나 전례없는 대비약, 대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세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의 노래를 심장으로 높이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그이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로 새롭게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과 리론들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3대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앞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며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에 관한 완성된 리론이다.

실로 수령님의 3대혁명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전략적로선을 천재적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총적방향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집대성한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이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3대혁명에 관한 사상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이미 그 정당성이 전면적으로 확증되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날에날마다 더욱 높이 발휘되여 이 땅우에 활짝 꽃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와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현정세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또다시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벅찬 현실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더 빨리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3대혁명로선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 이것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발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세가지 혁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5폐지)

수령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공산주의에로 가는 가장 곧바른 지름길을 밝혀주시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는 어떠한 길을 거쳐 공산주의에로 가는가 하는 문제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지 않았다.

이 문제는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새로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있는 오늘의 력사적 조건에서 절박하게 해결되여야 할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였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상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이 요구를 제때에 깊이 헤아리시고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곧바로 올라설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는 광활한 대로를 열어주시였다.

실로 수령님의 3대혁명리론은 우리 시대가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근본문제에 완전무결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곧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나가는 성스러운 과정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 그것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과학적인 혁명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찬란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하나의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과정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쌓아놓은데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가 의연히 남아있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남아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수준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풍족한 생활수준을 보장할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도달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는다고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저절로 건설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경제건설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하여서만 건설될수 있다.

특히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당하여왔기때문에 공업의 기초가 없고 경제적토대가 매우 빈약하며 사상문화적인 면에서도 심히 뒤떨어져있다. 따라서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혁명을 수행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된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그것을 다 같이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하루빨리 개조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찬란한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은 또한 세계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국내적으로는 착취계급이 없어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이 의연히 계속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특히 나라의 절반땅에 지주, 자본가놈들의 제도가 그냥 남아있고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파괴책동이 더욱 심하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온갖 침략과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켜야 하며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걸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써 끝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하에서도 계속되며 더욱 심화발전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만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으로써 혁명이 끝났다고 보고 혁명을 중단한다면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에 관한 로선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완성된 계속혁명사상으로서 로동계급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천리혜안으로 오늘뿐아니라 먼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계속해야 할 혁명의 성격과 내용, 그 수행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해명해주심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만 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도 하나의 혁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1페지)

혁명이란 결코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만이 아니다.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은 다음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도 하나의 혁명이다.

3대혁명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 자본주의적인것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것, 사회주의적인것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각한 혁명투쟁이며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녹을 벗기는 투쟁이며 기술혁명은 기계들에 있는 녹을 벗기는 투쟁이며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생활과 살림집, 공장과 마을에 있는 때를 벗기는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 새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며 기술혁명은 낡은 기술을 새기술로 바꾸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며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3대혁명은 결국 사람들을 낡은 사상, 힘든 로동, 뒤떨어진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3대혁명은 오직 낡은것과의 완강한 투쟁, 자본주의적인것과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만 수행될수 있다.

이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이 악랄하게 계속되고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파괴암해활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진행된다.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이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으로, 심각한 혁명투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수행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동시에 밀고나갈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할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22페지)

사상혁명을 앞세우는것은 모든것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리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기본추동력이며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을 높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할 때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동시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사상혁명도 잘 추진될수 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이와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벌릴데 대한 방침은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장 현명하고 주체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을 3대혁명수행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시하시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사상혁명의 기본으로 밝히시였으며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을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로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인간개조문제,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이 단순히 기술을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기술실무적인 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과업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기술혁명을 어떤 립장과 관점에서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제기하시고 독창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3대기술혁명을 현단계에서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시였으며 기술혁명수행에서 장애로 되는 낡은 사상을 반대할데 대한 문제,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일련의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기술혁명수행에 관한 과업들과 방도들은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중로동과 경로동사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사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의 구성부분인 문화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들과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가르쳐주심으로써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참으로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신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해불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방향과 방도를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가일층 풍부화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적대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나가는 모든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해불이다.

수령님께서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

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적로선이 전면적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지난날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이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곧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이다.

## 수령님의 위대한 3대혁명로선은 이 땅우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이 땅우에 일대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열성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매우 정당합니다.》

조국광복의 대업을 성취하시고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시기에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은 3대혁명을 해방직후부터 당의 구호로서는 들지 않았지만 벌써 그때부터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경제, 문화 분야에서 온갖 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인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왔다.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을 성과적으로 이끌어오신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투적기치로, 기본전략적로선으로 밝히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3대혁명을 보다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시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것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으시여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 파견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3대혁명은 새로운 획기적앙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그 발단을 열어놓으신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한 위대한 운동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력사적운동이다. 그것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3대혁명의 수행을 다그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게 하는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운동이다.

생활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발기하시고 친히 령도하시는 3대혁명소조운

동이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사상적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일군들의 높은 창발성을 불러일으키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모든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3대혁명소조운동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해오신 전행정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가장 정확한 투쟁구호와 방침을 내놓으시며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는 탁월한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을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사상혁명에 가장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발전하는 현실과 제기된 혁명과업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당중앙은 사상전의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속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강화되고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이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또한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조직생활총화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정치생활은 더욱 제여지고 그들속에서 낡고 침체한것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상혁명의 방침, 사상전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분위기도 또한 좋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9페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

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여가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고결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일편단심 수령님을 따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철석같은 혁명적의지이며 확고부동한 생활의 신조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활짝 꽃피고있으며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밑에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알뜰하게 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지도일군들속에서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저애하던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극복되였으며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근로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사업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의 전투적강령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동지적단결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온 사회가 하나의 충성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힘차게 진행되여 온 사회에 뜨거운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이 높아짐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는 3대혁명의 구호밑에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옳은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뜨거운 배려를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라고 하시며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심에 있어서도 항상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우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인 과업으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시지 않으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어렵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철저한 공산주의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의 구체적조건과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의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지어는 정세가 복잡하고 긴장한 때에도 기술혁명의 수행에 막대한 국가투자를 돌리도록 끊임없는 배려를 베풀어주시였으며 투자의 방향과 선후차를 옳게 정해주시고 그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농촌을 홀시하는 자본주의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사회주의공업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데로 방향을 돌려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힘있게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기술

혁명수행에서 장애로 되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기술자, 전문가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모든 분야에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기술혁명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는 당중앙은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뜨거운 배려를 돌리고있다.

당에서는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산업텔레비존과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에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비상히 발전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요구에 맞게 생산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개선할수 있게 하였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과 고열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가고있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기치밑에 기술혁명이 훌륭히 수행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새로운 기술로 튼튼히 장비됨으로써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공업부문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나무를 찍고 석탄과 광석을 캐며 지질탐사를 하는것과 같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힘든 채취공업과 야금공업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공장들이 수풀처럼 일떠섰으며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던 우리 나라가 지금은 각종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척척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으며 최신공장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해내는 발전된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수준에 뛰여오르게 되였다.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였으며 농촌경리의 화학화와 기계화에서도 빛나는 전진이 이룩되였다. 지난날 락후와 빈궁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우리 나라 농촌은 오늘 농업을 전면적으로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수천년동안 피땀으로 땅을 걸구고 손끝으로 농사를 짓던 우리 농민들은 지금 기계로 밭을 갈고 약으로 김을 매면서 흥겹게 일하고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과업도 잘 진척되여가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이르는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건설되고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공산주의적시책이 실시되고있으며 경공업을 발전시켜 식료가공품들과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이 많이 생산공급되고 농촌녀성들을 물동이를 이고다니는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농촌수도화가 완성되여가고있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문명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화혁명이 힘있게 진행된 결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려지게 되였고 도시와 마을들이 아름답게 변모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이 땅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으며 자랑찬 열매를 맺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친 결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닦아졌으며 천리마운동, 속도전을 계속 힘있게 벌릴수 있는 사상적 및 물질적 기초도 훌륭히 마련되였다.

3대혁명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당의 혁명적령도에 의하여 류례없이 빠른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천리마운동은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3대혁명이 승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결정적으로 줄어들었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계급없는 발전된 사회를 보다 가까이 바라볼수 있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과 오늘의 빛나는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길만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전진에로 이끌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훌륭히 점령해나가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계속 힘차게 달려나아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더욱 위대하고 찬란한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70일전투속도》로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리 을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일대 위기에서 구원하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영광스러운 투쟁이며 전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백전백승하는 투쟁의 무기를 안겨준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조직하시고 그 진두에서 승리에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실로 그 지도사상과 리론 그리고 간고성과 장기성, 영향력과 생활력에 있어서 세계혁명운동력사상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이 투쟁은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방대한 폭압기구를 가진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군사봉건적제국주의인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격렬한 혁명전쟁이였다. 이 투쟁은 또한 혁명적군중의 지지밖에는 그 어떤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수적으로 수백수천배에 달하는 원쑤들을 무찌르는 영웅적투쟁이였으며 15성상의 장구한 기간을 불길과 눈보라의 수십만리를 헤쳐나가면서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야 하는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바로 이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폭풍우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으며 반제민족해방전쟁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다.

오늘 민족적대경사의 날인 어버이 수령님탄생 63돐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조직령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지닌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차지하는 력사적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대를 이어 충실히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을 힘있게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세계혁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세계는 20세기초에 이르러 몇개 안되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식민지적억압속에서 허덕이게 되였다.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인민들의 해방을 실현하는 문제는 인류력사와 국제혁명운동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게 되였다. 여러 세기동안 외래침략자들의 압제하에서 신음하여온 식민지인민들은 침략자에 대한 자연발생적반항의 단계를 거쳐 점차 각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로씨야에서의 10월혁명이후 그들의 투쟁은 국제로동계급의 투쟁과 결합된 세계혁명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식민지인민이 어떤 투쟁의 길을 거쳐서 어떤 투쟁형태와

투쟁전략을 세워 자기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해명을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기간에 걸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경험을 총화하시고 식민지인민들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누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나라 인민들이 주인이 되여 자기 힘으로 투쟁하는것이며 여기에서 가장 높은 투쟁형태는 반혁명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민족해방전쟁이라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첫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였으며 식민지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르쳐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이였다. 바로 항일무장투쟁은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식민지인민들이 력사의 주인으로, 세계혁명의 강력한 요인으로 등장하는 새 력사의 길을 밝혀주었으며 피압박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승리한 세계최초의 혁명전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어떠한 지도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은 오직 자기 계급의 리익과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혁명사상에 의해서 지도됨으로써만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투쟁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승승장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의 매 단계마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조선혁명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우는것은 선행시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남긴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긴요하고 절박한 문제였다. 당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독립을 얻어보려고 헛되게 시도함으로써 피흘려싸우는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을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끼여든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은 저마다 《령도권》쟁탈을 위한 추악한 파벌싸움에만 몰두함으로써 혁명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고 그 전진을 가로막았다.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한걸음도 밀고나갈수 없었다.

당시 국제적으로 볼 때도 세계혁명운동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각이한 력사적조건과 정세하에서 서로 다른 과업을 제기하고 다양하고 폭넓게 벌어지는 사정은 그 어떤 하나의 공식과 리론에만 의거하여서는 매개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게 되였다. 오직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체의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고 혁명하는것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제기되였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켜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시고 15년을 하루와 같이 풍찬로숙하시면서 강도 일제와 맞서 싸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기성리론에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서는 모든 전략전술적문제들, 정치군사적과업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을 관철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승리한 민족해방전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이렇듯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확고한 진리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것은 동시에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힘을 백방으로 높이게 하는 새로운 시대적사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투쟁함으로써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또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한 위대한 혁명전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는것은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자체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46페지)

혁명은 그 나라의 내부모순에 의하여 일어나는것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력량도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다. 혁명은 남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할수 없으며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이전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서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적극 추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종주국로동계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지원에 의거하여서만 식민지민족들의 민족해방을 달성할수 있는것으로 간주되여왔다. 즉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승리는 종주국프로레타리아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았으며 식민지나라자체의 힘에 의하여 혁명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도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일부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는 종주국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기대를 걸고 유리한 정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꾸리지 않고 민족해방투쟁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밀고나가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기세는 비상히 앙양되였으나 그들이 조직된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꾸려져 있지 못하였기때문에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는 결정적인 투쟁을 벌리지 못하였으며 결국 그 어느 식민지나라에서도 제국주의식민지예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종래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가지고있던 이러한 본

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민족해방의 위업을 달성한 세계 최초의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남의 힘을 믿고 혁명을 하려는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꾸리시는데 모든 힘을 돌리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나라에서 로동자, 농민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철두철미 주체적인 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진행되였기때문에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강대한 제국주의침략무력을 격파하고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집어엎을수 있었으며 민족해방의 위업을 주동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도를 내놓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속에서 새세대의 생신한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조선혁명의 핵심력량인 항일유격대를 급속히 확대하며 그 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노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시는것과 함께 혁명적대중단체건설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시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혁명투쟁에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단계에서의 혁명력량편성문제가 정확히 해결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은 가장 광범한 계급과 계층의 절대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줄기차게 발전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승리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이 빛나는 모범은 민족해방과 독립을 지향하는 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혁명의 동력을 최대한으로 꾸리고 혁명의 대상을 극력 고립시킴으로써 혁명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여 국제적범위에서 반제혁명력량을 단합하는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준 위대한 혁명전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기초하여 국제적범위에서 반제력량을 최대한으로 단합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시기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 나아가서 민족주의자들과도 반제공동전선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국제적규모에서 반제력량을 묶어세워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전략적방침으로서 철두철미 반제적이며 국제주의적인 혁명로선이다.

항일무장투쟁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공동전선의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

고 우리 나라 혁명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세계혁명위업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시 국제적으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였던 반제공동전선운동의 선구자적모범이 빛나게 창조되였으며 현시기 세계혁명전략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 반제공동전선의 고귀한 력사적뿌리가 이룩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이 선구자적모범으로 하여 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처음으로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과 국제혁명력량의 가장 정확한 단합의 길을 알게 되였으며 반제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공동의 적에게 타격을 집중하여 그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전략적원칙과 방도들을 가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민족국가단위에서와 국제적규모에서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하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명확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더없이 귀중한 리론실천적재부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인 무장투쟁으로써 반혁명무력을 타승한 위대한 혁명전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한 가장 높은 형태의 민족해방투쟁이였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45페지)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피압박인민들이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간곤히 싸워야 하며 그 투쟁의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형태는 무장투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으며 나라를 빼앗긴 인민들이 자기자신이 일어나 싸우지 않고 남이 가져다주는 독립을 얻은 사실도 알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피압박인민들이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민족의 참다운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자기의 힘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만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으며 민족해방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는 자기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멸망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자기의 모든 폭력기구와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류혈적으로 탄압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식민지인민들의 유일한 투쟁의 길은 혁명적폭력으로써 반혁명적폭력을 격파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벌써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이라는것을 선포하시고 전체 인민을 항일무장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무장투쟁의 길을 따라 수령님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일제침략자들을 패망시키고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이 력사적경험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형태는 무장투쟁이며 따라서 식민지인민들이 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상비적인 무장력을 꾸리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확고한 진리를 가르쳐주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유일하게 정당한 투쟁형태를 밝혔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군사전략전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군사전략과 유격전술에 의하여 령도되였기때문에 모든 전투마다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패배를 줄수 있었다.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하며 어떠한 군사전략과 전법으로 적을 타승할것인가 하는문제는 종래까지 옳게 밝혀져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을 상비적무력에 의한 유격전으로 규정하시고 무장투쟁의 군사활동을 보장하며 혁명전반에 대한 지도를 보장하는 혁명의 책원지로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과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무장투쟁과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 통일전선운동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전반적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주체적인 유격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능숙히 적용하심으로써 항일유격대로 하여금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주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적을 부단히 약화소모시키는것을 유격투쟁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시고 전투행동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최대의 령활성을 보장하며, 적이 손쓸사이없이 몰이치고 끝내는 속공속결, 적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적들을 불리한 전국에 몰아넣는 유인기만 등 유격투쟁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전술적원칙들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고 적들의 한가운데에 은밀히 들어가서 제편끼리 싸우게하고 감쪽같이 빠져나오며 한길음에 수백리씩 기동하여 적을 소멸하며 부단히 새 자리에 옮겨앉으면서 적을 끌고 다니다가 족쳐대는 등 천태만변의 유격전술과 전법을 창조하시였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적용하신 유격전쟁에 관한 전략전술과 전법들은 동서고금의 전쟁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독창적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 주체의 전법에 의하여 《무적》을 자랑하던 일제침략군은 맥을 추지 못하고 도처에서 무리죽음을 당하였으며 결국 패망하고말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무장투쟁에 관한 사상과 그것을 빛나게 구현한 항일무장투쟁의 실천적모범은 그 하나하나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투쟁의 교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또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함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반제혁명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불멸의 혁명전쟁이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국제제국주의의 돌격대로 나섰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리는 것은 당시 일제의 예속하에 있었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였을뿐아니라 아세아와 전세계에서 혁명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문제였다.

당시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였을뿐아니라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강점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내던 간악한 제국주의렬강의 하나였다. 일제는 또한 파쑈독일과 이딸리아와 군사적으로 결탁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던 국제파시즘의 원흉의 하나였다. 따라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인민의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이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 인민의 흉악한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민족해방력량과 제국주의세력,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력량과 파시즘세력간에 벌어지는 전세계적투쟁의 초점이였다. 이 준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그 첫날부터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의 100만 《관동군》과 조선주둔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을 저들의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군사전략기지》로 만들고 아세아와 세계를 삼켜보려던 일제의 간악한 침략계획을 파탄시켰다.

항일무장투쟁은 국제파시즘의 아세아의 《돌격대》인 일제를 꺼꾸러뜨림으로써 파쑈노예화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전체로서의 파시즘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동시에 일제를 타승함으로써 그 밑에서 착취받고 억압받던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파시즘을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투쟁에 거대한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로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돌파구가 뚫리지게 되였으며 이것은 나아가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억압받던 모든 대륙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총붕괴의 길에 들어서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생겨나고 식민지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항일무장투쟁이 있기전까지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자체의 무장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전복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 10월혁명의 승리로 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자본의 철쇄는 끊어졌으나 지구상에는 여전히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남아있으면서 수많은 인민들에게 무서운 재난과 고통을 들씌워왔다. 인류에게 그토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가져온 지주로운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오직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로 하여 돌파구가 뚫리게 되고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그 위대한 실천적모범으로 전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주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계기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더욱 앙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기에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혁명가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적의 강철의 령장》,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붉은 태양》이라고 한결같이 높이 칭송하고 있으며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을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고무적힘을 안겨주는 투쟁의 기치》로, 《혁명투쟁의 진로와 방도를 뚜렷이 가르쳐주는 투쟁의 교과서》로, 《인류력사에 길이 빛날 영웅서사시》로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들은 특히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오직 무장투쟁의 길을 통해서만이 자기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손에 무장을 들고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은 세기적인 암흑과 노예의 굴종에서 헤매이던 수억만 인민들을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으며 지구상에서 식민지노예의 철쇄를 종국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한 거세찬 혁명의 폭풍우를 일으키게 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　　　　*

항일무장투쟁이 있은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저주로운 식민지노예의 철쇄가 끊어져나

갔으며 오늘 식민지체계는 그 마지막 철쇄가 동강이 나고있다.

어제날 제국주의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해방된 제3세계인민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게 된것은 인류력사와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수세기동안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우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저주로운 식민지노예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세계의 반제력량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자유와 독립,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식민지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며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또다시 식민주의올가미를 씌워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단결된 힘으로 맞서싸우고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무장간섭과 군사정변, 전복음모를 견결히 짓부시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지키고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특히 제3세계 인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며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면서 자기들의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삼아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졸라매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마지막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제3세계인민들은 천대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위업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하고있는 형제이다. 우리 인민은 제3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적의무로 여기고있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지난날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언제나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식민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광범한 반제공동전선을 벌리였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휘로운 주체사상의 빛발로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모범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오늘도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혁명가들을 반제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강 현 수

우리 당을 몸소 세우시고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올해 당창건 30돐을 기념하게 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나라가 비약과 기적의 나래를 돋히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에 떨쳐나서고있는 강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세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된지 한세기가 넘고 지구상에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많지만 직접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당을 세우신 당의 창건자, 당을 키우시고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워나가는 혁명적당은 오직 우리 당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수령님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은 민족적경사로 맞는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였으며 가장 혁명적인 새형의 당, 주체형의 당을 세우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그이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권위있고 세련된 당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신것은 수령님께서 장구한 혁명투쟁행정에서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공적의 하나이다.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탄생한 우리 당은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투쟁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그 어떤 세찬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과 위력을 가진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시대의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어버이 수령님께 끝없는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몸과 마음 다바쳐 끝까지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 당이다.

주체의 혁명위업, 그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이다.

본래 로동계급의 당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공산주의운동의 모든 력사적경험을 일반화

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과학적으로 집대성하여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창시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공산주의적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당을 창건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있어야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결속하여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고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34페지)

로동계급은 자기의 전위대인 혁명적당을 가져야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으며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당건설, 당활동을 진행한다. 당의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떠나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활동을 한순간도 옳게 진행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다른 사상을 당안에 끌어들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그것은 다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마비시키며 수령이 개척한 위업에서 당을 물러서게 하려는 반혁명적책동외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것은 당자체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힘있게 실현하기 위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전당을 움직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힘있게 관철하여나갈수 있다.

당이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지 못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반석같은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할수 없으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페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시대의 혁명적기치인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서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수행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모든 전략전술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진수로 하고있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끝없는 창조성과 혁명성, 전투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준다.

새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이 백전백승의 위력과 강철의 의지, 위대한 령도력을 가지고있는것은 바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기때문이다.

실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적기치이며 우리 시대 혁명하는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창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정치적무기로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할데 대한 주체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에 충직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적핵심들을 수많이 길러내시였으며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대렬의 확고한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시고 당이 대중속에 뿌리를 깊이 박을수 있는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도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을 창건하는 사업을 제때에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 그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지도리념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인류의 앞장에서 실현해나갈 새형의 당의 탄생이였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창건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정치적무기,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당의 지도사상도, 당창건의 력사적뿌리도 마련되였으며 주체형의 영광스러운 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 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안에 하나의 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50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로정은 우리 혁명을 파괴하려는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반대하고

각종 반동적사상독소들을 불살라버리기 위한 치렬한 투쟁과정이였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고질로 되였던 종파의 오물들과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잡사상들을 퍼뜨리던 수정주의분자들과 부르죠아분자들을 쓸어버리는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더욱 단련되였으며 조직사상적으로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갖 잡귀신들을 당내에서 쓸어버리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심으로써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전위부대, 혁명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시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내에 잠입하였던 온갖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쓸어버리는 투쟁을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당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시였으며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말하고 숨쉬고 행동하는 강철같은 사상의지적통일을 빛나게 이룩하여나가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힘있는 조직으로,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내고 힘차게 전진하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전당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결속됨으로써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였다.

당안에 오직 주체사상만이 차넘치고 전당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충성의 대오로 나아가는것, 이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적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실현된 우리 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며 이 땅우에 모든 근로자들이 더욱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리상사회,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인민은 강철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들고 나감으로써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미제무력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이 땅우에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대번영, 대륭성의 시대, 천만대를 두고 길이 노래할 로동당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힘있게 실현해나가는 필승불패의 강철의 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우리 당중앙위원회를 당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싸울 각오가 되여있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꾸리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시고 그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게 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당조직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일군들로 꾸려짐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강력한 전투부대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안에 혁명적환기와 생기가 더욱 차넘치고 그 령도적역할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되였다. 수령님의 교시와 의도가 제때에 지체없이 아래에 쭉쭉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있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힘있게 관철되고 우리 혁명은 더욱 기운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종국적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전당과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힘있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숭고한 사업이며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예로운 혁명위업이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은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들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만이 내놓을수 있는 공산주의적강령이다.

당중앙은 전당과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킴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동지적단결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였다.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가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어버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근로자들을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숨결로 숨쉬게 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는 더 말할것도 없고 나아가서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을 따라배울데 대한 구호를 내놓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주체사상교양,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는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움으로써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진 혁명가이다.

당중앙의 혁명적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

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칠 각오를 굳게 다지고있으며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 충성의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영원히 충성다하려는것은 그 어떤 세찬 바람에도 드놀지 않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신념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높은 혁명적자각과 숭고한 충성심을 지니였기에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으며 산도, 바다도 헤가르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기적적인 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한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바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대비약, 대승리를 이룩한 《70일전투속도》, 사회주의건설력사에 찬연히 빛날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낳은 중요한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그 전투력이 높아짐으로써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에서도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0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실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혁명적령도밑에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전례없이 강화됨으로써 모든 사업이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훌륭히 풀려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혁신과 로력적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는 상상을 뛰여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으며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위대한 변혁과 영웅적사변들이 수없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대사상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람들의 심장마다가 충성의 피, 주체형의 피로 높이 고동치게 하였으며 요령주의, 보수주의, 신비주의, 관료주의 등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을 방해하는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을 불사르고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혈기왕성한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패기있게 싸워나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줌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생활양식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당의 이 혁명적구호를 받들고 지난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였던것처럼 배낭을 메고 대중속에 들어가 어렵고 힘든 고비를 앞장에서 뚫고나가면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모든 일을 패기있게 번개같이 해제끼는 혁명적기풍과 일본새가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낡은 사업방법이 마사지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고히 서게 됨으로써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당중앙의 혁명적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종전에 비하여 생산을 일약 2~3배로 뛰여오르게 하는 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10월 10일전으로 점령하고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비상한 속도와 세기적인 변혁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이 비할바없이 위력하며 수령님과 당중앙을 따라나가는 길에서는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투지를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혁명적인 령도에 의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실현되여나가고있다.

*　　　*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주체형의 강철의 당인 우리 당앞에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된 우리 당, 주체형의 당의 강철같은 사상의 지적통일을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굳게 다져나가야 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과 조직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자신을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더욱 큰 비약과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혁명적령도가 있고 우리 근로자들의 심장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뜨겁게 불타고있는 이상 우리앞에는 못해낼 일이 없으며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 혁명적인 당, 주체형의 당인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싸워나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 나가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지 창 익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세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연화같은 충성의 마음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새벽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고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시면서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진두에 서시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심으로써 지난날 빛을 잃었던 이 땅우에 오늘은 온 세상에 주체의 찬연한 빛발을 뿌리는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고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오늘 이 땅우에 펼쳐진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의 자랑찬 력사는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찬란한 연매를 맺은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세돐을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며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와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몸바쳐 투쟁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

부강하고 륭성번영하는 자기 조국에서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보람차게 살아보려는것은 근로하는 사람들의 세기적인 념원이며 그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왔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고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며 모두가 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우리 인민은 실로 간고한 투쟁을 벌려왔으며 피도 많이 흘렸다.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고 짓밟히던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없고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지상락원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념원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풀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천년의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심으로써 비로소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을 이룩할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며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이끌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기며 민족적번영과 륭성을 마련해준다.

오늘 우리 당이 혁명적당으로, 우리 나라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세상에 자랑을 떨치고있으며 우리 조국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당의 오늘의 권위와 존엄, 우리 인민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끝없는 륭성발전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륭성번영하는 자기 조국에서 보람차게 살아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26~32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사회주의제도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제도이다.

근로대중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자면 반드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워야 한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길은 이 제도의 고유한 모순으로 민족적예속과 몰락, 경제적침체와 파산,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에로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은 이 제도가 가지고있는 거대한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으로 하여 민족적륭성과 번영, 경제의 급속한 장성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끊임없이 이룩할수 있는 참된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참다운 보금자리,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락후한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오늘과 같은 민족적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은것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이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확고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심으로써 지난날 예속과 무권리속에서 살아오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오늘은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이 제도가 열어준 넓은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고 이 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끊임없이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력사적과업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5페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것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우리 나라를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였으며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진 탓으로 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던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륭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절박한 과업이였다.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데다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락후한 경제와 기술을 물려받았던 우리 나라에서, 더우기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하여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 모든것을 새롭게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것은 실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은 우리 나라에서 불과 10여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빛나게 실현된 결과 무엇보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자립적중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지 지난날 간단한 농쟁기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25톤짜리와 100톤짜리 자동차를 만들어내고있으며 300마력불도젤, 10립방메터대형굴착기, 15메터대형선반, 20메터대형선반, 10만크바변압기와 20만크바대형변압기를 비롯한 대형기계들을 생산하고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오늘 1만 5,000톤짜리와 2만톤짜리 큰배를 만들고있으며 1,500마력고속엔진과 2,500마력중속엔진, 3,000마력고속엔진도 생산하고있다.

또한 경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옷감으로부터 문화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품을 다 자체로 만들어 국내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고 기계화와 화학화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여 지난날 호미나 낫과 같은 원시적인 농쟁기로 농사짓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기계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약으로 김을 잡는 농업의 전면적인 공업화, 현대화 단계에 확고히 들어섰다.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강력한 경제토대가 마련된 결과 오늘 우리의 공업과 농업은 세계적인 경제적 파동과 위기, 기상기후조건의 심한 변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매우 안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의 공업은 1970～1973년기간에 매해 평균 17%라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지난해말 《70일전투》기간에는 전투이전에 비하여 생산이 1.7배나 장

성하는 대비약, 대혁신이 이룩되였다. 일반적으로 한해동안에 농업생산이 2~3%만 장성하여도 큰 성과라고 하는데 더우기 세계적인 기후변동으로 대다수 나라들에서 매해 흉년이 들어 아우성치는 이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매해 30%이상의 높은 속도로 알곡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또한 빨리 향상되고있다.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고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이 더욱 철저히 관철됨에 따라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생활이 빨리 높아졌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종국적으로 청산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우리 인민은 온갖 세금의 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되었다. 농촌 뻐스화와 수도화, 농촌텔레비죤화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더욱더 줄어들고있다.

전체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나라는 또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전체 인민이 튼튼히 무장되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튼튼한 국방공업이 창설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을 지킬 군대가 없어 나라까지 빼앗겼던 수난의 력사, 자체의 군수공업이 없었던 탓으로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일격에 때려부실수 있는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에서 사는 끝없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 땅우에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430페지)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은 나라의 문명과 발전 정도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이 급속히 발전할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문화발전이 극도로 억제당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현대문명밖에서 오직 무지와 몽매만을 강요당하여왔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800여만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교육받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하는 체계가 서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며 1~2년안에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

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을 갖게 된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여 오늘 우리의 과학기술은 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당중앙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반동문화예술에 철추를 내리고 인민들을 혁명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오늘 온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예술을 《세계최고봉의 예술》이라고 높이 찬양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예술발전을 인류문명을 중세기적암흑에서 구원한 문예부흥에 비기면서 《20세기 사회주의문예부흥은 동방의 조선, 영웅도시 평양에서 시작되있다.》고 소리높이 찬양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한결같이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끝까지 따르고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과 당중앙이 가리키시는 길에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려는 끝없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인민을 오늘과 같이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적인민으로 되게 한 결정적요인이며 그 어떤 난관도 뚫고 우리 사회를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한길로 나갈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생활에서와 경제, 교육과 문학예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였다.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하여서와 자녀교육과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세금없는 나라, 모두가 무병장수하는 나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면서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륭성번영하는 공화국북반부와는 달리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은 오늘 미제의 악랄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극악무도한 파쑈교형리인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모든것이 말살되고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판을 치는 처참한 인간생지옥으로 되였다.

륭성번영하는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은 온갖 착취와 압박, 고역에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 새로운 용기를 안겨주며 그들을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또한 60만 재일조선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떳떳한 해외공민된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나라를 《20세기의 기적이 창조되는 나라》,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로 높이 칭송하면서 부러움을 금치못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참으로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으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 우

리 나라는 오늘 끝없이 륭성번영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과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　　　*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이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오늘과 같은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에로의 인류사적대비약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옳은 지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우리 인민이 온갖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의 흔적을 깡그리 털어버리고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에로 비약하여온 로정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가장 간고하고 험난한 투쟁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아직 인류가 걷어보지 못한 그처럼 간고하고 험난한 길을 몸소 진두에서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불길 만리, 눈보라 수십만리를 헤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 이는 우리 인민이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찾지 못하여 애타게 모대길 때 기존명제나 남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 독창적인 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과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조국과 민족을 륭성번영에로 곧바로 이끄는 향도적력량,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마련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신후 인민정권을 세우시였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고 인민무력을 건설하심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는 현대적기계제작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유능한 민족간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것을 비롯한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일련의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신후 곧 전후복구건설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정세를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시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불굴의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 진개력으로 그 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공업화로선,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방침, 3대혁명로선 등과 그것들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들은 그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모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의 독창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집중적으로 보

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모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발전된 사회주의적민족문화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방침들이다. 이 모든 로선과 방침에는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지,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 가는 곧바른 길,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또한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과학리론적으로 깊이 해명되여있을뿐아니라 그 실천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도록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신 다음에는 불굴의 혁명적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그 어떠한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그를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였으며 그 어떤 사나운 폭풍이 불어와도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오늘 이 땅우에 펼쳐진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 모든 근로자들이 끝없는 행복과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지상락원은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반드시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전진할수 있습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전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0~42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계급적원쑤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이룩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의 성격과 임무, 조성된 정세와 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신데 기초하시여 투쟁대상을 옳게 규정하시고 투쟁 방향과 방도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온갖 계급적원쑤들, 혁명의 배신자들을 제때에 청산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언제나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이 극복청산됨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우람찬 발구름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에서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개화만발하는 사회주의민족문화를 가진,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은 미제와 그 추구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반당반혁명적 사상요소들, 온갖 침체한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였다.

언제나 자기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에서는 남만 쳐다보면서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새 사회를 건설하며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근로자들의 자주의식과 창발성을 좀먹고 혁명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였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와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를 제때에 극복할수 있었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던 요령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온갖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간고한 나날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끈전을 아껴가면서 현대적기계제작공업기지, 대규모화학공업기지를 비롯한 만년대계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아올렸으며 과학과 기술, 교육과 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았다.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지도의 전로정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군중로선의 전면적승리의 자랑찬 로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입니다.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10페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군중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시고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고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시여 대중지도의 탁월한 공산주의적사상이며 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됨에 따라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성과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우리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륭성의 자랑찬 력사에 수놓아진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들은 또한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하루같이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세기를 주름잡아 내달릴수 있는 힘과 용맹, 슬기를 안겨주시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20년만에 보시는 만경대, 늙으신 조부모님께서 계시는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강선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수천수만리 길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힘을 조직동원하시여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여오신 불멸의 력사적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사나운 눈보라와 궂은 비, 진창길과 가시덤불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을 찾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실로 몇천몇만리인지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전국에 료원의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지게 하시였으며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적혁신운동을 발기하시고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 길우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세워주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이 미치는곳마다에서 주체공업의 위력을 시위하는 현대적공장들이 수풀처럼 일떠섰고 세세년년 만풍년을 노래하는 풍요한 황금의 대지와 백과주렁지는 과일동산이 펼쳐졌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언제나 먼저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간장과 된장 맛까지 보아주시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는 실로 천대를 두고 만대를 두고 노래하여도 다하지 못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처에 닭공장이 일떠서고 수많은 현대적 옷공장들과 식료가공공장들을 비롯한 현대적경공업공장들이 꾸려진 그 변혁의 력사에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이 깃들어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령도따라 나갈 때만이 언제나 백전백승하며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자리잡은 철석같은 신념이며 억년 드놀지 않는 혁명적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우리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그를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며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에서 사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떨쳐나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가자.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리　　재　　운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민족분렬의 비운이 드리운지 30년, 이 기간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애국적인 투쟁의 진두에는 50성상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오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주체의 해발로 통일위업의 대로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침략과 민족분렬 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통일된 조국의 래일을 환히 내다보면서 투쟁하며 전진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으며 수령님 모시고 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불같은 충성의 열정이 끓어번지고있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통일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위업수행에서 전민족의 유일한 중심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념원과 인민의 리익을 한몸에 체현하시여 우리 세대에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면한 가장 숭고한 임무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이며 숙망인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3페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의 본질을 밝히며 그것을 어떤 위치에 놓고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근본문제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와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와 직접 맞선 조건에서 전국적인 판도에서 혁명을 추진하는 문제는 일찌기 그 어디에서도 제기된적이 없었다.

이 전혀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은 오직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장구한 혁명투쟁행정에서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을 쌓으시였으며 탁월한 령도력과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주실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미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렬된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이라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결코 분계선을 없애고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산수적으로 합치고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단순한 개념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본질상 남조선을 미제침략자들의 예속에서 해방

하고 전국적판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는것,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밝히시고 나라의 통일을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민족최대의 당면과업으로 규정해주심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올수 있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미제의 남조선강점 첫시기부터 그 침략적본질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조국통일위업의 근본초석을 마련해주신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그 중심에 확고히 서계신다.

내외반동들의 침략과 매국책동을 물리치고 민족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의 리익과 지향을 통일적으로 체현하고 민족의 애국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시키는 탁월한 수령,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령의 두리에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이 철통같이 뭉쳐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과 민족이 바라는 통일위업의 유일한 중심은 오직 반세기의 혁명력사를 통하여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를 받고계시며 세계 만사람들이 그토록 경모하여마지 않는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뿐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신들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70페지)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려해주시는 어버이사랑과 크나큰 뜻이 담겨져있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오시였으며 민족의 리익과 지향을 한몸에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우리 인민에게 조국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마련해주실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깊이 심려하시고 민족의 장래를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는 통일만이 우리 인민이 념원하는 참다운 통일로 될수 있다.

오늘 전체 남북조선인민은 갈라진 우리 나라가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통일될것을 절절히 바라고있으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통일된 강토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릴것을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뿌리를 내린 고귀한 사상감정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여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광명을 안겨주시고 조국광복의 대업을 실현하신 우리 인민의 해방의 구성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시다.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이 망국의 비운으로 몸부림치고 혁명의 전도에 검은 구름이 뒤덮였던 그 암담하던 시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시게 됨으로써 민족재생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으며 일대 륭성

과 번영, 세기적인 변혁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공화국북반부를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강력한 보루로 꾸리놓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이 땅우에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 주체의 나라를 일떠세우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고통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하루빨리 안겨주시기 위하여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을 세우고 관개망을 늘이는것으로부터 해외동포들을 만나시고 대외정책을 세우시는것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심에 있어서 언제나 도탄속에서 신음하는 남녘겨레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육친의 정으로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모든 세기적변혁은 말할수 없고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생각할수 없다.

오늘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밑에서 무권리와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도 모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고있으며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모든 혁명위업수행과 마찬가지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민족지상의 과업을 실천하려면 그것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고나갈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지도사상, 지도리념을 가져야만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과의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옳은 립장과 태도, 과학적인 전략로선과 전술적방침을 가지고 어떠한 편향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 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주시고 그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장구한 혁명실천과정에서 백전백승한 주체사상은 통일위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는 김일성동지 혁명사상만이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될수 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혁명이나 민족의 재통일과 같은 거창한 혁명위업수행에서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고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주체적력량도 인민대중이다. 주체사상만이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의 힘으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승리적기치이다.

주체사상은 칠성판에 올랐던 우리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민족재생과 부강번영의 새기원을 열어놓았으며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력사에 의해 검증된 필승의 혁명사상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왔기때문에 사나운 시련속에서도 통일의 전도를 환히 내다볼수 있었고 아무런 주저와 혼란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었다.

주체사상, 이것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시여 조국통일과 전국혁명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주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그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구성이시다.

## 2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조직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념원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시여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기본방침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따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독창적인 조국통일방침은 지난 30년동안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위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바로 이 력사적인 방침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그토록 떠들던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한 통일》이니, 《북진통일》이니, 《승공통일》이니 하는 따위의 외세의존적이며 사대망국적이며 매국배족적인 《통일론》이 여지없이 분쇄되였으며 바로 이 위대한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안팎의 민족분렬주의자들의 온갖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승리의 한길을 개척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력량편성방침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가지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입니다.》**(《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세가지 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내외[illegible]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주체적인 통일력량을 중심으로 한 위력한 력량을 꾸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다.

혁명력량은 튼튼히 꾸려야 반혁명세력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고 반혁명을 때려부셔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혁명의 객관적법칙이며 진리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민족자주력량사이의 투쟁이며 매국세력과 애국력량사이의 투쟁이며 파쑈도당과 민주력량사이의 투쟁이며 전쟁세력과 평화력량사

이의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력량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 조성되는 어떤 난관도, 조국통일의 대사변이 도래하게 될 어떠한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쑤들을 타승해나갈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여주시였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과 3대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한 방침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시종일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정확한 전략적지침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30년동안 이 탁월한 전략적인 방침에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혁명의 전도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주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여 중첩되는 난국을 타개하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시였으며 정세를 끊임없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실현에 유리하게 전변시켜오시였다.

해방직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하에서 혁명을 어떻게 추진시키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승패와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였다.

국내반동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은 미제를 《해방자》, 《원조자》로 떠받들면서 미제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 놈들의 손아귀에 조선인민의 운명을 떠맡기려고 책동하였다.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제때에 예리하게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이때에 혁명의 복잡성과 민족분렬의 위험성을 통찰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과 거족적인 반미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예견하신대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단독괴뢰정부를 조작하는 토괄적인 민족분렬의 길로 나갔다.

바야흐로 민족분렬의 위기가 닥쳐온 1948년 수령님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대구국대책으로서 몸소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를 마련하시고 남북의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괴뢰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놈들의 흉악한 책동을 분쇄하시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조성된 새로운 정세하에서 비상한 정력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 평화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취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각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수많은 합리적인 방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시여 끊임없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여오시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분렬책동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속에서는 조국통일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통일을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남조선인민들의 전인민적항쟁인 4.19 인민봉기와 그 이후 급격히 앙양된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은 바로 수령님께서 전후 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오신 빛나는 결실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불같은 의지의 뚜렷한 표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가 조작한 군사정변이후 남조선인민들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시련을 겪게 되였을 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을 반제반파쑈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시였으며 변천하는 국내외정세를 능숙하게 조국통일을 촉진하는데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더욱 곤경에 빠지고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남조선인민들의 평화통일기운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력사적인 1971년 8월6일연설을 통하여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유명한 이 방침은 오래동안 가로막혀온 남북의 장벽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 력사적인 방침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여오던 남조선통치배들도 할수없이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게 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동의하고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외세의존로선에 대한 자주로선의 승리이며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승리이며 매국로선에 대한 애국로선의 승리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화의 길이 열린 이후 남조선통치배들의 지연전술과 량면전술을 걸음마다 분쇄하시였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도록 하시고 원쑤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으시였다.

안팎으로 궁지에 빠지고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가는데 당황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로골적으로 민족의 영구분렬책동에 매달렸으며 드디여 이른바 《6.23성명》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정책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바야흐로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놈들의 범죄적인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제때에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휘황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영구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은 위대한 구국강령이며 전체 조선인민을 구국통일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실로 지난 30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령도하여오신 전로정은 중첩되는 난국을 타개하시고 자주통일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하여오신 위대한 투쟁의 로정이였으며 안팎의 원쑤들의 흉계를 짓부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승리의 로정이였다.

# 3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정에는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주체적력량은 더욱 강화되고 오늘 정세는 날을 따라 우리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의 혁명기지는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조국통일의 강력한 성새로 전변되였다.

특히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철석같이 단결되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서도 허물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그 어떤 사나운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우리 북반부혁명기지의 위력앞에서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던 미제와 남조선통치배의 망상은 여지없이 깨여졌으며 놈들은 제소굴에 들어박혀 문을 닫아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빛나는 사회주의건설성과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며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남조선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진정 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중의 령도자이시다.》, 《조국통일은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서만 이룩될것이다.》,《우리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 통일된 이 땅에서 정치를 베푸시게 될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단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갖은 고초를 이겨가며 꿋꿋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그이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며 필승의 신념과 투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철석같은 의지의 표시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그들을 원쑤들의 그 어떤 파쑈폭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워나가게 하는 가장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정보, 특무망이 그물처럼 뒤덮인 파쑈폭압속에서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밤을 지새워 깊이 연구체득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용감히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그처럼 혹심한 파쑈폭압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요구하며 현군사파쑈통치제도의 철페를 주장하는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한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새로이 일어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더욱 미쳐날뛰면서 파쑈적인 《유신》독재체제를 꾸며내고 인민들에 대한 전례없는 파쑈폭압에 매달리고있으나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있는 통일혁명당의 위력은 날을 따라 강성발전하고있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은 확대강화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광범한 인민들과 언론계, 종교계, 정계, 사회계 등 각계 인사들은 투쟁대오를 급속히 확대하고있으며 이 투쟁과정에서 여러가지 조직을 뭇고 자기의 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해나가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일본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속에서도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들은 이국땅 곳곳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련대성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우리의 동정자들과 지지자들의 대렬은 더욱 늘어가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혁명력량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반면에 통일을 반대하는 안팎의 민족분렬주의세력은 더욱 고립약화되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인민들로부터도 한결같은 규탄을 받고 있으며 심각한 파탄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선문제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났으며 놈들은 그 어디에서도 더는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저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합리화할수 없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도 이미 그 밑바닥이 드러났다.

미일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무너져가는 파쑈독재체제를 부지해보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내외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악랄한 파쑈폭압과 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고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으나 이것은 멸망하여가는자들의 마지막발악에 불과하며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돌려세울수는 없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체제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에 도전하여 그처럼 오래동안 악랄하게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여온 미제침략자들이 쫓겨가고 그 앞잡이들이 멸망할 날은 먼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그처럼 념원하여 마지 않는 통일의 그날은 더욱 가까와오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통일된 조국의 래일을 확고히 내다볼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유일중심으로 확고히 서계시여 우리 인민을 통일위업실현에로 줄기차게 이끄시였기에 북과 남을 막론하고 온 민족의 심장마다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꺼질줄 모르는 불길로 타번질수 있었고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거세찬 대하의 흐름으로 번져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념원의 체현자이시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중심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조국통일의 영광의 그날을 안겨주실 민족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고계신다

리 성 히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력사적날인 4월 15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민족적명절일뿐 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경사의 날이다.

지금 우리 인민과 함께 커다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세계진보적인류의 마음은 여기 주체의 해빛찬란한 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조선으로 한결같이 쏠리고있다.

수령님의 탄생 63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고있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정치활동가들,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한평생을 바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끓어넘치는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실것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수령님을 우러러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이 이렇듯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지니신 권위와 위신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높은것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그토록 우러러 흠모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모시고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에서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함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력사적기간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이 나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혁명의 매 력사적시대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과 지도리론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갈 때만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실천적경험을 깊이 일반화하시고 변화된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에게 낡은 세계를 짓부시고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혁명의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마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18페지)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며 혁명적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세계관과 방법론을 주는 과학적인 학설이다.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의 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적령도방법을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선행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시대,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가 제기한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모든 단계의 혁명리론이 완벽하게 해명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각이한 사회력사발전조건에 놓인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이 아무런 우여곡절없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뚜렷한 길이 밝혀졌다.

실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의 사상과 리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그것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것으로서 현시대뿐아니라 공산주의앞날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이다.

인류력사는 아직 세계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이처럼 전면적으로 완성된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지도리론을 안겨준 수령을 알지 못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사상발전과 세계혁명위업에 공헌하신 위대한 불멸의 세계사적업적으로 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그 보편타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지구상의 방방곡곡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세계적사조로, 세계혁명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의 국가수반들,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현대 인류의 가장 완벽한 진보적사상》으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홰불》로 높이 칭송하면서 이 위대한 사상을 자기들의 사상과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끝없이 따르고 신봉하면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조선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일뿐아니라 세계사의 전도를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일치하게 말하고있다. 아프리카의 한 사회활동가는 《주체시대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이며 그것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은 자연과 사회의 혁명적개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백과전서적인 탁월한 사상이다.》고 말하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으며 라틴아메리카의 한 정치활동가는 《정녕 김일성동지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세계혁명의 태양이시며 인류해방의 구성이시다.》라고 격조높이 말하면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의 벗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처럼 세계의 많은 혁명가들과 혁명하는 인민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현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고있으며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참으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빛나게 구현되고있을뿐아니라 세계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을 독립과 번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확신성있게 이끄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으로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심으로 하여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로부터 《혁명의 붉은 태양》으로,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그렇듯 높이 추대되고계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이러한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함께 옳바른 전략전술,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탁월한 령도가 있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인류의 최고리상을 선두에서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일찌기 주체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로동계급의 국가를 세우시여 조선혁명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으며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전략전술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개척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과업이 철저히 수행되였으며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로 되였던 이 땅우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일떠서고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동안에 걸쳐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심각한 혁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가시여 우리 나라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나라로,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온 세계가 무한히 동경하여 우러러보는 위대한 나라로 되였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륭성과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우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의 로정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빛나는 실천적모범으로, 끝없이 귀중한 혁명의 재부로 된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손에 무장을 잡고 일떠서 싸운다면 반드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새 사회, 새 생활 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인민의 성과는 혁명투쟁에 나선 모든 인민들에게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고 진정한 민족적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경험을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오늘 조선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본보기의 나라》로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와 경험들을 따라배우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주체조선의 약동하는 현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모든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금치못해하면서 《조선은 20세기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나라》, 《조선은 세계의 락원》이라고 격조높이 말하고있다. 외국의 한 벗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무한히 동경하면서 《조선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사회제도의 전형이며 세상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란 어떤 제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으로 된다.》고 말하였으며 외국의 한 사회활동가는 《진정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거든, 혁명과 건설의 가장 명확하고 빠른 길을 찾으려거든 오직 세계에 한분밖에 안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에서 배우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를 따라배울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정치활동가들은 조선의 현실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바로 조선에서와 같은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널리 받아들이고있다.

제3세계의 일련의 나라들이 당, 국가, 군대 건설 방법과 원칙들을 《조선식》으로 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국가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등 일련의 정책적조치들을 취하고있으며 경제분야에서도 외래독점체들을 국유화하고 자체의 중공업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혁명의 진두에서 당당하게 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을 무한히 존경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혁명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의 인민들이 우리 인민을 우러러보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나라와 다방면적인 협조교류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열렬히 희망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는 세계 절대다수 나라들의 한결같은 주장에 의하여 종래의 가입절차와 규정들을 깨뜨리고 만국우편동맹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에 당당하게 들어가 존엄있는 성원국으로 되고있으며 거기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미제

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큰 정치적행사들을 년이어 벌리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계인민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 우리 나라의 권위와 위신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비할수 없는 높이에 이르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세계인민들속에서 지니고있는 높은 권위와 영예, 이것은 곧 세계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흠모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권위이며 영예인 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실뿐아니라 현시기 국제혁명운동에서 나서고있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세계혁명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계신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원칙과 방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한 반제반미투쟁전략,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원칙, 제3세계나라들이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촉진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원칙적문제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절대적인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에 대하여 《전세계인민들의 투쟁강령》, 《현시대의 가장 정당한 투쟁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방침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더욱 수세와 곤경에 몰아넣고 그 종국적파멸을 촉진케 하는 진공적인 방침이며 미제의 횡포하고 야만적인 무력침략도, 교활하고 음흉한 〈평화전략〉도 다같이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이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지침으로 견결히 싸워나가고있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사상의 기치밑에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으며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정치적자주성과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세계혁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 세계혁명의 가장 옳바른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 평등을 위한 투쟁에로 떨쳐나서게 하시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혁명리론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신 동시에 가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현하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다바치고계시는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 대중 우에 올라 서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민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인민 대중과**

항상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있는 정력과 열정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1963년판, 13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수령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시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크고작은 모든 시책을 실시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인민의 리익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신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 대하여 한없이 너그러우시며 언제나 겸손하시고 소박하신 성품을 지니고계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수령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어버이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이 땅우에 사회주의지상락원이 솟아났으며 지난날 남에게 눌리우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영생하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희망과 신심에 넘쳐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러기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에 무한히 감탄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못하고있다. 외국의 많은 벗들은 한결같이 수령님을 우러러 《그 덕성만 보아도 세계지도자들의 모범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라고 감격하여 말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벗은 수령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고스란히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조선인민들에게 밝은 웃음과 아름다운 노래를 주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랑만을 주는 환희의 끝없는 원천은 주체사상의 해발을 지니시고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건설해주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사랑이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혁명사상과 위대한 실천으로 우리 시대의 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시였으며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영생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 속에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따라배우려는 지향과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찾아뵙고 그이께서 배우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면서 멀리 대륙과 대양을 건너 끊임없이 우리 나라에 찾아오고있다. 세계의 모든 대륙들에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많은 대표단들이 물밀듯이 우리 나라에 찾아오고있는 현실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이 얼마나 높아가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와 함께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 등 모든 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애독회》 등 여러가지 학술연구소조들을 수많이 뭇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열심히 배우고있

다. 특히 최근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여 투쟁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큰 규모의 연구토론회들이 광범히 조직되고있다. 지난해 일본의 도꾜에서 열렸던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서는 정당하게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온 세계에 장엄하게 선포하고 김일성주의를 더욱 깊이 연구하며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으며 제3세계의 30여개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김일성주석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사상을 심오하게 연구토론하고 이 위대한 문헌을 제3세계나라들의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보급하는 사업이 더욱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수많은 출판사와 신문사들이 날에날마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을 대서특필하여 광범히 소개선전하고있다.

실로 세계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황금을 주고도 구할수 없는 귀중한 량식》으로 삼고 어데서나 수령님의 로작들을 필독문헌으로 깊이 연구하고있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인망은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수령님의 초상화를 자기의 사무실과 서재들에 정중히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영상이 빛나는 초상휘장을 앞가슴에 모시는 영광을 지닐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참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영생불멸의 위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와 위신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수 없는 가장 높은것으로 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끓어넘치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확고한 신조로, 그들은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그처럼 열렬히 흠모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더욱 높이 우러러모시며 그이께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해나가야 한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을 희망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이 지펴준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70일전투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6개년계획을 앞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의 더욱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뜻깊은 명절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따라 세계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나가는 우리 인민의 미래는 영광찬란하다.

근 로 자 제4호(루계39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 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5년 4월 1일 발 행•1975년 4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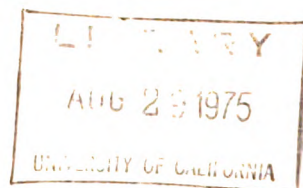
ㄱ—5575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5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397)


## 차 례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기치따라 승리와 영광, 륭성과 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온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장엄한 투쟁에서 충성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고있으며 이땅우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충성의 위훈탑을 더욱 높이높이 쌓아올리고 있다.

온 나라가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번지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상상을 뛰여넘는 대비약, 대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것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가 활짝 꽃펴난 결과에 맺어진 빛나는 열매이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의 위대성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행복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있다.

*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이것은 항일의 혁명정신과 그 기상이 온 사회에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중앙이 내놓은 전투적구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당중앙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이 내놓은 이 구호가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11~12페지)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여 대중앞에 적중한 투쟁구호를 내놓는것은 승리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을 빛나게 구현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음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우리 당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온 사회에 항일의 그 기백과 기상이 높이 나래치게 할것을 요구하는 이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는것은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으며 사람들의 심장을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열정으로 끝없이 파도쳐 설레이게 하는 위력한 감화력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적인 사업과 생활기풍은 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할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기풍의 전형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오로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만 살고 행동하였던 열렬한 혁명가들, 가장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속에서 발휘되였던 혁명적기풍이였다.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기풍은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의 직접적표현이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은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고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도 가장 고결한 풍모를 가진 열렬한 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인민이 자기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 흠모하였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철석같은 혁명적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싸워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인 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충성심이 언제나 불타고있었기에 그들속에서는 그처럼 숭고한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될수 있었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였던 혁명적기풍이 가장 전형적인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엄혹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것이라는데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하였던 혁명적기풍은 사람들의 심장을 그처럼 억세게 틀어쥐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는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기 위한 당의 확고한 결심을 반영하고있다.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한다는것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실생활에 구현하며 그것을 오늘도 래일도 끝없이 빛내여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호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대를 이어 영원히 꽃피워나갈데 대한 위대한 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이 혁명적구호는 온 사회에 항일의 혁명정신과 그 숭고한 기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기 위한것이며 그것은 곧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실천에서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사람마다가 백두의 고결한 혁명정신으로 일하고 생활하여나갈 때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더욱더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것이며 그 찬연한 빛을 영원히 뿌리게 될것이다.

이것은 당이 제시한 혁명적구호가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만들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끝까지 옹호보위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혁명의 참다운 정수분자로 되게 하는 가장 생활력있는 구호라는것을 말해준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는 또한 어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해나갈데 대한 혁명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이 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심장속에 순결하게 고동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모든 고결한 사상정신적특질을 갖춘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며 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업과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학습과 조직생활, 실천투쟁에서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가장 튼튼히 준비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구호에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다 공산주의사회에로 이끌어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가 그대로 깃들어있는것이다.

당이 제시한 이 구호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전투적기백과 왕성한 정력과 혁명적투지를 가지고 일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승리를 이룩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사회주의대건설에서 《70일전투속도》를 뛰여넘는 새로운 충성의 속도를 창조하기 위하여 질풍같이 달리나가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바로 당중앙이 내놓은 이 혁명적구호가 사람들의 심장을 충성의 일념으로 끓어번지게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 하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당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는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폭풍도 뚫고 더 높이 비약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품성이며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달리고 달려 비약과 변혁의 력사를 창조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남이 한걸음 걸으면 열걸음, 백걸음으로 빨리 나가려는 혁명적지향과 영웅적기상을 지니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달려나감으로써 남들이 한세기 또는 몇세기에 걸쳐서 해낸 공업화의 력사적과업도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는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번개와 같이 내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더 높이 뛰여오르려는 충성의 열망으로 충만되여있다.

우리 당중앙이 제시한 혁명적구호는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즐겨하며 더 빨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약동하는 혁명적의지와 불같은 지향을 그처럼 뜨겁게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만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당중앙이 내놓은 전투적구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가장 진공적으로, 전투적으

로 떠밀고나가게 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이 혁명적구호가 제시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약동하는 청춘의 기백과 패기, 혁명적랑만과 활기가 더욱 차넘치게 되였으며 사람들속에서는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끝없이 샘솟고있다.

이 전투적구호를 받아안음으로써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충성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70일전투속도》를 뛰여넘는 새로운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에로 힘있게 달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이 전투적구호가 힘있게 관철됨에 따라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는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일대 혁명적앙양과 대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비할바없이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전당, 전체 인민의 힘과 슬기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결심이 얼마나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중앙이 내놓은 이 혁명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온 나라에 생기발랄한 항일유격대식 사업과 생활 기풍이 더욱 높이 나래치게 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의 본질적 요구를 심장깊이 새기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신성한 임무이다.

우리의 모든 인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조선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 《70일전투속도》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더 높은 충성의 속도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을 참답게 구현하여야 한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생산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는것이다.

생산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한다는것은 바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그 높은 혁명정신과 혁명적사업기풍으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최대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12페지)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께서 주시는 혁명임무를 무조건 수행하는것만이 조국광복의 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였으니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비상히 높은 혁명적자각과 불타는 열정을 안고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싸웠다.

혁명투쟁의 길,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길에 나선 혁명전사들의 한생은 수령님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함으로써만 찬란히 빛날수 있다.

위대한 주체시대, 혁명의 시대에 태여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수령님의 신뢰를 덜어드리는것보다 더 큰 행복, 더 높은 영예는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집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싸우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정신, 그 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중요한 사업기풍의 하나였으며 그들의 확고한 의지이며 생활의 신조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아껴쓰면서 수령님께서 요구하시는것이라면 하늘이 무너지는한이 있더라도 무엇이든지 해내고야말았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풀어나가야 한다. 머리를 쓰지 않고 앉아서 뭉개며 자기 힘으로 난관을 맞받아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우만 쳐다보면서 이피탈저피탈 조건을 앞세우며 일을 질질 끄는것과 같은 주인답지 못한 태도는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이 아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자기힘으로 모든것을 해나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가적기풍을 본받음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

생산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진공적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통이 크게 모든 일을 벌려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일본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통이 크게 벌리고 대담하게 전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언제 어떤 정황속에서도 걸음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러한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일본새를 가지고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판을 크게 벌리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때까지 대담하게 내밀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오물쪼물 앞뒤를 재면서 수공업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패기와 정열에 넘쳐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번개와 같이 해제껴야 한다. 그리하여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비상히 빠른 속도로 끊임없는 새 승리를 향하여 용진용진 돌진해나가야 한다.

생산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는데서 생산을 직접 틀어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모든 지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을 철저히 체득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대중령도에 빛나게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준엄한 혁명투쟁의 폭풍속에서 태여나고 세련된 이 힘있는 사업방법은 우리의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한 과정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모든 지도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뛰여들어 근로자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면서 돌격의 최선두에서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는 례외없이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

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서서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모든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며 자신의 헌신적이며 과감한 투쟁으로 생산자대중을 끊임없는 혁신에로 힘차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의 혁명적학습기풍을 본받아 온 나라에 혁명적기풍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부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내놓고 유격대원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였으며 오늘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놓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0페지)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며 혁명을 하자면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한다. 꾸준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우지 않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고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갈수도 없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수령님께서 맡겨주시는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혁명대오에 보람있게 설수도 없고 더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도 빛내여나갈수 없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비록 생리적으로는 로쇠할수 있으나 사상적으로는 절대로 로쇠되지 말아야 한다. 바로 학습이야말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혁명의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위해 살며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은 주체의 위업에 충실하기 위하여 죽는 순간까지 부단히 학습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풍찬로숙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정신, 그 기풍으로 학습해야 한다. 눈보라와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혈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학습하는것이 더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였지만 항일유격대원들은 그것이 혁명을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필요한것이라는것을 자기들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잘알고있었기에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전투의 여가와 우등불가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로서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학습을 혁명사업의 첫 공정으로,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복잡하면 할수록 학습을 강화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과 투쟁방도를 찾아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학습하는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우리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이 학습하던 혁명적기풍이 온 나라에 더욱 차고 넘치게 함으로써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여야 한다.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한다는것,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심장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한순간을 살아도 수령님을 위하여 산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혁명가답게 꾸리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삼았다. 그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끝없이 흠모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싸운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불타고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기풍에서 중요한것은 혁명적조직생활에 충실한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긴 항일유격대원들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조직의 위임분공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김없이 실천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생활에서 두가지 규률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조직의 엄격한 규률과 혁명적질서에 복종하며 대중의 통제속에서 생활하는것을 혁명가의 고귀한 품성의 하나로 여기였다. 그리하여 매일 세수하고 얼굴의 때를 씻듯이 자신의 생활을 총화하였으며 전투총화, 행군총화, 학습총화 등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생활을 조직과 동지들 앞에 내놓고 숨김없이 비판하였으며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히 받아들여 결함을 대담하게 고쳐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렇듯 조직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살며 싸울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생활을 검박하고 알뜰하고 깐지게 꾸리는데서도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혁명적생활기풍은 혁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본받아야 할 생활의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조직생활을 절대화하며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부단히 자신을 단련하며 혁명화하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고 사로청원들은 사로청조직생활을 잘하고 직맹원들은 직맹조직생활을 잘하고 농근맹원들은 농근맹조직생활을 잘하고 녀맹원들은 녀맹조직생활을 잘하고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잘하여 모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충성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끊임없는 전투와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기백에 넘치고 문화적으로 생활한 항일유격대원들을 본받아 허례허식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온갖 낡은 생활양식을 버리고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생활을 검박하게 하며 우리의 일터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림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적기풍과 상조로 꽃피게 하여야 한다.

* *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세차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당면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점령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전투에서 새로운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 거창한 사업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육탄이 되여 아군의 진공로를 열어제낀 항일선렬들처럼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안고 무비의 용맹과 청춘의 기백으로 대건설 전투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10월의 대축전을 더욱 뜻깊게 맞이하여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올해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환경속에서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창건 서른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이 경사스러운 해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는데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들에 대하여 감회깊게 돌이켜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오르신 첫시기에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을 조선혁명승리의 관건적문제로 보시고 주체형의 당창건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억센 뿌리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을 승리적으로 조직전개하여오심으로써 오늘 이 땅우에 창조와 변혁,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찬란히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창건 서른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를 드리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1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대적요구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당창건에 대하여 누가 승인하고 안하는것이 문제로 될수 있는가.…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여야하며 조선의 공산당은 우리가 주인이 되여 조직하여야 한다.…국제당의 비준이 있고 없고 하는것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을 조직하여 조선혁명을 잘 령도해나가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며 이렇게 조직된 당이 혁명투쟁을 잘 수행한다면 자연히 국제당은 따라다니면서 승인할것이다.**

혁명적당창건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자기의 힘으로 당을 창건하며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에도 구애됨이 없이 오직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창건문제를 가장 혁명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기본 임무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의 담당자는 그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인민자체의 힘이다. 결코 다른 나라 사람이 혁명을 대신해줄수 없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는것도 무엇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것이지 다른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 나라 혁명이 처한 구체적인 조건과 력사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과 념원을 반영하여야 한다.

당을 창건하는것은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하는것이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하거나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어디까지나 자신의 힘으로 창건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창건되여야 한다.

만일 당창건에서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풍에 놀면서 남을 기계적으로 모방할 때에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을 창건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당을 창건하였을 경우에도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의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은 당을 창건함에 있어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떠한 후과를 가져오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시기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주의자들은 큰 나라와 큰 당만을 쳐다보면서 혁명운동은 하지 않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녔으며 자기들만이 정통파, 진짜 맑스주의자라고 떠들어댔다. 사대주의사상이 골수에 들어찬 종파분자들의 이러한 파벌싸움으로 말미암아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은 1928년에 자기 대렬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구경은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당시 공산주의운동에 끼친 이러한 엄중한 후과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창건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혁명적당을 창건함에 있어서도 혁명발전의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1920년대에 이르러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종래와 같이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소수 나라들에서만 벌어진것이 아니라 각이한 력사적조건과 환경을 가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었다. 특히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나라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힘있게 발전하여 독자적인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다. 또한 이 시기에 와서 모든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으며 능히 자기 나라 혁명을 독자적으로 지도해나갈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조건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주적립장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당을 창건할것을 요구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당창건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사상으로 하여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사상에 물젖어 자체의 힘으로 당을 창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세력에 의거하여 당을 창건해보려던 그릇된 경향이 결정적으로 극복되게 되였다. 또한 그때까지 당창건의 옳은 길을 찾지 못하여 암중모색하던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명

목히 알게 되였다.

이 사상으로 하여 세계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발전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대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로동계급의 당창건의 새로운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당창건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사상은 진실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할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을 밝혀준 과학적인 사상이며 당건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을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여야 한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35페지)

당창건에 앞서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갖추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발생발전에서 합법칙적요구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이란 로동계급의 전위대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이러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선행준비과정이 없이 빈터우에서 창건될수는 없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창건되자면 계급의 선위분자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며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보장하고 대중적지반을 닦기 위한 준비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여야 한다. 물론 그 공고성의 정도와 그 과정이 길고 짧은데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조직사상적준비과정이 없이는 당이 창건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또한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그 수행의 무기인것만큼 계급적원수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창건되며 그 과정에서 강화발전되여간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적핵심을 키우며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고 광범한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쟁취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이 없이는 제반 난관을 주동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없으며 창건된 당을 공고발전시킬수 없다.

결국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는것은 당창건과 그 공고발전을 규정짓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공고한 조직사상적준비없이 창건된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없고 혁명의 지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놀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당창건에 앞서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굳건히 다질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합법칙적과정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이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절실한 요구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현명한 방침이였다.

##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백전백승의 전투적당,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불멸의 주체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따르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는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조직적골간부대를 꾸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우수한 분자들을 혁명적핵심으로 광범히 육성하여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38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창건준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조직적골간이 튼튼하여야 당은 제때에 창건되고 급속히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결속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적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정치적자각이 높으며 능력이 있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는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참다운 공산주의자들로 꾸려져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 특히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리는것을 근본문제로 인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우선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로 유격대오를 부단히 확대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손에 무장을 들고 직접 일제와 맞서 싸운 항일무장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는 가장 혁명적이고도 빠른 길이었으며 더없이 훌륭한 학교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귀중한 밑천으로, 앞으로 창건될 당의 믿음직한 조직적골간으로 여기시고 그처럼 어렵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도 언제나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내와 국내 및 두만강, 압록강 연안일대의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혁명적대중단체내에 당조직을 내오시고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공산주의핵심들을 육성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조치는 당시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더 많이, 더 빨리 키울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주적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모든 단위, 모든 지역들에서 당세포, 당소조들을 내오도록 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특히 국내 중요산업지대들과 농어촌의 로동자, 농민들 속에 당 소조들과 세포들을 내오도록 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철저히 아래로부터 올리진행하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그리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의 계급적각성에 기초하여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일수 있게 하시였으며 대중적기초가 튼튼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조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불굴의 혁명투사로, 공산주의핵심으로 준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공산주의대오를 일색화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창건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가장 공고하고 완전하게 보장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은 혁명적당창건과 그의 공고발전을 규정짓

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원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결속된 산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당안에 어떠한 이색적인 사상조류나 분파의 존재를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다른 소부르죠아적기회주의당들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이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이룩될 때에만 완전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궁극에는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의 통일체인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준비에서부터 공산주의대오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는 우리의 공산주의대오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 하여 비로소 자기 대오를 오직 주체의 혈통만을 순결하게 지니고 그것으로 맥박치는 산유기체로 만들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특히는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적후과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혁명적구호밑에 가렬한 격전장에서도,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숙영지의 천막속에서도 쉬임없이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손수 집필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등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는것을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쌓는 중요한 일환으로 인정하시고 이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력한 전투적대오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당창건준비사업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또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당창건의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꾸리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과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을 광범히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의 참된 전위대,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적지반에 기초하여 창건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대중을 결속하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군중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도록 하심으로써 보다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조국광복회조직들에 광범한 반일대중을 결속시키심으로써 대중적지반을 확대하여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조직망을 국내깊이 확장하고 전국적규모에서 반일대중을 결속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조국광복회조직들이 지하투쟁의 조건에 맞는 신축성있는 사업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시였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제와 반동세력은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계급적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더욱 세차게 발전되여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을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당창건의 력사적뿌리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해방후 우리 당 창건의 굳건한 초석으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전반적발전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대업을 제때에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 태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오늘 주체의 혈통만을 순결하게 지니고 그것으로 맥박치는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진하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을 축적한 세련되고 로숙한 당으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선두에 서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전위부대로 되였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여 새형의 혁명적당, 주체형의 전투적당을 창건하시고 오늘의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심려와 로고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형의 전투적인 당,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 높뛰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점령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숭고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전당과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백전백승의 당의 기치따라 공산주의 새봄을 향하여 전진하여나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의 20년

## 한 덕 수

60만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속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스무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 경사의 날을 앞두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마음은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줄달음쳐온 지난 20년간의 자랑찬 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과 뜨거운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치고있다.

지난 스무해동안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운동에서 빛나는 성과와 업적을 쌓아올렸다.

안팎의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이 항상 뒤따르는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국과 민족앞에 자랑찬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크나큰 덕분이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와 보람찬 투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풍만한 열매가 주렁지도록 온갖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시였기때문이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조직인 총련을 무어주시고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모범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오직 한마음, 충성으로 보답할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김일성주의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새로운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 1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계실뿐아니라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해외교포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을 구현하시여 세계해외교포운동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무어주시였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1955년 5월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의한 총련의 결성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되여온 재일동포들의 애국사업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사변이였다.

재일동포들은 이때로부터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참다운 해외공민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온갖 예속과 민족적박해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투쟁의 길로 나가게 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 힘을 바쳐 나서게 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에 빛나게 구현된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의 사상과 리론은 해외교포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며 해외교포운동의 발전과 성과를 담보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가져야 한다. 혁명리론이 없는 실천은 자연발생성과 실패를 면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리론은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제기되며 해외교포운동리론도 바로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밝혀진다.

세기와 더불어 력사적과제로 남아있던 해외교포문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의하여 비로소 완벽하게 해명되였다.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첫시기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땅에서 갖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던 해외교포들의 비참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해외교포문제를 언제나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한 숭고한 위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투쟁하시였다.

해외교포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교포문제의 발생근원과 해외교포운동의 성격, 기본과업과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 전략목표와 그의 수행방도 등 해외교포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외교포문제를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로 보시고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다른 나라 땅에서 진행되는 운동이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다. 해외교포들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살고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이다. 따라서 해외교포운동이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여야만 자기 조국과 민족 앞에 응당한 공헌을 할수 있으며 승리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

이것은 해외교포운동이 애국애족운동으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나라 혁명에 이바지할수도 없고 해외교포들의 응당한 민족적권리마저 지킬수 없을뿐아니라 지어는 원쑤들에게 롱락될수도 있다는 세계해외교포운동의 경험과 교훈이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의 성격과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해외교포운동의 기본사명으로부터 해외교포운동의 네가지 기본과업을 명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앞에는 첫째로 전체 재일동포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 옹호하도록 하며, 둘째로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셋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넷째로 일본의 민주세력과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31폐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조국통일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실현하는 투쟁에 복무하기 위한 해외교포운동의 4대기본과업에 대한 고전적정식화이다.

해외교포들의 운명이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여있고 해외교포운동이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애국운동인만큼 제

일조선인운동은 마땅히 혁명의 근거지이며 조선인민의 참다운 조국인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또한 해외교포들이 자기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고수하여야만 민족적박해와 탄압으로부터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족의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자기의 민족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지지성원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숭고한 민족적의무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이 발전하여야 미제와 군사파쑈통치제도에 직접 타격을 줄수 있으며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과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국내인민들뿐아니라 해외에 사는 모든 겨레들이 민족분렬로 인하여 겪고있는 고통과 불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또한 해외교포운동에서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삼을 때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자체의 사업도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특히 자기 나라 혁명의 지도사상을 해외교포운동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해외교포운동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지도사상문제는 해외교포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해외교포운동은 언제나 자기 나라 혁명과 떨수 없는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진행되며 발전한다.

해외교포운동이 자기 나라 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참다운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나라 혁명의 지도사상을 자기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이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그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지도사상문제와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문제 등 해외교포운동에서 나서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해외교포조직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탁월한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해외교포조직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해외교포운동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고리는 총련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입니다.》

총련을 위대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는것은 총련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적목표이며 총련의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총련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전통을 계승하였고 총련의 결성도 수령님의 령도에 의하여 실현되였으며 총련이 다름아닌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일군들과 동포들로 뭉친 조직이기때문이다.

총련을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여야만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수 있으며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해외교포조직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해외교포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참다운 해외공민으로 만들며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해외교포사업을 발전시키며 해외교포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을 말한다.

총련을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반영한 필수적요구이며 총련결성과 함께 시작된 총련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해외교포조직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자면 그를 실현하기 위한 옳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전략전술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유일하게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의 참된 지도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김일성주의를 가진것은 총련을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총련을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총련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승리에 기초한것이며 총련의 자체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총련은 자기 대오를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할데 대한 투쟁강령을 가지게 됨으로써 총련을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히 충직한 주체형의 해외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을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일동포들을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공민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자기 조직을 생기발랄한 혁명조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주체의 로선과 방침에 의거하여 모든 애국운동을 벌릴데 대한 문제 등 그 내용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시하신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지도적지침이며 투쟁의 기치이다.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공적은 인류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며 그 업적은 천만년 전해질것이다.

##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독창적인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외교포운동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강력한 혁명조직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인 해외교포조직은 동포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강력한 력량을 꾸리며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매 시기마다 수령의 교시를 구현한 옳은 방침과 방도를 세우고 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해외교포들이 자기의 조직을 가지는것은 특히 해외교포들이 놓여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해외교포운동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운동으로서 많은 경우 내외원쑤들의 파괴탄압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된다. 한편 해외교포들은 수적으로 보아도 많지 못하다.

이런 조건에서 해외교포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며 그 투쟁을 옳게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에 기초한 해외교포운동 사상과 방침을 해외교포운동에 구현할수 있는 힘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유일적령도를 받는 공화국의 힘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같은 조직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재일동포들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도처에서 계속 원쑤를 치며 일제를 전률시키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무쌍한 투쟁에서 일제멸망의 불가피성을 확신하였고 무한한 용기와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였다.

재일동포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파쑈폭압이 절정에 이른 어려운 환경에서도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고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으며 민족적절개를 지키고 꿋꿋이 살아왔다.

그러나 적들의 감시와 탄압이 심한데다가 재일조선인운동을 지도할만한 통일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한채 분산적으로 투쟁한 조건에서 그 활동에서는 많은 제한성이 있었다.

해방후 재일동포들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과 북반부의 민주건설성과에 고무되면서 해방된 민족의 드높은 긍지를 안고 재일동포들의 첫 통일전선체인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을 결성하고 애국운동에 떨쳐나섰다.

재일동포들은 조련상층의 일부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을 그릇되게 끌고나가려고 책동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애국의 길을 따라 힘있게 투쟁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민족의 력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참다운 인민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영예도 드높이 자기의 애국활동을 더욱 적극 벌리게 되였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의 애국투쟁은 미제를 비롯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끊임없는 탄압과 박해 등으로 하여 2중3중의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준비하던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재일동포들의 애국력량앞에 불안을 느끼고 일본반동지배층을 사촉하여 재일동포들의 애국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면서 1949년 9월 조련을 강제해산시키는 파쑈적만행을 저질렀다.

내외반동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결성된지 4년만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존재를 끝마치기는 하였으나 조련의 활동은 앞으로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교훈을 남기였다.

조련이 해산된 뒤에도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계속되였다. 재일동포들은 특히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 우리 인민군대와 조국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새로운 조직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1951년 1월에 재일조선민주통일전선(민전)을 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물젖은 자들이 이 시기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민전을 그릇되게 끌고나감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큰 시련을 겪게 되였다.

당시로 말하면 미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야수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고있던 시기로서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앞에는 수령님의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조국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을 옹호하며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민족주의적편향》이라고 들고나오면서 덮어놓고 남의 나라 사람을 따라갔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남의 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길로, 극좌모험주의길로 끌고갔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미제의 사촉을 받은 일본반동지배층의 탄압과 박해도 극도에 달하게 되였다.

때문에 재일동포들은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자기들의 열성을 조국을 위하여 잘 바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일본인민들속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내게 되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자기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주동적으로 이겨내고 애국사업을 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이 겪고있는 엄혹한 실정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매우 가슴아파하시며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로선전환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해외교포운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이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조선혁명에 적극 이바지하는 참다운 민족애국운동으로 되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로선전환방침은 재일동포들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발전의 길로 이끄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로선전환방침은 재일조선인운동을 파괴탄압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던 내외반동들과 민족허무주의자, 사대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60만 재일동포들에게 새 승리의 밝은 빛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양보할수 없는 권익을 대표하는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원칙적인 통일단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로부터 재일동포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믿음직한 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명확한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소유하게 되였습니다.》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 총련이 무어짐으로써 풍랑 사나운 파도우에서 방향타를 잃은 쪽배와 같은 신세에 처하였던 재일조선인운동은 이때로부터 영광스러운 주체의 기치따라 전진하며 승리하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고 자기 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지난 20년간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걸어온 로정은 백전백승의 기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여온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였으며 내외반동들,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와 변절자들의 악랄한 파괴책동과 온갖 애로와 난관을 헤치며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기개를 세상에 떨치온 자랑찬 나날이였다.

총련결성후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크나큰 자각을 안고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의 애국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로선과 그를 구현한 8대강령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결성초기에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간부일군대렬과 조직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사업체계를 튼튼히 꾸렸으며 광범한 동포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모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경제를 일떠세우던 그 어려운 시기인 1957년에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첫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1959년에 오매에도 그립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고 이국땅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던 재일동포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따뜻이 안기여 보람찬 새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였다.

이러한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환경에서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한없이 높아지고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재일조선인운동에서는 일찌기 없었던 큰 앙양이 일어났다.

이 시기 총련은 수령님의 천재적로작과 공화국정부의 정책, 조선로동당투쟁사 학습을 강화하여 일군들속에 주체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한편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여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세우며 총련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크게 전환시켜나갔다.

이와 함께 4.19인민봉기후 더욱 줄기차게 벌어진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운동을 지지성원하는 투쟁에로 재일동포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총련애국사업을 더욱 힘차게 벌리고 모범창조운동과 조국왕래요청운동을 통하여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다.

1965년에 총련결성 열돐을 큰 사업성과로 맞이하고 총련활동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루어진 이 시기에 내외반동들은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조작하고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로골화하면서 총련에 대한 탄압과 민족분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다.

총련은 매 시기 악랄하게 감행해나선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 그리고 총련결성후 주요한 고비마다 머리를 쳐들어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대렬의 단결을 허물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지도권을 장악하려고 책동해나선 종파분자들에게 제때에 타격을 줌으로써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애국사업에서 계속 전진을 이룩하였다.

특히 총련 제8차전체대회로부터 제9차전체대회에 이르는 기간은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어렵고 복잡한 환경이 조성된 시련의 시기였다.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제가 《푸에블로》호사건과 《이씨—121》간첩비행기사건을 일으킨것도 이 시기이며 미제에 추종하여 일본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결탁하여 공화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을 끊어놓고 수치스러운 《영주권신청》 및 괴뢰《한국국적》강요책동을 집중적으로 벌린것도 이 시기이며 범죄적인 《출입국법》과 《외국인학교법》을 상정하고 총련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려고 미쳐날뛴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러나 내외반동들의 그 어떤 반동적공세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조선로동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억센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총련은 제8차전체대회에서 력사발전에서 정치적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를 사상리론적으로 더욱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불러일으켰다.

총련은 특히 일군들과 동포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앞두고 벌린 《100일간혁신운동》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벌린 《120일간혁신운동》에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조직안에 주체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총련사업에서 새로운 앙양과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된 영예를 더욱 빛내이였다.

총련 제9차전체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우리나라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빛나는 사변들이 일어났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총련의 애국사업에서도 빛나는 성과와 전진이 이룩된 보람찬 승리의 시기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매 시기마다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한 대책을 세워 힘찬 투쟁을 벌렸다.

특히 우리는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력사적사변이였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150일간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림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절대적인 신뢰, 불같은 충성심으로 끓어넘치게 하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 경축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계속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100일간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총련조직을 내부로부터 파괴와해하려는 내외반동들의 책동과 총련대렬안에 남아있던 일부 일군들의 부정적경향을 크게 극복하고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총련은 지난기간 쌓아올린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조선혁명의 요구에 맞게 지난해에 열린 총련 제10차전체대회에서 불패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기 대오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명확히 내세웠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폭과 심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내외반동들은 제10차전체대회이후 새로운 힘찬 전진의 길에 들어선 총련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지난해에 《박정희저격사건》이란 모략극을 꾸며내고 총련을 파괴탄압하기 위한 일대 소동을 벌리였다.

그러나 총련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동포대중의 단합된 힘으로 자기의 조직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총련을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 다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이 되는 동시에 총련결성 20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을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감사의 정을 안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총련결성 스무돐기념 충성의 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총련대오안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맥박치며 총련조직은 광범한 각계각층 동포들을 망라한 주체의 해외공민단체로 튼튼히 다져지고 조국통일을 비롯한 제반애국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이처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조국의 완전독립과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고 새로운 승리와 전진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시여 재일동포들에게 꺼질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 시기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악랄하게 감행되는 내외원쑤들의 탄압박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게 온갖 국가적조치와 배려를 다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수많은 대표단들과 각계층 재일동포들을 오매에도 그리운 사회주의조국에 련이어 불러주시고 그때마다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최대의 행복,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조국의 여러 대표단들과 귀국선, 무역선으로 《만경봉》호를 거듭 보내주시여 재일동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이국땅에서 나서 자라는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오늘까지 59차례에 걸쳐 무려 194억 1천 999만 533원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높은 국가수훈,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갖가지 영예의 칭호와 학직 등을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애국적 상공인들에게 베풀어주시고 총련의 각계대표들에게 공화국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크나한 영예까지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으며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의 어느 한구석에도 미치지 않는곳이란 없다.

참으로 한없이 위대하시고 인자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대를 두고 전하여도 다 전하지 못할것이다.

##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리론과 방침,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는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빛나는 결실을 맺고있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총련을 위대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총련안에 수령님의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며 총련사업에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자기의 모든 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배양하는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가며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풍모이다.

수령님께 끝없는 충성을 다하는 여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고 그 승리를 이룩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총련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잡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열정을 심장깊이 간직하도록 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모든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웠다.

오늘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마음속으로 높이 모시고 일하며 사는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에 넘치고있으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사업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고있다.

이것은 총련이 주체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성과이다.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불멸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의 본질과 내용, 그 위대성,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고있다.

총련조직이 있는 모든곳에서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이 정중히 꾸려지고 토요집체학습, 수요간부강연회, 간부를 위한 10일간강습, 1,000여개의 강연구 등의 정연한 교양체계가 서가고있으며 일군들속에서는 2시간이상 자학습, 《충성의 독서운동》, 수령님의 교시통달운동, 문답식학습 등이 널리 벌어

지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수정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해로운 번때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자신을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참된 김일성주의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여 재일동포들을 힘있는 애국력량으로 묶어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총련조직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실현하며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다.

총련은 수령님께서 총련조직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각급 조직안에 주체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였다.

오늘 재일동포들이 사는 일본의 방방곡곡에는 49개의 지방본부와 300여개의 지부, 2,000여개에 달하는 분회조직들, 조청, 녀맹, 상공회를 비롯하여 교육자, 과학자, 작가예술인, 경제인, 언론인, 류학생, 체육인 등 각 계층별로 망라된 13개의 산하단체들이 중앙과 각 지방, 지역들에 꾸려지고 활발히 움직이고있다.

또한 조선신보사를 비롯하여 5개 나라말로 된 38종의 신문, 잡지, 통신, 화보와 교육도서를 발행보급하는 출판보도기관과 과학연구, 경제무역 등의 14개 사업체들이 운영되고있으며 맡겨진 애국사업을 믿음직하게 수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총련은 공화국의 존엄있고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로서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사랑과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으며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기치를 들고 나가는 그 위력을 내외에 당당히 과시하고있다.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간부문제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간부는 우리 애국사업의 지휘성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에 기초한 총련결정은 결국 간부들을 통하여 조직집행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총련은 간부사업부문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간부사업에 큰 힘을 돌림으로써 수령님께 충직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놓았다.

총련은 현직간부들을 일상적으로 교양단련하는 한편 중앙학원을 비롯한 3개의 총련지방학원과 3개의 경제학원, 조신협학원 등 간부양성체계를 튼튼히 꾸려놓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정치실무수준이 높은 유능한 간부들과 후비일군들을 자체의 힘으로 육성하고있다.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총련대렬의 통일단결은 총련조직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총련조직공고화의 기본담보이다.

더우기 총련을 헐뜯고 총련내부를 분렬와해하기 위한 내외원쑤들과 그와 결탁한 인부 변절다라분자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조건에서 대렬의 통일단결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총련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과 조직규률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보다 공고한 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총련조직을 공고히 하는데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이며 총련앞에 나선 방대한 애국과업을 수행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총련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총련사업을 철두철미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만 우리 애국사업의 주인인 총련일군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총련조직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총련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이 구현된 결과 오늘 총련안에

는 간부들과의 사업, 열성동포들과의 사업,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체계가 서게 되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적극 관철되고있다.

총련일군들은 관료주의와 행정식사업방법을 반대하고 모든 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방법으로 진행하고있으며 아래에 내려가 동포들을 교양하고 애국과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특히 총련은 일본에서 나서 자란 2세, 3세의 젊은 동포들과 《영주권신청》을 강요당한 동포 등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폭넓게 벌리고있다. 한편 재일동포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이 애국적이며 진보적상공인으로서의 영예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총련애국사업을 위하여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조직생활, 애국과업실천을 통하여 그들을 꾸준히 단련함으로써 그들이 오직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공민답게 조국통일과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굿굿이 싸워나가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체육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동포들을 교양하고 애국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총련의 문예체육사업에서도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밑에 특히 지난해에 세계해외교포력사에서 처음으로 무어진 금강산가극단에 의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공연은 주체적문예사상과 그를 구현한 독창적인 《피바다》식가극예술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일본주재 외교관들을 포함한 수많은 내외관람자들속에 폭풍같은 반향과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밖에도 인민상계관작품인 《조국의 해빛아래》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상연한 대음악무용서사시, 집단체조 《수령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 등은 총련의 문예체육성과를 자랑차게 과시하였다.

오늘 재일동포들속에서는 해외에서 명성을 떨치고있는 금강산가극단과 영화제작소, 12개의 지방가무단, 수많은 각종 예술소조들 그리고 재일조선축구단을 비롯한 100여개의 각종 선수단과 1,000여개의 체육소조들이 왕성히 활동하고있다. 여기에는 22,000여명의 일군들과 동포들, 청소년들이 망라되고 예술공연관람과 조국영화상영사업, 체육경기 등에 해마다 수많은 각 계층 동포들이 동원되고있다.

오늘 총련의 모범창조운동은 분회와 지부를 비롯한 산하 단체와 사업체를 포괄한 대집단적애국운동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미 17개의 지부와 3,700여개의 단위들에 영예의 모범기발이 휘날리고 총련의 제반 애국사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총련은 악랄하게 감행되는 내외원쑤들과 그 앞잡이들의 총련에 대한 파괴와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심으로써 자기 조직을 굳건히 보위하고있다.

총련은 자기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각급 조직을 공고발전시켰을뿐아니라 주체의 로선과 방침에 의거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총련의 모든 애국과업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적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옹호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끝없는 긍지와 민족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사회주의조국

을 열렬히 옹호하고있다.

조선인민의 유일한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고 옹호하는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주의조국이 없으면 재일동포들이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떳떳이 살수도 없고 오늘과 같은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도 누릴수 없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고맙고 귀중한 조국,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가 철폐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옹호하도록 일군들과 동포들을 사회주의애국주의로 교양하고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재일동포들속에서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경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일을 비롯한 민족적명절을 축하하는 사업,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해설선전사업, 조국대표단환영환송사업,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의 귀환보고모임, 우리 출판물들에 의한 교양사업, 조국영화상영사업 그리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투쟁 등이 널리 조직진행되고있다.

재일조선청소년들속에서 사회주의조국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육성되고있으며 조국의 륭성발전에 과학기술경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우리 과학자, 동포상공인들의 사업도 적극 벌이지고있다.

총련은 광범한 동포들속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조국의 눈부신 발전모습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공화국을 헐뜯으려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신을 굳건히 지키며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투쟁은 내외원쑤들의 동화정책과 온갖 민족적 박해와 차별을 강요당하고있는 재일동포들 모두의 사활적인 요구와 념원을 실현하며 민족적 존엄과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는 성스러운 애국사업이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것은 자기의 민족적위업에 복무하는 총련의 활동에 주체사상을 더욱 심오히 구현하며 총련을 확대강화하여 애국사업을 대중적지반우에서 성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조선사람 되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조선사람이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며 모든 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떳떳이 나아가도록 하는것이다.

조선사람을 되찾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과 해외교포교육에 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애국위업의 계승자를 육성하는 민주주의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이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총련은 유치원과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꾸려놓고 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를 비롯하여 아담하고 웅장하게 일떠선 161개의 정규학교와 수많은 오후야간학교들에서 동포자녀들을 수령님께 충실한 참된 조선의 아들딸로, 나라의 어엿한 역군으로 키우고있다.

우리 학생들은 부패타락한 반동사상의 문화공세가 휩쓰는 자본주의사회인 이국땅에 살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열심히 따라배우며 주체조선의 청소년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면서 지덕체를 갖춘 우리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되고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학부형들, 애국적상공인들은 내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책동을 물리치고 159개 학교의 설치인가와 28개 현교육회의 법인인가를 획득하고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을 힘차게 벌려 교육적환경을 잘 갖추며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해외교포교육사상의 빛나는 결실로서 세계해외교포운동과 해외교포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선사람을 되찾을데 대한 방침이 적극 관철되고있다.

총련은 수많은 동포들을 찾아내고 곳곳에 꾸려놓은 성인학교, 청년학교 등의 성인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쳐주고 주체사상과 민족의 얼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동포들과 청년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민족자주의식을 안고 긍지높이 살며 싸워나아가도록 하고있다.

해외공민들이 민족적권리와 외국인으로서 응당 향유하여야 할 대우를 보장받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권리이며 국제법의 요구이다.

총련은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끊임없이 감행되는 내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로부터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총련의 합법적지위를 확고히 고수하고있다.

총련은 내외반동들이 악랄하게 감행해나선 《영주권신청》과 괴뢰《한국국적》강요놀음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공화국공민권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일본당국이 내놓은 파쑈적악법인 《출입국법안》을 4번, 《외국인학교법안》을 7번에 걸쳐 그때마다 저지파탄시킴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재일동포들의 자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튼튼히 수호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밑에 총련은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사업을 16년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173차례에 9만 2,000여명의 재일동포들을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행복한 새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60돐재일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하여 68개의 각종 대표단과 감사단, 조국방문단 1,092명이 조국에 갔다올수 있게 하고 우리 재일조선대표단이 17번에 걸쳐 제3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총련은 또한 재일동포들의 생활권과 인권,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을 적극 옹호하고 조은신용조합을 크게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총련결성당시 8개였던 조합수를 35개로, 점포수는 15개로부터 130개로, 조합원수는 15.4배로, 예금액은 293배에 달하는 2천 566억 3,200만원으로 늘였다.

오늘 조은신용조합은 재일동포들과 상공인들의 자주적인 민족저축융자기관으로 큰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의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30년동안의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을뿐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도 참을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에게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의 남북반부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그 실현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은 자기가 벌리고있는 모든 활동을 언제나 조국의 륭성, 민족의 번영과 밀접히 결부시켜 일본에서의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민족지상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자기의 힘을 최대한으로 합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뿐아니라 모든 해외동포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합칠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과 책임을 같이 하는 립장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였다.

총련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을 광범한 각계각층 동포들속에 깊이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켰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으로 벌리고 있다.

재일동포들속에서는 통일구국의 기치밑에 사상, 정견, 신앙과 단체소속의 차이를 불문하고 민족적단합이 강화되고있으며 일본각지에서 《민단》산하동포들과의 크고작은 공동모임과 다양한 교류, 접촉들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오늘 《민단》산하동포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두터워지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특히 총련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고 단일한 국호로 유엔에 가입할것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에 25만명에 달하는 각계층 동포들을 참가시킴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려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의사를 온 세상에 뚜렷이 표시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사업을 대중화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애국운동월간》사업 등을 널리 조직하며 군중집회와 시위, 가두선전을 전동포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렬책동과 파쑈적폭압을 철저히 폭로규탄하고있다.

또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의거하여 남조선에서 오가는 동포들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며 그들과 대화를 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히신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대외방침에 따라 총련은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계를 적극 강화하고있다.

총련은 《김일성저작선집》,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비롯하여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번영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을 알리는 정기간행물들과 단행본들을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아랍어 등 여러 나라 말로 출판하여 5대륙 14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보급하고있다.

오늘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혁명활동연구회》가 일본각지에 수많이 무어지고있다.

지난해에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자들이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를 가지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언하는 등 일본의 각계 인사들속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정이 더욱 높아지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조류로 되고 있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기자회견, 대외강연회, 가두선전, 출판물 등을 통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적극 해설선전하고있다. 한편 미일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조국의 분렬영구화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국제적지지를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일본국회의원들에 의한 초당파적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일조국교정상화국

민회의, 일조협회를 비롯하여 조일우호단체들이 일본의 방방곡곡에 수많이 무어지고있다. 광범한 일본인민들은 조선인민과의 친선교류와 일본정부의 부당한 대조선정책전환을 요구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총련의 애국활동을 힘있게 지지성원하고있다.

총련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총련의 산하단체들은 세계민주청년련맹과 국제민주녀성련맹을 비롯한 6개의 국제단체들에 가맹하여 국제무대에서 위대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해외교포운동의 성과를 광범히 소개선전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주의 기치따라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승승장구하여온 총련은 지난 2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세계의 해외교포운동력사에 류례없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의 해방운동과 조국통일운동력사에 길이 빛날 이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력사적확증으로 된다.

⁂ ⁂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위대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장식하는 총련결성 스무돐을 맞는 60만 재일동포들은 지난 20년의 년륜마다에 새겨진 성과와 업적 우에 보다 큰 승리의 탑을 쌓아올릴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총련과 재일동포들 앞에는 조국인민들의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 발맞추어 자기의 모든 애국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고 하신 뜨거운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로 계속 기운차게 내달려 10월 10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눈부신 사회주의대건설성과에 고무된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원쑤들의 가혹한 파쑈폭압에도 굴함없이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매려부시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새해교시와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발맞추어 《충성의 혁신운동》에서 발휘한 그 열정, 그 기백으로 계속 전진함으로써 총련의 모든 애국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끌어올릴것이다.

우리는 총련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 총련조직안에 김일성주의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자기 조직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와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총련은 주체형의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총련애국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과 빛나는 성과로 맞이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멸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

강 윤 수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려는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찾아오고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뜨거운 심정으로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충성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의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고 투쟁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리고 고매한 덕성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체득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위대한 혁명의 학교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수천수만리 대륙과 대양을 건너 혁명의 성지—만경대와 보천보 그리고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솟은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모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찾고있으며 거기에서 투쟁의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 유일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적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사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40여년동안 공산주의운동을 위하여 싸웠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여러번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올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이 땅우에 영생불멸의 혁명사적을 남기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사적에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한없이 거창한 혁명활동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의 대화폭이 금빛찬란히 그려져있으며 수령님께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모든 재부가 그대로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놓으신 빛나는 혁명사적은 수령님께서 인류력사상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신 불멸의 력사의 사적이며 가장 강대하고 포악한 제국주의세력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책동과 필사적인 반항을 쳐물리치신 가렬처절한 혁명의 여러 단계를 주름잡으시며 세기적인 변혁과 비약을 일으키신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사적이며 온갖 풍파를 헤치시고 언제나 승리적인 전진만을 마련하신 승리와 영광의 사적이며 수난에 찬 암흑의 력사를 자랑찬 광명의 력사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령도의 영광스러운 사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과 빛나는 투쟁업적,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

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는 무엇보다먼저 천재적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인류의 진보적사상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공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새 사회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에서 남기신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투쟁의 거룩한 자욱은 불멸의 혁명사적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혁명사적에는 또한 수령님께서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들이 담겨져있으며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모든 난국을 타개하시고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빛나는 업적들이 담겨져있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모든것이 파괴되고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공격과 방해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와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는 심각한 혁명적변혁을 이룩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에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고 온 사회를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꾸리시는 력사적인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그리하여 한때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세계만방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존엄있는 나라로 그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혁명사적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어떠한 폭풍과 격랑에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확고한 원칙성,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뚫고나가는 완강한 혁명적전개력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이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적에는 또한 우리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과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수놓아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시는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궂은날, 험한 길도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크고 작은 공장과 농촌, 이름없는 포구와 산중의 림산마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들이 살고 일하는 모든곳을 찾아걸으신 수백만리의 영광찬란한 로정에는 인민에 대한 그이의 태양보다 뜨거운 사랑과 한없이 고매한 덕성이 수놓아져있으며 이 위대하고도 거룩하신 자욱마다에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들이 길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꽃피여난 빛나는 창조와 변혁의 력사를 길이 전하여주는 위대한 사적의 나라로 되고 있으며 온 나라가 그대로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의 뜻이 깃들어있는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이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매우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빛나는 혁명력사를 생동한 현실에서 직접 보고 느끼게 되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공산주의적덕성을 종합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하여 그들속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는 투쟁정신을 기르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0~181페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은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을 일편단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학교이다.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빛나는 반세기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시키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의 답사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의 참관을 통하여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더욱 생동하게 연구체득하게 되며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며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끝없이 감동되게 된다.

보천보와 대홍단, 왕재산을 비롯한 량강도와 함경남북도의 혁명전적지를 찾는 근로자들은 우리 조국에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을 때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조국에 진군하시여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그날의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또한 강선제강소와 청산리를 비롯한 전국도처에 있는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지를 찾는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적인 전변을 가져오게 된데 대하여 력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통하여 생동하게 느끼게 된다.

이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사적지의 답사를 통하여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수령님의 은덕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며 오직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일편단심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의 발자취가 스며있고 걸음마다 혁명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은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은 또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끗끗이 계승해나가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7페지)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은 결코 한두세대에 끝나지 않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의하여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런데 새세대들은 착취와 압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지 못하였다.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자면 그들에게 조국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어떻게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는가를 생동한 물질적자료들을 가지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가장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과 난관을 용감히 뚫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수 있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조선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에 대하여 더욱 똑똑히 알게 되며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새세대들은 혁명의 과거를 잊지 않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게 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다.

이렇듯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거룩한 혁명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은 생동한 력사적자료들과 현실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이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은 또한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혁명의 길을 가리켜주는 훌륭한 교과서이다.

오늘 세계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매일같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있으며 혁명전적지와 혁명박물관을 경건한 마음으로 찾고있다.

혁명전적지를 찾아오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벗들은 거기에 보존되여있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인류력사에 영광찬란한 주체의 새시대가 열리게 된 사실을 더욱 생동하게 배우고있다. 그들은 또한 혁명사적지를 통하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덕성에 깊이 감동하고있다.

그러기에 혁명전적지와 혁명박물관을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은 그것을 인류의 자랑으로, 혁명하는 모든 나라의 공동의 재부로 여기며 거기에서 혁명가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더욱 똑똑히 배우게 되였다고 말하고있다. 아프리카의 한 혁명가는 혁명전적지를 답사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그것도 한두해도 아니고 15성상이라는 장구한 기간을 풍찬로숙하시면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데 비하면 우리는 참말로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주체의 전법대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고 힘주어말하였다.

이처럼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전

사로 키우는 위대한 혁명의 학교이며 세계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을 혁명에로 고무추동하고 투쟁의 길을 가리켜주는 훌륭한 교과서이다.

##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오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모든 초소에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벅찬 현실은 우리들앞에 혁명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사적사업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사적을 영원히 빛내이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혁명사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도록 교양하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혁명사적사업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수령님의 혁명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광범히 수집정리하고 그를 귀중히 보존관리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을 더잘 꾸리고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과학리론적으로 더 깊이있게 체계화하여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을 꾸림에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3위1체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당, 인민대중과의 호상련관속에서 그 진렬체계와 내용을 부단히 보충완성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원상그대로 꾸리는 문제, 주체적인 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문제, 교육교양적가치를 부각시킬데 대한 문제, 혁명사적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 등 혁명사적지 및 혁명박물관 건설에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들과 혁명사적관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업적,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체득할수 있게 정중히 꾸리며 그 내용의 정치사상적수준과 높은 과학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도처에 정중히 꾸려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은 오직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위훈탑으로,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수령님을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상징하는 충성의 탑으로 영원히 솟아있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항일유격대식교양방법을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경험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통한 대중교양이 심화되면 될수록 생산과 건설뿐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단위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사적일군들과 강사들은 혁명사적지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업적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

키는 우리 당사상전선의 믿음직한 초병들이다.

강사들은 자신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각이한 계층군중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교양방법을 부단히 세련시킴으로써 혁명사적교양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강사들의 강의와 혁명사적지에 구비되여있는 모든 교양수단을 통하여 진행되는 혁명사적지 답사와 참관을 혁명전통교양의 가장 위력한 방법으로 되게 하여야 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산며 일하며 투쟁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교양의 위력한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강사들은 혁명사적지와 혁명박물관을 찾아오는 근로자들뿐아니라 보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널리 해설선전하기 위하여 생산현장에 나가서 항일유격대식으로 이동강의를 널리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을 따라배우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군중교양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답사와 참관과 함께 우등불모임, 연구발표회, 귀환보고회, 전람회, 학술토론회 등 대중교양을 적극 벌리며 신문과 잡지, 소책자와 화첩을 비롯한 출판물을 통하여 내외에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방선의 초병들과 학생들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더 많이 찾아오고있다.

모든 혁명사적일군들과 강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과 혁명의 거룩한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을 내외에 해설선전하는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높은 영예와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보다더 생동하고 더욱 실감있게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여나가야 한다.

#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이다

정 락 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격동된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지금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와 공업열성자회의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인민의 거창한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다그치고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화의 학교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사상전을 통하여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의 정수분자로 철저히 준비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는 보람찬 길을 밝혀준것으로서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고 우리의 혁명대렬을 튼튼히 꾸려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식조직생활기풍을 따라배워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높이고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 *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투쟁은 생활이며 생활이자 곧 투쟁이다.

혁명투쟁은 사람들에게 보람찬 삶을 주고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준다.

특히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혁명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 나갈수 있다.

그런데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가져야 하며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성장하며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는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은 곧 조직생활이며 정치생활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을 하여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38폐지)

혁명적조직생활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튼튼히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정치생활이며 정치활동이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생활이란 혁명의 사상적량식을 섭취하고 수령의 정치적신임으로 되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혁명투쟁과정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령의 정치적신임을 지니고 수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것보다 더큰 영예, 더큰 행복은 없다.

수령이 맡겨준 혁명임무는 조직생활을 통해서 수행되며 이 과정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확

고한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강의한 혁명가로 자라나며 영생하는 삶의 보람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어떤 혁명조직에서 정치생활, 사회생활을 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지닌 정치적생명의 가치를 규정짓는 중요한 내용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과 우리 나라 근로단체조직들은 다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치인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인 조직들이다.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에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혁명적인 조직들을 몸소 내오시고 그것을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 일정한 조직에 들어가 정치생활, 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여러가지 혁명조직들에 망라시키시여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가진 주체형의 피가 순결하게 고동치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심으로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동지적단결을 빛나게 이룩하시였으며 온 사회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적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하나의 위대한 정치적생명체로 전환시키시였다.

참으로 혁명적조직생활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영생하는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게 하는 정치적생명이다.

조직생활이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조직생활과정에서 혁명의 유일한 사상정신적량식인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이게 된다는데 있다.

우리의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모두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투적무기로서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혁명조직들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체득하고 주체의 자양분으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활짝 꽃피워나가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벌려나간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명이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키우는 유일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없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꽃피워나갈수 있다.

어린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것처럼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섭취하여 유일한 자양분으로 삼을 때에만 온 몸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쳐 흐르게 할수 있으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키우는 유일한 량식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되게 되며 그들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되게 되는것이다.

조직생활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강의한 혁명가로 끊임없이 단련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선 자기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을 지니게 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가장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진 혁명가로 단련되게 된다.

우리의 당조직을 비롯한 모든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들로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싸워나가는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정신적특질이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끝없이 빛내워갈수 있게 하는 원천이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일하며 사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한생을 빛내여나가며 영원한 행복을 이룩하여나가는 길이 있다.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것을 생활의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고결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조직생활은 이와 함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인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로서 사회정치활동을 인상적으로 잘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과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하는 근본요구이다.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보람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과 함께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잡탕사상을 뿌리뽑기 위한 끊임없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더욱 굳어지며 높이 발양된다.

혁명조직은 바로 사상전,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몸에서 불결한 때를 일상적으로 씻어내여 온갖 병균들이 번붙이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켜준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떠나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소유할수 없으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없다.

쇠를 공기속에 그냥 내버려두면 산소의 작용을 받아 녹이 쓰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당적통제에서 벗어나고 조직생활에서 리탈하면 안일해지고 교만해질수 있으며 나중에는 나쁜 사상의 영향을 받아 머리에 녹이 쓸어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고 사회정치적생명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 사상생활을 강화하여야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나가는 혁명적립장을 튼튼히 키워

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수령님과 당을 위해 충성을 다해나갈수 있다.

조직생활은 특히 혁명적실천을 통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몇권의 책이나 읽는것으로 확립되는것이 아니다.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없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실천을 통하여 세워지고 공고화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실천, 혁명활동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견결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운다.

우리의 혁명조직들은 모든 성원들에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을 준다. 다시말하여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는 혁명과업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과업들이다.

따라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과업수행과정은 곧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이 준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버이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게 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배양하게 된다. 또한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에 자기도 한몫 담당하고 몸바쳐투쟁하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된다.

실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더욱 빛내일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이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힘있는 무기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 혁명적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려면 조직이 산 조직으로 되여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제때에 회의도 하며 조직성원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 실행정형을 총화하며 잘못된것은 고쳐주고 잘한것은 잘하였다고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혁명과업을 주어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고 혁명투쟁의 열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9~40페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일정한 조직의 성원으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려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사상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전투적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우선 모든 성원들이 규약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며 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조직생활에 정상적으로 참가하게 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며 조직생활에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이다. 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일수 있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늘 생신한 기분을 가지고 생활하고 사업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언제나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혁명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집단생활의 요구에 맞게 회의를 하고 학습회를 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위임분공을 주고 총화하는데 이르기까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도록 짜고들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제도를 철저히 견지하는것이다.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제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항일유격대식조직생활총화방법을 계승발전시킨 혁명적인 조직생활총화제도이다.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제도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적지도체제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분석총화함으로써 언제나 사상정신적으로 로쇠하지 않고 청춘의 기백으로 혁명투쟁을 계속해나갈수 있게 하며 혁명화과정을 힘있게 촉진시키는 가장 우월한 총화제도이다.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제도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혁명과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강한 비판의 방법으로 자기 사업과 생활을 분석총화함으로써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며 영광의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가다운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살며 일해나갈수 있게 한다.

따라서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제도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상적인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단련하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가장 적극적인 방도로 된다.

우리는 자기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부족점들에 대하여 묵여두지 말고 제때에 구체적인 사실을 내놓고 조직앞에서 총화하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지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분공을 제때에 주고 그 실행정형을 옳게 평가해주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고 혁명투쟁의 열도를 높여주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모든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내여 긴장하게 일하도록 그들의 특성에 맞게 분공을 세밀하게 짜고들며 그를 옳게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제때에 똑똑히 총화하고 평가해주어야 하며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요구성을 계속 높여야 한다.

특히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충성의 열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높지 않고서는 혁명과업수행에서 최대의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충성의 일념으로 자기의 정력과 재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은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것, 이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

집》, 제5권, 469페지)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할데 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은 결국 그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는 과정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안되며 그것은 반드시 사상전,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릴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사람들은 조직앞에서 자기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결함에 대하여 호상비판도 하며 다른 사람의 비판도 받고 듣는 과정에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면서 자기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하고 혁명화되는것이다.

따라서 비판과 자기비판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조직생활, 정치생활에서 한시도 뗄수 없는 구성부분이며 혁명사업을 발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비판의 무기를 놓아서는 안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개조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적 지도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의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사상전,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비판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하며 비판에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동지를 전져주며 단결을 강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동지를 위한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자면 쓴약을 먹어야 하는것처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옳게 받아들이며 비판속에서 단련하고 개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거나 비판받은 사람들을 덮어놓고 처벌하는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와 조직의 단결을 강화하고 일을 더 잘해나가는 원칙에서 비판의 무기를 높이 추켜들고 사상전에 뛰여들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적이며 건전한 조직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갈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숭고한 사업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할 혁명임무이다.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자면 무엇보다먼저 온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인 당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당조직이 움직이고 끓어야 하며 매개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을 절대화하고 모범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당원들이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될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시대의 혁명가다운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가적기풍을 소유하며 온 사회가 주체형의 피로 끓는 하나의 산 유기체로 확고히 전변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명심하고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일편단심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위대하고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앞당겨야 할것이다.

#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한다

리 현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혁명적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실현을 위한 진공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전투적구호밑에 온 나라에 참신한 혁명의 열풍이 휘몰아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주체의 혈맥이 하나로 뻗어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굳게 다지지고있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 잘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높은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와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서 학습을 가장 중요한 구호의 하나로 들어쥐고나간데 대한 가르치심을 다시금 간곡히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0페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혁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일생하게 하는 참다운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혁명은 수천년에 걸쳐 내려오면서 온갖 천대와 무권리 속에서 살아오던 수백수천만 근로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보람차고 값있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오늘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에게 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조국의 무궁과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투쟁이다.

오늘 우리들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을 하고있다.

이처럼 성스럽고 위대한 혁명투쟁에 일생을 바치는것은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영원히 빛내이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혁명가라고 하여 결코 저절로 혁명의 길에서 일생하게 되는것이 아니다.

혁명가들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을 계속하여나가자면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학습이 혁명가들로 하여금 언제나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으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는 사상정신적량식을 주기때문이다.

혁명가들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사상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자기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여야 한다. 건전한 혁명사상과 필승의 신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혁명이 간고해질때 동요하게 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고수하고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 나설수 없다.

혁명가들이 사상적으로 언제나 건전하고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는데서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바로

학습이다.

부단한 학습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온 몸에 차고넘치게 하는 여기에 변함없이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여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

혁명가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아들이는것은 다름아닌 낡은 잡사상을 뿌리빼기 위한것이며 정연적인 학습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이 온 몸에 차넘치게 하여야만 내부로부터 되살아나고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온갖 나쁜 사상독소들을 막아낼수 있게 된다.

실천적경험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계속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암둔해지고 사상적으로 변질하게 되며 결국에는 혁명의 타락분자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가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체득하는 학습을 통하여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수행방도, 혁명승리의 필연성도 깊이 알게 된다. 이것은 혁명가들로 하여금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하며 비록 육체적으로 로쇠된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는 로쇠되지 않고 언제나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생기발랄하게 활동하게 한다.

참으로 혁명적인 학습이야말로 혁명가들이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혁명하는 길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무기로, 열쇠로 된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줄뿐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혁명의 길에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혁신하여나갈수 있게 하여준다.

혁명가들이 수행하는 력사적위업은 오랜 시일을 요하는 계속혁명의 련속적인 로정이다. 이 혁명의 길에서 쉬임없이 달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꾸준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계속 심화발전되고 투쟁방법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혁명반전과 정세의 변화에 맞게 당의 로선과 정책도 끊임없이 새롭게 제시된다.

쉬임없이 전진하는 혁명의 길에서 매시기 혁명의 과녁은 무엇이고 화력을 집중해야 할 중심고리는 어디며 당면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리키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게 된다.

오늘 우리는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으며 당면하여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리고있다.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달리며 비약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에서 지난날에 얻은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새롭게 벅차게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고 매 시기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뚫어야 하며 혁명임무수행에 필요한 현대적인 과학기술, 경영지식을 끊임없이 섭취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대오에 선 전투원으로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모르고 혁명의 과녁과 투쟁방법을 모르고서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임무를 끝까지 훌륭히 수행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혁명대오에 보람있게 설수도 없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수도 없으며 귀중한 정치적생명도 빛내여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꾸준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우는것은 계속 혁명하여야 자기의 존엄도 진정한 가치도 옳게 유지하여나갈수 있는 혁명가들에게서 잠시도 떼여낼수 없는 본성적인 활동방식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기간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오시면서 언제나 학습을 혁명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견련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와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부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내놓고 유격대원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였으며 오늘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놓고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0페지)

수령님께서는 피어린 항일의 나날 혁명이란 말조차 모르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정력적인 지도와 육친적사랑으로 그들에게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였으며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나라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들이 언제나 학습을 잘할수 있도록 크나큰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은혜로운 사랑이 있었기에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해방후 그처럼 빠른 시일안에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전당과 온 사회에 생기발랄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토록 세심한 지도와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고계신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있다. 이와 함께 간부들은 매일 2시간이상씩 학습하고 토요일에는 한나절씩 학습하며 1년에 한달씩 정규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였다.

하기에 지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인민을 그처럼 부러워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경탄을 금치못하고있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은혜로운 사랑과 따뜻한 배려속에서 살며 일하며 배우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을 더욱 꾸준히 정열적으로 하여야 한다.

*　　*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에서 기본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1페지)

우리의 모든 학습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매 시기 제시되는 그이의 교시들과 당정책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드는데 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교시들과 당정책들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혁명과 건설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이것은 당원들에게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주며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정열에 넘쳐 투쟁할수 있는 정신적량식을 준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야 투쟁의 뚜렷한 앞길을 찾고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으며 영원토록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청춘의 기백으로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또한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에 오염되지 않을수 있으며 관료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을 철저히 배격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이 곧 자신을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가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보다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제기술지식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경제는 그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부문간의 련계가 매우 복잡해졌으며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에 따라 인민경제는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되고있으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다.

현실은 누구나 다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지식있고 기술있고 능력있는 활동가가 될것을 요구하며 바로 이렇게 될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 잘, 더 실속있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제기술지식을 더욱 넓고 깊이 소유하며 맡은 사업에 정통하기 위한 실무, 기술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며 조국보위를 위한 군사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학습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과 기풍,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류례없이 가렬처절하였던 피바다속에서 창조되고 세련된 귀중한 방법과 기풍으로서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본받아야 할 가장 생동하고 감화력있는 본보기이며 거울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학습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과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학습에서의 성과여부는 그 어떤 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할 결의와 각오가 얼마나 굳세며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사활적인 문제로 얼마나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과업을 다하고 시간이 있으면 학습을 한다는식으로 생각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어렵고 복잡할 때일수록 학습을 더 잘하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여러가지 학습방법과 형식을 적극 받아들이고 더욱 활짝 꽃피우는것이다.

문답식학습, 개별학습과 집체학습, 강의와 토론, 정기학습과 집중학습을 비롯한 모든 학습방법과 형식, 학습조직에서의 경험들은 사람들의 각이한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학습을 심화시켜나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귀중한 경험들이다.

특히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배워도 실속있게, 혁명적량식이 되게 배우며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는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학습에서 집단적통제와 동지적협조를 강화하여 온 집단에 강한 학습기풍을 세우며 학습을 실천과 결부시켜 진행하여 학습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 실재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방법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이 바로 그렇게 하였던것처럼 문답식학습방법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조직전개하고 학습총화를 높은 수준에서 제때에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제시된 학습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학습을 실속있게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수박겉을 핥는 식으로 제목이나 훑어본다든가 재담에서 나오는것처럼 밤낮 책의 제1장이나 보아서는 안됩니다. 또 현실과 떨어져서 문구나 외우는 식으로 당정책을 공부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2～263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실속있게 하지 않으면 혁명의 진리를 옳게 체득할수 없고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으며 배운 내용을 혁명실천에 옳게 구현할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을 겉치레식으로 하는 온갖 현상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하나를 배워도 똑똑히 배우는 습성을 가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들,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매 구절구절을 새겨가면서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심장의 붉은 피가 동맥을 통하여 전신에 영양물질을 공급하는것처럼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에 담겨진 사상이 혈맥을 통하여 온 몸에 퍼지나가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학습은 또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이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강화할것을 강조하는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단순한 그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한 행정적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나가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과학기술지식학습을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해나가야 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과 함께 당조직들의 옳은 지도와 강한 통제가 안받침될 때 더욱더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이끌어주며 학습조직과 학습총화를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누구나 학습을 정규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지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학습에서도 솔선 모범을 보이고 집단안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적극 세우도록 옳바르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학습을 강화할데 대하여 그토록 거듭 강조하시는것은 우리모두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이며 뜨거운 배려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나라 인민이 공부하는 은혜로운 배움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과학지식을 소유한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한길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영원히 충성다하여야 한다.

# 11년제의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자

김 달 봉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지도하신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는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과 후대교육에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구현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올해 9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실시하게 된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게 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과시하는 뜻깊은 사변이며 인민교육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많은 새세대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키우고있다. 이것은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부담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후대교육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결과이다.

지금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가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마음껏 배우고 인하며 사는 끝없는 자부심을 안고 11년제의무교육에로의 완전한 이행을 커다란 기쁨으로 맞이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후대교육에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더잘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11년제의무교육은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킬것을 요구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다그치는데서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학교교육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의 한부분이며 그 시초로 되기때문이다.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만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믿음직하게 이룩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학교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후대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혁명적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적인 의무교육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11년

제의무교육제도는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11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입니다.**

**우리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키워나가고있습니다.》**
(《야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7폐지)

우리의 새로운 의무교육제도는 사람의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의무교육기간에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의 11년제의무교육제도가 새세대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건설자로 육성하는 우월한 교육제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교육사상,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관철한다는데 있다.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성장시기, 세계관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들에게 혁명적인 교육을 주어야 한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모두가 혁명적인 교육을 받자면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있어야 하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의하여 교육교양되여야 한다.

새로운 의무교육은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인재육성의 과학적학설인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빛나게 구현하여 새세대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을 근본적인 과업으로 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11년제의무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 형식 등 학교교육의 모든것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혁명가로 육성하는데 철저히 돌려지고있다. 그리하여 의무교육기간에 학생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높은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계급적원쑤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혁명적 투쟁정신을 배우게 된다. 새로운 의무교육에서는 또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새세대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생활하도록 하며 국가와 사회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산주의적품성을 갖춘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나게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교육학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인 혁명적조직생활이 새세대들속에서 강화됨으로써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끊임없이 배양하게 한다.

새로운 11년제의무교육은 또한 의무교육기간이 가장 길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으며 후대들에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학교교육수준과 교육기간에 관계된다. 교육기간과 교육수준은 의무교육의 질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의무교육기간이 길고 교육수준이 높아야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줄수 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자질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가지는것이다. 그런데 중등일반지식은 완성된 중등교육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다. 바로 사람들은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음으로써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고 학교를 졸업한후 어떤 초소에서도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다. 새로운 의무교육에서는 초등교육단계에서 중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충분히 주고 중등교육단계에서 중등교육을 완성하여야 할 새로운 의무교육의 요구와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만히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지난날의 고급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의 중등지식을 성과적으로 소유시킨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학교기간에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곳에서나 일할수 있을뿐아니라 대학에 직접 가거나 일하면서 자습하여 대학과정을 마칠수 있게 한다.

또한 11년제의무교육은 교육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련계를 옳게 보장할뿐아니라 단일학제에 의거한 옳바른 교육체계를 가진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학교교육체계에서 학제를 정확히 설정하는것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년령 및 심리적 특성에 맞게, 그들의 정서와 생활에 맞게 옳바로 교육교양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또한 학제가 옳게 설정되여야 교육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체계성과 계승성을 정연하게 보장할수 있다. 학교전의무교육 1년, 초등교육 4년, 중등교육을 6년으로 하는 새로운 의무교육의 학제는 새세대들의 년령 및 심리적 특성에 알맞을뿐아니라 학교전교육으로부터 초등교육, 초등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 중등교육의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의 이행을 순조롭게 하여주고 그것들사이의 계승성과 체계성을 옳게 보장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의무교육기간에 현대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충분히 가지게 한다.

새로운 의무교육은 또한 가장 평등한 인민적인 의무교육제도이다.

근로인민의 모든 자녀들을 다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이 반드시 평등적이며 인민적이여야 한다.

《수재교육》을 운운하면서 중등교육을 여러 교종으로 분화하여 소수특권층의 자녀들만 선발하여 공부시키며 기형적인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부르죠아교육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새로운 의무교육은 모든 새세대들이 학교전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의무교육의 전과정을 꼭같은 학제와 꼭같은 교육내용으로 교육받게 됨으로써 모두가 다 고르롭게 발전한다.

이렇듯 11년제의무교육제도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체계를 비롯하여 학교교육의 전과정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울데 대한 사회주의교육의 근본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11년제의무교육제도의 수립과 그 완전한 실현의 자랑찬 선포,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교육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수령님께서는 백두령봉에 주체의 홰불을 높이 추키드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민불휴의 사색과 뜨거운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나날 혁명적교육활동을 벌리시는 과정에 혁명적교육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인민교육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교육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을 혁명을 계속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보시고 나라의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도 학교부터 세워주시였으며 초등, 중등

의무교육과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신데 련이어 보통이면 한세기 또는 몇세기 걸쳐도 하기 힘든 11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실현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시험교육을 통하여 이룩하신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1972년 9월부터 새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앞당겨 완전히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만 5살부터 16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이 11년제의무교육의 은혜로운 혜택으로 마음껏 공부하며 미래의 공산주의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나라의 모든 새세대들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공부시킨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60여만명의 학생들이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에 망라되어있으며 여기에 탁아소, 유치원의 전체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이상이 전적으로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배우며 자라나고있다. 그러니 국가의 부담이 적지 않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세대들에게 조선혁명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비록 현재는 좀 어렵다하더라도 공산주의미래를 위하여 그 어떤 부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고 귀중한것을 선참으로 돌려주시며 그들을 언제나 국가적배려의 첫대상으로 내세우신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부유하거나 돈이 많아서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은 아니다. 지금은 비록 부담이 크고 어렵지만 혁명의 전망은 밝으며 미래는 락관적이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키운다면 그러한 사회는 공산주의사회라고 예언하였다.

사람들이 한갖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공산주의적시책이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산현실로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가진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교육분야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적시책의 보람찬 새 력사가 시작된 긍지높은 나라로 되였다.

## 학교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오늘 교육부문과 그 일군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더욱 높임으로써만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모든 새세대들을 참다운 혁명의 계승자로 키울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교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양자들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하며 혁명가로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3페지)

교원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워낼수 없다.

교원들을 공산주의자로 준비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다운 풍모를 갖추는것이다.

교원들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더욱

깊이 학습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교원들은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당의 교육전사로 일하는 크나큰 영예를 안고 새세대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당의 교육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교원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교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생활총화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교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과학탐구에서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정열을 쏟아부으며 열렬한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원들은 교수요강이나 교과서의 한 글자를 가지고서도 열마디, 백마디로 흥미있게 가르칠수 있는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교원재교육체계를 확대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교원들을 모두 통신 및 야간 대학에 망라시키는 동시에 모든 교원들을 계통적으로 재교육함으로써 전반적교원들의 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한계단 더욱 높여야 한다.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전반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양성사업, 사범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교원양성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혁명의 후비대육성의 《원종장》인 교원양성기지들을 더욱 강화하며 사범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교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도록 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또한 새로운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이다.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철저히 관철될 때 우리 학교교육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청소년학생들을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첫째가는 요구이다. 청소년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을 자연과 사회를 훌륭히 개조해나가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낼수 있다.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기본은 모든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사람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정치사상과목교수의 내용을 철저히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수령님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다.

교수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게 하며 당정책화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배우며 생활하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자라날수 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새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계급적원쑤와 착취제도를 극도로 미워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사업에서 일반기초과목교수, 자연과학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수 없다.

의무교육기간에 후대들에게 자연과학의 풍부한 기초지식을 주는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중요한 요구이다.

학교교육기관들에서는 빨리 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며 교육사업의 과학리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무교육단계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기초과목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학생들이 현대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습득하고 실천에서 응용할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닦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기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운전하고 공작기계를 다루는 기능을 비롯하여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이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임의의 혁명초소에서 일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교원들과 학생들의 과학기술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참고서적과 과학영화도 많이 만들며 신문, 잡지, 도서들에 현대과학의 새로운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들을 의무교육기간에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여기에서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교육은 새세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육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부모들이 모두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방과후 학생교양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교양을 통하여 해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들의 사회적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의 사회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로청, 소년단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사로청 및 소년단 조직들은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외학습, 예술소조, 체육소조의 운영, 견학, 답사, 위생근위대, 록화근위대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과외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도처에 학생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아동도서관을 비롯하여 과외교육시설을 더많이 건설하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방과후 생활조직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을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키울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각급 학교들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는것은 새로운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새로운 의무교육에로 완전히 넘어감에 따라 빨리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학교건설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것과 함께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실험실습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훌륭히 키워냄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야 할것이다.

#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한 위대한 혁명운동

김 강 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와 공업열성자회의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필연성과 합법칙적요구를 다시금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적극적인 방도로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대한 력사적운동이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최근년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그 관철을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방침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근본열쇠이며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영예롭고 숭고한 의무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우리 나라 혁명실천에서 그를 빛나게 구현해오시였으며 3대혁명을 더욱 기운차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혁명적조치로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혁명발전의 가장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력사적운동이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은 새로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미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오늘은 [illegible]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마루에 뛰여오르기 위한 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실현하는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보다 진공적으로,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야 할 오늘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줄기차게 전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성숙된 문제이다.

심오한 혁명리론과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이러한 주객관적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그에 대처한 가장 적중한 조치로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발기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상 잔재, 낡은 사업방법을 종국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투쟁이 일정에 오른 새로운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다. 요컨대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요구에 맞게 창조된 대중령도의 독창적인 방법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를 무으시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신 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 유물과 묵은 때를 완전히 없애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3대혁명소조운동의 발단은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진공적으로 헤쳐나가는데서 획기적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한 혁명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것입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13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일군들과 군중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운동이다. 군중로선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하도록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이끌어주며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운동이다.

다른 모든 혁명투쟁과 마찬가지로 3대혁명과업도 대중을 교양하며 대중에 의거하는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3대혁명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 참가하는가에 달려있다. 물질문화적부의 창조자이며 사회적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력량인 인민대중은 그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조직화되면 될수록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대중령도에 관한 지도사상, 지도방법,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의 훌륭한 모범으로서 그토록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도 바로 그것이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 발전시켰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심에 있어서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아래 당조직에만 맡기지 않고 당중앙에서 직접 3대혁명소조를 파견함으로써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이 힘을 합쳐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질적우월성과 위력한 힘은 그것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출발점으로 하고있으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어 일을 잘해나가도록 한다는데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리게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비상히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아래일군들을 모든 면에서 적극 지도방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진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는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이다.

지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으며 경제건설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부문이 현대적 과학기술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따라 빨리 전진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열렬히 지향하고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일군들이 기성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서는 빨리 발전하며 끊임없이 변천하는 현실의 요구에 보답할수 없게 되였다.

물론 우리의 오랜 일군들은 해방후 30년동안 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빛나는 위훈을 세워온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러나 일부 오랜 일군들의 수준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 지어는 안일한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지난 기간 일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사상혁명을 벌린데 대한 당의 호소를 형식적으로 대하였으며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못하였으며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 《인해전술》에 매달리며 문화혁명을 잘 수행하지 않은것도 다 일군들의 역할이 부족한데 있으며 중요하게는 그들의 수준과 관련되여있다.

우리는 오랜 일군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앞으로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결코 오랜 일군들을 다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떼여버릴수 없다. 그러자면 당의 방침대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줄기차게 벌려 일군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소조원들을 통하여 일군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의 요구대로 일을 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히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그 지도력량을 어떻게 편성하며 투쟁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에 당,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시킨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당,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을 3대혁명소조에 망라시키는것은 항상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전당적, 전국가적 견지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또한 당핵심들과 함께 과학기술일군들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하였으며 새것에 민감한 혁명적새세대들이 망라됨으로써 그들이 대중과 함께 일하면서 선진과학기술을 배워주며 모든것을 참신하게 보고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려 3대혁명수행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3대혁명소조는 그 력량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가장 적합하게 편성되여있으며 아래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수 있게끔 구성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3대혁명소조운동의 투쟁대상이 결코 간부들자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남아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원래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회성원들은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공통된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돕고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는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산생시키는 사회경제적근원도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유물,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결코 사람자체를 반대하는것으로 될수 없다. 3대혁명소조사업에서도 문제는 간부들자체를 반대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을 없애자는데 있다.

한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상생활과 로동생활, 문화생활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혁명적변혁으로서 그것은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치렬

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은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동시에 일군들을 존경하고 받들어주며 그들에게 현대과학기술을 배워주고 실천을 통하여 그 위력을 보이주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렇듯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주인된 역할과 혁명적기풍을 높이게 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사업방법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한 가장 우월한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기의 지도사업방법을 수공업적인 사업방법이라고 한다면 3대혁명소조를 통한 오늘의 지도사업방법은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4페지)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를 큰 규모로 무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도록 하심으로써 아래실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한데 기초하여 혁명적으로 지도방조할수 있게 하시였다.

지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아래단위의 실정을 깊이 료해장악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도사업이 참말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산 지도로 될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사물현상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정확히 알려면 한쪽 면만 볼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다 보고 긍정적 측면을 위주로 하면서 긍정과 부정을 정반비례적으로 잘 련관시켜보아야 한다.

더우기 한두사람의 지도원이 내려가서 결함보따리만 싸가지고 올라오는 수공업적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아래실정을 똑바로 알수도 없다.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사업방법은 공장, 기업소들에 20~30명씩, 큰 공장, 기업소에는 50명씩 되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려보내게 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매개 직장과 작업반, 매 생산자들에 이르기까지 중간나리를 거치지 않고 제때에 거침없이 들어가게 하고 지도성원들이 직접 생산현장에서 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며 도와줄수 있게 한다.

이것은 종래의 수공업적인 낡은 사업방법의 틀에서 벗어나 들끓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일을 참신하고 통이 크게 조직하고 폭넓고 대담하게 벌려나가는 비한바없이 우월한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신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명확한 방향과 그를 힘있게 추동하는 혁명적인 방도를 밝혀준것으로서 공산주의운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3대혁명소조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게 됨으로써 우리 일군들의 사고방법과 일솜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당이 요구하는대로 경제문화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 혁명적조치가 있음으로 하여 대사상전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던 온갖 잡귀신들이 날아나고 온 사회에 혁명적 기백과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실로 3대혁명소조운동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과 경제문화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

로선을 빛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당, 국가 기관들을 강화하는데서와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사람들의 사상정신도덕생활에서의 커다란 전변, 이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가져온 가장 귀중한 결실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당의 사상혁명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는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힘있게 맥박치고있으며 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 더욱 강화되고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이 강화되였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이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더 잘하게 되였다. 이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다.

대사상전의 불길속에서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사업방법, 일본새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특히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인 구호밑에 일군들은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버리고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수천수만명의 우리의 청년인테리들이 또한 혁명화, 로동계급화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참된 혁명가, 훌륭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벌어진 대담한 기술혁신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전도는 더욱 밝아졌으며 일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숭배사상이 산산이 깨여졌다.

3대혁명소조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조밑에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려지고 도시와 농촌이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였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 한층 공고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는 경제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지난해에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옳게 총화하고 3대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5페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3대혁명소조의 기본임무이다. 3대혁명소조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6개년계획의 고지들과 800만톤의 풍년낟가리우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 10월의 대축전광장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조직들이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3대혁명소조를 잘 도와주고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지도를 잘할 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는 더 큰 새로운 전변을 가져올수 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자기 사업으로 여기고 잘 도와주며 3대혁명소조와 힘을 합쳐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 행정기관 지도일군들이 투쟁의 대상이 될것이 아니라 이 운동의 앞장에 서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3대혁명소조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결함을 고쳐나가며 그들의 창발적의견이 실현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는데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답게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림으로써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충성의 한길에서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어 그들이 일을 잘하도록 하는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중요한 요구이다. 3대혁명소조들은 우선 간부들이 가지고있는 일에서 주인답지 못한 현상을 비롯하여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등 온갖 잡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군들에게 현대적과학기술을 배워주며 실천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기술을 혁신하며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히 발전시켜나가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오랜 간부들이 일을 잘하여 꽃을 계속 피워나가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높은 뜻을 빛나게 구현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같이 호흡하면서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이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혁명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야 한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대중의 앞장에 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게 될 때 군중은 그 모범을 따라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지난 기간 3대혁명소조운동의 전행정은 소조들이 이신작칙하는 혁명적지도작풍을 바로세우고 군중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 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행동에서 겸손하고 생활이 건전할 때 근로자들의 진정한 벗으로, 존경받는 일군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답게 행동하여야 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낡은 사상에 오염되지 말고 높은 혁명성을 계속 견지하여야 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전선, 기술혁신운동, 문화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새 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6개년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빛나게 완수하고 우리 당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김 정 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와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현시기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밝히시면서 현국제정세의 특징과 그 바탕에 놓여있는 세계자본주의경제위기의 파국적성격 및 그 후과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과학적분석을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고 리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기때문에 리윤이 많이 날 때에는 생산이 올라가고 리윤이 적거나 생산의 무정부성이 심해져 상품이 체화될 때에는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경제는 생산이 오르내리며 몇해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법칙적현상이며 자본주의경제의 본질적결함입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33~34페지)

현시기 자본주의세계는 그 규모와 파괴적심도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 현경제위기는 공업위기, 동력위기, 식량위기, 재정위기, 통화위기 등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얽히고 서로 작용하면서 자본주의세계경제생활전반을 헤여날수 없는 일대 파국에로 깊이 몰아넣고있다.

세계공황사에 널리 알려진 1929~1933년 공황이 독점자본주의에로 이행한 세계제국주의가 수십년간에 걸쳐 빚어낸 모순 특히 제1차세계대전이후 시기에 형성된 모순과 불균형을 종합적으로 폭발시킨 력사적파국이였다면 현시기 제국주의가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자기존재의 전력사적기간을 통하여 축적한 온갖 모순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있는 가장 첨예한 전면적위기이다.

지금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심각한 과잉생산위기로 하여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소들이 대량적으로 파산되고있으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미 1973년말부터 끊임없이 떨어지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공업생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내리막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미제반동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전반적공업생산은 한분기동안에 무려 10%씩 축소되고있다. 특히 미국공업의 《3대기둥》이라고 하는 자동차, 건설, 강철공업부문에서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있다. 미국에서 지난해 자동차생산은 1973년에 비하여 24% 줄어들었고 건설공업은 《30년래의 최악의 침체상태》에 빠졌다. 한편 일본에서도 전반적인 공업생산이 1973년 12월에 비하여 지난해 11월에 13.4%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8월에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기계공업은 25~30%, 방직공업은 40%이상 줄어들었다. 영국, 이딸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라파나라들에서도 례외없이 공업생산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다.

주요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이러한 대폭적인 생산감소는 제2차세계대전후 겪은 여러차례의 경제위기기간에 있은 생산감퇴를 훨씬 릉가하는 가장 심각한것이다.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조업률의 단축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무리로 파산몰락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자본주의출판물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 지난해 첫 10개월동안에 파산

당한 중소기업은 무려 8,400개에 달하였고 서독에서는 지난해에 7,500개의 기업이 파산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에 공업, 건설, 운수 부문에서만도 매일 평균 60개의 기업이 파산되여 문을 닫아맸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1천만엔이상의 빚을 지고 파산된 중소기업소가 무려 1만 1,700여개에 달하였다. 기업의 파산선풍은 중소기업뿐아니라 대공업독점체들까지 휩쓸고있다. 미국의 《포드》사는 자기 산하의 12개 자동차공장들의 문을 닫아맸으며 《제네랄모터스》회사는 자기 산하에 있는 16개 공장문을 페쇄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의 감퇴와 기업의 대량적인 파산은 불가피하게 실업자대렬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오고있다.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을 일자리에서 무리로 내쫓아 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있다.

미국반동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금년 3월말현재 미국에서 완전실업자수는 800만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전후 최고기록보다 300여만명이나 더많은 수자이다. 여기에 반실업자까지 합하면 미국의 실업규모는 실로 1천만명을 훨씬 넘고있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한해동안에 프랑스, 서독, 일본 등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실업자대렬은 근 2배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지금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그 어데를 가나 일자리에서 쫓겨난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우고있다.

과잉생산의 위기가 빚어내고있는 이 모든 사태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경제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세계경제가 직면하고있는 현 경제위기는 1969~1971년공황이 끝난후 겨우 한해가 지나 또다시 폭발한 파국이다. 제국주의독점지배층이 1960년대초에 떠벌이던 《번영》은 그 후반기의 증대되는 불안정과 파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 완전한 종말을 고하고있다.

산업분야에서의 위기는 재정금융분야에서의 위기와 얽혀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례외없이 국제수지에서 적자현상이 막을수 없는 것으로 되고 국가채무가 끝없이 늘어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걸머지고있는 국가채무액은 해마다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 1969년 6월에 3천 569억딸라였던것이 지난해에는 5천억딸라로 올라갔다. 미제는 지난해 국제수지에서도 170억딸라의 적자를 냈는데 이것은 1973년에 비하여 2.4배나 불어난것으로 된다. 지난해 이딸리아의 무역적자는 1973년에 비하여 2배,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는 그것이 5배이상으로 각각 늘어났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반동지배층이 전반적인 적자재정을 실시하고 정부지출을 늘이며 신용대부를 확대하는 등의 인공적인 책동을 조작함으로써 전시상태에서도 보기드문 통화팽창이 폭발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의 통화팽창률만 보아도 미국에서는 12%, 영국에서는 20%, 일본에서는 25%, 이딸리아에서는 25.7%에 달하였다. 이 나라들의 통화팽창은 그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제2차세계대전후 전례없는것이다. 날을 따라 더욱 심해가고있는 통화팽창은 무엇보다도 물가를 폭등시킴으로써 인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생산과 시장산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평균 2~3%를 오르내리던 물가상승률이 최근에 와서는 기록적인 수준에로 뛰여오르고있다. 지난해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전반적인 소비품가격이 급격히 폭등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식료품의 값은 대부분 50%이상 비싸졌다.

열병적인 통화팽창과 물가등귀는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몇십배로 더어렵게 만들고있으며 판로난에 허덕이고있는 자본주의경제를 좀처럼 과잉생산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있다.

현시기 자본주의세계가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종래의 공황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일련의 새로운 내용들이 첨가되면서 전례없는 파국적사태를 빚어내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서방세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고있는 연료동력위기이다. 연료동력위기는 원료문제해결의 자본주의적방법, 침략과 략탈에 기초한 제국주의적존재방식 그 자체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오늘 석유는 자본주의공업의 기본동력원천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화학섬유와 수지, 폭약을 비롯한 수천종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원료로 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발생한 석유위기는 자본주의경제전반을 무서운 파멸에로 몰아넣고있는 일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고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총소비량의 80~90%에 해당하는 석유를 제3세계나라들로부터 빨아들여 물쓰듯 탕진하면서도 그 가격은 구라파의 가장 질낮은 석탄값보다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제4차중동전쟁을 계기로 제3세계나라들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석유공급을 중지하거나 지난날 부당하게 억제되였던 석유수출가격을 4~5배 높임으로써 제국주의가 수출하는 상품가격과의 균형을 보장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석유가격이 바로 설정되고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석유자원을 제멋대로 략탈할수 없게 됨에 따라 제국주의나라들은 일대 곤경에 빠지고있다.

석유값이 응당한 수준에서 정해지고 그것을 기화로 국제석유독점자본의 투기와 모리 행위가 감행됨으로써 자본주의세계는 심각한 석유위기, 원료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이 위기로 하여 국제수지분야에서만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지난해 제국주의렬강들이 석유수입에 지출한 금액은 870억딸라로 평가되였는데 이것은 그 전해에 제국주의렬강전체가 가지고있던 금 및 외화 총액보다 더 많은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제국주의자들은 석유수입을 강제로 축소하고 국가의 법령까지 발동시키 원유반전소건설을 중지시키는 등 일대 소동을 벌리고있다. 전후 30여년간 석유에 적응하게 재편성되였던 현대자본주의의 공업구조는 근본적으로 파괴되고있으며 석유략탈의 지반우에 올라선 제국주의경제는 사상루각처럼 무너져가고있다. 이 붕괴과정은 석유에 국한하였던 연료동력위기가 전체 원료와 연료, 동력을 포괄하는 자원위기로 확대됨으로써 일찌기 자본주의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파국적사태를 가져오고있는것이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연료동력위기와 함께 세계적규모에서 폭발한 엄중한 식량위기와 얽혀 더욱 심각화되고있다.

수천만인민들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있는 식량위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상 고통뿐아니라 그것이 배태하고있는 사회정치적후과에 있어서 연료동력위기보다 몇곱절 더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1972년부터 3년째 이러저러한 지역들이 흉작을 가져왔으며 더우기 지난해 미국이 농사를 망쳤고 카나다와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 그밖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농사가 안되여 전반적인 식량기근이 휩쓸고있다. 특히 현식량위기는 자본주의세계의 가장 큰 《식량생산국》, 《식량수출국》으로 자처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위기를 리용하여 더 많은 돈을 긁어모으려고 농산물값을 마구 끌어올리고 지어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력의 무기》로까지 삼으려는 모략책동을 감행함으로써 더욱 엄중한 사태를 빚어내고있다.

지금 미국알곡에 명줄을 걸고있던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이 걷잡을수 없는 식량난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식량수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던 일본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은 미제가 흉작을 구실로 팔던 알곡을 팔지 못하겠다고 올리메는 바람에 쌀주머니를 차고 세계를 분주히 싸다니면서 식량구걸을 하고있다.

날을 따라 심각해지고있는 식량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자본주의제도하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는 광범한 근로자들의 생활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은 먹을것을 먹지 못하고있으며 심한 영양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걸려 신음하다가 무참히 죽어가고있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세계자본주의의 통화제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심각한 국제통화위기속에서 더욱더 첨예화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자본주의의 국제화폐체계는 미제가 전쟁기간 긁어들인 방대한 금을 담보로 하는 미제의 딸라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나라들의 화폐시세를 결정하고 고정시킨것이였다. 그런데 지난 30년동안 미제는 금담보를 초과하는 딸라지폐를 마구 찍어 침략과 전쟁 정책에 탕진하였으며 막대한 국제수지적자를 초래함으로써 딸라를 담보하던 금이 60%이상이나 해외에 흘러나감에 따라 딸라가 더는 국제기준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였고 세계자본주의화폐제도는 근본적으로 붕괴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세계경제관계전반에 수습할수 없는 혼란을 가져다주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알륵과 대립을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현경제위기는 남조선에도 심각한 파국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지금 극도의 경제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괴뢰들에게 《원조》를 줄수 없게 되였고 오히려 저들이 겪고있는 현위기의 부담을 식민지나라들에 넘겨씌우려고 발악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전적으로 명줄을 걸고있던 남조선경제가 녹아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의 경제는 극심한 원료난, 자금난, 판로난, 경영난에 빠져 허덕이고있으며 여기에 식량난까지 겹쳐 경제생활전반이 수습할수 없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현시기 자본주의세계를 무자비하게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는 그 심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이전 시기의 그 어느 위기와도 비할수 없는 심각성을 띠고있다. 현경제위기는 기업의 파산과 생산의 감퇴률, 실업의 규모에서 전후 선행한 5차례의 위기들을 엄청나게 릉가하고있을뿐아니라 그 지속기간에 있어서 벌써 전후평균기록을 한배반이나 넘어서고있다.

현경제위기는 과잉생산의 위기뿐아니라 연료동력위기, 식량위기, 국제통화위기와 같은 각이한 종류의 경제위기들이 하나로 뒤엉킨것으로 하여 그 정도가 류례없이 암담하다.

일반적으로 과잉생산의 위기는 몇개의 주도적공업부문들에서 고정자본이 갱신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반이 풀려나갈수도 있으나 현시기 겪고있는 연료동력위기, 원료위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때에 가서도 수습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또한 설사 자본주의나라들의 공업생산이 침체를 벗어난다고 하여 식량기근과 같은 위기가 동시에 해결될리가 없으며 재생산의 순환국면들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고 심화되고있는 자본주의세계통화위기도 그 해결전망은 암담하다.

이처럼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깊이 빠져들어가 허우적거리고있으며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다.

자본주의세계가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것이며 불가피한것이다.

* *

오늘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세계제국주의의 멸망과정을 급속히 촉진시키며 전반적인 세계정치정세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심각하여짐에 따라 인민들의 혁명적기세가 높아가고있으며 제3세계나라들의 반제투쟁열의도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전반적국제정세는 멀지 않은 앞날에 혁명적대사변이 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제국주의자들은 날을 따라 더욱 심각화되고있는 경제위기속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현위기의 부담을 전적으로 근로대중 특히 제3세계나라들에 넘겨씌워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나 그것은 제국주의의 근본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인민들의 강력한 반제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독점지배층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되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근로자들이 반동지배층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을 반대하고 생활상권리를 요구하여 일으킨 파업은 5,900여건에 달하였으며 독점자본의 착취를 반대하고 삶의 권리를 위한 영국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은 2,900여건에 달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은 날을 따라 더 큰 규모로 조직화되고있다. 올해 1월 이딸리아에서 100만명의 운수부문 로동자들과 21만명의 화학 및 방직 공업부문 로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일으킨 전국적규모의 총파업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파업투쟁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경제투쟁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회생활의 민주화와 반전운동, 반정부운동으로 발전하고있으며 나아가서는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에로까지 넘어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지배층을 반대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치렬한 투쟁은 제국주의지배상층의 정치적위기를 격화시켜 부르죠아독재기구를 전반적위험에 처하게 하고있다.

정치적불안정이 전례없이 강화된 위기속에서 미국에서는 악명높은 침략의 우두머리 닉손이 쫓겨났고 일본에서는 사또, 다나까와 같은 반동두목들이 련이어 나떨어졌으며 지배층내부가 사분오렬되여가고있다. 이딸리아에서도 루모르의 련립내각이 인플레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싸우던 끝에 《총사직》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오래동안 도사리고있던 보수당정권이 붕괴되고 레이버당이 집권하였으나 선거결과 두 당이 다 국회의석의 과반수도 못채워 《소수련립내각》이라는것까지 만들어내게 되였다. 이처럼 광범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반동지배층의 통치체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있으며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있다.

독점지배층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의 치렬한 투쟁과 함께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있다.

오랜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무진장한 자원을 강탈하고 이 지역에서 저들의 과잉상품을 비싸게 팔아먹는것으로써 제놈들의 배를 불리워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것이 더는 허용되지 않고있다. 제3세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정치적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경제분야에서도 제국주의식민지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식민지경제체계를 여지없이 붕괴시키고 그 우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관계와 경제질서를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조여매고있다.

최근년간에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유엔제6차특별총회, 유엔해양법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회의와 제3세계나라들에서의 수많은 혁명적사변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의 혁명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더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할수

없게 되고 과잉상품을 제멋대로 강매하지 못하게 되고있으며 이 지역에 침투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은 해당나라들의 단호한 조치로 련이어 몰수되거나 쫓겨나고있다. 실로 제3세계가 벌리고있는 반제공동투쟁은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텐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면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게 된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간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는 전후 최대규모로 되는 전쟁예산을 수립하고 대량살륙무기와 새로운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저들의 침략무력을 중근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로 내몲으로써 제3세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위협하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특히 놈들은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공격용 핵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들을 새로 건설하며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괴뢰군《현대화》를 다그치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평화》요, 《협상》이요 하고 떠벌이고있으나 사실은 세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그러나 침략전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그 어떠한 출로도 가져다 주지 않으며 그것은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대규모의 세계적공황끝에 일으켰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그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제1차세계대전의 결과는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의 탄생을 가져왔고 제2차세계대전후에는 아세아와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승리하여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생겨났으며 위력한 제3세계가 출현하였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은 놈들에게 출로를 열어주는것이 아니라 혁명을 낳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결정적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전반적국제정세의 흐름은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바야흐로 혁명적대사변이 도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 특히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싸우는 나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제국주의전쟁이 터지든지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모두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리용하여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자기의 력사적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가 망하고 인민들의 정의의 혁명위업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근 로 자 제5호 (루계 397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5년 5월 1일 발행 • 1975년 5월 5일

ㄱ-55118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6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398)

차 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꼬스따 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따 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따 리까 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5년 4월 13일 꼬스따 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따 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따 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을 접견하시고 그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대답전문은 다음과 같다.

**물음:** 올해에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기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새세인민들을 경탄시키는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주석각하께서 조선로동당이 여기에서 논 역할과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당신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 30년동안에 조선인민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불굴의 투쟁을 벌려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령도와 우리 인민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세웠으며 그것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 당은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 나라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기때문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재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됩니다.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인민대중이 결정하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리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은 대중속에 당의 의도와 요구를 깊이 침투시키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동원하였으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습니다.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은 당을 받들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과 지혜와 창발성을 다 내여 일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창조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적극 조직동원한다면 혁명과 건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지난날 아무리 뒤떨어졌던 나라에서도 짧은 기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물음:** 수령님께서는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으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온갖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는 현정세하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나라의 영구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련대성운동을 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두개 조선》 조작

책동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이 분렬된 상태에서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갈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서 저들의 장기집권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한편으로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벌리면서 다른편으로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습니다. 적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군사분계선가까이에 배치하고있으며 지상과 해상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군사전략상 거점으로서의 남조선의 중요성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남조선에서 저들의 무력을 증강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확장하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이와 같은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되여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어떠한 책동도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적들의 모든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입니다. 만일 남조선괴뢰도당이 계속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미제국주의자들에 추종하여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여달린다면 그들은 캄보쟈의 론놀도당이나 남부웰남의 티우도당과 같은 운명을 면할수 없을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인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최근시기에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독재정권 물러나라!》, 《학원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괴뢰정권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투쟁을 매일같이 벌리고있습니다. 청년학생들뿐아니라 언론인, 종교인, 정계인사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남조선인민들이 괴뢰정권의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도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들을 수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그리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멀지 않아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침략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나올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꼬스따 리까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물음**: 당신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세계가 겪고있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리고 이 경제위기가 어떤 후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지금 자본주의세계는 력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석유위기, 원료위기, 식량위기가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습니다. 미국, 일본, 서부독일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멈춰설줄 모르는 통화팽창, 끊임없이 뛰여오르는 물가, 거리에 차넘치는 수백만명의 실업자로 하여 대혼란속에 빠지고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가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산물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공황과 경제적혼란이 일어나는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경제위기를 막을수 없으며 그 파국적후과를 면할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본주의세계의 경제위기는 더욱더 심각하여질것이며 그 후과도 더욱 파국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에서 벗

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석유와 원료 자원이 풍부한 제3세계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지어는 이 나라들의 자원을 무력으로 강탈하려는 극히 모험적이고 파렴치한 책동까지 감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놈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지 못할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이 심해질수록 삶의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은 강화될것이며 이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곤경에로 몰아넣을것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갈, 침략책동도 실패를 면할수 없습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과 해양권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적독립과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린다면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정책과 침략책동을 물리칠수 있으며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경각성을 높이고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다면 전쟁의 위험을 막을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을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오늘의 파국적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고 모험적인 불장난을 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물음 :** 오늘 제3세계나라들은 경제적독립을 쟁취하고 자주성을 공고히 하며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주석각하, 제3세계나라들이 착취없고 압박없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길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지 말씀하여주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 제3세계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합니다. 정치적독립을 이룩한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없애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 락후와 빈궁을 없애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할 때에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을수 없으며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뒤떨어진 경제를 넘겨받은 제3세계나라들앞에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적지 않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인민의 창조력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면 얼마든지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완전한 자주독립의 길로 나가려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대외정책을 실시할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근본원칙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점차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이 자본주의길로 나가면 착취와 압박을 없앨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다시 예속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예속과 몰락, 착취와 압박의 길입니다. 사회주의의 길만이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길이며 착취없고 압박없는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있는것입니다.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공통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협조는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면 못해낼일이 없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면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침략책동을 물리칠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낼수 있으며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물음:** 오늘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정부들은 바나나의 국제가격을 지키기 위한 바나나수출국들의 동맹을 내오고 자기들의 수출상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꾸바를 포함한 까리브상선대를 창설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이 없이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를 운영해나가기 위하여 현존 《미주국가기구》를 대신할수 있는 라틴아메리카경제기구를 창설하며 빠나마운하지역에 대한 자주권을 빠나마에 넘겨주기 위한 투쟁 등 자기의 완전한 자주권과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투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투쟁이 조선인민을 비롯한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미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경제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최근에 꼬스따 리까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나라들이 바나나의 국제가격을 지키기 위한 바나나수출국들의 동맹을 내오고 수출상품을 운반하기 위한 까리브상선대를 창설하며 《미주국가기구》를 대신할수 있는 라틴미주경제기구를 창설하며 빠나마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실제적인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빠나마에 넘겨주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꼬스따 리까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이러한 투쟁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리익을 지키며 제국주의의 간섭과 침략을 끝장내고 령토완정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꼬스따 리까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새 사회, 새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꼬스따 리까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우리는 조선과 꼬스따 리까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엘 무쟈히드》 신문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5년 5월 29일 알제에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엘 무쟈히드》 신문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대답전문은 다음과 같다.

**물음:** 근로하는 조선인민은 조선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며 세계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계시는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올해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기념하게 됩니다.

주석각하, 조선인민에 대하여 깊은 친선의 정을 품고있는 우리 알제리사람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력사적인 날에 즈음하여 도달하게 될 목표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우리 인민은 올해에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크나큰 경사로 기념하게 됩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지난 30년동안 걸어온 보람찬 투쟁행로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뜻깊은 혁명적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주요과업들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을 믿고 따르며 받드는 충성심과 정치적열의가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날로 높아지는 당에 대한 충성심과 정치적열의에 의하여 우리 당의 위력과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더욱 강화된것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은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습니다.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할 굳은 결의를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당창건기념일전으로 강철고지, 화학비료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완수할것입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이미 지난해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올해에는 8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6개년계획의 주요경제과업들이 완수되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하여지고 근로자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서 훨씬 벗어나게 될것입니다.

문화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되였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1년 앞당겨 올해 9월 1일부터 완전히 실시하게 됩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모두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혜택으로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되였습니다. 성인교육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던 근로자들도 모두다 멀지 않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민족간부양성사업이 빨리 발전하여 이미 8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양성되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에 그 대오가 100만명이상으로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는 사업이 이미 성과적으로 완수되였으며 농촌의 뻐스화, 수도화도 거의 끝나가고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 많은 살림집을 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올리는것을 비롯하여 당 제5차대회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내놓은 모든 과업들이 다 앞당겨수행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질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계기로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주요목표들이 성과적으로 달성됨으로써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보다 공고화되고 우리 나라의 전반적면모는 더욱 훌륭하게 될것입니다.

**물음:** 진보와 정의의 세력의 진출에 의하여 인도지나에서 당한 련속적인 패배로 하여 당황망조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새 아세아전략》의 기지로 인정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진출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이 《위촉은자》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대답:** 웰남인민과 캄보쟈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의하여 지난 4월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미제는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아세아에서 물러갈 대신에 의연히 침략과 간섭을 일삼고있습니다.

인도지나에서 쫓겨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지탱점으로 계속 틀어쥐려 하고있으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입김을 불어넣고 그들을 뒤받침하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최근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유대를 일층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공약을 견지》할것이라고 미별이고있습니다. 지어 놈들은 남조선을 미국의 《전선방위지역》이라고 하면서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킬것이라고 떠들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그것을 기지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미제는 이미 남조선에 있는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늘이고 작전지휘체계를 개편하였으며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군사분계선일대에 배치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국군현대화》를 다그치고있으며 남조선괴뢰들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에로 부추기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용납못할 악랄한 도전입니다. 미제의 새로운 침략책동에 대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진보적인민들도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미제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적들의 침략전쟁에는 혁명전쟁으로 대답하고 적들의 기만적 《평화》술책에는 혁명적원칙으로 대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립장입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체 조선인민은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은 철저히 소멸할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조국의 통일인것입니다.

조선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미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할 그 어떤 구실도 없습니다.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미제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겠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에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계속한다면 놈들은 인도지나에서 당한것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조만간에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고야말것입니다.

**물음**: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민이 도달하여야 할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신께서 구상하시는 방도는 무엇입니까?

**대답**: 당신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현시기 우리 인민이 달성해야 할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30년이 되도록 아직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라진채 있습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갈라진 첫날부터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여왔습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

분렬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한다는것은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조건에서 민주주의적인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통일을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사와 민족의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

할데 대한 우리의 방안을 당장 받아들일수 없다면 통일을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것입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남북조선인민들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을것입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또한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호상 리해가 촉진되고 민족적련계가 강화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은 첫째로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것이며, 둘째로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는것이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발표된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은 바로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키겠다고 온 민족앞에 엄숙히 맹세하고는 돌아서자마자 그것을 배반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게 행동하였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계속 외세에 매여달리면서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부르짖으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였으며 《반공》의 구호밑에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밖에도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북과 남이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남조선측에 여러차례 제의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할것을 미국당국에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통일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3년이 되였으나 아직 통일

문제해결에서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이전상태에로 되돌아가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온갖 교활한 음모를 다 꾸미고있으나 그들은 그 어떤 음모책동으로써도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굳게 단합하여 전민족적투쟁을 벌림으로써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야말것입니다.

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와 형제적인 알제리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물음:** 최근 혁명적알제리는 제3세계나라들의 편에 서서 제3세계인민들의 재부가 자본주의나라들에 의하여 착취당하는것을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알제리는 제3세계나라들의 민족적자원부원이 독점자본가들에 의하여 략탈당하는것을 종식시키는 공명정대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활동하고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투쟁을 언제나 고무하여주시고계십니다.

저는 당신께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진행하고있는 이 국제적분쟁문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주실것을 바랍니다.

**대답:** 오늘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나라의 자연부원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착취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제4차중동전쟁시기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석유자원을 략탈하던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봄에 있은 원료및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제3세계나라들의 리익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제3세계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온 제국주의자들의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 지난해에 있은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바다의 자원을 략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그밖에도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에 관한 회의, 석유수출국가기구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원료생산국기구들을 창설하고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투쟁하고있습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은 제3세계인민들의 재부가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는것을 반대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이 투쟁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입

니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입니다. 제3세계인민들의 이 투쟁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연부원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착취를 반대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제3세계인민들의 재부를 략탈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인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의 옹호자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하며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성과적으로 허물어버리는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제3세계인민들과 손잡고 싸워나갈것이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줄것입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것이며 착취와 략탈이 없고 독립되고 부강한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는 형제적알제리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 ☆

#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새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서 날에날마다 대비약, 대승리를 이룩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사변의 날이 시시로 다가오고있는 유리한 정세하에서 《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이한다.

이 날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강요하였으며 오늘 또다시 새 전쟁 준비에 미치날뛰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을 한사코 방해해나서고있는 피맺힌 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나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의로운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는 나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으며 그들과 더불어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들의 정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끝까지 힘있게 벌려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이미 한세기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품어오던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방후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전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쳤으며 그에 기초하여 25년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범죄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놈들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전조선을 강점하여 저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동시에 아세아침략의 기지로, 교두보로 만들며 나아가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투쟁인 동시에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으며 조선전쟁을 확대하여 새로운 세계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더러운 침략목적을 단숨에 이루어보려고 망상하면서 조선전선에 최신기술로 장비한 미륙해공군의 기본력량과 15개 추종국가고용병들까지 동원하였으며 처음부터 가장 야수적이고 가장 잔인한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조선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강도적인 침략목적을 실현할수 없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

도밑에 우리 인민과 영웅적인민군대는 미제의 범죄적인 무력침공을 반대하고 조국의 존엄과 독립을 수호하는 준엄한 혁명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불사조와 같이 싸움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을 꺼꾸러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자위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천재적인 령도예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의 뚜렷한 시위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 거대한 고무적힘을 주었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의 참패,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오만하게 휘두르던 《힘의 정책》, 로골적인 군사적간섭과 전쟁정책의 심대한 파산을 의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시대를 다 산 죽어가는 력량이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인류의 진보를 지향하는 새로운 력량이다. 인민들의 해방투쟁도상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 있지마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250~251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혹한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 후에도 계속 《힘의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쉼없이 감행하여왔다.

미제는 그 어떤 파렴치한 공갈과 군사적간섭, 침략전쟁도발로써도 급격히 무너지가는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지탱할수 없었으며 싸우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떠들던 이른바 《새 아세아정책》은 아세아인민들의 드세찬 반제반미투쟁과 혁명투쟁에 의하여 걸음마다 파산되여 매장되고말았다.

미제가 《새 아세아정책의 본보기》로 만들려고 책동하면서 막대한 군사장비와 딸라를 퍼부은 남조선에서 놈들의 식민지통치체계는 오늘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장밑에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혁명투쟁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류례없는 군사파쑈적탄압밑에서도 줄기차게 발전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총칼을 휘두르며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으나 날로 달라져가는 민심을 쇠사슬로 묶을수는 없으며 남조선사회의 밑바닥에 쌓인 인민들의 불만과 울분을 총칼로 억누를수는 없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은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끈질긴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고있다.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원쑤들은 극도로 고립되고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위기에 빠지고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 새로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전면적인 패망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이 지역에서 미제의 침략적지반과 그 식민지지배체계는 물먹은 진흙담벽처럼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말았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지난 4월 미제의 앞잡이 론놀매국도당을 때려부시고 마침내 전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미제의 침략적지반은 남부웰남에서도 완전히 붕괴되였다. 미제가 막대한 군사원조를 들이밀었고 54만명에 달하는 저들의 침략군을 동원하였던 남부웰남에서 사이공괴뢰도당은 남부웰남인민과 인민해방무장력의 드센 징벌을 받아 이미 완전히 괴멸되였다.

캄보쟈와 남부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적지반의 완전한 붕괴는 캄보쟈인민과 웰남인민이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당한 또하나의 수치스러운 패배이다.

미제가 길러낸 아세아의 다른 괴뢰들도 오늘 프놈펜과 사이공 친미괴뢰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저들의 앞날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공포에 질려 갈팡질팡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다른 부분인 중근동과 그리고 아프리카, 라텐아메리카에서도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고립당하고있다.

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그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어제날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는 완전해방의 광명이 비낀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고있으며 라텐아메리카에서도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정책이 전면적인 붕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반제자주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는 제3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있으며 더욱더 수세와 피동에 빠지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전쟁에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며 인도지나전쟁에서 거듭 패배하고 종국적으로 쫓겨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세계도처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있는 사실들은 놈들의 어떠한 발악적책동도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미 기울어진 제국주의운명을 건질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물론 제국주의가 결코 제놈들의 옛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우와 같은 책, 245~246페지)

침략과 략탈을 떠나서 제국주의는 결코 살수 없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 전쟁은 없어질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지면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매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의 출로를 새로운 모험적인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공공연히 책동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곰빙이 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침략적지반을 다시 확대하려고 망상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특히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는 식민지지배체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그 중요한 침략거점으로 삼고있으며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화약내풍기는 침략적폭언을 더욱 빈번히 줴치면서 남조선에서 침략적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으며 숱한 침략군놈들과 각종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여 새로운 전쟁음모를 꾸미고있다. 미제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위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군사분계선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있으며 제놈들의 작전지휘체계를 기동화하는 방향에서 개편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이라는 낡아빠진 생트집을 되풀이하면서 제놈들의 새 전쟁준비와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놈들은 조선에서의 그 무슨 《위기조성》이니 뭐니하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안보공약》은 재확인한다고 떠들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남조선에 《즉각적인

군사원조》를 줄것이라는 화약내풍기는 침략적폭언을 서슴없이 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의 일환으로서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폭압통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도록 적극 부추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영구집권을 위한 이른바 《유신체제》라는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파쑈체제를 조작하고 수천명의 애국적청년들과 인민들을 집단적으로 체포투옥하고 야수적으로 학살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사회는 말그대로 살인악당들이 활개치고 칼부림하는 살벌한 암흑의 천지로, 하나의 군사감옥으로 전변되였다.

새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침략적결탁을 강화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조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무모한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중근동에서 날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제의 수급전쟁사환군인 국무장관이란놈은 얼마전에 중근동의 석유생산국들이 만일 석유값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 나라들에 대하여 무력행사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리낌없이 위협공갈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중근동의 석유를 헐값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실토한 침략의 넉두리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실제로 중근동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중근동지역의 지형에 비슷한 사막지대에서 미제침략군의 전투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인도양과 태평양상에서 새로운 대규모의 군사기지들을 건설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적극화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이 지역의 석유생산국들을 위협하며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벌리기 위하여 저들의 해적선들을 빈번히 인도양에 들여보내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말로써뿐만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근동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분주히 서두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미제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들의 침략진지를 확대하며 하며 신생독립국가들에 다시금 신식민주의올가미를 들씌우려고 갖은 음흉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고있으며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떠들고있는것은 제놈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것이다.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것은 놈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조성된 정세는 모든 반제력량이 더욱 단합하여 공동투쟁으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나라, 모든 [illegible]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의 반제반미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련속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한다면 놈들을 패망시키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세계의 모든 반제반미력량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전쟁위험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면서 놈들의 어떠한 침략책동에도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반제반미력량은 적들의 창에는 창으로 맞서고 적들의 기만적《평화》술책에는 혁명적원칙성으로 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량면전술을 철저히 꺾어버려야 한다.

반미투쟁을 강화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는데서 제3세계나라들의 반미공동전선과 반미공동행동을 강화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투쟁속에서 산생된 제3세계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기반에서 억압과 착취, 민족적멸시를 받아온 공통한 력사적과거를 가지고있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서도 서로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로 굳게 련결되여있으며 모두다 강한 반제자주의식을 가지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우리 시대의 반제반미투쟁의 결전장이며 제3세계는 이 투쟁의 직접적담당자로서 제국주의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는 위대한 혁명력량이다.

제3세계는 제국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그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킬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제3세계는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와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흥력량인 제3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집단적인 제재와 반격을 강하게 들이댄다면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을 완전히 끊어버릴수 있으며 놈들을 파멸적인 위기에 더욱 깊이 몰아넣을수 있다.

제3세계나라들의 반제반미투쟁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국제적영향력과 무궁무진한 경제적잠재력, 풍부한 자연부원을 리용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집단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힘을 합쳐 놈들의 숨통을 조이는것이다.

제3세계나라들이 자주, 자립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의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공동투쟁전략과 공동행동을 강화하여 굳게 뭉쳐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짓부시고 숨통을 끊어놓을수 있다.

지난 중근동전쟁시기 아랍석유생산국들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제국주의나라들에 대하여 취한 징벌조치, 원료자원을 보호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리해관계에 맞게 만들어놓은 낡은 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 등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제3세계인민들이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이 대륙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될 때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력량인 제3세계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원쑤들의 준동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위기에 처한 제놈들의 처지를 구원해보려고 남조선에서 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을 강화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으나 놈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놈들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결코 무사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 쌓이고 쌓인 불만과 울분은 필연코 혁명적폭발을 가져올것이다.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혈맥을 가진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민족적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단호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것이며 놈들을 이 땅에서 철저히 소멸해버리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념원하고 지향하는대로 발전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전쟁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지난날의 침략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의 패망으로 끝났다.

시대가 달라진 오늘에 와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무모하게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것은 놈들에게 종국적파멸을 가져다줄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조국의 통일일것이다.

오늘 조선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는 구경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미제의 태도에 달려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의 력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남조선에 끌어들인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제소굴로 돌아가야 한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가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더러운 책동을 그만둔다면 조선에서 긴장상태는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조국통일위업을 훌룽히 성취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이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나감으로써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갈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며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싸우는 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가 더욱 심각화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세계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 시대이다.

세계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이 반동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있는 오늘의 유리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비롯한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미제와 제국주의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놈들의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것은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지닌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이며 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간악하고 음흉한 책동으로써도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는 저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미래는 싸우는 인민들의것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나가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조만간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지구상에서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새 세계를 건설할것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공산주의 운동력사에서의 위대한 사변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 당,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우리 당은 오늘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한 가장 혁명적인 새형의 당, 주체형의 당으로서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며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서나아가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당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그 억센 뿌리가 내린 우리 당은 미일제국주의를 비롯한 안팎의 간악한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첨예하고도 심각한 투쟁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운 혁명과 건설의 기창하고도 장엄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다지진 백전백승의 전투적인 당으로, 세련되고 로숙한 혁명적인 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혁명의 폭풍속에서 태여나고 자라난 우리 당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계속 투쟁하고 전진하는 당으로, 영원히 혁명하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이 오늘 이처럼 위대한 당으로 성장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가장 권위있는 당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전위부대를 가진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을 몸소 세우시고 키워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당창건 30돐을 맞이하게 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과 감사의 정에 차넘치고있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을 가지고있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빛나는 혁명적로정을 감회깊게 돌이켜보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시대인 주체시대에 상응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로동계급이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정확한 지도사상과 함께 그를 실현하기 위한 무기인 혁명적당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맑은 사람들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를 맞이한 로동계급은 새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을 가져야만 우리 시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운동은 지난시기와는 달리 전세계적규모에서 벌어지게 되였으며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은 각이한 발전단계와 서로 다른 력사적조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이러한 객관적사정은 매개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 주체형의 당을 가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이 요구는 우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끼여든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벌릴대신 《령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파벌싸움에만 몰두함으로써 1920년대에 나왔던 조선공산당을 말아먹고 조선혁명발전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당을 가지지 않고서는 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주체적인 당을 가지는것은 우리 혁명의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조선혁명은 매우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초행길을 걸어가야 하였으며 아직 력사가 모르는 가장 준엄하고 간고한 길을 헤쳐나가야만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새형의 당이 없이는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었다.

참으로 로동계급의 새로운 당인 주체형의 당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 당창건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하나의 사상으로 혁명대오를 일색화하기 위한 장기간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에 충직한 새세대 공산주의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나고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대렬의 확고한 통일이 실현되였으며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는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당이 그 어떤 폭풍에도 드놀지 않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따라나가는 혁명적인 당으로 계속 강화발전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뿌리가 내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직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해방직후 조성된 나라의 정치정세는 당의 창건을 매우 긴급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해방된 우리 나라의 정세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었다. 한없는 감격과 흥분 속에서 민족적해방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혁명기세는 터진 화산과 같이 높았으며 반동세력은 인민대중의 혁명기세에 눌리여 머리를 쳐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혁명의 앞길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이게 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군정을 실시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매국적반동세력을 적극 비호조장해나섬으로써 남조선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무대로 전변시키였다.

앙양된 인민대중의 혁명기세에 눌리여 기를 못펴고있던 반동세력은 미제가 상륙하자 그에 기대를 걸고 때를 만난듯이 날뛰기 시작하였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반동세력을 규합하여 각종 반동적 정당들과 단체들을 조작해내고 혁명력량을 분렬시키고 인민대중을 반동의 길로 끌어가려고 꾀하였다. 그뿐아니라 혁명의 배신자들과 각양각색의 정치적투기분자들이 나타나 해방직후의 혼란된 정세를 자기의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 하였으며 인민들을 자기 편에 끌려고 하면서 근로대중의 조직적결속을 방해하였다.

특히 지난날 조선혁명을 말아먹은 종파분자들이 또다시 혁명가의 탈을 쓰고 기여나와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맑스-레닌주의당건설원칙과 어긋나게 당을 창건하려고 하였으며 지어 그 어떤 《제3당》을 따로 조직하려고까지 함으로써 공산주의대렬의 통일과 참다운 혁명적당건설사업에 막대한 혼란을 조성하였다.

해방직후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았지만 그들은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하고있었으며 조직된 력량으로 건국사업에 참가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는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하루빨리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우며 대중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여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고 우리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5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기치에 확고히 묶어세울수 있었으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새 조국을 건설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하에서 당을 창건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당을 창건하는 사업은 오직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주체적인 당창건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고 그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시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8월 20일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선공산당의 창건과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통일적인 로동계급의 당인 조선공산당을 하루속히 창건하여야 합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6페지)

수령님께서는 우선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단련되고 시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당창건의 믿음직한 조직적골간이 이미 준비되여있는 조건을 정확히 타산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지난날 통일적인 당이 없었던 조건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단련되지 못하고 종파주의사상여독을 청산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항일혁명투쟁에서 육성된 공산주의핵심들이 준비되여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아량있게 교양한다면 능히 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야만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 공산주의대렬의 분렬을 방지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고수할수 있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혁명력량을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공산당을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인 정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 진보적인 지식인들 가운데서 우수한자들로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당조직원칙에 립각하여 종파가 없는 전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전체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강철같은 자각적규률을 확립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당건설사상은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조선혁명의 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정세에 놓여있는 사실을 고려하시여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북조선에 조성된 판이한 정치정세는 남북조선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명을 발전시키며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북조선에 조성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하겠습니다.》**(《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6~7페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복잡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혁명을 빨리 발전시키며 당창건사업을 급속히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야만 각 지방에 조직되여있는 공산당단체들을 유일적으로 묶어세우고 공산주의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실현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를 튼튼히 꾸릴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고 전국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었으며 북조선을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을 방해하는 계급적원쑤들과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시면서 몸소 여러지방에 나가시여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편 항일혁명투사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시여 지방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시고 군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여 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적인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있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은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과제로 나섰던 당창건의 대업을 매우 짧은 기간에 훌륭히 실현할수 있었다.

우리 당창건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써 새시대의 개시와 함께 공산주의운동앞에 제기되였던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 위업은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의 탄생,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창건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여오신 불면불휴의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그이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또하나의 위대한 업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창건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아가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6~28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됨으로써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험난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헤치고 여러단계의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간고한 조선혁명을 끊임없이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당창건 첫날부터 전당과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의 창건은 고난에 찬 우리 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끊임없이 전진시키게 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게 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고질로 되였던 종파의 오물을 쓸어버리고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 하여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조직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당내투쟁을 강력히 벌릴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킬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의 창건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조선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를 없애버리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게 하고 당과 대중을 끊을수 없는 하나의 혈맥, 주체형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지게 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으로 우리 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섰던 새형의 당창건의 과업은 빛나게 해결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으로 하여 국제공산주

의운동에서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가장 훌륭히 감당해나갈수 있는 새형의 혁명적당이 태여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전투적인 전위부대의 출현으로서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륭성번영하는 오늘의 로동당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 이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 무궁한 번영과 행복의 원천이다.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때 우리 인민의 휘황한 앞날과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의무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순결하게 차넘치게 하고 그 어떤 잡사상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통일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철두철미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또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우리 당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영원히 생신하고 혈기왕성한 전투적인 당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강력한 정치적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주체의 기치따라 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

# 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다

공산주의자들의 삶의 가치는 그가 수령께 얼마나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어떻게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육체적생명보다도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친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하여 그들의 혁명적생애는 그처럼 빛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첫째동생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하였던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시였다.

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께서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높은 뜻을 받들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싸우시였다.

실로 김철주동지의 생애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빛나는 혁명적생애였으며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매한 혁명가적품성은 모든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불멸의 귀감으로 된다.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불굴의 혁명정신과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위훈, 고귀한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을 언제나 충성의 정열로 뜨겁게 해주고있으며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생애는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 위대한 혁명가의 고귀한 생애

공산주의자의 가장 본질적징표는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이 개척한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 다바쳐 싸워나가는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의 생애는 가장 값높고 보람찬것이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새력사를 창조하는 인민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혁명사상과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생명도, 가진도 다바쳐 투쟁하시였다.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조국광복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한생을 아낌없이 바치시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산 모범을 최고의 높이에서 보여주시였다.

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께서는 1916년 6월 12일 평양시 만경대(당시 평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선구자이신 강반석어머님의 둘째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께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는 한편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으로 가득찬 당시 사회의 모진 풍파과 시련을 겪으시면서 성장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시기는 우리 인민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로 전락된 일대 민족적수난의 시기였다.

어리신 시절부터 매우 슬기롭고 총명하시고 도량이 넓고 정의감이 강하시였으며 대바른 성품을 지니고계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험난한 투쟁의 길을 헤쳐나가시는 부모님을 따라 고향 만경대를 떠나 강동, 중강진을 거쳐 이국땅인 림강, 팔도구, 무송과 안도에서 파란곡절과 시련에 찬 로정을 걸으시면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음과 불행을 뼈저리게 체험하시였으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면서 일찍부터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정신을 굳게 가지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때 벌써 한날 순진한 소년이 아니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아버님께서 서거하신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위대한 혁명가정의 뜻을 이어받아 열렬한 혁명가,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억세게 투쟁의 길에 오르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나라 소년들의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사업에 적극 참가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몸소 창간하신 신문 《새날》의 발간사업을 적극 도와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리고 강반석어머님의 방조밑에 김철주동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신문 《새날》은 중단없이 계속 발간되였으며 광범한 지역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강반석녀사와 김형권동지의 지하혁명사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도와나서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새날소년동맹의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지하혁명사업을 돕는 어려운 실천활동을 통하여 소년시절부터 벌써 자신의 혁명적수양을 꾸준히 쌓아나가시였으며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열정과 난관앞에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지닌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공산주의자로 성장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일찌기 공청생활을 시작하시였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동만지방농민들의 추수투쟁시기 안도지방농민들을 《3.7》제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전기간을 거의 지하혁명사업에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17살때부터 공청지방조직의 책임자로, 지하정치공작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지방혁명조직을 통하여 몸소 육성하신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선발하여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오에 파견하시였으며 항일유격대의 무장장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공동전선로선을 빛나게 관철하시기 위하여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반일부대에 들어가시여 당시 동요하고있던 반일병사들을 인내성있게 교양하시여 그들과의 공동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지방정치공작을 위해 치창즈를 떠나 연길현일대로 나가시다가 연길현 석인구(이전 유격구)근방에서 일제침략자들과 불의에 조우하여 달려드는 적들과 영웅적으로 싸우시다가 1935년 6월 14일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시였다.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신 김철주동지의 생애는 비록 길지 않았으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견직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비범한 수완과 사람들을 아량있게 포섭하는 넓은 포용력,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열정, 진실하고 소박하며 겸손한 인민적품성으로 하여 인민들과 동지들 속에서 높은 신망과 존경과 위신을 지니고계시였다.

김철주동지의 혁명적생애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어떻게 살

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위대한 본보기이다.

참으로 김철주동지의 생애는 혁명가의 가장 값높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생애였다.

##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혁명가적풍모에서 가장 빛나는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것이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언제 어데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았으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새날소년동맹에서 사업하시던 시기에 비록 나이는 어리시였으나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시기 위하여 정치학습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따뜻한 가르치심과 이끄심에 의하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열심히 탐독하심으로써 벌써 소년시절에 높은 혁명의식과 정치적식견을 지니시게 되였으며 동지들의 다함없는 경탄을 불러일으키시고 높은 존경을 받으시였다.

한번은 새날소년동맹원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살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론쟁에서는 우리가 잘살려면 돈을 없애야 한다, 부지런히 일하여 돈을 모으든가, 일본천황놈의 돈궤짝을 빼앗아다가 모든 조선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지주를 없애야 한다, 일제놈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론쟁을 다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놓으시였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당장 돈을 없앤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일본천황놈의 돈궤를 빼앗아온다고 하여 모두가 다 잘살게 되는것도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못사는것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조선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기때문이며 놈들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지주, 자본가놈들이 또한 우리 농민들과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새날소년동맹의 투쟁목적대로 우리들이 조국강토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지주, 자본가들이 판을 치는 낡고 썩은 이 사회를 뒤집어엎은 다음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새 사회를 세워야만 우리 같은 조선사람들이 모두 잘살수 있다고 본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처럼 어리실때부터 모든 사회현실을 높은 정치적식견과 계급적안목으로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평가하시여 혁명동지들을 고무하시였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뿐아니라 때와 곳을 가리시지 않고 농민들과 청년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해설선전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실로 김철주동지는 세련된 정치선동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은 김철주동지의 사업과 생활에서의 확고한 철칙이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시도록 사소한 근심이나 걱정도 끼치지 않게 하는것을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조선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영예로 여기시고 사업하며 생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우려는 불같은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계시던 김철주동지께서는 1932년 9월 어느날 그이를 찾으시여 항일유격대에 받아줄것을 요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항일유격대에 입대하려는 동생의 그 절절한 소원을 받으실수 없으시였다.

그것은 김철주동지께서 나어린 몸으로

혁명조직에서 단련되여 유격대의 시련을 이겨낼수는 있었으나 계속 지하혁명조직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미 그 토대를 쌓으신 안도지방의 혁명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항일무장투쟁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이 혁명의 리익에 더 유익하였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공청조직을 키우는 일은 지금 손에 총을 잡고 싸우는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고 나가자면 반드시 그 후비대인 공청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래야 생기발랄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도 빨리 꾸릴수 있다. 또한 공청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조선혁명의 주력군도 튼튼히 꾸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받으시면서 김철주동지께서는 수령님께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친것을 가슴아프게 느끼시며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그 어떤 풍파에도 꿋꿋이 산며 싸워나갈 굳은 맹세를 새롭게 다지시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그후 모든 힘과 정력을 공청조직과 반일소년조직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수령님의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는데 쏟아부으시면서 억세게 싸워나가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안도현과 연길현을 비롯한 광활한 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나가시면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시고 수많은 공청원들과 청년들을 교양육성하여 항일유격대에 입대시키시고 항일유격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의 요구라면 언제 어데서나 물불을 헤아리지 않으시였으며 혁명의 길에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시면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관철해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산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항일유격대창건초기에 무장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김철주동지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몸소 무기획득의 산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한때 그이의 지도밑에 있던 안도공청구위원회산하조직들에서 15명의 공청원들이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유격대로 가는 공청원들이 무장을 메고 입대하도록 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시였다.

그리하여 김철주동지께서는 양초구에 둥지를 틀고있던 악질적인 위만군의 무장을 해제할 대담한 계획을 세우시고 두명의 유격대원을 인솔하시고 불의에 위만군병영을 습격하시였다.

이 습격전에서 적의 무장 16정을 빼앗아 유격대에 입대하는 공청원들에게 메워줄수 있었다.

이 승리는 화룡, 안도의 유격부대와 두만강연안의 혁명조직들에 있어서 큰 경사였다.

항일무장투쟁초시기 일제의 민족리간정책에 속은 중국인반일부대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덮어놓고 적대시하면서 학살하는것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반일부대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항일무장투쟁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문제로서 조선혁명앞에 심각하고도 날카로운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철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반제공동전선로선과 숭고한 모범을 누구보다도 먼저 받들어나가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였다.

1933년 여름 대전자의 구국군부대 1,000여명은 일제와 그에 투항변절한 반동군벌들의 압력에 겁을 먹고 투항하거나 토비화될 위험성이 날을 따라 더욱더 농후해지고있었다. 급변하는 사태를 깊이 통찰하신 김철주동지께서는 동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반일부대에 들어가시여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일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싸우자면 조선인민혁명군과 련합해야 한다는것을 꾸준히 설복시키시였다.

김철주동지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구국군부대는 조선인민혁명

군과 련합전선을 펴게 되였다. 연길현 삼구와 싼도만일대에 산재해있던 반일부대의 큰 집단도 김철주동지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반제공동전선에 합류되게 되였으며 그들중 적지 않은 반일구국군병사들이 뒤날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되여 용감하게 싸웠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또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와 어긋나는 그 어떤 경향에 대하여서도 추호의 용서없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시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시였다.

한때 일부 좌경분자들은 청년들과의 사업에서 좌경적구호를 들고 공청사업의 강화발전에 큰 장애를 조성하고있었다.

그들은 지식이 부족하다느니, 나이가 어리다느니, 성격상 어떻다느니 하면서 기본계급출신의 많은 청년들을 공청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1933년 왕청현공청확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김철주동지께서는 좌경기회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과 처사를 신랄히 비판하시고 로동자, 농민 출신의 청년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시여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시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꾸준히 단련시켜 우수한 청년들을 공청에 받아들이여 공청대오를 확대하시는 한편 단련된 수많은 공청원들과 청년들을 항일유격대에 파견하시였다.

좌경분자들은 반일부대와의 사업에서도 그릇된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들과의 공동전선을 회피하거나 반대해나섰던 것이다.

좌경분자들의 주장이 매우 유해롭고 반동적인 견해라는것을 깊이 헤아리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정연한 론리로써 그들의 해독적견해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반일부대와의 사업에 앞장서시여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심으로써 반제공동전선로선을 적극 옹호하고 빛나게 관철해나가시였다.

참으로 김철주동지께서는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서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불굴의 혁명적의지로 싸워나가신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였다.

## 참다운 인민적품성의 고귀한 모범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은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쑤들에게는 무자비하고 날카로우며 인민들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너그러운것이다.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인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공산주의적품성은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며 자기 인민을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인민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 인민으로 만들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며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을 조직동원함으로써만 조국의 광복도 인민의 자유와 행복도 이룩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김철주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인민의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무자비한 반면에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동지들을 무한히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시는 숭고한 공산주의적품성, 혁명가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희생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시였다.

1933년 10월 어느날, 적《토벌대》놈들이 불의에 연길현 석인구유격구에 달려들었다. 짙은 안개를 리용하여 마을로 달려든 적을 먼저 발견하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이 위급한 순간에 적《토벌대》놈들의 침습으로부터 유격구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장교놈을 쏴넘기고 적들을 마을의 반대방향으로 유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상당하시여 더 운신하기 힘들게 되였으나 인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오직 한마음으로 다시 결연히 일떠서 적을 끌고 달리시였다. 김철주동지의 자기희생적인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적《토벌대》놈들의 불의의 침습은 좌절되고 인민들의 안전이 보장될수 있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인민들을 옳은 혁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싸우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세찬 불길에 질겁한 일제놈들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끊어버리고 인민들의 앙양된 혁명기세를 꺾어보려고 동만일대에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놈들의 야수적인 《토벌》에 의하여 안도지방인민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혁명조직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철주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해 혁명조직들은 복구되고 금창, 고동창, 양초구일대는 물론 대전자, 푸르히, 대사하 등 안도현일대에서는 다시금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김철주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에는 한량이 없었다. 그러기에 인민들은 그이를 끝없이 따르고 존경하였다.

이렇듯 김철주동지는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신 참된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동지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지만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보존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09~410페지)

김철주동지께서는 준엄한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이 정치적생명을 언제나 귀중히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수행에 충실할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그러기에 그이의 지도를 받는 혁명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꿋꿋이 싸워나갈수 있었다.

한때 안도일대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적들의 《토벌》과 놈들이 감행하는 만행에 겁을 먹고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우선 혁명조직성원부터 한사람 한사람 찾아내여 인내성있게 교양하시면서 그들이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다시금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언제나 동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보다 더 크게 여기시였으며 동지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깊이 심려하시였고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혁명동지들에 대한 사랑은 한없이 뜨겁고 극진하면서도 또한 원칙적인것이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시였기에 동지의 잘

못과 결함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동지들의 결함을 제때에 따뜻하게 깨우쳐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두룡봉지방의 사업을 지도하러 나가셨다가 공청원 두 동무에게 공청원 차동무를 공청회의에 긴급히 참가시킬데 대한 통신련락임무를 주신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차동무를 찾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오고말았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조직의 분공을 철저히 집행하지 못한 두 동무를 신랄히 비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청회의는 공청원들의 중요한 조직생활일뿐아니라 공청원들을 혁명투사로 단련육성하는 학교이다. 그러므로 공청원들은 조직생활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알고 거기에 충실히 참가해야 한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처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강의한 원칙성,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으로 동지들을 꾸준히 교양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무한히 겸손하시고 소박하시며 례절바른 성품을 지니고 계시였으며 생활에서는 언제나 락천적이고 소탈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상 혁명군중속에 계시면서 군중속에서 배우며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자신의 풍부한 예술적재능으로써 다양한 연예활동을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청년들을 락천적으로 생활하게 하시였을뿐아니라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참으로 자신보다 동지들과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항상 겸손하고 소박하시며 너그러우시면서도 강의하신 김철주동지의 고매한 덕성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불멸의 귀감이다.

* *

조선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청춘을 바쳐 싸우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시였다.

김철주동지의 혁명적생애는 매우 짧았으나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충성의 탑으로 깊이 간직될것이다.

우리는 김철주동지께서 그러하였던것처럼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언제 어데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시각은 더욱더 가까와오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세차게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비약과 대혁신을 일으켜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산좋고 물맑은 3천리금수강산을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꾸리며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상혁명수행의 중요요구

김 영 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 교시와 공업일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로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은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대진군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계속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상혁명을 잘 수행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하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비상히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으로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사상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수행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5페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은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법규생활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상혁명수행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 그 사명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

몸과 건강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면서 동지들의 결함은 제때에 따뜻하게 깨우쳐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두룡봉지방의 사업을 지도하러 나가셨다가 공청원 두 동무에게 공청원 차동무를 공청회의에 긴급히 참가시킬데 대한 통신련락임무를 주신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차동무를 찾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오고말았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조직의 분공을 철저히 집행하지 못한 두 동무를 신랄히 비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청회의는 공청원들의 중요한 조직생활일뿐아니라 공청원들을 혁명투사로 단련육성하는 학교이다. 그러므로 공청원들은 조직생활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알고 거기에 충실히 참가해야 한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처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강의한 원칙성,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으로 동지들을 꾸준히 교양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무한히 겸손하시고 소박하시며 례절바른 성품을 지니고 계시였으며 생활에서는 언제나 락천적이고 소탈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상 혁명군중속에 계시면서 군중속에서 배우며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자신의 풍부한 예술적재능으로써 다양한 연예활동을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청년들을 락천적으로 생활하게 하시였을뿐아니라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참으로 자신보다 동지들과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항상 겸손하고 소박하시며 너그러우시면서도 강의하신 김철주동지의 고매한 덕성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불멸의 귀감이다.

*　　　　*

조선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청춘을 바쳐 싸우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시였다.

김철주동지의 혁명적생애는 매우 짧았으나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충성의 탑으로 깊이 간직될것이다.

우리는 김철주동지께서 그러하였던것처럼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언제 어데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시각은 더욱더 가까와오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세차게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비약과 대혁신을 일으켜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산좋고 물맑은 3천리금수강산을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꾸리며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상혁명수행의 중요요구

김 영 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 교시와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로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은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대진군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계속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상혁명을 잘 수행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하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비상히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으로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사상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수행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5페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은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법규생활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상혁명수행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 그 사명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

초하여 작성된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고있으며 여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혁명사상적으로, 법적으로 옹호하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주권을 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하는 부르조아독재의 주된수단으로 되지만 사회주의사회의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은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고 간첩들의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모든 법규범과 규정의 특성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법적통제를 옳게 결합시킨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들은 우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법규생활을 통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혁명적본질과 그 정당성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을 무조건 빈틈없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그들은 법규생활과정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는것을 체득하게 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법규생활과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활동과정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넋과 삶으로,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는 교양과정으로 된다.

우리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의 교양자적역할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에는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생활원칙이 반영되여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은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 조직성, 집단주의정신을 배우게 되며 집단과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되고 사상정신적으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된다. 그들은 또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로동에 성실히 참가해야 하며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높은 계급적자각을 배양하게 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된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이와 같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

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사람이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상혁명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이 아닐뿐 아니라 통제적역할도 수행한다.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을 가장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혁명은 끊임없는 사상교양과정인 동시에 완강한 사상투쟁과정이다. 이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과 함께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을 잘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는 현상은 다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 낡은 사상 잔재는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의 의식속에 뿌리박힌것으로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그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는다. 낡은 사상 잔재는 아스팔트틈사이로 올라오는 풀과 같이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머리를 쳐들게 된다. 매우 보수적이며 집요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자면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사상투쟁,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개조하는 사업이 사상분야에서 하나의 혁명인것만큼 사상투쟁, 법적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상혁명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법이 필요없게 될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끊임없이 감행되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함께 법적통제, 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자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 법적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속에 낡은 사상이 침습할수 없게 하며 그것이 되살아나거나 퍼질수 있는 조그마한 틈도 없게 한다. 여기에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하며 극복하여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방도들이 제시되어있다. 그러므로 법규생활을 강화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적잡귀신의 해독성과 반동성을 더 잘 알게 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또한 그들이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으며 소극성, 보수주의, 권태증, 안일해이한 현상 등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상혁명수행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자본주의적인것, 비로동계급적인것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이 전면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은 사람들의 머리속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도덕생활의 모든 분야에도 있으며 그것들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는 이

터한 낡은 비로동계급적인것들을 말끔히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

우리의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제도와 질서,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으로 충만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착취사회의 유물인 온갖 낡은 제도와 질서,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폭넓고 심도있게 진행할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게 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촉진시킨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사회경제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사회주의건설을 잘해야 인간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을 전면적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사회주의건설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426페지)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혁명의 위력한 수단인뿐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한두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진행된다. 수백만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동원시키자면 그들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준칙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들은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고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대로 일하며 생활하게 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전체 인민의 조직된 력량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집중적으로 동원시킬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들은 인민경제계획에 법적의무성을 부여하고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계획과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게 함으로써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그것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한것으로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시킨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며 정치적사업이다. 그것은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조치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을 혁명화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혁명적방법, 정치사업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기때문이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며 수령님의 높은 은덕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게 된다.

이렇듯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은 우리 나라 현실에 훌륭히 구현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실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혁명적방침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전과정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대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법규생활을 강화하여야 사상혁명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유일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그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데서 높은 자각성과 성실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 법규범과 규정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우리의 모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나라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구현하고있는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법규범과 규정의 본질을 똑똑히 알수 없으며 그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해나갈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어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의 요구에 맞게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다. 그래야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이 법적형식으로 집대성된 백과전서적문헌이다. 주체의 혁명적대법전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나라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의 기초로 된다. 여

기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무장할수 있고 헌법에 기초한 법규범과 규정의 본질과 요구를 똑똑히 알수 있으며 그것을 충분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법규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정권기관을 비롯한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혁명정권을 비롯한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은 우리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들의 직접적인 집행자이다. 따라서 우리의 법규범과 규정들이 인민들속에서 옳게 집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이 부문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혁명정권과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 일군들은 당과 혁명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자라는 높은 영예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을 집행하는데는 반드시 높은 정치적사상성이 요구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45페지)

혁명정권기관, 사회안전, 사법, 검찰 부문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혁명적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들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법정책을 정확히 집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정권을 비롯한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근로자들속에서 우리의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들을 해설선전함으로써 모든 법집행기관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어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모험적인 전쟁도발에서 찾으려고 공공연히 미쳐날뛰는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혁명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각종 파괴암해분자들이 준동할수 있는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을수 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법규범과 규정들을 없애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들을 수정보충하고 더 완성시키는것은 법규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 혁명이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것만큼 법규범과 규정들도 그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금 있는 법규범과 규정들은 수정보충하며 끊임없이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남은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발전하는 현실보다 뒤떨어진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대중의 자유로운 사회정치생활과 생산활동을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법규범과 규정들은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70일전투속도》, 새로운 천리마속도의 혁명적폭풍을 일으키며 력사를 주름잡아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오늘의 강렬한 현실의 요구에 맞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을 다시 검토하고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수정보충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이미 있는 법규범과 규정들은 수정보충하며 없는것은 새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워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법규범과 규정들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사업에 동원되는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며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사회주의헌법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여야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자연과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교양사업과 법적통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교양과 법적통제를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근로자들이 혁명적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집단과 조직에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집단생활과 조직생활에 참가하며 그 속에서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 훌륭히 구현하는 과정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상 잔재와 뒤떨어진 생활관습이 남아있고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상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공적으로 벌리는 동시에 정권기관들은 낡은 사상이 되살아나고 또 생겨날수 있는 모든 요소와 틈을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와 법적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법적통제를 옳게 결합하여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할수 있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고도로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따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맑은 피가 차넘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전체 인민을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

고　　송　　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3월에 진행된 공업연성자회의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날로 유족해지고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력사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더욱 성실히 참가하여 이르는곳마다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함으로써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지상락원을 더 빨리 일떠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입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1페지)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공산주의사회는 결코 구호만 불러서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물질적부는 하늘에서 스스로 떨어지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원래 로동은 자주적인 존재인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인 활동이다. 로동은 인간사회의 물질적부와 행복의 원천이며 인간사회의 존재를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물질문화적재부는 그 모두가 근로대중의 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로동이 없이는 사람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로동을 떠나서 인류사회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들은 로동생활을 통하여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될수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나갈수 있다.

자주적인 존재인 사람은 로동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일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면서 허송세월하는것은 인간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은 지주,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하여 마지못해 고된 로동에 끌려나가며 로동은 고통스러운것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로동하는 사람이 천대와 멸시를 받고 오히려 놀고먹는자들이 주인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로동은 자기자신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것으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은 그 어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여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여 일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덕에 놀고먹는것이 가장 수치스러운것으로 되고있으며 로동에서 모범이 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

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새로운 인간으로 철저히 준비되기 위하여서는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집단로동은 근로자들을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소유한 새로운 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집단로동은 인간교양의 훌륭한 학교이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바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개조될수 있다.

사람들은 집단로동에 참가하여 그 과정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워나가며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정신 그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공산주의적 새 인간들이 지녀야 할 높은 기술문화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집단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 공산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갈 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지 못하고 그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며 놀고먹기를 좋아한다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이룩한 로동의 열매마저 다 말아먹게 된다.

물론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지금보다 일을 더 헐하게 하면서 물질적부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라고 하여 아무 일도 안하고 기저 놀고먹는 사회가 아니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로동은 사람들의 생활상요구로 되며 그때에 가서도 로동은 의연히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남아있게 된다.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생활이 보다 유족하고 행복해질수록 더욱 심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질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마련되지만 사회주의제도에서라고 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가 저절로 세워지는것은 아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낡은 사상은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그것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이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그것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도 계속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밖으로부터 온갖 반동사상의 독소가 침습할수 있으며 일하기 싫어하고 날라리를 부리는 수정주의사상의 영향도 받을수 있다.

만약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속에서 오늘의 생활에 만족하여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며 로동규률을 지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때문에 생활이 유족하고 행복해지는데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날에 날마다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사람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의 계승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하루이틀

에 되는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을 요구한다.

혁명과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새로운 세대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떠메고나가게 된다.

새세대들은 혁명의 시련을 겪지 못하였고 로동에서 단련되지 못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경험도 많지 못하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꾸준히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부르죠아반동사상과 수정주의사상에 물젖어 안일부화한 생활에 빠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수행해나갈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사회를 끝까지 건설할수 없게 되며 지어는 선렬들이 이룩한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고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철저히 배양함으로써만 그들이 혁명의 계승자로 훌륭히 준비될수 있으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빛나게 건설해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모든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는 보람찬 전투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드높은 혁명적의욕을 가지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에 떨쳐나가 로력적위훈을 떨칠 때 우리 조국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며 조국통일의 위업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이렇듯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집단로동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정신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하며 로동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누구나 다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2~43페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만 그들이 로동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각적열성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다.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서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 일할수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며 불리한것은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바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

저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참으로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며 보람찬 로력전선에서 무비의 힘과 위대한 기적을 낳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의 성격과 목적을 똑똑히 인식시키는것이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하에 나라의 부강발전과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로동을 하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자기자신과 사회를 위한데 돌려진다. 따라서 로동의 결과가 크고 사회의 재부가 불어날수록 근로자들의 복리는 그만큼 증진되며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이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되며 전체 인민과 나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으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로동의 성격을 똑똑히 인식하고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하여야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가장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이 빛나게 관철되여나감으로써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으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사업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인민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더욱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의 일터는 언제나 기쁨과 랑만으로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동을 즐기는것과 싫어하는것, 로동을 자각적으로 하는것과 마지못해하는것과의 사상투쟁,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사상과 자본주의사상과의 오래고도 날카로운 투쟁을 거쳐서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4페지)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로동에 대한 온갖 낡은 사상과 그릇된 태도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오랜 기간에 걸치는 고된 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로동에 대한 낡은 사상은 하루이틀에 가셔질수 없다. 그것은 오직 장기간에 걸치는 꾸준한 사상교양사업과 완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뿌리뽑을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책임성이 없고 어려운 일에 적극 투신하지 않으며 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것과 같은 현상은 다 로동에 대한 낡은 사상과 그릇된 태도의 표현이다.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건달을 부리려는 현상, 되는대로 일하거나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지 않으며 자기 맡은 과업을 제때에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자그마한 현상에 대해서도 나힘없이 원칙적인 투쟁을 벌려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립상을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로동을 더욱 헐하고 능률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하며 로력배치를 잘하고 후방공급사업과 로동보호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안전한 조건에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일해나갈수 있게 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아직도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으리만큼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고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도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기준량을 정확히 세우고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자기가 번것만큼 분배를 받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울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로동을 사랑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튼튼히 가지게 할뿐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열매이며 전체 인민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한오리의 실, 한알의 쌀, 한방울의 기름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모든 생산물들과 생산시설들, 문화보건시설들은 우리 인민이 땀흘려 이루어놓은것이며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손만대를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의것과 같이 소중히 거두지 않고 되는대로 거두거나 랑비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서 많이 건설하고 생산하여도 잘 잘살수 없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에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의 공산주의적본질을 똑똑히 인식시키 그들이 사회의 부가운데는 자기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자기도 잘살게 된다는것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재부를 알뜰히 다루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더 빨리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빛나게 건설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는것을 공산주의교양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정확히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을 로동에 성실한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키워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와 혁신으로 불꽃튀는 사회주의건설의 자랑찬 투쟁행정에서 단련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되고있다.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 조국의 모습은 더우더 웅장해지고 있으며 이 땅우에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위한 터전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게 모든것을 뜯기우고 빼앗겨 황폐화되였던 조국의 대지우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을 놓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으며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바치는 창조적로동의 보람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일하는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기적과 비약으로 충성의 나날을 꽃피워나감으로써 당창건 30돐을 빛나는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지상락원을 더 빨리 일떠세우려는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언제나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의 진실한 반영을 위하여

리 효 운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보여주는 예술적갈등에 대한 문제는 리론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예술적갈등문제를 어떻게 리해하며 그것을 창작실천에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뿐아니라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의 진실한 반영을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의 예술적갈등취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운동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문학예술에서 갈등이란 현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이 작품에 반영된것이다. 그것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새것과 낡은것간의 대립과 투쟁을 반영하는 등장인물들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로 나타난다.**

문학예술작품들에서 갈등을 옳게 설정하고 해결하는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작품에 정당하게 반영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의 예술적갈등은 언제나 현실생활에 기초를 두고있다.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예술적갈등은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계급적관계를 반영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습니다.…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6～36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고 착한것에로 지향하며 새것, 진보적인것, 긍정적인것이 온 사

회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마땅히 긍정적이고 모범적인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무한히 충실한 로동자, 농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고상한 생활을 주도적으로 그려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관계를 단일하게 대립과 충돌 속에서 짜고나갈수 없으며 부정선은 설정하지 않을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생활자체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긍정적인것, 모범적인것의 창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긍정적인것, 모범적인것을 기본으로 삼는다는것은 결코 부정선을 그리는것을 무시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에서는 문학예술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새것을 창조할뿐아니라 낡은것을 타파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고 하면서 그렇기때문에 작품창작에서는 마땅히 낡은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당의 이 가르침은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 갈등선, 부정선이 옳게 설정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긍정적인것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것이 있고 적극적인것은 반드시 소극적인것을 동반하는것이 현실이며 투쟁을 통해서 긍정적인것이 승리하고 부정적인것이 극복되여가는것이 생활의 법칙입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2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긍정적인것이 있으면 부정적인것이 있고 긍정적인것이 부정적인것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생활의 법칙이다.

혁명적문학예술은 바로 이러한 생활의 법칙, 투쟁의 법칙을 옳게 반영하여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적모순을 낳을수 있는 사회경제적기초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부정적인것이 없다거나 계급투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그것은 우선 밖으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기 위한 계급투쟁과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이다.

계급투쟁의 이러한 내용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 갈등의 생활적기초로 되고있을뿐아니라 그 성격을 규정하여준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는 반간첩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와 같이 멸망에 직면한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반영한 적대적갈등과 함께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반영한 비적대적갈등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예술적갈등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비적대적모순에 기초한 근로자들내부의 문제,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교양개조되고야마는 부정과의 투쟁에 대한 묘사이다.

이러한 생활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작품에서도 긍정적인것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의 중심에 놓아야 하며 부정적인것은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부정적인것은 적대적갈등의 해결에서와 같이 인간자체를 부정하는것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머

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것으로 그려야 한다.

우리 당의 지도밑에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를 이룩한 인민상계관작품들인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 《로동가정》과 그리고 《압연공》, 《사과딸 때》, 《포구의 처녀들》, 《우리 렬차판매원》, 《처녀지배인》, 《발전의 주인들》, 《바다먼 산촌에서》, 《농산기수》등과 같은 훌륭한 예술영화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벌어지는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을 반영한 예술적갈등을 옳게 설정하고 깊이있게 보여준 대표적작품들의 실례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장엄하게 벌어지는 사회주의건설과 들끓는 생활에서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형식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보수주의, 리기주의, 소극성, 안일해이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등 온갖 사상적잡귀신과의 투쟁과 그 극복과정이 진실하게 그려져있다. 또한 이 작품들에는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 모든 낡고 뒤떨어진것을 이겨나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형적모습이 그려져있으며 우리 당이 밝힌 사상전의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현실주제의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벌어지는 사상투쟁, 계급투쟁을 반영한 예술적갈등은 결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것으로 취급되며 해결되고있다.

당에서는 최근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새로운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제시하면서 특히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깊이 그리며 작품에서 부정선을 설정하고 옳게 해결함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원래 혁명투쟁이란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 선진적인것과 반동적인것간의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새것이 승리하고 선진적인것이 승리하는것이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이다. 따라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이러한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잘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에서 부정선을 옳게 설정하고 그의 극복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80페지)

문학예술의 생명력은 인간생활의 진실하고 생동한 반영에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생활을 추상적인 론리나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현실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야 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요소를 과장하는것은 현실을 외곡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지오며 현실을 미화분식하는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사상교양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 우리 인민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 높이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 장엄하고도 기세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은 사상전의 집중포화에 얻어맞아 산산이 부서지고 주체사상의 일색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혁명적전진운동의 본질적측면을 다양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진실하게,

심도있게 보여줌으로써 생활의 합법칙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술적형상이 진실하게 안겨오지 않는 주되는 요인은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잘 그리지 못하고 긍정과 부정간의 갈등을 사상, 도덕, 륜리 등에서 발로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성격들간의 극적인 인간관계로서가 아니라 생산문제에 대한 단순한 견해상의 차이로 설정한것과 크게 관련되여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술협의회에서 긍정인물의 주장이 채택되거나 생산기술문제에서 긍정인물의 주장이 성공하면 부정인물의 개변이 끝나고 갈등도 해결된다.

이것은 성격발전의 론리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에 맞지 않는 형상방법이며 갈등의 해결방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부정선을 홀시하지 말고 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에서 낡은것의 해독성과 집요성, 새것의 승리를 다양한 화폭속에서 실감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그 작품은 구성에서의 단조로움을 면할수 있을뿐아니라 진실한 화폭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을것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예술적갈등과 부정선을 잘 설정하고 옳게 해결하는것은 또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작품에 부정선을 넣는것은 부정을 허용하고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남아있는 낡은것, 부정적인 요소들을 반대하고 극복하기 위한데 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장애로 되는 부정적인것, 뒤떨어진것을 반대하고 극복하는 사상혁명에 적극 이바지할 때야만 그것은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로서 자기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며 생활에서 나타나는 낡은것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인 주체문학예술은 현실생활에서 낡고 부정적인것을 폭로하고 그와 투쟁할뿐아니라 새것과 선진적인것, 아름답고 모범적인것의 본보기를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며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에 의하여 낡은것, 아름답지 못한것이 극복되여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본보기로 되는 전형적인 인간성격들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임무를 수행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우리의 문학과 예술이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진실하게 그리며 우리 당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담보가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밝혀준 작품에서 부정선을 잘 설정하고 심도있게 그릴데 대한 사상은 혁명적문학예술의 발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를 풀어줌으로써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비약과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또한 부정을 대담하게 내놓고 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속에서 새것이 승리하는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정확히 반영할데 대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본요구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을 거부하는 기회주의적견해에 결정적타격을 주는 혁명적방침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진실하게 반

영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무엇보다도먼저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져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예술일군들이 자기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68페지)

예술적화폭에 그려진 생활은 언제나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에 의하여 선택되고 평가된 생활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아무리 예술적기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없다면 모든 사물현상속에 있는 긍정과 부정을 전반비례적으로 옳게 결부시키볼수 없으며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새것의 승리를 확증할수 없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야만 형성된다.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인민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올바르게 이끄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오직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새것이 승리하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찬 전진운동을 옳게 파악할수 있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풍부히 하는것은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창작가가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가자면 창작가자신이 현실속에 뛰여들어가야 하며 그속에서 생활체험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지난날에 체험한 생활에 대한 표상과 낡은 지식으로써는 도저히 형상해낼수 없으리만큼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창작가들의 생활체험은 문학예술을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세우고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무기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창작가들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탐구하고 체득하여야 한다. 이런 때만이 자신을 투쟁속에서 단련하고 혁명화할수 있고 현실생활과 근로대중의 사상감정그대로의 산 인간을 그릴수 있다. 이러한 창작실천은 세련된 창작적기교와 반드시 결합되여야 한다.

이처럼 창작가에게 있어서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 깊고 폭넓은 생활체험, 예술적기교의 완성은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잘 구현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들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정책이 구현되는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체험을 폭넓게 하며 예술적기교의 완성을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터운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당사상전선의 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리 호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지방공업은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언제나 우리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심려하고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최근에 하신 일련의 강령적교시들에서 나시금 지방공업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짧은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여 급속히 높아지고있는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심화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의 또 하나의 뚜렷한 표시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깊이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훌륭히 실현해나가며 10월의 혁명적명절을 더욱 기쁘고 흥성거리는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　　*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의 하나이다. 특히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며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추켜세우자면 반드시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갈 때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성과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중앙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리용하는 한편 지방의 창발성과 대중의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하여야만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7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관리밑에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널리 동원하여 일

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빠른 길이다.

지방공업은 지방의 원료와 자재, 유휴로력을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큰 투자없이 짧은 기간에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생산기지를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켜 생산과 공급을 더 원만히 할수 있게 하며 사회적로동의 랑비도 없앨수 있게 한다. 지방공업을 건설하면 온 나라의 지방마다에 공업을 골고루 배치하고 지방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폐단을 없이 할수 있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공업과 농업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를 빨리 줄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여러가지 농산물과 부업생산물들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하게 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 특히 산간지대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며 농업생산과 부업생산을 자극하여 농촌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또한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주고 공업의 선진적인 기계기술과 생산문화, 기업관리방법을 널리 보급하여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과 갖가지 부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면 녀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지는 2중적로력부담을 많이 덜어줄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에 있던 많은 녀성들이 지방산업공장들에 나가 일하게 됨으로써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도 촉진되게 된다.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매개 군과 도들에서 지방예산제를 실시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더잘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지방예산의 수입원천은 사회주의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이며 여기에서도 그 대부분이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들어오는것이다.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세소상품생산을 부쩍 높이고 식료가공품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널리 공급한다면 지방예산수입을 훨씬 높일수 있다.

모든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나갈때 우리는 매개 도마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며 나머지 자금을 국가에 바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중앙예산의 축적금을 전적으로 확대재생산에 돌릴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우리가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나갈 때 축적과 소비를 맞추는데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수 없는 이 거창한 사업을 더 잘할수 있으며 국가가 확대재생산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방상견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중소규모의 공장들을 많이 차려놓으면 만약 전쟁이 일어나 큰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전쟁물자를 충당할수 있으며 지방들에서 자체로 인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한다.

오늘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특히 경사스러운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6개년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 수행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자면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많이 가지고있는 지방공업부문에서 일

대 비약을 일으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5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한것은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경제건설경험은 지방공업의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한다면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더욱 촉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가려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원료와 자재, 로력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때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수 있으며 전반적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서뿐아니라 경사스러운 당창건 30돐을 맞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향상되고있다. 근로자들에게는 더많은 국가적혜택이 돌려지고 그들의 화폐수입은 계통적으로 늘어나고있으며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이 마련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자면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그 가지수와 량을 부쩍 늘이며 가구들과 부엌세간을 비롯한 가정용품들을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그래야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10월의 혁명적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골고루 더 잘 가닿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생활상요구, 지방공업발전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현시기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과 매개 가정에 절실히 요구되는 가정용품들을 생산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민소비품생산을 혁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철제일용품생산에 힘을 넣어야 한다.

철제일용품은 일용품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에게는 그 생산을 다그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많다. 오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들은 고급철제일용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철제일용품을 많이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잘 타산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맵시있고 간편한 부엌살림도구들과 면도칼, 라이타, 손톱깎개와 같은 세소상품들, 마치, 끌, 줄칼, 문고리, 수술칼 등 여러가지 공구 및 전구류, 의료기구들을 많이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제일용품과 함께 수지일용품생산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에 염화비닐을 비롯한 합성수지원천이 많은 조건에서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귀중한 원료, 자재를 쓰지 않고서도 색갈이 곱고 다양한 여러가지 수지일용품을 많이 만들어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앙경공업공장들과 함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합성수지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머리빗, 단추, 비녀 등 여러가지 세소상품과 비옷, 가방, 케스, 트렁크를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유리 및 도자기제품,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목제일용품, 화학제품을 비롯한 일용필수품들을 더많이, 더좋게 생산하며 방직공업, 피복공업, 식료공

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지방공업부문에서 소비품생산을 위한 일대 전투를 벌려 이 모든 가지수들을 빼놓지 않고 다 만드는것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이 걸어온 30년동안 이룩한 자랑찬 성과가 인민들의 실생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며 특히는 6개년계획의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하여 투쟁해온 보람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통하여 더욱 활짝 꽃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여나갈 때 영광스러운 당창건 30돐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풍만하게 할뿐아니라 전반적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오늘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일떠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정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와 지방공업의 기술경제적특성,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지방공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인민이 195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이후 지방공업발전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빛나는 결실들은 그모두가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대 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높은 일념의 충성심,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간다는 높은 책임성과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방공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억세게 싸워나간다면 많은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동원하여 생산을 빨리 늘여나갈수 있다.

지방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잘 타산하며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찾아내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게 해야 한다.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도처에서 있는 예비를 모조리 동원하여 새 품종을 더 늘이며 인민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소비품이라면 무엇이든지 더많이 만들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졌으며 도처에서 질좋은 상품을 요구하고있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사실상 제품의 생산량을 높이는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이 진심으로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소비품을 생산하는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기술을 혁신하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생산자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질을 한계단 더 높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점들에 질좋은 소비품들이 차넘치게 하자.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오늘 지방공업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지방공업전사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워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 구내와 주변은 공원과 같이 알뜰하게 꾸리며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하여도 우리의 근로자들의 미감에 맞게 알뜰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방대한 생산능력을 가진 지방산업공장들이 이르는곳마다에 일떠섰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한다면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을 부쩍 늘일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방산업공장들을 더잘 정비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매개 군마다에 집중적인 지방원료기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중소화학공장들과 압연, 연신 기지 그리고 채취원료기지를 꾸려나갈 때 늘어나는 지방공업의 원료를 자체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물감, 안료, 도료, 접착제, 탄산소다,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중소화학공장을 건설하여 여러가지 기초원료제품과 화학제품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화하자저의 수요를 자체로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압연, 연신 기지를 비롯한 철제품 및 수지일용품 소재기지를 잘 꾸려 필요한 규격의 철제품, 가는 철선과 관, 염화비닐, 염화비닐레자 등 철제품과 수지용품 생산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여 생산공정을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것은 지방공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술적개건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91페지)

지방공업의 기술적개건을 다그쳐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높이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필요한 단능기계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기계설비들의 기종을 맞추며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기계설비들이 언제나 만가동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의 기술적개건을 비롯하여 이 부문의 전반사업을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방공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이 농민을 지도하고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며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것처럼 공업부문안에서도 중공업이 경공업을 도와주고 중앙공업이 지방공업을 도와주며 큰 공장이 작은 공장을 도와주는 원칙이 관철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

을 높이 받들고 중앙공업이 지방공업을 도와주며 큰 공장이 작은 공장을, 앞선 공장이 뒤떨어진 공장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일군들은 지방공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획에 예견된 원료,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공업원료기지를 비롯하여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유능한 기술자들과 고급기능공들을 보내여 선진기술과 경험을 배워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실어다줌으로써 이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지방공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열쇠는 시, 군 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들이 지방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성군의 경험은 군내의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기본이 군당사업을 잘하는데 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지도일군들이 당정책을 사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70페지)

경험은 시, 군 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지방공업발전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줄 때 이 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시, 군 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지방공업발전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 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을 각종 통신, 야간 학교에 보내며 모든 지도일군들을 정치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기술지식을 가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경제관리일군으로 키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지방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해설침투함으로써 모두가 다 《70일전투속도》를 뛰여넘는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며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적극 동원하는 등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쓰게 하여야 한다.

시, 군 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당중앙위원회의 구호를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회령의 지방공업전사들이 지펴올린 《10월의 대축전선물 소비품생산투쟁》에 적극 호응하여 지방공업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높이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운동에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공업에서 새로운 일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앞당겨수행하며 당창건 30돐을 더욱 기쁘고 흥성거리는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

#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리 두 찬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스물다섯해가 지났다.

이 날을 맞이하여 온 나라는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고있으며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쳐부시고 하루빨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하고야말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강점 첫날부터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할 어리석은 망상밑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해왔으며 1950년 6월에는 드디여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가장 흉악하고 날강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놈들은 심히 오산하였으며 우리 인민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오만무례한 미제침략자들의 등뼈를 분질러놓고 놈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와 세계제국주의체계의 붕괴과정을 촉진시켰으며 전쟁 그자체는 제국주의자들을 파국의 위기에서 구원하는것이 아니라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킨다는 진리를 다시금 증명하여주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후 계속 엄중한 위기를 겪으면서 멸망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아세아와 세계 제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기도와 《힘》의 정책은 파탄되고 놈들은 오늘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의 인민들, 국제로동계급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앙양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사이의 투쟁이 날로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전면적으로 무너지가고있다. 미제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드센 공격을 받고 허우적거리고있으며 사면초가의 운명에 빠지고있다. 놈들은 이미 동남아세아에서 얻어맞고 쫓기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도 결코 무사할수 없게 되였다.

멸망이 가까와질수록 제국주의의 강도적본성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더욱더 불안과 공포를 숨기지 못하고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불장난을 더욱 일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놈들의 전쟁책동으로 하여 오늘 세계에는 새로운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칠 징조가 이미 확연히 보이고있으며 혁명정세는 더욱 촉진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침략과 전쟁 책동에 매여달리도 놈들은 살길을 찾을수 없을것이며 그것은 제국주의의 마지막멸망을 촉진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깊이 주시하고있으며 확고

한 전쟁관점을 가지고 놈들과 맞설 단호한 각오와 만단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끝끝내 전쟁모험의 길로 나간다면 천백배의 보복타격으로 원쑤들을 단매에 쳐부시고 놈들의 숨통을 영영 끊어놓고말것이다.

❀ ❀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더욱더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격화시키고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계속 강화하고있으며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시각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22페지)

우리 나라에서 민족분렬의 력사가 30년을 헤아리고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20여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조국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우리 인민이 커다란 민족적 재난과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때문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쟁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에 대한 침략기도를 한시도 버리지 않고 남조선에서 계속 군비증강과 전쟁도발소동을 벌리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일대와 동서해상에서 련일 무장도발을 일삼고있다.

최근에 이르러 미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더욱더 미쳐날뛰고있다.

미제는 아세아 여러곳에서 쫓겨나고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가 빨리 허물어지고있는 오늘 남조선을 더우 튼튼히 틀어쥐고 군사적방법으로 제놈들의 침략목적을 이룩해보려 하고있다.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아세아괴뢰들을 내세워 추진시켜오던 대리전쟁전략이 수치스럽게 파산당한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더 많이 동원하여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무력침략을 감행하기 위한 군사작전체계를 갖추는데로 나가고있으며 그의 주되는 창끝을 조선에 돌리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가 아세아에 있는 《미군 제1신부대의 재편성》이란 구실밑에 남조선강점 침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남조선땅을 핵기지로까지 더욱더 전변시키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에 남조선강점 침략군병력을 4천명이나 더 늘였으며 미제침략군부대에 배속되여있는 남조선괴뢰군을 제놈들의 군대와 교체하는 한편 전투부대 수천명을 새로 끌어들이려 책동하고있다.

지어 놈들은 남조선을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고있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바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은 핵무기와 유도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그것을 전연지대에까지 배치하고있으며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을 남조선에 빈번히 드나들게 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을 단순한 상용무기에 의한 군사기지로뿐아니라 핵무기에 기초한 항구적인 전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있으며 놈들의 새 전쟁 준비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고용군대인 남조선괴뢰군을 새 전쟁마당에 내몰기 위하여 그의 《현대화》에 광분하고있다. 놈들은 1975회계년도에 지난 회계년도보다 훨씬 더많은 2억 5천여만딸라의 군사《원조》를 남조선괴뢰들에게 줄것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땅에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극동최대의 공군기지인 《가데나기지와 맞먹는》 대규모의 공격용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벌써 그 군용지까지 경상북도 북부지대에 확보해놓고있으며 이밖에도 남조선의 여러곳에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할것을

획책하고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울려퍼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구국항쟁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때에 미제침략자들이 그에 역행하여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군사기지를 새로 확장하며 대량살륙무기를 계속 끌어들이는것은 놈들이야말로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이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흉악한 침략자, 전쟁광신자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군사작전지휘체계를 완비하며 침략무력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도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제놈들의 남조선강점군을 골간으로 하고 여기에 남조선괴뢰군무력을 배합하며 일본군국주의 침략무력까지 끌어들여 침략적군사작전체계를 확립하는데 골몰하여왔다.

최근 미제 전쟁우두머리들과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이 《공동의 안보》요, 《남침위협으로부터의 보호》요 하면서 거듭 벌려놓은 군사적모의와 전쟁사환군들의 남조선행각과 전연《시찰》 등은 모두다 《미일한공동작전체계》를 보강완비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조선침략전쟁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책동의 한고리로서 이른바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그리고 《미8군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하였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공동으로 《유도탄사격훈련》이요, 《해상훈련》이요, 《상륙작전훈련》이요 하는것을 련속 벌려놓고있다. 놈들은 지난해말에 《한미합동대군사훈련》을 한데 뒤이어 올해에는 벽두부터 《한미1군단》의 신형장비들을 끌어내여 《기동군사연습》이라는것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오끼나와에 있는 미제침략군 제3해병사단을 끌어들여 남조선괴뢰해군놈들과 《합동상륙연습》을 자주 벌리고있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에로 계속 부추기면서 그들을 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수행에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북과 남의 대립과 반목을 격화시키면서 전쟁준비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놈은 《남침위협》이란 구실밑에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니, 《국력배양》이니 하고 떠들면서 괴뢰군에 《실전태세》를 갖추게 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각종 현대적살인무기와 작전장비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수없이 저지르고 지어는 괴뢰륙해공군을 동원하여 동해와 서해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순찰선과 어선단에 대한 무장공격을 가하는 범죄적인 해적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땅과 바다, 하늘에서 쉴임없이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소동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빈번한 군사적도발은 놈들의 전쟁광증이 오늘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전쟁도발책동은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아세아침략의 교두보로 만들려는 놈들의 침략정책의 계속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아세아를 지배하여야 하며 아세아를 지배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을 지배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일제의 패망을 기화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30년동안이나 그곳에 침략지지반을 닦아온 미제침략자들이 오늘 아세아에서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허물어져가고있는 조건

에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지탱점으로서 남조선을 기어이 틀어쥐고있으려고 발악하고있으며 아세아전략의 예봉을 여기에 집중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새 전쟁 준비소동은 곧 세계제패를 꿈꾸는 놈들의 오랜 침략정책의 연장이며 직접적산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또한 변함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에서 나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원래 침략적입니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침략적본질이 변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있게 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과 관련되여있다.

제2차대전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를 꿈꾸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는 첫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조선전쟁에서 찾으려고 날뛰였으며 그후 새로운 경제위기가 거듭될때마다 아세아와 중근동,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임없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해왔다. 오늘 남조선과 아세아에서 벌려놓고있는 악랄한 전쟁책동은 미제의 심각한 위기와 사회적모순을 배경으로 한 필연적결과이며 놈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결코 변할수 없으며 놈들이 쇠퇴멸망하여갈수록 전쟁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반역도당이 저지르고있는 《반공》소동과 위험한 불장난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파쑈민주화투쟁기세를 억누르고 인민들의 증오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며 무너져가는 파쑈독재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기본장본인이 미제침략자들이며 놈들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책동이 조선에서 전쟁의 항시적인 근원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 *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전례없이 악랄하고 발광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리고있으나 그것은 놈들의 파멸을 앞당길뿐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멸망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은 위기에 처한 저들의 신세를 건져보려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습니다.**

**그러나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력사를 창조하는 주인인 인민들이 념원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아가고있습니다.》**

오늘 세계력량관계는 제국주의에 불리하게 편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전쟁을 분수령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의 세력권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다.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고 죽어가는 반동세력이며 지난날 제국주의의 예속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은 진보와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신흥세력은 승승장구하고있으며 더욱 굳게 단결되여가고있다. 사회주의력량은 국제무대에 제3세계가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자기의 힘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비록 허장성세하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리지만 그것은 그들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반영한것이며 놈들은 그로부터 아무런 출로도 얻을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의 모든 분야에서 안팎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정치적위기와 사회적모순이 첨예화되자 제국주의자들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고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더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오늘 그 취약성은 어느때보다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해마다 수백억딸라씩 쏟아부으면서 갖은 수법과 술책으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감행해왔으나 이미 기울어진 제놈들의 운명을 건질수 없게 되였다. 캄보쟈와 남부웰남 등 인도지나전역에서 미제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놈들의 식민지지배체계는 전면적으로 무너지고있다. 미제국주의상전과 더불어 친미괴뢰들과 사대매국노들이 파멸하는것은 현시기 력사발전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다.

남조선에서도 사태는 결코 달리 될수 없다. 미제가 더욱 쇠퇴몰락해가고있고 인도지나에서 미제의 괴뢰들이 파멸을 고하게 되자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으며 제2의 론놀이나 티우가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며 그 어떤 힘도 대세를 돌려세울수 없게 되였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의 참혹한 패배와 인도지나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수치스러운 참패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의 파산은 놈들을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지금 미제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서 허우적거리고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짜낸 근 1천억딸라의 전쟁리윤으로 돈주머니를 채우고 한때 자본주의세계에서 《황금왕국》으로 우쭐렁거리던 미제의 지위는 허물어졌으며 경제는 연료난, 원료난에 부딪쳐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파국과 침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로부터의 출로를 전쟁책동에서 찾고있으나 그것은 놈들이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지난날 침략전쟁은 그 불집을 일으킨 제국주의자들의 패망으로 끝났다. 오늘 또다시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놈들의 마지막멸망을 촉진시키는것으로 될것이다. 제국주의패망의 력사와 세계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터지든 혁명이 일어나든 그것은 혁명적대사변으로 될것이며 정세는 우리의 혁명발전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될것이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인민들, 국제로동계급의 치렬한 반제투쟁에 의하여 끊임없이 약화되고있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세계사회주의력량과 반제민족해방력량은 강화되고있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멸망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며 제마음대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던 때는 지났다. 또한 미제의 그 어떤 《동맹자》도 놈들의 지시에 따라 치욕스러운 침략전쟁에 섣사리 가담해 나설수 없게 되였으며 무모한 죽음의 길에 함부로 뛰여들수 없게 되였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에 따라 앞으로만 전진하고있다.

만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무모하게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세계반제자주력량의 집단적반격앞에서 놈들은 종국적멸망을 고하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멸의 불가피성은 또한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이 비할바없이 강하다는데 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남조선에서 놈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짓부시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민족자주력량사이의 투

쟁이며 결국 힘의 대결이다.

우리는 원쑤들과의 대결에서 놈들을 결정적으로 타승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가지고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전당과 전국, 전민과 전군이 하나의 강유력한 정치적 및 경제군사적 력량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전당에 확고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충성의 대오로 철통같이 꾸려졌다.

우리는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으며 튼튼한 국방공업기지에 의거하여 자체로 현대전의 수요를 장기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강력한 경제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은 철벽으로 다져졌다. 지금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독창적인 군사로선을 빛나게 실현하여 나가고있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어느때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단매에 처부실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적들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조국의 통일일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의 혁명무력으로, 현대화된 무적의 대오로 강화되였다.

인민군대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위력있는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장비되였으며 어떠한 침략자도 일격에 처부실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훌륭히 갖추고있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그리고 인민군대를 강의한 혁명정신,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 무쇠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 강철같은 규률을 가진 혁명무력으로 강화할데 대한 5대방침이 구현됨으로써 인민군대는 명실공히 주체형의 혁명군대로, 어떠한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원쑤들을 능히 타승할수 있는 일당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튼튼히 서있다.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있으며 튼튼한 요새와 정합된 조밀한 화력망이 온 나라를 뒤덮고있다.

우리는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력한 자립경제가 있고 불패의 혁명군대와 전인민적무장이 있고 요새화된 강토가 있는 이상 언제 어떠한 침략자들이 쳐들어와도 놈들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다는것을 더욱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우리 립장은 변함없으며 확고부동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적들의 창에는 창으로 맞서고 기만적인 《평화》술책에는 혁명적원칙성으로 대함으로써 놈들의 량면전술을 철저히 꺾어버릴것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전쟁에 언제나 정의의 혁명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소탕해버릴것이다.

우리가 잃을것은 군사분계선뿐이며 얻을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도 혁명은 좋게 발전하고있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장성

강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가혹한 조건에서도 투쟁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하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폐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8페지)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식민지통치와 박정희파쑈악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고조에 달하였으며 원쑤들의 피비린내나는 살인폭압속에서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박정희는 퇴진하라》, 《유신독재 철폐하라》는 구호밑에 투쟁의 불길은 대학에서 대학에로, 학원에서 가두에로 더욱더 번져가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들의 대중적진출로 하여 심각한 궁지에 빠진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파쑈폭압과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나 그것은 남조선에서 보다 큰 혁명적폭발을 가져올뿐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앙양되고있는것은 그만큼 남조선자체내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반제반파쑈투쟁의 불길속에서 남조선에서는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의 지도핵심과 혁명가의 대렬이 더욱 늘어나고 단련되여가고있으며 광범한 애국력량이 하나의 대오로 굳게 결속되여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밀려오는 혁명의 파도속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아무리 발악한다하여도 놈들은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수억만 사람들과 함께 서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인민들을 비롯한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남조선에 눌어붙어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계속 분렬과 전쟁책동에로 부추기는 길로 나간다면 놈들은 우리의 단호한 보복징벌을 받고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　　　＊

오늘 정세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더욱 유리하게 변천되여가고있으며 혁명적대사변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곧 혁명적대사변으로 될것이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명예를 걸고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근 로 자 제 6 호(루계 398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5년 6월 1일 발행 • 1975년 6월 5일

ㄱ—55773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7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7 호(399)

차 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 프랑스프레스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5년 5월 31일 누악쇼뜨에서 프랑스프레스통신사 기자 쟝 크리스토프 미떼랑을 접견하시고 그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대답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물음:** 주석각하 아세아지역의 정세는 웰남과 캄보쟈에서의 최근의 사변으로 하여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주석각하께서는 아세아지역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요즘 아세아의 정세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영용한 투쟁에 의하여 변화되였습니다.

인도지나인민이 승리한것은 응당한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단합해서 침략자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침략에서 큰 참패를 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를 제패하려고 망상하였으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우선 조선전쟁에서 그들의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지나에서 무력간섭을 하였는데 역시 인도지나인민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캄보쟈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역시 미국놈이 먼저 불을 질렀는데 결국 패배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한후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면모를 가리우기 위하여 지금 허튼소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지탱점으로서 남조선, 대만, 일본, 필리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밖의 자기 《동맹국》들에 대한 이른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고 떠들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미국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지 오랩니다. 요즘에는 경제위기도 심하고 군사적으로도 물론 다 망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손을 너무 많이 뻗치였기때문에 이제 더 손을 뻗칠 힘이 없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각성되였으며 그들의 반제투쟁기세는 높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자기들이 아세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지고있으며 일본인민도 자기 나라에 외

국의 군사기지를 두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이에서도 미국사람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것을 보면 필리핀도 역시 미국에 대한 추종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아세아정세는 전망이 좋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고 아세아사람들끼리 평화적이고 독립적이며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창조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할것입니다.

**물음 :** 주석각하께서는 분렬된 조선이 가까운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미국의 포드대통령은 서울정부에 경제 및 군사적 지지를 주겠다고 하였으며 키신저는 미국이 남조선을 계속 《보호》할것이며 귀국의 군대가 남조선으로 진공해나오면 미군이 개입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하께서는 어떠한 립장을 가지고계십니까?

**대답 :** 조선사람은 수천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억지로 3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한몸을 두 동강으로 끊어놓았습니다.

조선인민은 북반부사람이나 남조선사람이나 다같이 통일을 원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앞잡이들을 시켜 조선을 《두개 조선》으로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가지고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두개 조선》으로 될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은 누구나 분렬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렬을 바라는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남조선의 몇몇 반동들과 미국의 앞잡이들뿐입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 그리고 종교인들까지도 이 투쟁에 나서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북반부와 함께 통일하기를 원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자꾸 떠들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승리하여 민주인사가 정권에 올라앉으면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와 같은 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벌써 여러번 《남침》을 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성명에도 명백히 지적되여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은 첫째로 조선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하며 둘째로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하며 셋째로 제도와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전민족이 단결하여 화목하게 통일하자는것을 지적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에 대하여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하여 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국국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회답도 하지 안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그 이튿날부터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반하는 행동을 감행하게 하였습니다.

구경 미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조선을 계속 군사기지로, 상품시장으로, 식민지로 틀어쥐고있으려는것입니다.

우리가 《남침》하지 않는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침위협》이 있다고 떠드는것은 남조선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

다. 지금 남조선은 극도로 파쑈화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많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넣고 고문하고 학살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대학을 점령하고 폐쇄하는것과 같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박정희도당이 하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는것입니다.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력사의 흐름을 볼 때 압박과 탄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파쑈통치가 오래 견디여낸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력사를 보아도 그렇고 현대력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수출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하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일으키는것이지 우리가 혁명을 대신해서 일으킬수는 없는것입니다.

우리의 조국통일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남조선에서 민주화운동이 승리하고 민주주의인사가 정권에 올라앉으면 남북사이에 제도상 차이와 신앙의 차이가 있지만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5대방침의 하나입니다.

나는 조선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들은 철갑모를 쓰고 우리를 향하여 대포를 걸어놓고 당장이라도 우리가 남침을 할것처럼 떠들면서 《긴급조치 9호》까지 발표하고 남조선에서 전시상태를 선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외국려행을 하고있으며 우리의 군인들은 농민들의 농사일을 도와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공포를 쓰고 허위날조를 일삼고있는가 하는것은 이것으로써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남조선이 북조선의 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은 야만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이른바 《침공》을 물리치겠다고 하면서 원자탄까지도 쓸것이라고 떠들고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공포이며 우리를 《위협》하자는것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겁에 질려 떨고있는 저들의 괴뢰들에게 김을 불어넣으려 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앓아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를 불어넣는 격입니다.

우리는 만약 미국놈들이 괴뢰들을 시켜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에 대처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싸움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미국놈들은 제국주의자들이기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경각성은 높여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가 안일어나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미국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괴뢰를 시켜 전쟁을 도발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가 지른 불에 타죽고말것입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 연설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적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전조선의 통일일것입니다.

우리는 락관적입니다. 적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것입니다.

조선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인민적인 통일정부가 수립된다면 그것이 사상적으로 다른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것인가 하는 당신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정부 역시 미국과 함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꾸미고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해가고 남조선을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일부 당국자들은 조선이 지금처럼 분렬되여있어야 남조선이 일본의 방파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떠벌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제도와 북반부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하자는것이며 남북이 합작하자는것입니다.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통일국가로서 출현하며 국내적으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련방제의 내용입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와 린접되여있기때문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점자본가들과 반동세력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상품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며 미국에 추종하는 정책을 실시하자고 합니다.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 일본이 개입하겠는가 안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할것입니다.

일본이 완전히 파쑈화되기전에는 물론 조선전쟁에 개입한다고 결론하기는 곤난합니다.

일본이 완전히 파쑈화된다고 하면 모험을 할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도 겪었고 거기에서 참패도 당해보았기때문에 절대다수인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시기 일본이 조선의 통일에 전혀 위험으로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는 조건에서 장애로 된다고 보아야지 장애로 되지 않는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간섭을 없애야 합니다. 조선은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사대주의를 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나가도록 영향을 주자는데도 그 목적의 하나가 있습니다.

**물음:** 주석각하께서는 이번 아프리카에 대한 첫 공식방문에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대답 :** 아프리카나라들의 방문에 대한 나의 인상에 대하여서는 내가 알제리와 모리따니에서 한 연설들을 읽어보면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대륙이 식민주의자들의 압박에서 해방된 다음 새생활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바치 투쟁하고있는것을 볼 때 우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인상깊은것은 아프리카인민들이 다 자기의 새로운 사회,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고있는것이였습니다.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은 자기 당과 정부와 자기 지도자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 새 사회 건설에 힘차게 나서고있으며 특히 정치적독립을 고수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프리카의 휘황한 미래를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조선인민에 대한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련대성의 표시에 매우 감동되였습니다. 내가 알제리와 모리따니에서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정과 국제주의적인 련대성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특히 나는 아프리카의 벗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서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해방된 아프리카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제3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싸운다면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수 있을것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계속 강화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번 아프리카방문에서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모리따니와 조선사이의 협조발전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발표하게 된 공동콤뮤니케에 구체적으로 밝혀질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의견상이가 없습니다.

모리따니는 우리의 조국통일방침을 절대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리따니인민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쁠럭불가담정책을 절대 존중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긴밀합니다.

내가 어제 한 연설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각하는 우리 나라를 두번 방문하였고 대통령부인이 또한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번 더 아프리카에 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초청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우리는 세네갈의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각하와 또고의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각하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나라 수반들에게 빚을 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프리카를 다시 방문하게 될 날을 내다보면서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급변하는 혁명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편적의 기세로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 충성의 열정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고 전체 인민들을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올바른 지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숭고한 혁명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사상사업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집中적으로 벌리는것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철저히 혁명화할수 있으며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훌륭히 건설해나갈수 있다.

당중앙이 밝힌바와 같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은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비로동계급적인 사상, 반동적 및 반혁명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심각한 사상투쟁, 계급투쟁 과정이다.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없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주체의 혁명관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혁명과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계급적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추호의 동요없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더럽히지 않고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고수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주체의 혁명관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언제나 로동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면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비로동계급적인것을 쓸어버리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일대 혁명투쟁이다. 이 전투는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숭고한 혁명투쟁이며 미제침략자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박는 멸적의 투지로, 피흘려 싸우는 남녘땅형제들을 돕는 혈육의 심정으로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야 할 총돌격전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적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오직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싸운 영웅전사들처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혁명교양, 계급교양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안일해이한 현상을 미리 막고 그들이 혁명을 끝까지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활이 풍족해지는데 따라 자만성과 안일성이 생길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79~38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생활이 향상되는데 따라 사람들속에서는 자만성과 안일성이 생길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전체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에서 생활에 대한 아무러한 근심걱정없이 살며 일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착취사회에서와 같은 온갖 사회악을 모르고 자라난 새세대들이 조국보위초소를 비롯하여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물젖어 점차 안일해이해질수 있다. 그들은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의 처지는 물론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잊어버릴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를 미워하고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혁명정신이 마비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자만성과 안일성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언제나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이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앞에 내세운 중대한 과업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 필요성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지금 안팎의 혁명정세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에서 혁명의 철추에 얻어맞아 만신창이 되고있다. 미제는 캄보쟈와 윁남을 비롯하여 아세아의 여러지역에서 쫓겨났으며 자주의 기치높이 반제반미투쟁에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지역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앞에 떨고있으며 심각한 경제적파동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다.

미제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최근 인도지나의 두 괴뢰가 꺼꾸러지자 다음번 차례는 제놈이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파멸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의 조종하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가 《남침》하지 않는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남조선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며 남조선사회를 극도로 파쑈화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많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넣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대학을 점령하고 폐쇄하는것과 같은 야수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피흘리며 쓰러지는 남녘형제들을 구원하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하여 사소한 안일과 평화적기분도 허용하지 말며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 싸움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장 전쟁을 일으킬 형편이 되지 못하나 놈들이 제국주의자들이기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항시적근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무모하게 전쟁의 불길을 일으킬수 있는데 대처하여 만전을 기하며 다가오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중앙의 현명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 주체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오늘 당사상사업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혁명투쟁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안팎의 혁명정세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3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적지침이다. 그러므로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이 철저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계속 정력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맑은 피만이 차넘치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통만이 세차게 고동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여기에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에 철저히 서는가 못서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언제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적들의 창에는 창으로 맞설수 있고 적들의 기만적《평화》술책에는 혁명적원칙성으로 맞서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적 립장과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적대계급의 반동적본질과 원쑤들의 책동을 제때에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첫째로 강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는 근로자들속에서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72페지)

미제는 우리와 직접 맞서있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우리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없으며 조선인민이 한순간도 마음놓고 살아갈수 없다.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우리 조국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아메리카원주민들을 멸족시킨 승냥이의 본성그대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탄압학살하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남조선을 인간《생지옥》으로 전변시키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제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며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항시적인 근원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으로 낱낱이 밝혀놓아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미제침략자들의 략탈적본

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한 우리는 놈들과 언제든지 한번 맞서 싸워야 하며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는 만만한 투지와 혁명적각오를 가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후대들속에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도록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새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계승자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우리는 새세대들속에서 미제와 계급적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줄뿐아니라 그들이 우리 인민의 쓰라린 과거를 잊지 말도록 계급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또한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계급의 교활하고 악랄한 략탈적본성과 남조선사회제도의 반동성, 그 멸망의 불가피성은 원리적으로뿐아니라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새세대들이 미제와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그의 무궁한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무궁한 륭성번영을 위하여서는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을 최대한으로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그의 무궁한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도록 교양함으로써 당면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기완수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명적대앙양의 거세찬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6개년계획의 고지마다에 승리의 포성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속에서 로동계급적각오와 혁명적자각이 높을 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6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의 영예, 가장 권위있는 우리 당의 영예를 걸고있는 책임적인 투쟁이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계급적임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생자결의 전투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 자기들에게 맡겨진 6개년계획과제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기어이 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전쟁관점문제는 제국주의에 의하여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언제나 필요하다. 특히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들을 시켜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

우리는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힐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사소한 안일성, 해이성, 권태증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원쑤들은 바로 우리가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낮잠은 잔것을 바라고 있으며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안일해이해지고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되면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수 없을뿐아니라 혁명의 전취물마저 수호할수 없다. 이것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생활을 검박하게 혁명적으로 꾸려나가며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하게 일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할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움으로써 한놈의 간첩, 파괴암해분자도 준동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평화를 구걸하면서 전쟁일반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전쟁공포증, 부르죠아적평화주의를 설교하는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혁명적관점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가 있으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인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다. 또한 전선과 후방에 필요한 물질적 및 군사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영웅적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자위의 국방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인민들,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전체 인민이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모두가 무기를 잡고 철벽의 요새에 의거하여 견결히 싸운다면 그 어떤 원쑤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튼튼한 보루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민주주의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끈 위대한 당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멀지 않아 자기의 창건 30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치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는 가장 혁명적인 새형의 당으로서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며 투쟁과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30년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세우시고 진두에 서시여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당은 시대의 앞장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보람찬 투쟁과 자랑찬 승리로 수놓아진 영광찬란한 로정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력사는 주체의 기치밑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의 새길을 닦아온 투쟁과 창조의 력사이며 뒤떨어졌던 이 땅우에 천지개벽을 이룩한 변혁과 위훈의 력사이며 이 과정에서 세기에 빛날 고귀한 업적과 끝없이 귀중한 경험을 쌓아올린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다.

참으로 우리 당이 걸어온 행로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헤치고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밝히면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온 자랑찬 로정이였으며 보통이면 세기를 두고 걸어가야 할 길을 짧은 기간에 주름잡아달려온 비약적인 전진의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매우 짧은 력사적기간에 두 단계의 사회혁명도, 가렬처절한 전쟁도, 공업화의 위업도, 실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다 승리적으로 수행하였다.

영광스러운 첫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은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길, 사회주의에로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민주주의혁명과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그 행정에서 위대하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하고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 그 수행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과 경험은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나아가야 할 앞길,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홰불이며 투쟁의 기치로 된다.

* *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한 우리 인민앞에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을 건설해야 할 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이 투쟁은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였다.

해방직후 나라의 형편은 어려웠고 우리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겹쌓여있었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우리 나라는 경제기술적으로, 사상문화적으로 심히 뒤떨어져있었다. 경제토대는 극히 빈약하고 보잘것 없었으며 그것마저 일제는 패망하면서 혹심하게 파괴해버렸다. 주민의 거의 전부가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낡은 사상에 물젖어있었다.

매우 뒤떨어진 처지에서 우리 나라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우리 인민은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서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더구나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다.

우리 인민은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어느 길로 나가야 하며 무엇부터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 미리 고안된 처방을 그 어디에 가서 얻어올수도 없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된 이러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새 조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자기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혁명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세웠으며 그것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새 조국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첫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하며 그 길로 걸어가려면 반드시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은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은 자유와 행복,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그러므로 압박받고 착취당하던 인민들이 사회주의길로 나가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는것은 주관적욕망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지난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는 민족해방의 과업이 완수된 다음에도 외래제국주의의 잔재와 봉건적인 제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것은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로 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던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잔재와 봉건관계를 쓸어버리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전에 부르조아혁명도 아니고 사회주의혁명도 아닌 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 혁명무력을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인 사

회경제개혁들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로선들과 방침들도 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세우시고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이렇듯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새 조국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확고한 주체적립장의 견지, 이것은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에서 부닥친 난국을 성과적으로 극복타개할수 있은 기본열쇠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새생활창조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은 기본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과 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새 민주 조선건설의 력사적 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확고히 령도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인민무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면한 이 3대과업은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루도 지체할수 없는 긴급한 혁명임무로 나서고있습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1~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해방된 조국에서 혁명을 급속히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고 그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며 인민정권을 세우고 그를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튼튼히 꾸리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인민무력을 창설하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혁명의 이 근본문제들을 해결함이 없이는 그 어떠한 사회경제적변혁들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없으며 설사 진보적인 개혁들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적대계급의 반항으로부터 그 성과를 굳건히 지켜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확고히 령도할수 있는 강유력한 정치적참모부로 만들기 위하여 전당을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방침에 따라 전체 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동시에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의 관철을 방해하는 반당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려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시면서 우리 당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인 정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이 로동당으로 발전하게 된것은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우리 당이 로동당으로 발전된 결과 당의 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더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짧은 기간에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새 민주 조선을 건설하는 거창하고 성스러운 사업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강력한 지도적력량으로 급속히 자라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의 두리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들, 녀성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청년들을 결속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대중적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였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단일한 민주청년동맹에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매우 짧은 시일안에 근로단체들이 조직되고 수백만에 달하는 근로대중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새 조국 건설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주력량과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일제의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짓부시고 새형의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혁명에서의 기본문제인 주권에 관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그를 새 사회 건설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인민무력을 창설하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들을 이룩할수 있는 권력기관들을 자기의 수중에 튼튼히 틀어쥐게 되였으며 민주개혁의 실시를 반대하여나서는 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제때에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독재수단들을 충분히 마련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인민정권,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그를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우리 당으로 하여금 광범한 인민대중을 새 조국 건설과 민주주의혁명수행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이야말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과〉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5~6페지)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각성시켜 발동하여야만 새 조국 건설에 가로놓인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새 민주 조선건설에 모든 근로자들의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강력히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민족적자각과 계급적각성을 비상히 높이고 새 조국건설에서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고 민주주의적사회경제개혁들을 수행할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변혁들을 이룩할수 있는 전제조건들은 충분히 마련한 기초우에서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민주개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근본요구이며 인민정권을 세운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완전독립국가를 세울수 없으며 근로대중을 빈궁과 무권리에서 해방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78폐지)

민주개혁을 수행하여야만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사회경제적지반을 없애버리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를 쌓을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지체없이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을 민주주의혁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이 력사적인 과업을 빛나게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고려하시여 토지몰수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시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토지문제해결의 이 새로운 길은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게 한 가장 혁명적인 길이였으며 앞으로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였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토지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따라 수세기를 두고 내려오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나라 사회발전을 저해하여오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심각한 토지혁명을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가장 철저히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였다.

토지개혁에 의하여 농업생산력은 봉건적질곡에서 해방되고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농업이 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에 성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동방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은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에서 신음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되였으며 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에 뒤이어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수행에로 전당과 전체인민을 조직동원하시여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산업국유화는 토지개혁과 함께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야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식민지적 예속과 착취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에 따라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이

소유하고있던 모든 공장, 광산, 발전소들과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산업분야에서 온갖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화근이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지난날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는데 리용되던 산업기관들이 조국의 륭성발전과 근로대중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였다.

중요산업국유화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되였으며 산업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지배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아나갈수 있게 되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로 로동계급이 주권의 주인일뿐아니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관계가 없어지고 민주주의적로동질서가 확립되였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간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시는 한편 오랜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민족간부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으며 오랜 인테리들은 새 조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인민이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이다.

민주주의혁명과업이 빛나게 수행된 결과 사회경제제도의 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가 마련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앞에는 곧 사회주의혁명에로 나아갈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북반부에서의 민주주의혁명의 빛나는 수행은 싸우는 남반부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새생활을 어떻게 창조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다.

실로 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그를 빛나게 실현한 우리 당의 업적과 경험은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앞길을 밝혀준 휘황한 홰불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전위적인 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한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 진 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울리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현시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 그리고 공업일군협의회에서 모든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구체적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이 6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충성의 예비찾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많은 예비들과 생산잠재력을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할것이다.

⁂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모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에 대한 의존심을 없애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부원을 옳게 리용하여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경제를 일떠세우리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든든히 닦을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은 해방후 나라의 경제를 건

설하기 시작한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나라의 온갖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날 기형적이고 락후한 경제를 물려받았으며 그것마저 전쟁으로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빈터전우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웠고 발전된 나라들이 100년지어 수백년 걸려서야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0여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의 경제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으며 날을 따라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모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선차적으로 진행하며 그것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적건설에 대한 국가투자를 더욱 늘여 생산을 부단히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모든 가능성과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이미 건설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경제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여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9페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부예비를 동원하는것은 생산력발전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항구적조건이다.

공장, 기업소들을 더 건설하고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설치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는 달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것은 추가적투자없이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축적을 더욱 늘이며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우리 당은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일관한 방침으로 견지하고있으며 생산장성의 중요한 담보로 보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또한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우리 혁명기지의 물질적력량은 더욱 다져지게되며 조국통일위업은 그만큼 앞당겨질수 있다.

이처럼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실현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조국의 통일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특히 당면한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6개년계획을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

수행하고 10월의 혁명적명절을 더욱 뜻깊은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 있다.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대규모의 강행군전투이다. 이 기간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큰 걸음을 내디더야 하며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기술혁명과업들을 힘있게 다그쳐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전반적진군속도를 계속 높이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빨리 늘어나는 로력, 설비, 자재,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추가적인 투자없이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가지고 자체로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더많은 예비를 찾아내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오늘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장성시키고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그 어디에나 다 있다.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무엇보다 공장, 기업소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내도록 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비를 동원리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공장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도록 하는것입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지난기간 현대적인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하여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수많이 건설하여놓았으며 그 능력은 대단하다. 이 능력만 제대로 다 리용하여도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는 예비를 얻어낼수 있다.

우선, 채취공업부문에 생산을 더 높일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있는 현대적설비를 갖춘 광산들의 선광장능력과 대규모의 탄광들의 채탄장능력을 제대로 다 리용하고 중소탄광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도 지금보다 훨씬 더많은 쇠돌과 석탄을 캐낼수 있다.

또한 철도운수를 비롯한 수송부문에서도 화물수송량을 늘이고 수송의 긴장성을 풀수 있는 내부예비와 잠재력이 많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치고 집중수송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화차의 리용률을 높이고 삭도를 비롯한 3화수송체계를 철저히 도입하면 여기에서 막대한 수송예비를 찾아낼수 있다.

이러한 예비는 야금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어디에나 다 있다.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규격강재를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도 강재를 절약하고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을 부쩍 높일수 있는 큰 예비이다.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또한 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가공속도를 높이는데 있다.

지금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수준은 대단히 높으며 우리가 가지고있는 공

작기계의 대수는 수십만대를 헤아린다. 이런 조건에서 기계설비들의 가동률과 가공속도를 1%만 높이여도 그것은 대단한것이며 여기에서 막대한 생산예비를 얻어낼수 있다.

공장관리운영수준을 개선하는데 또한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와 잠재력이 있다.

공장관리운영에서 중요한것은 로력관리와 자재관리를 잘하여 있는 로력과 있는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더많이 내도록 하는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관리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과 기술자들의 지혜와 재능을 생산과 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자재보관관리리용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유휴자재를 적극 동원리용한다면 지금 있는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도 생산을 훨씬 더많이 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켜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데도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은 중요하게 협동생산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민경제부문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련계는 더욱 밀접해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협동생산품을 먼저 생산하여 보장하는것은 련대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현실은 맞물린 협동생산품을 앞세워 보장하면 그만큼 더많은 제품이 쏟아져나오며 공장, 기업소들의 능력을 제대로 다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고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대주어 인민경제전반에서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를 찾아내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는 예비와 잠재력은 많으며 그것을 적극 탐구동원리용하는 여기에 6개년계획을 당당히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에게는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가 많을뿐아니라 그것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올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으며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시키온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나라의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는 생산경제적토대가 공고할뿐아니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영웅적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무조건 받아안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있으며 그들은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것이라면 물과 불 속에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났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일에서도 그러하지만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나라의 재부를 더 늘이고 경제를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당중앙이 진두지휘한 지난 《70일전투》의 경험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예비는 무진장하며 그것을 적극 탐구동원하는 여기에 생산과 건설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

고있는 당중앙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빨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70일전투》를 조직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대 예비동원전에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예비동원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 전투기간 옹근 한해동안에 동원된 물자예비와 맞먹는 막대한 량의 예비를 얻어냈다. 이처럼 모든 부문에서 방대한 량의 예비가 쏟아져나옴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길렸던 고리들이 쭉 풀려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전투이전에 비하여 생산이 평균 1.7배로 높아졌으며 《70일전투》기간의 공업생산수준은 6개년계획에 예견된 1976년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우리 나라 공업발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고기록을 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동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높은 경제발전속도를 보장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이룩해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와 과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옳게 불러일으키고 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운영 사업을 잘하면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1페지)

오늘 내부예비동원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에 대한 지도일군들의 지도와 조직사업을 개선하며 기업관리운영사업을 잘하는것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사업도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야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내부예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일 잘 아는것도 생산자대중이며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를 다루는것도 역시 생산자대중이다. 생산자대중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라와 공장의 주인된 립장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할 때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다.

내부예비동원사업에서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적극 동원하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하고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하는것은 원래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더우기 내부예비동원사업은 한두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며 어느 한 부문이나 개별적단위들에서만이 아니라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다. 그러므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반적부문에서 세밀한 조직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야 더많은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설비관리사업과 기술관리를 잘하여 설비리용률을 높이는데 있다.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인 점검보수체계를 바로세워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많이 생산할수 있다.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생산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원료와 자재 보장에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생산현장에까지 규격별, 품종별로 날라다주는것이다. 원료와 자재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해주어야 직장장들을 비롯한 일군들이 자재인수와 관련한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자기의 본신임무인 사람과의 사업, 기술관리, 생산지휘를 실속있게 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물자소비기준과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며 공장, 기업소는 물론 나아가서 인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있는 예비들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로력관리를 잘하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는 더많은 로력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지도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로력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더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내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로동자들이 480분로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사업과 보장사업을 잘해야 하며 로동정량을 바로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1인당생산액도 높일수 있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 때 설비, 자재, 로력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에서 더많은 예비를 찾아내고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것만큼 내부예비동원사업도 응당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야 더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기계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원료와 자재 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며 생산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등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는 가장 큰 예비는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기술을 혁신하는데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하여 동원적인 기술발전계획을 세우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새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설비를 부단히 갱신하며 작업공정을 합리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기술혁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며 생산을 많이 내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조그마한 기술진보의 가능성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다 리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우리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계획작성에서는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모든 생산요소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계획사의 모든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나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계획규률을 철저히 지키며 국가계획을 법으로 알고 끝까지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며 계획작성과 그 집행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은 수령님께서 깊이 심려하고계시는 문제이며 현시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지도일군들은 내부예비동원사업에서 무엇보다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1페지)

현시기 예비동원사업은 지난날과 같이 흩어진 자재나 유휴로력을 손쉽게 동원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빨리 진척되는데 따라 생기는 예비를 탐구동원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노력과 정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열정을 가지고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정확히 세울수 있으며 숨어있는 내부예비를 더많이 찾아낼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더많은 예비를 찾아내고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써야 한다.

한장의 설계를 만들고 하나의 나사못을 깎아도, 한대의 기계를 배치해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겠는가, 어떻게 하면 있는 로력을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겠는가 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일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는것이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은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걸린고리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예비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조리 찾아 쓰는 혁명가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동원사업의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십년일이 방법으로 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 재산을 아껴쓰며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지도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을 깡그리 동원하여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 수행하며 10월의 혁명적명절을 더욱 뜻깊은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자.

# 조선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력사적전환의 새 시기를 열어놓은 회의

류 화 경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인 강령과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카룬회의 45돐을 맞이한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진행된 장기간의 영웅적투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 불같은 결의를 다시한번 굳게 다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지난 시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조선공산당창건방침 등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준비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적극 추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은 비로소 자기의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가지고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력사적전환의 새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은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우리 혁명이 주체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새시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혁명로선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객관적으로 제기되고있었으며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렵고도 복잡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며 투쟁로선과 투쟁방법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11페지)

악독한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하였으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로서 모든

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였으며 투쟁로선도, 투쟁방법도 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상층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인민대중과 리탈되여 저들끼리 말공부와 파쟁만을 일삼았다. 지어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외세에 의존하여 령도권을 쟁탈해보려고 날뛰였으며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신형시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실태와 력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를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 구현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조선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으며 이러한 주체적립장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로선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로선으로서 그것은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세워진 독창적인 혁명로선이며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 자체의 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혁명승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철두철미 주체적인 혁명로선이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사상으로 접수하였으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을 우리 인민의 투쟁강령으로, 혁명적기치로 높이 추켜들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는 처음으로 조직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조선혁명을 령도해나가시는 전행정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시였으며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고 그에 의거하시여 조선혁명의 줄기찬 앙양을 이룩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게 하였으며 우리 혁명이 주체의 기치따라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기, 주체의 새시기를 활짝 펼쳐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룬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로선은 또한 우리 인민에게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강령적지침이였다.

우리 인민은 오랜세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후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1920년대말 193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략탈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조선인민과 일제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적진출은 일층 적극화되였다.

그러나 대중의 이러한 투쟁은 탁월한 수령이 없는 탓으로 정확한 투쟁강령을 가질수 없었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해 지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투쟁들은

은 일제의 류혈적탄압에 의해 그때마다 실패하고말았다.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해주며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줄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주체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우리 나라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을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족이며 조선청년들이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아름다운 조국강토와 사랑하는 동포형제자매들이 일제에 의하여 짓밟히고 학대받는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우리는 일제를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하고 독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있을수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산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지주, 자본가놈들을 또한 그대로 둘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고 무산대중의 숙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 혁명과업은 서로 동떨어진것이 아니다. … 무산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해야 하며 다음에 조국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세계혁명도 수행해야 한다.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혁명투쟁을 옳게 조직령도하며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지배하고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혁명은 당면하여 일제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 제관계에 기초하시여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시고 이 혁명에서의 동력과 대상을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혁명전략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각 계급과 계층들의 처지와 립장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혁명의 동력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의 광범한 반제민주력량이며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도 반제투쟁에 참가할수 있다고 밝히시였다. 그리고 혁명의 대상은 일제와 그와 결탁한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한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우리 나라에 압박없고 착취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해야 하며 세계혁명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현실을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의 성격과 당면과업, 장래발전전망 등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심으로써 갈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제국주의의 식

민지예속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로선이다.

실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압박받고 착취당하던 인민들이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고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였으며 그들의 투쟁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준 혁명의 홰불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제시하시였을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당면목적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대상인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이다.…그러므로 일제는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서 싸워이기는것이다. 그러자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침략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자면 무장투쟁을 하여야 한다.

모든 혁명투쟁이 그러한것처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투쟁형태도 다양하며 그것은 주객관적조건에 의하여 변화한다.

그러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형태는 무장투쟁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으로하여 그들이 식민지에서 거저 물러가지 않을뿐아니라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례외없이 야수적폭력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은 평화적시위나 파업투쟁만으로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칠수 없으며 혁명을 더 전진시킬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투쟁발전의 합법칙적과정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 당시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가장 높은 형태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종래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되였다.

식민지나라인민들은 오직 종주국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하고 그의 지원에 의해서만 민족해방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피압박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무장투쟁을 벌려 민족적독립을 쟁취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압박받고 착취당하던 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수행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게 한 위대한 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과 함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조선공산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편성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나라의 계급구조와 각계각층의 처지 및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 특히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을 남김없이 동원케 함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이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력량편성계획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권문제, 주민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포함시켜 강력한 주력군을 꾸릴데 대한 문제, 모든 반제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문제, 수령님을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등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사상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와 같은 주체적혁명력량편성계획을 제시하심으로써 반혁명력량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주체적인 혁명로선에서 밝히신 방향에 따라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쓰라린 실패와 파란곡절을 겪고있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정확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으며 갈길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던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용기와 신심 드높이 반일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로선은 우리 인민에게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혁명의 등대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인 무장투쟁단계에로 이끌어준 전투적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비롯한 조선혁명로선은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에서 지침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새로운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투쟁강령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원래 당을 창건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를 구체화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가져야만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이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하에 일찍부터 전개되였으며 1925년에는 조선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이 당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투쟁강령을 가지고있지 못함으로써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1928년에는 드디여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종파분자들은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대신에 공산당이 해산된이후에도 파쟁을 계속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공산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심각히 분석하시고 주체적인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출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어떠한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사상적준비가 튼튼하지 못한 조직은 강력한 조직으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조선공산당창건방침에서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출데 대한 문제, 당창건준비사업을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문제 등 혁명적당을 창건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근본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찾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당창건준

비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로선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에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리론적기초로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로선이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줌으로써 산지사방에 흩어졌던 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 모여들게 되였으며 주체사상과 혁명로선을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혁명의 골간으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마침내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이 극복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이룩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오직 그이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투쟁강령인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비롯한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통일단결시킨 사상리론적기초로, 주체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위대한 혁명의 기치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로선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한 위대한 강령으로 되였으며 압박받고 착취당하던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게 한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으로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민족해방투쟁의 최고형태로서의 무장투쟁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주체적혁명력량편성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등 식민지민족해방투쟁앞에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 실로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인민은 그이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이미 오래전에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혁명을 거쳐 오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아직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거기에 담기진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경험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조국땅 남반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내몰고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맞게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강령적문헌

정 필 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 7월 전국당조직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주신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의 서한교시와 그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방침이 제시된 때로부터 한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방침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심오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준 강령적문헌이다.

수령님의 이 력사적인 로작과 당중앙의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현시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과업과 방침들을 명확히 알고 당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되였다.

현실은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이 강령적문헌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게 전진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 고전적로작에 밝히신 심오한 사상과 리론들을 개수 없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당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와 그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방침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에 맞게 주체형의 당을 건설하고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이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통찰하시고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혁명적방침들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의 위업은 자연과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며 우리 당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은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전위부대이며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무기인 당

을 강화함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우리 당대렬과 당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 특히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당을 간부화, 정예화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표징으로 하여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모든 간부들을 한급 높은 간부의 수준으로, 모든 당원들을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당의 간부화, 정예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당중앙의 방침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핵심육성에 관한 사상을 새롭게 구현한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키워 우리 당대렬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굳이쥐고나가며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으로 된다.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복종하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혁명적원칙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우리 당대렬과 당조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이처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에 맞게 당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우리 당을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에 의하여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만들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오늘의 혁명정세와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사람들의 성분을 옳게 평가할데 대한 문제,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군중사업체계를 바로세울데 대한 문제 등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혁명적원칙과 방침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 군중로선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우리 당이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우리 당은 이 혁명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하고 보람찬 혁명과업을 더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천명하시면서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혁명적본질과 기본요구,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

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 중대한 사업이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여 당중앙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우리의 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원칙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었다.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을 철저히 지도, 통제, 장악하며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방침들은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내부사업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를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며 전당과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방침에는 또한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당사업에서 아직 남아있는 낡은 틀, 낡은 재래식방법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며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맞게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고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더우기 오늘 전당을 유일사상화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이 우리 당건설의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절박한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당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당중앙은 그를 가장 정확히 구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혁명적방침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건설과 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창조하신 혁명적령도방법에 관한 사상과 리론, 강령들을 우리 당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체화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와 그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된 현단계에서 당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준 당건설과 당사업 리론의 집대성이며 백과전서적인 총서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에 맞게 주체형의 당을 건설하고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전면적으로 명시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은 또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사상리론적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우리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이다.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이 현명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언제나 보쇠와 침체를 모르고 새로운 승리

를 위하여 굽임없이 전진하는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게 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와 그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방침은 그에 담겨져있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그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은 뜻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당중앙의 옳바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당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당의 대중적지반이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 사업에서는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2페지)

우리 당은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전당에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심화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기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모든것을 다하여 수령님을 진심으로부터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절대화하며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유일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으며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가지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해나가고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시대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비길데 없이 고결한 사상정신세계이며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렸을뿐아니라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중앙의 의사는 곧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곧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례외없이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의하여 처리하는 철저한 혁명적기풍이 수립되였다. 또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무조건적으로 받들며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질서는 오늘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이길수 없는 원칙으로, 확고한 규범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명령, 지시가 제때에 아래로 쭉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제기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있다.

이처럼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철저히 보장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우리 당사업에서의 근본적인 전환,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우리의 간부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당조직이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조직이 강화되여야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를 당을 적극 옹호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꾸렸습니다.》(《모든 힘을 인민경제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기관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집행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는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특히 당중앙의 정확한 지도밑에 각급 당위원회들이 조직부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부서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조직생활을 비롯한 당조직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illegible] 시행되였으며 [illegible] 기풍이 확립되였다. 그리고 전당에 정연한 강연선전체계가 철저히 서고 항일유격대식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처럼 당간부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당대렬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당중앙은 경제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고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이 말그대로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잡고 발동을 걸어 행정경제기관이라는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정치적지도를 강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당정책이 옳게 관철되도록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검열하며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있다.

특히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푸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의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그릇된 현상들을 극복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자로 삼아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참답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비약, 대기적이 련이어 일어나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게 되였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의 다른 하나는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된것이다.

당중앙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사업을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만 전개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수립되였으며 전투적이며 생기발랄한 혁명적사업기풍이 전당에 지배하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 전달침투체계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세워졌다. 또한 당사업에서 하부지도체계가 철저히 수립됨으로써 당조직들이 하부조직의 사업전반을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당중앙에 제때에 보고되고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당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도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방법과 단호히 결별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서 군중을 실속있게 가르치고 도와주며 격식과 틀이 없이 알기 쉽게 정치사업을 벌려 군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여주며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이 전당에 확립되고있다.

또한 일군들속에서 당세도, 관료주의가 없어지고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일군들이 언제나 대중과 허물없이 어울리면서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군중을 따뜻이 대하고 늘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우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 당의 전투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당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변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일어난 획기적변화 그리고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 이 모든것은 참으로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맞게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주체형의 강철의 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당앞에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으며 당면하게는 당창건 30돐전으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여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더한층 높이는것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보장하는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생활에서 그 우월성이 높이 발휘되고있는 당일군들의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더 널리 받아들이며 전투적인 당사업을 더욱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사업에서 행정대행과 행정식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일대 전투를 벌이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심오한 사상과 리론, 당중앙의 혁명적방침들을 계속 심오히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고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당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줄기차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김 창 원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장엄한 력사적진군운동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심장마다에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가 차넘치고있으며 온 사회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충성의 전투적대오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발전속도가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야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이 사람과 사회, 자연을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야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야 한다.

* *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세계관을 지도적지침으로 할 때에만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선행한 모든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수억만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자연과 사회, 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인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창조할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천재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자연과 사회를 가장 옳게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3~364페지)

주체사상에는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는데서 가지야 할 세계관의 근본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지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해석하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시킬데 대한 근본관점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 사회력사에 대한 참다운 리해와 사회개조의 근본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사람들은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혁명적세계관에서 중심문제로 되는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우와 같은 책, 277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는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문제,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다.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문제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세계관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혁명실천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가 못되는가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자연과 사회, 사람은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주되는 요소들이며 현실세계에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주위세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떠나서는 사회자체가 있을수 없고 세계가 무의미하며 사람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세계발전의 합법칙성도 밝힐수 없다. 따라서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를 옳게 보지 않고서는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울수 없다.

특히 인류력사의 선행 시대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주체시대의 새로운 현실,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하여금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힐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것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힌 사상만이 우리 시

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으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간다는것을 심오하게 밝힌데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의 중심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 우리 시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에게 완성된 세계관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초원리는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를 두가지 측면에서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그 하나는 세계에 대한 관계에서 사람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에 대한 관계에서 사람의 역할은 어떠한가 하는 측면이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완성된 리론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지배한다는것을 말한다.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되고 지배를 받는 대상이다.

주체사상의 기초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에 대한 리해를 가장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놓았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연을 변혁하고 혁명투쟁으로 사회를 개조하면서 세계를 자기를 위한것으로 만들어나간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변혁되는 대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가 심오하게 밝혀진으로써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사람들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관점과 태도를 가질 때만이 자연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혁명투쟁의 원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근본원리와 근본관점에 의하여 사람들은 자주성을 유린하는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깊이 인식하고 온갖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해방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려는 굳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가장 정확한 립장과 방법을 가질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적립장이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73페지)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가르쳐주고있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옳은 립장과 방법을 가지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은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옳은 립장과 방법을 가지여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옳은 립장과 방법을 확립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고있으며 혁명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우리 시대 혁명실천이 제기한 절박한 요구이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이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고있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다시말하여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처리해나가는 립장이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책임을 다하는것은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세계를 대하고 개조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과 인식활동을 벌리게 되며 주위세계에 대하여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려면 자기가 모든것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세계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변혁하려는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하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현상과 원칙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의 힘에 대한 의존심을 철저히 반대하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것을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이와 같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립장이기때문에 혁명실천과 인식활동에서 자주성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자주적립장이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활동과 인식활동에로 힘있게 추동하며 그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 근거가 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창조적립장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발양시키며 모든 문제를 기존리론과 기성경험에 구애되지 않고 혁명실천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가장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방

법이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적극 높이는것은 인식과 실천,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혁명실천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사회발전의 객관적과정을 주동적으로 틀어쥘수 있으며 력사적운동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다.

자연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사람들의 목적과 리익에 맞게 리용하며 자연의 모든 힘을 인간생활에 복무시키기 위한 사업의 성과도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또한 인식활동에서도 사람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인식의 목적과 방향을 옳게 정하고 객관세계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인식할수 있다.

창조적립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하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과학적으로 인식할수 있게 하는 가장 힘있는 방법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실천활동과 인식활동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옳은 대답을 주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밝혀줌으로써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립장과 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밝혀짐으로써 인류는 실천활동과 인식활동에서 사람의 생명인 자주성과 창조성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 진취 새롭고 독창적인 립장과 방법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생활과 사회의 혁명적변혁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과 사회발전의 근본동인을 새롭게 해명해줌으로써 사회력사에 대한 옳은 리해와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본성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준다.

사회력사에 대한 옳은 리해와 사회개조를 위한 정확한 방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자면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옳은 관점과 립장, 방법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사회력사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사회개조의 과학적 방도를 알아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생활수단,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와의 호상관계에서 사람, 인민대중의 주도적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단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것이지 사람을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도 사람입니다.》(우와 같은 책, 27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경제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것이며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도 사람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과 생활수단, 경제와의 호상관계에서 사람이 주도적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는 리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사회생활을 사람, 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고찰하는 사회력사에 대한 새로운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준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리해는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나가는것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주체사상이 밝혀준 사회력사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리해에 기초하여 사회현상

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인식하고 인간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사회발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을 이루며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청산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혁명투쟁, 계급투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해를 가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73~274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히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운동의 목적과 본질로 규정함으로써 혁명투쟁과 사회발전과정에서 자주성을 찾고 옹호하는 투쟁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이 새로운 과학적해명에 의하여 사회의 력사는 생산방식의 교체의 력사, 계급투쟁의 력사인 동시에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라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류사회발전의 력사적과정, 계급투쟁의 발전과정을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정으로 보는 사회력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확립되게 되였다. 이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진행하는 혁명투쟁의 목적과 본질을 과학적으로 리해하고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청산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혁명적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해명은 사회력사에 관한 견해와 사회발전의 동인에 관한 문제를 옳게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적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도적지위와 그가 노는 결정적역할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 제기되고 해명된 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의 주되는 사상리론적내용의 하나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것이 그들의 사상의식이며 혁명적사상의식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기본을 이룬다는것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인민대중은 자신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만들고 력사발전행정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찾게 되였다.

이 사상에 의하여 또한 인민대중이 발휘하게 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과 경제기술적요인에 비한 사상정신적요인의 결정적역할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으며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승리의 기본고리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의식성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있다는 혁명운동의 진리가 밝혀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기초원리로부터 시작하여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근본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그것이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이 견지해야 할 관점과 태도, 립장과 방법, 사회의 혁명적개조의 방도 등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담아야 할 사상리론적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모든 력사적운동과 사회의 혁명적변혁과정에서 더욱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위대한 생활력과 커다란 견인력에 의하여 인민들은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는데 필요한 사상과 리론, 방법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고있으며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데 대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의 혁명적인민들이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인류의 해방투쟁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변이 이룩되고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실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불멸의 전투기치이며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적량식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그 빛나는 완성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세계관의 사상리론적내용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이 담아야 할 사상리론적내용을 집대성한 완성된 세계관으로, 주체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는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발전과 인류사상사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라고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라배워 그것을 자기들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만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아가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긍지로 여기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유일한 지침으로, 신념으로 하고 싸워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과 인민의 앞길에는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와 위대한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혁명

전 순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날에날마다 위대한 비약과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있으며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의 정열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있다.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고 사회주의제도가 비상히 공고발전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줄어들어 우리 나라는 더욱더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기술혁명사상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불패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기술혁명사상의 본질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숭고한 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과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이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기술혁명은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켜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는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반드시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기술혁명이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과업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으로만 일면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정치적인 과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8페지)

기술혁명은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고 손로동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경제를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는 기술혁명은 단순히 소비품이나 설비를 더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와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서 끝없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게 하는 정치적인 과업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기술혁명이 나라의 경제토대를 닦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함으로써 잘먹고 잘입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는데

만 목적이 있는것으로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혁명의 목적에 대한 일면적인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기술을 발전시켜 물건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여도 근로자들이 힘들고 유해로운 일을 하며 건강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지만 심한 공해현상을 빚어내여 인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있는데 그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기술혁명의 목적에 맞는다고 볼수 없다. 기술혁명의 보다더 중요한 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는데 있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기술혁명은 공산주의자들앞에 순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기술혁명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근로자들을 지주와 자본가의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는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이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그와 함께 높은 생산력수준을 이룩하고 힘든 로동과 헐한 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01페지)

지주, 자본가 계급과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근로자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것은 새 사회 건설의 숭고한 사명을 지닌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선차적인 임무로 된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근로자들을 착취와 압박의 멍에에서 해방하는것만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는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혁명을 수행하여야만 나라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고 힘든 로동과 헐한 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할수 있다.

참말로 기술혁명은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의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까지 해방하는 성스러운 위업으로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이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을 기술혁명리론에서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면서 보다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는 기술혁명의 과업은 어떤 사회제도하에서나 다 실현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기계의 가격과 기계를 적용함으로써 축출되는 로동자들의 로임과의 차이를 기술도입의 유일한 척도로 삼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개조가 결코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과업으로 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술적용의 원칙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경감이나 사회적로동의 절약이 아니라 로동자들에 대한 로임지불의 절약인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을 도입하고 기계를 적용할수 있는 한계가 매우 좁다.

다 아는바와 같이 기술발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술은 사회의 주요생산력인 근로인민대중의 고

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계적용의 장성과 그 개량의 결과 더욱더 많은 로동자들이 기계에 의하여 구축되여 거리에 내쫓길뿐 아니라 일자리를 겨우 보존하는 로동자들의 경우에도 로동강도가 높아지고 로동일이 연장된다.

실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극소수의 착취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지며 반면에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더욱더 악화된다.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하에 있는 남조선사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는 낡은 소유관계와 인민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그릇된 관점으로 하여 기술도입이 커다란 장애를 받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손로동이 농업을 비롯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의연히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고 근로자들은 고된 로동과 기아임금에 시달리고있다. 뿐만아니라 거리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자들로 욱실거리고있고 수많은 동포형제자매들이 외국의 독점자본가놈들과 농장주놈들에게 팔려 정든 고향땅을 계속 떠나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과 기업주놈들은 공해산업을 마구 끌어들임으로써 심한 공해현상을 빚어내고있으며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있다.

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여있고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기술혁명이 철두철미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과업으로 되고있다.

북반부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근로자들의 로동은 더욱더 헐하고 능률적인것으로 되며 사람들은 더욱 힘겨운 로동에서 벗어나 보다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기술혁명을 한다고 하여 로력이 남는 일이 없으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로력이 늘 모자라는것이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 합법칙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기술혁명이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과업으로 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또한 기술혁명이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된다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의 빛나는 발현으로 된다.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기술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리론실천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기술혁명사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쌓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여나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기술혁명사상은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을 단순히 나라의 경제토대를 닦는 기술적문제로만 보는 일면적인 관점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적토대가 강화되면 결국 어렵고 힘든 로동은 줄어들면서 더욱 많은 재부가 생산되여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부유하고 문명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위업수행에서 이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내걸고 기술을 의도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나가는 방침과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온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수령님의 기술혁명사상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면서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빨리 점령할수 있게 할뿐 아니라 사상적요새의 점령도 옳게 보장하며 공산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을 우여곡절없이 곧바로 추진시키나갈수 있게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령님의 기술혁명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수령님의 주체적인 기술혁명사상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사회력사발전의 결정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공산주의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을 하나의 정치적과업으로 보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이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수령님의 위대한 기술혁명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과학적인 기술혁명리론이 창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술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술발전을 어떻게 이루어나갈것인가 하는데 대한 과학적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해주고있다.

힘든 로동의 구속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영원히 해방하고 사람들에게 보람찬 삶의 길을 더욱 넓게 열어주는 수령님의 탁월한 기술혁명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력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기술혁명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해나가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다.

## 수령님께서 펼치주신 불멸의 기술혁명사상은 위대한 결실을 맺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기술혁명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기술혁명의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기술경제적 락후성과 미제에 의한 국토의 량단,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혹심한 파괴로 말미암아 조성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면서 주체적인 기술혁명방침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기술혁명의 높은 봉우리를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가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추진시키고 그것이 지어주는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여 기술혁명을 힘차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서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였으며 오직 이러한 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기술혁명의 방향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기술의 요새를 점령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는 기술발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기술혁명 발전단계를 옳게 설정하시고 매 발전단계에서 중심과업을 집중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은 준비단계와 전면적기

술개건단계, 3대기술혁명의 단계를 거쳐 빛나게 수행되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전체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위한 물질적기초인 중공업 특히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비단계에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기간적중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심으로써 전면적기술혁명수행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시는 한편 대규모중앙공업과 기본생산공정의 기술적개건, 농촌경리에서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적극 밀고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의 첫 단계에서 구려진 위력한 중공업기지에 토대하여 다음단계에서는 중공업자체의 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하면서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뿐아니라 지방공업을 포함한 공업의 모든 부문과 농촌경리, 교통운수 등 전체 인민경제부문에서 기술적개건을 진행하며 기본공정에서뿐아니라 모든 공정에서 전면적으로 기술혁신을 실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면적기술개건기에 기술발전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우리 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로동형태에서의 차이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모든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며 육체로동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3대기술혁명의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의 발전단계와 매 단계에서의 중심과업,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침들은 기술혁명이 중요한 정치적성격을 띤 과업이라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한 가장 정확한 조치들이다.

모든 혁명사업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기술혁명의 과업도 오직 사람들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될 때라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지난날 우리의 일부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기술을 그 어떤 《신비》한것으로 여기는 기술신비주의가 심하게 발로되였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시킬수도, 기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도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철저히 해방할수 있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이 료원의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 급속히 앙양되였고 기술발전의 전기간 그것이 줄기차게 확대발전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근로자들의 창의고안 및 합리화 운동이 힘차게 전개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창조적협조의 꽃이 활짝 피여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에게서 고된 로동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항상 깊이 심려하시고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비품이나 설비를 많이 생산할뿐아니라 헐하게 만들수 있게 되여야 그것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합니다. 쌀을 헐하게 생산하게 되여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지 힘들게 생산하면 쌀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치 않고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0페지)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육친적인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우리 농민들이 등짐으로 객토작업을 하

는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
일군들에게 하루빨리 뜨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도
록 배려하시였으며 모내는기계를 만들어 농민들의 고된 로동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오랜 기간 깊은 심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이 직장에 진출하게 되면 2중적인 로동의 부담을 길머지게 되는것을 헤아리시고 나라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 이르는곳마다에 많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짓도록 하시였으며 농촌수도화사업을 다그치게 하시여 농촌집 녀성들에게서 물동이를 이는 일을 영원히 없앨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주체적인 기술혁명방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기술혁명의 요새는 성과적으로 점령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기술혁명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공업, 기본건설, 운수 등 경제부문들에서 생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여 고열 및 유해 로동이 결정적으로 밀려났으며 어렵고 힘든 로동이 훨씬 줄어들었다. 특히 채굴공업과 수산업, 림업부문에서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가 광범히 실현되여 로동자들이 중로동에서 많이 해방되었다.

실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기술혁명의 위대한 기치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자동화의 새 시대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술혁명사상은 농촌경리부문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맺고 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수리화가 완성되고 농촌전기화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지금 농촌에서는 뜨락또르가 경지면적 100정보당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 차례지고있다.

농촌에서 탈곡, 제분, 정미 작업이 이미 오래전에 다 기계화되고 모내기의 기계화가 거의 완성되였으며 가을걷이의 기계화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의 과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고 우리 농민들은 힘든 로동에서 많이 해방되였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과업도 훌륭히 수행되고있다.

녀성들에게 남자와 같은 정치적권리를 주는것만으로는 녀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녀성들에게 남자와 같은 권리를 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줄 때라야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로 인민적인 사회문화적시책들과 공산주의적시책들이 실시되여 우리 녀성들이 아이를 기르고 물동이를 이는 힘겨운 일에서 많이 해방되였으며 경공업의 발전으로 여러가지 옷들과 식료가공품, 부엌세간들이 더많이 생산공급되고 편의봉사망이 확장되여 녀성들에게서 가정일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

나라의 생산력이 장성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해현상을 막는것은 공업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해는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큰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전민소유로서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고 개인독점자본이 없는 조건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인민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강구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공업건설의 첫시기부터 공장들을 분산시켰으며 일정한 지대를 선택하여 공장들을 세웠기때문에 공해현상을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개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생산의 기술장비가 끊임없이 강화됨으로써 경제발전속도는 더욱 높아졌다.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당 제5차대회 이후시기, 1970~1973년만 하더라도 년평균 17%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973년에 비하여 17.2% 늘어났다. 이것은 우리 공업이 지난 7개년계획기간보다도 그리고 6개년계획에 예견된 속도보다도 훨씬 더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생산규모가 공업화의 첫시기보다 20배나 더 늘어난 조건에서 이와 같은 높은 속도가 이룩된것은 수령님의 기술혁명사상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다.

또한 모든 경제부문에서 기술적개건이 힘차게 추진되고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진 결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인 심각한 경제적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확고한 걸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전진할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있다.

*　　*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봉우리인 10대경제건설목표점령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드높은 결의로 충만되여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욱 휘황한 대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이며 장엄한 현실인가.

사회주의건설이 멀리 전진한 오늘에 와서는 더욱더 우리의 경제건설이 기술의 발전에 의거하게 되였으며 새 기술의 도입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수령님의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의 기계화, 전기화, 자동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점령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기초를 닦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기술혁명방침을 더욱 빛나게 실현하여 높은 생산력수준을 이룩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기술혁명방침은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로동생활에서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며 사람들의 생활을 참말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것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기술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날에 날마다 위대한 기적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여야 하며 10월의 명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하여야 한다.

# 《반공》은 멸망의 길이다

김 은 철

최근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반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안보궐기대회》니, 《승공궐기대회》니 뭐니하는 추악한 광대놀음을 련이어 벌려놓고 우리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일삼고있으며 《승공통일》을 요란스럽게 떠벌이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범죄적인 《반공》소동은 세상물정을 모르고 함부로 덤벼치는 우둔하고 미련한 짓이다.

《반공》은 멸망의 길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확증된 엄연한 현실이며 력사의 진리이다.

## 1

《반공산주의》는 력사발전에 역행하는 반동사상조류이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과 민족반역의 도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며 모든 민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4페지)

낡은 봉건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사회가 발생발전한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사회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것은 막아낼수 없는 사회발전의 법칙이다.

이 사회발전의 법칙을 거역하는 낡은 반동사상조류는 반드시 멸망하고야말 운명을 지니고있다.

공산주의는 모든 인민들에게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참된 생활의 길을 밝혀주는 인류해방의 사상이며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여주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공산주의자들로 말하면 그들은 민족적리익의 진정한 옹호자들이며 민족의 번영과 륭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새것이기때문에 비록 그 초기에 있어서는 미약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라 얼마 안가서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세력을 타승하게 된다.

공산주의운동은 빠리꼼뮨으로부터 계산하여도 1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지금까지 반동통치배들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은자들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 누구도 공산주의를 소멸하지 못하였다.

공산주의는 소멸되지 않았을뿐아니라 날로 더욱 확대되여 오늘 온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거대한 견인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사회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의 세계적체계를 형성하고있다.

오늘 공산주의사상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고있는 세계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날을 따라 불패의 힘을 나타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력사발전법칙을 거역하는 《반공》을 여전히 휘두르며 침략과 민족반역의 길로 나가고있다.

《반공》은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예속, 식민지적착취를 위한 제국주의자

들의 상투적구호이다.

원래 《반공산주의》란 공산주의발생 첫날부터 반동통치배들이 저들의 반인민적정책을 가리우기 위하여 만들어낸 구호였으며 그것은 특히 자본주의가 전반적위기에 들어간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대내외정책에서 주되는 정치사상적도구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반공》을 방패로 대내적으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진보적세력을 탄압하고 사회정치생활의 파쑈화를 실현하며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전쟁을 도발하여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지난시기 동방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하였고 구라파에서 나치스독일과 파쑈이딸리아가 그러하였다.

이 파쑈국가들은 세계인민들을 노예화하려는 망상밑에 침략적군사쁠럭인 《반공3국동맹》을 결성하고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발광적인 침략정책을 추구하던 끝에 마침내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함으로써 수억만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참화를 들씌웠다.

오늘 《반공》의 원흉으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제패를 야망하여나선 미제는 남의 나라 인민들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며 침략적군사쁠럭을 조작하고 군비경쟁을 강화하며 전쟁정책을 추구하는 제놈들의 모든 침략정책을 《반공》의 구호밑에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이른바 《반공산주의》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도구로 리용하여 그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있다.

미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당파와 정부에게 무제한적인 지지를 부여》하는것을 제놈들의 대외정책의 기초로 삼고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침략을 감행하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반공》을 호상관계의 기초로 강요하면서 바로 《반공》을 위한 《원조》니, 《군사정치적동맹》이니 하는 간판밑에 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것은 《반공》이 다른 나라의 예속화를 실현하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의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반공》의 구호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하는 미제의 악랄한 침략정책은 남조선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수호》한다는 구실밑에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침략적《원조》를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의 공간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권을 행사하고있다.

《반공》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있을뿐아니라 그의 식민지통치를 집행하는 주구들의 매국배족적인 죄행을 가리우는 도구로서도 복무하고있다.

제국주의주구들의 《반공》정책은 바로 《반공》으로써 침략정책을 은폐하는 제국주의정책의 일환이다.

제국주의주구들은 상전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한 제놈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바로 《반공》의 구호로써 정당화하고 인민들을 기만하려고 책동한다.

《반공》의 정체는 바로 이러하다.

력사발전법칙에 역행하고 침략과 매국반역의 도구로 되고있는 《반공》이 멸망하는것은 불가피하다.

## 2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의 간판밑에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야수적인 인민탄압을 강화하는 등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7페지)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제놈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기 위하여 《반공》을 야방 감초처럼 리용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선 《반공》의 구호를 외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방패로 삼고있다. 이놈들은 종간로 괴뢰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반공》을 위하여서는 《한미뉴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선행한 괴뢰들이 조작한 《한미호상방위조약》, 《한미회담의사록》, 《한미경제 및 기술협정》 등 각종 예속적이며 매국적인 문건들을 실천에 옮겨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다.

군사깡패인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의 구호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매국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리화하면서 국토를 미제침략세력의 유린하에 내맡기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과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욕행위를 비호하고있다.

놈들은 또한 《반공》의 간판밑에 미제의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원조》를 정당화하면서 원쑤들에게 군사, 정치, 경제적 명맥을 송두리채 팔아넘기고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반공국민도의》니, 《반공도의교육》이니 하면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양키문화는 물론 《왜색문화》까지 끌어들여 세기말적풍조를 만연시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의 간판밑에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인민에게 노예생활을 강요해온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는 매국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을 위한 《실력배양》을 구실삼아 일본독점자본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남조선을 말그대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에 미쳐날뛰고있는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외자의 투자는 군대의 주둔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느니, 《미국의 대재벌이 거액의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1개의 보병사단을 남조선에 주둔시키는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느니 하고 줴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침략도구로서의 《반공》의 귀결점은 예속이며 친미《반공》분자들의 본색은 다름아닌 매국배족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의 구호를 매국의 도구로 삼고있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방패로도 리용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내부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주체적인 힘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충분한 밑천과 능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외세의존의 《반공통일》을 대치시키고있다.

《반공》은 조국통일과 량립될수 없다. 통일문제해결에서 《반공》을 표방하는것은 민족내부에 반목과 적대관계를 조장시키고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상쟁을 일으키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데 있다.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시종일관한 노력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반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목적

이 여기에 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은 조선의 남북에 각이한 제도가 수립되여있는 객관적정세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상에서 제일좋은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하게 수립되여있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단결되여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에는 인민들의 의사에 어긋나게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강요되고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객관적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민족주체적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를 청산하여야 하며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만일 《반공》을 전제로 하고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인민을 제외하고 통일하겠다는것이며 사실상 통일을 거부하는것이다.

도대체 나라의 절반땅에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서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고 어떻게 누구와 통일하겠다는것이며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어떻게 민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것인가.

《반공통일》이란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하여 꾸며낸 넉두리이다.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벌이고있는 《반공통일론》의 변종인 《승공통일론》의 본질도 바로 그러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과거 리승만이나 장면때에 실현하지 못한 《반공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와 대결할수 있는 실력배양》을 해야 한다고 미벌이고있다.

《승공》이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며 외세에 예속된 주구들의 이른바 《실력배양》이란것도 역시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내맡기고 경제를 여지없이 파괴하여 원료하나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절망적인 처지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실력을 배양》하여 통일하겠다고 지껄이고있으니 이보다 더 가소롭고 황당무계한 일이 또 어데 있겠는가.

《승공통일론》의 반동적본질은 그것이 현실성없는 허황한 구호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반목질시케 하며 동족상쟁의 불을 다시 지르려고 미쳐날뛰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떠벌이면서 군사연습과 전쟁소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여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으며 《승공》을 위한 《실력배양》, 《총력안보》라는 구실밑에 동족간의 전쟁도발을 위한 범죄적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결국 《승공통일론》이란것은 조국통일을 영원히 뒤로 미루고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면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힘의 방법으로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연장시켜보자는것이다.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 박정희도당이 통일문제를 서뿔리 서두를것이 아니라 100년전쟁을 치르듯 대를 이어가면서 다루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반공》의 구호를 미제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한 인민탄압의 피비린내나는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반공》은 력사적으로 파쑈의 동반자이며 파쑈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적구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학생, 지식인, 종교인 할것없이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탄압의 대상으로, 〈반공〉의 희생물로 되고있습**

니다.》(《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15페지)

오늘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의 간판밑에 제놈들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자립과 통일위업을 지향하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은 물론 종교인 지어는 야당인사들까지 야수적으로 억누르고있다.

박정희괴뢰악당은 《반공》의 구호밑에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하는 한편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파쑈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온 남녘땅을 산기어린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흔적도 없이 말살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삶에 대한 요구도, 인간의 권리에 대한 요구도 모두 《공산주의》로 몰려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지어 박정희괴뢰도당은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만도 《공산주의자》라는 감투를 씌워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체포투옥학살하고있다. 지난해 놈들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을 날조하여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을 벌려온 수천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체포구금하고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 가혹하게 집단처형한 사실은 바로 그 명백한 실례로 된다.

남조선의 이러한 사태하에서 과연 《용공분자》아닌 사람이 몇이나 되며 탄압당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반공》구호가 외세의 침략을 합리화하며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고 인민들을 탄압하는 등 박정희괴뢰악당의 온갖 매국배족적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반공》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민대중을 속일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실지체험을 통하여 《반공》이 침략과 예속, 불평등과 무권리, 고통과 재난만을 더욱 무겁게 들씌운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 3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책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림종을 앞둔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를 없애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운 리승만 역시 미제국주의의 힘에 의거해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도리여 자기가 저지른 죄로 하여 인민의 버림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반공산주의를 일삼는 남조선의 일부 완고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력사적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그 누가 만일 또다시 감히 리승만의 본을 따려 한다면 그는 자기 선행자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08페지)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이래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고 《반공》에 미쳐날뛴 반동통치배치고 제놈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응당한 징벌을 받지 않은자가 없었다.

지난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공》의 구호를 들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총칼로 탄압하여왔다.

놈들의 《반공》책동은 1930년대이후시기에 와서 절정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엄중한 파렬구를 조성하여놓으시였다.

이에 질겁한 일제는 조선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소멸》하겠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실로 《반공》의 간판밑에 조선에서 감행한 일제의 범죄행위는 그 흉악성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으며 류례없는것이였다.

그러나 일제는 어떠한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을뿐아니라 결국 제놈들자신이 멸망하고말았다.

지난시기 동방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뿐아니라 구라파에서 《반공》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여오던 나치스독일과 파쑈이딸리아 역시 제놈들이 저지른 죄과로 하여 결국 멸망하였다.

《반공》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만고의 역적 리승만, 장개석도당 또한 제놈들의 범죄적기도를 실현할수 없었으며 노호한 인민들의 항거앞에서 파멸을 면할수 없었다.

아세아에서 계속 《반공》에 매달리였던 캄보쟈의 론놀, 남부윁남의 티우 역시 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멸망하고말았다.

오늘 이 길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도당이 걷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선행《반공》분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겪고 면할수 없다.

박정희역도는 외로리괴뢰의 신세에서 허덕이는 미제의 추악한 앞잡이이며 인민의 버림을 받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를 운명에 놓인 인간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주의의 위대한 승리적진군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력사의 추물인 박정희따위가 《반공》소동을 일으킨다는자체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며 그것은 선행한 《반공》파쑈분자들처럼 스스로 멸망을 재촉할뿐이다.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반공》소동은 놈들이 겪고있는 파국적인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나온 최후발악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최근년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는 반《정부》, 반박정희,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억눌러보려고 《비상사태》우에 《긴급조치》까지 련발하고 군사재판까지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기세를 막지 못하고있으며 계속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을 규탄하고 《유신》독재체제의 철폐와 박정희역도놈이 물러날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실시해온 매국배족적정책과 세계경제파동이 가져온 응당한 후과로 하여 지금 일찌기 없었던 경제적파국상태에 처하여있다. 물건값은 날마다 치닫아오르고 연료 및 원료자재는 바닥이 드러나 공장들이 련달아 문을 닫거나 조업을 줄이고있으며 인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특히 주체사상의 불멸의 기치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거대한 성과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사회주의대건설의 휘황한 전망은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조국통일에 대한 그들의 열의를 더한층 북돋아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안팎으로 더욱더 심각한 궁지에 몰려들고있다.

남조선에서 괴뢰상층에 있던 수많은 인물들 지어 괴뢰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까지도 박정희역도를 외면하고있다. 엎친데 덮치는격으로 최근에는 인도지나사태와 관련하여 장차관, 군부우두머리들마저 제살구멍을 찾아 해외에 도망칠 궁리를 하면서 직무를 태공하고 돈과 금덩어리를 외국에 빼돌리고있다. 그리하여 박정희역도는 이른바 《해외도피금지법》과 《외화류출방지법》 등을 꾸

떠내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갈팡질팡하는 박정희역도는 제놈의 마지막 지탱점으로 여겨온 괴뢰군도 두려워 군부상층의 《참모장》을 포함한 많은 우두머리들과 말단의 모든 《대대장》들을 떼버리거나 자리를 옮겨놓지 않으면 안되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지배층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첨예화되고있으며 박정희역도가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전례없는 악랄하고 광란적인 《반공》책동은 바로 이와 같은 파국적위기의 산물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허위와 모략으로 일관된 《반공》책동으로써 공산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훼손시키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치는 공화국북반부의 영향력을 가로막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면서 파쑈테로통치를 부지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여 장기집권야욕을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꾀하고있으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현시대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공산주의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있으며 허물수 없는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벌써 30년동안이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마지 않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우고 자기들의 행복한 새생활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수많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 그들을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승공통일》을 떠벌이는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얼빠진자들이며 인쑤들이 《반공》의 구호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제놈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의 희생물로 삼으려는것 역시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악랄하게 벌리는 《반공》소동은 결국 제무덤을 파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반공》의 간판밑에 감행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책동은 침략자들과 예속국가인민들, 압박자들과 피압박인민들사이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몰아넣는다.

《반공》의 구호밑에 파쑈화를 다그치고있는 그자체가 벌써 침략자와 그 앞잡이들이 가장 횡포한 수단과 방법에 매여달리지 않고서는 제놈들의 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그 지배가 걷잡을수 없이 뒤흔들리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반공》책동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반공》책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놈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불만과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놈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이다.

《반공》은 그것을 부르짖는자들에게 오직 멸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가져다 준것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반공》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날뛰던 리승만역도를 끼꾸러뜨린것처럼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매국배족과 칼부림을 일삼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머리우에 복수의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 미제는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자기가 지른 불에 타죽고말것이다

손 진 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새로운 모험적인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아세아에서 물러갈 대신 이른바 《윁남이후》의 《아세아전략》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저들의 모든 침략세력을 동북아세아에 집중시키고있으며 특히 새로운 조선전쟁을 일으키려고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주되는 창끝을 조선에 돌리고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감행하여 나서는것은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용납못할 악랄한 도전이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현시기 우리 나라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조선반도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 미제는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전쟁미치광이이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평화를 파괴하고 조선인민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극히 악랄한 새 전쟁 도발준비에 광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은 위기에 처한 저들의 신세를 건져보려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습니다.》**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후 미제는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그곳을 침략의 거점으로 하여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흉악한 기도를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최근시기 미제의 우두머리놈들은 입만 벌리면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과의 이른바 《군사공약》을 준수하고 《견지》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있으며 《미군은 철거하지 않겠다》느니, 《필요하면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하겠다》느니, 《핵무기사용도 불사한다》느니 하는 침략적망발을 줴치고있다. 지어 얼마전에는 미군부우두머리란놈이 조선에서의 그 무슨 《위기조성》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이 경우에 미국은 《강력한 행동》을 취할것이며 상대방의 《심장부》까지 쳐들어가서 그의 《힘의 핵심 즉 그의 군사력을 파괴》할것이라고 뇌까렸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미국본토로부터 먼리 떨어진 남의 나라 령토를 제멋대로 저들의 《방위선》에 포함시켜놓고 침략무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하며 여기에서 직접적인 전면전쟁 특히 핵전쟁을 감행하겠다는것은 미제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전쟁의 주되는 원흉이라는것을 보여줄뿐아니라 놈들이 지금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침략전쟁을 도발할 흉계를 꾸미고 그 집행을 서두르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략적요충지

인 남조선을 아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탱점으로서 언제까지나 틀어쥐고 여기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정책을 추진시킴으로써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산몰락되고있는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어떻게 하나 수습하고 이 지역과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본래의 침략야망을 끝끝내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오래전부터 조선을 교두보로 하여 대륙을 침략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흉악한 야망을 품어왔다. 일찌기 《세계를 지배하려는자는 아세아대륙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되며 아세아대륙을 제압하려는자는 조선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떠벌인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군사기지화책동을 악랄하게 실시하여왔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던것이다.

오늘 미제가 《새로운 아세아전략》이란 이름밑에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는것은 놈들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흉악한 세계제패계획의 직접적인 산물이며 그 연장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의 흉악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강점침략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대량살륙무기를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침략적군사기지를 대폭적으로 확장하고있다. 미제는 이미 지난해말에 아세아의 다른 지역에서 철수한 4천여명의 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였고 지금 또다시 침략무력증강에 날뛰고있으며 특히 놈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계속 끌어들여 군사분계선가까이에 전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남조선의 여러곳에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하고있으며 지어 오끼나와의 가데나기지와 같은 대규모의 공격용 핵기지건설을 한창 다그치고 있다. 미제는 또한 이른바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 그리고 《미 8군사령부》를 통합하여 기동성이 높도록 지휘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조선전쟁에 즉각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하였으며 그를 저들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기동부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있다. 한편 미제는 《국군현대화》란 이름밑에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신형의 대량살륙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넘겨주고 놈들을 전쟁의 길로 더욱더 내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을 내세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을 강화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지금 미제의 부추김밑에 극악무도한 박정희파쑈악당은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위협》을 떠들어대고 《국가안보》를 휘두르면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의 사회정치생활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끌어내여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박정희살인악당은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남조선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안보단합대회》니, 《승공궐기대회》니 하는것을 련일 벌려놓고있으며 인민들을 《방공훈련》과 《실전훈련》에 내몰아 우리에 대한 적대감과 전쟁열을 북돋우고있다. 한편 박정희괴뢰악당은 우리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악랄한 군사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오늘처럼 《반공》선전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인민들을 살륙하기 위한 파쑈화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이 미친듯이 벌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조선전쟁도발책동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음흉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제는 《공동의 안보》요,《남침으로부터의 보호》요 뭐요하면서 일본을 조선전쟁의 핵공격기지로 리용하며 일본침략무력을 조선과 아세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한 《미, 일, 한 공동작전체계》를 완비하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놈들이 빈번히 벌려놓고있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에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미제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공동으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공격을 가상한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제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공동으로 《유도탄사격훈련》이요, 《해상훈련》이요,《합동상륙연습》이요 하는것을 련이어 벌려놓고 남조선전역을 화약내풍기는 전쟁분위기속에 몰아넣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책동이 가장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으며 그것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광란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벌리고있으나 이미 산산조각이 난 《힘의 정책》으로써는 그 누구를 위협할수도 없으며 놀래울수도 없다.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을 위한 미제의 책동은 바로 전쟁미치광이의 무모한 행위이며 자신을 스스로 파멸의 운명에로 이끌어가는 망동이다.

##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놈들의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의 산물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과 아세아에서 악랄한 새 전쟁 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놈들의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배경으로 한 필연적결과이며 단말마적발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아직도 많은 죄행을 저지를수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미제국주의가 가장 횡포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의 취약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5페지)

제2차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윤을 긁어모아 전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온 세계를 지배해보려는 흉악한 야망을 품고 세계이르는곳마다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간섭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떠한 악랄하고 교활한 침략수법으로써도 결코 저들의 세계침략의 더러운 야망을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혹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이래 세계도처에서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패배에 패배를 거듭함으로써 미제의 세계침략정책은 전면적인 파산의 위기에 처하고있으며 놈들은 헤여날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깊이 굴러떨어지고있다.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방대한 무력과 딸라를 들이밀고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괴뢰들을 통한 신식민주의적통치,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새 아세아정책》과 같은 여러가지 수법과 술책을 다 써보았으나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쳐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끝내 쫓겨나고야말았다. 인도지나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로 하여 지금 미제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아세아에서 놈들의 식민지지배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나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과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략정책에서도 수습할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미제는 이스라엘반동놈들을 사촉하여 중근동에서 악랄한 침략전쟁을 벌려놓았으나 단결된 아랍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곤경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수습하지 못하고있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대륙에서 대다수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립, 나라의 부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놈들의 식민지지배체계는 결딴나가고있다.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막다른 궁지에 빠지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민족국가들이 미제의 지배와 예속을 허용하지 않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제의 지휘봉이 더는 통하지 않고있으며 놈들은 날을 따라 더욱더 고립배척당하고있다.

실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철쇄를 끊어버리고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제3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혁명투쟁에 의하여 세계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 쫓겨나고있으며 막다른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의 침략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놈들의 취약성과 부패성이 더욱더 드러남에 따라 자본주의세계에서도 미제의 《힘》이 통하지 않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미제로부터 떨어져나가고있다. 지난날 미제에 추종하던 일련의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이 더는 미제의 침략전쟁정책에 끌려들어가기를 원치 않고있으며 독자적인 길로 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제2차대전후 미제가 막대한 딸라를 들여 구축해놓았던 침략적군사동맹체계는 여지없이 붕괴되고있다. 얼마전에 영국이 지중해이동의 자기 무력을 전부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사실과 희랍이 《나토》로부터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고 자국의 미공군기지를 폐쇄하였으며 토이기가 자기 나라에 있는 미공군기지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 사실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또한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제의 튼튼한 식민지토대로 간주되였던 타이,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이 지금 반미자주적립장을 취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에서 대중적인 반미투쟁이 앙양되고있는것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미제가 얼마나 고립배척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위기는 미국안에서도 날로 심각화되고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끊임없는 침략전쟁으로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탕진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강요하고있는 독점지배층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전, 반정부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오늘 안으로부터도 광범한 인민대중의 불만과 항거에 부딪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침략과 전쟁 정책의 전면적인 파탄과 더욱 심해지고있는 국내외적위기를 둘러싸고 지배상층부내에서도 심한 동요와 분렬, 알력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지반은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도 헤어날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최근년간 미제는 력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 공업위기와 함께 재정위기, 석유위기, 원료위기, 농업위기, 통화팽창의 격화 등 여러가지 위기가 미국을 휩쓸고있다. 지금 미제는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연료난, 늘어만 가는 국가채무와 날로 악화되는 국제수지와 딸라위기 속에서 갈팡질팡하고있다. 멈춰설줄 모르는 통화팽창과 끊임없이 뛰여오르는 물가, 거리에 차고넘치는 실업자들로 하여 미국은 대혼란속에 빠지고있다.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경제위기는 미국사회의 불안정성과 사회계급적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들을 반동적인 독점지배층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떠

욱더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악의 정치경제적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막다른 궁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으나 그 야만적인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옛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으며 멸망이 가까와올수록 더욱더 발악한다. 놈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미제국주의자들도 결코 달리는 행동할수 없다. 특히 미제는 오늘의 대세가 저들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변하고 제놈들의 위기가 극도로 심각화됨에 따라 그로부터의 출로를 극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새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아무런 출로도 가져다주지 않을것이며 그것은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 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종국적 파멸을 가져다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악랄한 새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 하고있으나 그 어떤 침략 전쟁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결코 건져낼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력사를 창조하는 주인인 인민들이 념원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며 이 합법칙적과정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제국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산 낡고 죽어가는 력량이며 혁명하는 인민들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력량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허장성세하지만 결국 날로 강화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패망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세계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력사발전의 이 필연적과정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이 투쟁속에서 제국주의는 전반적으로 급속히 쇠퇴몰락하고있으며 신흥세력은 그 력량이 비상히 강화되고 전세계적범위에서 승승장구하고있다. 몇몇 제국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제멋대로 다른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침해하며 인민들에게 예속과 굴욕을 강요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으며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의 운전대를 힘있게 틀어잡고나가고있다. 제국주의는 더욱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있으며 력사무대밖으로 멀리 밀려나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침략전쟁으로써도 이 력사의 거세찬 흐름을 돌려세울수 없으며 시대의 추세를 가로막을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제놈들의 종국적인 멸망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력사적사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은 어느것이나 다 제국주의자들의 패망으로 끝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히틀러도당이 구라파와 세계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

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자신이 지른 전쟁의 불길속에서 타죽고말았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도 바로 그러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오늘에 와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놈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오늘 우리의 혁명력량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능히 쳐부실수 있으리만큼 비상히 강력하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불패의 정치적대오를 이루고있다.

우리는 믿음직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체의 튼튼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여놓았으며 여기에 의거하여 현대전의 수요를 장기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강력한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무력으로서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다. 인민군대는 위력한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장비되여있으며 어떠한 침략자들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온갖 수단을 훌륭히 갖추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서있다. 우리는 적들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조국의 통일일것이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난날과는 비할수 없으리만큼 비상히 강화된 우리의 혁명력량과 아세아와 세계 정세가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조선에서 끝끝내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놈들은 우리의 단호한 보복징벌을 받고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어떠한 후과를 가져올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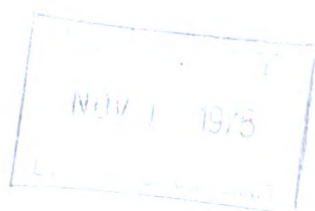
근 로 자 제7호 (루계 39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5년 7월 1일 발행 • 1975년 7월 5일

ㄱ—55229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8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8 호(400)

## 차 례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을 다그치며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웅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직진행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승리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인민을 끝없는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우리 인민의 해방의 구성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홰불로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불길 만리, 눈보라 수십만리를 헤치시면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마침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는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조성된 복잡한 환경속에서 모든 난국을 몸소 진두에서 타개하시면서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여 사회의 근본적변혁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본주의가 수세기에 걸쳐 진행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나라를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한 민족의 력사에서 30년이란 짧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 *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혁명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고 우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빛나게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우리 인민은 일찌부터 민족적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시기부터 인민들은 의병운동,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정치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렸으며 1920년대에 들어와서

는 로동운동, 농민운동을 광범하게 벌렸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히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비로소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일제는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로 살쪄왔으며 방대한 정치적폭압기구와 경제적잠재력, 수백만의 정규군을 가진 가장 포악하고 가장 야만적인 제국주의였다. 강도적인 침략과 략탈에 이골이난 놈들은 《무적황군》을 뽐내면서 가장 횡포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침략과 략탈에 혈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었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혁명적군중의 지지밖에는 그 어떤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15성상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을 벌려야 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군사적과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오직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지도리론,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실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파란곡절을 겪던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홰불이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 인민을 투쟁과 승리에로 이끈 유일한 지도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며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심으로써 당시 암흑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몰라 헤매이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힘있는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으로 종파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를 철저히 세우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력사적인 카륜회의와 항일무장투쟁의 개시를 선포한 명월구회의에서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집필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등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명시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혁명

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조선인민에게 뚜렷한 목표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전투적강령이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킨 불멸의 혁명의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떤 기존 리론이나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히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매 발전단계에 따르는 전략전술적방침과 투쟁과업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로선과 공산당창건을 위한 방침, 인민혁명정부로선, 통일전선로선 등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무장투쟁을 비롯한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진행과정에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그이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명령일하에 싸우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끝없는 행복으로 여기고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15성상의 간고하고도 장구한 나날을 일제와 굳이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항일유격대의 군사활동에 구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서 언제나 상비적혁명무력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비상비적무력을 옳게 결합하는 방침을 견지하시였으며 철저히 관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비적무력인 항일유격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들과 인민대중 속에서 적위대, 소년선봉대, 반일자위대 등 비상비적무력을 창건하시여 혁명무력전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항일무장투쟁초기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적은 인원과 무장을 가지고도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적들의 공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상비적혁명무력과 비상비적무력의 결합, 혁명근거지에서의 전인민적무장화와 요새화, 혁명의 결정적단계에서의 상비적혁명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인민적폭동의 조직 등 수많은 독창적방침들은 혁명무력의 창건과 건설에서 리론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러한 국가적후방도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무장투쟁을 벌려야 하는 항일무장투쟁의 객관적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며 그에 의거하여 유격전을 힘있게 벌려갈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준비하던 첫시기에 독창적인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들을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며 항일유격대와 혁명적인민들의 전반적인 군사정치활동을 조직지휘해나가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설된 유격근거지는 항일유격대의 군사활동의 거점으로, 후방기지로 되였으며 장기성과 간고성을 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한 튼튼한 터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쟁에서 적의 량적, 기술적 우세에 대처한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전략전술적우세로써 강대한 적을 타승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과 전법들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언제나 신심과 용기,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었으며 전투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어 련이어 섬멸적인 타격을 주게 하였다.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고 그들을 혁명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꾸리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의 강화와 혁명의 대중적지반의 공고화, 항일무장투쟁과 여러가지 대중투쟁의 밀접한 결합, 이 모든것은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4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던 첫시기부터 혁명력량편성문제를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보시고 로동조합, 농민협회, 호제회, 반일회, 부녀회 등 계층별로 반일조직들을 널리 내오시였으며 이 조직들에 혁명적군중들을 묶어세워 그들을 혁명화하여 혁명의 길로 이끄시였다.

1936년 5월 5일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항일무장투쟁을 확고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벌려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설됨으로써 모든 반일력량을 혁명투쟁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하게 보장되고 항일무장투쟁이 전인민적혁명전쟁으로 더욱 확대발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와 전반적국제혁명운동의 전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련접국가 공산주의자들과의 전투적뉴대가 강화되고 광범한 반일력량과의 반제공동전선이 실현됨으로써 적아간의 력량관계는 언제나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조성되였으며 일제의 패망을 더한층 촉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에 관한 그이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이 승리한 위대한 투쟁이였을뿐아니라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영광스러운 혁명전쟁이기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불멸의 대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의 불길속에서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혁명동지들을 친혈육처럼 아끼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오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기쁨도 슬픔도 그들과 함께 나누시며 불비속, 눈보라 속을 뚫고 혁명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시였다.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항상 일제의 통치밑에 짓밟히우는 조선인민의 운명과 잇닿아있었으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바치졌다.

참으로 인민을 사랑하시고 혁명동지를 아끼시는 수령님의 심덕은 그 높이

뜨겁고도 절절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에는 언제나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이 지배하고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10페지)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항일유격대원들을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군대원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정치학습과 혁명적조직생활, 전투활동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보살피시면서 그들을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열렬한 공산주의자,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시련이 거듭되는 항일의 장구한 기간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자신보다 먼저 혁명전사들을 생각하시였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신고를 한몸에 맡아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고상한 풍모를 지니시고 혁명동지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보살펴주시였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을 생각하며 혁명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직 살아도 수령님만을 믿고 살며 죽어도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한목숨바쳐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였다.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숨쉬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이 위대한 힘앞에서 일제침략자들은 전률하였으며 바로 이 위대한 힘에 의하여 일제침략자들은 전투마다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총검의 숲을 헤치고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타개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서광을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승리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력사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은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첫 혁명전쟁이였으며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남김없이 과시한 전인민적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아무리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라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간다면 어떠한 강적도 물리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치렬한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이 억년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이며 모든 승리의 위력한 힘의 원천이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마련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있고 인민정권의 수립과 혁명무력건설의 귀중한 경험 그리고 튼튼한 혁명적골간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제때에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고 독립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우러러보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칠수 있

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 의하여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이 땅우에서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력사는 끝장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또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학설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식민지나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은 국제파시즘의 아세아돌격대였던 강도 일제를 패망시킴으로써 세계제국주의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멸망을 촉진하였으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 특히 아세아에서의 혁명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피압박인민들에게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특히 전체 인민이 단합하여 폭력투쟁, 무장투쟁을 해야만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투쟁업적과 경험들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풍부화하였으며 그것은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 투쟁의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운동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 *

오늘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하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우리 세대에 성취해야 한다.

우리앞에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놓여있어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가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이 영원히 승리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가며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감으로써 우리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

우리 인민은 오늘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대, 사람들을 끝없이 흥분시키는 력사적사변들로 차넘치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변혁과 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세상사람들이 경탄하여마지않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대한 승리와 기적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을 중심으로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지난날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락원을 펼쳐놓을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시대의 불멸의 혁명적기치인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이 신심드높이 전진하여온 변혁과 창조로 수놓아진 자랑찬 행로는 전체 인민이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철통같이 뭉쳐 굳합없이 싸워온 영광의 력사이다.

우리는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가꾸고 다져온 불패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바야흐로 다가오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결정적으로 앞당기며 우리 혁명위업을 더 빨리 전진시켜야 한다.

## 주체형의 혈맥으로 이어진 위대한 생명체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은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과 폭넓은 혁명적개조를 내용으로 하는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 그자체의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떠나서는 계급적원쑤들과의 가장 첨예하고 간고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혁명이 겪어야 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심각한 사회적변혁과 창조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가장 소중히 간직하여왔으며 단결된 힘에 의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가장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어버이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전투대오를 이루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몸과 같이 뭉쳐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난많은 지난날의 쓰라린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광복과 민족적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에로 달려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그것은 력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위대한 통일단결이며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기초로 하고 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적경향이 극복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튼튼히 이루어졌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76페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탁월한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이 내놓은 지도사상에 기초해서만 빛나게 실현된다. 따라서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생활력은 그 기초를 이루는 지도사상의 사상리론적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사상적기초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따라서 우리 혁명대오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을뿐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우리 시대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심오하고 폭넓게 반영하고있으며 혁명승리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이 불멸의 사상은 사람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된 높은 자각과 불굴의 의지를 안겨주며 끝없는 창조의 나래를 돋쳐준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통일단결이야만로 인민들의 확고한 정치적신념과 높은 혁명적자각에 기초한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생활력을 지닌 통일단결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자각을 심장깊이 새긴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이 통일단결은 자기 수령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과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가지고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참다운 통일단결이다.

자기 나라 혁명, 자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자각, 이것은 자기 수령과 자기 당에 바치는 가장 숭고한 충성이며 주체형의 피가 약동하는 혁명전사들만이 지닐수 있는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바로 주체형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주체형의 티없이 맑은 피로 억세여진 통일단결이다. 여기에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의 사상적 순결성과 공고성이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섬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사회에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잡사상도 있을 자리가 없으며 전체 인민이 오직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숨쉬고 행동하고 말하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충성의 대오로 되였다. 전당, 전국, 전군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당의 혁명적지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몸과 같이 뭉

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명령지시가 거침없이 쭉쭉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당중앙에 거침없이 제때에 반영되고있다.

실로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결과 온 나라가 위대한 사상의지의 통일체로,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되였으며 우리 사회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화목하고 우의에 넘친 혁명적대가정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공고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충성심과 수령님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신뢰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은 당을 받들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과 지혜와 창발성을 다 내여 일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창조되였습니다.》**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무한한 신뢰와 충실성은 당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초석을 이룬다.

수령은 혁명의 뇌수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의 혁명적령도와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와 충실성을 떠나서는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수령님을 영원히 따르고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려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시며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념원이며 그이의 높으신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우리 당과 인민, 조국의 리익을 한몸에 체현하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감으로써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줄기차게 달려올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온 누리에 그처럼 높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선행시기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고 통일단결의 중심이 없었던 탓으로 민족수난의 쓰라린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국과 애국의 진을 품고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피를 많이 흘리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부터 비로소 우리 인민은 수천년의 자기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민족의 태양을 맞이하고 모시게 되였으며 민족재생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시대,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승리의 한길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창조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시련과 고난에 찬 조선혁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지난날 남보다 뒤떨어지고 가난만이 지배하던 이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와 그이의 넓은 품을 떠나서는 오늘의 끝없이 번영하는 조국도 우리 인민의 모든 행복과 영광, 광명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투쟁하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끝없이 충성다하는 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 다바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바로 우리 인민이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이 뜨거운 충성심과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지니고있기에 그이를 중심으로 뭉쳐진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 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가진다.

참으로 자기들에게 참된 삶의 보람과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와 한몸이 되여 전체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우리 사회보다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 빛나게 구현한 그러한 사회는 일찌기 없었다.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으로 이어지고 이세여진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그것은 사상의지의 순결성을 가장 높이 체현한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이 불패의 통일단결이야말로 그 어떤 험난한 가시덤불과 사나운 폭풍도 용감히 헤가르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며 공산주의의 휘황찬 미래를 힘있게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또한 그것이 장기간에 걸치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며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자기들의 실지체험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를 무한히 신뢰하게 되였으며 그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8페지)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가장 복잡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세련되고 공고화되였다.

강철은 용광로에서 단련되듯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도 준엄한 혁명투쟁속에서만 그 순결성과 위력이 검증되며 더욱 철석같이 다져진다.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검증되고 단련된 통일단결만이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위력을 가지며 혁명투쟁의 시련을 이겨낸다.

우리 혁명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길을 헤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더 말할것도 없고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수행하는 력사적투쟁도 류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에서 진행되였다. 기나긴 반세기에 걸쳐 준엄한 시련을 헤가르면서 우리 혁명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고 넘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의 앞길에 난관이 중첩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도 우리 인민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그이와 한몸이 되여 원쑤들의 준동을 박차고 용기백배하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승리하여왔다.

특히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우리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좀먹고 파괴하려는 종파분자들과 각종 반당적 및 반혁명적인 사상적잡귀신들을 쓸어버리는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훌륭히 검증되였으며 새로

운 높이에 이르게 되였다.

혁명의 세찬 폭풍우를 헤치면서 검증되고 강철과도 같이 단련된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으며 이 통일단결된 힘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오늘 당중앙이 제시한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에 의하여 더욱 공고화되고 반석같이 다져지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으며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착취와 무권리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꺼꾸러뜨리고 온 나라가 재더미로 된 폐허속에서 불사조의 넋을 지니고 떨쳐일어나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것도, 조선에서 새로운 불집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단호한 징벌을 안김으로써 세계인민들의 면전에서 놈들의 코대를 보기좋게 꺾어놓을수 있은것도 그리고 긴장된 정세하에서도 혁명적대고조의 폭풍을 일으켜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은것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며 전체 인민이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있었기때문이다.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고 끊임없는 변혁과 비약을 창조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반전하고있는 내외의 혁명정세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층 강화하여야 할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오늘의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굳건히 다지진 우리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한층 공고발전시키며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옹성같이 뭉쳐 충성의 혁명대오답게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 힘차게 다그쳐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강철같은 통일단결, 모든것을 다바쳐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높은 정치적자각,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빛나게 실현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완수하는 기본열쇠가 있다.

특히 우리 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급변하는 내외의 혁명정세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일층 공고히 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 얻어맞아 녹아나고 있다. 놈들은 일찌기 볼수 없었던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아세아를 비롯한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와 침략적지반은 거덜이나 총붕괴상태에

이르고있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고있다.

미제의 외토리주구신세가 된 박정희괴뢰도당 역시 날로 장성강화되는 인민들의 투쟁과 파국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로 하여 파멸의 일로를 걷고있다.

안팎으로 얻어맞아 만신창이 된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고 망상하면서 이른바 《새 아세아전략》이라는것을 내놓고 남조선에 수많은 살인무기와 침략군을 끌어들이고 있다.

남조선인민들로부터는 물론 세계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여 허둥지둥하는 남조선괴뢰도당들은 제놈들의 군사파쑈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야만적인 인민탄압과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위험이 상시적으로 떠돌고있다.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전쟁도발책동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순시도 경각성을 늦출수 없으며 덤벼드는 원쑤들을 단매에 쳐부시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더욱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뭉치며 우리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 결정적담보는 결국 전체 인민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들모두가 어떤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것이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한몸이 되여 충성의 대오로 나갈 때 원쑤들은 감히 달려들수 없으며 만약 덤벼든다고 하여도 놈들은 강철의 담벽에 부딪쳐 산산이 녹아나게 될것이다.

실로 주체형의 혈맥으로 이어진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우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1페지)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전투대오로 되게 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혁명전사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그러므로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간직하는것은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빛내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들의 사소한 요소도 우리 대렬내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금이 가게 하는 어떤 자그마한 경향에 대해서도 제때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강의한 의지를 가진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사상의지적 통일성과 순결성을 튼튼히 보장할수 있다.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함에 있어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지닌 임무는 매우 크며 무겁다.

모든 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 정력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각계층 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 모두가 마음속으로부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수령님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작풍을 깊이 체득하여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소탈하게 어울리며 어머니심정으로 군중을 따뜻이 대하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진심으로 풀어주어 그 누구의 얼굴에도 그늘이 지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각계층의 광범한 대중을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철벽으로 다질수 있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도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바야흐로 다가오는 우리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승리의 개가 드높이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속도전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대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변혁과 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온 누리에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갈것이다.

# 우리 당은 미제를 반대하는 혁명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끈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보람찬 혁명적명절로 맞이하게 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게 돌이켜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 창건이래 오늘에 이르는 기간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끈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공적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끎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나라를 영웅조선으로 빛나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반제반미투쟁의 앞장에 서서 나가는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이름떨치게 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준엄한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끈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과 공적은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한 위훈탑으로 높이 솟아있을것이다.

*　　　*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불패의 전투적위력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끈 강철의 당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자기의 전투적위력과 향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여온것으로 하여 이룩된 빛나는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선인민의 해방전쟁에서 승패는 오직 우리 당의 단결된 위력과 그 향도적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미제국주의무력침범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의 자유와 통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더한층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92페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전투적위력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나 적들과의 투쟁에서나 그의 승패는 결국 당의 전투적위력과 향도적역할에 달려있다.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우리 당을 강화하여야만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전체 인민을 원쑤격멸에로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또한 당을 강화하여야만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민주주의제도의 견고성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며 우리 후방을 끊임없이 공고화하여나갈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당과 정부와 군대,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조직령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변하는 군사정치정세를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1950년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에서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적성격과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특성을 밝히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조국방위의 거족적투쟁에 궐기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도록 하시였으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그의 전투적역할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당사업을 전시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였다.

우리 당이 종래의 군대안의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고 부대와 구분대들에 전반적으로 당조직들을 내온것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전투력을 높여 전투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군대안에 조직된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원들과 군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군대의 조직성과 규률성,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일층 높임으로써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전쟁의 장기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당내에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갔다.

당안에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우리 당을 공고화하고 그의 향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울 때 전당이 수령님과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의 명령지시가 제때에 신속정확히 침투되고 관철될수 있다. 더우기 고도의 조직성을 요구하며 나라의 모든 힘을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제때에 조직동원하여야 하였던 당시의 환경에서 당의 혁명적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수령님의 유일한 사상의지에 따라 전당, 전체 인민을 한사람같이 움직여 전쟁의 승리를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강력한 담보였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로 하여금 전시에 발로된 일부 규률없는 행동들과 특히 당안에서 분파책동을 감행하던 종파분자들에게 단호한 타격을 가하였다. 또한 당원들이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진행하는 한편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 혁명적규률을 지키지 않는 사소한 경향도 배겨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당에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확고히 지배되게 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당은 후방과 전선에서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대렬을 늘이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이 처하여있는 조건에 비추어 우리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확대강화하는것은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우와 같은 책, 315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조국해방전쟁의 첫시기부터 전쟁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을 당에 받아들여 당대렬을 확대강화하였으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임으로써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갔다.

적들의 발악적공세가 심해지고 전쟁이 장기화되는것과 관련하여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굳게하는 사업을 더욱 강력히 밀고나갔다.

수령님의 지도밑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두리에 모든 애국적 민주력량을 묶어세워 전선과 후방을 공고화하며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사업에서 나타났던 좌경적편향들이 극복되고 당대렬이 급속히 확대되게 되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대중속에서의 그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일층 높아졌으며 후방은 보다 공고화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또한 종파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전당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불패의 통일단결과 조직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은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서 당의 전투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오직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확고한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고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만이 당은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라도 뚫고나가며 어떤 난관이라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될수 있다. 당의 이러한 조직사상적통일단결은 당대렬에서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없애야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반당반혁명적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였다. 특히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전체 당원들의 당성과 정치적각성을 비상히 높였으며 당내에 숨어있던 미제의 고용간첩도당을 폭로숙청하였다. 이것은 적들의 《신공세》에 대처하여 전선과 후방을 철벽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당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대렬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여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과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더우기 미제침략자들이 무력침공과 함께 반동적사상《공세》를 강화하고있던 환경, 당내에 신입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사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사업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특히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되였고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의 참모부로 공고발전되였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실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전투적위력과 향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선인민의 강력한 조직고무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끈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될수 있었다.

* *

우리 당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위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끈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전행정은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이였으며 군사분야에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과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에서 자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 말이며 군사분야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구현된것입니다.》(《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 15페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군사분야에 구현된 자위의 군사사상은 군사활동, 무장투쟁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군사분야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고 인민대중, 군인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어떤 어렵고 복잡한 군사문제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군사사상이다.

로동계급과 그 당은 자위의 군사사상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건설하고 국방건설과 혁명전쟁의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계급투쟁이였다.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조선인민자신의 일이며 누가 어떻게 도와주든지간에 우리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고 전당, 전민, 전군을 조국해방전쟁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위의 군사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당으로 하여금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의 전투력은 군인과 지휘관의 정신상태, 다시말하여 그 군대의 사기와 그리고 무기를 다루는 그들의 기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군대의 전투의식이 약하고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전투의식, 사상의식이 높고 기술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사상의식은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2페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그 어떤 현대적인 무기도 그것이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과 병사들의 손에 쥐여졌을 때라야 비로소 위력을 나타내게 되며 기술은 인민이 소유하고 정의의 투쟁에 리용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군사사업에서 언제나 인민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것은 수적,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며 온갖 야만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한 미제침략자들을 패배로 몰아넣게 한 강력

한 힘이였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쟁전기간 현대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옳게 배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군종과 병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한편 산지훈련과 야간훈련을 위주로 하는 전투훈련의 강화,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군사기술과 군사전법의 완성 등 인민군군인들을 주체적군사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또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지휘관의 양성 및 재교양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실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군사사상과 그 관철을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수적, 기술적 우세를 떠벌이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강점하려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게 한 확고한 담보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과 함께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전략과 전술, 독창적인 전법들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제기된 군사임무에 맞게 전쟁의 매 단계와 정황에 따르는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과 전법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명철한 분석과 과학적예견성, 군사행동지대의 옳은 선정, 독창적인 전투형식과 방법의 창조 및 그의 능숙한 결합 등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전략전술적지도와 령군술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 당은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하는 즉시적인 반공격과 련속적인 타격전에 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대로 하여금 초기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삼키려던 놈들의 전략적기도는 완전히 파탄되고말았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리한 군사정치정세와 위급한 정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와 재진격시기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적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고 기본전선에서의 타격과 적후 제2전선부대들의 타격의 배합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원쑤들을 피동과 수세에 몰아넣고 결정적으로 소멸하게 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은 전략적요충지에 강력한 방어지대를 형성하고 령활한 전략과 전술, 전법으로 원쑤들의 어떠한 형태의 무력침공도 짓부셔버림으로써 전쟁을 결정적승리에로 이끌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후방공고화방침을 빛나게 실현한것은 우리 당이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력사적 승리는 또한 우리 후방의 공고성에 의하여 보장되였습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1960년판, 454페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는 입체전인 현대전쟁의 조건에서 전선과 하나로 련결된 후방의 공고화는 전쟁승리의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인민정권기관과 근로단체들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로농동맹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그 어느때보다 불

패의것으로 다져나갔다. 당은 또한 나라의 모든 사업을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시경제를 조직하여 모든 잠재력을 남김없이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후방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때에 국가적대책들을 취해줌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민생활을 안정시키였다.

참으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지도가 있는한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움직일수 없는 그들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였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포탄이 우박치는 가렬한 전투에서도, 피어린 락동강의 포화속에서도, 엄혹한 시련이 중첩되던 전략적후퇴의 길에서도, 불타는 조국의 고지마다에서도 수령님과 당을 우러러 새힘을 얻고 분사신치며 싸워 원쑤 미제를 쳐부시였다.

정녕 우리 인민은 위대한 군사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천재적인 군사전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미제를 타승하고 마침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에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림으로써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존엄있고 권위있는 불패의 당으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령도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은 급속히 장성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아세아 그리고 세계평화를 빛나게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이 승리는 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계기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역들에서 반제반미투쟁이 급속히 앙양되였으며 미제는 련속적인 타격을 받고 헤여날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지금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과 인도지나에서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또다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최근 미제는 아세아에서 군사전략상 기점으로서의 남조선의 중요성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하고있으며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확장하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을 사촉하여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일거일동에 대해 날카롭게 지켜보고있다.

만일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에서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것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조국의 통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혁명을 독창적으로 수행한 위대한 당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당,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멀지 않아 맞이하게 된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에 찬 투쟁행로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리 높이 자랑하고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30년동안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사회와 자연을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사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두 단계의 혁명을 수행하여 근로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웠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투쟁업적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인 사회주의혁명을 매우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수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위업을 최단기간에 완수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창조적사상과 그 실현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나아가야 할 앞길, 인류의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해불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사회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그 전위부대인 혁명적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려면 반드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만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영원히 없애고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로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사회주의적기초우에서 더욱 강화하며 반동들의 근거지와 낡은 사상을 낳는 온상을 없애고 혁명의 정치적지반을 공고히 다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된 기초우에서 시작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수립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특히 사회주의혁명은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반동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다치는것만큼 로동계급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자기 손에 튼튼히 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만 혁명에서 자기의 계급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낡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인민정권의 제특성과 우리 나라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혁명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수립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는데 따라 북반부에서는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더욱 발전시킬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탄생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42페지)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맡아수행한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였다. 이 정권은 부르죠아독재정권과 근본적으로 구별될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도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적성격으로 보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범주에 속하는것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를 조성하는것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하고있다. 실지 우리 나라의 인민정권은 혁명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높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형태를 창설하고 경제의 기본명맥을 틀어쥐였으며 로농동맹에 기초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이미 수립되여있는 인민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강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에 따라 내외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면서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인민정권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그 계급적구성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설하였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력사적승리를 담보해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주권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이끄시면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

명의 기본과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여야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해방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북반부는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사회주의적개조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였다.

그러나 평화적건설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은 부분적으로 시작되였을뿐이고 주로는 그 준비사업이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사업은 모두다 전후시기에 전면적으로 전개되였다.

전후 공화국북반부의 사회경제형편은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여지없이 마사졌으며 빈농은 물론 중농과 부농들도 극도로 령세화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파괴된 농업생산력을 빨리 복구할수 없었으며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추켜세울수 없었다. 또한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촌에서 계급적원쑤들이 의거할수 있는 지반을 완전히 없애버릴수 없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도시의 개인상공업도 심한 피해를 입었다. 기업가, 상인들이 령락되여 수공업자나 소상인과 같은 처지에 떨어졌다. 더우기 농업과 수공업의 협동화와 국영공업과 사회주의상업의 빠른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료, 자재를 마음대로 구할수 없게 되였을뿐아니라 상품판로마저 잃어버리게 되였다. 개인상공업자들은 국가에 의거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경리를 운영할수도, 생활을 유지할수도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심오히 분석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본격적으로 다그칠 혁명적방침을 세우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개조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부르시였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이 정확히 반영된 수령님의 혁명적인 사회주의개조방침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당안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남북이 통일되여 전국적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할 때까지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당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반대해나섰다.

혁명의 길우에 가로놓인 난관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과 《북진》나발을 미친듯이 불어대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기회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혁명로선을 시비하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쑤들의 온갖 잡소리들과 모든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주체적인 사회주의혁명로선을 동요없이 관철하여나갔다.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농업협동화는 반드시 공업화를 한 기초우에서만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은 농촌경리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는가,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30페지)

기술적개조에 앞서 농업협동화를 실현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혁명에서 주객관적요인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내리신 가장 혁명적인 농업협동화방침이다. 이것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빛나게 구현한것이며 생산력성격에의 생산관계의 적응의 법칙을 능동적으로 리용한것이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정확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기술을 개조하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켰다.

수령님께서는 경리형태의 개조와 기술개조의 호상관계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농업협동화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지도하는데서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켰다.

농업협동화는 사적소유의 기초우에서 수천년을 내려오던 개인농민경리를 집단경리로 전환시키는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이다. 그런것만큼 여기서 강압적방법이 허용되면 사업에서의 편향과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에서 강제적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농민들이 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여러가지 옳은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협동화운동에서 실물교육은 수세기에 걸쳐 개인경리에 물젖은 농민들을 설복하여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에 들어오도록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당은 협동화의 경험적단계를 설정하고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는데 큰 힘을 넣었다. 또한 농민들의 준비정도와 경제형편이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협동경리의 형태를 세가지로 규정하고 농민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어느 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농민들의 생산수단을 통합하는데서도 부림소와 농기구 같은것은 그들의 희망에 따라 통합하든가 또는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사적소유로 남겨두면서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통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한 값을 치르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이 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은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빈농들이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부유한 농민들로만 협동농장을 조직하거나 농장사업에 부농의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중농을 강제로 협동경리에 인입하거나 그들의 리익을 침범함으로써 중농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였다. 부농에 대해서는 수탈하고 청산한것이 아니라 착취적측면을 제한하면서 그들이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독창적인 정책들은 각계층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화방침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으며 협동화운동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미리 막을수 있게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는것은 결코 이 운동을 자연발생성에 방임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제도가 그러한 바와 같이 농촌에서의 협동경리제도는 저절로 발생할수 없으며 공고발전될수 없다. 여기에는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가 요구된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의 전기간 농민들속에서 조직지도사업과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공업에 의거하여 농민들

에게 강력한 물질기술적지원과 로력적 방조를 주었다. 또한 당은 협동경리의 규모를 설정하는데서 협동경리운영의 경험과 관리간부들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직하였으며 모든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점차 큰 규모로 확대발전시켜나아갔다.

우리 당은 이처럼 로동계급의 지도와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강화함으로써 전후의 헤아릴수 없는 난관들을 극복하고 수백만 농민들을 사회주의적집단화의 길로 인도할수 있었으며 4~5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농촌에서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의 확고부동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데서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과도기의 첫시기부터 수공업의 협동화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후시기에 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상공업의 개조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333페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민족자본가들은 불철저하지만 일정한 혁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식민지반봉건사회 민족자본가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편에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민족해방투쟁도 하였고 민주주의혁명도 하였다. 더우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상공업이 다 파괴되고 기업가, 상인들이 당의 사회주의혁명로선을 지지하여나온 조건에서 그들을 수탈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모든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그들을 협동경리에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먼저 수공업자들로 조직한 생산협동조합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기업가들을 점차적으로 협동경리에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개인상인들로는 판매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을 뭇고 거기에서 점차 생산의 비중을 높여 그것을 생산만 하는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수령님의 정확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매우 빨리 진척되였으며 1958년에 와서 농업협동화와 거의 동시에 완성되였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생산력발전수준이 비교적 낮고 나라가 인공적으로 분렬된 어려운 조건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되였다는것이다.

무슨 힘이 사회주의혁명과 같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심각한 혁명과업을 전후의 겹쌓인 난관속에서 아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따라 그처럼 짧은 시간에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오직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심오한 혁명리론으로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혁명승리에로 곧바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로써 설명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와 유리한 조건을 정확히 포착하시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1955년 4월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전후시기가 사회주의개조를 위한 가장 성숙된 시기라는것을 론박할여지없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시면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당과 전민이 달라붙어 사회주의개조사업을 부리나케 밀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개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전후시기를 놓쳐버리고 낡은 경제가 일정하게 자라난 다음에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고 하였더라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크게 애를 먹었을것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큰 지장을 받았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시기를 사회주의개조를 위한 성숙된 시기로 보시고 사회주의혁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협동화의 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조직된 협동경리들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갓 조직된 협동조합들에서 사회주의적인 질서와 제도를 세우고 조합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교양을 강화하며 조합의 경제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도록 지도를 주시였으며 조합원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특히 개인상공업자들을 찾으시여 《동무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 가겠소.》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육친적인 사랑을 배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치하해주시고 고무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사랑속에서 낡은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빨리 추진되였으며 농민, 수공업자, 기업가 등 모든 사람들이 영예로운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이며 정확한 사회주의적개조방침,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을 매우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이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념원하여왔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싸운 바로 그러한 사회,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 *

주체형의 첫 혁명적인 당,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로선을 관철하여 사회주의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이 열리였으며 인민대중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고 기술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닦아진것도 그리고 우리 인민이 높은 창조적열성과 무비의 영웅성,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가고있는것도 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

명과업이 빛나게 수행된것과 떼여놓고는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시여 우리 나라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심으로 하여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으며 남에게 억눌리우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자라날수 있게 된것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륭성발전하는 북반부를 혁명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반부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주고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력량의 장성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북반부인민들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은 남조선의 로동자와 농민은 물론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지어는 민족부르죠아지까지 포함하는 모든 애국적력량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무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승리적인 완성과 그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주의혁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전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혁명방침과 그 수행에서 이룩한 업적과 경험을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홰불이라고 하면서 널리 따라배우고있으며 새 사회,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자기들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리론과 그것을 실현하여 기른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 일떠서고있을뿐아니라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였거나 아직도 예속상태에 있는 나라의 수억만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서고있다. 력사발전은 각이한 사회력사적조건에서 특히는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줄수 있는 혁명리론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근본리익과 력사발전의 객관적추세를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리론을 밝히심으로써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오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은 전세계진보적인 인류의 앞장에 서서 공산주의에로의 휘황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가고있다. 력사발전의 선봉을 담당수행하고있는 전위적인 당, 우리 당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위대한 당으로, 혁명하는 당으로, 전진하는 당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로동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아가자.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총진군,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10월의 혁명적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더욱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충성의 대진투에 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련일 새로운 혁신과 기적이 창조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전반적면모는 훌륭하게 되여가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당중앙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가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고 온 나라에 더욱 거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미제와 그의 외토리괴뢰 박정희역도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세찬 바람이 불게 하며 자생자결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자력갱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이며 공산주의자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주체적력량으로 끝까지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혁명적원칙이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내부력량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주인노릇을 똑똑히 해야 하며 그러자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은 또한 겹쌓인 난관과 애로를 뚫고 전진해야 하는 간고하고도 심각한 투쟁이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은 앉아서 편안히 할수는 없으며 백절

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전투정신과 일본새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데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다.

만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며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면 또한 자기를 낮추보고 남을 높이 보는 사대주의에 깊이 빠지게 되며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온갖 기회주의를 다 범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게까지 된다. 남에게 의존해서 혁명을 하며 남의 덕에 잘살아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본질에 있어서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반혁명적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드는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국제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올것만 바라면서 자체의 혁명투쟁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태도를 배격할뿐이지 혁명과 건설에서 국제적지지성원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자력갱생은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자체의 힘을 기본으로 하고 밖으로부터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것으로 여겨야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고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도 이바지할수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는 투쟁정신이다. 이것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 나라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참다운 애국적인 사상이며 자신의 간고한 투쟁으로 계급적형제들을 도와주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국제주의정신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 무엇보다먼저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거기에 의거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전력사가 뚜렷이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감으로써 지난시기 항일유격대는 국가적후방도 없고 아무러한 군사경제적지원도 받을수 없었던 간고한 조건에서도 끝까지 싸울수 있었으며 마침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의 요구라면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아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준엄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비속에서도 전시생산을 보장할수 있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꺼꾸러뜨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기에 우리는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남들이 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실로 유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수행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의 흔적까지 말끔히 가셔버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

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는 주체의 기발밑에 시작된 조선혁명이 오늘까지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은 중요한 요인이였다. 이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교양육성하시고 이끄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귀한 정치도덕적풍모의 하나로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발현이며 우리를 영웅적투쟁에로 이끄는 사상적바탕이다.

우리 혁명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혁명의 위대한 진리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8~19페지)

오늘 우리의 혁명발전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속도전의 진군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치는것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기수행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며 온 나라에 더욱 기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게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과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거창한 규모로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력갱생의 전투정신과 일본새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남에 따라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와 로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한 전선, 어느 한 전투단위가 아니라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전투단위들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자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총돌격전의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들을 자체로 더 빨리 조성해나가야 하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들은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간다면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이란 문제로도 되지 않으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동시킬 때 우리는 하루를 열흘, 한달맞잡이로 달려 10월의 혁명적명절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찬란히 장식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을 더욱더 앞당겨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또한 다가오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 아세아와 세계도처에서 얻어맞고

헤여날수 없는 파멸적인 위기에 처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역도는 갈부림과 불장난으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거세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켜 제놈들의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원쑤들의 악랄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며 전체 조선인민이 애타게 바라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 및 물질적 힘을 더 빨리 키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울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정세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그만큼 앞당겨 성취할수 있다.

참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산미 싸워나가는것은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언제나 확고히 견지해야 할 혁명적원칙이며 주체성의 피만이 맥박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기본품성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10월의 명절전으로 6개년계획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가장 빨리 성취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자력갱생, 이는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더욱 앞당기게 하는 혁명적기치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세찬 바람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충성의 총돌격전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온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자력갱생의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부화하지 않고 검박하게 생활하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29～330페지)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하는 사람들의 철학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전당과 온 사회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 온 나라에 더욱 거세찬 혁명적주풍이 휘몰아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첫공정으로 하여 힘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전을 첫공정으로 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가는것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구현이며 대중을 더욱 각성시키고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올바른 지름길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상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illegible]의 혁명정신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 잡귀신불을 반대하는 사상투쟁

을 힘있게 벌려 모든 인민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은 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해내는 신대성의 정신, 충성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자력갱생하는 사상적각오가 철저히 서있지 못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이 부족한 사소한 요소, 자그마한 현상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문제를 세워 날카로운 투쟁을 벌림으로써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불타는 충성심, 자력갱생의 견투정신과 일본새로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상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혁명하는 사람답게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검박하게 생활하는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며 그 어떤 모진 역경과 곤난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모두가 검박하게 생활하는것은 혁명투쟁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오늘의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도록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하며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는 부르죠아적요소, 수정주의적요소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투쟁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세찬 바람을 일으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만든 기계설비와 제품들을 적극 애호하고 옳게 리용하며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때에 풀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분야에서 기술수준을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전진도상에 제기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며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기간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나감으로써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위력한것으로 만들었다. 오늘 우리는 마음만먹으면 무엇이든지 자체로 다 만들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기초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과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우리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한다면 생산과 건설을 훨씬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은 오늘의 현실이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6개년계획수행의 최후돌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짐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고있는 물질적 및 인적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켜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이미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혁명가들인것만큼 응당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하여 만들어놓은 기계설비와 제품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한키로그람의 철과 석탄, 한방울의 연유, 한알의 쌀이라도 랑비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며 우리의 경제적밑천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충성다하는것이며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길이다.

우리 혁명의 수많은 실천적경험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모든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자기가 맡은 초소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더 빨리,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맞받아나아가면서 억세게 싸울 때 못해낼 일도, 뚫지 못할 장벽도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어야하며 혁명적지휘관답게 언제 어데서나 조건이나 능력, 난관을 탓하지 않고 당의 요구라면 무조건 집행하는 전투적기백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하여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노력해야 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이신작칙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이 차고넘치게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오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며 특히 지도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도 대오의 기수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도록 옳게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는 모범적인 사실들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자력갱생의 된바람이 불게 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달려나아갈 때 10월의 혁명적명절을 충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승전고의 소리 더욱 요란히 울릴것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진군길은 훨씬 빠른 속도로 앞당겨질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 10월의 대축전광장에 모여 수령님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우리 세대에 기어코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자.

# 대중지도와 일군들의 혁명가적기풍

곽 영 건

오늘 우리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숭고한 혁명위업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보람찬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충성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의 우람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기적, 대비약을 일으키며 총진군, 총돌격전을 거세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오늘의 이 벅찬 현실은 일군들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으며 이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어떤 기풍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경성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하였다.

우리 모든 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대중지도를 원만히 실현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기어이 점령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대중지도를 원만히 실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주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는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에게 있는 낡은 사업작풍들을 빨리 고치기만 한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57페지)

일군들의 혁명가적기풍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열의에 넘쳐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며 혁명가적기풍의 본질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심장이 불탈 때 사람들속에서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무진장한 힘이 솟구쳐오르게 되며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과감히 뚫고나아가는 강의한 의지와 기백이 나래쳐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인 지도일군들이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대중지도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혁명과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령도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이 곧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속에 침투되며 그 집행이 조직된다. 그러므로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조직집행자인 지도일군들자신의 심장부터가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야 대중의 심장을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더욱 세차게 격동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당정책관철에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만일 지도일군들이 혁명가적기풍이 없이 늘크대하여서는 대중의 앙양된 기세와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침체와 답보를 면할수 없고 혁명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도 없다.

오직 일군들자신이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확고한 담보이다.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현시기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여나가는 영광스럽고 숭고한 혁명위업이다.

인류사회의 최고단계인 공산주의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온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치렬한 계급투쟁과 심각한 혁명적변혁과정을 동반한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위업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수행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가적기풍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 때 온 사회에 주체사상만이 순결하게 빛을 뿌리는 찬란한 공산주의 새봄을 힘있게 앞당겨올수 있다.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당면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과 온 나라가 드높은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

**조를 일으켜 6개년계획의 나머지 주요 고지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0~11폐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모든 분야에서 충성의 총돌격전을 벌려 6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10월 10일전으로 기어이 앞당겨점령하고 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이미 2년이나 앞당겨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한 그 기세로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에 기어이 800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한다.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속에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참신하고 패기있게 혁명적으로 지휘해나가야 한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을 본분으로 하는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의 적극적이고 열렬한 해설선전자, 당정책관철의 능숙한 조직지휘자, 철저한 관철자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때 대중의 앙양된 기세와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고도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낼수 있다.

충성의 열정이 불타는곳에서는 온갖 창의창발성이 다 발휘되며 물자도 기술도 로력예비도 다 나오고 앞을 막아나선 장벽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담하게 뚫고나갈수 있는 창조의 힘이 용솟음치게 된다.

이것은 오늘 세상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경탄시키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우리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이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실로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리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기풍문제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통찰하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도록 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본보기를 마련하시고 그것으로 대원들을 꾸준히 교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전국의 수많은 공장과 농어촌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와 우리 군에 대한 수십차에 걸치는 현지지도는 우리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세우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수많은 공장, 농어촌과 함께 우리 평원군을 찾아주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세심하게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포연탄우속을 헤치시고 친히 우리 군의 원화리를 찾아주시여 농민들과 같이 농사일에 대하여 의논도 해주시고 풍년씨앗과 두엄도 놓아주시면서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

으로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실천적모범은 실로 우리 일군들에게 참신하고 생기에 넘치는 혁명가적기풍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었으며 무궁무진한 창조의 힘을 낳게 해주었다.

*　　　*

일군들속에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 혁명하는 사람답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투쟁하는 건전한 기풍이 지배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일군들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깊이 알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스럽게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3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신념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표현이며 혁명가적기풍의 본질적요구이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사업부터 짜고들었다.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할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자기의 숭고한 혁명임무를 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는 실로 우리 시대 혁명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과 과학적인 대중령도방법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광범한 군중을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우선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는데 심중한 당적주의를 돌렸다.

우리는 특히 매 시기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이 제시되면 제때에 집중학습과 토론회를 조직하여 모든 일군들이 그 진수와 전반사상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당일군들을 비롯하여 군안의 모든 지도일군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킨다음 당중앙의 방침대로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실정도 료해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당사업 특히 당사상사업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을 발전하는 현실에 더욱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하며 이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사실상 이전에는 많은 경우 우리 일군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아래일군들에게 통계나 요구하고 그들을 불러올려다가 강습이나 주어 내려보내는식으로 일반적포치를 하거나 또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독촉이나 하고 몇마디 강조나 하고 올라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낡은 사업방

법을 대담하게 마스고 모든 일군들이 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과 같이 일하면서 정치사업을 생동하고 실속있게 벌릴수 있도록 연구토론회와 방식상학을 조직진행하였다.

연구토론회와 방식상학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은 군중과 같이 일하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해주는 방법, 작업휴식시간에 자연스럽게 독보회를 하는 방법, 직관공작하는 방법, 작업현장에서의 예술적형식을 통한 선동방법 등 다양한 군중정치사업경험을 배울수 있었으며 군중정치사업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공장과 농촌에 내려간 군당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일군들은 대중과 같이 일하면서 틈과 격식이 없이 일터에서 소박하게 그들에게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대회 그리고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그이의 강령적교시와 당정책을 해설해주기도 하고 쉴참에는 국내외의 혁명정세도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들은 일터로 오가는 길에서, 가정을 찾아가서 그리고 대중과 접촉하는 모든곳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해주고 그 관철을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학습회때에는 아래에 내려간 군안의 책임일군들과 당일군들은 자신이 직접 학습강사도 하고 다양한 기동예술선동사업도 조직진행하였다.

이렇게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일도, 휴식도 같이 하며 그들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침투시키는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때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은 비할바없이 높아지며 모든 분야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10만톤의 알곡을 생산한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원화리에서는 보통때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20만톤의 흙을 떠옮겨 80여정보의 모래땅을 기름진논으로 개량한것을 비롯하여 남산리에서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이 궐기하여 100여정보의 다락논을 밀어제끼고 규격포전으로 알뜰히 정리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런 기적과 혁신 속에서 불과 몇달사이에 군적으로 1만 5,000여정보의 논밭을 훌륭히 개량했으며 1,000여정보의 새땅을 얻어냈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책임일군들이 아래일군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업을 조직하고 총화하면서 실천적모범으로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여주며 그들속에 혁명가적사업기풍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은 로동, 학습,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여야만 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받을수 있으며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71폐지)

이신작칙,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대중을 감화시키며 교양하여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작풍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은 언제나 힘든 일에서 대원들의 앞장에 섰으며 자신의 모범으로써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그들은 전투에서 공격할 때에는 맨앞에서 용감히 싸웠고 후퇴할 때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맨뒤에서 쫓아오는 적을 무찔렀다. 지휘관들이 언제나 힘겨운 전투와 행군에서 늘 모범을 보였기때문에 대원들은 매일과 같이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으로 지치고 식량부족으로 참기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모두다 자각적으로 규률을 지키고 용감히 싸웠다. 이것은 지휘성원들의 이신작칙이 그 어떤 어려운 전투에서나 군중공작에 있어서 성과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돌격전의 최선두에 서서 자기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진격로를 개척한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남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먼저 뛰여들어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제끼면서 대중을 실천적모범으로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 삼봉리를 또다시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여름 정성들여 가꾼 낟알들이 아직 논판에 쌓여있는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가을한 낟알을 빨리 걷어들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군안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지도일군들은 남먼저 작업복을 갈아입고 밤중으로 홰불을 켜들고 논판으로 달려나갔다.

지도일군들의 실천적행동에서 더욱 힘을 얻은 협동농장의 모든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보통때 같으면 30～40일이 걸려야 하던 일을 단 2일동안에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다.

군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항일유격대식으로 조직정치사업을 하도록 지도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지난해 우리는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전년에 비하여 정당 논벼는 평균 2.5톤, 강냉이는 3톤을 더 내는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며 기타 중요 농산물지표들도 국가과제를 넘쳐수행함으로써 10만톤군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올해 우리는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 모내기, 김매기 등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끝냈으며 군적으로 15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졌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의 지방산업공장들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염산직장을 새로 꾸린것을 비롯하여 고주파접합기, 종합호뻐기, 사출기 등 100여대의 생산설비를 만들어 지방산업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그리하여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군적으로 2배로 늘였으며 올해에도 계속 생산공정을 보충완비하여 6월현재로 공업생산량은 지난해 《70일전투》때의 최고수준을 1.4배로 뛰여넘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특히 지난해에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마련하였다.

실천적경험은 일군들이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보다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일편단심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보다 힘있게 앞당겨나갈것이다.

#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

리 강 진

주체혁명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이 바야흐로 다가오는 력사적시기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발표 30돐을 가장 의의깊게 맞이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한 우리 인민앞에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을 자신의 힘으로 건설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던 력사적시기인 1945년 8월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혁명임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기본과업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는 륭성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주었으며 새형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한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고전적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치며 도래하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1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에서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 새 사회 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해방직후 조선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혁명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나가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국제무대에서 민주와 반동간의 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파시즘의 예속에서 벗어난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길로 나가게 되였으며 세계도처에서 민족해방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제2차대전의 결과 제국주의의 세력범위가 현저히 축소되고 파국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가 더욱 격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쇠퇴몰락하여가는 제놈들의 처지를 구원해보려고 갖은 교활한 수단과 책동을 다하였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밑에 《자유의 화신》, 《해방자》의 탈을 쓰고 도처에 침략의 마수를 본격적으로 뻗치기 시작하였으며 새 전쟁 준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해방된 조국땅은 한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였고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인민대중은 도처에서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폭로규탄하고 새 조국 건설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일떠섰다.

그런데 이러한 때 지난시기 령도권쟁탈에 눈이 어두워 파벌싸움만 일삼으면서 조선혁명을 말아먹은 종파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또다시 혁명가의 탈을 쓰고 기여나와 순진한 근로대중을 기만하며 롱락하려 하였다. 놈들은 저마다 《애국자》, 《혁명가》로 자처하고 우리 나라에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느니,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혁명력량을 분렬시키고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앞길에 혼란을 조성시켰다.

이리하여 인민들은 한결같이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갈망하였으나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정확한 투쟁로선을 제시해주며 그 실현에로 애국적민주력량을 조직동원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전도를 위하여 참으로 절박한 문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우선 해방된 우리 나라는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이 떠드는것처럼 부르죠아혁명도, 사회주의혁명도 아닌 민주주의혁명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일제의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발전을 억제당하였으며 오래동안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의연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며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현단계에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됩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12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로선은 해방된 우리 인민들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유일하게 옳은 로선이다.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지배하고있던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해방후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없애는 동시에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로선은 과거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과 계급적력량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현명한 로선이였다. 이 로선은 또한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게 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닦게 하였으며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변시킬수 있게 한 혁명적인 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빛나게 실현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자면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혁명무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건당, 건국, 건군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력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폐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

고 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여 광범한 군중을 그 주위에 묶어세워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리고 인민정권을 세워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주권을 틀어쥐여야 하며 혁명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무장력을 마련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혁명무력을 건설하는 것은 혁명의 근본문제이다.

혁명적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혁명적당이 없이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주력량을 혁명의 편에 확고히 묶어세울수 없으며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도 인민무력을 건설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있어야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결속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옳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다.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한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주권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 로동계급은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만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족군대를 창건하여야 한다. 정규적인 혁명무력의 창건은 자주적인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군대를 건설하여야만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자주권을 완전히 보장할수 있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무력으로 담보할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은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륭성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위적군사력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듯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은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에서 독립을 공고히 하고 혁명의 급속한 전진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혁명임무이다.

##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과 국가, 무력건설에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방도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통일적인 로동계급의 당인 조선공산당을 하루속히 창건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창건의 이 독창적인 방침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특수성과 믿음직한 혁명의 근간이 이미 마련되여있는 조건을 가장 정확히 타산한 혁명적인 당창건방침이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지난날 통일적인 혁명적당이 없었던 사정으로 절대다수의 로동자들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단련되지 못하였으며 종파주의의 사상여독을 청산하지 못하고있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에 적지 않게 물젖어있었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선전에 의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의혹심과 편견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이 극복되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확고히 이루어져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김연되고 단련된 생신한 공산주의핵심들이 육성됨으로써 당창건의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체형의 생신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는 길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였다. 그렇게 하여야만 당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혁명로선을 정확히 구현할수 있는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보장하고 여러 지방에서 모여온 공산주의자들과 새로 들어오는 당원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수 있었다. 또한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있으며 당을 보다 넓은 지반우에서 창건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창건된 로동계급의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이 보장된 전투적당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창건된 주체의 혁명적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을 전면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탁월한 사상은 혁명적당창건의 가장 빠른 길을 밝힌 지도적지침이며 새형의 주체의 혁명적당건설리론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된다. 그것은 또한 공산주의핵심을 통하여 당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혁명력량을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울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사업경험에 기초하시여 새형의 정권인 인민정권창설로선과 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시여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농민대중과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의 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에 토대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설의 이 방침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정권건설사상이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해방된 나라들은 그 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대중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게 되며 여기에서 로동계급이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령도계급으로 된다. 이러한 사회발전과 력량편성에서의 특성으로 하여 당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 될뿐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주의혁명의 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수한 핵심들로 인민정권을 꾸리고 인민정권이 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애국력량을 집결시키며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강력한 계급투쟁의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주권건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여야 하며 특히 정권수립을 위한 투쟁은 누가 누구를 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므로 최대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민정권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주권문제에 관한 혁명리론의 새로운 발전으로 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탁월한 기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워진 인민정권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행동강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나라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총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사회정치적 및 경제, 문화생활에서의 일체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는 등 일련의 과업들이 반영된것으로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인민정권앞에 나선 전략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규적인 혁명무력건설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혁명군대를 창건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규적인 혁명무력창건방침은 그이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장구한 기간에 걸쳐 혁명무력건설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우리 인민 자신의 힘으로 창건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의 무장력으로 담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건군사상이다.

##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는 과학적공산주의사상발전과 혁명실천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한것으로 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참으로 거대한 기념비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이다.

수령님께서 문헌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사상과 리론들은 해방후 복잡하고 혼란된 첨예한 정세하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인도한 지도적지침으로, 새 조선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은 그이께서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 제시하신 주체적혁명로선과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천명하신 독창적인 사상을 해방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킨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앞길을 밝힌 휘황한 등대로, 투쟁강령으로 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 조선 건설을 위한 3대과업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찾고 종파분자들,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의 부당성과 반동성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따라 새 조국 건설의 길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에 담겨진 탁월한 사상과 리론은 또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기치로 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의 성격과 임무,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은 로동계급이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한 다음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어느 길로 나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본의 억압과 철쇄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은 또한 당, 국가 및 군대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된 대백과전서적문헌이다.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근본문제로 되는 당, 국가 및 무력 건설 사상과 리론이 전일적인 하나의 체계속에 정연하게 해명되여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강령이며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의 보물고를 비상히 풍부히 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당, 건국, 건군의 탁월한 사상은 이 땅우에 빛나게 실현되여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열광적인 환호속에 조국으로 개선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피어린 싸움의 나날에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한몸으로 막아나서시면서 몸소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시키시였으며 혁명무력을 키워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편 항일혁명투사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시여 지방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을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인민무력창건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혁명적 당과 인민정권이 탄생하고 혁명군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다.

참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인민들속에서의 높으신 권위로 하여,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받드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혼란된 정세가 바로잡아지고 혁명의 준엄한 난관과 시련이 극복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과제로 남아있었던 건당, 건국, 건군의 혁명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의 빛나는 실현, 이는 그것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흘려싸운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열매이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전위부대,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침략으로부터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적당과 혁명정권, 인민무력을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준엄한 계급투쟁과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수령님의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는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던 이 땅우에 근로하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난날 뒤떨어졌던 작은 나라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의 우두머리 미제를 타승하고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수백년이 걸리야 할 력사의 그 길을 수십년으로 앞당기며 혁명의 지름길을 따라 두 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 자랑찬 성과이다.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면모를 찬연히 빛내이는 눈부신 성과는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기적이다.

참으로 건당, 건국, 건군의 탁월한 사상이 이 땅우에 구현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30년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멀리 전진시켰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앞에는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임무가 놓여있다.

혁명정세는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질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에 따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충성의 혁명관을 가진 수령님과 당중앙의 근위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당과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를 싸우는 남반부인민들의 고무적기치로,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정열로 들끓고 당과 정권기관, 인민군대가 강화될 때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사나운 풍파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의 기치아래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 천리마운동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대중운동

김 정 숙

오늘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대진군, 속도전의 혁명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발표 1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년 8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에서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거대한 의의와 혁명적본질을 처음으로 밝히시고 이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이룩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의 진군로를 휘황히 밝혀준 이 천재적로작의 발표는 천리마운동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는데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다그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차게 다그쳐온 우리 인민은 천리마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 떨치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실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이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위대한 대중운동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천리마운동에 관한 위대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중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가장 올바른 대중령도 방법이며 형태인 천리마운동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위대한 대중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운동은 대중을 믿으며 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당의 인민적사업방법과 군중로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116~11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인것만큼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는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로동계급의 대중운동은 반드시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 대중운동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령도를 위한 기본사업방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의 원칙적요구이다. 특히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수억만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대중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대중운동이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령도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기본요구와 우리 시대 대중운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가장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대중운동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해나간다.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대중운동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그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갖게 하며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그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도록 한다. 천리마운동의 발생발전의 력사적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운동은 오직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언제나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거기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에 발생한 혁명적대중운동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심장으로 접수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된 높은 정치적자각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휘하여 일으킨 전인민적인 일대 혁명운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심화발전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 것을 짓부시고 새것, 공산주의적인것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력사적운동으로, 위대한 혁명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운동의 혁명적본질과 혁명발전에서의 그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이 운동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으로 규정하여주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천리마운동이 창시되고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총로선으로 제시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대중령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정확한 방법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그 주인이며 담당자인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빨리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대중운동의 불멸의 전형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에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으로 규정해주시고 3대혁명수행에서 이 운동이 놀아야 할 임무와 역할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수령님의 구체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과의 사업,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기술, 문화 혁명을 결합시켜 수행하면서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다같이 빠른 속도로 점령해나가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적대진군운동으로 발전되였으며 경

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위대한 주체의 혁명위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오늘 당중앙에서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에 의하여 더욱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속도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사회주의대건설위업,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 잘 구현해나감으로써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들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해나가는것은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의 하나이다. 천리마운동의 이러한 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 즉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데 대한 속도전의 기본요구에 그대로 훌륭히 구현되여있다. 속도전은 또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천리마운동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속도전에서는 사상혁명, 사상전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여기에 조직지도사업을 적극 안받침해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 유기적으로 련관된 모든 공정들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며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치게 한다. 참으로 속도전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천리마운동의 기본요구들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구현한 모범이며 이 운동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의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혁명의 실천속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으며 날을 따라 더욱더 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촉진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9페지)

천리마운동의 대고조속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전히 실현된것이다.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근로자들은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들을 철저히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운동발전과정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전당과 온 사회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결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였다.

특히 속도전의 세찬 혁명적불길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은 급속히 촉진되고 온 사회에는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 소극과 보수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적생활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전체 인민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대단결을 이룩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온 사회가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화목한 대집단으로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 이것은 위대한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의 방침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며 자랑찬 승리이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충천하는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남김없이 발휘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창조와 건설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천리마운동이 시작되던 당시만 하여도 아직 식민지농업국가의 흔적과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가시지 못했던 우리 나라는 세기를 주름잡아 내달리는 천리마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의 높은 봉우리에로 비약하였으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그 어떤 세계적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이 땅우에 건설하여놓았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서의 천리마운동의 커다란 생활력은 속도전의 혁명적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속도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사상전이 끊임없이 심화되는 과정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인 전변이 일어나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충성의 돌격전이 세차게 벌어짐으로써 불과 한두달사이에 생산을 일약 몇곱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고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것과 같은 전례없는 대기적, 대비약이 이룩되였다.

실로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의 방침의 빛나는 상징으로 되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시대에 살며 일하는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세계 인민들은 천리마조선의 우리 인민을 매우 부러워하고있다.

* *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할 현실적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우리의 모든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천리마의 발구름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면서 전진속도를 부쩍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1975년 1월 1일, 18~19페지)

지금 우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에게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새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6개년계획의 모든 과업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이며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 영예로운 전투이다. 이 영예로운 전투에 뛰여들어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의 가장 큰 영예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그 어떤 산악과 사나운 격랑이 앞을 막아나서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6개년계획을 기어이 완수함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심으로 한초한초를 꽃피워야 할 이 시각 당중앙은 우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에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충성의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은 산을 떠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힘을 낳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이 온 몸에 불탈 때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으며 점령못할 고지란 있을수 없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해온 우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금번의 충성의 돌격전에서도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여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충성의 돌격전을 세차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 속에서 대사상전, 진공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사업을 힘있게 들이대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면 참으로 상상을 뛰여넘는 무진장한 힘이 솟구쳐오르고 어디서나 예비가 쏟아져나와 생산과 건설을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새로운 천리마운동의 불길, 속도전의 열풍으로 충성의 돌격전을 벌리기 위한 기본열쇠도 바로 대사상전, 사상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는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을 실속있게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그들모두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분초를 다투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모든 초소마다에서 맡겨진 전투과제를 일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나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하게 하며 모두가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 미제침략자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박는 멸적의 투지로, 피흘려 싸우는 남녘땅형제들을 돕는 혈육의 심정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충성의 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사상적《잡귀신》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상전, 사상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로운 비약이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낡고 침체한것이 우리의 전진을 방해한다. 오늘의 충성의 돌격전도 우리의 힘찬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을 짓부시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힘있게 벌어질수 있다.

우리는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 속에서 사소한 침체와 답보, 소극과 보수 등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철저히 쓸어버리기 위한 대사상전, 사상투쟁을 강력히 벌려 그들모두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게 하며 어제날의 기적과 혁신이 래일에는 먼옛일로 되게 하는 대비약, 대가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이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번개같이 일을 해제낌으로써 천리마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실천투쟁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충성의 돌격전을 세차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6개년계획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또한 그것은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에 대처할수 있도록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고 우리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이미 마련하여놓은 사회주의경제의 위력과 잠재력이 무진장한 오늘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것을 옳게 동원리용한다면 우리의 진군속도를 더욱 비상히 높일수 있다.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온갖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기대와 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시키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방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자체의 힘으로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절약하고 증산하는것은 천리마운동의 기본과업의 하나이며 충성의 돌격전을 벌리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의 주인, 나라의 참된 주인답게 자재와 원료의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사소한 랑비현상도 견결히 반대하며 한키로그람의 철과 석탄, 한키로와트시의 전력, 한방울의 연유, 한오리의 실이라도 극력 아껴쓰고 절약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아름다운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충성의 돌격전을 세차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에 대한 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으로부터 천리마작업반운동지도사업을 위임받고있는 직맹조직들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 운동지도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직맹조직들과 그 일군들은 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천리마운동에 대한 지도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 속에 그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들이대며 모든 전투장마다가 충성의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직맹일군들은 언제나 불꽃튀는 전투장에,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어렵고 복잡한 일을 먼저 맡아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을 충성의 돌격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또한 직맹조직들과 그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관철하여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자재보장사업, 후방사업을 책임적으로 안받침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모든 전투원들이 생산과 건설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이 충성의 돌격전을 세차게 벌려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10월의 대축전마당을 더욱 빛내이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위력을 다시금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애국투쟁

김 창 형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날로 더욱 심화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 그리고 종교인들까지도 이 투쟁에 나서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북반부와 함께 통일하기를 원하고있습니다.》

조국해방후 30년동안이나 미제의 강점밑에서 온갖 민족적모욕과 억압, 착취와 불행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더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참으려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그들의 지향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파쑈폭압이 살판치는 그 엄혹한 조건에서도 감옥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로운 애국투쟁에 결연히 일떠서고있는것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들이 《유신》독재의 어두운 장막을 박차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때로부터 새로운 단계로 더욱 심화발전하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과 세계무대에서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커다란 승리에 고무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오늘 《박정권의 퇴진》과 《유신》헌법의 철페, 《중앙정보부》의 해체, 석방된 학생들과 교수들의 복교, 복직을 요구하며 《학도호국단》결성놀음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계인사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탄압을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로동자들은 로조의 결성과 해고된 로동자들의 복직, 임금인상, 《민방위대》페지를 요구하여 공동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현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가고있다. 남조선의 지식인, 종교인, 야당계정치인들도 박정희역도의 사임과 파쑈고문정치의 철페를 주장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현군사파쑈독재하에서의 그 어떤 부분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사회정치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남조선인민들의 당면한 주되는 투쟁으로 되고있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군사파쑈독재와 직접 대결하는 격렬한 투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여있으며 괴뢰지배층안에서 불안과

간등이 더욱 심해가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과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사이에는 자주와 예속, 민주와 파쑈, 애국과 매국,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렬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온 남조선땅에는 류례없는 파쑈폭압과 전쟁소동, 분렬책동에 미쳐날뛰는 박정희매국도당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 가득차있다.

남조선에서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 인민들의 반제,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가혹한 식민지파쑈테로통치가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에서 오는 필연적산물이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지난 14년동안 온갖 파쑈적전횡과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더욱더 커다란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켰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당황망조한 박정희매국도당은 악명높은 《유신》체제를 꾸며놓고 그 막뒤에서 남조선을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으며 류례없는 파쑈폭압으로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권리상태에 몰아넣었다. 놈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는 한편 《두개 조선》조작을 정책화하고 남북대화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대결과 파쑈폭압, 전쟁 책동만을 일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의 추악한 도구인 《유신》체제야말로 가장 악랄한 파쑈체제이며 분렬체제이며 전쟁체제로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는 도저히 량립될수 없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쓸어버리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남조선에서의 혁명운동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으며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억압을 반대하고 자유를 요구하며 파쑈를 불사르고 민주주의를 념원하는것은 인민들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는것은 응당하며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그 무슨 《몰지각한 자들의 란동》으로 모독하고있으며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한의 제한》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을 총칼로 억누르는 저들의 파쑈적전횡을 합리화하며 남북대결과 민족의 영구분렬로 제놈의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어리석은 수작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내외여론을 기만할수 없고 제놈들의 매국배족적정체를 가리울수도 없으며 민주항쟁에 일떠선 애국의 심장들을 묶어놓을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제 남조선통치배들이 남조선사회의 밑바닥에 쌓인 인민들의 불만과 울분을 더이상 총칼로 내리누른다면 그것은 보다 큰 혁명적폭발을 가져올것입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이며 가장 반동적인 군사두무테로집단인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뒤집어엎는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며 민주화투쟁의 본질적요구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전역을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도살장으로 전변시켰으며 나라와 민족을 팔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며 그것은 군사파쑈독재

를 타도하고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요구와 인민들의 절절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전횡을 더이상 허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느냐, 놈들의 매국과 분렬책동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분쇄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민족적자주권을 되찾느냐 하는것이 일정의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만일 박정희괴뢰도당이 파쑈폭압의 어두운 장막속에서도 도도히 흐르는 인민대중의 기세를 보지 못하고 남조선사회의 밑바닥에 쌓인 그들의 불만과 울분을 계속 총칼로 억누른다면 그것은 놈들을 종국적으로 멸망시킬 무서운 혁명적폭발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모든 사태발전은 박정희도당이 그 어떠한 폭압과 회유기만으로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미 기울어진 제놈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다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 ✻

남조선인민들의 반제,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16페지)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것은 인민들이 선진사상을 옹호선전할수 있고 모든 애국적인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회정치적환경을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는 인민들의 초보적인 요구이며 권리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의 한 고리로서 민족의 사활적리익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대중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과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기때문이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우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실현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이다.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나라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다.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이 기본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을 제거하고 통일문제를 인민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실제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근본장애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가혹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실시하고있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산물이며 거기에 철저히 복무하는 매국배족의 도구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애국적민주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남조선의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 기관들이 놈들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파쑈통치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근본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분렬된 조국의 절반땅에 식민지파쑈통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오직 군사파쑈통치를 뒤엎어엎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때만이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고 통일운동의 성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 사상 및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유롭게 통일문제를 론의하고 그것을 인민들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현 군사파쑈독재가 타도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된 때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세력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것이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북과 남의 대화를 성과있게 추진시키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며 나아가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주장은 남조선에서 민주화운동이 승리하고 민주주의인사가 정권에 올라앉으면 남북사이에 제도상 차이와 신앙의 차이가 있지만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5대방침의 하나입니다.》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위업이며 현시기 우리 인민앞에 나선 당면한 최대의 투쟁목표이다.

수천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왔으며 30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인민은 북반부사람이나 남조선사람이나 다같이 통일을 원하고있다. 남북조선인민들은 누구나 분렬을 원하지 않으며 분렬을 바라는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남조선의 몇몇 반동들과 미제의 앞잡이들뿐이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그 값으로 제놈들의 잔명을 유지하며 부귀영화를 누려보려는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만이 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온갖 매국반역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은 안팎의 원쑤들의 분렬주의책동을 분쇄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이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은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가 분쇄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이룩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지 3년이 되였으나 박정희매국도당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는 아무런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다. 남북대화의 전행정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대화도 그 어떤 통일방안도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통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데 뭉쳐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

남조선에서 민주화운동이 승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주장대로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는다면 우리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믿음직하게 보장할것이며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끼리 평화적으로 훌륭히 해결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제도와 북반부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실시하자는것이며 남북이 합작하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자는것이다. 대외적으로 단일국호를 가지고 통일국가로 출현하며 국내적으로는 북과 남에 엄연히 존재하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련방제의 기본내용이다.

남조선사회가 민주화되고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남북조선인민들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또한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호상리해가 촉진되고 민족적련계가 강화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또한 《반공》의 구호밑에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은 위기에 처한 저들의 신세를 건져보려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습니다.》**

최근 인도지나지역에서 참패를 당하고 완전히 쫓겨난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면모를 가리우고 아세아에서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남조선을 끝까지 틀어쥐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남조선괴뢰들에게 이른바 《군사공약》을 지킨것이라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조선에서의 새 전쟁 준비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안팎으로 궁지에 빠져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전대미문의 파쑈폭압과 전쟁책동을 강화하는데서 출로를 찾으려고 발악하면서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며 정세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고있다.

놈들은 류례없는 살인폭압령인 《긴급조치》 9호와 《전시 5법》까지 공포하여 남조선사회를 총칼과 인간살륙만이 횡행하는 《유신》독재의 형틀에 더욱 철저히 얽어매였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걸어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고있다. 놈들은 《국민총화》, 《총력안보》의 구호밑에 남조선전역에 《초비상전시체제》를 선포하고 주민들을 총칼로 내몰아 《반공궐기대회》니, 《안보단합대회》니 하는 따위의 범죄적소동을 련일 벌리고있다. 또한 박정희도당은 이른바 《남침위협》을 떠벌이면서 무분별하게 군사적도발과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으며 악명높은 《학도호국단》이니 그 무슨 《예비군》이니 하는것들을 련이어 꾸며내여 인민들을 《멸공》과 《승공》에로 내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광란적인 소동은 인민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힐 운명에 처한 자의 단말마적발악으로서 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며 민족내부에 반목과 적대관계를 조장시키고 외세에 매여달려 동족상쟁을 일으키며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날로 횡포해지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반공》파쑈화책동과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은 군사감옥으로, 동족상쟁을 고취하는 《반공》모략선전의 무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은 엄중한 장애를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사태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침략자와 매국노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투쟁으로써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

또한 인민대중은 투쟁을 통하여서만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할수 있으며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의 로

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더욱 각성단련되고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될수 있다.

이렇듯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앞당기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　　*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선 숭고한 애국적의무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인민탄압과 전쟁정책,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워야 하며 멸망의 위기에서 최후발악하고있는 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겨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등 온갖 파쑈악법들을 페기하고 《중앙정보부》와 모든 파쑈폭압기구들을 해체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투쟁하여야 하며 군사불한당들의 파쑈독재를 쓸어버리고 각계각층 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련합정부를 세우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력량과 광범한 반파쑈민주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투쟁에서 분산성을 극복하고 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총집결하여 강력한 구국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광범한 혁명적군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서서 견결히 싸운다면 그 어떠한 파쑈의 아성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

박정희도당이 지금 파쑈폭압에 더욱 매달리면서 발악하고있으나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반항을 막을수 없으며 이미 운명지어진 죽음의 길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압박과 탄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며 정의와 진리는 언제나 위력하며 승리하는것이다.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른 남조선괴뢰들이 미제상전에게 바싹 매달리고있으나 상전의 품속도 결코 그들의 안식처로는 될수 없다. 식민지괴뢰들이 제국주의상전의 덕을 볼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교살해보려고 아무리 날뛰여도 그것은 헛된 짓이며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가 매장되고 박정희괴뢰도당이 갇 떨어진 갓 모양으로 굴러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공》책동에 속지 말고 거기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아야 하며 놈들의 민족영구분렬과 전쟁 책동, 파쑈폭압과 《반공》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결정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며 방침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은 민족의 내부문제를 인민들자신의 손으로 풀어나가기 위한것이며 한 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으로서 지극히 응당한 의무이며 도리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으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언제나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고 원쑤들의 파쑈폭압에 굴함없이 혁명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결연히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포악한 군사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할 날은 조만간 오고야말것이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쁠럭불가담운동은 반제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운동이다

리 종 목

오늘 세계는 혁명적전환의 시기에 놓여있다.

력사에 피비린내나는 치욕의 자욱을 남긴 제국주의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여 파산몰락되고있으며 압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치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나 거인처럼 일떠선 우리 시대의 신흥세력인 제3세계인민들은 력사의 중심에 서서 인류력사발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이것은 반제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되는 위대한 사변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도도히 전진하는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투쟁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제3세계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이 운동은 현시대발전의 요구와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망라하고있으며 전반적국제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신흥세력의 절실한 리익과 지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숭고한 리념을 가지고 진행되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여왔으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여왔다.

제3세계나라인민들과 한대렬에서 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투쟁은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혁명위업의 공통성으로 하여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제3세계나라인민들과의 혁명적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위업과 세계혁명승리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 자주성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청산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신흥세력들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확대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정책은 제국주의가 파산몰락되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는 시대이며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력량관계의 근본적인 재편성과정이 진행되고있다.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총붕괴되고있는 반면에 거세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민족적독립국가들이 출현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등장하고있다.

세기적인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멍에를 벗어던진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착취와 압박, 침략과 예속에 기초한 낡은 제도, 낡은 질서를 짓부셔버리고 민족적평등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적추세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아세아대륙은 반제반미투쟁의 무대로 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는 마지막시각을 보내고있다.

캄보쟈인민과 남부웰남인민은 장기간의 간고한 무장투쟁의 결과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전령토를 해방하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어제날 압흑의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는 오늘 완전해방의 광명이 비낀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고있다. 이 대륙에서 낡은 식민지소유렬강은 이미 거의 쫓겨나고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없는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워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은 걷잡을수없이 련이어 무너지고있다.

력사의 무대에 위력한 력량으로 등장한 제3세계는 국제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낡은 정치경제질서를 마스고 변화된 국제력량관계에 맞게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시대가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민족해방투쟁과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으로 특징지어지는 혁명적전환의 시대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세계무대에서 신흥세력인 제3세계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이 모든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자주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리념으로서 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혁명적진리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으로서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류해방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자주사상은 온갖 예속과 침략, 민족적불평등을 반대하고 모든 민족이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민족으로 발전하며 참다운 번영을 이룩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사상은 모든 민족과 인민들의 절실한 지향과 리익, 시대와 력사 발전의 요구를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시대적사조로 되고있으며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이 사상을 투쟁의 무기로, 지침으로 삼고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모든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이러한 시대적추세를 반영하고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바로 여기에 쁠럭불가담운동이 가지는 거대한 전인력과 생활력이 있다.

실로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불사르고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며 제3세계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공동의 승리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쁠럭불가

담운동은 제국주의가 전면적으로 파산몰락하고 신흥세력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력사적운동이다.

## 반제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미는 커다란 추동력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력사발전과 인류해방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투쟁속에서 산생된 제3세계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투쟁속에서 산생된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평등을 위하여 단합된 력량으로 진출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투쟁에서 전투적뉴대를 강화하는것을 자기들의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무력침공과 간섭을 좌절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미제와 이스라엘 팽창주의자들, 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강력한 정치, 군사적 뉴대를 강화함으로써 침략자들을 극도로 고립시키고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고있는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 및 회의들에 당당한 성원으로 진출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꺾어버리고 놈들을 피고석에 몰아넣고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들고나온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킬수 있었다.

이것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커다란 승리인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신흥세력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신흥세력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한 제3세계나라들은 굳게 단합하여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팔레스티나인민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로 인정하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의 권리를 정지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케 함으로써 제3세계나라들의 단결된 힘을 다시금 시위하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타격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놈들을 더욱 파멸의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오늘 쁠럭불가담국가대렬에는 세계 5대륙의 근 80개나라들이 망라되여있으며 이 나라들이 가지고있는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줄수 있는 위력한 힘으로 된다.

쁠럭불가담국가들이 자기 대렬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국제무대에서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 정책에 집단적인 반격을 가한다면 놈들의 전횡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제국주의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다.

특히 이 나라들이 가지고있는 무진장한 자연부원은 제국주의자들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 놈들의 생명선을 끊어놓을수 있게 하는 거대한 잠재적힘으로 된다.

지난 기간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들의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략탈하고 인민들의 고혈을 짜냄으로써 살쪄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중요한 원료

자원을 대부분 제3세계에 의존하고있다. 제3세계의 원료자원을 략탈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팽창된 경제를 유지해나갈수 없는 형편에 있다.

이것은 제3세계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명맥을 틀어쥐고있으며 제3세계나라들이 제국주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을수 있는 거대한 물질적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사태발전은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진출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예속화정책을 부셔버리고 놈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4차중동전쟁시기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또한 지난해에 있은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신흥세력나라들의 공동의 리익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확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바다의 자원을 략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고 놈들에게 또다시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제3세계나라들은 이 밖에도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에 관한 회의, 석유수출국가기구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자체의 자연부원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밑에 제3세계나라들이 벌리고있는 이 모든 투쟁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신흥세력나라들은 지금까지 이 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온 제국주의자들의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실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세력권은 더욱더 줄어들고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제3세계나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자들이 완전히 쫓겨날 때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더는 존재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신흥세력과의 대결에서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전면적인 타격을 받고있으며 파산몰락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면서 침략과 간섭, 전쟁 책동을 강화하며 제3세계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려고 미쳐 날뛰고있으나 놈들은 결코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약화시킬수도, 자주성의 시대의 거창한 흐름을 가로막을수도 없다.

이렇듯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예속, 간섭과 민족적불평등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에서와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제3세계나라들의 숭고한 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전진하자

력사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세력은 반제혁명투쟁,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멀리 전진하였으며 시대와 인민들은 자주의 길을 따라 빨리 전진하고있다.

신흥세력이 급속히 장성강화되고 그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는데 대하여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아세아, 아

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진보적인 민족국가들에 대하여 파렴치하고 악랄한 무력간섭과 파괴전복활동을 벌리면서 이 지역에서 잃어버린 옛지위를 되찾고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과 억압, 힘의 사용과 간섭책동은 제3세계인민들의 정의의 위업과 전반적평화와 안전에 항시적인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은 제국주의자들의 각개격파전략에 단결의 전략으로 대하고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13페지)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굳게 단결하여 신흥세력의 진출을 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단결은 피압박인민들의 손에 장악되여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제3세계나라들이 자체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경제기술적토대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서로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협조하여나간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제3세계의 전반적위력을 급속히 강화하여나갈수 있다.

국제관계분야에서 낡은 불평등한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며 국제문제해결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영원히 끝장내는것은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낡은 국제질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억압과 략탈, 무제한한 특권을 위한 수단이며 제3세계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화근이다.

제3세계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낡은 국제질서의 옹호자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하며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흥세력의 단결과 협조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3세계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경제기술적협조가 강화되고 쁠럭불가담운동이 더욱 확대강화될 때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낡은 국제질서는 깨여지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게 될것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는 번영하는 대륙으로 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우리 시대의 근본문제들 특히 제3세계의 력사적운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3세계인민들과 공통된 립장에 서있으며 쁠럭불가담정책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정책의 원칙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실시하고있는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의 원칙들과 일치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기의 일관한 자주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그들의 위업을 자신의 위업으로 간주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친히 축전을 보내시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내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대표단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에 관한 회의에 정식성원으로 참가하였으며 또한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쁠럭불가담국가회의에 참가시킬데 대한 찬성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조선인민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사이의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이러한 련대성의 뉴대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목적과 리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며 완전한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으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방침은 민족주체적력량으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사활적리익과 반제자주를 위한 오늘의 시대적리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우리는 조선문제를 막뒤에서 흥정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책동도 결코 용허할수 없다.

요즘 미제의 추악한 괴뢰인 박정희도당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대렬에 끼여들려는 어리석은 수작을 부리고있다. 이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망동이다. 박정희괴뢰도당으로 말하면 미제의 추악한 식민지괴뢰이며 철저한 매국노이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집행에 미쳐날뛰는 전쟁미치광이며 남조선땅을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총칼이 살판치는 군사감옥으로 전변시킨 극악한 군사파쑈도당이다. 이러한 군사깡패가 쁠럭불가담운동에 끼여들려는것은 순전히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혼란을 일으키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악랄한 책동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그를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나라 인민들과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갈것이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제3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반제반식민주의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적기치,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쁠럭불가담운동은 날과 더불어 더욱 확대발전할것이며 신흥세력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 로 자 제6호 (루계 4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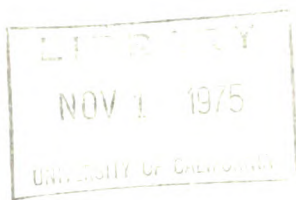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5년 8월 1일 발행 • 1975년 6월 5일

ㄱ-55270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9 호(401)

# 차 례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공화국창건 스물일곱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세워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에로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께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공화국정권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를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지난날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세울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자력갱생의 나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실로 공화국정권이 걸어온 전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해온 가장 보람찬 혁명의 길,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이였다.

오늘 공화국정권은 날과 더불어 더욱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보다 큰 포부와 혁명적랑만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혁명은 지금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정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나가는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정권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형의 혁명정권이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시종일관 주권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정권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공화국정권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시하신 혁명정권건설로선과 고귀한 사업경험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인

민정권을 세우시고 그것을 새로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여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화국정권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에서 자라난 공화국정권은 창건 첫날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경이적인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정권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단결시켰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를 그 어느때보다 더욱 튼튼히 꾸려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한 공산주의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그들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치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미풍이 활짝 꽃피고있으며 왕성한 투지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온 사회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전체 인민이 혁명적 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여기에 우리 나라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공화국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공화국정권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이룩한 모든 세기적인 변혁들과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불멸의 업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공화국정권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현시기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공화국정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공화국정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공화국정권은 사상혁명, 계급투쟁의 강력한 무기이다. 사상혁명,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근로자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수 있다.

근로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과정인 동시에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 계급투쟁과정이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습관으로 굳어진것으로서 그것은 매우 보수적일뿐아니라 집요하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자면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주로 법규범과 규정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관으로서의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투쟁, 법적통제를 강화

해야 한다.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사상투쟁,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관으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종국적으로 뿌리고 새로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할수 있다.

근로자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상혁명은 공화국정권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철저히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그런것만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는데 따라 사상혁명, 계급투쟁의 무기인 공화국정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문제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으며 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로 완전히 개조되는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상혁명의 무기인 사회주의국가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지 않는다면 낡은 사상이 되살아나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여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여가는데 따라 사상혁명의 무기인 공화국정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근로자들속에서 생활이 높아지는데서 나타날수 있는 안일성, 해이성, 권태증을 극복할수 있고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온 사회에 불멸의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만들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는데 따라 사상혁명의 무기인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또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위업을 계승해야 할 새세대들을 혁명화, 주체사상화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당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이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진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계승해야 할 새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이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가 바로 사상혁명의 무기인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여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의 무기인 공화국정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은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 특히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고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풍모와 높은 자질을 가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공화국정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공화국정권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나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공화국정권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함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불멸의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한데 대하여》, 23페지)

공화국정권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간의 련계가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공정들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촉진되여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고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빨리 높아지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촉진되여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공화국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보다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진다.

그러므로 공화국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여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 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막대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균형적으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정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다시한번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개를 떨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정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편에는 더욱더 유리하게,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게는 불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우리를 반대하는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암해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공화국정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두개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공화국정권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만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지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승리의 한길로 걸어온 공화국정권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숭고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공화국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정권기관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공화국정권이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자로 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혁명의 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영원히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어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은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며 오직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대렬의 사상의지적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튼튼히 다지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국가 및 사회 생활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공화국정권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물론 법이 필요없게 될것이지만 아직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외부로부터 부르죠아적사상독소가 침습해들어오는 조건에서 법적통제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정권기관이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계급적원쑤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아내고 간첩과 파괴암해분자들이 준동할수 있는 틈을 철저히 소탕해버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경제문화기관들에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며 지금 있는 법규범과 규정들도 새 헌법의 요구에 맞게 고쳐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7페지)

국가 및 사회 생활에 대한 정권기관의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법규범들과 규정들을 수정보충하고 완성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주체적헌법으로서 그것

은 사회주의헌법의 본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로동계급의 국가건설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대법전이다.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이며 행동준칙이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국가활동의 원칙들과 국가기관들의 임무,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여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헌법에 제정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범과 행동준칙을 만들고 전체 근로자들이 그대로 사업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헌법에 담기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수 있고 당의 의도와 국가의 정책적요구들을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다.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사회의 정치적분위기도 또한 좋다. 온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불같은 충성의 일심으로 들끓고있으며 인민들의 사기는 충천하다. 사회주의대건설에서의 보다 큰 승리는 바로 국가행정경제기관일군들이 앙양된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 모두의 심장속에 수령님에 대한 인화같은 충성의 불씨를 안겨주며 그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의 무궁무진한 예비는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사상을 어떻게 발동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할 때 무제한한 예비가 쏟아지나올수 있으며 극복못할 난관이나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든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특히 경제선동사업을 전투적으로 기동성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기술적으로 안받침함으로써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속도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모든 국가행정경제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발동시키며 생산과 건설에 대한 기술경제적보장사업과 전투지휘를 정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물질기술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한 계획을 옳게 세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특히 자재공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모든 행정경제일군들은 생산과 건설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아끼고 절약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고 신지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국가행정경제기관들의 조직지도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조직하고 판을 크게 벌리며 진공적으로 패기있게 내미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판을 크게 벌려 밀고나가는 원칙에서 조직사업을 해야 하며 전투일

무가 제시되고 중심고리를 포착한 다음에는 지체없이 해당 단위의 모든 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전격전, 섬멸전을 들이대여 설정된 목표를 단숨에 점령하고 련이어 새 임무수행에로 넘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단 시작한 일을 질질 끌거나 중도반단할것이 아니라 끝장을 볼 때까지 불이나게 다그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

국가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정권을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입니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여야 우리 당 대렬이 튼튼할수 있으며 간부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이 잘 되여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간부가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들은 국가건설의 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국가행정기관일군들의 역할여하에 따라 국가경제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 그러므로 국가행정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간부들을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키우는것은 우리의 혁명정권을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출발점으로, 기본으로 된다.

우리는 각급 정권기관일군대렬을 온 몸에 티없이 순결한 주체형의 피가 흐르며 정치적자각이 높고 능력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 투쟁하는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대렬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일군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순결한 혁명사상과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각급 정권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워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은 낡은 틀,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사업을 대담하게, 격식과 틀이 없이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지도일군들은 국가의 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고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하며 로쇠현상을 극복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정권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정권을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언제나 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가행정기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완수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위대한 당이다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뜻깊은 사변이며 크나큰 경사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이한다. 이 뜻깊은 경사의 날을 앞두고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력사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칭송의 노래를 심장으로 높이 부르고있다.

유구한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30년이란 기간은 극히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당은 창건후 30년밖에 안되는 기간에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세기를 주름잡으면서 힘차게 투쟁하여 말그대로 이 땅우에 천지개벽을 이룩하여놓았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면서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의 빛나는 수행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실현, 이는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이며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나라를 만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킨 력사적인 사변이다.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이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는 튼튼한 밑천으로 될뿐아니라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 인민들이 나라의 경제기술적락후성을 빨리 없애고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곧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휘황한 홰불로 된다.

*　　　*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며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는것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였으며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념원이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악랄한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해방후 우리는 공업의 기초가 없고 경제적토대가 매우 빈약한 조건에서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하여야 하였다. 당시 우리는 연필이나 성냥 같은것도 자체로 만들 힘이 없었다. 우리 당은 또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괴수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만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혁명과업이였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져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였다.

우리 나라가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게 먹히우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이 유

런당한것도 뒤떨어진 경제와 기술을 가지고있었던것과 크게 관련되어있다는것을 뼈아프게 체험한 우리 인민들은 공업화를 빨리 실현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남보다 뒤지지 않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갈것을 한결같이 갈망하였다.

우리 당앞에 나선 이 력사적인 과업,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인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습니다.》**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문제였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 당시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우리앞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우리 당은 또한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가운데 공업화를 실현한 경험이 어디에도 없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업화로선을 세울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우선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은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는것이였다.

우리 당의 이 공업화로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로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우리 당의 공업화로선에는 사회주의공업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립장이 구현되여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내부자원으로 공업화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가장 짧은 기간에 실현하려는 철저하게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종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현대적공업 특히 현대적중공업을 창설하면 공업화가 실현되는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는것만으로는 나라의 기술경제적자립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는 객관적조건에 맞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은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완전히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인 공업체계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웠으며 공업화기간에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의 과업까지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새로운 길, 가장 올바른 길이 뚜렷이 밝혀졌다.

공업의 기초가 없고 경제적토대가 매우 빈약한 조건에서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해야 했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업화의 전제조건들을 예견성있게 마련하고 공업화의 단계를 옳게 설정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사회주의공업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이 원칙적인 문제들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첫시기에 벌써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시여 장차 나라를 공업화하기 위한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시였으며 자립적민족공업건설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시여 경제건설을 힘차게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불바다속에 잠긴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앞으로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모체로 될 강력한 기계제작공업기지들을 창설하여나가시였으며 민족간부들을 예견성있게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전후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통찰하시고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열어주는 넓은 길을 따라 공업화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후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을 천재적으로 분석하시고 공업화의 기초를 쌓은 다음 사회주의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공업화의 단계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데다가 그것마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다 파괴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여곡절이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호상관계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사회주의공업화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공업화의 속도가 좌우될뿐아니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전반적행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처음부터 중공업의 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킴으로써 이 원칙적인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었으며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의 요구대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다같이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이리하여 인민경제의 균형과 속도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고 공업화를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는 새로운 길이 개척되였으며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중공업을 건설하기나 일정한 기간 중공업을 건설한 다음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독창적인 방법이 밝혀졌다.

참으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해나가는 빛나는 로정이였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공업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나가는 자랑찬 로정이였으며 조국의 먼장래까지 내다보면서 경제건설을 예견성있게 진행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운 승리의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공업화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관철하여나아갔으며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옳게 령도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25페지)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과정은 자재도, 자금도, 기술력량도 모자라는 조건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 간고한 투쟁과정이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을 반대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 기회주의자들과의 심각한 투쟁과정이였다. 우리 당앞에는 자기의 당원들과 인민에게 의거하는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혁명발전의 이러한 형편을 천재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의 제1단계과업인 5개년계획수행에 착수하기에 앞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전당적, 전인민적 정치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 뒤이어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여러 공장들과 농촌들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가 처한 형편과 혁명의 요구, 당의 결심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대중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공업화로선을 반대하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을 높이고 축적된 자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업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던 자금문제도 자체로 풀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지지옹호하여나섰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추동한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발생하였으며 그 거세찬 진군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도,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도 다 날아났다. 반면에 우리 당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믿으시고 전당과 인민대중은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따른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 힘의 원천이 있다. 사회주의공업화에서의 류례없는 빠른 속도,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고귀한 열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들고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가장 짧은 기간에 이 땅우에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

게 벌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공업화의 전기간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그들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우리 당은 또한 공업화와 기술혁명의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 통일적인 과정으로 밀고나갔으며 과학과 기술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우리 당은 공업화기간에 중등의무교육과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널리 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훨씬 높였으며 민족간부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고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또한 비상한 혁명적진개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공업화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나그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화의 과업이 빨리 진척됨에 따라 도처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을 때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공작기계가 있는 모든곳에서 공작기계를 만들어내는 군중적인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는것이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을 때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이 공업화의 전면적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던 7개년계획시기 미제침략자들은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이러한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제때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지졌으며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과정에 나선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었으며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비상한 혁명적진개력으로 난관을 맞받아나감으로써 남들이 한세기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의 빛나는 실현, 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정확한 공업화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주심으로 하여 달성된 위대한 성과이며 전당이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줄기차게 투쟁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으로 되였으며 세계적인 경제적파동과 위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는 중요공업제품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이미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는 따라앞섰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도 빛나게 실현되였다. 특히 농촌기술혁명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여 우리의 농촌은 큰물과 가물의 피해를 모르고 해마다 높고 안정된 수확을 내며 농업생산은 전면적으로 공업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또하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입니다.》
(우와 같은 책, 426페지)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나라의 경제기술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우리 인민이 세기적으로 갈망하여온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이 땅우에 일떠세웠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이 위대한 성과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조국의 통일과 장래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들은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경험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대중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적극 조직동원한다면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지난날 아무리 뒤떨어졌던 나라에서라도 짧은 기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경험은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진을 아끼가면서 악전고투하더라도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건설하여야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 처지에서 맨처음으로 공업화를 실현하면서 우리 당이 이룩한 이 고귀한 경험들은 제국주의의 착취와 예속을 반대하며 새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의 하나인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기에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이룩한 이 위대한 업적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에게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하여온 백전백승의 전투적인 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는 전투적인 당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 당을 몸소 세우시고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을 맞이하게 된다.

국제무대에 로동계급의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고 지구상에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많지만 직접 당을 세우시고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자기의 창건일을 기념하는 당은 오직 우리 당뿐이다.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영광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가장 혁명적인 새형의 당, 주체형의 당으로서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며 보람찬 투쟁과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 영광찬란한 30년을 걸어왔다.

조선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굽임없이 향도해온 우리 당은 오늘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사회주의사회의 근본요구를 깊이 꿰뚫어보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휘황한 길을 따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그것을 실현하여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사회주의건설을 완성하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홰불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그 구현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찬란한 업적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야 할 력사적임무가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해야 할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6페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투쟁이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투쟁이다.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려면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7개년계획기간에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자립적체계가 선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여놓았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아직도 경제건설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업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한다. 우리는 문화혁명수행에서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만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더욱 개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면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려면 사상의식령역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지난 시기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공업화가 수행된 다음에도 계급투쟁과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밀접히 결합시켜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빛나게 점령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치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간고한 투쟁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거창한 사업으로서 모든것을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의 간고성과 복잡성은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한 어려운 조건에서, 원쑤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격화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국방력건설에 커다란 힘을 돌리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이끌어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과 애로들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여왔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우는 위업을 실현한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또다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게 된 위대한 경제건설강령인 6개년계획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47페지)

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앞에 펼쳐주신 6개년계획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기 위한 휘황한 투쟁강령이며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이다. 웅대한 6개년계획은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는 획기적리정표이다.

우리 당은 6개년계획을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서 3대기술혁명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였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우리앞에 나서는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활에서 그들에게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할수 있다. 또한 3대기술혁명의 수행은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고리를 기계공업의 발전 특히 공작기계생산에서 찾고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 공작기계생산에 힘을 집중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희천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여 공작기계생산을 일약 4배로 높임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희천의 로동계급이 창조한 이 모범을 따라 전국의 모든 공작기계공장들, 모든 기계공장들이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 혁신적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공작기계생산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늘이는데 선차적, 전국가적 힘을 넣었다. 뜨락또르와 자동차생산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힘있게 떨쳐나선 우리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은 자체의 설계, 자체의 기술, 자체의 설비로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세계1등급의 현대적인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일떠세우는 영웅적위훈을 떨치였으며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자, 기술자들도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당이 제시한 자동차생산고지를 빛나게 점령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을 높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통하여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지펴올리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을 더욱 세차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특히 1973년 2월에는 몸소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친히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으시여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 파견하시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쓸어비리고 근로자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높이 불러일으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위대한 력사적운동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것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혁명적군중로선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는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나가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간부들로 하여금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버리고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섭취하여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일을 잘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들과 각급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 나라의 천리마운동은 더욱 찬연히 빛나게 하였다. 특히 지난해 70일전투에서 일찌기 없었던 매우 높은 속도를 창조하였으며 우리 내부에 묻혀있는 생산예비를 찾아내여 생산을 부쩍 높이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위업은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조건과 공산주의건설의 절망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를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았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며 우리 당사업의 총적임무이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신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당중앙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고리를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맥박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찾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였다.

당은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당중앙은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관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서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세차게 울리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였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담보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전투력과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특히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가장 커다란 힘을 넣었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당사업전반에서 당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인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전개되는 행정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높은 속도로 전진을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우리는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크게 변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인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석같이 뭉쳐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근로자들속에서는 우리 당을 믿고 따르며 받드는 충성심과 정치적열의가 더욱 고조되여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날로 높아지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정치적인의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촉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도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강력한 경제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은 기계화로부터 반자동화, 자동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농촌경리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기계화와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위력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공장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있으며 복잡한 대형기계설비들이 끊임없이 쏟아

져나오고있다.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가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들과 정밀기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있으며 최신공장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수준에 뛰여올랐다.

우리 나라에 꾸려진 강력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고있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달성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여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모두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혜택으로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되였고 성인교육사업이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또한 민족간부양성사업도 빨리 발전하여 이미 80만명에 달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부대가 꾸려졌으며 그들에 의하여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는 사업이 이미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농촌의 뻐스화, 수도화도 거의 끝나감으로써 우리 농촌은 말그대로 살기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되였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훨씬 줄어들었고 나라의 전반적면모가 더욱 훌륭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미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진행과정과 우리 나라의 오늘의 찬란한 현실은 보다 휘황한 래일을 똑똑히 내다볼수 있게 한다. 로동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새 사회건설에서는 보다 휘황찬란한 승리가 이룩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질것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주체적혁명력량의 강성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반부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휘황찬란한 전망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에게 강한 타격을 안겨주고있다.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능숙하게 헤쳐가면서 승리와 영광의 보람찬 투쟁로정을 걸어온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향도적기치로, 지도적력량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와 인류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전위지신 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우리는 이 영예, 이 행복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휘황한 길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신 우리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적생애와 녀사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투쟁업적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몸가까이 모신 친위전사, 친근한 전우이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경애하는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일편단심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김정숙녀사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실로 김정숙동지의 온 생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다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빛나는 혁명적생애였으며 녀사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매한 혁명가적품성은 참된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모범으로, 불멸의 귀감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숙녀사께서 지니신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불굴의 혁명정신, 고매한 덕성은 우리의 가슴을 언제나 충성의 정열로 뜨겁게 해주고있으며 녀사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혁명적생애

우리의 자애로운 어머니 김정숙녀사께서는 남달리 일찌부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것은 혁명적가정의 영향과 김정숙녀사의 피눈물나는 어린시절과 밀접히 관련되여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19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시던 때는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져 온 겨레가 일대 민족적수난을 겪고있던 참혹한 시기였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강도적략탈을 강화하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야수적인 폭압과 략탈로 하여 극도의 빈궁과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고있었다. 망국의 비운은 김정숙동지의 가정에도 사정없이 휩쓸었으며 나라없는 민족의 뼈아픈 설음을 안기였다.

김정숙동지의 온 가족은 피땀을 흘리며 근면하게 일하여왔지만 차례지는것은 굶주림과 헐벗음, 무권리와 멸시뿐이였다.

산래야 산길이 없는 김정숙동지의 일가는 정든 고향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 북간도의 연길지방으로 이주하여갔다.

그러나 일제의 마수가 뻗쳐있는 당시의 사회에서 어디를 가나 나라를 잃은 우리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가난과 천대와 박해였다.

이런 환경속에서 김정숙동지의 일가분들은 일찌부터 반일혁명투쟁에 나서시였다. 혁명적가정은 김정숙동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속에서 일찌부터 계급의식이 싹텄다.

일찌기 아버님을 여의신 김정숙동지

께서는 어리신 몸으로 지주집연자방아를 돌리시며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울분과 가난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시였다. 뿐만아니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제《토벌대》놈들에 의하여 어머님마저 잃었으며 그후 사랑하는 남동생까지도 놈들의 흉탄에 빼앗겼다.

이 모든것은 김정숙동지로 하여금 지주로운 사회를 끝없이 증오하고 원쑤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게 하였으며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남달리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시게 된것은 녀사의 가정적영향과 계급적처지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이였다.

우리 인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였으며 혁명의 진두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온 누리에 뿌려주시는 주체의 광휘로운 해빛은 김정숙동지께서 사시는곳에도 찬란히 비치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파견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연길지방에서도 혁명조직들이 결성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벌어졌다.

일찍부터 혁명의 길을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조직에 들어가시여 혁명의식과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더욱 높이시며 억세게 싸워나가시였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받았고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이 당한 모든 고초와 파란곡절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음으로 하여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실수 있었으며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녀성혁명투사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성장하실수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1년 가을에 아동단에 입단하시고 그후에는 소년선봉대원으로, 아동단지부책임자로 혁명조직에서 주는 어렵고 힘든 임무들을 훌륭히 수행하시였으며 추수, 춘황투쟁에도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벌써 어리신 나이에 일찌기 공청에 가맹하시였으며 청년전위로서 언제나 청년들과 인민대중의 투쟁에 앞장서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5년 이른 봄에 항상 흠모하여마지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뵙는 가장 높은 영광을 지니시였고 그해봄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대오에 참가하시여 손에 무장을 잡고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성장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김정숙동지께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신 과정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정숙동지께서는 참된 삶의 길,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수령님을 가장 뜨거운 충성의 한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시였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치렬한 불길속에서 불굴의 혁명투사로, 유능한 정치공작원으로 자신께 맡겨진 전투임무를 언제나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창즈유격근거지방어전투를 비롯하여 쌍산자전투, 무산지구전투, 대사하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시여 영웅적으로 싸우시였고 빛나는 위훈을 세우시였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시면서 부대의 후방사업을

훌륭히 담당수행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적통치구역에 나가시여 녀성들을 각성시키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며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지하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에게 체포되시였을 때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은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자금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혁명적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견결히 투쟁하신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김정숙동지께서 걸어오신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녀사께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투쟁하여오신 영광스러운 나날이였으며 동시에 조선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싸워오신 보람찬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초에 있은 부녀회연성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의 진정한 해방, 이것은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그런 사회를 세울 때에만이 가능하다. 다시말하면 녀성들의 진정한 사회정치적해방을 가져오자면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우리 조국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만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할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가시였으며 강반석어머님께서 시초를 여신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몸바쳐싸우심으로써 고귀한 혁명업적을 남기시였다.

조국광복의 새봄을 맞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새 조국 건설과 민주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는 한편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시며 굳세게 싸워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처럼 념원하시던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보시지 못하신채 애석하게도 1949년 9월 22일 만 서른살을 일기로 고귀한 혁명적생애를 마치시였다.

참으로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직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투쟁하신 불굴의 녀성혁명투사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였다.

이렇듯 우리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속에서 끝난 혁명적생애의 빛나는 모범으로, 난관에 굴하지 않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의 고귀한 혁명적생애의 위대한 전형으로 된다.

## 일편단심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시여

김정숙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김정숙동지의 온 생애는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녀사의 생애는 그처럼 값높고 빛나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걸으신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의 정열로 수놓아진 자랑찬 나날이였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김정숙동지께서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간직하여오신 가장 고결한 품성이였으며 녀사의 가슴속에서 언제든지 드놀지 않는 확고한 의지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방침을 심장속깊이 새겨나가시였으며 그것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싸우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살며 싸우는것은 김정숙동지께서 간직하신 확고한 신념이였으며 생활의 철칙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경향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북부국경지대에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계실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장백현 청봉밀영에서 사업하시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혁명대오안에 우연히 기여들었던 한 변절자놈은 혁명투쟁도 하지 않고 청봉밀영에 들어앉아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전략적방침을 비방중상하며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 참을수 없는 책동을 감행해나섰다. 그러나 그놈이 림시 차지했던 직위로 하여 누구도 감히 그놈의 죄상을 받가놓지 못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견연히 일어나시여 그놈의 그릇된 궤변을 대원들앞에 낱낱이 폭로규탄하시였다. 변절자놈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여 김정숙동지를 《감방》에 가두고 악착하게 고문하였으나 녀사께서는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놈에게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전사다. 너는 누구냐? 너는 혁명의 원쑤다! 혁명은 네놈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추상같은 선고를 내리시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끝까지 고수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는 길에서는 삶도 죽음도 다 영광으로 여기시고 억세게 싸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정열로 언제나 가슴불태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훌륭히 수행해내시는 열렬한 혁명가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의 두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있소. 하루속히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시킬 숭고한 혁명임무가 우리들에게 맡겨져있는것이요. 이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앉을 권리가 없는것이요. 난관을 뚫고나아갈때만이 승리가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내는것이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시여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끝없이 충실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혁명임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것이라 하여도 이악하게 달라붙어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열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관철하시는 여기

에서 가장 큰 행복과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시였다. 그리하여 녀사께서 맡으신 혁명과업은 언제나 가장 빛나는 연매를 맺었던것이다.

1937년 봄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임무를 받으시고 장백현 도천리와 국내 신파일대에 파견되시였다.

일제군경들과 특무놈들의 감시가 그칠새없고 놈들이 불시에 달려드는 삼엄한 환경속에서 마을사람들속에 들어가시여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한다는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이 그물처럼 늘여놓은 경계망속에서도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열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을 위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해설해주고 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혁명의 불씨를 튼튼히 심어주시였으며 마침내 국내 신파와 장백현 도천리를 비롯한 여러지방에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내올수 있었다. 이 여러지방에서 조국광복회조직들의 결성, 이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불요불굴의 녀성혁명가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신 결과에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였다.

김정숙동지의 혁명임무에 대한 충실성은 다음의 사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 일제는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두만강연안일대의 유격근거지들에 대한 《토벌》을 미친듯이 감행해나왔다.

김정숙동지께서 어느날 유격근거지에서 대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계실때 적《토벌대》놈들의 기습으로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자신께서 맡으신 혁명임무에 끝없이 충실하시였던 녀사께서는 펄펄 끓는 죽가마를 머리우에 이고 탄알이 비발치는 눈속을 뚫고 전우들이 있는 고지우에까지 고스란히 운반하여 끝내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난의 행군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솥과 작식도구들을 지고다니시며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의 사이마다 전우들에게 물을 끓여주시고 매식을 보장하시였으며 대원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보살펴주시였다. 1939년 가을 윤기강부근의 수림속에서는 한달이상이나 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수백벌이나 되는 대원들의 동복을 만드는 과업을 기한전에 보장하신 이야기들은 혁명임무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무한한 충실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오직 수령님만을 믿으시고 그이께서 주신 혁명임무수행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쏟아부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장구한 기간 김정숙동지께서 걷고걸으신 불멸의 자욱마다에는 수령님께서 맡기주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녀사께서 바치신 충성의 정열이 그대로 깃들어있다.

투쟁과 승리로 가득찬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였다.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선혁명이 있고 수령님께서 안녕하실 때 조국과 민족이 소생할수 있다는것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15성상의 간고한 나날 어느 하루도 수령님의 안전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신변안전에 대하여 조국과 혁명앞에 책임진다는 깊은 자각을 가지시고 일편단심 수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오시였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혈로를 개척해나가야 했던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나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한몸을 비발치는 적탄앞에 방패처럼 내대시여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시였다.

1940년 여름 경위중대를 친솔하신

수령님께서 대사하근방에서 적과 불의에 조우하여 전투를 벌리시던 때였다. 산중턱 바위우에 올라서시여 전투를 지휘하시는 수령님의 신변을 경각성있게 살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갈대밭속으로 대여섯명의 적들이 총을 겨눈채 배밀이로 기여오는것을 발견하시였다.

참으로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수령님의 신변에 위험이 처해있던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급히 몸을 날려 수령님앞을 막아나서시면서 적들을 쏴넘김으로써 수령님의 신변을 목숨으로 보위하시였다.

1939년초 적들이 앞뒤좌우와 공중으로 조여들고 허리를 치는 눈과 무서운 추위에 식량마저 떨어져 생눈을 움켜먹어야 했던 그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달려드는 적《토벌대》놈들을 맞받아 결사전을 벌리시면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보위하시였고 허기진 몸으로 키를 넘는 눈속을 헤치시면서 풀뿌리를 캐내시여 수령님의 때식을 마련하시였던것이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조국의 운명을 련결시키시였고 녀사의 몸은 그대로 방패가 되고 철벽이 되여 수령님을 튼튼히 보위하시였던것이다.

참으로 험전만리 불바다를 헤치시면서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 건설을 위하여 김정숙동지께서 걷고걸으신 혁명의 길은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충성의 길이였으며 이 길우에 녀사께서 남기신 불멸의 이야기들은 영원한 충성의 노래되여 우리 인민의 가슴을 끝없는 충성의 정열로 불타게 하고있다.

##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김정숙동지는 조선녀성의 모든 슬기와 재능과 강의성,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우리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김정숙동지께서 걸으신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전행정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로정인 동시에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찬 빛나는 로정이기도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인민의 참된 딸이 되라고 하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주고 이끌어주시였다.

녀사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시는 그 어려운 때에도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과 함께 농사일도 하시며 가정부인들의 부엌일도 거들어주시고 방아도 찧어주시며 빨래도 해주시고 바느질도 해주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시였다.

실로 김정숙녀사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수많은 조선녀성들과 인민들이 피바다를 헤가르며 혁명의 길에 나섰던것이다.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한량없이 뜨겁고도 절절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안에서는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김정숙동지를 《우리 지부책임자》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녀사를 따르고 존경하였으며 아끼고 사랑하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동지들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였다.

대원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자신이 춥고 배고플 때뿐만아니라 자신이 덥고 배부를 때에도 대원들은 춥고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그들의 애로를 다 알지 못할수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속깊이 아로새기고 준엄한 혁명의 한길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전우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자신보다도 먼저 혁명동지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어떤 신고도 마다하지 않으시였다.

하기에 녀사께서는 자신은 굶으시면서도 동지들에게는 기어코 끼니를 보장해주시며 어쩌다 받게 되는 군복과 내의, 신발마저도 동지들에게 먼저 양보하시며 행군할 때에는 동지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부추겨주시는 등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처창즈유격근거지에서 작식대공작을 하실 때 근거지생활형편은 이루 말할수 없이 간고하였다. 녀사께서 몇끼씩 굶으시여, 지친대로 지친 몸으로 매일같이 산에 올라 송기를 벗겨다가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시던 어느날 뜻밖에도 반사발가량의 밀가루가 생겼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으로 동지들에게 《특식》을 만들어주시려고 석변처럼 부드럽게 두드린 송기에다가 밀가루를 섞어 채기떡을 만드시였다. 동지들이 떡그릇을 받아들고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는것을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몫으로 내놓으셨던 떡까지 모두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였다.

그날밤 잠자리에 누워서 전우들이 김정숙동지께 배고프지 않은가고 물었을때 녀사께서는 《동무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니 배고픈 생각이 없어졌어요. 뭐 먹어서만 배가 부른가요?

동무들이 그처럼 좋아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먹지 않고라도 견딜것 같아요.… 오늘밤 나는 무한히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동지들에게 한술이라도 더 먹이고싶어하는 마음, 김정숙동지의 이 고결한 성품은 자식에게 덜어주시는 어머니의 심정그대로였다.

이처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계시였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시였으며 그 어떤 위험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군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9년여름 사령관동지로부터 열병에 앓는 한 녀대원을 간호할 임무를 받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대와 멀리 떨어진 천고의 밀림속에서 운신조차 하지 못하는 환자의 손발이 되여주시고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시며 혁명가요를 불러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시면서 마침내 혁명동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김정숙동지의 지성어린 간호로 하여 환자는 소생하게 되였고 수령님의 품에 다시 안겨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워나가게 되였다.

이렇듯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시는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였으며 동지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시는것을 혁명가의 숭고한 의무로 여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은 한없이 뜨겁고 극진하면서도 또한 원칙적인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시였기에 동지의 잘못과 결함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과 결함처럼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면서 동지들의 결함을 제때에 따뜻이 깨우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한 신입대원이 전투의 위급한 정황속에서 빠져나오면서 총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몸소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판속을 뚫고들어가시여 그것을 찾아주시였으며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고 목숨과 같이 귀중한 무기를 잃어버리고도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못하는 그 신입대원에게 차근차근 타일러주시여 그로 하여금 끝내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

였다.

혁명동지들의 오늘의 처지뿐아니라 래일의 전도에 대해서까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들은 따뜻이 이끌어주시는 사랑, 이러한 높고도 뜨거운 사랑이 바로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동지애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무한히 겸손하고 소박하며 례절이 바른 고결한 성품을 지니신 참된 공산주의자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항상 생활에서 겸손하고 소박하시였으며 사람들을 례절바르게 대하시였다. 그리고 사업과 생활에서는 언제나 부지런하시고 정력적이였으며 늙은이들을 존경하시고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였다.

이와 같이 고결한 인민적인 성품으로 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지니시였으며 인민들은 녀사를 끝없이 따르고 존경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무명치마저고리에 검정물을 들여 단정히 입고 다니시였다. 동지들이 권고하면 나라형편이 아직 어려운데 내라고 어찌 좋은 옷을 따로 해입을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종시 토무명옷으로 수수히 지내시였다.

실로 자신보다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항상 겸손하고 소박하시며 인정이 깊고 너그러우시면서도 강의하신 김정숙동지의 그 높은 덕성은 우리들이 따라배워야 할 불멸의 귀감으로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수령님의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닐수 있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한없이 뜨거운 혁명적동지애, 무한히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인품과 겸손하고 소박하신 성품을 한몸에 체현하신 우리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  *

조선인민이 낳은 불굴의 녀성혁명투사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온 생애를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찬란히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는 비록 길지 않았으나 녀사께서 남기신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투쟁업적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우리는 김정숙동지께서 한평생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모든 충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우고 튼튼히 옹호보위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신성한 임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은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억센 뿌리가 내려진 터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의 근원이 이루어진 혁명의 요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은 우리 인민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혁명의 홰불로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감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기본요구

문 성 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하부지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당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하부지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령도방법인 청산리방법과 그 원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한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당사업, 당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하부지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여 당중앙은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에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하부지도에 관한 당중앙의 현명한 방침이 명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 맞게 상급당조직이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며 당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당의 하부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때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한마음한뜻으로 숨쉬고 사고하는 전일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창조적기백과 정열이 차넘치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전당에 정연하게 세워진 하부지도체계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위대한 생활력이 충분히 발휘되고있으며 당사업과 당활동 전반을 새롭게 혁신시켜나가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하부지도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과 당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기본요구의 하나로서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은 새로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의 력사적위업 실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오늘의 벅찬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의 심장이며 추진력인 당이 자기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도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부이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당사업을 새롭게 혁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중앙이 제시한 하

**부지도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하부지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당중앙이 새롭게 밝혀준 하부지도방침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전투적위력을 강화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 당원들의 활동정형은 당세포가 보며 당세포들의 활동정형은 군당위원회 또는 공장당위원회들이 보며 군당 혹은 공장당 위원회들은 도당이, 도당은 당중앙이 보며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정치위원회가 전당을 지도하며 움직이는 사업을 맡아합니다.**

**이렇게 하여 당중앙으로부터 매개 세포의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전당이 끊임없이 활동하며 끊임없이 당사업을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96～29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상급당조직이 아래당조직의 활동정형을 장악지도하며 웃기관의 일군들이 아래기관의 일군들을 도와주는것은 하부지도의 본질적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하부지도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매개 세포의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쉬임없이 움직이며 활동하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울수 있게 한다.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이 서야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조직적, 선봉적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의 하부지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당의 하부지도방침의 요구대로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철저히 장악통제하고 지도할 때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당조직들이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움직일수 있으며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잡사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울수 있다.

따라서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아래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움직이도록 이끌어줄수 있게 하며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또한 우리 당을 창조적기백이 끓어넘치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쉬임없이 전진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한다.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으며 청춘의 기백으로 혁명을 계속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우리 당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이것은 당의 전투력강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 진군이 힘차게 진행되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종래의 낡은 틀과 경험에 매달려 사무실에서 맴돌면서 사업하던 낡은 재래식방법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중앙이 제시한 하부지도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원칙적인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간부들과

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 당조직들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해나가도록 실속있는 지도를 해줄것을 요구한다.

아래에 대한 실속있는 지도가 보장되여야 아래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구호와 현실에 민감하며 안일과 해이, 소극과 보수를 철저히 배격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의 요구대로 언제나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혁명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언제나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의 하나로 된다.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미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로 된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쇠이다.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아래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사람들속에 침투시키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잘하도록 지도방조하는 정연한 하부지도체계가 세워짐이 없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없다. 하부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아래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할수 있으며 당정책집행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아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줄수 있다.

따라서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각급 당위원회들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실로 당중앙이 제시한 하부지도방침과 그에 기초한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근본요구로서 전당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울수 있게 하며 우리 당을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　　*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장악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과 방도를 옳게 준수하는것은 전당의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기관들은 당중앙의 로선에 엄격히 립각하여 지도사업을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75페지)

우리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진행되며 따라서 당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장악지도하는 사업도 당중앙이 제시한 혁명적원칙과 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아래 당조직을 지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당중앙이 제시한대로 장악통제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기초우에서 장악통제하는 사업과 도와주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다.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모든 당조직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정확히 집행

하게 하며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자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당의 하부지도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면 아래당조직에 대한 상급당조직의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장악통제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이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장악통제를 잘하여야 아래당조직들의 움직임과 실태를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고 그에 알맞는 지도를 따라세울수 있다. 만일 장악통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도한다고 하면 그 지도가 실속있게 될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지도사업에서 주관주의와 실패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하부지도에서는 반드시 장악하고 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당의 하부지도에서는 또한 장악통제하는 사업과 도와주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장악통제하는 사업과 도와주는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키거나 어느 한 측면만을 내세운다면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하부지도에서 장악통제와 도와주는 사업은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과정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항상 장악통제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장악통제한 기초우에서 아래를 지도하며 장악통제가 지도사업의 전제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웃기관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며 아래기관일군들이 자기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우에 앉아서 호령하고 명령하는 관료주의적작풍을 철저히 버리고 청산리방법대로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며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81페지)

우에 앉아서 호령하고 명령하는 관료주의적이며 주관주의적인 사업방법으로써는 하부지도의 목적은 달성할수 없다.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야 사람과의 사업, 당정책집행정형 등 당사업전반을 깊이있게 그리고 정확히 료해장악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위원회들은 자기의 기능과 특성, 지도성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월 또는 주를 주기로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를 세우고 일군들을 재무장, 재작전시켜 내려보내는것을 정상화,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부지도사업을 끊임없이 생신하게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는 체계를 세워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아래에 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지도사업을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과 방법으로 보충하고 개선할수 있다. 또한 재무장, 재작전하고 내려가는 체계를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아래에 내려가는 일군들의 로화현상을 방지하고 그들이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약동하는 청춘의 기백으로 하부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수 있다.

만일 아래에 내려가는 일군들을 철저히 무장시키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내려가는 사업을 정상화, 제도화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맴돌면서 지시나 주고 독촉이나 하는식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옳은 지도가 될수 없다.

지도사업을 이렇게 하면 결국에 가서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며 당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그러므로 아래에 내려가는 일군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내려가는 사업을 정상화,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하부지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고 지도의 과학성과 구체성을 보장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또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한 다음에는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손금보듯이 료해장악하고 현실에 맞게 지도사업을 따라세울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하부말단까지 신속정확히 침투시켜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조직으로 되게 할수 있다.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사람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하면서 상하합심하여 배우고 배워주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걸린 문제를 실속있게 풀어줄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아래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철저히 장악통제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당사업과 당활동을 생신하게 벌릴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하부지도방법이다.

당의 하부지도방침을 관철하는데서는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장악보고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장악보고체계를 세우는것은 하부지도를 실속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전당이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며 보고받는것이 당의 하부지도에서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활동정형과 그 실태를 당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당중앙이 아래의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고 그에 기초하여 옳은 로선과 방침을 세우도록 보좌하는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사업이기때문이다.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장악보고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정형,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 군중들의 움직임을 늘 료해장악하고 그에 대한 옳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며 아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상급당조직의 지도와 방조를 의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받아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장악보고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당에 의한 로선과 정책 수립을 옳게 보좌하는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통하여 하부지도를 실현하는데서 나타나는 부족점을 바로잡아 당중앙의 의도대로 모든 당조직들이 더 잘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와 장악보고체계를 통하여 지도하는 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옳바로 처리하는것은 하부지도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상급당조직이 아래당조직을 지도하는것은 허물이나 들추어내여 시비하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료해된 실태와 자료들을 종합분석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하부지도에서 료해장악된 문제들은 제때에 종합분석하여 옳은 해결대책을 세우는것은 당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조직전개하며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으로서 한시도 멈추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 장악보고체계, 하부지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는 체계는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 하나의 사업이다.

하부지도체계를 이루는 이 모든 구성요소들은 각기 자기의 특성을 가지면서

도 서로 밀접히 련관된 통일체를 이루는 사업으로서 아래당조직들의 사업과 활동을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관시킬수 있게 한다.

이처럼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통제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기초우에서 장악통제와 도와주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하부지도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각급 당조직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하부지도방침은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에 맞게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하부지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를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현명한 방침은 실로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하부지도문제에 가장 정확한 리론적해명을 주고있다.

선행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에는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였다. 로동계급의 당의 하부지도에 관한 리론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의해서 비로소 전면적으로 옳은 해명을 보게 되였다.

장악통제를 주선으로 틀어쥐는 기초우에서 장악통제하는 사업과 도와주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하부지도원칙,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 당정책집행정형 등을 장악통제하며 지도방조할데 대한 하부지도의 기본내용과 하부지도를 잘하기 위한 방도 등 위대한 수령님의 하부지도사상을 구현하여 당중앙이 새롭게 밝혀준 하부지도방침은 상급당조직이 아래당조직에 대한 지도를 옳바로 진행하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하부지도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함으로써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하부지도에서 아래에 대한 장악통제를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진행하며 장악통제하면서 지도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자면 우리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며 사업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누구나 다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해나갈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조직적수완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하부지도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혁명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과업

백 남 복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있다.

당중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기본이 전당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이라는 혁명적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였다.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울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것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선차적문제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여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하고 당의 혁명위업을 더욱 빛내여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울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할것이다.

⁂ ⁂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선차적문제이다.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이 당을 강화하고 당의 혁명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과업으로 되는것은 당건설의 본질적요구와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투적부대입니다. 우리 당에는 강한 혁명적질서와 혁명적규률이 필요합니다.**

**당내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지 않고는 당이 전투적인 부대로 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91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사상을 정치적리념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 뭉친 정치적조직체이며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이다.

당이 로동계급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자기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당안에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규률은 당의 생명이다.

당의 위력은 강철같은 규률에 의하여 굳게 결속된 전투적부대라는데 있으며 따라서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이 서지 않고는 당이 조직된 부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수 없다.

당안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당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없으며 사상의지의 통일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할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당이 조직된 부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확고히 지배되여야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자기의 전투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선차적이며 합법칙적인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당발전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당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에 심중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당조직규률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당을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불패의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은 온갖 반당적이고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고 당사업이 심화발전할수록 당안에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은 당을 강화하고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전당이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온갖 자유주의적, 무규률적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확고한 조직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당, 국가경제 기관들이 당의 방침대로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고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에 있어서 강철같은 규률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규률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며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모든것을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결론에 의하여 행동하는 강철같은 규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0페지)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당이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은 오직 강한 규률을 안받침할 때에만 확고히 세워질수 있다.

유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상교양도 결국은 규률을 세우는 조건에서 그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이 서있어야 사상교양사업도 잘될수 있다. 규률이 없는곳에서는 아무리 교양사업을 해도 소용이 없다.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로 굳게 뭉치며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의 의도와 방침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비롯하여 당의 혁명적지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은 강한 규률을 세우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혁명적지도를 전당에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는 곧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이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

발전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을 철저히 세운 결과이다.

그러므로 전당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위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과업,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워야 우리의 혁명대오를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울수 있으며 당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이처럼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선결조건으로 될뿐아니라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　　　*

당중앙은 우리 당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당에 혁명적규률을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전당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중앙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면 옳고 그른것을 똑똑히 가려낼수 없으며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투쟁의 앞길을 용감히 헤쳐나갈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31페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중앙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며 당규률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가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중앙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수령님과 당중앙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당규률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만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순간의 지체와 한치의 어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킨 그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에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혁명적규률은 수령이 내세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가 내놓는 혁명과업과 방침들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의심을 가질수 없으며 모든 당원들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입니다.》(우와 같은 책, 123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규률의 본질적요구이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떠난 당의 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오직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의 본질적요구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의무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당안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필요하다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은 당정책집행에서 어려운것과 쉬운것, 조건이 불리한것과 유리한것을 가리면서 그 집행을 중도반단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그와 어긋나는 온갖 무규률적이며 비조직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비록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제때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의하여 처리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내부사업체계를 바로 세우는것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자면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질서와 제도가 서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내부사업은 결국 당원들과의 사업, 간부들과의 사업, 당세포들과의 사업, 당위원회들과의 사업에 귀착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93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당내부사업이란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당조직들과의 사업이다.

당내부사업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당조직들의 당내부사업 절차와 질서, 제도를 정연하게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안에 정연한 질서와 제도가 서있을 때 당중앙으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가 거침없이 내려먹을수 있고 전당이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여나갈수 있다.

또한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매 단위와 일군들의 임무와 사업한계, 책임한계가 명백해지고 매 단위와 일군들이 자기 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최대한의 마력을 내여 긴장하게 일하도록 추동하고 통제할수 있다.

만일 당내부사업체계를 바로세우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당내부사업에서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당이 하나의 전일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당내부사업체계를 바로 세워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당내부사업을 진행할수 있으며 온갖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 현상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당내부사업체계를 바로세워야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지방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전당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당조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당중앙에 집중시키며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의하여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은 당내부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안에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제시하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규률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규약에는 당원들이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것들이 똑똑히 밝혀져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원들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당규약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당규약에 규정된 과업만 다 잘 실천하면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9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당생활규범은 당원들의 일상사업과 생활에서 칠칙으로 삼아야 할 기본표준이다. 다시말하여 당규약은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무조건적이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

당규약에 제정된 당원의 의무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며 당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활동하며 혁명가적자질과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당규약상 의무를 정확히 지키는것은 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며 우리 당을 하나의 조직규률에 따라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경험은 반드시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당규약상의무에 충실할 때 당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은 당규약상의무를 깊이 연구하고 그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규약상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것과 함께 규률을 어기는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당규률을 강화하는 사업은 무규률적이며 비조직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떼놓고 생각할수 없다.

원래 당이란 혁명투쟁의 무기로서 당의 모든 활동은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투쟁이 없이는 당자체가 존재할수 없으며 발전할수도 없다.

당은 언제나 낡고 부패한것, 로쇠하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하게 된다.

당원들이 아직도 철저히 혁명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속에서 자유주의, 개인영웅주의, 공명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조건에서는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당규률을 위반하는 현상들이 이러저러하게 나타날수 있다.

당원들속에서 나타나는 무규률적현상들은 크건작건간에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며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것으로서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 이것은 오직 모든 당원들이 당규률을 어기는 그릇된 현상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속에서 나타나는 당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묵여두지 말고 제때에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당규률을 강화하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당생활을 정규화하고 습성화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당회의, 당생활총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등 당원들의 당생활을 일정한 규범에 따라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에 맞게 당생활을 습성화하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항상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 사업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모든 당원들이 조직의 통제를 의식적으로 받으며 생활할 때 무규률적이며 자유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당원들이 당조직과 당원대중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과오를 범하게 되며 누구든지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낡은 사상 잔재의 영향을 받을수 있으며 자고자대하게 된다.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여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자신이 느끼지 못한 결함까지도 제때에 고치면서 혁명적으로 단련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생활을 제정된 규범에 따라 정규화하고 당원들이 당조직의 통제와 지도 속에서 생활하는데 습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중앙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 사업을 깜빠니야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명확한 설계를 가지고 끈기있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무규률적현상들은 제도와 질서가 없는곳에서 생기나며 그것은 오직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교양사업을 잘 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갈 때만이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당조직들의 지도와 통제를 소홀히하며 중도반단한다면 규률없는 현상들이 되살아날수 있으며 비록 오늘에는 자그마한 결함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당과 혁명 앞에 엄중한 결함을 저지를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생활을 정규화하고 그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철저히 장악지도하는것은 당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당안에 사소한 무규률적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장악지도통제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파악하고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끈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 혈통을 이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 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 혁명적작품창작에서 개성적 특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

박 호 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 교시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숭고한 혁명위업이 전면적으로 힘차게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혁명의 참된 교과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사상예술적으로 더욱 훌륭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 인간학, 주체적문학예술작품을 더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나라 주체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6페지)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는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새롭게 밝혀주있다.

창작적개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새로운 문예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킨것으로서 우리 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꽃피울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이 새로운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깊이 인식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문학예술작품을 개성화와 독창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 사상예술적으로 더욱 훌륭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 *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개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는 시대의 요구로 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요구로 보나 절박하게 해답을 기다리는 리론실천적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계급적원쑤들, 부르죠아적반동문예리론가들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헐뜯으려할 때마다 이 문제에 매달리면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마치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개성을 무시하기라도 하는것처럼 사실을 외곡하고있다.

한편 기회주의적문예리론들은 혁명적문학예술에서 당성원칙을 거부하는 그러한 《개성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떠들면서 그 어떤 개인적취미를 고취시키 문학예술을 저속한 인간들의 향락물로 떨어뜨리거나 창작적개성을 살릴데 대한 원칙적요구를 《부르죠아적개성의 자유》와 혼돈시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개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당은 혁명적문예리론과 창작실천에서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해답을 기다리는 이 원칙적인 문제에 전면적으로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공산주의적창작개성론을 더욱 완벽하게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우리 당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

여 창시한 공산주의적창작개성론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비방중상하고 헐뜯으러는 반동적문예리론에 결정적타격을 주었으며 창작가의 개성에 대하여 이러저러하게 그릇된 길로 끌어가려던 편향을 바로잡고 혁명적문학예술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꽃피워나갈수 있게 하였다.

창작에서 개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로부터 나선다.

문학이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그리는것이 곧 문학이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을 기본요구로 내세우고있다.

문학예술의 다양성, 작품의 비반복성과 독창성은 문학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따라서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이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당에서 밝힌바와 같이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100가지 작품이 나와야 하고 그 100가지 작품이 다 내용이 다르고 특성이 있어야 한다.

한 틀에 맞추어 만드는것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며 그러한것을 만드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상품제작공이다.

당이 요구하는것은 한 형타에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을 그린 개성적특성이 산 작품이다.

창작에서 작가의 개성을 살리는 문제는 작품의 비반복성과 독창성을 보장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창작에서 작가, 예술인들의 개성적특성을 살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문학예술이란 존재할수 없으며 그의 다양성과 풍부성이란 있을수 없다.

문학예술은 생활을 반영하는 창작가의 사상정신적창조물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가들은 작품에 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당정책에 튼튼히 서서 현실생활을 재구성하며 인간성격의 전형화를 실현한다. 문학예술작품은 객관적현실에 토대하고 그것을 생활그대로의 예술적화폭으로 반영하면서도 거기에는 창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선택되고 평가된 인간생활만이 재현된다.

이것은 문예작품창작이 단순히 생활의 기계적인 반영이거나 복사가 아니라 참다운 의미에서 창작이며 새로운 예술적발견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작품창작에서는 종자의 선택과 그것을 꽃피우기 위한 형상구성, 성격창조, 생활묘사 및 언어표현 등 작품창작전반에 걸쳐 형상을 창조하는 창작가자신의 개성적특성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문학예술작품은 아직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되며 따라서 항상 개성적이고 비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예술적형상의 이러한 비반복성은 서로 다른 창작가들의 작품에는 물론 한 창작가의 작품들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창작가들이 생활에 대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탐구를 하며 작품창작에서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창작가다운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이 창작적개성을 살리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는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생활, 현실자체의 요구로부터 나선다.

문학예술의 기본묘사대상으로서의 우리 시대의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은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하다. 영웅적위훈으로 빛나는 우리의 현실생활은 각이한 사건들과 생활화폭들로 펼쳐져있으며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새로운 생활과 성격이 꼬리를 물고 창조되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 생활과 사건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은 그 어느 하나도 똑 같지 않으며 반복되는것이 없다. 이것은 구체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비반복성과 다양성을 조건지으며 작품

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그러므로 형상적형식을 통하여 생활을 보여주는 문학예술작품도 개성적이며 비반복적인것으로 다양하게 형상되여야 하며 그것으로써 사람들의 다양한 미적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는 또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창작방법의 근본요구로부터 나선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이며 혁명투쟁과 생활의 본질,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진실하게 그려내는 창작방법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 형상창조의 기초로 되는것은 온갖 생활적사실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합법칙성을 띤 전형적인 생활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생활의 본질적인것, 전형적인것은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창작가에 의하여 탐구되고 발견된 구체적인 개성적형상을 통하여 나타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류사성과 모방은 죽음이다.

작품창작의 개성적특성을 살리는데서 혁명적세계관은 결정적역할을 논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유일하게 옳은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함으로써만 창작적개성이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의 본질과 현상의 특성을 옳게 가려볼수 있게 하고 그것을 창발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힘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현실에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전형적인것을 구체적인 화폭을 통하여 비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개성화의 원칙을 현실반영의 법칙으로 하고있으며 가장 혁명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개성적인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창작방법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은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여야 할 필요성을 밝혀주었을뿐아니라 창작적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근본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독창적으로 해명하여줌으로써 공산주의적창작개성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우리 당은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밝혀주었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 대한 로동계급과 그 당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있는 당의 이 고전적정식화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사업에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원칙을 밝혀준것으로서 창작적개성을 살리게 하는 유일하게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에 의거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은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며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기본방도로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하게 리해할수 없습니다.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덮어놓고 공장이나 농촌으로 내려만 간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을 잘 알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9페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리해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이 무엇을 하고있으며 어디로 나아가는가를 명백히 알수 없다. 오직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에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과 과학적태도와 방법을 체득하며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짐으로써만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보고 본질적인것을 정확히 찾아낼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현실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다.

그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적세계관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대하고 개조하는데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세계관이다. 그렇기때문에 현실에 대한 혁명적립장과 과학적태도와 방법을 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견지하게 하는 주체철학을 자기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음으로써만 창작사업에서 자신심과 대담성을 가지고 창조적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고 창작적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창작적개성만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맞으며 그것을 가장 정당하게 반영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그 어떤 취미나 《창작의 자유》, 부르죠아적자유주의와는 인연이 없을뿐아니라 전적으로 대립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서 발을 튼튼히 붙이는것은 창작적개성을 잘 살리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69~170페지)

현실은 문학예술의 원천이며 창작적개성을 꽃피울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생활적바탕이다.

창작가들에게 창조적환상을 주고 패기와 열정, 대담성을 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구현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현실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구현되는 생동한 현실에 파고들지 않으며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충성다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생활을 알지 못하는 창작가는 아무리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수 없다.

창작가들이 당이 요구하는 작품, 인민들이 사랑하는 개성이 산 작품을 창작하려면 마땅히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같이 숨쉬면서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창작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의 정력적인 지도와 두터운 배려속에 창작된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우수한 작품들이 모두 그처럼 우리 인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하늘이 무너지는한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고야마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정신세계, 영웅적투쟁모습을 독창적으로 파악하고 실감있게 그려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주체사상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은 창작가들에게 창작적개성을 더욱 발양케 하고 불타는 탐구심을 낳게 한다. 참으로 우리 시대처럼 창작가들에게 현상을 보고 스쳐지날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며 개성적으로 사고하고 개성적으로 구상하며 개성적으로 형상할것을 요구하는 때는 없다.

생활속에 파고들면 우리 시대야말로 창작가들에게 수많은 주체사상적인 문

제를 제기하는 인간들과 인간관계를 낳는 시대, 인간의 개성이 천만가지로 아름답게 꽃피는 시대라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속에 들어가 발을 튼튼히 붙이고 생활을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탐구하는 창작가는 남들이 스쳐지나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참신한 종자와 중요한 문제성을 잡을줄 알며 그것을 더욱 예술적으로 부각시켜 보여줄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이 창작사업에서 그처럼 경계하고있는 류사성과 도식주의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생활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할 대신에 안일한 창작태도를 가지고 생활체험을 게을리 하며 지난날에 체험한 생활에 대한 표상과 낡은 지식을 가지고 창작사업을 할 때에는 극복될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에서 류사성과 도식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도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여야 한다.

집체적지혜와 개인의 책임성,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의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혼자 하면 자기의 결함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야 잘못을 알수 있습니다. 작곡하는 사람은 자기의 작곡이 제일인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곡을 들으면 본인이 모르는 결함을 찾아낼수 있고 좋은 의견을 줄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75페지)

집체적지혜에 의거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사상을 구현하여 창작사업에서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 집체성의 원칙, 그 호상관계를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창작적개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당은 작품창작에서는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도 집체성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집체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개인의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약화시켜도 안되며 오직 집체성과 개인의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이 옳게 결합될 때만이 좋은 작품이 나올수 있다고 밝혀주었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개인의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에 달려있다. 창작가자신이 창작을 통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려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면 그의 작품에는 개성이 있을수 없고 독창적으로 탐구된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수 없다.

창작가들이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낙적양심과 불타는 열정, 자주적이며 창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창작사업에 달라붙는다면 기발한 형상수법과 표현을 찾아내여 생활의 법칙, 투쟁의 법칙을 옳게 구현한 새로운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낼것이다.

그러므로 창작가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문제는 창작적개성을 살리는 근본요구로 된다.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집체적지혜와 결합될 때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될수 있다.

집체성은 개인의 주관과 제한성을 극복하게 하며 개인의 재능과 발기를 계발하고 조장시켜줌으로써 매 작품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며 작품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집체적인 지혜를 발동하여 고치주고 작품을 완성하는데로 창작가를 고무하여주는 위대한 힘으로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도 맞으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작원칙에도 전적으로 맞는 창작원칙이다.

작품창작에서는 개인의 창조적발기와

창발성을 집체적지혜와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개성을 살린다고 하여 집체성을 무시하거나 집체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개인의 창발성을 약화시켜도 안된다. 오직 집체성과 개인의 책임성, 창발성이 옳게 결합되고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높이는 기초우에서 집체성을 보장함으로써만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다.

*　　*

우리 당이 밝힌 혁명적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방침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주체문학예술의 다채롭고 풍만한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위력하고 정당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이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창작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의 무기로서의 전투적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

당의 이 주체적인 문예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서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로 된다.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은 또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헐뜯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반동적부르죠아문예리론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혁명적원칙을 훼손시키는 기회주의에 결정적타격을 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찍기 없었던 일대 개화기에 처하여있으며 주체예술의 조국의 명성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고있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 우리 당 문예방침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우리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개성적특성을 잘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의 혁명적본질과 독창성, 전반사상과 그 리론실천적의의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당이 내놓은 새로운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주체문학예술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꽃피워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하여야 할것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혁명위업에 몸바쳐이바지하는 작가, 예술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 영예가 있다.

#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전　　호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일대 혁명적앙양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을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에서의 천리마대고조,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되여 경제건설사업이 철저하게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조직진행되고있는데서 나온 위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기본연쇄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과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지도관리를 개선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영광스러운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며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6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제건설을 잘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훌륭히 개조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더욱 높이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주권을 잡고있으며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건설사업이 당적지도를 통해서만 옳바르게 진행될수 있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지도를 실현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경제건설에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당내부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이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것은 당사업이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하기때문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그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가로타고 독판치는것이나 당내부사업에만 몰두하면서 행정사업을 틀어쥐지 않고 뒤꼬리를 따르는것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것은 행정경제기관이라는 기계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도록 발동을 거는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옳게 지도통제하면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이 중도반단됨이 없이 철저히 관철되게 하는것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곧 경제건설을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한것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는 온갖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정확히 조직진행하기 위한것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기때문이다.

경제건설의 올바른 방향과 방도를 세우는것은 경제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있으며 통일적인 체계에 의하여 움직여나가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건설의 방향과 방도가 당의 지도에 의해서만 정확히 세워질수 있다.

당은 근로대중의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혁명의 정치적령도기관이다. 근로대중의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당은 오늘의 전반적경제건설사업을 정확히 장악할뿐만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장래발전도 과학적으로 예견한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에 의해서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옳은 투쟁방향이 밝혀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실행방도가 제시될수 있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경제건설에서의 성과를 보장하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수행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다.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동시키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광범한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 당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맡겨진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사정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페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숭고한 위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면서 그게 늘어난 우리 나라의 경제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이 거창한 력사적위업을 수도전의 요구에 따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모든 과업들을 훌륭히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환경의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현단계 우리 나라 사회주의대건설의 객관적요구를 심오히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 경제지도수준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킨 결과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이미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 우리의 공업전선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특히 당의 부름따라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조직진행됨으로써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일떠서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최신기술로 개건확장되어 우리 공업의 자립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웅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한전에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특히 지난해에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업전선에서 력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였다. 지난해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농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700만톤이 넘는 알곡이 생산되였으며 앞으로 몇해안에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을 높이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계속 강화하여나간다면 경제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생동한 사실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가며 경제의 부단하고도 급속한 앙양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과업을 어김없이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이 보람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시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속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데 온갖 정력을 쏟아붓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곧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최고의 의무이며 가장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해서는 흥정하거나 어길 권리가 없으며 그 집행에서는 오직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만이 있을뿐이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는 길이 있으며 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는 비결이 있다.

당일군들이 수령님께서 이르시는대로 당적방법으로,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지도하는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행정을 대행하는 자그마한 편향도 발로시키지 말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행정사업을 대행하게 되면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은 약화되고 그들이 자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게 되며 결국 당사업도 행정경제사업도 다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적지도를 옳게 하여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의 위치를 철저히 지키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경제사업이 낮은 적극 끌리거나 행정경제사업의 뒤고리를 따르는것과 같은 현상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잘 관철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새롭게 창시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이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앙양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쇠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뿌리뽑는것은 오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본위주의는 자본주의사상잔재의 표현으로서 공산주의사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본위주의를 하게 되면 국가계획규률과 협동생산이 위반되고 막대한 자재, 설비들이 헛되이 사장되거나 랑비되며 협동생산기업소들이 국가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전반적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없게 한다.

당조직들은 본위주의현상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세우고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2페지)

오늘 우리 당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것을 강조하는 리유도 중요하게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에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불러일으키자는데 있다.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열쇠인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당조직들은 자기 사명에 부합되게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야 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을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수령님의 영예로운 혁명전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전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생활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경제선동은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이다.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은 지난해 70일전투의 총돌격전에서와 같이 대중속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앙양이 련이어 일어나고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는데서 천리마작업반운동,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이다.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것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모든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도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우리가 천리마운동, 속도전을 힘있게 들이쥐고 적극 밀고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비상히 빨리 전진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더욱 세차게 울리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근로단체에만 맡기고 이에 낯을 적게 돌리는것과 같은 그릇된 편향을 없애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혁명적인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16~17페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다 정당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도들도 정확히 제시되여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할 때 인민대중의 주인된 자각과 열의를 높이 불러일으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번개와 같이 부리나케 밀고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듣과 격식이 없이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대오의 기수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또한 혁명적인 패기와 진열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박력있게 벌리며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혁명적인 일본새로 일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일에서 이렇다할 자리를 못내면서 어물어물 세월을 보내는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깐지게, 알뜰하게 하여야 한다.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은 모든 지도일군들의 중요한 의무이다. 지도일군들이 생산자들의 먹고 입고 쉬는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돌릴수록 수령님과 당에 대한 대중의 충성심은 더욱 두터워질것이며 그들은 일에서 그만큼 더 큰 열성과 창발성을 내게 될것이다.

일군들은 자신들이 인민대중의 충복이라는 사상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생산자대중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며 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건설에 투신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생활에 대해 무관심하며 후방공급사업을 홀시하는 경향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이 없고 기술을 모르면 경제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질수 없으며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실속있게 가르쳐줄수 없다.

모든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며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이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현실이 요구하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림으로써 웅대한 6개년계획수행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며 영광스러운 당창건 30돐을 뜻깊은 혁명적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교활한 영구강점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김 필 헌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며 전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새로운 침략을 감행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가고있다.

특히 유엔총회 제30차회의가 박두해옴에 따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교활한 영구강점책동은 더욱더 로골화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이냐 분렬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로골화되는 남조선 영구강점과 민족분렬 책동에 대처하여 얼마전 37개 유엔성원국들은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문제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토의할것을 제기하고 그에 따르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결의안은 조선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것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또한 결의안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하며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킬것을 요망하고있다.

이 결의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대변하고있다.

37개 공동발기국들의 결의안은 조선과 아세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막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민족적 리익과 요구에 맞게 실제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근본방도를 제기한 가장 정당한 방안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결의안은 우리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긍정적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영구강점을 정당화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분렬을 고정화하려고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국가 및 괴뢰들에게 또하나의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총국적멸망의 위기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지금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조건부적인 《유엔군사령부 해체》라는 가장 기만적인 《결의안》을 서둘러 꾸며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저들의 《새로운 아세아방위구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과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귀중히 여기는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유엔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30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온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유엔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계속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응당한 타격을 가하고 조선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오늘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시련을 겪고있다.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책동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와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가장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는 저들의 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 구경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반동세력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65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절반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한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유엔의 이름으로 저들의 침략행위를 합법화하려고 갖은 교활한 술책에 매달렸으며 인시적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엄중한 침범이며 전적으로 부당하고 비법적인것이다. 자주권은 매개 나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며 그 누구도 다른 나라 인민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없다. 자주권의 존중과 내정불간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서 공인된 원칙이다.

유엔총회 제28차 및 제29차 총회의 전과정이 보여준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은 세계인민들의 면전에서 더이상 허용될수 없게 되였으며 무엇으로써도 그를 정당화할수 없게 되였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의 높은 대외적권위와 위신, 세계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력량관계의 급격한 변화 등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있다.

력사와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지금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두개 조선》조작을 골자로 하는 제놈들의 이른바 《대유엔정책》의 파산을 모면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이미 이러저러한 여론을 류포시키면서 모략책동을 벌리기에 골몰하던 끝에 조건부적인 《결의안》을 꾸미냄으로써 제놈들이 마치 《유엔군사령부》라도 해체할 용의가 있는것처럼 가장해나서고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놈들의 《결의안》에는 본질상 새로운것이란 전혀 없으며 그것은 여태까지 그들이 제기했던 어느 《결의안》보다도 더 기만적인것이다. 이것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가 이제는 더이상 피할수 없는 기정사실화된 조건에서 국제여론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만하며 조선문제토의에 새로운 복잡한 정황을 조성하려는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이며 제놈들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유엔무대에서까지 합법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허튼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문제에 관한 저들의 《결의안》이란 결국 오늘의 변화된 정세에 대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새로운 침략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것을 극력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협잡문건이며 침략문건이다.

오늘 아세아에서는 미제식민지체계의 마지막 성벽들이 련이어 무너지가고있다.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최초의 대참패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는 인도지나지역에서 또다시 치명적타격을 받고 완전히 쫓기나고말았다. 매국과 애국, 파쑈와 민주주의가 치렬하게 대결하고있는 남조선에서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그리하여 아세아에서 민족적자주권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노복들의 침략과 매국 책동은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력사적진리가 다시 한번 뚜렷이 증명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진 《위신》을 추세우며 멸망에 처한 침략체제를 수습해보려고 더욱더 발광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도지나에서 쫓겨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지탱점으로 계속 틀어쥐려 하고있으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입김을 불어넣고 그들을 뒤받침하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82～83페지)

인도지나에서 쫓겨난 미제국주의자들은 《새 아세아전략》을 떠벌이면서 침략과 전쟁에서 출로를 얻으려 하고있다.

미제우두머리들은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이 아세아에 있어서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시금석》이라느니, 《핵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느니, 상대방의 《힘의 핵심》을 치겠다느니 하는 따위의 망언을 매일같이 줴치고있다. 놈들은 조선주변에 침략무력을 집중하면서 남조선에 핵무기까지 끌어들여 분계선일대에 배치해놓고있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새 아세아전략》에서 살구멍을 찾아보려고 미제침략자들의 《보호》와 영구강점은 애걸하면서 미일상전의 품속으로 더욱 깊이 기여들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이 모든 책동은 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행위이다.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책동과 무모한 불장난으로 말미암아 이 땅우에는 민족분렬의 비운이 가셔지지 않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이 팽배히 떠돌고있다.

이번 유엔총회와 관련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고 일본, 영국의 반동들과 그밖의 몇몇 졸개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결의안》이란것도 구경은 아세아에서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영구강점책동과 새로운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침략구호이다.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전쟁의 근원은 전적으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에 있다.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극동에서의 긴장상태의 장본인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침략과 략탈, 살인행위로 악명높은 흉악한 침략자이며 우리 인민에게 동족상쟁의 류혈참극과 민족분렬의 온갖 고통을 강요해온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 눌러있는한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는 보장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통일은 이루어질수 없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두목들은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로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있다.》느니, 《미군을 계속 남조선에 주둔시킬것》이라느니 하면서 《남침의 위협》이요, 《세력균형》이요, 《평화유지》요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철갑모를 쓰고 우리를 향하여 대포를 겯어놓고 당장이라도 우리가 남침할것처럼 떠들면서 남조선에서 계속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빠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란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가면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음흉하고 교활하게 감행하는 법이다.

우리 나라에는 그 무슨 《남침의 위협》이란 있어본 일이 없으며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위협은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는 남조선으로부터 생겨나고있으며 총소리는 언제나 북에서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북으로 울려오고있다.

현실적으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원래 정전협정이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정화협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으로써는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거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미제의 끊임없는 파괴행위로 말미암아 조선정전협정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없게 된 오늘의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하여 제의하였으며 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담할것을 미국국회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우리의 정당한 평화제안들을 외면하고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새로운 침략과 전쟁 도발에만 광분하고있다.

지난날 조선에서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의 검은 구름이 미치고있는것은 오직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틀고앉아 간섭과 《력》공간, 온갖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기때문이다. 오늘 조선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쥐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조선에서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자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과 함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을 준수하며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물러가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조치가 취해진다면 조선과 아세아에서 전쟁의 위험은 그만큼 없어지고 공고한 평화가 담보될것이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또한 남조선영구강점의 구실로 《세력균형》이니, 《평화유지》니 하고 떠벌이는것은 놈들의 침략적야욕에서 나온 당치 않은 궤변이다. 분렬된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는데 무슨 《세력균형》이 필요하며 평화를 유지하는데 무엇때문에 침략자가 요구된단말인가. 과연 력사적으로 침략자를 나라안에 두고 평화가 유지되고 국가통일이 이루어진 례가 있단말인가. 《세력균형》이요, 《평화유지》요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분렬을 전제로 한것이며 영원히 《두개 조선》을 조작하자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대세의 압력에 바빠맞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조건부적인 《유엔군사령부》해체문제를 스스로 들고나오면서 《유엔군》이 간판을 《미군》의 간판으로 갈아 달고 저들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남겨두려고 획책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이 《유엔군》으로서가 아니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머물러있다고 하면서 유엔에서 《유엔군사령부》해체와 《유엔군》철거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미국군대는 물러가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침략자의 강도적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에게 유리한 때에는 《유엔군》의 탈을 쓰고 불리한 때에는 《유엔군》이 아니라고 떠벌이고있다. 놈들이 세계 사회계의 항의에 못이겨 이제와서 《탈바꿈》놀음이나 하는것으로써 침략자의 몰골을 가리울수는 없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남조선괴뢰들을 구슬려 꾸며낸 비법적이며 침략적인 문건으로서 조선인민은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한미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이 조작되기전에 벌써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기어들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제와서 그것이 무슨 《조약》에 의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다고 하는것은 황당무계한 소리이며 세계여론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호상방위》를 운운하며 더우기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있는것도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미국의 령토와 존엄있는 우리 조국판도의 한부분인 남조선사이에는 도대체 《호상방위》란 성립될수도 없으며 침략자인 미제와 조선인민은 오직 적대관계에 놓여있을뿐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또한 《유엔군사령부》해체문제와 관련하여 정전협정유지를 위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의 자기측 서명자의 교체를 운운하고있으며 지어는 그 무슨 《교체승인》이요, 《감시군의 배치》요, 《새로운 기구설치》요 하는 망발까지 퍼뜨리고있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공식화하며 우리 나라 내정문제를 대국의 흥정판에 내맡기자는 교활한 책동이다.

모든 사실이 명백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문제에 관한 미제의 이른바 《대유엔정책》의 본질은 제놈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며 남조선을 지탱점으로 하여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우리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책동을 조선의 내정에 대한 횡포한 간섭으로 락인하고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것은 유엔의 권위와 존엄으로 보아서도 응당한 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제는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경찰의 역할을 놀고있는 사태를 끝장낼 때가 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66페지)

오늘 유엔은 그 자체발전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의 명분을 함부로 도용하여 남의 나라를 강점하고 침략과 간섭을 일삼는것을 더는 묵과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원래 유엔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망라하고있는 포괄적인 국제기구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히 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으며 헌장에서 민족자결을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로 선포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언제나 유엔의 고상한 리념과 헌장을 존중하였으며 그에 대한 립장이 정당하였다.

쌘프랜씨스코회의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0년동안 유엔력사에서 그 이름을 더럽힌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유엔이 조선문제에 관여하게 된것도 오늘의 대다수 유엔성원국들, 제3세계나라들이 아직 유엔에 들어있지 않을때 미제가 유엔에서 일시 차지했던 지배적지위를 리용하여 조선문제를 억지로 유엔에 끌어들였기때문에 산생된것이다.

그러나 오늘 시대가 변천되고 유엔안에서 력량관계가 달라진 조건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부당한 처리가 더이상 허용될수 없다.

얼마전 미제국주의자들은 애당초 유엔가입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유엔가입신청》을 내게 하는 놀음까지 벌렸으나 안전보장리사회의 의정으로 상정도 못되고 문전에서 인축당하고말았다. 또한 지난 25일 리마에서 열린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인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반면에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른바 《쁠럭불가담운동가입신청》을 단호히 부결해버렸다. 이것은 미제와 그의 추악한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차례진 응당한 징벌이다.

유엔도 조선문제에 관한 37개 공동발기국들의 결의안에 기초하여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유엔의 기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놈들을 남조선으로부터 무조건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전민족적협상의 방법으로 통일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유리한 조

전을 지어주게 된것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위업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근본장애로 되는 외국군대가 그 어떤 형태로든지 남조선에 머물러있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을 완전히 철거시킬 때까지 계속 비타협적으로 투쟁할것입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어떠한 외세도 없다. 현실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땅에 저들의 침략군대를 두어야 할 아무런 리유와 구실도 더는 찾을수 없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저들의 침략무력과 살인흉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침략자들이 물러가지 않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미제의 마지막멸망을 촉진시키는것으로 될것이며 놈들은 자기가 지른 불에 타죽고말것이다.

력사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조선은 결코 제국주의침략의 희생물로 될수 없으며 하나의 민족인 우리 인민은 둘로 갈라져 살수 없다. 남북을 막론하고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민족고유의 모습대로 하나로 통일될것을 원하고있으며 그 누구도 분렬을 바라지 않는다.

오늘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실현하는데 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장애를 용감히 짓부시고 오직 하나의 조선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놈들이 제아무리 국제여론을 기만하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려고 날뛰여도 그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헌장을 유린하면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감행하려는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이다.

현시대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민족적해방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승승장구하는 시대이다. 대세는 계속 투쟁하고 단결하는 수백수천만 인민들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이것은 반제자주와 민족자결의 리념이 온 지구상에 나래치고있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이다.

오늘 민족적자주권과 평화와 진보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과 정부들, 국제민주단체들과 여러나라 사회단체들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책동과 전쟁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고 남조선에 계속 주저앉아 통일을 방해하려고 발광하면 할수록 놈들은 조선인민과 전세계 인민들로부터 더욱 드센 규탄을 받고 자멸을 촉진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유엔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이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무조건 해체하고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해주리라는것을 확신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가는 전체 조선인민은 세계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의 강력한 국제적지지밑에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 경제기술적협조는 제3세계나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담보

최 기 봉

제3세계는 제국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생기발랄한 신흥세력이다.

오늘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사회주의나라들, 세계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완전한 평등과 자유,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새세계, 새 사회 건설의 보람찬 길에 들어선 제3세계나라들이 국제혁명력량과의 강력한 뉴대를 이룩하며 특히 과거와 현재의 처지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련결되여있는 제3세계나라들 호상간에 더욱 긴밀한 전투적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이 신흥세력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위업을 추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특징과 현국제정세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제3세계나라들은 정치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만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빨리 추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만아니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으로 협조를 강화한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 제3세계의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강제적의존을 없애고 하루빨리 자기의 경제, 자기의 과학, 자기의 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참다운 길을 열어주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는 무엇보다도 이 신흥세력나라들로 하여금 최단기간내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현시기 제3세계나라들앞에는 다같이 튼튼한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자기의 튼튼한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 정치적자주권을 쟁취한다음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매개 민족국가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고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기초우에서 국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어떤 민족이나를 막론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를 가지지 못하고서는 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 독립과 번영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매개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오랜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민족경제발전이 극도로 억제당하여온 제3세계나라들에 있어서 그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불피코 자금과 자재, 기술 등 문제에서 허다한 애로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하려면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과 함께 이 나라들사이의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 매개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추성되여야 한다는것은 결코 경제분야에서 교류를 거부하거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배제하고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개 나라들이 처하고있는 자연경제적조건이 서로 다르고 생산력의 발전수준과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이 차이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는것, 없는것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교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을 포괄하고있는 제3세계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에서 전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나간다면 매개 나라의 부족점을 서로 보충하여줄수 있고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으며 민족경제발전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는 이 나라들이 민족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공동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는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막아내고 이 나라들의 공동의 번영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들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고 이 나라들에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경제관계를 강요하여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여왔다.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의 전반적인 쇠퇴몰락과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부득불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을 승인하였으나 놈들의 더러운 침략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저들이 제3세계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을 지지하는척 하면서 이른바 《원조》와 《공동개발》 등의 간판을 들고 이 나라들에 기여들어가 의연히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자본과 잉여상품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으며 제3세계의 많은 원료의 생산, 수송, 판매 등의 여러 고리들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통제하고있다. 놈들은 극히 악랄한 수법으로 저들의 잉여상품값을 끌어올리고 제3세계의 원료값을 끌어내려 막대한 자원을 계속 략탈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1961년부터 1972년까지의 12년동안에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근 1천억딸라를 긁어간 사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원료자원에 대한 악랄한 착취에만 머물고있지 않다. 놈들은 제3세계나라들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차려놓고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있으며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나라들의 공업발전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 나라들에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창설하여놓고있으나 실지 여기에서는 해당 나라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그들이 생산관리에 참가하는것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의 원료와 함께 값싼 로동력을 착취하여 현지에서 상품을 독점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더 크게 치부하고있는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은 제3세계나라들이 다같이 동등하고 균등하게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으며 특히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함으로써 신흥세력나라들로 하여금 자체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만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제국주의

자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도움을 바라거나 놈들과 예속적인 경제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이 나라들은 피로써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지켜나갈수도 없으며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의 처지에 굴러떨어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들은 민족적번영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락후와 빈궁을 면할수 없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는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경제적략탈을 끝장내고 이 나라들의 경제를 민족적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된다.

제3세계나라들이 전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나간다면 국제경제관계에서 국제자본의 힘을 압도할수 있는 강력한 전투적뉴대를 이룩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경제적뉴대를 강화해나간다면 매개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과의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끊어버릴수 있을뿐아니라 거꾸로 놈들에게 강력한 경제적압력을 들이댈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제3세계나라들이 더는 지난날과 같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얽매여 나라의 부원과 자기 인민의 고귀한 로동의 열매를 략탈당하지 않게 될뿐아니라 제국주의경제체계의 전반적위기를 심화시키고 놈들을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더욱 깊이 몰아넣을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침략과 략탈의 지반을 잃게 되고 이 지역에서 그 생명선이 완전히 끊어져나갈 때 놈들의 종국적멸망은 불가피하게 될것이며 제3세계나라들의 혁명위업은 더욱 성과적으로 촉진될것이다.

이처럼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는 이 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번영의 물질적기초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키며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사기와 략탈을 끝장내고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등장한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의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정치적단결과 함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의 앞길을 자신이 개척하며 자기의 손으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서로 아는것은 알려주고 모르는것은 배우며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협조하여나간다면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새 력사 창조에 일어선 혁명적인 인민들이다.

그들의 혁명투쟁은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과 지향의 공통성으로 하여 긴밀한 뉴대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일치한 행동으로 나가고있다. 따라서 제3세계나라들사이에는 남을 예속시키고 지배하려거나 남의 리익을 희생시켜 일방적리득을 취하는것과 같은 일이 있을수 없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나라들사이에는 서로 반목하거나 배척할 아무런 리유와 근거도 없으며 오직 자주사상을 신조로 삼고 진실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지지협조하는 친선적관계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제3세계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공고한 기초로 된다.

제3세계나라들은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참으로 위대한 나라로 될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륙지면적의 71%와 세계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을 비롯한 무진장한

자연경제적부원이 있다. 이것은 제3세계나라들이 경제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 유리한 조건들을 옳게 리용하여 긴밀히 협조하여나간다면 매개 나라의 절실한 경제적요구를 능히 해결할수 있으며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제3세계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과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들도 많이 가지고있다.

제3세계의 어떤 나라에는 물고기가공기술이 발전하였고 다른 나라에는 원유가공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같이 농촌경리의 수리화에서 특출한 경험을 쌓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나라에는 집짐승기르는데서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이 비록 발전도상에 있기는 하지만 좋은 경험과 기술을 몇가지씩은 다 가지고있다.

이러한 좋은 경험과 기술을 100여개에 달하는 제3세계나라들이 한가지씩만 교류하여도 100가지, 10가지씩 교류한다면 1,000가지이상의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질수 있다. 제3세계나라들이 서로 아는것을 배워주고 모르는것을 배우며 유무상통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별로 없으며 참으로 큰 일을 할수 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개척해나가고있는 제3세계나라들이 이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들을 옳게 리용하면서 경제기술적협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튼튼한 민족경제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같이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될것이다.

⁂ ⁂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기 위한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공동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이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은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는것과 함께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단적인 공동투쟁에로 심화발전되고있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겪은 피눈물나는 쓰라린 생활체험과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고있는 신식민주의정책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을 똑똑히 알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의거할것이 아니라 신흥세력나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정치적단결과 경제적협조를 강화하여나가야만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와 문화를 더 잘, 더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잘알고 있다.

제3세계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경제기술적협조에서 자기들의 훌륭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정책적으로 선포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아프리카의 한 신생독립국가수반은 《경제협조가 우리 매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는것만큼 처음에 그 어떤 난관에 부딪친다 해도 우리는 힘을 합쳐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한 지도자는 《현시대는 우리들이 언제나 분렬상태에서 놀아 착취당하는것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단결하여 우리의 공동자원의 커다란 잠재력을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사이의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통하여 민

족적번영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결심을 다지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오늘 세계무대에서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제국주의략탈로부터 나라의 자원을 지키며 경제를 민족적리익에 부합되게 개발하고 교류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원료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 특별회의, 유엔해양법회의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에 관한 회의, 석유수출국가기구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착취와 략탈을 끝장내고 제3세계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이 나라들사이에 정치적단결과 함께 경제적협조를 강화하여 나갈데 대한 여러가지 실제적 대책들을 취하였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이 힘찬 투쟁은 지금까지 이 나라 인민들을 제멋대로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온갖 전횡을 일삼아온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안겨주고 국제경제질서를 제3세계인민들,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만들며 이 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을뿐아니라 실제적인 경제기술적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민족적독립국가들사이에는 호상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할데 대한 여러가지 협정들이 맺어지고있으며 도처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정에 따라 서로 해당지역에서 철광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 채취 사업들을 도와주고있으며 현대적인 공장과 생산시설들을 건설하여주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의 적극적인 경제협조로 하여 여러 신생독립국가들에서는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으며 수만정보에 달하는 관개시설들과 종합농장들 그리고 타야소로부터 종합기술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보건 시설들과 청년회관, 소년궁전 등 훌륭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건설되고있다.

이리하여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서 놈들의 혹독한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왔던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오늘은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기업소와 생산시설들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이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제3세계나라들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경제원조도 많이 제공하고있다.

석유수출국가기구에 망라된 제3세계나라들이 축적된 자금을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개발자금으로 리용할것을 발기하여나선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져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마노강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경제협조의 뉴대를 이룩한 사실 그리고 최근년간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력사상 보기드문 가물피해를 입었을 때 제3세계나라들이 거액의 긴급원조를 준 실례들은 지금 신흥세력나라들의 경제기술적협조가 이 나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의 원칙에서 얼마나 심화발전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이러한 경제협조관계의 발전은 이 나라들의 민족경제건설에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여주고있다.

이렇듯 제3세계나라들은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폭넓고 전망적인 경

제기술적협조를 전면적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을 성과적으로 마련해나가고있으며 전반적인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원부원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착취를 반대하고 서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3세계나라들과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을 자기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삼고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싸우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인민은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제3세계나라들에 알려주고 그들의 민족경제건설을 우리의 힘자라는껏 진심으로 도와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으며 이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제3세계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그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합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나감으로써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끊임없이 륭성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반드시 건설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제 9 호(루계 401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주 소•평양시 외성구역 인선동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75년 9월 1일 발 행•1975년 9월 5일

ㄱ—55300 값 50전

( 정기간행물 번호 )
( 제13206호 )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0 호(402)


## 차 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 만세!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앞당겨점령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몸소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튼튼히 키워오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이땅우에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치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0월의 혁명적명절을 맞는 이 시각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혁명적당인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된 영예와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으며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에 끝까지 충실할 불같은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고있다.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고 국제무대에 로동계급의 당이 출현한지 100여년이 되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고 오늘 지구상에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많지만 직접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당을 세우신 당의 창건자, 당을 키우시고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영명한 수령님을 모시고 창건 30돐을 기념하는 혁명적인 당은 오직 우리 당,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하고 정확한 투쟁강령과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혁명투쟁에서 옳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 하여 주체시대의 앞장에 서서 승리와 영광의 길을 자랑스럽게 개척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력사적뿌리에서 창건되고 수령님께서 몸소 이끌어나가시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하여 해방후 복잡한 환경에서도 우리 당이 튼튼한 토대우에서 창건될수 있었으며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을 정확하게 령도할수 있었던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제시하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억센 뿌리를 튼튼히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대오, 항일무장대오를 무으시고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인 동시에 주체적인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생신한 공산주의핵심들을 길러내시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시였으며 종파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키시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심으로써 당창건의 반석같은 초석을 다져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시여 혁명적군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키심으로써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확고히 꾸려나가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하신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견고한 토대우에서 지체없이 1945년 10월 10일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선포할수 있었으며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늘과 같은 강철의 당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벌려오신 정력적인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선로동계급은 이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정치적무기,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새형의 혁명적당, 주체형의 당이 처음으로 태여나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튼튼한 력사적뿌리에서 솟아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조직된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이 첫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세상에 태여난지는 30년이 되지만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로 본다면 결코 나이린 당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를 알리는 《ㅌ•ㄷ》의 결성으로 그 뿌리가 내려 우리 나라에 참다운 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펼쳐진 때로부터 보면 우리 당은 50년이라는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는것처럼 당의 공고발전도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빛나게 이룩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30년의 간고하고도 보람찬 로정을 걸으면서 더욱더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위력한 혁명적인 당으

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당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을 다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불패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키워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안에 하나의 사상만이 지배하게 하며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밝히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전당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며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하고도 심각한 투쟁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당이 창건되고 혁명력량이 결속되는것을 몹시 두려워한 미제와 국내반동들은 공산주의대렬을 분렬시키며 공산주의자들을 인민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온 종파분자들의 분렬행위와 파괴책동이 또한 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실 때 당안에는 검열된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국내외에 있던 공산주의그루빠에 속하였던 사람들도 들어왔었다. 수령님께서는 각이한 류파의 사람들을 널리 포섭하시고 하나로 묶어세우시려고 모든것을 다하시였으나 종파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은 당에 속을 주지 않고 양봉음위하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당과 혁명에 도전하여 나섰으며 당의 통일단결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력사적 고질로 되여온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그 사상적여독을 가시는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로 나섰다.

우리 당앞에 나선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오직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시며 인민대중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빛나게 해결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며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과 결합하여 전당적, 전인민적인 투쟁으로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던 종파오물들과 그 사상적여독이 깨끗이 청산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 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만 숨쉬고 사고하는 혁명적기풍과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그 어떤 잡귀신도 범접할수 없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부대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독

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당을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강력한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앞에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미제와 국내반동들이 우리 혁명력량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며 종파분자들의 분렬파괴책동이 우심해지고있던 정세하에서 근로대중이 여러 정당들에 의하여 서로 갈라져있는것은 우리 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시고 지체없이 우리 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우리 당이 대중적정당으로 발전됨으로써 당력량을 강화하고 혁명가들의 대렬을 빨리 늘일수 있게 되였으며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더 깊이 뿌리를 박을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려던 내외원쑤들의 파괴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각계각층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보다 튼튼하게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시면서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당대렬의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나타날수 있는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당사업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당활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혁명적사업방법이 전당에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이 언제나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전투적조직으로 공고발전되게 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30년간 내외의 온갖 원쑤들과 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행로를 힘차게 걸어왔다. 이 길에서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였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당으로 장성발전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우리 당이 걸어온 30년의 력사는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력사이며 우리 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로정을 걸으면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은 오늘 전체 인민대중의 높은 존

경과 신뢰를 받고있으며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혁명적인 당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그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당으로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영예와 존엄을 가장 높이 굳어올리신 위대하고 영명한 수령이시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값높고 빛나는것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업적을 떠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권위와 영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권위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은 권위이며 영예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이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으며 주체시대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빛날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영예와 긍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우와 같은 책, 533페지)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주체사상은 현시대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람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주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이 발견됨으로써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위력한 사상리론적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대륙과 대양을 건너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널리 전파되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사조로 되였으며 주체사상을 따르고 신봉하는 인민들의 대렬은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우리 당은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철저히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철저히 우리 당과 우리 인

민, 세계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훌륭히 풀어나가는 존엄있는 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당이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하는 위력이 있으며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영예와 자랑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위대성과 높은 권위는 또한 전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져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위력은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에 있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오랜 기간 자기 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으며 또 벌리고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한 위대한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2페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실무적인 단합이 아니며 철저히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억세게 련결된 가장 생활력있고 공고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전당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 그것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내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려는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되고있으며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철석같은 의지로 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혈맥, 주체의 혈맥으로 튼튼히 이어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강철의 대오, 충성의 대오, 이것이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의 자랑찬 모습이며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처럼 이렇듯 당과 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으며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그러한 혁명적인 당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지난 30년간 우리 당은 안팎의 온갖 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반석같이 꾸려놓은 동시

에 우리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땅우에서 위대한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여 우리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전변시켜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력사의 생소하고 험난한 길을 개척하면서 혁명과 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여기에 또한 우리 당의 영예와 자랑이 있는것이다.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독립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려놓으시였다.

사실상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뒤떨어졌던 처지에서 그것도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되여있는 조건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히 주체적인 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동안 걸려서야 한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이땅우에 찬란히 개화만발함으로써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빛내이고있으며 망국의 비운속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삼천리금수강산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해방후 첫날부터 미제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지역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감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분렬된 나라에서의 혁명투쟁의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와 같은 눈부신 성과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은 시대의 앞길을 가장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당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의 30년, 그것은 우리 혁명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찬 로정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모범으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기여하였을뿐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절박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줌으로써 국

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적원칙들과 방도들 그리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민족해방투쟁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고 그들의 성스러운 위업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이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당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이 더욱 높아졌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벗들과 혁명동지들을 가지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정당한 혁명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세계혁명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 높은 존엄과 권위를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은 오늘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고있으며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영예와 자랑을 더욱 빛내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령봉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 빨리 완성하기 위하여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이 더욱 뚜렷하게 되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당조직과 당대렬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두가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섰으며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우리 당은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청춘의 기백에 넘쳐 투쟁하며 전진하는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권위와 영예, 그것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권위와 영예이며 수령님과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당의 혁명적인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고 당중앙이 부르는 길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당과 인민의 보다 휘황찬란한 앞날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확고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30년간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서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더욱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해야 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을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심장인 우리 당을 유일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전당의 유일사상화는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완전무결한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당을 철저히 유일사상화함으로써 우리 당을 통하여 주체형의 피,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사회와 사람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우리 당의 가장 영예로운 사업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책임적이고도 숭고한 사업이다.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된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혁명적지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일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 빨리 이룩해나갈수 있다.

언제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로 들끓고있으며 산과 바다라도 헤가르는 주체의 힘으로 억세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혁명위업

김　　동　　규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은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다.

이 뜻깊은 혁명적대경사를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따라 당과 함께 걷어온 준엄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30년, 보람차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30년을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새형의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를 몸소 마련하시고 그 터전우에 당을 세워주신 우리 당의 위대한 창건자, 당을 키우시고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자 경애하는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시대의 전위부대로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치며 심각한 혁명투쟁과 거창한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현대제국주의의 괴수 미제를 때려엎고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세계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은안팎의 기회주의조류를 물리치고 주체형의 피가 순결하게 차넘치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로 통일단결된 강철의 당으로 되였으며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로숙한 당, 혁명도 건설도 승리에로 이끄는 만능의 당, 침체와 답보를 모르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리정표로 되는 위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이다.

이 위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가진 혁명적당, 백전백승의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것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은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 1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수행하고있는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혁명위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온 사회를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합법칙적과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은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세계를 창조하는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자기 계급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로동계급과 그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수행하고있는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하고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과학적인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와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과학적리론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의 요구를 체현하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들의 향도적기치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나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독립과 진보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이 위대한 지도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가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야만 일찌기 백두의 령봉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행군길을 다그쳐 이 땅우

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결국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을 말한다.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그 직접적담당자이며 주인들인 근로인민대중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기본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인간이란 그들의 온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가 차넘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말한다. 주체형의 피란 바로 다름아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 때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고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고있는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이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완전히 주체사상화된 사회일뿐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된 사회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구경은 이 사회의 주인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려는데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며 또한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완전한 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보장해주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철저히 개조하는 한편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며 과학과 기술, 문화와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

히 벗어나게 할수 있으며 낡은 사회의 온갖 생활양식을 없애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세우는 문제도,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도 모두다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자면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두 요새점령을 위한 투쟁을 통일적과정으로 틀어쥐고 벌리나가야만 아무러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공산주의사회를 빨리 건설할수 있다.

여기에서 사상적요새점령을 위한 투쟁을 앞세우는것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것은 력사발전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것이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물질적요새도 점령할수 없으며 오직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투쟁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만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물질적토대를 쌓는 투쟁만 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를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위대한 사상이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한 탁월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정치사상적내용과 계급적성격이 더욱 뚜렷하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실현될 공산주의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거기에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것인가 하는것이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 2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투쟁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의 빛나는 계속이며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은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

신 때로부터 개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이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과정은 곧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어 승리하는 과정이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를 위한 투쟁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매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되여왔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낡은 악폐에 물젖지 않은 참신한 공산주의자들로 첫 혁명대오를 조직하시고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벌리시였으며 이 투쟁속에서 혁명의 튼튼한 골간을 꾸려나가시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것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접수한 사람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을 벌리고 일제와 싸워 승리를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항일혁명대오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간악한 일제를 쳐부시고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혁명투쟁은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을 광복하는 성스러운 혁명투쟁이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비롯한 혁명대오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심각한 혁명적과정이였다.

조국의 해방을 맞이한 우리 인민앞에는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며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보람차고도 영광스러운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당을 창건하시고 새 사회건설을 령도하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정치적무기,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가지게 되였다.

당이 창건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해나가려는 혁명적각오를 가진 선진분자들이 당대렬에 결속됨으로써 우리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였다. 이와 함께 주권을 튼튼히 틀어쥔 근로인민대중이 수령님의 령도따라 새 사회 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섬으로써 우리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개조하기 위

한 새로운 력사적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화과정의 끊임없는 심화발전은 그 새로운 높은 단계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필연적요구로 제기하였다.

원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은 창건 첫시기에 벌써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전면에 제기해야 하였었다.

그러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은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전면에 제기될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당발전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당이 창건될 때 우리 당안에는 검열된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활동한 여러 공산주의그루빠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수령님께서는 각이한 류파의 사람들을 널리 포섭하고 하나로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그러나 당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은 고질적인 종파적악습을 버리지 않고 당에 속을 주지 않았으며 양봉음위하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당과 혁명에 도전하여나섰다. 당의 지도적지위에 잠입한 이자들의 해독적작용으로 하여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되였으며 그 구호를 전면에 내세울수 없었다.

우리 당과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을 중심으로 전당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오늘의 성숙된 주객관적 조건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위대한 사상, 혁명과 건설의 옳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상의 일색화가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여야 하며 또한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우선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인 위대한 지도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선혁명은 생소한 길을 헤치고 여러단계의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면서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힘있게 확증되였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에서 끝없는 고무를 받고 그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고있다.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그처럼 신봉하고 따르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전면에 제기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이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그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들이 안받침될 때에만 성숙

된 문제로 나선다.

하나의 사상이 전사회적규모에서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문제는 오직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공산주의자들만이 제기할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튼튼한 사회경제적기초로 되며 공업화의 실현으로 마련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토대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공통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것은 전사회적규모에서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이 확고히 지배할수 있게 하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된 결과로 우리 나라에 마련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 잘 보장함으로써 그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더욱 높이게 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거창한 사업을 물질적으로 힘있게 안받침해준다.

우리 나라에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정치적력량도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였으며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오랜 투쟁을 통하여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우리 당은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서 왕성한 투지와 패기를 가지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다.

또한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 우리의 혁명력량은 정치사상적으로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 모든 주객관적조건과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전면에 제기하였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제기한 위대한 사업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 잘 보장하며 그들을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더 빨리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혁명적인 우리 당만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전투적구호를 제기할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위대한 혁명을 수행하고있다. 이 혁명의 길은 공산주의사회를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의 길이다.

## 3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

고나가야 할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전투적강령은 공산주의건설의 총적임무와 방향을 명백히 제기하여야 하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 전략과 전술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에는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최종목적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시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계급투쟁의 요구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이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건설의 구체적방도가 가장 뚜렷이 밝혀지게 되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은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더욱 완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편향없이 곧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전략전술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공산주의사회는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한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다 공산주의적세계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된것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입고 오래 살수 있는 사회, 한 사람도 뒤떨어진 사람, 열성이 적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진보적이며 다같이 몸바쳐일하는 사회, 한개의 큰 가정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사는 단합된 사회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가 곧 공산주의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0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사회가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며 물질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사회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과 문화수준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철저히 혁명화되여 오직 하나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고도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사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사회관계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이 무엇이며 사회생활령역에서 세워야 할 공산주의적생활규범이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리익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며 긴밀하게 서로 도와주는 동지적관계를 맺게 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게 됩니다.》(우와 같은 책, 44~45페지)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모든 활동과 생활은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사상과 도덕, 과학기술과 교육문화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인류사회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적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일한 공산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되고 온 사회에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지배하게 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와 같은 온갖 낡은 사상과 뒤떨어진 생활관습들이 말끔히 가시지고 사람들사이에 호상 신뢰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확립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실로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전면적해명을 준 탁월한 사상으로서 이 사회의 본질과 중요한 징표들을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혀준 유일하게 과학적인 사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인류는 이때까지 극히 륜곽적으로만 알고 있던 앞날의 계급없는 사회, 공산주의사회의 전면모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지게 되였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에는 또한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처음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계선과 임무,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실현의 구체적조건,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의 합법칙성 등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착취계급을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한 다음 혁명과 건설을 계속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건설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공산주의의 두 요새점령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사회주의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끊임없이 강화할데 대한 문제, 농촌문제를 종국적

으로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문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문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 등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는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령도방법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혁명적령도방법을 명백히 세우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론이 있어도 대중을 그 실현에로 정확히 조직동원하는 혁명적령도방법이 없으면 혁명과 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바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는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한 대중령도의 혁명적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과 그 구현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이렇듯 혁명과 건설의 각이한 단계의 혁명리론과 방법,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혁명의 총서이며 영생불멸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강령은 우리 당과 인민이 휘황찬란한 공산주의미래를 뚜렷이 내다보면서 신심드높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최대한으로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의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다시한번 위대한 비약과 전환을 가져오게 하며 공산주의건설의 개척자,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의 제시는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강령과 전략전술작성에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준것으로 되며 탁월한 리론실천적공헌으로 된다.

* *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영원히 꽃피워나가기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주체사상의 불멸의 기치밑에 새시대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무겁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그를 빛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불패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도,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 문제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밀고나가는가에 달려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며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근본방도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충성의 결사전에서 위훈을 떨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더욱 가하여 충성의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온 나라가 혁명적정열로 끓어번지게 하며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나가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며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가장 충실한 길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두다 당이 내놓은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

오 진 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은 우리 시대, 력사의 새시대의 진로를 밝혀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으며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은 새형의 혁명적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조국청사와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의 전형의 하나인 조선혁명을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우리 당은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그 어떤 폭풍도 격랑도 헤가르며 전진하는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과 만능의 힘을 지닌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전위부대로 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서른돐을 가장 뜻깊게 맞으면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우리 당을 대를 이어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여나갈 한결같은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1

로동계급의 당이 의거하고있는 지도사상, 지도리론은 그 당의 성격과 사명, 불패의 생활력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뚜렷이 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승리에로 확고하게 이끄는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

과학적인 지도사상, 지도리론이 없이는 정확한 혁명실천이 있을수 없다.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진 당만이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올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복잡하고 심각한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매 력사적시대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 지도리론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이 혁명과 건설의 산지침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대와 혁명실천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사회력사적조건이 변하고 혁명이 전진하는

데 따라 계속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리론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위대한 시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대륙에서 공산주의운동이 벌어지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선 혁명과업도 비할바없이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이것은 혁명실천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자기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풀어나갈 때에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 우리 혁명발전의 사활적요구를 과학적으로 심오히 반영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당이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으며 주체시대의 새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시대가 력사의 일정에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계급적리익과 민족적리익에 맞게 자기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가는데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심오한 혁명적진리를 가르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근본적인 관점과 립장, 태도를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과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로서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지 않는다면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어느 한 문제도 혁명의 리익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없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본적인 사회경제적변혁과 혁명적개조를 내용으로 하는 심각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해나가는 로동계급의 당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치이다.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혁명실천에

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페지)

주체사상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초석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본질적특징에 대하여,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성과 전투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건설의 기초로 되는 근본사상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삼고있으며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비롯한 잡사상들은 우리 당안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창건된 당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그러므로 전당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며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행동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우리 당사업, 당활동 전반을 일관하고있는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이 내놓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출발점으로 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매 시기마다에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에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관점과 태도, 그 기본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거기에는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견지하고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에는 또한 언제나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함으로써 세계혁명에 이바지할데 대한 혁명적립장이 일관되여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창조성과 독창성, 전투성 그리고 가장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언제나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에서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그 기본요구들에 확고히 기초하고있으며 그것

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에는 력사발전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원리를 구현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낡은 사회, 착취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그 추동력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힘있고 생활력있는 주체의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함으로써 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 잠재력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대중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이렇듯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부동한 담보를 가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그 찬연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리고있다. 사회와 력사 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을 심오히 밝힌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의 영예는 영원불멸할것이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전위부대로 되고있다.

## 2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필승불패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능숙하게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우리 당이 걸어온 지난 30년간의 전로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폭풍을 뚫고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온 영광스러운 로정이였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여온 자랑찬 행로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여온 행정은 힘난하고 생소한 길을 헤쳐온 간고한 투쟁로정이였다.

우리는 지난날 매우 뒤떨어졌던 처지에서 그것도 나라가 두 동강으로 끊어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되여있는 상태에서 새생활을 창조해나가야 하였으며 가렬처절한 격전속에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도 물리치면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하였다. 또한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경제토대마저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여 재더미만 남은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야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종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자체로 해결해야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기회주의가 대두하여 사상적혼란이 조성된 풍파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옹호관철해야 하였다.

참으로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 복잡하였으며 우리 당은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드팀없이 나감으로써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이룩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세웠으며 그것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였습니다.》**(《꼬스따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따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따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복잡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끊임없이 전진시키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간고한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에도 우리 인민의 리익과 지향,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과 로선들을 독창적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은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오직 투쟁과 전진과 승리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지름길을 가리켜준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주주의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에 곧바로 들어설수 있게 되였으며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사회경제관계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수탈이 아니라 협동화하는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힘차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빨리 수행할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탁월한 사상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혁명의 새로운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함으로써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을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고 이 땅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선진적인 사회제도,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가는 우리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성과적으로 관철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켰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로부터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방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 등 새롭고 독창적인 로선들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혁명이 빛나게 수행되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지난날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에 오늘은 사회주의지상락원이 건설되고 위대한 민족적륭성과 번영의 시대가 펼쳐졌으며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고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을 높이 추켜들고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앞장서 나아가고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켰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세계혁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견지한 확고한 주체적립장, 이것은 실로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부닥친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한 기본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매 시기마다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는 과정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와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그와 배치되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형형색색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첨예하고도 심각한 투쟁이였다.

력사적으로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새로운 로선과 방침이 나올 때마다 아무런 리론도 없이 무턱대고 반대해나섰으며 우리 혁명이 어려운 곤난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하여나왔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때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후에 와서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널리 대두됨에 따라 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심지어 그것을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는데까지 이르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55년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투쟁을 벌리는 동시에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하였다.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상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으로 벌리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로력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을뿐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세기적인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이처럼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오래동안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은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가 철저히 서게 되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의 사상독소를 뿌리뽑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과 함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전진을 이룩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4페지)

우리 당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재부가 창조되며 사회적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세상에서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결국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여야만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당의 요구를 깊이 침투시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동원하였으며 인민대중을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힘과 지혜와 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투쟁한 결과 혁명과 건설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력사적경험은 당이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이 당을 받들고 따르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적군중로선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에서 근로대중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인 혁신운동을 일으켰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천리마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위업을 10여년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굽임없이 새기적, 새기록을 창조하면서 세월을 주름잡아 질풍같이 달려왔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은 오늘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진군나팔소리 더욱 세차게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련일 대기적,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다. 그들은 6개년계획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 보다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보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으로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당은 주체시대의 앞길을 선두에서 개척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자랑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당은 이와 같이 필승불패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달려왔으며 이 과정에서 조국과 인민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업적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혁명적인 군중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이다.

# 3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통을 이어받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참으로 힘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의 앞길은 의연히 간고하고도 복잡하다.

우리는 하루빨리 세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주체사상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수행하는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은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위대한 창조적인 사업이다.

이 어렵고 숭고한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여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더욱 세차게 차넘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강철의 당으로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성격과 사명을 더욱 명백하게 하였으며 우리 당이 대를 이어 영원히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리지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이 빛나게 관철되여나감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였고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이 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대렬이 그 어느때보다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지게 되였다.

당안에 정연한 혁명적사업체계가 서고 당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당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다그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기치따라 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진공적

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1페지)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다. 만일 당안에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다른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사상의지의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주체형의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은 반대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순결한 주체형의 피만이 꽉 들어차게 하며 그 어떤 잡사상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당의 혁명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우리 당을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철두철미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당을 강화발전시키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당중앙이 내놓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당의 혁명적지도와 어긋나는 그 어떤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타협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대오, 충성의 대오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당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정확한 지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인 당이다

## 서 철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점령할데 대한 충성의 결의를 빛나게 실현한 드높은 자랑을 안고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으며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의 력사를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30년이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볼 때 매우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을 이끌어 선조들이 수천년동안에 이루어놓을수 없었고 상상할수 없었던 위대한 업적과 불멸의 위훈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이께서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완전히 실현하신것이며 우리 당을 가장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적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실로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30년,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힘있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자랑찬 로정인 동시에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우리 당을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강철의 당으로 공고발전시켜오신 영광의 로정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완전한 통일단결의 실현,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의 간고한 투쟁의 빛나는 총화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행복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세우시고 오늘과 같은 만능의 힘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키워오시였으며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땅우에 천대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 불멸의 위훈탑을 높이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대를 이어 영원히 그이께 충성다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1

사상의지의 통일과 혁명적단결은 간고한 혁명투쟁 그자체의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0페지)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은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착취계급의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부대이다.

당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철석같이 통일되고 단결되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단결이 없이는 당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개조하는 심각한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령도할수 없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그런데 당의 강철같은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오직 탁월한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해서만 비로소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당의 사상의지의 유일한 체현자이며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의 유일한 중심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본질에 있어서 당을 세운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정치적무기이다.

탁월한 수령은 당을 창건할뿐아니라 당의 지도사상과 투쟁강령, 전략전술을 전일적으로 제시하며 전당을 령도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거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러한 당에는 중앙집권적규률이 없고 무정부주의와 자유주의가 활개치며 종파가 생기는 법이며 나중에는 당이 사분오렬되여 조직된 부대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을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당안에 딴 사상이 허용된다면 당의 생명인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정치적무기인것만큼 이 무기에다 이런 포탄, 저런 포탄을 마구 쓸수는 없는것이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은 당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혁명투쟁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 수령과 당의 호상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룩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여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8~9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우게 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가장 공고하고도 완전한것으로 만든다.

당대렬이 수령께 충직한 혁명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몸과 같이 움직일 때 로동계급의 당은 불패의 위력을 가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튼튼히

보장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가 《앞으로》 할 때 가지 않겠다고 뒤에서 우물거리거나 《좌로》 하면 우로 달아나는것과 같은 무규률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현상은 로동계급의 당안에 있을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당의 사상적기초를 공고발전시킴으로 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은 당의 지도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이 당안에 순결하게 차넘치게 하고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삼게 함으로써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보장한다.

만일 당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히 실무적으로만 뭉친다면 그러한 단합은 진정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또 오래가지도 못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옳게 가려보고 그것을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함으로써 당안에서 사상의 유일성을 튼튼히 보장하게 한다.

이처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전당에 수령의 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고 전당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고도의 조직성과 규률성,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은 영원히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이 바로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당건설의 기본원칙, 당사업과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명확히 밝혀준것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 2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형의 혁명적당, 주체형의 당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하신 첫날부터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섰으며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대렬의 완전한 사상의지적통일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파란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는 화요파, 엠엘파, 상해파, 북풍회파등 여러갈래의 종파가 생겨나 더러운 파벌싸움을 벌리였다. 이리하여 혁명대오안에 사상적혼란이 생기고 조선혁명은 시련의 소용돌이속에서 모대기였다.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는자들이 혁명운동은 하지 않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저마다 자기들만이 정통파이며 진짜맑스주의파라고 하면서 파벌싸움에만 몰두하다나니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옳바른 지도는 고사하고 1925년에 나왔던 당까지 말아먹고말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항거의 기치를 계속 추켜들고 반일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나 그때마다 가슴아픈 희생만을 남기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도탄에 빠진 민족, 시련을 겪고있는 조선혁명을 건져줄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애타게 기다리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이 절절한 념원과 피타는 갈망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인민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인민의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그이를 유일한 중심으로 굳게 뭉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그 광휘로운 빛발로 투쟁의 앞길을 밝게 비쳐주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어지러운 사상적혼란속에서 벗어나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사상적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와 참다운 지도사상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할 때만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자기들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신조를 가지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였다.

종파주의자들의 파쟁으로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겪고있는 혼란된 상태를 통감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사상에 물들지 않은 로동자, 농민 출신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하나하나 키워내시여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핵심으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대렬의 참다운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이룩하여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안의 당조직들과 국내외각지에 있는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나가시였으며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혁명대오내에 끼여든 종파사대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시였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님의 정력적인 투쟁으로 지난날 사분오렬되였던 조선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은 철저히 보장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해방후 우리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당이 창건될 때 우리 당안에는 검열된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국내외에 있던 여러 공산주의그루빠에 속하였던 사람들도 들어왔다. 그들가운데는 종파주의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사대주의에 물젖은 사람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특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시려는 념원으로부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뿐아니라 각이한 류파의 사람들을 널리 포섭하시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고 하나로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그러나 지난날의 악습을 버리지 않은 종파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은 당에 속을 주지 않고 딴꿈을 꾸면서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그리고 혁명앞에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과 혁명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혁명이 더욱 심각화되고 계급투쟁이 치렬히 전개됨에 따라 혁명대렬에서 더는 견디여내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은 혁명의 원쑤들이였으며 혁명의 간고성앞에 타락한 투항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54페지)

당창건초기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나타났던 종파분자들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대두한 수정주의분자, 부르죠아분자들은 례외없이 다 혁명의 배신자들이였으며 정치적투기분자들이였다. 이자들은 그 모두가 아무런 리론도, 정견도 없었으며 오직 《권도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그 어떤 음흉한 책동으로써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깨뜨릴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그이께서 지니신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석같이 뭉쳐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갔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철저히 고립되게 되였다.

천재적예지와 심오한 통찰력, 확고부동한 혁명적원칙성과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당의 반석같은 통

일단결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는 투쟁과 그 잔재를 숙청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죄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전당과 전체 인민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일관한 원칙으로 확고히 내세우시고 그것을 힘있게 관철하여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원칙과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오래전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11페지)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며 근본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줄기차게 벌린 결과 당안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한편으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그 사상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벌리고 다른 편으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종파주의를 비롯한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대렬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완전한 통일단결을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처럼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의 오물들과 당안에 숨어있던 수정주의분자, 부르죠아분자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실로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완전한 실현,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50여성상 온갖 풍상고초를 한몸으로 막으시면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벌려오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과 그이께서 기울이신 심려와 로고의 위대한 결실이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완전한 통일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인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종파분자들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첨예하고도 심각한

투쟁로정이였으며 참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온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로동자, 농민들과 지식인들을 넓은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에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를 넣어주시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으며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끄심으로써 그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동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우시여 하나의 대정치적집단으로 꾸려나가신 빛나는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실현된 우리 당의 강철같은 사상의지적통일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올수 있었으며 오늘 인류의 휘황한 미래인 공산주의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 3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오늘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폐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 사업의 총적임무이며 우리 당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이다.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하고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는 휘황한 길이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기본열쇠로서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는것이며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방침이다.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의 반영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의 새로운 심화발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당의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 현실적요구에 상응하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심화시켜나가도록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숭고한 높이에로 끌어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적경향이 극복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튼튼히 이루어졌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76폐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심화된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자기의 신념으로 삼게 되였으며 주체형의 순결한 피만이 세차게 맥박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그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혁명적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모든 사업에서 주인다운 립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과 관점을 튼튼히 견지하고있으며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 주체의 확고한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당원들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섬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잡사상도 허용하지 않는, 전당이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만 숨쉬고 행동하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되였다.

이와 함께 전당과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당, 전국, 전군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은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사상의지적통일체로,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특히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인류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로 되고있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전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그이께 충성다하려는것은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오는 행정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심어지고 깊이 뿌리를 내린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무조건성, 절대성의 정신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살며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

치는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 한생을 바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대의 혁명적의무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데서 그들은 삶의 참다운 보람을 찾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바쳐 싸워나가는것을 최대의 혁명적 본분으로, 생활의 신조로 삼고있는 사람들의 충성의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으로 이어지고 억세여진 통일단결,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가장 숭고하며 가장 순결한것이다. 이 숭고한 통일단결이야말로 그 어떤 험난한 가시덤불도, 사나운 폭풍도 헤가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에로 떠미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은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영원히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에 의하여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하나의 혈맥, 주체형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지고 억세여진 혁명적단결로 더욱 공고발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령도에 의하여 실현된 강철같은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주체의 기치밑에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결정적으로 앞당겨오게 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전체 당원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의 혁명대오를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충성의 전투대오로 되게 할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계급투쟁의 법칙을 깊이 인식하고 사상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이 당안에서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전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안에 이색분자, 불순분자들이 나타나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을수 있다. 끊임없는 완강한 투쟁이 없이 당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하는 그 어떤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전당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우리 당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혁명적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양 형 섭

오늘 우리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당창건 서른돐을 크나큰 경사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고있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당을 오늘과 같은 백전백승의 전투적당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시는 로정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은 백전백승의 전투적당으로 전변시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을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그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이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끝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 *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은 당을 받들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과 지혜와 창발성을 다 내여 일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창조되였습니다.》(《꼬스따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따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따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페지)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이 수행하는 숭고한 혁명위업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여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최종목적으로 삼고있다.

당의 이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력사적사업이다.

이 성스러운 위업은 사회의 심장이며 추진력인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

화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원래 우리 당이 령도하는 혁명과 건설자체가 인민들자신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것이며 그들자신을 위한것이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을 생각할수 없으며 대중의 리익을 떠난 당활동은 무의미한것이다.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당과 인민대중사이에 혈연적련계가 맺어지게 된다. 이 련계는 당이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는 또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대중자신의 사활적인 요구이다.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며 복잡하고 첨예한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은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 자기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조직성, 자기희생성과 완강성을 요구한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발전의 주체라는것은 결코 그들자신이 자연발생적으로 자기의 처지와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투쟁의 길에 나설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과 련계를 맺지 못하고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인민대중은 참모부가 없는 군대와 같이 옳바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적과 맞설수 없으며 혁명투쟁에서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수 없다. 국제혁명운동의 력사는 당의 령도가 없었던 탓으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큰 희생을 내면서도 쓰라린 실패로 끝나지 않을수 없었던 교훈적인 사실을 남겨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당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당의 령도밑에서만 자기의 처지와 근본적인 리해관계, 력사적사명을 깨닫고 조직된 력량으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벌릴수 있으며 암초를 에돌고 무익한 희생을 피하면서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는 문제는 결국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에 귀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바라는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력량이 강해야 반혁명을 때려부실수 있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객관적법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기와 물과의 관계에 비유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련계의 혈연성을 특징지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과 리탈한 당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중이 없는 당이 무엇을 가지고 혁명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당은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을뿐아니라 마침내 자체의 존재까지도 위태롭게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80페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고 발전할수도 없으며 구경은 혁명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고있으며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그들에게서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얻고있기때문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낼수 있었으며 반혁명을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었고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쥘수 있었다. 대중과 공고한 련계를 맺고있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혁명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국토가 갈라지고 우리의 혁명세력을 분렬시키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대중을 쟁취하며 그들을 교양개조하는 문제는 더욱 중대한 사업으로 나서게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4페지)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사이에 쐐기를 박으며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는데 미쳐날뛰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여야만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반혁명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었으며 적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나 정치적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중을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가 나가지 못하는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는가 열어놓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특히 오래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주민의 사회정치적구성에서 많은 복잡성이 조성된 실정에서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이 진심으로 당을 지지하고 따르도록 만들어야만 미제의 분렬책동과 리간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었다.

또한 지난날부터 파벌싸움에 버릇된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이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당에 도전하여나섰으며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여나섰다. 종파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할수도 없었고 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묶어세울수도 없었다.

오직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아야만 종파주의의 사상적해독을 막고 그 반당적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었으며 우리의 혁명진지를 불패의 요새로 다질수 있었다.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련계의 공고성과 생활력은 이 련계가 어떠한 사상적기초우에서 맺어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련계의 근본특성, 그 불패의 위력은 바로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실현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적 기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을 인민대중에게서 찾는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리론과 방법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대중을 승리에로 조직동원하는

지도리론과 지도방법을 밝혀주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공고한 통일단결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에서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 당대렬의 철석같은 사상의지적통일은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그것은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한 당만이 대중속에서 높은 권위를 지닐수 있으며 대중의 교양자, 조직자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건설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독창적인 당건설 리론과 방침을 내놓으시여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창건초기부터 우리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당은 결코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조선공산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인 정당으로 되여야 하며 새 조선건설을 조직령도하는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되여야 합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6페지)

수령님의 대중적당건설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 진보적인 지식인중에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자기 대렬을 급속히 확대해나갔으며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이 방침에 의하여 여러개의 근로정당의 존속으로 근로인민의 혁명력량을 갈라놓을 위험성을 없애고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었으며 광범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었다.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조건이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그루빠들을 망라하여 조직되였으며 또한 신민당과 합당하여 빨리 대중적정당으로 발전하였던 관계로 당대렬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을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으며 당의 통일을 좀먹던 온갖 경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우리 당의 통일과 전투

력을 강화하여온 로정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온갖 반동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치렬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이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산 조직으로 만들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확고히 보장되고 당의 전투력과 대중속에서의 당의 위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이 결과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질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의 하나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또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대중지도방법이다.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자면 당밖에 있는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고있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이 발동되여 비당원군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일떠세워야만 당은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근로단체를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우리 당을 이끄심으로써 당이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8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적대적요소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소홀히 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절대화하는 우경적편향이나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무시하고 계급투쟁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좌경적편향을 다같이 반대하고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켰다.

당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와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이다. 당은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혁명발전의 매 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주되는 대상을 똑똑히 규정하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능동적인 방침을 실시하였다. 우리 당은 계급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시도들을 반대하고 계급투쟁의 무기를 날카롭게 세움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켰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였다.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기본요구이다.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심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사람들의 성분을 옳게 평가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조직들은 사람들을 가정주위환경과 경력만 보고 평가할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의 계급적각오정도와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람의 성분이란 사상상구성성분을 말한다. 사람들의 성분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생활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변한다. 더우기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 사람들의 사상정신적면모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오게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본인의 현재의 계급적각오정도와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하며 성분이나 환경, 과거의 경력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그가 현재 당을 지지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발휘한다면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며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도록 하였다.

사회의 복잡한 계층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옳은 결합에 립각하고있는 창조적인 방침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체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은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기때문에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원쑤들의 분렬책동이 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었으며 온 사회를 굳게 단합되고 화목하고 생기발랄한 대가정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는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이다.

당과 대중의 련계를 강화하는 문제는 당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당이 비록 옳은 로선과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대중속에 뿌리박을수 없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맑스-레닌주의당도 정권을 잡게 되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혁명적세련이 부족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관료화되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옳게 수립된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적수행여부는 일군들의 실지 사업방법여하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1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령도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고 당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마련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불멸의 세계사적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이미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대오안에서와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서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시였으며 해방후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혁명적군중로선을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청산리방법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은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업방법이며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방법이다. 이 방법의 위력은 당이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알수 있게 하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혁명과 건설에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적사업작풍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여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는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고매한 덕성을 통하여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인민적사업작풍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이 작풍은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는것을 반대하고 힘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며 생활기풍과 품성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할것을 요구하는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업작풍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끄심따라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당세도와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뿌리빼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산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여왔다.

바로 이 행정에서 우리 당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과 작풍에서 보다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안에 참신하고 전투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일군들속에 남아있던 낡은 관료주의적사업방법,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사업방법과 같은 재래식사업방법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모든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같이 숨쉬며 틀을 차리거나 걸치레를 함이 없이 구체적실정에 맞게 간편하고 알기쉬운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활발히 벌리게 됨으로써 당의 목소리가 대중속에 더 빨리,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었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욱 강화되고있다.

또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일군들이 일을 통이 크게 대담하게 벌려나가며 어렵고 힘겨운 투쟁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군중을 힘있게 이끌고나감으로써 당의 전투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보다 성과적으로 관철되여나가고있다.

실로 당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고 우리 당이 광범한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적령도방법을 창조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당이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근본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이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는데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리론과 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의 찬란한 열매이다.

※ ※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들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한 결과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은 철통같이 묶어세웠으며 그 어떤 시련과 풍파도 뚫고나갈수 있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어떠한 모진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17페지)

대중속에서 당의 위신은 허물수 없는 것으로 되였으며 당과 인민사이에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견고한 통일단결이 이루어졌다. 우리 당의 이 통일과 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전로정은 이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미제와 직접 맞서게 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해방후 한두해밖에 안되는 동안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꾸려놓을수 있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각계각층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새 생활 창조의 길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였으며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시위한 뜻깊은 사변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냄으로써 그 공고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위력은 전후시기 우리앞에 나섰던 모든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뚫고나갈수 있었던 중요한 담보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우리 인민은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도시와 농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생활토대마저 거의다 잃어버렸다. 미제는 100여년이 걸려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사대주의에

몰짓은 반당종파분자들은 자체의 힘으로는 복구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떠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 새로운 난국이 조성되였던 그 엄혹한 시기에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형편을 알려주시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을수 있게 하시였으며 인민생활과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게 하시였다.

실로 우리 당은 수령님의 이끄심마따라 혁명의 간고한 시기마다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더욱 깊이 알려주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부닥친 난관을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원쑤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어려운 고비들을 헤쳐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전후복구건설의 그 간고하였던 시기를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며 그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사업방법입니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는 이러한 사업방법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의 형편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악전고투하여 전쟁의 피해를 겨우 복구하였을뿐 아직 공업화의 기초를 쌓는 일에 착수하지도 못하였는데 반당분자들이 일어나 당을 공격하여나섰으며 한편 리승만이 이에 호응하여 〈북진〉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당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로선을 관철하였으며 전체 당원들과 군중의 애국적열성을 발동하여 난국을 타개하고 오늘까지 4년동안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여 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폐지)

참으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이끌어주신 혁명적인 령도방법의 모범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심각하고 복잡한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전후 불과 4~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할수 있은것도,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힘겨운 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은것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시여 인민대중에게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시고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신 결과에 이룩된 열매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생동한 증거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실현된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과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에 기초하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 견고한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그 불패의 위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응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수행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천리마속도가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을 관철하여 우리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간고한 투쟁로정은 당과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여있을 때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성과적으로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오늘 우리 당의 지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새로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다. 이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며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강령이 가지온 빛나는 결실이며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혁명실천과 실지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거침없이 풀어나갈수 있고 조국의 통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고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인민대중은 수령님을 받들고 따르는 이 혼연일체의 관계는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과 건설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 *

우리앞에는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며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반석같이 꾸려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오늘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극소수의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당과 인민이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 나가는 우리 혁명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현 무 광**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 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수행한 승리자의 자랑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성대한 축전으로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뜻깊은 사변으로 되는 이 크나큰 경사를 맞이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몸소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위업을 굽임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 자랑차고도 빛나는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내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농촌테제실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이 땅우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민족경제체계를 튼튼히 쌓아놓았다.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체계의 확립, 이것은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길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성과이며 그 주되는 총화의 하나로 된다.

## 1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경제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34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 자체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가져야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민족적의무로 되는 동시에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도 된다.

매개 나라가 자체의 경제력을 강화하여야 세계사회주의진지의 매개 초소를 굳건히 다질수 있으며 전반적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사상적요새점령을 위한 투쟁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제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아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또한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고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맹목성과 무계획성, 자연발생성을 면할수 없으며 결국에는 엄중한 후과를 나타낼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건설의 근본방향과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매개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아무러한 편향도 없이 자기 나라 혁명과 민족의 리익에 참답게 복무하는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를 쌓아나갈수 있으며 경제건설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방향에 관한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벌써 해방직후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1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이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경제건설의 근본방향으로 규정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주체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경제건설로선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방향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철저하게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구현하고있다.

경제건설은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위한것이며 자기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경제정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 당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나라 인민의 힘과 내부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자체로 뚫고나가야 하며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바로 이러한 자주적인 립장과 창조적인 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사회주의법칙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계급적차이와 함께 민족적불평등도 없는 사회이다. 민족적불평등은 그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한 때라야만 없앨수 있다.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가 반드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현시기 국제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지향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 경제적자립의 시대이다.

지난날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치욕스러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후과를 쓸어버리고 자주, 자립의 원칙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체의 튼튼한 민족경제의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주체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경제건설로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강령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민족적독립과 번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해나아가는데서 이 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힘있게 확증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당의 기본로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35페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기본로선이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정당한 로선이다. 또한 이 로선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확대재생산문제에 새로운 독창적인 해명을 준것으로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이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창조적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현한 혁명적인 로선이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와 국방, 인민생활의 당면한 리익과 전망적요구를 다같이 훌륭히 실현하여 경제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의 근본방향과 방도를 옳게 규정하는것과 함께 경제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경제지도관리의 힘있는 무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나라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촉진된 새 환경에 맞게 혁명적군중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일원화와 세부화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화체계를 내오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완전히 맞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이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 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의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를 이 제도의 본성에 맞게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위대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 아무런 편향도 없이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줄기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 2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지나온 투쟁의 전로정, 그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 위훈의 력사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과 리론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따라 우리 당은 이미 해방직후부터 우리 나라에 자체의 현대적민족공업을 창설하며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지 않을수 없었다.

갓 창설되기 시작한 우리의 경제는 3년간의 전쟁에서 이루 형언할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파괴되였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전후 재더미우에서 새로 시작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구체적 형편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전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세개의 기본단계 다시말하여 복구건설단계와 공업화의 기초축성단계, 공업화완성단계를 거쳐 진행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단계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과 방침들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걸음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주체의 원칙,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1페지)

우리 당은 선행한 사회주의건설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기계적으로 매여달린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갔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길을 따라 전후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였다. 이것은 경리형태의 개조와 기술적개조의 호상관계에 대한 이때까지의 관례와 경험을 깨뜨린 완전히 독창적인것이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개조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

은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속도를 창조할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공업화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며 전후 복구기의 과업이 끝나게 됨에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이 성숙된 요구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은 현대적중공업의 창설로 알려진 지난날의 사회주의공업화개념과는 달리 자립적인 현대적공업, 주체공업의 창설을 총적방향으로 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자립적공업체계의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부합되게 실현되여야 한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의 독창성과 위대성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규정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단계도 기술혁명과업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독창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업화의 자금과 기술인재 문제도 아직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따라 훌륭히 풀어나갔다.

그밖에도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과 전군중적으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공업화에 보다 유리한 조건들은 마련하여나갔다.

우리 당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는 전투적구호를 내세우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진을 방해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불사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온갖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온 나라에 차고넘치게 하였다.

1958년에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뜨락또르와 자동차, 불도젤과 굴착기들이 생산되여 우리 공업의 중기계생산에로의 새로운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한것도 바로 이러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자랑찬 열매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업문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독창적으로 해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제시하시여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휘황히 밝혀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관한 전일적으로 완성된 과학적리론을 가지고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경

설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이룩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실로 주체와 자력갱생은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기본담보였다.

생활은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매여달리는것보다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자주로선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바로 이 로선이야말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바른 립장과 태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또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94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을 이끄시면서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당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종합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로선과 방침들을 세워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그 어느것이나 대중의 지향과 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관철에서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는 휘황한 등대로 되였다.

참으로 군중에 의거하여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그처럼 눈부시게 전진할수 있은 비결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앞에 엄중한 난관과 시련이 부닥칠 때마다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그들속에 들어가시여 대중과 직접 자리를 같이하시고 애로를 타개하며 혁신을 일으킬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거세찬 혁명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기 위한 투쟁에 들어서던 1956～1957년, 이 시기 조성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하는것은 실로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안팎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했고 아직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웠던 이 간고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장엄한 사회주의건설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전원회의후 수령님께서는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우리 혁명이 처한 구체적실정과 당내형편,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으며 그들을 새로운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하신 간곡한 교시는 그대로 위대한 투쟁의 불씨로 되여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천리마운동의 발단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그것을 맞받아나가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위대한 승리를 마련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의 또하나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천리마운동은 튼튼히 틀어쥐고 한편으로는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림으로써 이 땅우에 장엄한 혁명적대고조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나갔다.

7개년계획시기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서 이룩된 1967년의 혁명적대고조와 1969～1970년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가 창조된것도 바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근본원칙인 주체의 원칙과 혁명적군중로선은 그에 맞는 세련된 령도방법이 확고히 안받침될 때만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고계시는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완벽을 기하였으며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승리를 더욱더 확고한것으로 빛나게 하였다.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반적련쇄를 풀어나가며, 한 단위에서 전형적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며, 한 고지를 점령하고는 련이어 새로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면서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에로 이끌어나가는것,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령도방법의 중요한 특징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우리 당이 이끌어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투쟁은 바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이러한 혁명적령도원칙에 따라 조직전개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이 바야흐로 전면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을 때 우리 당은 중심고리를 철과 기계에서 찾고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에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그리고 한 자그마한 아마공장에서 타오른 불꽃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전군중적으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도록 함으로써 공작기계생산에서 새로운 일대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은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관철할 때에도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창성군의 모범을 전국의 모든 지방에 일반화함으로써 지방공업발전에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온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뒤덮게 할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는 북청군의 모범을 일반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단계의 경제과업이 끝나게 되면 련이어 다음단계의 목표를 제시하시여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심으로써 전체 인

민이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내다보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혁명과업이 빛나게 수행되자 련이어 웅대한 6개년계획을 펼쳐주시였으며 공업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와 근로자들의 절실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으며 공업생산과 기술적진보에서 새로운 인대비약을 일으키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우리 당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바로 수령님께서 희천땅에서 지펴올리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였으며 황철에서 창조한 자동화의 본보기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본받도록 함으로써 자동화에로의 위대한 비약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적조건을 깊이 통찰하시고 또다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휘황한 10대전망목표를 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웅대한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이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게 하는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전투적강령으로 내세운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더욱 커다란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함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리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면밀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워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며 모든 일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부리나케 해제끼도록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갔다.

특히 당중앙이 창조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빛나는 모범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대기적, 대앙양이 일어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채굴공업과 수송부문을 비롯하여 수령님께서 가장 심려하시는 인민경제의 주요 부문들에 력량을 집중

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마지막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최후의 총돌격전투에 들어서서는 보다 면밀한 작전적방침에 따라 사회주의대건설의 중요전선들에 화력을 돌림으로써 전전선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총진군, 총돌격전투를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사상전의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여 나갔다.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모든 일군들이 대건설전투의 벅찬 현실에 뛰여들어 대중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선전사업을 패기있게 벌리며 특히 모든 선전선동수단들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격적인 경제선동을 본때있게 들이대도록 함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온 강산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뒤떨어지고 침체한것들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비상히 높은 속도가 창조되였다.

주체조선의 본때를 다시금 만천하에 떨친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 마감총돌격전이였던 지난해 70일전투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창조한 새로운 천리마속도, 충성의 《70일전투속도》는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신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이며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마련하시고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는 전기간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주체의 혁명적 령도원칙과 령도방법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참으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로 되였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인민경제를 계속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93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

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적민족경제체계가 창설되였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당은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자위적국방력을 확고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놓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승리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놓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이 창설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였다.

지난날 《뒤떨어진 아세아》로 알리웠던 식민지동방에 오늘은 날로 끊임없이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공업강국이 찬란히 솟아올랐다.

우리의 공업은 규모가 전례없이 늘어나는 조건에서도 매우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공업화의 기초축성시기에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된 1961~1970년사이에 공업생산은 매해 평균 12.8%라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공업화의 첫시기보다 생산규모가 20배나 늘어난 조건에서도 1973년에는 또다시 1970년에 비하여 공업생산이 1.6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장엄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이 시작된 1974년과 올해에는 또다시 새로운 천리마속도, 번개와 같은 속도가 창조되여 지난 4년 8개월동안 공업생산의 년평균 증가속도는 18.4%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웅대한 6개년계획은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완수되였으며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은 승리적으로 점령되였다.

우리 공업의 눈부신 발전속도는 사회주의하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방대하여지도 생산을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사회주의경제리론이 얼마나 정당하며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인 자체의 중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은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중공업건설방침에 따라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자재, 원료, 연료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는 위력하고 완비된 공업으로 되였다.

특히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우리의 기계공업은 오늘 5만키로와트발전기와 20만크바대형변압기, 100톤급자동차와 대형뜨락또르,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5,000톤급에서 2만톤급에 이르는 대형선박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들과 특수정밀기계설비들을 생산하고있으며 대규모의 현대적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해방직후에는 락후한 절삭기계조차 몇대되지 않아 부속품도 제대로 못깎고 간단한 농기구와 연필 한자루 생산하지 못하던 처지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에 필요한 모든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강유력한 기계공업기지들을 가지게 된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루어놓은 참으로 귀중한 성과이다.

중공업의 기간적부문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부문구조가 완비되여 나라의 자연부원을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속, 화학 제품과 건재품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해방전에 비하여 선철, 강철 생산량이 수십배로 뛰여오르고 몇해안으로 1,200만톤의 강철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여러가지 규격의 2차금속가공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각종 유색금속, 희유금속, 유색압연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그뿐아니라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 경공업원료들을 대량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라의 곳곳에 크고 작은 탄광, 광산들이 개발되고 그 기술장비가 강화되였으며 대규모 화력발전소들과 수력발전소들이 새로 건설되여 나라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가 튼튼히 다져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강력한 중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우리의 경공업은 오늘 한해동안에 6억메터의 질좋은 천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동화된 현대적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생산부문들을 다 갖추고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현대적인 공업부문으로 되였다.

우리의 주체공업은 특히 최근년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을 진행하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그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였다.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소와 강선제강소, 금성뜨락또르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청년화학종합공장, 북창화력발전소, 순천세멘트공장, 무산광산과 검덕광산, 평양종합방직공장, 각도의 곡산공장들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대규모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들이 방대한 규모로 개건확장되였거나 새로 수많이 일떠섰으며 모든 지방들에서 공업이 종합적으로 발전하였다.

3대기술혁명의 세찬 불길속에서 우리의 공업은 기계화단계로부터 반자동화, 자동화단계에로 올라섰으며 기술장비도 훨씬 더 강화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의 공업이 주체가 튼튼히 선 위력한 사회주의자립공업으로 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에 의하여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수송전선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평양—신의주사이, 평양—청진사이, 평양—마동사이 등 중요간선들에서 철도전기화가 완성되고 새로운 철길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철도의 수송능력이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철도운수와 함께 해상운수, 자동차운수가 빨리 발전하고 무산—청진사이의 대규모정광수송관, 은률광산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현대적삭도들이 건설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삭도, 벨트콘베아, 관에 의한 3화

수송체계가 대대적으로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생산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새로운 공업도시들이 형성되고 지방들에 종합적인 공업생산기지가 창설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훨씬 더 줄일수 있게 되였다. 공업의 합리적배치는 몇개 도시에 공장과 인구가 집중되는것을 방지하고 공해현상을 미리 막을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건설된 사회주의공업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높이 떨치게 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하나는 우리 당이 자체의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키워낸것이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100만명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낼데 대한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모든 국가, 경제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그들에 의하여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에서 또한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농촌테제가 제시한 길을 따라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농법이 철저히 도입됨으로써 우리 농촌은 새롭게 변모되고 우리의 농업은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새 력사적시대에 들어섰으며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 일은 더욱 홍겹고 능률적인것으로 되였으며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해방직후에 비하여 무려 3.5배에 달하는 7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여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올해에 또다시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예년에 볼수 없었던 훌륭한 작황을 마련하여놓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거듭되는 인민적시책과 끊임없이 늘어나는 자체의 공고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더욱 향상되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딪쳐 생산이 침체상태에 빠지고 실업자들이 물밀듯이 거리를 헤매며 물가가 오르고 인민들이 도탄에 빠져 아우성을 치고있는 때에 우리 당은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내걸었을뿐아니라 력사상 처음으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마지막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물가를 대폭 낮추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으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체조선,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의 영예를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와 아들딸들을 공부시키고 병치료를 하는 근심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그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윤택하여지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자체의 공고한 경제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국방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부담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감당하고있으며 자위적군사로선을 훌륭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내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는 참으로 완전히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경제이며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장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경제건설성과에서 번영하는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파쑈도당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는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고무를 주고있으며 미제와 온갖 반동들에게는 치명적인 철추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의 많은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 특히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와 경험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체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세기에 길이 빛날 주체시대의 찬란한 기념비이다.

* *

지난 30년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성과는 실로 자랑차고 위대하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이 빛나는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우리 당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의 자랑찬 승리이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실지 투쟁과 체험을 통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나아갈 때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며 바로 그 길만이 우리 인민의 행복과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아로새기고있다.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맞이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충성의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가장 혁명적인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주체형의 혁명적인 당,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사 업 방 법

한 의 수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세우시고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창건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에 다함없는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며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신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대중령도방법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준것으로서 당사업, 당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특히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시여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새로운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서 우리 당의 고유한 사업방법으로 되여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당사업과 당활동, 국가, 경제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날이 갈수록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 1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사업방법이며 완성된 공산주의적 대중령도방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대중령도의 옳은 방법을 확립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대중운동에 대한 당의 옳은 령도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대중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자면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옳바른 지도방법이 있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대중령도방법, 혁명적사업방법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며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활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대중령도방법, 사업방법에 관한 문제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에 와서 더욱 중대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우리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대중령도분야에 구현하시여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창시, 이것은 주체의 지도방법,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대중령도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고유한 사업방법,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조직이며 혁명의 무기이다. 우리 당에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밖에 그 어떤 다른 사업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며 주체의 혁명적당사업방법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혁명적본질과 공산주의적성격은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바탕으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사업방법은 사업상 능력이나 단순한 일본새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과 세계관의 표현이며 그 본질과 성격은 어떤 사상, 어떤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사상과 세계관으로부터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 나오며 그러한 사업방법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로 부르조아 사상과 사고방식으로부터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반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이 나온다. 이러한 방법과 작풍은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와 단결을 파괴하고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억제하며 혁명의 전진을 저애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방법, 사업방법이 진실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대중지도방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근저에 흐르고있는 근본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혁명투쟁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때문입니다. 사회를 개조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에서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47폐지)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사상적기초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때 가장 철저히 그리고 빨리 진행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인민대중

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한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대중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는 당이며 결코 대중을 다스리는 관료당이 아니다. 정치사업방법으로 대중의 자각성을 높여 모든 과업을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참신하게 풀어나가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업방법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묶어세우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완성된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며 이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법을 밝혀준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은 모두가 다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세상에서 귀중하고 훌륭한것은 다 근로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주체를 세워 인민대중자신이 자기 나라 혁명위업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과 함께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바로 이러한 군중로선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을 가장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격식과 틀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일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 구체적 환경과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 고도의 창조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서 기존 관념과 리론, 기성의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참신하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더우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인것만큼 하나의 틀에 얽매여놓을수 없으며 천편일률식으로 할수 없다.

당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더 큰 열매를 거두어들일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관철할 때에만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사업방법으로서의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중요한 특징과 이 사업방법이 고도의 창조적사업으로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또한 난관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며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진공적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사업방법이다.

혁명은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있을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발전법칙에 따라 낡은것을 끊임없이 새것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며 계속 전진하고 혁신할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착취사회와 그에 의하여 산생된 온갖 낡고 썩은것을 쓸어버리고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나가는 거창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투쟁행정을 거쳐 승리의 앞길을 개척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침체와 안일, 자만자족을 모르며 모든 곤난을 이겨나가면서 온갖 반동적인것, 낡은것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해나가며 혁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 높은 투쟁정신을 발휘하여야만 공산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침체와 보수를 불사르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쉼없이 전진하게 하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며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려 진공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실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자연과 사회, 인간개조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힘있는 무기로 된다.

##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초석으로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당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적투쟁정신을 구현한 대중령도방법, 혁명적사업방법은 빈터에서 창조될수 없다. 그것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지도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되고 세련되며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정확히 분석판단한데 기초하여 옳은 투쟁방향과 방도를 제시할뿐아니라 능숙한 령도방법과 세련된 지도작풍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끊임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킨다.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거센 폭풍과 준엄한 시련속에서 몸소 창조하신 독창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며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계승하여오는 우리 당의 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력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은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혁명적군중의 지원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반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정면대결하여 판가리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는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또한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군사활동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인민정권수립 등 어렵고 복잡한 군사정치적과업들을 다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가장 심각하고 폭넓은 혁명투쟁이였다.

따라서 그것은 혁명의 전략전술로부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령도방법에 이르기까지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함께 대중령도방법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것은 항일혁명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항일혁명투쟁발전의 이 필연적요구와 력사적과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탁월한 령도예술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적사업방법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새로운 혁명적사업방법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그를 일반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고 군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그들과 함께 숨쉬고 행동하며 적과의 싸움에서 이신작칙하는 숭고한 공산주의적품성을 높이 발양하였다.

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창시와 빛나는 구현은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였다.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대중지도방법의 전형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영원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혁명의 고귀한 재부로, 공산주의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통은 조국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되고 당 및 국가, 경제 사업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을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내놓으시고 이에 깊은 심려를 돌려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당, 전국, 전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면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과 일군들이 하여야 할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시고 그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사업방법을 바로세우는것은 창건초기부터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해방후 창건된 첫날부터

정권을 령도하게 되였으며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지난날에 혁명투쟁과 군중공작의 경험을 거의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226페지)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사업을 직접 령도하게 되였다. 그런데 당안에는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간부들이 매우 적었으며 많은 일군들이 본것이란 일제통치배들의 관료주의적사업방법밖에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초기 이러한 당내 형편으로부터 당사업방법을 바로세우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일군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집권당인 경우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일군들속에서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진다고 하시면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언제나 당세도와 관료주의경향을 철저히 경계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사대주의자들이 퍼뜨린 낡은 사업방법을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당사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은 당내부사업도 바로하지 않았을뿐아니라 혁명적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퍼뜨려놓았다. 이것은 우리 당 사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그리하여 낡은 사업방법을 반대하는 투쟁, 반관료주의투쟁은 우리 당창건 첫시기부터 치렬하게 벌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반민주개혁의 수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복잡한 때에나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나 끊임없이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사대주의자들이 퍼뜨린 낡은 사업방법의 후과는 전후시기에 와서 더욱 엄중하게 나타났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55년 4월전원회의와 특히 우리 당 제3차대회를 계기로 당안에 퍼진 낡은 사업방법을 없애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더욱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탁월한 령도예술의 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을 창시하시고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비상한 정력으로 대중지도의 실천적모범을 몸소 보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수많은 공장과 농촌, 림산마을과 어촌 그 어디나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곳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걷고 또 걸으시며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으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고무하고 이끌어주시였으며 일군들을 직접 현지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현지지도과정에서는 한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통하여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의 결합 등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해결되였다.

참으로 이 경우에 천지개벽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걷고걸으신 수백수천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령도예술, 지도방법의 찬란한 력사가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중지도리론과 혁명적사업방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0년 2월 강서군과 청산리 당단체들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하시고 새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를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당은 대중지도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창건후 30년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이 숭고한 력사적위업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심장인 당의 령도적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당중앙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이 내놓은 이 구호가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11～1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전면에 제기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당사업전반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할 때 당사업에서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과 같은 낡은 재래식사업방법과 형식주의를을 철저히 마스고 우리 당을 더욱 전투적이고 생기발랄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현시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실속있게 관철하기 위한것이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는 여기에 온갖 형식주의들과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마스고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방침, 이것은 당사업, 당활동을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며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의 창

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비상히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참으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의 30년,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해온 빛나는 력사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자랑찬 로정이다.

## 3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대중령도방법, 당사업방법의 참된 본보기로 되고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인민의 혁명실천에서 빛나게 확증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그를 원형으로 하는 청산리방법이 대중령도분야에 빛나게 구현된 결과 이룩된 위대한 결실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고 당사업, 당활동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당사업에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사업방법과 같은 낡은 사업방법이 더는 배기낼수 없게 되고 당사업이 참말로 생신하고 패기있고 전투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사업체계도 정연하게 서게 되였다.

아래에 내리가 도와주며 가르쳐주는 것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근본요구이다.

새로운 당사업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파악하고 도와주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도, 시, 군 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군들이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올라와서 재무장, 재작전하고 내려가는것이 철저히 제도화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줄수 있게 되였다. 특히 집행단위인 시, 군 당위원회들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직접 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하부지도사업을 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사업발전에서 이룩된 하나의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의 확립, 이것은 우리 당이 군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된 혁명적인 당,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사업에서는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이 극복되고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으로부터 사업태도와 사업기풍,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은 당중앙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아래로 쭉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중앙과 전체 당원들이 굳게 뭉쳐있으며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긴밀히 단결되여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입니다.》(우와 같은 책, 12페지)

새로운 정연한 사업체계가 확립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이 개선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거침없이 곧바로 대중속에 들어가고 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인차 당에 반영되고있으며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새로운 당사업체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며 당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다.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진공적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 맞는 일본새이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일을 소소하게 벌리며 힘있게 내밀지 못하는 수공업적인 방법과 늘크데한 로쇠현상이 극복되고 무슨 일이든지 대담하게 사고하고 기발하게 착상하며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혁명적으로 해나가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그리하여 일군들속에서는 혁명하는 시대의 일군답게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며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불꽃튀는 돌격전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사람과 사회의 혁명적개조과정이 비상히 촉진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를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뜨겁게 끓어번지고있으며 사람마다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끝까지 관철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 전투장마다에서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안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드높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있으며 시간마다 날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당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인 전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혁, 오늘의 이 벅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그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우리 당을 강화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

게 떠밀고나가는 가장 위력한 무기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 기여한 불멸의 공헌으로 되며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그를 빛나게 구현한 청산리방법은 대중령도방법에 관한 로동계급의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혁명적군중로선을 대중령도에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는 확고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지도에서 나타나는 온갖 편향을 정확히 갈라낼수 있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적대중령도방법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 리론과 그를 빛나게 구현한 실천적경험, 이것은 우리 인민과 모든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참으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령도예술의 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 혁명하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의지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의 모든 당,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혁명적인 패기와 정력을 가지고 언제나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실천적모범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거울삼아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일대 선풍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업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틀과 제래식사업방법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당사업, 당활동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는 조건에서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업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세울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 당의 방침을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자신의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혁명적인 전위부대이다

김 영 남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제적범위에서 반제자주를 위한 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세기적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장엄한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투쟁과 전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지난 30년동안 어떤 풍파도 뚫고 계속 전진하는 새형의 혁명적당, 세련되고 단련된 위력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시대의 기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진두에 서서 혁명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갔으며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이 오늘 이처럼 가장 위대하고 전투적이고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현시대 국제혁명운동의 혁명적전위부대의 역할을 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몸소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때문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세우시고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창건 30돐을 맞이하게 되는것을 더없는 행복과 자랑으로 여기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업적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 1

우리 시대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주체시대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진 당만이 혁명의 매 단계마다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울수 있고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객관적법칙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계급적리익과 민족적리익에 맞게 해결하고 우리 혁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할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데서 기초로 삼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관점과 태도를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서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원칙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사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온갖 형태의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데 대한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근본요구를 천명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혁명투쟁의 규모와 내용, 폭과 심도에 있어서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세계혁명의 새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래동안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한 결과에 지금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여지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5페지)

우리 시대는 무엇보다도 지난날 력사밖에서 력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여오던 수억만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인류력사를 창조하고 전진시키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등장한 혁명적전환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폭넓게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있는 혁명투쟁은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으로는 풀수 없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력사의 일정에 새롭게 제기한다.

다른 한편 우리 시대에는 많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할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민족부대와 주체적혁명력량이 꾸려졌다.

이 모든것은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립장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도, 근로자들의 생활상권리와 사회계급적해방을 달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도,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도 옳게 풀수 없다. 참말로 오늘에 와서 창조성과 자주성은 매개 나라 혁명발전의 사활적인 문제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승패를 좌우하

는 관건적인 문제로 나섰다.

이런 형편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전략전술의 작성으로부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전략전술적기초로 되는 기성리론의 세계관적 및 방법론적 기초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그의 전반적리론체계를 혁신해야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바로 이런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완전히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은 철저한 혁명적세계관과 방법론적기초로 되는 새롭고 위력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세계를 대하는 전혀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세우고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 혁명과 건설의 원리를 새롭게 밝혀주고있는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철저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의 주체적력량을 동원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집대성화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은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은 혁명발전의 그 어떤 특정한 단계나 혁명과 건설의 몇개 분야가 아니라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그리고 당 및 국가 건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업,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한 백과전서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사업방법 등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푸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나왔고 앞선 시대에 제기될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그 기초원리와 구성체계, 내용이 완전히 독창적인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수천년동안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억누르고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로부터의 사상해방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거창하고 심각한 주체시대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열쇠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제3세계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정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주는 세계적인 사조로 공인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오늘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많**

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81~282페지)

오늘 세계의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투쟁의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인민의 투쟁의 지도적지침이며 인류해방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주체사상은 불멸의 빛나는 사상이며 착취와 압박, 부정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지도적사상이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르쳐주는 사상이며 그것으로 하여 보편적의의를 가진다.》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지구상 5대륙의 많은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서 자기들의 앞길과 투쟁의 무기를 찾고 그것을 열렬히 따르고 신봉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가고있다.

오늘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고있으며 세계의 혁명적개조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 2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임무인 조선혁명의 승리적수행을 통하여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있다.

개별적인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부분이다. 매개 나라 당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며 그것을 통하여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고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특히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키움으로써 전반적국제혁명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의 민족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세계공산주의운동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28페지)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잘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혁명을 잘해야 국제주의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것으로 된다.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국제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그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 수십년간의 세계사발전행정에서 아세아 특히 조선은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 피압박민족과 제국주의사이의 모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모든 모순들이 집결된 매듭으로 되였다. 조선은 치렬한 혁명과 반혁명이 대치하여있는 첨예한 성격을 띠는 위대한 혁명을 배태한 혁명적폭풍우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였다.

조선혁명은 선행리론에 의하여 밝혀지지 못하고 기성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아세아의 뒤떨어진 식민지나라의 혁명이였다. 조선혁명은 그 어느 나라 혁명보다도 사대주의, 교조주의, 그것과 련결된 온갖 기회주의와의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할 혁명이다. 이 혁명은 오늘 식민지예속국가들의 해방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으며 세계혁명의 하나의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시대가 내세운 력사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나선 가장 영광스럽고도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과업들을 천재적인 예지로 밝혀주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속에서 훌륭히 풀어나가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서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모든 분야, 모든 문제에 걸쳐 옳은 투쟁목표와 구체적인 수행방도를 제기하였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능숙하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간고한 시련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시대 민족해방혁명과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 끝없이 고무되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끎으로써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선언한 위대한 혁명전쟁이였던 항일무장투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결히 싸운다면 어떤 적도 타승할수 있으며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강도 일제를 패망시킴으로써 승리한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하고 린접국가의 혁명을 피로써 도와주는 참다운 국제주의적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인류를 파쑈노예화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해방전쟁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고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새세계대전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사회주의동방초소와 인류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단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독창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새로운 길,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곧바른 길을 펼쳐주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 따라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계층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는 정권형태인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에 의거하여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지난날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나라들이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주주의적 새 사회를 건설하고 련이어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는 첫 경험을 창조하였다.

오늘 지구상에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 일떠서고있을뿐아니라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였거나 아직도 예속상태에 있는 나라의 수억만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서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강화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로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통일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빈전시키고 그것을 강력한 무기로 하여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실현하며 중소상공업자들과 부농들의 자본주의적경리를 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동방에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위대한 길을 개척하시였다. 이것은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나라들이 공업화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빨리 발전시키는 지름길, 복잡한 주민구성을 가지고있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쟁취할수 있는 모든 군중을 쟁취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순조롭게 수행하는 정확한 길을 명시한것으로 된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한 실천적과업으로 나서게 된 새로운 시대적환경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리론을 세우고 그것을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다운 본보기를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인류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완전히 독창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위대한 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원대한 전략적목표를 향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밑에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았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범을 창조함으로써 경제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지난날의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은 휘황한 전망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편향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세계사적승리는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시위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비방중상을 산산이 짓부셔버렸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견인력을 비상히 강화하

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을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의 길로 이끎으로써 천대받고 억압받던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 평등을 위하여 더욱더 용감히 떨쳐나설수 있게 하였다. 특히 오랜 기간의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적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민족들이 자체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고 계급적차이와 함께 민족적불평등을 없애며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조선혁명은 그 독창성과 충실성으로 하여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귀중한 령감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직 주체사상에 의해서 지도되는 조선만이 우리의 본보기로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성과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세계의 이목은 더욱더 우리 나라에 집중되고있으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벗들은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조선혁명을 잘하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써 국제혁명전선의 전초기지를 튼튼히 꾸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우리 나라는 믿음직한 사회주의동방초소로, 세계혁명의 믿음직한 기지의 하나로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수행을 통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국제혁명력량의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 3

우리 당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위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혁명운동이 자주의 기치밑에 건전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열어놓았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묶어세우고 통일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패망시키고 인류해방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미투쟁을 우리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 규정하시고 미제에 공격의 화산을 집중하는것을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으로 천명하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제3세계의 신흥세력,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등 모든 반제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고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집단적인 타격을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제프로레타리아혁명의 일환이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군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

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와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참다운 리익을 옹호하여 지극 투쟁하였다.

로동계급의 권위부대들이 혁명투쟁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우리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례없이 강화발전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형편과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로동계급이 장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높아진 새로운 력사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족해방운동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현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룬다는 독창적인 평가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며 세계평화의 강유력한 요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30페지)

우리 시대의 민족해방운동은 국제프로레타리아운동의 단순한 후비군이 아니며 또한 소부르죠아운동이나 농민운동도 아니다. 이 운동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민족해방운동에 형식적으로 대한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는 실제적인 결과를 보고 그 지위와 역할을 평가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의 혁명적의의를 과소평가하고 독자적정치력량으로서의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무시하는 교조주의적, 기회주의적 태도를 반대하였으며 세계혁명의 력량편성을 위한 과학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우리 시대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이 운동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제국주의에 어떻게 대하며 어떤 투쟁의 길을 택하는가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지 않았고 제국주의는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하지 않을것이며 서방세계가 3대륙 인민들의 독립과 진보를 도와줄수 없고 자유롭고 독립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평화적으로 공존할수 없다는 견해를 천명하시고 혁명투쟁이 민족해방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가 폭력으로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라고 인정하고 제국주의와의 협조를 통하여 식민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어떠한 립장도 철저히 반대하였다.

우리 시대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승리에로 이끄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 운동의 전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혁명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가진 피압박인민들의 내부력량이며 따라서 모든 피압박인민들이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선차적임무로 나선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간고한 투쟁을 벌리는것을 두려워하면서 외부의 지원에 의거하여 독립을 달성해보려는 사대주의적 립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

함으로써 피압박민족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장기적인 혁명투쟁을 지탱해나가며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하였다.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세계혁명력량과의 전투적단결 특히 사회주의력량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호상 지지성원하는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국가의 본질에서 나오는 국제주의적의무라고 가르치시고 우리 당으로 하여금 언제나 숭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국제주의적지지성원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민족지해방을 이룩하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진지를 약화시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세계혁명력량의 강력한 지지성원밑에 피압박민족들이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반제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건설될것이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가 빨리 촉진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사회주의력량의 승리와 제국주의반동세력의 패망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이며 인류해방의 력사적행정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요인인 제3세계신흥세력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결과에 제3세계가 출현하였다. 제3세계는 저주로운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붕괴되고있는 터전우에 일떠선 자주적인 민족들의 새로운 세계이며 자주성의 시대를 떠메고나가는 생기발랄한 신흥세력이다.

세계의 압도적다수를 이루는 100여개의 나라를 망라하고있는 제3세계가 계속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가 못나가는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따라 인류의 전도가 크게 좌우된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이 지역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과 반혁명이 대립되여있는 가장 치렬한 투쟁마당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3세계인민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정치적독립을 달성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완수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해방된 인민들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호상원조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과 경제적침투를 분쇄하며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

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면 서방세계와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제3세계의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현시기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약탈과 공갈 진압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근본문제에서 제3세계인민들과 공통된 립장에 서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반제공동위업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3세계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지역간 협조를 발전시키고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인구와 령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이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것은 전반적국제정세발전에 결정적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입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70페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제3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제도의 차이와 정치적리념의 차이는 힘을 합쳐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싸우며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보존하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남아있는 종족적, 종교적 차이 등을 리용하여 이 지역 인민들을 호상 리간시키고 반목질시케 하려 하고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간교한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제3세계인민들의 단합된 국제적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국제관계분야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제3세계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제3세계인민들의 반제공동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라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있는 노력을 다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국가들의 활동은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국제문제들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습니다.》(《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0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이 확대강화될 때 국제적인 반제혁명력량은 더욱 불패의것으로 되고 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은 더욱 전진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들은 우리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인 대

내외정책의 원칙들과 일치한다. 우리 당은 대내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고있을뿐아니라 국제관계분야에서 령토와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호상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쁠럭불가담원칙들이 준수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 우리 당은 특히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의 령토에 있는 외국군사기지를 완전히 철폐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고 인정하며 군사쁠럭을 철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얼마전에 리마에서 있은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에서 우리 나라를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가입시킬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것은 조선인민과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의 운명이 밀접히 련결되여있다는것을 힘있게 증시하여주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믿음직한 동맹자를 가지게 되는것으로서 우리 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유리한 뿐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로 된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쁠럭불가담국가들과 한 대렬에서 반제반식민주의공동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국제적인 반제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시대의 기본혁명력량인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혁명발전에서 그 전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사회주의나라전체를 옹호하고 공동으로 보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대개 나라에서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대렬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전체 사회주의나라들을 공동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국제혁명운동의 전도와 관계되는 원칙적문제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력량이 난관에 부닥치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사회주의나라전체를 옹호하자는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원칙적으로 투쟁하여왔으며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사회주의력량을 옹호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대렬의 분렬을 가져오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사분오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모든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과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파괴암해 책동을 물리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회주의가 발생한 초기부터 그것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주되는 위험으로 규정하시고 그와의 비타협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형제

당, 형제나라들과의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하고 교양하며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기회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8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통일단결의 원칙들은 기회주의적요소에 대하여서는 비판하여 고치도록 하며 혁명적측면에 대하여서는 평가하고 지지하는 적극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은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에 비록 의견상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투쟁을 벌리며 그 과정에서 점차 공통점을 찾고 나아가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통일단결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방침은 반기회주의투쟁의 목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수많은 형제당, 형제나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매개 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개 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강화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오늘 세계에는 큰 당도 있고 작은 당도 있으며 오랜 력사를 가진 당도 있고 비교적 청소한 당도 있다. 또한 주권을 잡은 사회주의나라 당도 있고 주권을 잡지 못한 자본주의나라 당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다 국제혁명대오의 동등하고 자주적인 민족부대들이다.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형제당들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것은 모든 당들에 있어서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

우리 당은 자주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반제투쟁과 반기회주의투쟁을 벌렸으며 형제당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왔다.

자주성을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제도의 공통성과 같은 리념과 리상으로 하여 계급적형제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매개 나라 당들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위하여 서로 동지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여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자기 나라의 민족적리익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련대성을 거부하는 민족배타주의나 문을 닫아매고 남의 좋은것, 다른 나라의 선진경험을 무시하는 쇄국주의는 다같이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에 해를 주는 반혁명적

사상조류이다.

우리 당은 자주성에 기초한 진정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회주의나라 당 및 정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지지와 협조를 강화하여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굳은 계급적련대성과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내고있다.

우리는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주장하며 분렬을 위하여 부채질하는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하여 부채질한다.

참으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시대의 모든 국제혁명력량들, 혁명조류들의 력사적지위와 세계혁명발전에서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제3세계의 신흥세력,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리론실천적문제의 해결에서 선봉적역할을 하고있으며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 ⁂

오늘 조선로동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대한 거대한 리론실천적공헌으로 하여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으며 우리 당의 국제적지위는 전례없이 공고화되였다.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민족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을 우리 시대 혁명위업의 앞장에 서서 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전위부대로, 가장 힘있는 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 불패의 전투적선봉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오늘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된 크나큰 혁명적자부심과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며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억만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의 기치,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림 춘 추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우리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당,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치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혁명적당, 조국과 인민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온린 조선로동당과 같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당을 알지 못한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당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중첩되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뚫고 위대한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면서 승리와 영광의 30년을 걸어왔으며 유구한 민족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대에 살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강력한 공업의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사회주의 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 있다.

기나긴 세월 망국의 치욕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은 오늘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지난날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땅에 오늘은 사회주의지상락원의 대화폭이 펼쳐지고있으며 광복된 조국땅에 압박없고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마음껏 살아보려던 우리 인민의 력사적숙망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였다.

실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며 무궁한 번영과 행복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숭고한 의무는 없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는것, 이것은 백두의 령봉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

지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영예로운 투쟁이다.

우리 당을 언제나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무궁한 륭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고 이땅에 보다 휘황찬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

# 1

우리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다.

조선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은 우리 당을 언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수령의 당으로 계속 공고발전되지 못할 때에는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은 중단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엄연한 현실이 확증해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참으로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빛내여나가는것은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우리 당을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그것은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기때문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 창건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수령은 그 실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며 당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간다. 로동계급의 당은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력사적뿌리도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마련되였고 우리 당의 창건도 수령님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며 우리 당이 다름아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

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기때문이다.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수령님의 당의 영예를 끝까지 고수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되게 하는것은 이처럼 우리 당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 당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세대의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는 장기적이고 보람찬 력사적위업이다.

공산주의위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야만 종국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개시하였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류사회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에로 가는 이 성스러운 행군길을 보다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추진력인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을 철저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우리 당을 통하여 주체형의 맑은 피가 온 사회에 계속 힘차게 돌게 할수 있으며 사회와 사람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통일된 삼천리금수강산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찬란한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전체 조선인민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꽃피워나가는것은 이와같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를 따라 나가는 영광스러운 당, 김일성동지의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조선혁명의 광명한 미래와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은 반세기에 이르는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와 력사적경험의 총화이며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 깊이 뿌리박힌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탁월한 수령과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 탓으로 망국노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향방을 찾지 못하고 어둠속에서 헤매였으며 혁명투쟁에서 수많은 파란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인민들은 간악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여러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줄기차게 싸워왔으나 그때마다 원쑤들의 총칼에 의하여 짓눌리고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을 남길뿐이였으며 온 강토는 피바다에 잠겨 몸부림치

고 혁명은 수난의 소용돌이속에 모대기였다.

오랜기간 엄혹한 시련을 겪어오던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면서부터 비로소 승리하며 전진하는 영광의 길, 주체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고 승승장구하는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홰불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수령님께서 세우신 가장 혁명적인 주체형의 당이 우리 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력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면서 보람찬 투쟁과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의 위업을 이룩하고 매우 짧은 력사적기간에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온 이 보람찬 행정은 현대력사가 아직 모르는 생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온 영웅적인 투쟁로정이였다.

이 행정에는 형언할수 없이 어려운 난관과 애로가 앞을 가로막고 겹쌓였으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당이 있음으로 하여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우여곡절도,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오직 투쟁과 전진과 승리의 한길로만 억세게 달려왔다.

우리 혁명이 옳은 궤도에 들어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전진할 때 세인을 놀래우는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엄연한 력사적현실로써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이러한 혁명실천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기치따라 나가야 남보다 먼저 공산주의의 찬란한 새봄을 안아올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깊이 간직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키워오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찬란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우리 당을 변함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수령님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이 천만년을 두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휘황찬란한 앞길이 있다.

## 2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였다.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지고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한결같이 숨쉬고있으며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철저히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됨으로써 우리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전체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충성의 대오로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힘차게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자랑찬 모습이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끝없는 영예와 자랑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으며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공고발전되여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는 무엇보다도 전당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고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자체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당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이 통일단결되여있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변함없이 수령의 당으로 될수 있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언제나 수령의 당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있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이 통일단결되여야 한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딴사상이 있거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벌써 수령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도 유지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순결한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차넘치고있다.

모든 당원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있으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오직 주체사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있으며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의 심장속 깊이 간직된 가장 숭고한 감정으로 되고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영원히 드놀지 않는 확고한 의지로, 철석같은 신조로 되고있다.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굳게 련결되고 주체형의 혈맥으로 튼튼히 이어짐으로써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드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쳐진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는 확고한 담보

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한다.

당의 혁명적지도가 확고히 실현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언제나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며 그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이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의 혁명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의사는 곧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의 지도는 곧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당의 혁명적지도를 견지히 실현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철두철미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는 문제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도 그리고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빛내이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있으며 당안에는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섰다.

모든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며 당정책에 어긋나는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묵과함이 없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고있다. 그리하여 당중앙에서 생각하는것이 거침없이 아래에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과 조국의 보다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수령님과 당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을 대를 이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낼수 있게 하며 우리 당의 양양한 전도를 더욱 환히 내다볼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이렇듯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된것은 우리 당력사의 시원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조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0년간에 걸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기관차이며 기수인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기치따라 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일찍부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ㅌ. ㄷ》를 무으시고 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한 15성상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피어린 나날에 몸소 이룩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그 첫날부터 당을 유일사상화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오시였다.

우리 당의 창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로정은 우리 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걸어온 이 행정에서 우리 당은 사나운 풍파와 어려운 시련들을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2페지)

우리 당은 안팎의 간악한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첨예하고도 심각한 투쟁과 새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차고 거창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억세여진 백전백승의 전투적인 당으로, 세련되고 로숙한 혁명적인 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끊임없이 투쟁하며 전진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공간에도, 기회주의의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에 서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이 오늘 이처럼 위대한 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확고히 전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 투쟁을 계속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여오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오늘의 우리 당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닌 권위와 영예는 곧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이며 영예이다.

실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오늘의 필승불패의 강철의 당, 우리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과 행복한 삶을 마련하여준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이 있는것이다.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은 오늘 수령님의 높은 뜻을 가장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우리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공고발전시켜나아갈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당이 제시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 위대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대중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으며 우리 당건설과 그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서고 강한 혁명적규률이 섰으며 당대렬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당안에 정연한 당사업체계가 섰으며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이룩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전당의 주체사상화과정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실로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이 제시되고 그것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였고 그 영예와 자랑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뚫고 혁명대오와 우리 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예이며 행복이다.

*　　　　　*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서의 영예와 자랑을 떨치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참말로 완전무결한 수령님의 당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이 성스러운 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혁명적지도를 실현해나갈 때 우리 당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될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이룩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혁명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기본방침이며 당사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선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10페지)

우리들은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쳐 어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당안에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순결하게 차넘치게 하고 그 어떤 잡사상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또한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당의 혁명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의도와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혁명적지도와 어긋나는 그 어떤 사소한 현상과 요소들에 대하여서도 용화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이 내놓은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전당에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또한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어 우리 당을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신하고 힘기왕성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강력한 정치적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

근 로 자 제10호(루계 40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중앙공업인쇄공장

인 쇄•1975년 10월 1일 발행•1975년 10월 5일

ㄱ—55329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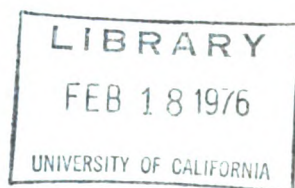
평 양 근로자사 1975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403)

## 차 례

#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 김 일 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1975년 10월 9일)

동지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이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고 당의 령도밑에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민의 세련된 향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력사적인 명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지난 30년동안 간고하고도 보람찬 혁명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극악한 파쑈적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해외에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번영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수많은 혁명투사들과 애국자들이 희생되였습니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공산주의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에게 가장 큰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념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중에 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각계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절을 더욱 즐겁게 하여주며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여줍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우리 당 전체 당원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가한 외국의 동지들과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지난 30년동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안팎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과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혁명적원칙성과 견결한 반제적립장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과 세계혁명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하여 국제로동계급의 믿음직한 전위부대의 하나로 되였습니다.

오늘 당창건 30돐을 맞는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찬 혁명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와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 1.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였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령도하여왔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30년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당이 창건된지는 30년이지만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반세기가 넘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왔습니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1920년대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주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의연히 대중을 떠나서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종파행위만 일삼았습니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 자라난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립장에서 민족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참다운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출발점으로 된것은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1930년대초에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이 투쟁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투쟁로선과 방법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을것이란 오직 근로인민대중밖에 없었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과정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

련을 겪었습니다. 투쟁과정에는 우여곡절도 있었으며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으며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였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과정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태도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수립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수많은 공산주의적핵심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하고 귀중한 투쟁경험이 이룩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닦아졌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 당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우리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사상리론적총화인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밝혀졌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 제시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줍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합니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입니다. 근로대중은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

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동지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끎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을 해방한 다음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리는 완강하고 정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종파주의, 지방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창건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이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짧은 기간에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였으며 로동계급은 아직 청소하였고 인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이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기 위하여서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뿐아니라 애국적열성이 높고 혁명성이 강한 선진적근로자들을 널리 받아들여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더우기 근로자들의 정당인 공산당과 신민당이 따로 존재하여 근로대중을 분렬시킬수 있는 위험성이 커가는 조건에서 혁명력량의 분렬을 막고 전체 인민을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통일적으로 대표하는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중적당을 건설할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된 기초우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전투적선봉대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로동당의 창립은 우리 당 건설과 조선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로동당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게 되였으며 당의 두리에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습니다. 로동당의 창립은 근로대중의 분렬을 막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동맹을 튼튼히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을 창건한 다음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였습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에 걸쳐 진행한 피어린 투쟁의 가장 빛나는 총화입니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것은 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당을 공고한 토대우에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거기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일정한 근로단체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 당과 조직적으로 잇닿아있습니다.

우리 당은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웠으며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당은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갔습니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당은 사람들이 뭉친 선봉적정치조직이며 당의 임무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의 사업대상은 사람이며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는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이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먼저 당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해설선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의 의도와 요구를 깊이 깨닫고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

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이 능히 공산주의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당창건 30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왔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주권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자주적인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당은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주주의적개혁을 수행하고 일제의 식민지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해방후 매우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민들은 제국주의적, 봉건적 질곡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북반부에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생활력에 대한 일대 검열이였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민주개혁의 성과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주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후시기에 와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형편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협동화운동을 벌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으며 계급적력량관계도 사회주의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전후시기를 사회주의혁명의 가장 적당한 시기로 인정하고 사회주의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대담하게 농업협동화운동을 벌렸으며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집단경리에로 이끌었습니다. 생활은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한 우리 당의 정책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전후 매우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앴으며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고 전반적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당의 정확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사회주의문화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당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과학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문화건설에서 특히 민족간부문제를 푸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당은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 한편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으로 늘일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과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민족간부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풀렸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거하여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로동계급의 국가는 제국주의침략의 위험을 면할수 없습니다. 자위적인 국방력이 있어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고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보위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해방후 인차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된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정규적혁명무력을 창건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였으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당은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고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었으며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철저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동지들! 최근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완수하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6개년계획이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고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충성의 속도로 내달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 2.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동지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 공산주의를 위하여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요인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없습니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합니다.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하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요구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은 사상혁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로동은 사회의 부를 창조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이며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단련시키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기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기술혁명의 본질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에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입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기술혁명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업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가장 많은 채취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굴뚫기, 쉬돌캐기, 탄캐기 작업을 비롯한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산업텔레비존과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시하여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밀고나가며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관수송을 적극 받아들여 운수부문의 기술장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식료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현대적부엌세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상혁명과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부문은 교육사업입니다. 사회주의교육은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첫공정이며 근로자들

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교육사업은 문화건설의 다른 부문을 발전시키는 기초로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모두다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성인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고중졸업정도의 지식수준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에서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문화혁명의 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한 기초우에서 그들이 모두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게 될때 우리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은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문화건설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고 로동계급의 리념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입니다.

우리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대렬을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꾸리고 그들을 정

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만 당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고 당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당이 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당대렬의 질적수준은 주로 간부대렬의 질적상태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야 당의 핵심진지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전당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대렬을 잘 꾸리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하며 모든 간부들이 당적, 로동계급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일을 잘해나가도록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은 오직 당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유지되고 빛날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조선로동당의 영예로운 전사로 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조직생활을 정규화하며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습은 당조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당원들이 학습하지 않고서는 현실발전을 따라갈수 없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갈수 없습니다. 당원들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고 열심히 배워야 하며 특히 간부들이 더 많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합니다.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완성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사업에서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야 합니다. 행정식사업방법은 당사업방법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 당안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당사업은 철저히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업에서 행정대행을 없애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해설선전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세도,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없애고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현실속에 들어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며 아래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

끌어야 하겠습니다.

#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동지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 임무이며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입니다. 조선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것을 참을수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짓밟힌 민족적자주권을 도로 찾고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 기본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 정세발전의 요구와 우리 민족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그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도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전례없이 강화된 반동통치배들의 야수적난압에도 굴하지 않고 파쑈적인 《유신헌법》을 철폐하며 매국적인 반동《정권》이 물러날것을 요구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해방후 오늘까지 끊임없이 벌려온 용감한 투쟁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근년간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였으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과 장애물이 가로놓여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들을 반대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입니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

여야 하며 절대로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인민은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수천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한가지 말과 글자를 가지고있으며 같은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소수민족도 없습니다. 력사적으로 통일된 국가를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공산주의적리념으로 보나 민족주의적리념으로 보나 허용될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야 하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외세는 미제국주의입니다. 미제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30년동안이나 우리의 부모형제처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게 한 장본인이며 오늘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는 원흉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기간 유엔의 기발을 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민족분렬 책동,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모두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습니다. 우리의 이 정당한 투쟁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제 더는 유엔의 기발을 가지고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할수 없게 되자 요즘 새로운 술책을 꾸미고있습니다. 미제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세상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국제여론을 속여넘기고 실상은 《유엔군》의 모자를 다른 모자로 바꾸어쓰고 남조선강점을 계속하려는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이라는것은 곧 미군이며 따라서 《유엔군사령부》해체문제와 미군철거문제는 절대로 떼여놓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고 《유엔군사령부》만 해체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실제적으로 큰 의의가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리석은 기만술책을 걷어치워야 하며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 있는 미국군대를 모두 철거시켜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선정전협정은 싸움을 정지할데 대한 협정이며 조선에서의 완전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공고한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침략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륙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수많

이 끌어들여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하고 남조선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매일같이 감행하고있습니다. 특히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다음 남조선을 미국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군사행동을 하며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하면서도 도리여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남조선에 와있는것은 《남침위협》을 막기 위해서이며 오늘도 《남침위협》이 있기때문에 미군을 철거할수 없다고 떠벌이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어대는 《남침위협》이란 있어본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이미 여러번 천명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는것은 남북공동성명에도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절대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의 담보를 마련할것을 주장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철거한 다음에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북과 남의 군대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아래로 줄일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이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며 외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사장비를 들여오는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입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는것은 결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결하지 못할 조건으로 될수 없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고 합작할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이

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고있고 사상과 정치적리념은 비록 다르지만 조국통일문제에서는 모순이 있을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고있는데 하물며 한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왜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을 합칠수 없겠습니까.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뭇고 반일투쟁에서 함께 싸운것처럼 오늘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전국적인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차이점은 뒤로 밀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을 반대하지 않으며 남조선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어느때든지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들과 단결하고 합작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진심으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란다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반공법》을 없애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부르짖으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있는데 이것은 민족적대단결을 방해하고 민족의 분렬을 고착시켜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 민족반역행위입니다. 대결과 경쟁은 곧 분렬의 길이며 단결과 합작은 곧 통일의 길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대결하고 경쟁하고 공존할것이 아니라 단결하고 합작하고 통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련방제는 북과 남의 현정치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조선《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민족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대외적으로는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나가자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대외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고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빨리 앞당길수 있을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주성과 애국심이 높고 단결력과 투쟁력이 강하며 자기 민족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는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버리고야말것이며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내쫓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 4.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자

동지들!

우리 당이 걸어온 지난 30년동안 국제무대에서는 커다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쇠퇴몰락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인 범위로 발전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서 승리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나라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의 거세찬 폭풍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었으며 세기적으로 억압당하고 멸시를 받아오던 수억만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력사무대에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인 제3세계가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제3세계는 사회주의력량의 믿음직한 동맹군으로 되고있으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손잡고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싸우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과 제국주의자들사이에는 의연히 심각한 모순이 있으며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오래동안 제3세계나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침략하고 략탈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

오늘 제3세계는 가장 치렬한 반제투쟁전선으로 되고있습니다. 제3세계에는 혁명하는 나라들이 집결되여있으며 제3세계나라들의 반제투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혁명투쟁도 더욱 강성강화되였습니다.

국제혁명력량이 빨리 자라난 반면에 제국주의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였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 급속히 쇠퇴하였습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국주의는 세계를 지배해보려고 악랄하게 날뛰였습니다. 미제는 《힘의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과 파괴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말라를 미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은 가는곳마다에서 파탄되였으며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습니다. 제국주의나라들의 내부모순이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갈등이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고립배격당하고있습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남에게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자본주의나라인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왔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을 중요한 혁명로선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강화하며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지하며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 당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완전한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대외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조선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관계는 매우 넓어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친우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여온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준 형제당들과 형제적인 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일관한 원칙입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하는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며 그들과 함께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것을 면할수 없으며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낳으며 경제적불평등은 정치적불평등을 가져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지지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최근에 제3세계인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서로 단결하고 협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오

늘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은 그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튼튼한 기초로 됩니다. 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는 제3세계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손잡고나가는데서 결코 장애로 되지 않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튼튼히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자들과도 능히 싸워 승리할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모든 문제를 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된 힘은 세계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제3세계인민들의 단합된 노력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결되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완전히 끝장내야 하며 강대국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불합리한 국제기구들을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기구로 전변시켜야 할것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교류할수 있는 경험과 기술도 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한다면 큰일을 할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나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힘을 합쳐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코대를 꺾어놓아야 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없고 략탈과 착취가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지난 30년동안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였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 만세!

#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5년 10월 10일)

동지들!

오늘 우리는 커다란 혁명적자부심과 승리자의 긍지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온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고 우리 당의 명절을 경축하고있는 통일혁명당 대표동지들과 남조선혁명가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이 명절을 경축하고있는 재일본조선인 여러 대표단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해외에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이 경축연회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중에 있는 형제당대표단들과 정부대표단들, 사회단체대표단들, 각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외국의 많은 동지들과 벗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와 자리를 같이한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지난날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혁명적당이 없었던탓으로 혁명투쟁에서 수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오래동안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조선의 참다운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감하고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일떠섰습니다. 우리는 20여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혁명을 떠메고 나갈 혁명의 골간들을 키웠으며 우리 당 창건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과정에는 형언할수 없는 난관도 많았고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피를 흘렸으며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나는 우리 당의 창건을 위하여 온갖 곤난과 시련을 다 겪으면서 피흘려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동지들, 그처럼 바라던 광복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오늘의 이 경사스러운날에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는 혁명동지들을 가슴뜨겁게 회고하며 우리의 곁을 떠난 혁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혁명렬사들이 남긴 고귀한 위훈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우리 나라 력사와 조선혁명발전에서는 위대한 변혁과 창조로 빛나는 새로운 시대,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당을 창건한것이 어제 같은데 그때로부터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한 민족의 력사나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30년이란 그리 긴 시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당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으며 사회도 자연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날 빛을 잃었던 조선이 우리 로동당시대에 와서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30년전에 처음 당을 창건할 때에는 당원이 몇천명밖에 안되였는데 오늘 우리 당은 200만의 당원을 가진 큰 당으로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대렬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싸워온 로혁명가들과 우리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기발을 들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오랜 당원들 그리고 새 조국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새로 자라난 젊은 당원들로 꾸려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깊은 력사적뿌리에서 태여나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성장한 로숙한 당이며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끝없는 잠재력을 가진 전도양양한 당이라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리 당은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불패의 대오로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무

장투쟁도 하고 경제건설투쟁도 하였으며 국내의 계급적원쑤들과도 싸우고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은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 지방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사상조류와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온갖 형태의 불건전한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한것은 당창건 30돐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여주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과 커다란 기여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심을 담아 조선로동당을 《어머니 당》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 당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나아갈 확고한 결의에 불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형편은 대단히 좋으며 전도도 락관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당이 지난 30년동안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리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당창건 30돐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고있습니다.

동지들!

조선혁명의 앞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합니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강토우에 5천만겨레가 다같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락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어렵고 간고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야 하며 미제의 사촉을 받는 국내외의 온갖 반혁명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는 곤난도 겪어야 하며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며 대를 이어가며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장래와 우리 인민의 운명이 달려있으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로혁명가들과 오랜 당원들, 젊은 일군들이 다같이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모두다 힘을 합

써 우리 당을 더욱 굳건히 건설하여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인민을 떠난 당, 자기 주위에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강력한 당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근로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함으로써 인민들속의 련계를 강화하며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야 조국의 통일과 전국적독립을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 혁명을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창건 30돐을 맞는 오늘까지도 남조선인민들은 여전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극악한 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굴함없이 싸우고있으며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구국투쟁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학정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남북조선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분렬의 장벽은 무너지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은 다시 이어질것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인민들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늘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제3세계나라들과 단결하며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당이 걸어온 30년은 투쟁과 전진의 30년이며 승리와 영광의 30년입니다. 지난 30년동안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기질것입니다.

30년의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우리 당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합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것입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경축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당의 끝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의 전체 당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당의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온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통일혁명당 대표동지들과 남조선혁명가들의 건강을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과 전체 60만 재일동포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부위원장인 에밀 보부동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부총리인 길레르모 가르시아 프리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산당대표단, 또고인민련합 정치국 위원이며 또고공화국 민족교육부장인 야야 말루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또고인민련합대표단, 스리랑카공화국 총리조정실 비서이며 외교문제위원회 성원인 수네트라 루파싱헤녀사와 그 일행, 모잠비끄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인 조아낌 문헤베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모잠비끄해방전선대표단, 가이아나인민민족대회당 위원장이며 국회사업부장인 비 람싸르프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가이아나인민민족대회당대표단,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 전국리사회 부위원장인 부가르 야노쉬네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대표단, 꼬스따 리까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알바로 몬떼로 메히아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꼬스따 리까사회당대표단, 우간다공화국 보건부장 헨리 케이 엠켐바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공화국 정부대표단,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무인가주당 제1비서이며 무인가주 지사인 바라진뚜까장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 모리따니인민당 전국리사회 위원이며 근로자동맹 명예위원장이며 누악쇼뜨 3구역당 비서인 팔 말리끄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모리따니인민당대표단,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선전부장이며 비엔티안주재 라오스애국전선 대표이며 라오스민족련립정치리사회 위원인 사난 슈띠샤크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아까마쯔 이사무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외교사절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강령

지난 10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기념대회에서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보고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에 찬 투쟁로정을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게 주체의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강령을 휘황히 밝혀준 혁명적문헌이다.

수령님의 력사적보고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우리 당이 쌓아올린 빛나는 투쟁업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깊이 론증하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내용, 그에 기초한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방침들의 위대성을 심오히 밝힌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수령님의 보고는 우리 인민들은 물론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인민들의 참다운 투쟁의 무기로, 생활의 교과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보고는 그 불멸의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혁명적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보고를 깊이 연구하여 그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들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보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에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이 걸어온 반세기의 자랑찬 승리적로정과 우리 당이 준엄한 시련과 겹쌓인 난관을 이겨나가면서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을 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30년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이 걸어온 반세기의 행로는 우리 인민이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되고 과시된 보람찬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참다운 시원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이 창건된지는 30년이지만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반세

기가 넘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그것은 조선혁명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들과 제한성이 극복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참다운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1930년대초에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한 환경에서 진행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치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승리한 위대한 혁명전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였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혁명적신념과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인 립장과 태도를 더욱 튼튼히 가지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와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보고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심화발전과정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새로운 고전적정식화들로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화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시고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이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보고에서 새형의 혁명적당, 우리 당창건의 력사적의의와 대중적당건설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방침과 투쟁경험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건설사상과 방침들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 그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당, 인류의 앞장에서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혁명위업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전위당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우리 당의 창건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자기의 참다운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 그리고 당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창건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이 확고히 실현되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완전한 실현, 그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큰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에 걸쳐 진행한 피어린 투쟁의 가장 빛나는 총화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였으며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빛나게 구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 우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시면서 우리 당이 능히 공산주의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당창건 30돐을 기념하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충성의 혁명대오로,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도 강철의 의지와 혁명적패기로 힘있게 해결해나가는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지난 30년동안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빛나게 령도하여 이 땅우에 민족적대번영의 시대를 펼쳐놓은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총화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해방후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강요된 가장 준엄한 전쟁에서 원쑤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겨주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우리 당은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는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은 가장 복잡하고 시련에 찬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혁명의 구체적현실에 적응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힘있게 관철하여나감으로써 끊임없는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은 이 땅우에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펼쳐놓은 거창한 투쟁의 력사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찬연히 빛내인 영광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로상에서 높은 봉우리를 점령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가야 할 앞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야 할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

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보고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전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는 새로운 투쟁목표와 과업,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뚜렷이 밝혀지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히 해명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18~1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3대혁명방침은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빨리 점령하여나갈수 있는 지름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홰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웅대한 6개년계획이 완수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3대혁명수행의 구체적방침과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철저히 수행하여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의 목적인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라는것을 다시금 명철하게 밝히시고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커지는 그 역할에 대하여 심오히 해명하시였으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서 주체의 세계관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탁월한 리론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근로자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도록 하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일하기를 즐기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더욱 커다란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혁명의 주요과업들은 주체철학의 근본원리와 새로운 투쟁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옳바른 인간개조방침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우리 당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방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인 인간개조의 옳은 방도가 뚜렷이 밝혀졌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빨리 점령할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기술혁명의 본질에 대하여 고전적정식화를 주시면서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실무적과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완

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보고에서 천명된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것이며 기술발전을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룩할것인가 하는것을 밝혀준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채취공업과 운수,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서는 기술개조의 당면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의 당면과업들은 6개년계획이 수행되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진 오늘의 조건에서 웅대한 3대기술혁명을 빠른 시일안에 완수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방도를 밝힌것이다. 우리는 기술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구체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로동을 기본적으로 없애며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문화혁명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다시금 밝히시고 교육사업을 비롯한 과학, 문학예술 등 문화혁명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투쟁과업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이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첫공정이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일뿐아니라 문화건설의 다른 부문을 발전시키는 기초이라고 명철하게 가르치시면서 교육사업에 선차적으로 힘을 넣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빛나게 구현한것이며 사회주의문화혁명의 기본을 새롭게 해명한것이다. 우리는 교육사업에 선차적으로 커다란 힘을 돌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에서 이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시면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문화혁명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휘황한 강령이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길이다. 이 방침은 문화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그것을 당의 정책으로 만드시여 세상에 내놓으시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커다란 희망과 용기와 투지를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한 기초우에서 그들이 모두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하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림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

한 확고한 담보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이룩하여야 한다.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은 당대렬을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꾸리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특히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고 당의 핵심진지를 공고히 하며 당조직생활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강화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단련되고 세련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당사업을 철저히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진행하며 행정대행과 당세도,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없애고 모든 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증명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사업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의 본질을 심오하게 밝히시고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평화협정체결, 남북련방제의 실시와 함께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가장 현명한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3페지)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인민의 리익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방침이며 조국통일위업을 훌륭히 실현하여 나갈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지난 기간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혁명적전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특히 자주성을 옹호하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와 혁명발전에서 제3세계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제3세계나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국제정세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는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새로운 투쟁과 승리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강령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총화하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준 보고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을 따라 보람찬 혁명의 길을 다그쳐온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자부심을 끝없이 높여주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충성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보고에 접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커다란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고있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보고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더욱 큰 신심과 희망과 투지를 안겨주고있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해방과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무한한 용기와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기치로 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을 안겨주는 무서운 철추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그 심오한 내용,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다시금 새롭게 정식화하시였으며 사상혁명의 목적과 과업들, 기술혁명의 본질,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 등을 명철하게 밝히시였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일련의 새로운 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보고는 새로운 고전적정식화들과 불멸의 혁명적리론들로써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위대한 력사적문헌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보고를 깊이 학습하여 그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체득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고에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듦으로써 모든 사업을 속도전의 요구에 맞게 진격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수행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0년의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우리 당의 미래는 참으로 휘황찬란하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의 계속혁명의 과업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창건 30돐기념대회보고에서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투쟁로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을 가져올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수령님의 보고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반세기의 로정을 총화한 력사적문헌이며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다시금 밝히시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방침을 깊이 학습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더욱 다그쳐야 할것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 30돐기념대회보고에서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최종목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심오하게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 공산주의를 위하여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우리 당의 이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8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도, 사회도 모두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공산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목표이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목표이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2대목표 다시말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라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18~19페지)

혁명의 기본내용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기본내용을 정확히 밝혀야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매 력사적단계에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울수 있으며 로선과 정책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위업은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거쳐 종국적승리에로 이르게 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혁명의 기본내용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와 봉건적제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는것이였다.

또한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혁명의 기본내용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 사회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것이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시기에 와서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은 그전의 혁명단계와는 다르게 제기된다.

매개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내용은 그 혁명이 해결해야 할 기본임무와 사회계급적 제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임무는 무엇보다도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을 청산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는 오랜 력사적기간을 내려오면서 착취사회가 뿌리깊이 남겨놓은 낡은 유물이 남아있으며 그것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만이 혁명이 아니다. 낡은 사회제도를 전복한 다음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착취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새로운것, 로동계급적인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도 하나의 혁명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기본분야는 사상, 기술, 문화분야이다. 이 세 분야는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생활의 주되는 분야를 이루며 또 여기에 착취사회의 유물이 가장 많이 뿌리박혀있다.

우선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자본주의사상이 남아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부식작용을 일으키며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방해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의 로동생활과 경제생활면에서도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다.

근로자들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였으나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생산력은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문화생활분야에도 자본주의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문화와 낡은 생활유습들

이 남아있다.

이 모든것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 자본주의적인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것, 사회주의적인것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여야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의 계속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특히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러한 나라들은 지난날 오랜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의 원료원천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되여온데로부터 자체의 민족공업이 없고 경제토대가 매우 미약하며 사상문화적으로도 뒤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혁명을 수행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며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보고에서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공산주의를 종국적으로 실현할 때까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이 계속되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국내적으로 볼 때 착취계급은 없어지나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은 계속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볼 때도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인류의 전진운동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파괴활동과 사상문화적침투, 경제적 봉쇄와 압력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과 그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봉쇄 정책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야 할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된다. 또한 나라의 공업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며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이 완수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가 완전히 없어질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된다고 말할수 없다. 그뿐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에서도 아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며 사회에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근로자들이 철저히 혁명화되여 오직 하나의 사상, 공산주의사상과 도덕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며 생산력도 고도로 발전하여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으며 사람들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회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혁명을 그만둘수 없으며 온 사회를 로동계

급화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며 공산주의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호상관계와 그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1~422페지)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요인이다.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잘하는것은 사상혁명수행에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히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 발전에서 실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공적으로 된다.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전도, 그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인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찾게 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다름아닌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보람찬 투쟁이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3대혁명에 관한 사상에는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완성된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은 다그쳐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빛나는 모범이다.

지난 시기 로동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에 관한 리론은 주로 정권전취와 사회제도의 교체 문제에 국한되였으며 사회

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어떠한 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그 혁명이 해결해야 할 과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의 혁명에 관한 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는 로동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의 본질과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문제, 그 혁명의 기본내용과 력사적사명, 수행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정연하게 해명되여있다.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명확한 투쟁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갈수 있게 되였으며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완성된 과학적리론으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으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힘있게 투쟁하여 왔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해방후 새 사회건설시기부터 줄기차게 벌어져왔다. 물론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3대혁명의 구호를 들지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온갖 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인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부터 전면적으로 전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자 곧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전면에 제기하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더욱 공고화되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사회주의적 경제와, 문화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전진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함에 따라 3대혁명을 보다 전공적으로 밀고나가시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를 친히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심으로써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과학기술인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큰 규모의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심으로써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우가 아래를 잘 도와줄수 있게 하시였다.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방법은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과 저래식사업방법을 없애고 발전하는 현

실적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발단을 열어놓으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전당과 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당의 혁명적인 방침과 획기적인 조치에 의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당중앙은 사상전의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였다. 당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힘있게 벌어지고 조직생활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당중앙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자동화의 봉화를 지펴줌으로써 전국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당중앙은 또한 로동자지구에 있는 로동계급이 새 문화를 창조하여 도시와 농촌에 들여보낼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문화를 철저히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며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먼리 전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의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동원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8~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그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가고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의탁하고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공산주의에로 힘차게 나아갈 확고한 결의에 불타고있다.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따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려는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것은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철석같은 혁명적의지이며 확고부동한 생활의 신조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오직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다.

지도일군들속에서는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극복되고 당중앙이 내놓은 구호에 따라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확립되고있다.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또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3개년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5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되였으며 7개년의 높은 고지가 승리적으로 점령됨으로써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특히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6개년

계획이 1년 4개월 앞당겨 빛나게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도가 현저히 높아졌다.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6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3대혁명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빛나는 결실이다.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문화혁명이 또한 힘있게 벌어져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과학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이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하였다.

가장 선진적인 11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풀렸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거하여 훌륭히 해결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이 땅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으며 빛나는 연매를 맺고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 3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데 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할바없이 높아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것이 빨리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요인은 바로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철저히 개조하여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더

욱 다그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두가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로동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단결시키는 수단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여 모두가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기술혁명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고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당면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의 본질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과업이 아니라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기술혁명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현시기 기술혁명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기본과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수행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기술혁명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수하는것이다.

우리는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모든 공업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채취공업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고 야금, 화학, 세멘트 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에서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빨리 실현해야 하며 식료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현대적부엌세간들을 더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

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우리는 교육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워야 하며 성인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고중졸업정도이상의 지식수준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문화혁명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에서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문화혁명에서 이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문화혁명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이며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참다운 길, 낡은 사회의 유물인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문화혁명의 위대한 강령이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한 기초우에서 모두가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야 하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에 따라 문화건설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고 로동계급의 리념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사회주의문화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와 문화분야에서 계급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문화혁명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하나의 혁명으로서 그것은 복잡하고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승리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만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창건 30돐기념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긍지스러운 혁명적명절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이한 감격도 새로운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남기신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의 탄생 70돐을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수령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가장 커다란 영광으로, 숭고한 의무로 여긴다. 그들이 남긴 견결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업적은 혁명투쟁사의 페지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해와 달이 바뀌여도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 인민들을 투쟁에로 고무하고 추동하는 힘으로, 기치로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삼촌이신 김형권선생님의 혁명적생애는 오직 나라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혁명의 길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과감하게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혁명가의 고귀한 한생이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 지니신 불굴의 혁명정신과 고귀한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심장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며 선생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생애는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　　　　*

김형권선생님은 참다운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첫대오에서 주체의 기치따라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벌리신 주체형의 혁명가, 공산주의자이시다.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선생님께서는 1905년 11월 4일 평양시 만경대(당시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서 김보현선생님의 셋째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일제의 악독한 침략의 마수가 뻗쳐 우리 민족이 수난을 당하고있던 암담한 시기에 성장하시였다.

남달리 총명하시였던 선생님께서는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하여 뒤늦게 만경대순화학교에 들어가시였으나 언제나 학업성적이 뛰여나시였으며 부지런하고 대바르고 겸손한 성품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어리신시절부터 일제와 지주놈들의 악착한 만행을 직접 보시는 과정에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의식이 점차 싹트게 되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로 성장하시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신분은 맏형님이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언제나 동생들의 가슴에 강도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투쟁정신을 심어주시였고 혁명실천속에서 그들을 불굴의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1920년 5월 혁명투쟁무대를 림강에로 옮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김형권선생님을 직접 데리고계시면서 그이의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이 시기 혁명적인 소설과 선진적인 출판물들을 수많이 탐독하시였으며 형님으로부터 일제의 야만적식민지통치와 조선인민의 비참한 처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

과 레닌에 대하여, 빠리콤뮨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으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또한 림강, 팔도구, 무송 등지를 중심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과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는 혁명적분위기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시였다.

이렇듯 선생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세심한 지도와 실천투쟁의 영향밑에 혁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시였으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직접적지도밑에 선생님께서는 남북만주일대와 국내의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 자주 파견되시여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였다. 이 행정에서 일제놈들의 억압과 착취 밑에 신음하는 우리 인민의 참상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시였으며 하루빨리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가난한 로동자, 농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세워야 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지시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형권선생님께는 큰 불행이 닥쳐왔다. 그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것이다.

김형직선생님의 서거는 선생님께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기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일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형님의 령전에서 형님께서 다하시지 못한 혁명위업을 이어 기어이 그를 완성하리라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후 김형권선생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형님의 령전에서 다지신 맹세대로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으나 그 첫걸음부터 애로와 난관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무엇보다 어려운것은 형님의 서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벌리시게 되면서 누구와 손잡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남만각지를 다니시며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도 보시였으나 그들은 아무러한 로선과 방침도 없이 헛되이 세월만 보내고있었다.

김형권선생님께서 투쟁의 옳은 방향과 방도를 찾아 고심하고계실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년 10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히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참다운 공산주의기치밑에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으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김형권선생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드시고 그이께서 밝히시는 길을 따라 혁명투쟁을 벌리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김형권선생님께서는 광범한 청년들을 반일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는 한편 새날소년동맹사업과 강반석녀사께서 이끄시는 부녀회사업을 적극 도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김형권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무송, 장백, 림강을 비롯한 백산지구일대에 백산청년동맹이 깊이 뿌리박게 되고 로동자, 농민 출신의 우수한 핵심청년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다.

청년군중속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시던 김형권선생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혁명군에 몸소 참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로선을 밝히신데 뒤이어 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한 첫사업으로서 1930년 7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맑스-레닌주의적무장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군은 도시와 농촌의 광범

한 지역에 진출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서 정치 및 군사 활동을 힘있게 벌리 유격대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벌리나갔다.

경애하는 수령님으로부터 국내에 들어가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닦을데 대한 혁명임무를 받으신 김형권선생님께서는 1930년 여름 조선혁명군의 한 소조를 인솔하시고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내에 진출하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록음이 우거진 조국의 산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소. 은금보화로 가득찬 아름다운 조국과 우리 인민은 지금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고있소. 우리 어찌 발걸음을 지체하겠소. 죽기를 맹세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투쟁합시다!》

김형권선생님께서 인솔하신 무장소조성원들은 8월 14일에 함경남도 풍산군(오늘의 량강도 풍산군) 파발리에 도착하시였다. 여기에서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일제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악질적인 일본경찰놈들을 일격에 처단하신 다음 주재소 앞마당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일화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파발리땅에서 첫총성을 울린지 며칠후 김형권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는 리원군 배덕골과 대바위골 등을 비밀근거지로 하여 로동자, 농민들과 반일운동자들 속에서 대중정치공작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당시 일제는 무장소조활동에 질겁하여 리원, 북청, 단천, 홍원 등 7개군의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리원군일대를 샅샅이 들추는 한편 신북청에는 함경남도 경찰부수색대본부까지 설치하고 수색에 미처날뛰였다.

놈들의 책동을 궤뚫어보신 김형권선생님께서는 홍원일대에 진출하여 그곳 로동자들과의 련계밑에 대중조직을 확대하며 함흥, 원산, 평양일대에로 진출하실 계획을 가지고 홍원으로 향하시였다.

북청군 대덕산에서 무장소조는 적들과 불의에 맞다들게 되였다. 정황은 매우 불리하였다. 그러나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위급한 순간에도 능숙한 기만전술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으시였다. 뒤이어 대덕산안에 몰켜있던 적들을 요정내고 홍원땅에 이르신 선생님께서는 다시금 절부암에서 경찰놈들과 조우하게 되였다. 선생님께서는 달려드는 적들에게 복수의 명중탄을 안기시였다.

이렇듯 영웅적으로 투쟁하시던 김형권선생님께서는 1930년 9월 일제의 앞잡이놈의 밀고에 의하여 그만 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도 한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선생님께서 벌리신 견결한 옥중투쟁에 질겁한 일제교형리들은 1931년 9월 서둘러 살인재판놀음을 벌리고 그에게 15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들씌웠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군신에 쌓여있는 동지들에게 락심말고 견결히 싸워야 한다고 고무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적들의 그 어떤 고문이나 박해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웅적으로 싸우시다 1936년 1월 옥중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시였다.

김형권선생님의 혁명적생애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적락관주의와 백절불굴의 강의한 투쟁정신으로 충만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투사의 혁명적생애였다.

실로 김형권선생님은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귀감이시다.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선생님께서 지니신 혁명가적풍모에서 가장 빛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 이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특징이며 바로 여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참된 삶과 투쟁에서의 영예와 자랑이 있으며 끝없는 긍지와 행복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가장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생명도, 가정도 다바쳐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도 있으며 형제간의 사랑, 친우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입니다. 부자간의 사랑이나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동지적인 사랑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0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은 혁명의 동지적관계로 굳게 맺어진 혁명적가정의 최고전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은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것을 숭고한 혁명의무로, 철저한 혁명적가풍으로 삼으시였다.

견결한 공산주의자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그 실현을 위하여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심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산 모범을 최고의 높이에서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청년운동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심으로써 불멸의 업적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무송을 중심으로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각계각층 애국적인 청년들을 망라한 백산청년동맹은 청년운동의 통일을 이룩하며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청년운동의 획기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눈부신 활동을 벌리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백산청년동맹의 지도성원으로서 이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송과 장백, 림강을 비롯한 백산지구도처에 동맹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지대들에 동지들을 파견하시고 자신께서도 직접 나가시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청년들은 물론 민족주의의 영향밑에 있던 청년들을 교양하여 백산청년동맹의 대렬에 묶어세우시였다.

뿐만아니라 핵심적인 청년들은 공청에 받아들여 청년공산주의자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시였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청년들과의 사업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심으로써 청년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다.

이처럼 선생님께서 백산일대에서 조직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심으로써 백산청년동맹은 광활한 지역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으며 혁명의 새세대들을 수많이 키워내고 반일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어려운 길을 앞장서 개척해나가시는 공산주의자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선생님께서 백산지구에서 벌리신 모든 혁명활동은 실로 간고한 시련의 련속이였다.

선생님께서는 몇끼씩 끼니를 번지시고 지새우시는 밤도 헤아릴수 없이 많으

셨고 집요하게 뒤따르는 왼쭈놈들을 따돌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도 넘으셔야 하였으며 적들에게 체포되시여 심한 고통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시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시며 혁명의 씨앗을 광활한 지역에 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시였을 때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먼저 조선혁명군에 참가하시였으며 국내진출의 어려운 임무를 직접 맡아나서시였다.

당시 일제의 파쑈테로통치가 산판을 치는 국내에 몇명의 무장소조원을 이끄시고 그 종심깊이 들어가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꾸려나간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신 선생님께서는 몸소 모든 난관을 이겨내며 어려운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국내에 진출하신 김형권선생님께서는 군사활동과 정치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시면서 삼수, 풍산, 리원, 북청, 홍원 등 북부조선일대에서 맹렬한 활동을 벌리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도처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반일운동자들 속에서 조선혁명군의 사명과 목적,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과 통일전선로선 등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들을 적극 선전하시였으며 각종 반일대중조직들을 꾸려나가도록 지도하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사람들이 한사람한사람 모두 힘을 합치면 능히 일본제국주의아성을 무너뜨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심전력하여 우선 대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김형권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은 수많은 국내인민들속에 전파되고 그들에게 혁명의 확고한 전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왼쭈들의 총검의 숲을 헤치며 김형권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혁명군소조성원들이 도처에서 벌린 정치군사활동은 국내에서의 첫 혁명적무장소조의 활동으로서 이는 무장활동과 정치활동을 결부하여 과감히 벌린 영웅적투쟁이였다.

이 투쟁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정치적타격을 주었을뿐아니라 래일의 보다 큰 투쟁, 장차 휘몰아올 혁명의 폭풍을 예고하는 뢰성벽력과도 같이 온 나라를 진감시켰다.

실로 북부조선일대에서 맹렬하게 벌어진 김형권선생님의 불굴의 혁명활동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으로 국내인민들을 무장시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준비를 다그침에 있어서 불멸의 공헌으로 되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지조를 산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일제의 감옥에서 희생되시는 마지막순간까지 단하루도 투쟁을 멈추신적이 없으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공산주의자에게는 싸울 자리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옥중에서도 일제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수감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꾸준히 선전하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단결시켜 일제를 반대하는 용감한 옥중투쟁을 조직지휘하시였다.

일제는 어떠한 고문과 회유로써도 김형권선생님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놈들의 악착스러운 고문과 옥중생활로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으나 선생님께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소식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적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끝없는 기쁨에 휩싸였으며 조국

광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옥중에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김형권선생님의 투쟁에 당황한 일제교형리들은 선생님께 중형을 씌워 서대문형무소, 마포감옥으로 이동시키면서 선생님을 굴복시켜보려고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으나 그것은 헛된 짓이였다. 놈들의 만행은 오히려 선생님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하였을뿐이였다.

실로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불굴의 투쟁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산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 림종이 가까와올 때 동지들에게 《동무들, 끝까지 싸우시오. 일제는 꼭 망한것입니다. …만경대는 나의 고향인데 아버지, 어머니도 계십니다.

김일성장군은 나의 조카입니다.

앞으로 만나거든 소식을 전해주기바라오. 우리가 일제놈들에 굴하지 않았다고…》

이처럼 김형권선생님께서는 림종의 시각까지 놈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동지들을 투쟁에로 부르시였다.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시였으며 지하와 산중에서, 감옥속에서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심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영예를 빛내이시였다.

*　　　　*

김형권선생님께서는 가장 고결한 인민적품성을 지니신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자는 오직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몸바쳐싸우고 인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것은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깨우쳐 혁명투쟁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어제는 청년들과 독립운동자들 속에서 오늘은 또 로동자들과 화전민들 속에서 그들의 가긍한 생활형편을 같이 걱정하고 의논하시며 이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을 관철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일깨워주시며 끊임없는 혁명활동을 벌려나가시였다. 뿐만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곤난한 환경에서도 인민의 생명재산에 자그마한 피해라도 있을세라 심려하시고 그들을 극진히 보살피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 리원군일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중선전활동을 하시면서 언제나 인민의 생명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신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당시 일제놈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애국자들을 숨겨두거나 도와주는 조선사람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신 선생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후환이라도 미칠세라 념려하시여 때로는 끼니를 번지시고 밖에서 밤을 지새우시였다.

이느날 일제경찰놈들이 이른 아침부터 조선혁명군소조원들의 종적을 찾아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샘물언덕골안을 싸다니였다.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한 소조원이 격분하여 경찰놈을 족치자고 제기했을때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저놈들을 쉽게 잡을수는 있어도 마을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게 된다고 타이르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인민의 원쑤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자비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파반리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그곳 일제주재소의 악질순사부장놈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함으로써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적후의 어려운 속에서도 적들을 주동적으로 족침으로써 인민들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주고 적들은 공포에 떨게 하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또한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지만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보존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09～410페지)

혁명적동지애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귀한 품성의 하나이다. 오직 진정한 공산주의자들만이 참다운 동지애를 지닐수 있으며 참다운 동지애로 뭉쳐진 혁명대오만이 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이룩하고 혁명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김형권선생님은 혁명적동지애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주신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시였다.

김형권선생님의 지도밑에 무장소조가 국내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맹렬한 군사훈련을 하고있던 어느날 갑자기 반동군벌들의 불의의 습격을 받게 되였다. 급한 정황속에서도 선생님께서는 대오를 유리한 지형에로 이동하도록 하시였으나 이때 한 대원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아시게 된 선생님께서는 동지들이 만류할사이도 없이 따라오지 못한 동지를 구원하기 위해 총탄이 우박치는 위험속에 뛰여들어 끝내 부상당한 동지를 구출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적들에게 불행하게도 체포되시여 령어의 생활을 하실 때에도 동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려고 모든 책임을 자신께서 맡아나서시였다. 이로 인하여 선생님께서는 놈들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당하시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동지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는것으로 마음놓으시였다.

이처럼 김형권선생님은 가장 고상한 인민적품성과 가장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체현하고계신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였다.

✲ ✲

조선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선생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한생을 다 바쳐싸우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시였다.

김형권선생님의 생애는 매우 짧았으나 선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정신은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충성의 탑으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우리는 김형권선생님께서 주체위업에 끝없이 충실했던것처럼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주체형의 피만이 끓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이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습을 더욱 강 화 하 자

김 일 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기치드높이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짝 꽃피여나게 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조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되고있는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더 빨리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혁명의 량식을 주며 그들이 끝까지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3페지)

혁명투쟁은 어렵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사업이다.

혁명가는 꾸준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우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가들은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정,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길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이처럼 혁명하는 사람들은 부단히 학습하고 끊임없이 배워 혁명의 사상정신적량식을 확고히 마련하여야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오늘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환경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의 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미밀고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형의 피와 영양소를 넣어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충성의 진루대오로 튼튼히 꾸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전례없는 규모와 비상한 속도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의 인민경제는 그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모든 부문과 고리들의 생산적련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뿐만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기계설비들로 더욱 튼튼히 장비되고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운영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따라세우지 않고 이미 얻은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서는 오늘의 대규모적사회주의경제를 원만히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나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오늘에 와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맡겨진 혁명의 초소도 제대로 지켜낼수 없다.

현실은 누구나 다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사회주의건설자가 될것을 요구하며 바로 이렇게 될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결코 그 어떤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될 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꽃펴난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라고 가르치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전투와 행군으로 날이 저물고 달이 바뀌는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학습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여러가지의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학습형식과 학습방법을 몸소 창조하시여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조하신 문답식학습방법은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가지고있는 전통적인 학습방법이다.

론쟁과 토론의 형식으로 학습하는 문답식학습은 항일유격대생활의 특성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수 있는 힘있는 학습방법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대원들앞에서 강의를 하시고 출판물에 실릴 글도 쓰시였으며 행군도중 쉴참이나 숙영지의 밤에 대원들이 둘러앉은 우등불가에 나가시여 그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그들을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을 생활화하였으며 개별학습과 집체학습, 강의와 토론, 정기학습과 집중학습을 잘 배합하여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한 무장투쟁의 나날에 끼니를 번지는 일은 있어도 학습은 단 하루도 번진 일이 없으며 행군하면서도 책을 읽고 나무밑과 우등불가에서 그리고 잠자리에서도 혁명의 진리를 익히고 다져나갔으며 지어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을 앞둔 시각에도 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기며 혁명적으로 학습하였다.

항일무장대오안에서 이처럼 학습을 생활화함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 숨쉬고 사고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으며 그처럼 유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필승의 신념을 안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통적인 학습방법인 문답식학습방법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문답식학습방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문답식학습경연의 형식으로 발전시켜 전당과 온 사회에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 문답식학습방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학습하는데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키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고있다.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함으로써 하나를 배워도 똑똑하게 배워 혁명적관점으로 체득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학습의 목적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산지식을 얻자는데 있다.

따라서 학습은 글줄이나 따로외우는 식으로 형식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으로 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학습이 결코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큰 은을 낼수 없다.

그러므로 학습에서 결시례를 하는것

과 같은 온갖 그릇된 현상을 없애고 하나를 배워도 똑똑하게 배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본질과 진수를 깊이 파악하여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해나갈수 있도록 실속있게 학습을 하여야 한다.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에서의 이와 같은 요구를 가장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혁명적인 학습방법의 하나이다.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문답식학습은 상대방의 지명에 따라 임의의 동무들이 대중앞에 나와서 질문에 대답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제시된 학습문제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정확히 답변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문답식학습은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제시된 학습문제에 대한 제한된 설명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과 전반사상, 수행방도를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통달하여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게 한다.

문답식학습방법은 이와 같이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여 하나를 알아도 똑똑하게 알게 하는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문답식학습방법은 또한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학습은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누가 대신해줄수 없으며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할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들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부단한 탐구와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만 빛나는 열매를 가지올수 있다.

토론과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문답식학습에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게 된다.

문답식학습은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각적열성을 내여 책을 읽고 정력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며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으로 된다.

문답식학습방법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화해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은 또한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동지호상간의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을 없애고 온 집단에 혁명적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도록 한다는데 있다.

학습은 자각성과 함께 강한 통제가 안받침되여야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학습에서 서로 힘과 지혜를 합칠 때 문제의 본질을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다.

문답식학습에는 준비된 《선수》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토론에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문답식학습경연은 그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학습을 게을리할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며 매개 성원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학습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해당 당조직과 일군들, 온 집단의 관심과 방조 속에서 동지들 호상간에 서로 배워주고 도와주면서 힘과 지혜를 합치며 문제의 본질을 깊이 체득하게 한다.

문답식학습방법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는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가 학습하는 목적이 학습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자는데 있는것만큼 학습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얻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따라서 학습은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문답식학습방법은 바로 이러한 요구

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과 혁명과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무기를 마련해준다.

그리하여 문답식학습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게 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 잘, 더 빨리 관철해나갈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체의 혁명적학습방법의 하나인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하나를 배워도 똑똑하게 혁명적량식이 되게 하며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이 방법은 또한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동지호상간의 방조를 강화하여 온 집단안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학습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 실제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참으로 문답식학습방법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학습방법이다.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가려는 당의 확고한 립장과 결심이 담겨져있으며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려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속에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그 어느때보다도 학습을 정열적으로 하여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우리들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습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학습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학습도 생산보다 못하지 않게 중요한 당원들의 의무라는것입니다. 당원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학습은 꼭 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생산도 잘할수 없으며 혁명과업을 수행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페지)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듯이 학습에서 성과를 거두는가 못거두는가 하는것은 그 어떤 객관적조건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가 하는데 있다.

학습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첫 공정으로 되며 조직사상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혁명임무라는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차요시하는 그릇된 태도를 철저히 버리고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더욱 강화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하루에 2시간이상씩 학습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학습을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것은 당이 제시한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이다.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습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문답식학습에 적극 참가하도록 사상동원과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문답식학습경연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또한 문답식학습진행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 나타난 편향과 부족점을 바로잡고 좋은 경험들을 살리고 일반화하면서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현실을 보지 않고 독경식으로 학습하여 《글뒤주》가 되여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공고히할수 있으며 그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illegible]을 나타낼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조직지도함으로써 학습이 정치리론수준도 높이고 맡겨진 혁명과업도 훌륭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은 높은 자각성과 함께 조직의 옳은 지도와 강한 통제가 안받침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엄격한 학습규률을 세우고 학습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책임일군들이 학습에서 모범을 보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책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시간을 짜내여 학습하며 문답식학습경연에 성실히 참가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도 앞장서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혁명적학습기풍을 보다 실속있게 세우고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

강 성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은 기한전에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수행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였으며 10월의 명절을 자랑찬 승리자들의 대축전으로 찬란히 장식하였다.

웅대한 6개년계획의 기한전완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며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한 위대한 승리로 된다.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으며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내닫는 주체조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의 승리봉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찬란한 성과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우리 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바쳐 투쟁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충성의 대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웅대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완수하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켰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서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충성의 총돌격전, 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켰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따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사회주의적주체공업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다. 197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의 공업생산의 년평균 증가속도는 6개년계획에 예견되였던 14%를 훨씬 릉가하여 18.4%에 이르렀으며 특히 올해에는 공업생산이 지난해에 비하여 25%나 늘

어났다. 공업생산의 이러한 류례없는 빠른 발전속도는 위대한 천리마운동과 그것을 구현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공업생산의 비상히 빠른 발전에 의하여 올해 8월말현재로 년간 공업총생산액은 1970년에 비하여 2.2배로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2.3배, 소비재생산은 2.1배로 늘어났다. 이것은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완수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로동계급은 6개년계획의 직물고지는 거의 2년 앞당겨점령하고 수산물고지는 1년반 앞당겨점령하였으며 전력고지, 석탄고지, 화학비료고지는 올해 8월말현재로 성과적으로 점령하였다.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주체공업건설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공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성이 강화되고 부문내부구조가 더욱 완비되였으며 최신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다.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생산력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공업제품의 생산에서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오늘 우리 나라는 자체의 원료와 기술에 의하여 300마력불도젤과 10립방메터대형굴착기, 2,500마력중속엔진과 3,000마력고속엔진, 5만키로와트발전기와 20만크바대형변압기, 2,500마력내연기관차와 100톤급자동차, 18메터타닝반과 20메터대형선반, 2만톤짜리짐배와 같은 대형기계설비들뿐아니라 현대적인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훌륭히 생산해내고있으며 자체의 생산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6개년계획수행기간 농촌경리의 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이 2%나 3%만 장성하여도 큰 성과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생산을 한해에 30%씩 장성시키는 세계적인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여 6개년계획의 700만톤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지난해에 승리적으로 점령하였으며 올해에는 800만톤의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힘찬 투쟁은 벌려 지난해보다 더 큰 풍작을 이룩하였다. 알곡생산과 함께 축산업, 과수업, 잠업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 많은 나라들이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불리한 자연기후조건들을 이겨내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창조한 이러한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주고있으며 농촌경리의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더 큰 비약을 가져올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된다.

6개년계획수행기간 철도운수, 자동차운수, 해상운수가 더욱 발전하고 수도, 벨트콘베아, 관에 의한 3화수송체계가 대대적으로 도입되여 인민경제의 비상히 빠른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송수요도 더욱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6개년계획수행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하나는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혁명의 기초인 기계공업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도입하여 공업부문의 전반적기술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당의 지도밑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실현된 산업텔레비죤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본보기로 하여 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현하였다. 이리하여 공업부문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고 고열 및 유해로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졌다.

농촌에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이 대대적으로 생산공급되여 논밭갈이와 낟알털기, 사료분쇄와 운반작업은 이미 100% 기계화되였으며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의 기계화수준도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이것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오늘 우리의 농업은 기계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약으로 김을 잡는 전면적인 공업화, 현대화의 새로운 단계에 확고히 들어섰다.

또한 식료가공공업이 더욱 발전하고 여러가지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이 대대적으로 생산공급되여 우리 녀성들은 가정일의 부담을 많이 덜게 되였다.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이와 같이 커다란 성과가 달성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은 더욱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난 우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여 생활을 보다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더욱 높아지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농촌뻐스화와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완성되고 농촌의 수도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물건값이 대폭 떨어지고 도시와 농촌에 수십만세대의 문화적인 살림집들이 건설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인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고 100만명의 인테리대군이 꾸려졌으며 우리의 주체예술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침으로써 경제와 문화,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개년계획이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7페지)

우리 당과 인민은 웅대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6개년계획수행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에서 큰 걸음의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확신성있게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

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강위한 시위로 된다.

우리의 튼튼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규모가 전례없이 늘어난 조건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의 공업생산의 년평균 증가속도는 7개년계획시기의 12.8%를 훨씬 뛰여넘었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생산은 계속 빠른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경제리론의 정당성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여주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자부심과 높은 궁지를 가지고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6개년의 높은 령마루에서 울린 승리의 포성은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어세게 싸워나가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신심을 주며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파쑈도당에게는 심대한 타격과 공포를 주고있다.

웅대한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은 또한 자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한다면 그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며 사회주의건설력사에 길이 빛날 주체시대의 찬란한 기념비이다.

## 2

웅대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는데서 이룩된 모든 승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로선과 사회주의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 웅대한 6개년계획을 펼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는 투쟁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는 뚫고나가야 할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앞에 펼쳐주신 6개년계획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나가야 하였으며 이 당우에 열성

북면의 주체사상을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만 하였다. 더우기 우리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소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는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에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겹쌓인 난관과 애로를 뚫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펼쳐주시였으며 진두에서 이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대한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빛나게 추진시키기 위한 선차적과업으로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3대기술혁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한 중심적인 사업으로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에 나서는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이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구체적실정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옳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으며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불패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참으로 3대기술혁명은 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였으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어야 할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으시고 몸소 북변의 땅, 희천에 나가시여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기계공업의 발전 특히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오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늘이는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을 늘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는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세차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특히 1973년 2월에는 몸소 독창적인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으시여 친히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 파견하시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적극적인 방도이다. 그것은 간부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며 그들에게 현대과학기술을 배워주어 일군들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한층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천리마운동을 더욱 찬연히 빛나게 하고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력사적인 혁명운동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진 결과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고 우리 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저애하는 보수주의와 경험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이 날아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도처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돌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전진운동은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벅찬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대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일대 진공전이며 6개년계획과 10대 경제건설전망목표를 최대한으로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앞에 새로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가장 과학적인 수행방도를 제시하시고 광범한 대중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새로운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령도를 경제건설분야에서 창조적으로 구현한 거창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세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내놓으시고 강의한 의지와 완강한 전개력으로 모든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나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원료, 연료 생산을 앞세우고 그것들을 제때에 실어나주어야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잘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채취공업과 수송사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돌리도록 하시였으며 전국공업대회, 전국농업대회를 비롯한 많은 부문회의와 협의회를 여시여 전체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굽임없이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온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세차게 메아리치도록 혁명적으로 지도하였다. 특히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전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을 때 우리 당은 70일전투를 벌릴데 대한 대담하고 혁명적인 작전을 펼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충성의 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웅대한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극진한 배려의 귀중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여러 농촌, 어촌에 나가시여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사업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육친적배려를 돌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로동자, 농민과 근로인테리들을 찾으시여 휴식도 미루시고 끼니도 넘기시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시였으며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베푸신 로고와 심려는 이루 헤아릴수 없으며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빛나는 로정은 수천수만리에 이른다.

6개년계획수행에서 달성된 력사적승리는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더욱 강화된 결과에 이루어진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리짐으로써 당조직들이 당정책집행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국가, 경제 기관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산기관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또한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방법이 극복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당사업이 참말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이 아래에 쭉쭉 내려가고 제때에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투쟁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령님에 대한 일화같은 충성심이 높이 발양되는 행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당의 옳바른 지도밑에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임을 깊이 자각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면서 6개년계획수행의 전행정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특히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신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10월 10일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충성의 총돌격전, 결사전을 과감히 벌렸다.

참으로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빛내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혁명적열성이 낳은 고귀한 연매이다.

* *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승리적으로 앞당겨점령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점령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30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혁명의 행군길을 다그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켜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악당은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소동을 더욱더 반광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당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방대한 6개년계획을 앞당기완수한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 긴장하고 동원된 태세로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다시한번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원쑤들의 온갖 침략과 전쟁소동을 산산이 짓부시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줄기차게 앞당기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나가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계속 기운차게 달리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더욱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모두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최대한으로 다그치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정치사업,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모든 단위가 맡겨진 전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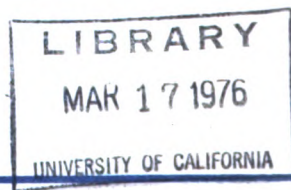
웅대한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된 자랑찬 대승리는 당과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갈 때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창조된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근 로 자 제11호(루계 40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5년 11월 1일 발행 • 1975년 11월 5일

ㄱ—55343 값 50전

(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75

#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404)

## 차 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보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를 깊이 학습하자

# 주체사상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혁명실천을 통하여 검증된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발전풍부화된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괄하시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본질적내용,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 령도방법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인민들의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보고에서 전면적으로 전개하시고 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며 영예이며 자랑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시대의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였다.

력사의 새시대는 그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요구한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혁명사상이 있어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공산주의운동의 전력사는 로동계급이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투쟁할 때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어렵고도 복잡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을 위하여 투쟁해온 전로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싸워온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이 혁명과 건설의 산지침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대와 혁명실천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한 혁명리론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 주체시대이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지난날 력사밖에 서있던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을 인민대중에게서 찾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주며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그들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전술,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주체적립장, 자주성과 창조성을 철저히 견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 지도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추세, 자주성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시대의 혁명정신을 상징하고 시대의 발전을 힘있게 향도하는 불패의 혁명적기치로 되고있으며 거대한 영향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고있다.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사상, 지도사상에 대한 요구는 어느 나라 혁명에서보다도 우리 나라 혁명에서 가장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페지)

우리 나라에서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던 사대주의는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심히 저애하고 조선혁명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가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된것도 결국 사대주의때문이였으며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되고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것도 그 주되는 원인은 사대주의와 그로부터 흘러나온 종파주의에 있었다.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사대주의에 사상적기초를 두고있는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싸움질만 하였으며 실지 혁명투쟁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있었다. 특히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자들은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뛰여다니면서 파벌투쟁만 하고있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이 가지고있던 이 두가지 본질적약점과 제한성을 극복하고 쓰라린 진통을 겪고있던 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혁명적세계관, 새로운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을 추진시켜야 하였다.

새로운 지도사상에 대한 이러한 절실한 요구는 우리 나라에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객관적조건으로 되였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창시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조건의 성숙과 함께 시대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줄수 있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 위대한 사상가가 출현하여야 한다.

비상한 통찰력과 천재적인 예지로 인류의 진보적사상이 이룩한 모든 우수한 성과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시며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경험

을 전면적으로 개괄하시고 시대와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바로 조선에서 주체사상이 창시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두가지 본질적결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는 과정에서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한다는것,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추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게 되였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게 된 출발점이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그것이 심화발전됨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수립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6페지)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는 영광스러운 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인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인 투쟁의 길, 주체의 광휘로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립장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결함을 분석하시고 주체를 강조하시게 된것이 주체사상이 창시되게 된 출발점이였다면 수령님에 의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실천에 구현되기 시작한 첫 출발점으로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던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발전하게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1930년대초에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무장투쟁으로서 이 투쟁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투쟁 로선과 방법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다 자체로 세워야 하였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지지 이외에는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매우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가지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

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태도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시여 피어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이렇듯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장구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발견으로서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은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시대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새로운 혁명적세계관과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정확한 혁명의 방법론을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의 영광스러운 조국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따라 나아가는 슬기롭고 영예로운 인민으로 되였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되는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세계와 사람과의 호상관계 문제는 철학적세계관수립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되여왔다.

인류는 오래동안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왔다. 인류사상사에서 철학이 출현한 때로부터 수천년이 지나왔으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힘과 가치, 존엄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는 오래동안 관념론의 테두리안에서 설명되였다.

유물론이 확립됨으로써 세계의 물질적통일성이 론증되고 사람과 외부세계와의 호상관계가 유물론적으로 해석되게 되였으며 모든것이 물질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유물사관에 의하여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회관계가 발전하는것으로 설명되여왔다.

그러나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야 할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물질일반을 기본으로 보던 종래의 철학적원리로부터 물질가운데서 가장 발전된 물질인 사람을 기본으로 모든것을 보는 철학적원리가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확립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세계관의 근본문제에 과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자연과 사회는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옳은 관점을 주며 자연과 사회는 사람의 적극적역할에 의해서만 개조된다는

정확한 리해를 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사물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궤뚫어볼수 있게 하며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방도를 옳게 찾을수 있게 한다. 또한 언제나 사람부터 먼저 보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참다운 혁명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의 주인은 사람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들에게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높여준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는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라는것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세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 립장과 방법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모든것을 보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창시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물론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생활수단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것이지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또한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도 바로 사람, 인민대중인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발전, 혁명과 건설에서 경제를 보기전에 먼저 사람, 인민대중을 보아야 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결정적력량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인민대중을 떠나서 혁명과 건설을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적진보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고 혁명을 추진시키는 근본동인을 경제에서가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데로부터 바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을 전개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근로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데로부터 그들을 묶어세우고 발동시키는것을 방법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나선 때로부터 광범한 인민대중을 이끌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사람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의 모든 혁명단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혁명리론이며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과 전략전술들에 옳바른 해답이 주어졌으며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교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로선과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의 어느한 부문이나 혁명과 건설의 어떤 개별적단계만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모든 령역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의 리론을 밝혀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뚜렷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된 자각을 높여주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준다.

오늘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가하고있는 력사적조건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는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나갈수 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이렇듯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보는 가장 철저한 로동계급적립장이며 사람들을 더욱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키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생각할수 없으며 주체사상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 불패의 생활력을 리해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특징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전력사적로정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이땅우에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새형의 당인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짧은 기간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할수 있었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갈수 있었으며 이땅우에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우리 당은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사회주의문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우리 인민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자랑찬 열매이다.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당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나아갈 때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것은 반세기에 걸치는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의 주되는 총화이며 혁명실천에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만드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 나선 숭고하고 영예로운 의무이다.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우리는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더 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

#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참다운 력사적시원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의 축성

김 기 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시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당이며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그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된 백절불굴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태여난지는 30년이지만 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보면 우리 당은 반세기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0월의 혁명적명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억년 드놀지 않는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으며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을 자기의 전위부대로 가지고있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에 끝까지 충실할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몸소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개시와 더불어 조선혁명은 력사상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시기의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시고 종래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립장에서 혁명운동을 벌리시기 위하여 1926년 10월17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으며 조선혁명의 참다운 력사적시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참다운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출발점으로 된것은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5페지)

조선혁명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하여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자주적발전의 참다운 력사적시원으로 되는것은 우선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이 광범한 근로대중에 의거하여 발전하게 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선행시기의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과는 달리 상층부 몇몇 사람에 의하여 진행된것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박고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수행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이미 1920년대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적극 나서게 되고 광범한 대중속에서는 반일감정이 매우 높아지게 되였다.

그러나 당시의 공산주의운동은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주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상층부에는 거의다 맑스-레닌주의를 잘 알지 못하고 계급적립장도 철저하지 못한 소부르죠아출세주의자들이 들어앉아있었으며 운동의 상층부가 이러하다나니 혁명운동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였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라면 마땅히 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혁명투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대중을 혁명에 조직동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들끼리 모여앉아 혁명의 구체적현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자들은 저마다 자기를 《리론가》로,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조선혁명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이라느니, 《조선혁명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인것만큼 혁명에서 령도권을 민족부르죠아지가 장악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온갖 좌우경적궤변을 늘어놓음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이처럼 대중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됨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피를 많이 흘리면서도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였던 선행시기의 운동과는 달리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각성시켜 조직에 묶어세우시고 조직을 확대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낡은 사상에 물들지 않은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로 조직되고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를 박은 우리 혁명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통하여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떼내여 혁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였으며 조직을 확대하여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 묶어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장차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심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 항일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킬 핵심력량과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믿을것이란 오직 인민대중밖에 없었으며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건에서 처음부터 대중을 각성시키고 대중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지 않고서는 승리할수 없었다. 바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낼수 있고 또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을 능히 자체의 힘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실증하여주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였으며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발전하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 조선혁명의 참다운 력사적시원으로 되는것은 또한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있다.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조선혁명이 자주적으로 발전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식민지민족문제가 전면에 나선 새로운 정세는 식민지나라 공산주의자들앞에 종주국로동계급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있던 기성관념을 버리고 제힘으로 민족해방의 앞길을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는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이 착잡하게 뒤엉켜있었으며 조선혁명은 그 첫걸음부터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형편을 보면 엠엘파, 화요파, 북풍회파 등을 비롯하여 여러파들로 그 내부가 사분오렬되여있었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선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혁명운동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파가 정통파이며 진짜맑스주의파라고 하면서 승인을 받으려고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녔다.

이와 같이 1920년대전반기,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안에는 파벌투쟁이 심하고 또 상층부의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있었으므로 조선혁명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었으며 피흘려싸우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동원할수 없었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요람기를 말하여주는것이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동시에 이러한 운동에서는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그 어떤 전통도, 밑천도 마련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이러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리론과 실천의 완전한 통일속에서 조선혁명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을 독창적으로 탐구하시고 창조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렵고도 복잡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며 투쟁로선과 투쟁방법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민족의 해방은 조선인민, 조선공산주의자들자체의 힘으로 쟁취하여야 하며 조선혁명의 모든 문제는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언제나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혁명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시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이렇듯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자기 주견과 신념이 없이 남만 쳐다보면서 혁명투쟁은 하지 않고 파벌싸움만 일삼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에 종지부를 찍었고 조선혁명은 비로소 참다운 공산주의적지도사상을 가지고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승승장구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혁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혁명앞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이룩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혁명의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고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에서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당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바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당창건의 깊은 뿌리가 있고 튼튼한 토대가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첫시기에 벌써 당창건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을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여야 한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35페지)

당창건에 앞서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당은 선행준비과정이 없이 빈터우에서 창건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창건되자면 우선 계급의 선위분자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야 하며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보장하고 대중적지반을 닦기 위한 준비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있었으며 대중과 동떨어져서 상층부 몇몇사람들이 저마다 옥신각신하고 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었던 조건에서 당창건에서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이룩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이룩하는 사업을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에서는 투쟁로선과 방법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손에 무장을 들고 강도 일제와 직접

맞서 싸운 항일무장투쟁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가장 훌륭한 학교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수많은 공산주의적핵심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하고 귀중한 투쟁경험이 이룩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6~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을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있는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키워내심으로써 혁명적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 특히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주체형의 혁명가들로써 조직적골간을 꾸리는것을 당창건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적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을 유격대오에 받아들이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귀중한 밑천으로, 앞으로 창건될 당의 믿음직한 조직적골간으로 여기시고 그처럼 어렵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도 언제나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였으며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대오안에서와 혁명근거지들에 꾸려진 당조직체계를 통하여 대원들과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핵심으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으로 키우시였다.

이리하여 하루에도 수십번씩 피어린 전투를 벌리고 수백리의 강행군을 단행해야 하는 가렬처절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적구공작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핵심이 자라났으며 당의 조직적골간이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혁명대오를 일색화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당창건과 그의 공고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원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결속된 산유기체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바로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통일단결되였다는데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다른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볼수 없으며 나중에는 당자체도 존재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공산주의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우선 항일유격대를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대오로 꾸리시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핵심으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대렬의 참다운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대렬내에 끼여든 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이색분자들과의 투쟁을 견결히 벌려나가시였다.

이리하여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

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대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반석같은 사상의지의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혁명대오를 일색화하는 모범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앞으로 창건될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는것을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 중요한 일환으로 제시하시고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시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심으로써 보다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시였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제와 반동세력은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계급적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더욱 세차게 발전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을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 창건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1920년대후반기,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던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억년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혁명의 재부로 굳게 다져지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우리 당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벌려오신 정력적인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몸소 키워오신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중심으로 해방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오랜기간 바라던 절절한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휘황한 전망이 열리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튼튼한 력사적뿌리에서 솟아난 우리 당은 오늘 주체의 혈통만을 순결하게 지니고 그것으로 맥박치는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진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혁명과 건설의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을 축적한 세련되고 로숙한 당으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할 굳은 결의를 가지고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당건설리론의 빛나는 승리

최 문 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이 걸어온 영광의 반세기를 총화하시고 주체사상의 찬연한 빛발로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때로부터 반세기,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30년의 로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당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온 보람찬 로정이였으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이 땅우에 민족적대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로정이였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창건과 그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투쟁경험과 업적을 빛나게 총화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특히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명시해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제시된 주체형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

우리 당건설의 30년의 력사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빛나는 결실을 맺은 자랑찬 로정이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령도밑에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계급의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뭉친 선봉적전위부대이며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무기이다.

당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조직동원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불패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조직화하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는 사업도, 대중을 의식화하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사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고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주체시대의 현실적조건과 로동계급의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당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 사상과 리론이 심오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당사업, 당활동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정연하게 체계화되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리론에서 초석을 이루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당의 생명인 당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는 길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1페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삼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왔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사상조류와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온갖 형태의 불건전한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여 이루어진 통일단결이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숭고한 통일단결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한몸과 같이 뭉친 통일단결,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어떤 풍파도 뚫고 억세게 전진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로 되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순결한 당으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강철의 당으로 되였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에 걸쳐 진행한 피어린 투쟁의 빛나는 총화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당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당을 공고한 토대우에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대중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을 제때에 조직하시고 광범한 군중이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모두가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여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있으며 근로단체들은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핵심

들을 키워 당대렬의 후비를 보충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더욱 두터워지고있으며 당의 전투력이 보다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대중과의 사업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튼튼한 대중적지반이 축성됨으로써 당대렬이 공고한 토대우에서 강화발전할수 있게 되였으며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를 내리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데 대한 리론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는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고귀한 기여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수령님의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이 실천에서 이룩된 빛나는 업적의 다른 하나는 전당에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된것이다.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시여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두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들이 바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한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 때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가장 철저히 빨리 수행될수 있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사상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한것으로서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사상은 또한 당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은 사람들이 뭉친 선봉적정치조직이며 당의 임무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의 사업대상은 사람 그자체이며 사람과의 사업은 당내부사업에서나 행정경제사업에서나 할것없이 주선으로 틀어쥐여야 할 기본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 당안에는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지배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동요

하지 않고 조선혁명을 능숙하게 그리고 확신성있게 승리의 한길로 령도할수 있는 세련된 당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곧바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만능의 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당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이 능히 공산주의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당창건 30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오늘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으며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튼튼히 서고 당의 하부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또한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에 기초한 전당의 선전선동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여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우리 당사업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전환 그것은 또한 우리 당안에 오래동안 남아있던 낡은 사업체계와 지태식방법이 뿌리빠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서게 되였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다는데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이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가지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패기에 넘쳐 공산주의앞길을 훌륭히 개척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3대혁명을 수행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최고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며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당안에 유일적인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지 않고는 도대체 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릴수 없으며 따라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없다.

우리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기본요구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의 중심과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며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와 사상의지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온갖 반당적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용화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고 당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당이 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으로 된다.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간부대렬을 질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자질을 높이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간부대렬을 꾸리며 그들이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우와 같은 책, 25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은 례외없이 당조직의 한성원으로 되며 따라서 당을 구성하고있는 매개 당원들의 건전한 당조직생활은 전당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당성을 단련하고 당적수양을 높이게 되며 자신의 혁명화를 다그치게 된다. 또한 당조직은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에 당원들의 정치사상생활과 혁명과업수행정형을 환히 꿰뚫어볼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게 된다.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당의 당원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당조직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특히 당이 제시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엄격히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

학습은 당조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은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습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야 한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

성하는것은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완성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에서 행정식사업방법과 행정대행을 철저히 없애고 당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독촉이나 하고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것과 같은 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대중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는 당이며 결코 대중을 다스리는 관료당이 아니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대중의 자각성을 높여 모든 과업을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한 사업방법이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사업에서 행정식사업방법, 행정대행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꾸준히 해설선전하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언제나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한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늘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따라배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사업방법이며 완성된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견결히 지키고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참신하게 풀어나가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업방법이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사업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마스고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우리 당사업에 확고히 구현함으로써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할것이다.

실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한것으로서 우리 당의 사업과 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이 숭고한 위업에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주체시대의 혁명가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인 조선로동당원의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참된 길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창건 30돐기념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오히 연구체득하고 그를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그 어떤 로쇠와 침체, 안일과 답보도 모르는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충성의 전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리 형 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서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심오히 천명하시면서 사상혁명의 목적과 인간개조의 본질, 사상혁명의 구체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오히 밝히신 인간개조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 특히 사상적요새를 가장 성과적으로 점령하여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혀준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독창적인 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혁명적열의를 혁명과 건설에 남김없이 동원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개조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실천투쟁에서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9페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그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력인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자면 그들이 현대적과학기술지식과 높은 문화수준,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건설의 참다운 역군으로,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주적인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할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사람의 가치가 그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에게 고유한 본질적특성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활동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며 자기의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게 한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객관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간다.

사람이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람의 가치도 다름아닌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람들은 오직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 참다운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선진적인 사상의식은 사회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표징이다.

비록 건전한 육체와 지식, 높은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로밖에 될수 없다. 혁명하는 시대에 태여난 사람으로서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가치는 결코 돈이나 물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상을 신념으로 하고있는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로 되는것은 또한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과 관련된다.

사상의식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들의 활동은 그들의 사상의식의 발현이다. 다름아닌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의 활동이 규정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상의식,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질 때 조국과 인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투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기본담보이다.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자각적인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지 않고서는 문화혁명과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끊임없이 힘있게 다그처나갈수 없다.

물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경제기술적요인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아무리 중요한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람들의 높은 사상의식, 그들의 자각성과 결합될 때에만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데서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사상의식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담당자인 사람,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야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도 훌륭히 해결하여 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가치를 규정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인것만큼 사람을 개조하는데서 바로 사상개조가 기본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착취사회와는 달리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인 힘에 의하여 건설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이 사회는 근로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혁명적열의에 의해서만 건설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사회이며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며 움직이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모든것이 근로자들의 높은 의식성과 그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움직여나가며 생산발전의 제요인들도 대중의 높은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통해서만 자기의 위력을 훌륭히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높은 자각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사회를 움직이고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며 이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은 비할바없이 높아진다.

사상의식이 노는 이러한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커지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개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물질기술적요인만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면 혁명과 건설에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없다.

사회발전을 힘있게 떠미는 사람들의 사상의식, 그것은 사상의식일반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선진적인 사상의식은 오직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과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사상이 사람들의 참다운 세계관으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확고한 세계관으로 할 때만이 인민대중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하며 정확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혁명투쟁을 진행할수 있다.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혁명적연의를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위훈을 창조하여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인간개조의 본질에 관한 이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를 밝히고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준 위대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을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는 물론 물질적요새도 훌륭히 점령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의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근로자들속에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고상한 미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차게 나가는 혁명적인 대가정

으로 전변되였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사고방법과 일솜씨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세상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개조를 위한 사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상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혁명의 앞길은 아직 멀고 간고하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강토우에 5천만겨레가 다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투쟁은 결코 간단한 투쟁이 아니다.

부닥치게 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을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주체의 붉은 기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백전불굴의 혁명적의지를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의 중요내용과 과업을 명백히 제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9~2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의 기본내용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사상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또한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요구와도 관련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사상밖에는 모른

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반세기동안의 혁명투쟁경험의 총화에서 나온 결론이며 절대적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사상혁명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피가 맥박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혁명의 정수분자로 철저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그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을 사상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하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0페지)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놈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뿐아니라 낡은 착취제도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때려부시고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킨다.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온갖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한 계급의식, 혁명의식으로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로동계급적립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판단하며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당과 함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심오히 밝히시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이 사상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수단

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이며 경제가 한가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대규모집단경리를 이룬 사회이다. 그리고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착취사회와는 달리 근로자들 호상간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요구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게 살며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준비시킬수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로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을 사상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은 사상혁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로동은 사회의 부를 창조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이며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단결시키는 수단입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로동은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는 원천일뿐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을 단결시키는 수단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집단로동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게 되며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공고한것으로 만든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이 하나의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산로동을 진행하는것만큼 이 행정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혁명적으로 개조되고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의 성격과 목적을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

최 화 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기술혁명의 본질과 의의를 심오히 밝히시고 3대기술혁명의 수행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로 가는 길을 휘황히 밝혀준 3대기술혁명로선은 그 위대성, 독창성, 과학성으로 하여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생활을 더욱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참으로 3대기술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사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고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있어서 위대한 전투적강령으로, 강유력한 무기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기술혁명의 본질적내용과 독창성,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심오히 파악하고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수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기술혁명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며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절실한 념원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3대기술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이후시기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수행된 다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어떤 투쟁로선과 투쟁구호를 내놓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이 혁명발전의 요구와 근로대중의 혁명적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투쟁로선을 내걸어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시여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이 중대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은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혁명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1페지)

기술혁명은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이 사회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업이라 하여 그것을 단순한 기술경제적인 사업으로만 보는것은 일면적인 리해이다. 기술혁명의 보다더 중요한 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있다. 기술혁명은 기술을 발전시켜 나라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은 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단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기술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 새롭게 발전시킨것이다. 그것은 기술혁명이 사람들에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립장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 위대한 기술혁명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에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에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의 실현은 나라의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획기적리정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5개년계획과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 기술발전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위력한 공업이 창설되고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새로운 기술로 개건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이 튼튼히 마련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는 사회생산력이 이룩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에 맞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서는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더한층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기술발전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기계화의 높은 단계인 종합적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시함으로써 나라의 기술발전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이다. 이것은 기술발전의 폭과 그 심도에 있어서 선행시기와 구별되는 높은 단계의 과업이며 근로자들의 가정생활령역에서까지 기술문명을 활짝 꽃피울수 있게 하는 보람찬 과업이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우리 나라 기술발전의 순차적로정을 정확히 반영한것이며 기술혁명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지주, 자본가 계급과 온갖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모든 근로자들을 계급적인, 민족적인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는것이다. 착취제도는 사람들의 자주성을 짓밟고 온갖 착취와 질곡을 낳게 하는 사회적근원이다.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려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여야 사람들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기만 하면 근로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이 완성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할뿐아니라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수행하여 높은 생산력수준을 이룩하고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야만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은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주요한 단계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나라의 기술적개조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함으로써 로동에서의 본질적차이를 훨씬 줄이고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로동을 기본적으로 없애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한다.

3대기술혁명과업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육체로동안에서의 차이를 없애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는 그 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라는것은 로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일뿐아니라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도 없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

3대기술혁명은 기술을 발전시켜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음으로써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앨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은 이렇듯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구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다그치며 공산주의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과업들이 완전히 수행되면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로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될것이며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도 없어지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6페지)

3대기술혁명의 완전한 실현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할것이다. 3대기

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우리 나라에서 로동의 본질적차이는 훨씬 줄어들고 로동이 더욱 헐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될것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힘든 로동에서 해방될것이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으면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다루는 행정에서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은 훨씬 높아지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의 실현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이다.

3대기술혁명의 위대한 강령이 실현되면 또한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게 될것이다.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는 그들사이에 소유형태와 사상문화수준에서의 차이와 함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가 남아있는것과 관련된다. 3대기술혁명의 수행은 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새로운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차이를 훨씬 줄이고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사상문화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앨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기술혁명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나라의 기술개조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나가면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것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이 비상히 높아질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은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3대기술혁명방침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에 관한 창조적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의 사명과 기본내용, 그 실현방향과 방도 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기술혁명에 관한 불후의 고전적리론을 창시하시였다.

3대기술혁명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이후시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단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기술혁명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3대기술혁명의 위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기술혁명의 숭고한 목적과 사회주의건설의 매 발전단계에서의 기술혁명의 중심과업, 그 구체적인 수행방도가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졌으며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이 과학적으로 정식화되였다.

로동에서의 본질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로동에서의 차이소멸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뿐만아니라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도 남녀간 로력적부담에서의 차이가 남아있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육체로동안에서의 차이소멸을 3대기술혁명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과학적방도를 밝히시였다. 이리하여 나라의 공업화가 끝난후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로동에서의 차이의 구체적형태와 로동의 차이소멸의 합법칙적로정과 그 순차가 명백히 밝혀졌으며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밝은 길이 열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의 휘황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에서의 차이소멸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3대기술혁명방침은 녀성문제를 종국

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방도를 밝힌 탁월한 사상이다.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녀성들을 온갖 사회적예속과 압박에서 해방할뿐아니라 가정생활을 포함한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그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녀성들을 가정일과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3대기술혁명방침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고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해불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강령이다.

##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6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이미 커다란 결실을 맺었으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3대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기간에 다 완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6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중로동과 경로동간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 사업은 아주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41페지)

3대기술혁명은 우리 당이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길에서 처음으로 개척해나가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가 복잡하며 특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새 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긴장한 조건하에서 매우 힘겹고 어려운 투쟁과업으로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3대기술혁명의 보람찬 과업수행에로 대중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였으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으시였으며 6개년계획수행의 첫전투에서부터 그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공작기계생산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방침은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기본열쇠를 마련하여준 현명한 방침이였다. 이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3대기술혁명수행의 모든 전선에서 보다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수행에서 공작기계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1971년 2월에 몸소 희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새 기술혁신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희천땅에서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불길은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총진군을 알리는 봉화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이행을 다그치는 힘있는 추동력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희천공작기계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 나라의 전체 기계전사들은 희천로동계급의 모범을 따라 생산공정을 대담하게 반자동화, 자동화하고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여 공작기계생산에서 비상히 높은 속도를 창조하는 일대 혁

신을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부문 특히 채굴공업부문의 기술혁명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심으로써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채굴공업부문의 기술혁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방침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탄광, 광산들에서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들며 채취공업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하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탄광, 광산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계공업과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채굴공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것은 채굴공업부문의 기술혁명을 다그치게 할뿐아니라 나라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를 강화하여 전반적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위력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공업부문에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점차 생산공정의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고 여러가지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촌에서 이미 완성된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확대하도록 하시는 한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양땅에 세계 굴지의 뜨락또르생산기지를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방대한 규모의 개건확장공사를 진두에서 지도하여주시였으며 나라의 지형조건에 알맞는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을 생산할수 있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치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린회석광산들을 곳곳에 많이 개발하며 우리 나라 농토와 농작물에 알맞는 갖가지 능률높은 화학비료와 농약들을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하시였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농촌경리부문사업에 대한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의 수행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 기술혁명을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머리속에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는 옳지 못한 관점과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과 전국, 전체 인민이 이 숭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는 거창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에 있다는것을 포착하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

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등 낡은《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기술혁명을 밀고나감에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방침이 더잘 관철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거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이 더욱 커다란 은을 나타내게 하며 3대혁명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수령님께서 십려하시는 기술혁명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지도를 하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속도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서 기술혁명을 내세웠으며 3대기술혁명수행에 제동기를 거는 온갖 잡사상들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전을 힘있게 이끌어나갔다.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하여 당은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과업을 대담하게 내밀데 대한 웅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었다.

당은 특히 우리 나라 굴지의 대야금기지인 황철에서 자동화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를 적극 일반화하도록 함으로써 공업부문에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자동화에로 들어가는 새로운 비약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3대기술혁명의 과업은 빛나는 전망을 펼치고 끊임없이 추진되였으며 보람찬 열매를 련이어 맺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완수하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7페지)

6개년계획을 앞당겨점령하는 힘찬 투쟁속에서 3대기술혁명수행에서는 자랑찬 전진이 이룩되였다.

무엇보다도 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의 기초인 기계제작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지난 4년 8개월사이에 기계제작공업은 2.4배 그중 공작기계공업은 2.6배로 늘어났으며 각종 농기계생산이 3.6배로 장성하였다.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야금공장, 화학공장 설비들을 비롯한 현대적공장설비들과 3대기술혁명수행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300마력불도젤, 10립방메터대형굴착기, 2,500마력중속엔진, 3,000마력고속엔진, 5만키로와트발전기, 20만크바대형변압기, 2,500마력내연기관차, 100톤급자동차, 2만톤짜리 짐배들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만들어내고있다.

공업부문에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가 적극 추진되고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현되였다. 특히 채취공업을 비롯하여 힘든 작업이 많은 부문에서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제철, 제강소들과 전재공업

부문 기업소들에서 산업텔레비죤이 널리 도입되고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유해공정을 현대화하여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에 상응하게 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수송혁명을 일으키는데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3화수송방침이 힘있게 추진되여 무산—청진사이의 대규모정광수송관과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현대적삭도들이 건설됨으로써 수송전선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의 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은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되는 새로운 단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다.

식료가공공업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현대적부엌세간들이 대량 생산공급됨으로써 우리의 녀성들은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을 많이 덜게 되였다.

3대기술혁명의 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는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수하는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웅대한 6개년계획과 그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는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가 가져온 자랑찬 열매이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3대기술혁명을 더욱 힘차게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기술혁명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1~22페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과업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기술혁명의 과업을 하루속히 완수하는것이다.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기술혁명의 과업가운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공업부문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우선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헐하고 능률적인 로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는 현시기 우리 나라 공업에서 기술발전의 기본내용이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주되는 방도이다.

특히 각이한 조건의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아직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채취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굴착기, 석돌캐기, 탄캐기 작업을 비롯한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자체의 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기술혁명수행에서 얻은 성과들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황철에서 창조된 자동화의 위대한 본보기를 따라 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산업텔레비죤과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시하여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운수부문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쳐 이 부문 로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보장할데 대

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운수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관수송을 적극 받아들여 수송전선의 기술장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수송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업부문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모든 방침들은 기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그 현실적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성과적으로 극복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은 길이다.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도 명확히 가르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힘든 로동을 없애는 기본방향은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 접근시키는것이며 이것은 주로 기계화와 화학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내용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농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였으며 기계화와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는 이에 토대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화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녀성들을 가정과 부엌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다.

녀성들을 부엌일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은 인구의 절반을 힘든 로력적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식료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현대적부엌세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은 바로 인민들의 소비생활과 관련된것이며 이것은 경공업 특히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에만 성과적으로 풀릴수 있다. 식료가공공업부문에서는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현대적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제시하신 모든 과업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 남아있는 힘든 로동의 구세적형태들과 근로자들의 각이한 로동조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기술적특성과 도달된 기술수준 등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밝혀주신 기술혁명수행의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요새를 하루속히 점령하여야 한다.

#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최 중 극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서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적로정을 빛나게 총화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휘황한 진망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력사적보고에서 위대한 주체철학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다시금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적으로 해명하신 혁명리론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온 사회의 인테리화문제를 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그 혁명적본질과 수행방도 등을 새롭게 밝히신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문화혁명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차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문화혁명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에서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필수적요구로 나서는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 정하는가 하는것은 문화혁명의 성과뿐아니라 전반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들이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에서 이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규정하심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들로 하여금 뚜렷한 목표와 정확한 리정표를 가지고 문화혁명을 확신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규정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문화혁명의 종국적과업에 대한 과학적분석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문화혁명의 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화혁명이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낡은 착취사회가 남기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이다. 문화혁명의 이 종국적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함으로써만 완수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문화혁명의 종국적과업의 하나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은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는 동시에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문화도덕적풍모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공산주의적인간이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멸의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높은 문화도덕적풍모를 갖춘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를 의미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이러한 인간으로 개조하자면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문화혁명,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은 혁명적인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높은 과학문화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일반지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 혁명투쟁의 원리를 더 잘 깨닫게 되고 계급적립장과 혁명에 대한 각오를 더욱 굳건히 가지게 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풍부한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문화도덕적풍모를 갖출수 있게 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현대적이며 발전된 과학기술지식을 가지자면 대학졸업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기사,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기술수준이 높은 사람만이 공산주의적생활원칙에 기초하여 생산활동을 더욱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현대적문명이 요구하는대로 모든 생활을 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이 사회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함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낡은 착취사회가 남기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계속혁명의 과업의 하나인 문화혁명도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로동생활이 사회생활의 기본분야로 되는것만큼 로동생활에서 온갖 차이를 없애는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뿐아니라 그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까지도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로동의 질과 강도에 따라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가 남아있다. 이것들은 모두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근로자들을 힘들고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그들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 다음에도 낡은 사회적분업의 잔재인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인테리라는 특별한 사회계층이 있게 되는것도 중요하게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이라는 사회적분업이 있기때문이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는 생산력발전수준과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의 차이와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그러므로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기사, 전문가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화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인테리의 수준에 도달할 때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에 복무하는 성원들의 구별이 없어질것이며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분업의 좁은 울타리는 영영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보장받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껏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혁명적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혁명적본질을 밝히신 이 교시에는 인테리화의 계급적성격과 거기에서 도달하여야 할 문화기술수준의 높이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혁명적원칙과 계급적내용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수령님의 이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진행된다는데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과정이다.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사회주의, 공산

주의건설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로동계급이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새롭게 제기한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시기에는 착취계급을 완전히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어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선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과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만일 사람들의 사회경제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전에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구호를 내세운다면 인테리의 낡은 소부르죠아적경향이 사람들속에 퍼지게 되며 그들의 동요성도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확고히 전진시킬수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로동계급이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계급적성격으로 보아 로동계급의 인테리화로 되는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그 계급적성격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인테리화이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인것만큼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인테리화를 실현해나가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혁명적원칙과 계급적본질을 명확히 밝힌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로동계급화된 인테리로 만드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문화기술수준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심으로써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람들의 이 문화기술수준은 공산주의사회의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것이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면 모든 생산부문들이 고도로 조직화되는 동시에 생산공정이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전반적으로 자동화되고 원격조종에로 넘어간다. 이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정도의 수준에로 끌어올릴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이 기사,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해야 공산주의적생활원칙에 기초하여 살며 일해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할것을 요구하며 발전된 과학지식과 기술, 문화를 소유하고 높은 경제관리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운영되는 사회이다.

단순한 생산경험이나 현대적과학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발전된 공산주의사회에서 살며 생산활동을 벌려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성원들이 고도로 발전된 생산과 기술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능숙히 처리할수 있는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야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모든 사회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데 대한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그들모두가 이 사회의

활동방식에 맞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가장 원만히 벌려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에 대해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한 기초우에서 그들이 모두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게 될 때 우리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은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수준에 끌어올리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것만큼 그들모두가 대학공부를 할수 있는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는것과 함께 고등교육체계에서 공부하게 하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하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고중졸업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이 없이는 온 사회의 성원들을 다 고등교육을 받게 할수 없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없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데서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튼튼히 쌓도록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고중정도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거나 지식을 쌓아야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선 사람만이 높은 단계의 교육, 고등교육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빨리 완성해나갈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고중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야 고등교육단계에서 전문화된 높은 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현대과학의 성과를 훌륭히 습득할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하는것은 그들모두를 고등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공부할수 있도록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중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고등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공부하도록 하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과업이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여야 기사,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출수 있으며 사람들의 문화기술상 차이를 완전히 없엘수 있다.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날 때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은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될것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과업은 가장 빛나게 수행될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고등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공부하도록 하는 방침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혀준 위대한 방침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문화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나가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

리 나라에서만이 문화혁명의 가장 높은 단계의 과업인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초등, 중등,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통하여 오늘은 전반적11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1년제고중의무교육은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로 하여금 학교기간에 앞으로 고등교육을 훌륭히 받을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추게 하며 초등, 중등, 고등 교육간의 련계를 옳게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이 교육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은 일반기초지식을 튼튼히 쌓음으로써 학교를 졸업한후 직접 대학에 가거나 자습을 하여 대학과정을 훌륭히 마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에 의하여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고중정도뿐아니라 대학공부까지 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나라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과 국가, 경제사업에서는 물론 교육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데 대한 혁명적방침이 교육사업에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모든 새세대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지덕체를 갖춘 열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고있다. 당중앙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하여 오늘 우리 학교들의 물질적토대는 비상히 강화되고있으며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또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혁명적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가고있으며 그들의 학습생활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들이 날로 더욱 튼튼히 마련되여가고있다.

우리에게는 가장 선진적인 위력한 사회주의제도가 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특히 오늘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학습과 문화생활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화혁명의 높은 단계의 과업인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이룩한 문화혁명의 성과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문화혁명의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화혁명의 종국적과업으로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문화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며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감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더욱 확신성있게 점령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발전에서 불멸의 탁월한 기여를 한 독창적방침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해명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

명사상과 리론에서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해명되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중요한 문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인민대중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해 나가려는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구현한 사상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문화기술수준 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인민대중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는 동시에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자기의 재능과 열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보다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게 되였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혁명과 건설에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함으로써 그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명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계급사회가 출현하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대립과 차이가 있게 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그 차이를 어느때 어떤 방법으로 없애는가 하는것은 아직 리론적으로 해명되지 못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명하심으로써 계급사회가 남겨놓은 잔재와 불평등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공산주의의 봉우리를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점령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과 인류의 사상사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문화혁명의 최종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이 땅우에 공산주의의 지상락원을 더욱 앞당겨건설하여야 할것이다.

#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담보

김 원 혁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 접하여 지금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으며 수령님께서 밝히신 길을 따라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갈 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보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영광에 찬 반세기의 로정을 심오히 총화하시고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의 앞길을 다시금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사상리론으로 조국통일문제의 혁명적본질을 새롭게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기본방침과 함께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평화협정체결,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형성, 남북련방제실시 등 획기적인 방안들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을 이룩함으로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영구분렬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의 새 국면을 주동적으로 마련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형성에 관한 이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통일전선의 빛나는 전통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빛나게 관철해나가는것은 오늘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철저히 고립약화시키고 거족적투쟁으로 통일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의 본질과 성격, 민족대단결을 실현할수 있는 주객관적요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획기적이며 합리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3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우리 나라의 민족내부문제해결에서 기본요인은 우리 인민의 민족주체적력량이라는 확고부동한 주체적립장에서 통일전선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탁월한 방침이다.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것은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의 합작을 기본으로 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정치적련합을 실현하는것을 의미하며 그 본질적요구는 북과 남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현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주체적력량으로 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가장 탁월한 혁명력량편성방침으로 되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며 전민족적력량을 통일위업에 어떻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의 혁명적본질과 전민족적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33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상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누가 먹고 먹히우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본래 통일된 한민족이 미제에 의한 인공적인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만 분렬로 인한 민족적고통을 없애고 빼앗긴 령토와 인민, 짓밟힌 민족적자주권을 도로 찾을수 있으며 전조선사회의 통일적인 발전과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 이것은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와 한결같은 숙망을 실현하는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계급계층에 한한 사업이 아니며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 거족적사업으로서 오직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정확한 방침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 통일문제해결에서 조선인민의 주인된 자각과 역할을 높이고 민족주체적력량을 비상히 확대강화한다는데 있다.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사회혁명이나 민족의 재통일과 같은 거창한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요구이다.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우세를 보장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도 구경은 반통일세력에 비한 통일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는데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연군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된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되여야만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의 합작을 실현하고 그를 통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만 력량관계를 통일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통일도상의 모든 장애와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영구분렬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통일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족통일전선사업은 북과 남의 각계 각층 인민대중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촉진하며 더

욱더 광범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투쟁속에서 단결과 련합, 민족대단결의 필요성을 절절히 깨닫게 함으로써 통일위업을 발전시키고 그 결정적시기를 앞당기게 한다. 남북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은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에 굳게 결속될 때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분산성과 비조직성을 극복하고 민족적력량을 총동원하여 투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그 실현의 실제적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고 합작할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이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입니다.》**(우와 같은 책, 33～34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애국자와 매국자,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세력과 분렬주의자들사이의 치렬한 투쟁이며 결코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사이의 투쟁으로는 될수 없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형성에서 유일한 기준은 그가 제국주의침략자와 사대매국노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지지하는가 안하는가에 있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에서의 차이는 결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결하지 못할 조건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비록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고 사상과 정치적리념은 다르지만 조국통일문제에서는 모순이 있을수 없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어느 공산주의자나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외래침략자들에게 민족적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며 동포형제들이 갖은 민족적모욕과 불행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조선에서 태여나고 이땅에 생을 둔 조선사람치고 민족의 영구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무슨 민족적량심을 론할수 있으며 삶의 보람을 말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오늘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고있는데 하물며 한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합작하지 못할 리유란 없는것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지역에서 살건 어느 계층에 속하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다같이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조선인민에게는 자기의 민족문제를 능히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힘이 있고 신념이 있으며 높은 민족적자부심이 있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았으며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민족적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해온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력사적으로 통일된 국가를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공산주의적리념으로 보나 민족주의적리념으로 보나 결코 허용할수 없는 일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로 말하면 언제나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

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삼고있다. 공산주
의자들은 민족적존엄과 리익의 가장 철
저한 수호자이고 열렬한 대변자이며 진
정한 애국자이다.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외래침략세력과 매국노, 고용분
자들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
들의 투쟁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통일
을 생각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과 민
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은 얼마든
지 단결하고 합작할수 있으며 통일은
오직 민족대단결에 의해서만 성과적으
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또한 통일전선의 빛나는
전통과 고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
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통일전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
를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
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
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
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시여 조국
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전선운동의
이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시여 조국해방
후 전체 인민을 경제의 부흥발전과 새
민주조선 건설에 조직동원하시였으며 민
주주의혁명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단계
에서도 통일전선정책을 빛나게 구현
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조국분렬의 위
험이 닥쳐온 엄중한 시기에는 몸소 남
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
의를 소집하시고 남북의 애국력량, 지
어는 민족적량심을 버리지 않은 우익정
당과 인생을 두고 《반공》을 하던 완고
한 민족주의자들까지도 조국의 통일독
립을 위한 하나의 공통된 목적밑에 종
단합시키시여 구국의 길에 나서도록 하
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
방후 북반부에 조직된 민주주의민족통
일전선과 그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
기 위한 보다 확대된 통일전선체로 결
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그리고 남
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방침 등은
바로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을 망라하는 련합형태의 통일전선의 빛
나는 모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통일전
선에 관한 사상과 리론, 그 빛나는 전통
과 업적, 풍부한 경험은 오늘 우리 공
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합작을 실현하며 전국적인 민족통일전
선을 형성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
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인, 종교
인,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
은 지난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이 조국의 광복과 통일독립
을 위하여 함께 싸운것처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
성하고 통일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서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
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지
켜야 할 원칙적립장과 구체적방도를 밝
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국적인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
성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서로 존
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차이점은 뒤로
밀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4페지)

북과 남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것
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며 공통
점을 찾는데서 기본전제로 되며 선차적
요구로 나선다.

오늘 북과 남사이에는 일련의 문제를
에서 반목과 불신이 조성되고있다. 이
러한 불신을 없애지 않는다면 차이점은
더 커지고 단절을 촉진할수 없게 된다.
북과 남사이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
이와 불신,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제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말
미암아 산생된것으로서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이룩하지 못할 절대적인 근원으
로 될수 없다. 문제는 북과 남이 차이
를 론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립장에 서며 통일에로 가는 길을 공동으로 헤쳐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다.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적리익에 복종하는 최대의 원칙에 서서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공통점을 찾아내고 단결을 촉진시켜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을 반대하지 않으며 남조선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는것과 같이 모든 선진사상과 사회제도는 밖으로부터 강요될수 없으며 그것은 인민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되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어느 정치, 어느 사상,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다면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민족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어느때든지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들과 단결하고 합작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기어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적립장과 한없이 넓은 민족적아량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계급적처지와 사회적지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함께 손잡고 나가며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끝까지 포섭해나갈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남조선에서 이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시급히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5폐지)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반공》소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이 횡행하고있는 조건에서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란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적단합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반공》은 제국주의식민지파쑈통치의 필수적동반자이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온갖 민족적박해와 불행을 들씌우면서 《반공》을 휘둘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반공》의 구실밑에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신을 조성시켰다. 사대매국노들인 남조선의 력대괴뢰들도 예외없이 《반공》광신자들이였다. 실로 남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반공》파쑈통치는 그동안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통일을 주장해온 애국자들에게 얼마나 악형을 들씌우고 수많은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갔던가. 력사는 《반공》이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범죄이며 이에 매달리는자들이 멸망을 피치 못한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반공》은 민족적존엄과 리익의 가장 엄중한 침해이고 유린행위이며 따라서 그것은 조국통일과 결코 량립될수 없다. 통일문제해결에서 《반공》을 표방하는것은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시키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것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이 진심으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란다면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련공이란 공산주의자들과의 련합을

의미하는것으로서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꿀데 대한 사상에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을 그만두고 공산주의자들과 단결하고 합작하고 통일할데 대한 요구와 남조선에서 《반공법》을 없애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지 말데 대한 요구가 담겨있다.

민족적존엄과 리익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는 공산주의는 이미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리념으로 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는 통일할수 없으며 련공하는 자세만이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원칙에 부합될수 있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서는 대결과 경쟁, 공존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단결하고 합작하며 통일을 실현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외세에 의한 인공적인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통일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무엇때문에 대결과 경쟁이 요구된단말인가. 공존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그것은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민족들사이에 제기되는 문제이며 한민족안에서 공존을 주장하는것은 결국 분렬을 영구화하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이른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부르짖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은 민족대단결을 방해하고 민족의 분렬을 고착시켜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 민족반역행위이다. 대결과 경쟁은 분렬의 길이며 단결과 합작은 통일의 길이다.

만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 당의 정당한 주장과 제안을 외면하고 계속 대결과 분렬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인민들의 더욱더 커다란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킬것이다.

오늘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군사파쑈폭압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도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43개국 결의안이 압도적다수표의 찬성으로 채택된 사실은 바로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커가고있는가를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형성에 관한 획기적방침은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의 혁명적본질과 성숙된 주객관적요인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탁월한 통일방안이며 구국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방침은 다른 모든 통일방안과 함께 그 정당성과 위대성으로 하여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형성에 관한 탁월한 방침이 천명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량편성에서는 새로운 획기적국면이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빠른 로정을 거쳐 해결해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광범한 민족통일전선형성에 관한 방침이야말로 우리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민족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철저한 주체적립장,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인 구국대책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결정적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거족적투쟁을 벌림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일관한 원칙

양 문 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를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새로운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지난 30년동안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커다란 혁명적전환과 우리 당이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분석총화하시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혁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와 세계혁명의 전략적방침들을 심오하게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선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며 그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치게 하는 위대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탁월한 혁명적방침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정확한 지도사상과 전략적방침을 제시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의 모든 경험을 일반화하시고 우리 시대에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현시기 가장 광범한 혁명력량을 묶어세우고 세계혁명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과 방침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일관한 원칙입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0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혁명투쟁은 그 성격과 해결

하려는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다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인것이다.

바로 우리 시대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사회주의가 한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인 범위로 발전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의 거세찬 폭풍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있다. 국제혁명력량이 빨리 자라난 반면에 제국주의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였으며 특히 미제는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 급속히 쇠퇴몰락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며 남에게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결코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자본주의나라인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우리 시대의 이 기본추세를 반영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의 뉴대를 튼튼히 하고 그들사이의 단결을 촉진시켜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게 함으로써 매개 나라 혁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게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여나갈 때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더욱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게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시대의 혁명하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의 국제관계 발전과 세계혁명력량편성에 관한 탁월한 전략사상이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촉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혁명적기치로 된다.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발전에서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3세계는 저주로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터전우에 일떠선 자주적인 민족들의 새로운 세계이며 자주성의 시대를 떠메고나가는 생기발랄한 신흥세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하는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우리 당대외정책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천명하시면서 제3세계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세계혁명력량가운데서 제3세계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3세계는 사회주의력량의 믿음직한 동맹군으로 되고있으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새로운 평가는 제3세계에서 일어난 력사적인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제3세계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력사의 한갖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온 제3세계인민들이 오늘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제3세계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는 세계적인 혁명운동으로 강화발전하였으며 이 투쟁속에서 수억만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서고있

다. 민족해방혁명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하나의 흐름에 합류되고있다. 이것은 세계무대에서 사회주의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며 세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켜주고있다. 또한 제3세계는 현시기 반제투쟁의 기본무대로 전환되였다. 제3세계인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 계급적, 인종적 압박과 천대를 가장 많이 받아온 인민들이며 오늘도 제3세계와 제국주의자들사이에는 의연히 심각한 모순들이 뒤엉켜져있다. 그러므로 오늘 제3세계는 가장 치렬한 반제전선으로 되고있으며 여기에는 혁명하는 나라들이 집결되여있다.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온갖 침략과 간섭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오늘 제3세계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마지막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준엄한 결전장으로 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제3세계의 혁명운동이 국제프로레타리아운동의 단순한 후비군이 아니라 사회주의력량의 믿음직한 동맹군이며 현시기 반제투쟁의 기본전선을 담당하고 세계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주되는 력량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3세계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이 신흥세력이 하나의 단합된 혁명력량을 이룩하여 반제자주의 혁명위업을 더욱 촉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우와 같은 책, 41페지)

혁명하는 인민들이 서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위업자체의 요구이며 혁명발전의 객관적필연성이다.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련합을 이루고있는것만큼 국제적인 투쟁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을 이루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피압박민족들은 오직 단결된 투쟁에 의해서만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릴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특히 제3세계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이 신흥세력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제3세계나라들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고 그 힘이 급속히 장성강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공포에 떨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제3세계의 력량을 분렬시키고 우익에로 돌려세워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제3세계나라들을 반혁명적폭력으로써 굴복시켜보려고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악랄한 무장간섭과 전복음모, 토끌적인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벗》으로, 《원조자》로 가장하면서 이 나라들에 기여들어 혁명력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책동하고있다. 특히 놈들은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좋게 가지면서 침략의 예봉을 작은 나라들에 집중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을 혁명대렬에서 하나하나 떼여내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최대한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단결된 력량으로 제국주의반동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제3세계인민들은 단결과 협

조를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각개격파전략을 짓부시고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으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제3세계나라들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3세계인민들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은 그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천대를 받아왔으며 오늘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에 일떠선 혁명적인민들이다. 따라서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긴밀한 뉴대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나라들사이에는 서로 반목하거나 배척할 아무런 리유와 근거가 없으며 오직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단결하고 협조하는 친선적인 관계만이 있다. 그러므로 제3세계나라들은 과거와 현재의 처지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굳게 결합될수 있다.

또한 제3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지향하고있는 자주성은 그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굳게 단결시킬수 있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제3세계나라들 가운데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도 있고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나라도 있으나 이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있는 것은 자주성이다. 자주성은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자주성의 원칙은 그자체가 모든 민족들사이의 평등과 호상존중을 요구한다. 자주성이 확고해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립장과 일관한 원칙을 지켜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근본리익을 옹호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거나 남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며 결국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에 다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함에 있어서 자주성에 기초하고 자주성의 원칙적규범들을 정확히 준수해야 그들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이 신흥세력의 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온갖 침략과 간섭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민족해방혁명의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앞에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발전시키며 제3세계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할 력사적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시기 국제무대에서의 ·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제3세계인민들의 당면한 투쟁임무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3세계인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세계정치무대에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인민들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완전히 끝장내야 하며 강대국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불합리한 국제기구들을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리익**

을 위하여 복무하는 기구로 전변시켜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2~43페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국제기구와 국제관계질서들은 저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식민지통치의 유지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세계의 대다수나라들이 이 낡은 질서에 의하여 강대국들의 전횡의 희생물로 되여왔다. 그렇기때문에 낡은 국제관계를 변혁하기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은 이미 쟁취한 민족적권리를 대외분야에서까지 실현함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뿐만아니라 이 투쟁은 세계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국제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위력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불합리한 국제기구를 개편할데 대한 방침은 현실적가능성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지난날 자기들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낡은 국제관계질서들을 짓부시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원료 및 개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에서 제3세계나라들이 자기의 리익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질서확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한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국제무대에서는 낡은 국제관계질서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엎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더욱더 부합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유엔에서도 제3세계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날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더는 유엔을 제멋대로 좌지우지 못하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짓부시고 낡은 국제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개변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더 큰 승리를 이룩할 때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는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 더 잘 실현되고 국제관계는 자주성의 기초우에서 건전하게 발전될것이며 인류의 진보가 더욱 촉진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3세계나라들이 정치적단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한다면 큰일을 할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나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

지금 제3세계나라들앞에는 오랜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초래된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자기의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자기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가져야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진실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것을 면할수 없으며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제3세계나라들앞에 나선 이 절박한 과업은 바로 매개 민족국가들에서 자력갱생하여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과 함께 국제적범위에서 경제협조 특히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를 강화함으

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는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을 받던 인민들사이의 협조로서 그것은 아무러한 사심도 없이 오직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진행되는 참다운 협조이다. 그것은 목적과 지향이 정당할뿐아니라 그 실현의 객관적조건과 현실적가능성에 확고히 립각하고있다.

제3세계는 경제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제3세계에 있는 무진장한 자연부원과 경제적잠재력은 이 나라들이 호상교류를 통하여 자기의 절실한 경제적요구를 해결하며 그들의 민족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제3세계나라들은 풍부한 경제적잠재력과 함께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들도 많이 가지고있다. 100여개에 달하는 제3세계나라들이 선진적인 경험과 기술을 한가지씩만 제공하여도 100가지이상의 가치있는 경험과 기술을 교류할수 있다. 제3세계나라들이 서로 아는것을 배워주고 모르는것을 배우며 유무상통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별로 없으며 참으로 큰일을 할수 있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협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때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튼튼한 민족경제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짓부셔버릴수 있다.

경제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제3세계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혁명적인 나라들에 의거하여 나라의 자원을 자기 민족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개발리용함으로써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빨리 건설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위기를 더욱 격화시켜 그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조선인민과 제3세계인민들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하는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과 그이께서 밝혀주신 혁명적방침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으며 그들을 제국주의의 패망을 다그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혁명하는 제3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나갈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나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성스러운 공동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예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탁월한 방침

천 세 봉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새로운 승리봉을 향하여 총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벅찬 현실은 혁명적문예작품창작에서 더욱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가들은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의 승리에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주체의 력사적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문예작품창작에서 확고히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창작가들의 전투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기수가 될데 대한 당의 사상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수행에서 작가, 예술인들과 혁명적작품이 노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천재적인 통찰에 기초한 탁월하고도 독창적인 지도적지침으로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당의 가장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의 표시로 된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기수로 맨 앞장에 세워주고 그 영예롭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빛나게 다할수 있도록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에서는 문예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부정선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아동문학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현실침투를 강화하며 현실체험을 풍부히 쌓을데 대한 문제, 정치적안목과 식견을 넓힐데 대한 문제, 문학예술지도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등 창작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으며 그 구현을 위한 문학예술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으로 하여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더욱 찬란히 꽃피여나고있다.

* *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문학예술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사회주의현실이 요구

하는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 당은 혁명적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무엇보다 먼저 작가, 예술인들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창작적개성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창작가로 되게 할데 대한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히였다.

문학예술작품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이고 개성적특성이 있어야 읽을 맛이 있고 볼 재미가 있다. 비반복적인 독창성이 없는 작품은 인식교양적기능을 다 할수 없다. 작가와 작품의 비반복적인 독창성은 그 존재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발전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작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자면 창작사업에서 작품의 존재가치를 보장하는 창작가의 개성적특성을 잘 살리야 한다.

창작가의 개성적특성과 창발성을 살리는것은 이처럼 개성적이며 비반복적인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이다.

그것은 또한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로써 이루어지는 전형화를 법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본질적요구이며 날을 따라 비상히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미학적수요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을 더욱 참신하고 다양하게 꽃피워 그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여야 할 우리 문학예술의 사명으로부터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작가, 예술인들의 개성적특성과 창발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처럼 시대와 혁명발전 그리고 문학예술발전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한 주체적인 문예사상이다.

창작적개성문제는 문예리론과 창작실천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여 왔으나 완전한 과학적해명을 보지 못한채 남아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작적개성을 살린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밝혀주었다.

당중앙은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였다.

우리 당의 고전적정식화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형상을 창발적으로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인간의 사고방식, 성격, 지성, 감수성, 기질 등의 차이로 하여 창작적개성은 같지 않게 나타난다. 한 개성이 다른 개성과 구별되는 차이점과 독자성이 개성적특성을 이룬다.

창작가에게 있어서 이 독자적인 개성적특성은 형상창조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그것으로 하여 예술적형상은 새로운 맛과 비반복성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개성적특성이 예술적형상에 새로운 맛과 비반복성을 부여한다는것은 개성적특성이 곧 형상의 비반복성과 독창성을 보장하는 창발성으로 작용한다는것을 말하며 따라서 개성적특성은 형상창조에서 독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창작적개성은 예술창조의 능력으로 된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이 노는 역할은 작품이 새로운 맛과 비반복성을 가지도록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게 한다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이 가지는 본질적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개성을 살린다는것은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을 말하며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예술적형상에 새로운 맛과 독창성을 부여하는 힘으로 되는 창발성을 살린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무릇 개성과 개성적특성이 다 가치있는것은 아니다. 창작가의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창작을 제멋대로 하는 《창작의 자유》나 개인의 그릇된 주관을 허용하는것과는 추호의 인연도 없다. 비록 그것이 이른바 비반복적이고 독창적인것이라 해도 근로인민대중에게 가치있고 유익한것으로 되지 못한다면 참다운것으로 될수 없다. 개

성적특성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형상창조에 이바지하는 힘으로 될 때만이 참다운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창작적개성으로 하여금 참다운것으로 되자면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여야 창작가의 개성적특성이 자기의 개인적제한성과 부족점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풍부화되고 건전하게 피여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창작적개성과 그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의 본질과 그 규정성을 밝힌 우리 당의 고전적정식화가 가지는 진리성과 과학적정당성이 있다.

우리 당은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밝힌데로부터 출발하여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과 창발성을 살릴데 대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당중앙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인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며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에 집체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창작지도에서 개성적특성이 마음껏 살아나도록 계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우리 당의 이 사상은 작가, 예술인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가진 창작적개성으로 꽃피우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며 개인의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며 개인의 기발한 착상과 발기를 적극 조장발전시키면서 제한성을 극복하게 하는 지도적지침을 주는 혁명적방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밝힌 공산주의적창작개성론은 작가, 예술인들의 개성적특성과 창발성을 살려야 할 필연성으로부터 창작적개성의 본질 그 구현방도에 이르기까지 전일적인 체계를 이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문예리론으로서 그 내용의 심오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중앙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벌어지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혁명적문학예술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정책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영웅적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인민들의 생활을 잘 모르고서는 우리의 현실을 옳게 그릴수 없으며 오늘의 산 인간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내면세계를 제대로 반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의 전진운동을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44페지)

우리 당은 현실침투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창작가들이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풍부히 하면서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였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문학예술과 현실생활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인간생활을 현실그대로의 생동성과 구체성 속에서 진실하게 그릴것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와 공산주의적창작전투형식인 속도전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창작가들을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패기와 정열에 넘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은 오직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장엄한 현실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창조될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며 생활체험을 풍부하게 쌓는것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진지하게 하여야 혁명과 건설이 절실히 요구하는 좋은 종자를 골라쥐고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된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를 생동한 생활세부를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자기의 심장을 혁명적열의와 창작적충동으로 불태우면서 예술적허구와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 속도전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밝힌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풍부히 하면서 사색하고 창작할데 대한 방침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에 문학예술을 따라세우며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질을 높이게 하며 창작가들로 하여금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하는 기수로서 사람들과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전투적사명을 훌륭히 다하게 하는 탁월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개성을 살리며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정치적안목을 높이고 식견을 넓힐것을 가르치였다.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안목과 식견을 넓힐데 대한 당의 사상은 그들을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우월성을 활짝 꽃피움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창작가로 되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창작가들이 정치적안목이 높아야 당 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수 있으며 현실반영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전형화의 수준을 높일수 있다. 이와 함께 창작가가 막힘없이 박식하고 기술실무적자질이 높아야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사상적깊이와 예술적생동성을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요구대로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자기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의 자매예술을 학습하여야 한다.

당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선을 옳게 그려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긍정적인것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것이 있고 적극적인것은 반드시 소극적인것을 동반하는것이 현실이며 투쟁을 통해서 긍정적인것이 승리하고 부정적인것이 극복되여가는것이 생활의 법칙입니다.》(우와 같은 책, 15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긍정적인것이 있으면 부정적인것이 있고 긍정적인것이 부정적인것을 극복해나가는것이 생활의 법칙이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은 사상분야에서의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수행과정을 진실하게 그리자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을 응당 잘 그려야 한다. 이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잘 그려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새것을 적극 옹호조장하고 낡은것을 철저히 극복하는 전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을 반영하는데서 새것, 긍정적인것을 잘 그리는것과 함께 낡은것, 부정적인것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을 옳게 그려야만 현실발전의 합법칙성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작품의 구성을 현실생활의 예술적축도로 되게 할수 있으며 작품에 극성을 부여하고 인간성격을 우여곡절을 통해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그러므로 긍부정의 호상관계를 잘 그리는것은 작품의 구성을 생활의 법칙에 맞게 짜며 예술적형상의 감동성을 보장하는 원칙적요구로 된다. 이 요구가 해결되지 못하면 작품이 진실하지 않을뿐아니라 읽을 맛이 없고 단조로움을 면할수 없다.

우리 당은 부정을 그리는 목적이 그것을 조장하기 위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데 있다고 가르치였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부정선을 그리는 목적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면 좌우경적편향을 나타낼수 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이 부정선을 그린다고 하여 사회주의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요소를 일면적으로 과장한다면 현실을 외곡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되며 반대로 부정적인것을 외면한다면 현실을 미화분식하게 되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동지적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긍정이 지배적이고 부정이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지배적인 긍정의 힘에 의하여 부정이 교양개조되여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을 진실하게 그리려면 긍정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긍정의 힘에 의하여 부정이 교양되는 사상투쟁과정으로 그려야 한다. 바로 여기에 부정선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가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의 계승자인 후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아동문학발전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였다.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후대들을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자면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넣어주어 주체의 혁명관을 세워주어야 한다.

인간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세계관의 골격이 서가는 어린시절이다. 그것은 유년시기와 청소년시기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진취성과 배우려는 열의가 강하며 어려서 형성된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성장에서 오래동안 공고한 흔적을 남기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교양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의 심리정서적특성에 맞는 위력한 사상교양의 무기로서 아동교양을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아동문학의 모든 형태들은 정서교양과 지능형성만 추구할것이 아니라 일관하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세워주는 사상교양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의 혁명적아동문학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대로 어린이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넣어주어 주체의 혁명관을 세워주는 사상교양의 무기로 되여야 하며 아동들의 년령적, 심리정서적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자기의 감화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은 또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창작가들이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뿐아니라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문학예술지도기관들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당의 이 가르침은 문학예술지도기관들이 자기의 사명에 맞게 창작가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불러일으키는 산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문예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탁월한 방침은 그 사상의 심오성과 독창성, 정당성으로 하여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성격창조를 통하여 예술적으로 훌륭한 해답을 줌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 실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거둔 위대한 승리와 찬연한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을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과 창발성을 적극 살리며 정치적안목을 높이고 식견을 넓힐데 대한 당의 방침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으며 창작실천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창작에서 죽음으로 되는 류사성과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혁명적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게 되였으며 개성적인 문체와 비반복적인 얼굴을 가진 작품들로 백과주렁진 주체문학예술의 대과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고있다. 이처럼 작품의 개성적특성이 살고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이 자기의 특성을 혁명적으로, 현대적으로 꽃피워나감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사상적으로 더욱 깊이있고 예술적으로 더욱 참신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빛나게 형상한 혁명적인 소설과 서사시, 미술작품들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참신성,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낸 《피바다》식 혁명가극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얼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영화예술은 혁명과 건설이 요구하는 초미의 문제들에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빛내고있으며 당보의 사설과 같이 우리의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부드럽고 우아하고 유순한 우리의 음악과 아름답고 고상하고 섬세한 민족무용,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예술적유연미와 탄력성, 조화미로 뛰여난 우리의 교예는 내용의 혁명성과 독창적인 개성으로 우리의 문학예술을 더욱 풍만하게 하고있으며 온 누리에 주체예술의 찬연한 빛을 뿌리게 하고있다.

우리의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을 강화하며 사회주의현실반영에서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을 잘 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전투성과 선도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다하고있다.

우리의 창작가들속에서는 당정책이 구현되고있는 현실속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창작하는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창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성있는 종자를 잡아쥐고 창조적열정과 혁명적기백에 넘쳐 현대성이 강하고 전투성이 높은 혁명적작품을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왕성하게 창작해내고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상전의 힘있는 무기로서 자기의 전투성을 남김없이 나타내고 있는것은 바로 사회주의현실을 생활의 법칙, 투쟁의 법칙에 맞게 잘 그려내여 있다. 우리의 영화예술과 소설문학이

긍정을 지지하고 일반화하는 긍정옹호정신과 부정을 교양개조하는 비판정신을 강화함으로써 당의 수중에 장악된 사상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는 실례가 그것을 남김없이 확증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예작품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구성의 립체성과 극성이 강화되고 정서적감동성이 높아졌다.

아동문학창작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아동문학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졌을뿐아니라 아동문학의 사상주제적내용이 깊어지고 다양해졌으며 특히 동화, 우화 창작에서 새로운 전진이 일어나고있다. 그리하여 아동문학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 자기의 위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지도기관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있을뿐아니라 창작지도에서 행정실무적지도방법을 극복하고 정책적지도와 집체적지도, 계발식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여주고 창발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밝힌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예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더욱 풍부히 하고있으며 문학예술을 주체의 혁명위업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게 하는 탁월한 지도적지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는 당의 혁명적문예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할것이다.

근 로 자 제12호(루계 40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5년 12월 1일 발행•1975년 12월 5일
ㄱ—55359 값 50전

# 1975년도 《근로자》차례묶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페지



## 편 집 국 론 설



* *

## 혁명전통



## 당 건 설



## 정치사상문제

## 경 제 건 설



## 남 조 선 문 제



＊ ＊



## 국 제 문 제